

# 요한복음 강해

## “The Lessons from the Book of John”

by

**Don Fortner**

번역: 박영호

# 요한복음 강해

## “The Lessons from the Book of John”

by

**Don Fortner**

© Don Fortner 2016.  
All rights reserved.

My desire is not to restrict, but to further the use of the materials in this book. Any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 prior permission.

Don Fortner  
2734 Old Stanford Road  
Danville, KY 40422



## 목 차

- 1 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 2 장. “태초에”
- 3 장. 영원하신 그리스도
- 4 장. “하나님께서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 5 장.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가?
- 6 장. 하나님의 희년 전갈
- 7 장. 그리스도의 충만 우리의 끊임 없는 공급
- 8 장.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세 가지 질문
- 9 장.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10 장.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 11 장.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 12 장. 베드로에 대한 네 번의 부르심
- 13 장. “간사한 것이 없도다” — 과장이 없다!
- 14 장. 계시된 영광 — 믿음의 창조
- 15 장. 분노, 인내 그리고 믿음
- 16 장. “거듭남” 무슨 의미인가?
- 17 장.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 18 장. 늦밤의 비밀
- 19 장. 침례자, 신부, 그리고 신랑
- 20 장. 죄인의 회심을 위한 다섯 가지 필요 사항
- 21 장. 축복된 은혜의 매임
- 22 장. 은혜로운 두 이야기
- 23 장. 그리스도 구원의 우물

- 24 장. 행로에 곤하여
- 25 장. 만일 내가 알았더라면...
- 26 장. “어디서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 27 장.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혹은 드러난 죄
- 28 장. 다섯 남편과 한 남편
- 29 장. 예배
- 30 장.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진정한 예배
- 31 장.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 32 장. 구원 받은 수가성의 죄인
- 33 장. 두 사람의 위대한 혼의 승리자
- 34 장. 모든 보석 중 가장 귀한 보석
- 35 장. 다른 사람이 수고한 곳에서 거둠
- 36 장. 그 여인으로 인하여
- 37 장. 어떤 사람만을 위하여
- 38 장.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
- 39 장.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 43 장.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는가?
- 44 장. 그리스도 없이 계산함
- 45 장. 어둠 속에 홀로
- 46 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
- 47 장. 인침 받은 어떤 것들
- 48 장. 함께 실에 꿰인 세 개의 진주
- 49 장. 부서진 자유의지 — 높여진 대가 없는 은혜
- 50 장. 어려운 말 아니면 먹기 위한 달콤한 떡
- 51 장. “그 때로 부터”

- 52 장.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 53 장. 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증오를 받는가?
- 54 장. “그가 어디 있느냐?”
- 55 장. 성전 가르침
- 56 장. 목이 마른가?
- 57 장. 그리스도 분열의 원인
- 58 장. “여자 외에 아무도”
- 59 장. “나는 세상의 빛이니.”
- 60 장.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 61 장.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심
- 62 장. 참 목자와 거짓 목자
- 63 장. 양
- 64 장. “내가 문이니”
- 65 장.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 66 장. 그리스도의 대가 없는 순종
- 67 장. 샅꾼과 목자
- 68 장. 확인된 영벌
- 69 장.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 70 장.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 71 장. 베다니의 축복 받은 가족의 공과
- 72 장. 부활한 나사로 — 거부할 수 없는 은혜
- 73 장.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나?
- 74 장. 우리 친구들이 잠들었다
- 75 장. 그리스도 우리 부활
- 76 장. 놀라운 사랑

- 77 장. 주권과 조력
- 78 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
- 79 장. 대속 -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함
- 80 장. “유월절 엿새 전에”
- 81 장.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 82 장.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 83 장. 세상의 위기
- 84 장. 십자가의 매력
- 85 장.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 86 장. “이 인자는 누구냐?”
- 87 장. 책무, 질책, 파멸
- 88 장. “그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노라”
- 89 장. 온전하게 사랑 받음
- 90 장. 때가 되어 분명해진 어두운 섭리들
- 91 장. 발을 씻으심
- 92 장.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
- 93 장. 유다와 하나님의 영광
- 94 장. 파멸에 준비하라-백성 안에서 영광 얻으신 그리스도
- 95 장. 근심된 마음을 위한 안도
- 96 장. 일곱 가지 약속들
- 97 장. 경이로운 비밀
- 98 장. 경고인가 약속인가
- 99 장. 죽임 당한 자부심
- 100 장.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 101 장. “더 큰 사랑이 없나니”

- 102 장. 택정하심의 사랑
- 103 장.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 104 장. 고난에 대하여 준비됨
- 105 장. 보혜사
- 106 장. 유익과 위로
- 107 장. 확신의 위로
- 108 장. 의의 확신
- 109 장. 심판의 확신
- 110 장. 주의 기도
- 111 장. “영생은 곧”
- 112 장. 그리스도의 “내가 하였사오니”
- 113 장.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 114 장.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 115 장.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대한 영원한 사랑
- 116 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 117 장. 겻세마네의 주권자
- 118 장. 사로 잡히고, 결박되고, 멀리 끌려가신 예수
- 119 장.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 120 장.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 121 장. “보라 이 사람이로다!”
- 122 장. 우리 주의 십자가형
- 123 장. 십자가에서의 일곱 가지 말씀
- 125 장. “다 이루었다!”
- 126 장. 부활로부터의 공과들
- 127 장. 무덤은 비어 있지 않았다

- 128 장.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129 장.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130 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31 장. “네게 무슨 상관이나?”  
132 장. “이 외에도”

## 1 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도 요한은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복음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다. —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20:30-31). 요한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복음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전갈을, 그 사실을 분명하고 단호하며 아름답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1:1-2).

이 스물 하나의 장을 통하여 사용된 한 마디 말이 있다. 그 말은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한 열쇠이고, 영적 생명과 영적 지식과 영적 이해로의 열쇠이다. 그 말은 “믿는다”이다. 그의 의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소유할 것이다.”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믿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바란다.

### 특징적인 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들이 각각 우리 구원자의 세상 삶과 사역에 대하여 순서대로 잘 안배된 이야기를 (대부분

에 있어서)동일한 사건들을 다른 방법과 다른 목적으로 서술하며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라고 부른다. 요한의 복음은 다르다. 그것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늦게 기록되었다. 요한의 복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해 동안 신실하게 섬겨왔던 한 늙은이의 계시 받은 반영들을 받는다. 하늘에 한 발을 담근 채, 그는 우리에게 그의 모든 영광의 구원자, 하나님 아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분에 대하여 말해준다. 요한의 복음서는 역사적 전기도 아니고 신학적 교과서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 가진 것은 그가 체험하였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함과 은혜와 영광을 묘사하는 그의 위대한 구원자에 대한 구원 받은 죄인의 사랑의 경배가 있다.

요한의 복음의 특징적인 면으로 두드러진 몇 가지 것들이 있다.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은 우리 주님의 우화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을 기술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요한 혼자만 우리에게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2:1-11),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4:46-54), 베데스다 못가의 절름발이를 치료하심(5:1-9), 오천 명을 먹이심(6:1-14), 폭풍 치는 바다를 가로질러 제자들에게 걸어 오시는 주 예수(6:15-21), 소경으로 난 자의 치유(9:1-7),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11:38-44)에 대하여 말한다.

요한에 의해 기술된 기적들은 우리 주께서 가르치시려 하였던 것들을 위한 기초를 놓기 위하여 특정하게 의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께서 어떤 큰 진리를 가르치려 하셨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기적을 행사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

들의 주의를 끄는 방법을 소유하셨다.

그분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구원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2:11). 아버지께서 5장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으며,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기 직전에, 우리 주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과 병자를 치료하셨다. 6장에서 그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우리 구원자는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다. 그분이 전하셨던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버리는 것을 그분의 제자들이 보기 바로 전에, 그분의 통치가 모든 것 위에 임할 것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것을 가르치시며 주 예수께서 폭풍의 바다를 가로질러 걸어오셨다(6 장). 요한복음 8:12에서 우리 주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9장에서 그분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고 선포하신 후, 주께서 무덤으로 나가셨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다.

## “나는 이다”

요한 복음의 또 다른 특징적인 면은 그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일곱 가지 “나는 이다”를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일곱 번 주께서, “나는 이다.”고 하신다. 이 말씀들은 매우 귀하며 우

리에게 우리 구속자의 기쁘고 교훈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나는 이다”는 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3-14 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던 이름이다. 그분 자신의 것으로 이 직함과 이름을 취하심으로써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적어도 일곱 번을 그렇게 하셨다.

1. “나는 생명의 떡이다”(6:35). — 우리가 살려면, 이 떡을 먹어야 한다.
2.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이 빛이 있어야 한다.
3. “나는 양 우리의 문이다”(10:7). — 만약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하고자 한다면,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4. “나는 선한 목자이다”(10:11). —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이 목자에 의해 구원받아야 한다.
5.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 만약 우리가 부활 영광과 영생에 참여하려는 자라면,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소유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6.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 만약 우리가 영생을 갖고자 한다면, 그 길에 있어야 하며, 진리를 알아야 하고, 생명을 받아야 한다.
7.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15:1). —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가져가려 한다면,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야 한다.

“나는 이다”라는 말을 그분 자신을 가리키며 사용하시는 우리 주

의 중대함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격분시켰는데 그 말씀으로 그분께서 뜻하시는 바를 그들이 정확히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 그분께서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구속자, 그리고 구원자이다. 나는 모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시고 계셨다.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이 두 마디 말씀, “나는 이다”를 하시면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밝히셨다. 자유주의자와 종교적 이단들은 오늘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완전하게 이해하였다(요 8:58-59; 10:31-33).

요한은 또 주 예수께서 그분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한 특정한 때와 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눈에 띄게 강조한다(2:4; 7:6, 8, 30; 8:20; 12:23, 27-28; 13:1; 17:1).

## 분열

1-12 장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공개적이며 세상에서의 사역의 삼 년 동안 그분의 삶과 사역의 중요한 점들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13-21 장에서 사도는 땅 위에서 주님의 마지막 밤과 우리 대속물로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부드러운 마음의 늑은이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누가가 기술하였던 그 사람, 마가가 그렸던 그 종, 그리고 마태가 선포하였던 그 왕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것이 요한이 1

장에서 순순한 독단주의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요한은 이 사람이 하나님인 말씀이며(1 절), 성 삼위의 두 번째 위격이며, 아버지와 함께 전적으로 동등하며(2 절),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3 절), 성육신 하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10-18, 29 절)이시다. 하나님이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양이며,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언급되고 예표 되었으며,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이 없어지게 된 분이다.

## 마지막 가장 좋은 것들

2 장에서 우리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했을 때, 연회장이 신랑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고 말했다(10 절).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은혜에 속한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하신 것이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신다(고전 2:9).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좋은 것만큼, 그것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 새로 태어남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 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되었음을 듣는다(11-13 절). 3 장에서 니고데모와 새로 태어남에 대한 우리 주의 대화가 있다. 여기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 태어남에 대한 본성과 필요성 모두를 보여 주신다. 사람이 거듭 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3, 5 절). 그리고 이 새 출생은 전적으로 생명과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역사이다(8 절).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우리의 죄속량의 대속물로서 신뢰함으로써 이다(14-18 절)고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과 모든 생명과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당신은 그리스도만을 당신의 구원자로서 신뢰하는가? 그것이 확정되어야 할 한 가지 일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불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침례자 요한의 전갈이며 각 세대와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의 전갈이다. -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36)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35-36 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 사마리아 여인

4 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놀라운 그림을 제시한다. 사랑의 때가 온 택정한 죄인이 있는 그곳이었기에 우리 주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셨다.” 은혜가 그녀를 택하였다. 은혜가 주어질 그 장소를 정하였다. 은혜가 사랑의 때에 지정된 장소에 사마리아 여인을 데려왔다. 은혜가 그리스도를 그 죄인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은혜가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 데려가서 믿음을 그녀에게 주었다.

## 병자

5장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베테스다 못가로 오셨다. 그곳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권적인 구원자께서 한 사람의 특정한 자에게 공활을 보이려 오셨고, 그 택함 받은 죄인은 38년 동안 병자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았다”(9 절).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다른 그림이다. 그것은 주권적이며, 구별되며, 효험 있는 은혜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완전히 병자이다. 우리는 결코 구원의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에게 관련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주 예수께서 가난한 병자인 죄인들을 그분 자신의 전능하신 공활의 전능한 팔로 구원하신다(엡 2:1-5).

###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

5장의 후반부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수 많은 증인들에 의해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신다. 그들처럼 우리가 이 구절들과 다른 구절들을 읽으면(10:16-18), 우리 주께서 아버지보다 그분이 못함을 제시할만한 어떤 것이라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보증으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인 순종을 선포하고 계신다(사 50:5-7)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요한복음 5:19-31).

침례자 요한은 그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린양과 영원한 구원자로 증거하였다(33-35 절). 그 자신의 일은, 우리의 보증으로서 신뢰하며(엡 1:12), 인자로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두시고(27 절), 그분을 만물의 으뜸으로 제시하며(골 1:18; 빌 2:8-11), 그분

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36 절 - 그분의 기적들 - 그분의 만족 - 갈라진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책은 그분이 실로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37-39 절). 모세는(46-47 절) 모든 율법서들 안에서, 예표와 예언으로, 그리고 그분이 율법 전체를 충만이 하셨을 때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하시면서 장막이 갈라짐으로써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 복음에 대하여 마음 상함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로 회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를 따랐다. 그들은 종교적인 유익을 보았기 때문에 종교적이었다. 그들은 외적으로 행함으로 얻었던 것 때문에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께서 군중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말씀을 전하셨다. 요한복음 6:66 에서 본다 -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였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오늘날 세상을 통하여 길 잃은 종교적 군중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동일한 전갈인,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의 은혜의 전갈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선포였다(37-40 절). 그분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 완전한 부패가 사람의 의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셨다(44 절). 우리 주께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선포하셨으며(45 절) 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분의 살을 먹고 피

를 마시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 지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로서 그분의 의와 속량을 신뢰함으로써만(47-48 절) 소유되는 것임을 선포하셨다. 이 구원은 세상 전체에 흩어진 택함 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얻어졌다(51 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 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요한복음 6:59-66).

이들은 바로 직전에 그분을 억지로 잡아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한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었다(6:15).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일곱 번째 장에서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분의 형제들은 주님이 그 명절에 가셔서 그분 자신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애썼

지만, 그분은 거절하셨다. 후에, 그분은 그 명절에 개인적으로 가셨다. 그리고, 명절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종교 의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곳조차 오늘날까지 세상 전체에 울려 퍼지는 위대하고 은혜로우며 관대한 초대를 선포하셨다. —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37-38 절).

## 간음한 여인

여덟 번째 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은혜에 대한 놀라운 그림으로 시작한다(1-11 절). 간음 혐의로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의해 비웃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그녀는 땅에 몸을 구부렸다 다시 일어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모든 죄를 대가 없이 완전히 용서 받았다.

## 제자들인가

8 장의 31 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께서 참된 제자들,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하는 네 가지 분명한 점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1.)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들을 한다(39 절).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2.) 참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42 절; 요일 4:19). (3.)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허리를 굽히고 믿는다(47 절). (4.)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킨다(51 절). 그들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계속하며(31 절) 복음을 굳게 잡는다.

## 선한 목자

9 장에서 우리 주께서 나면서부터 장님인 한 남자를 치료하셨다. 그가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유대인은 그분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시력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그들의 교회에서 차 내버렸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주 예수께서 그를 그분의 품 안으로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양우리 안으로 넣으셨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우리 구원자의 위대한 이야기를 제시한다(10 장).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 그분께서는 약간의 양 무리를 소유하고 계시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양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자원하여 내려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양을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분은 그분의 양을 구원하셔야 하고,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분의 양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 나사로

11 장은 우리에게 우리 주의 사랑하는 친구들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하여 언급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사로의 병과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를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사망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 이것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하는 운행하심의 놀라운 그림이다! 나사로처럼, 나는 죽었다. 나사로처럼,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있던 곳에 오셨다. 그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나는 그분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12 장은 그분의 친구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한다. 마리아는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그분께 기름을 붓는다. 그분이 얼굴을 깔보리로 향하셨을 때, 우리 주께서 그분이 그곳에 계실 것이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성취됨을 선포하신다 -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 이심 이러라”(31-33 절).

## 발 씻음

13 장은 요한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19 장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우리 구원자의 세상 삶의 마지막 시간들 가운데 일어났다. 13 장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례를 주신다. 그분께서 이런 것을 행하심은 교회 의식으로서 발 씻음을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사랑할 것 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사랑은 감상적인 말들이 아닌 행동을 포함한다. 사랑은 그 대상의 전적인 위로를 위하여 낮게 엎드려서 기쁘게 행하는 가장 하찮은 임무이다.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35 절).

그리고 우리 주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어떻게 세 번 그분을 부인할지를 말씀하셨다. -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36-38 절).

그리고 난 후 즉시, 요한복음 14:1-3 에서 그렇게 달콤하고 달콤한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본다.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리.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의 타락과 회복 후에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하였을까!

## 위로

14, 15, 그리고 16 장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비탄과 환란을 견뎌야 하는 위로와 가르침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16:33).

## 주의 기도

그리고, 17 장에서 요한은 주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그분은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분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땅 위에서 우리 날들 동안, 우리의 모든 환란 동안 우리를 지키실 것과 우리를 영광으로 안전하게 데려 가실 것을 요구하며 기도하신다. 오직 영원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의 전체 조망을 알

수 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이다.”

요한복음 17:22 와 17:5 를 비교할 때, 나는 그야 말로 압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일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든 영광의 구속자께서 그분의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의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로서 그분께 주셨던 모든 영광과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사람으로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영광을 주셨는가? 우리가 정말 진실로 그렇게 완벽하게 그분과 하나이고 그분 안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받아들여짐으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그분이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상급으로 그분께 주셨던 모든 영광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것인가? 그렇다. 오 나의 혼아,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그렇게 될 것임을 거짓으로 선포하실 수 없다!

## 겻세마네

18 장은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겻세마네로 데려간다. 그러나 요한은 마태와 누가에 의해 기술된 것 대부분을 제외한다. 대신에 그는 병사들이 그를 잡으려 왔을 때, 그분을 잡았던 자들에게도 조차 그분이 완전한 통제 안에 있는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염려에 대하여 말한다. 여기 다시, 우리는 구속과 은혜의 그림을 갖는다. 모두에게 그분이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이려 하였던 것처럼, 구원자는 주도권을 잡으신다. 그분께서는 병사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라 불렀던 그 사람에게 다가왔고, 그분은, “내로라.”고 선포하셨고, 그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엎드렸다. 그 사람들, 그분이 처형되도록 하였던 율법을 대표하는 자들이 그분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주께서, “내로라.”(“그”는 이탤릭이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정확히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는 나와 내 양떼를 소유할 수 없다. 만약 나를 잡으면, 너희는 내 백성을 자유로이 가도록 해야 한다.

## “다 이루었다”

19 장에서 우리 구원자는 십자가에 못박혔다. 30 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하신 구속자의 이 위대한 승리의 말씀을 본다. — “다 이루었다!”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

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율법이 만족되고 마쳐졌다(롬 10:4). 예언들이 충만되고 이루어졌다. 그분이 오셔서 하려던 모든 것(마 1:21)이 이루어졌다. 속량이 이루어졌다. 의가 이루어졌다. 심판이 끝났다. 죄가 끝났다.

## 회복

20 장과 21 장은 우리 주의 부활과 부활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 대속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였으며, 우리를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 회복하셨다. 요한이 이 상황에서 그분의 타락한 제자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은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그에게 확신시키고 그의 구원자를 위한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확신시키시며 은혜 가운데 베드로에게 오셨다.

## 결론

요한복음 21:25 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는 것을 본다. 요한이, “줄 아노라.”고 말할 때, 그는 여전히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 “너희는 나의 아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가 위대한지, 그리고 그가 성취한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상상할 수 없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세한 것으로 들어간다면, 세상 그 자체로는 그 모든 것을 선포하기

위한 그 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결론으로 그 이상 더 적합한 것은 없을 것이다.

## 2 장. “태초에”—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

오랜 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제시하기를, “이 말씀은 황금 판에 기록되어 세상에 있는 각 교회 건물에 걸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세기에 Alexandria 의 Clement 는, 무신론자 플라톤 학파의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복음 1:1 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야만인이 우리가 가진 방대한 담론 전부에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세 문장으로 함축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베대 어부의 아들 요한처럼 학식이 없고 무지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세 문장을 기록하게 하였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태초”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시작한다. 요한은 “아버지의 품”으로 시작한다. 누가는 그의 이야기를 로마 황제와 유대인 대제사장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한은 그의 “태초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말로 그는 우리를 영원의 깊음, 시간과 피조물들이 있기 전으로 데려간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모두 “태초”로 시작한다. 창세기는 “태초”로 시작하고 역사를 따라 내려가며, 이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말한다. 요한은 “태초”로 시작하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가며 “태초”를 앞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한다. 태초 전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며 구원자께서 이미 계셨다.

요한복음은 가르침으로 충만한 세 개의 단순한 단어로 연다. — “태초에(In the beginning).” 요한복음 1 장에서, 이 동일한 사도가 우리 구원자를 묘사하기 위하여 비슷한 말을 사용하였으며 그분을 “태초부터 있는 그”(요일 1:1)분으로 말한다. — 그러나 그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분명히 그는 영원은 시작이 없으므로 영원의 시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요한은 은혜의 체현이나 여호와와의 계획의 시작, 우리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며 그분의 “출발이 예전에 속하고 영존함으로부터 있었던 분”(미 5:2)으로 인하여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그분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가 우리에게 태초 이전인 시간의 시작 이전에 시작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보인다. 우리 복된 구원자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우리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언약의 보증으로 출발하셨다(잠 8:22-23; 사 46:9-10; 행 15:18; 골 1:18; 살후 2:13; 히 1:10; 요일 2:14).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본질적 말씀으로서 그리고 계시된 말씀으로서, 우리의 보증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공회 가운데 앞서 계시며 영원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지신 분으로 바라볼 것을 가르친다(잠 8:22-31). 태초에, 땅 조차도 만들어지기 전에, 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택함 받은 죄인들의 구원 가운데 알게 하셨을 분 안에서 그분에 의한 말씀으로 앞서 계셨다.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이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에”도 말씀이셨다. — “태초에” 그분은 우리의 언약의 보증으로서 앞서 계셨다. —

“태초에” 그분은 “세상의 기초부터 살육 당한 어린양”으로 받아들여졌다. - “태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택함 받았고, 받아들여 졌으며, 복 받았으며, 구속 되었다(엡 1:3-7).

##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불렀다. 이것은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신 분이므로서, 그러나 아버지와는 구별된 위격으로서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요한이 거의 독보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표현을 다른 두 계시 받은 저자들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다. 히브리서 4:12-13의 말씀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베드로후서 3:5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이라 한다.

말은 체현과 교통과 계시의 표현이고 방법이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교통하며,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함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자체를 나타내는 신성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진다(히 1:1-3).

계시록 1:8에서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의 알파벳으로 그분 자신을 선포하신다. -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

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서 또 의해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여호와와의 개인적인 공표의 말씀이다.(요 1:18).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증거한 성 삼일의 한 분이다. —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요일 5:7). 무엇을 증거하는가?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인가? 아니다. 하늘은 그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치 않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 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그분의 공의롭고 의로운 율법에 엄격히 따라서 우리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의 공로에 따라 주셨음이다. 성삼위의 세 위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분의 피의 속량으로 구속을 성취하셨다고 증거한다. —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그리고 이들 셋은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구원자이자 보증이신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신다(히 1:1-9; 6:19-20; 10:11-14).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하늘 안으로 되돌려 받으셨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분의 택하신 자를 받으셨으며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셨다(엡 1:6; 요 17:1-5).

살아계시고 영원한 말씀이시며, 복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오른 손에서 그분의 영구한 변호와 중보로 그분의 백성의 영생에 대한 권리를 증거하신다(롬 8:34; 요일 2:1-2; 히 6:20; 7:24-25). 그분께서 행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로써 우리가 하늘과

영생을 받을만한 그것은 두 가지이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의와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만족이다.

성삼위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마음에 효험 있게 적용함으로써 구속의 성취를 증거하신다(요 16:14; 히 9:13-14).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공로를 받아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계시하신다.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서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은 복음을 듣는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생생한 말씀 이상을 듣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니라.” – 세 분의 신성한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아버지의 증거, 말씀의 증거, 그 영의 증거가 하나이다. 무엇이 그 증거인가? – 구속은 그리스도 만에 의하여 성취됨이다! 각각의 택함 받은 죄인은 피의 문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갖는다. –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요일 5:11).

요한이 주 예수께 드린 이 이름과 직함을 다시 보라. – “말씀.”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너무도 적절하게 선포될 수 없는 의미로 충만한 선포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려지신다. 그분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언약의 집약 가운데 언급되는 위격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려지신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의 대언자이고 계시자이며 해석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려지신다.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아버지의 마음의 자식이고, 우리의 말(만약 정직하게 말한다면)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된 형상인 것처럼 그분의 위격의 표현된 형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려지신다.

## “계셨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한다. 그는, “태초에 말씀이 오셨거나, 혹은 말씀이 시작되셨다”가 아니라, “말씀이 계셨다.”고 말한다. “계셨다(was)”로 번역된 단어는 축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뜻이다. 요한은 우리에게 태초가 있었던 때에 말씀은 이미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원한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그는 “계셨고 계시며, 그리고 오실” 그 한 분이다(계 4:8).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어떤 피조 된 생각도 이 광대한 해양의 깊은 속으로 뛰어들거나 그 끝 없는 폭을 가로지를 수 없다. 시간과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말씀은 계셨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이고,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더 완벽하고 더 강조하여 선포할 수 있는 말 외에 달리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 그 말씀과 함께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함께 영원하심을 선포한다.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말씀의 영존하심과 아버지와 관계

와 가까움과 특히 아버지로부터 말씀의 특질을 선포하고 있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계실 것이다. 모든 영원 전부터 친밀하고 설명할 수 없는 복된 삼위일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위격 사이의 연합-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이 있었다. 비록 요한이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말하지만, 요한일서 5:7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참되다.

요한은 말씀의 영원함과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연합뿐만 아니라, 신성한 위격들의 영원한 교통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치사 “함께”는 방향의 전치사이며 동등함과 동의 모두를 제시하는 “향하여,” 혹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의 의미이다. 그 단락은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로 번역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동작의 사상을 표현한다.

다시, “앞으로 나아감이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분 으로서 우리 구원자에 대한 미가의 묘사를 일깨우게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연합과 교제로 서로 함께 계심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영존하는 공홀과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여 나오셨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언약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세상의 섭리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서 여기 땅 위에 계셨을 동안,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로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요일 1:1-2).

우리 혼의 구원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일 하나님  
의 세 위격 사이에 상호간 의식하는 교통과 사랑의 역동적 표출이  
지금 있고, 언제나 있어왔으며, 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상상해 보  
라! - 영원한 신격의 세 위격들이 신격에서 동일하지만 위격에서  
구별되므로, 따라서 신성한 위격의 세 분 모두가 은혜 안에서 동등  
하나 은혜의 운행에 있어서 구별된다. 그리고 세 분 모두 은혜 가  
운데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고 계시며 하시고 계셨으며 영원히 하  
시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은혜의 샘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신다(엡  
1:3-6). 은혜의 언약 가운데 구속을 제시하셨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구원하실 백성을 선택하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다. 그분은 그분의 추방된 자들이 그분께 돌아올 수 있으  
며 결코 그분의 임재로부터 내몰리지 않을 방법을 찾으셨다. 그래  
서, “시간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은 택하신 자에게 은혜의 매개체  
혹은 중재자가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갈 4:4-6).

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통로이다(엡 1:7-  
12). 모든 은혜가 중재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온다. 에  
베소서의 첫 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열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죄  
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 죄인들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죄인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한  
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은혜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상대하  
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상대하실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상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

께 택함 받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도록 예정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속 받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됨을 입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는다.

당신은 이것을 보는가? 모든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심 으로부터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것은 죄인들의 구원 안에서 은혜와 공의를 가져왔던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역사이다. “공홀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에게 입맞춤하였던 것”은 그분의 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뿐이다(시 85:10).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줄 수 없는 은혜에 속한 계획 속에 행복에 넘쳐 길 잃은 John Bunyan 은 다음과 같은 환희에 찬 말을 썼다...

“아 그대 복된 자의 아들이여! 당신의 영광스런 은혜가 당

신을 씻어 냈도다. 은혜가 하늘로부터 당신을 내렸도다. 은혜가 당신이 그런 죄의 짐, 형언할 수 없는 저주의 그런 짐을 지게 하였도다. 은혜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었도다. 은혜가 당신의 피 흐르는 옆구리로부터 솟구쳐 왔도다. 은혜가 당신의 눈물 속에 있었도다. 은혜가 가시 면류관을 쓴 이마로부터 흘러 내렸도다! 은혜가 당신을 못 박은 못과 당신을 찌른 가시로부터 흘러 나왔도다! 아, 신비로운 은혜의 부요가 있구나! 죄인들을 기쁘게 하는 은혜여! 천사들을 경이롭게 하는 은혜여! 마귀를 놀라게 하는 은혜여!”

모든 은혜의 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모든 은혜의 매개체는 아들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행정관이다(엡 1:13-14). 그리스도의 피를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효험 있게 적용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분은 전지 전능한 능력으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신다(요 6:63). 그분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구속 받은 자를 부르신다(시 65:4; 110:3; 요 11:8-11). 그분은 은혜의 전능한 운행으로 택함 받은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엡 2:1-9; 골 2:12).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치신다.

구속은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효험 있게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모든 구속 받은 자에게 효험 있게 적용된다(히 9:12-14). 회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운행이 없이는 어떤 죄인도 은혜의 수혜자가 결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것들을 취하여 그 백성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들을 자극한다. 그분은 아들이 구속한 자들을 개심시킨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가 대신하여 그 목숨을 내려놓은 자들인 그 길 잃은 양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께 인도한다(요 10:11). C. D. Cole 은 이렇게 썼다…

“그분께서는 완강한 마음을 정복하시고 역겨운 영적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죄로 멀어버린 눈을 여시고 죄로 닫힌 귀를 뚫으신다. 복된 성령은 아버지의 은혜를 계시하며 아들의 은혜를 적용하신다.”

신격 안에 있는 세 분 위격 모두는 동등하게 은혜로우며, 세 분 모두 동등하게 찬양 받아야 한다. 사실상, 성 삼위의 세 분 위격은 성경 안에서 함께 제시되며, 언제나 구속과 은혜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예외를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이 이 아래 있는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하늘의 주인들이여, 위에 계신 그분을 찬양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찬양하라!”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로 옷을 입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며 시내 산 위에서 서 계셨을 때처럼, 홀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 그분의 임재는 너무도 무서워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심판의 광경 속에서 바로 그 산이 흔들렸다(출 20:18).

때때로 아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재림 가운데 나타나실 때처럼 혼자 나타나신다. 그 때 그분을 멸시하고 거절하였던 사람들은 산이 그들을 덮칠 까봐 울 것이며 공포 속에서 그들이 “어린양

의 진노”로부터 구원 받기를 기도할 것이다(계 6:14).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나타나실 때, 결과는 동일하다.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범하면서 그분을 모독하던 자들은 탕자로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마 12:31-32).

그러나, 요한복음 1:1 처럼 하나님의 위격의 세 분 모두께서 우리 앞에 함께 계시실 때, 그 결과는 언제나 긍휼과 은혜와 구속과 구원이다(엡 1:3-14; 계 1:4-6).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 존재는, 그분의 모든 속성 가운데, 그분의 모든 영광 가운데, 그분의 위격의 삼일 가운데, 그분의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예비된다(렘 32:41; 롬 8:28-32).

###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누구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오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요한은 여기에서 영원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성과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중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영원히 하나님이실 것이며,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역시 아들은 하나님이심을 주장한다. 우리 구원자의 신성은 더이상 긍정적으로 천명될 수 없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심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원하고 불변한 신격은 모두 하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그분은 육신으로 되셨으므로 하나님으로 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조성되거나 지명되거나, 직무나 직책으로 하나님이라 선언되지 않으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며,” 가장 높은 의미의 말로서 참되고 합당한 하나님이

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시며 말씀이신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완전함의 신성 모두가 그분의 것이다. 신격의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내주한다. 그분의 손에 의한 역사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역사들이다. 창조와 섭리, 구속과 용서, 생명과 사망, 심판과 공효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인한 하나님의 역사들이다.

### 이단이 멸절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이 한 문장으로 요한은 사탄이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수단인 모든 이단을 쓸어버리고 없애 버린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 주의(Arianism),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위격의 구분을 부인하는 사벨리아설 주의(Sabellianism),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때로는 아들로서, 때로는 성령으로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소치니 교도(Socinianism),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하나님이 아니셨고, 단지 사람, 선하고 위대한 사람이며, 다만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유니테리안 주의(Unitarianism),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뜻과 계획과 은혜가 모두 사람의 뜻에 종속되는 분으로 변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Arminianism)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이 한 마디 축복된 선포로 쓸려 나갈 것이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을 필요 없이,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비가 여기 있다. 삼위일체와 본질상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는 단일성 안에 복수가 있고 복수 가운데 단일성이 있을 수 있는가? —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 —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이해력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들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한 예전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너무 깊이 연구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은 경건함이다. 그것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다가올 때까지는 결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 그 축복

여기서 주장되는 그 축복의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다(요일 1:1-3).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는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셨으며,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가져오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딤후 1:10). “진실로 우리의 사권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1-3). 교제를 바탕으로 한 연합, 그분들의 것은 모두 우리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외친 것이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신 33:29).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요일 1:2).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요한일서 1:5 을 보라. —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말씀과 함께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포하도록 보내진 그 전같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그는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서 계시되는 하나님 자신이자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도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후 4:6). 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돌비가 아닌, 우리 육신의 신비에” 이것들을 기록하시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알며 서로의 달콤한 교통 안에서 함께 또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 안에서 참되게 영원히 걸음으로, 우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삼위일체의 계시보다 참 믿는 자들 가운데 합일을 더 강하게 계시하는 것이 성경 안에 계시된 것은 없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고찰의 요점이나 어떤 교리적 세련됨의 무익한 점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신중한 성별과 연합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존경과 겸손을 계시하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주제이다.

우리의 침례 가운데, 당신과 나는 공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공표하였다(롬 6:4-6).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헌신과 서약을 선포하였다. 성삼위에 대한 모든 생각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될 것이라는 갈망을 자극하도록 하자(요 17:20-22).

“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한 분—본성에서 한 분, 사랑 안에서 한 분, 계획 안에서 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연합 안에서 응답 받을 그 날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J. M. Pendleton)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삼일 하나님의 아들딸들로서 유일성에 헌신하여야 한다. 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계획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가 되기를, — 그리스도의 이상을 섬기며 수고 가운데 하나가 되며, —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빌 2:2-5).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엡 4:32-5:1),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에게 인내하며, 서로를 지극히 높이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으며, 서로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도록 하자. 곧, 우리는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요 17:22; 엡 4:1-6).

### 3 장. 영원하신 그리스도—요한복음 1:1-5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1-5)

이 다섯 구절은 우리 앞에 그분의 영원한 존재와 특징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견줄 수 없는 숭고함을 제시한다. 이 다섯 구절 속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아 요한은 어떤 도덕적 생각도 측량하기를 소망할 수 없는 높이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깊이를 우리 앞에 제시한다. 이제, 그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언어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오해할 수 없는 이것들을 제시한다.

요한 복음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는 요한이 기록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다. 그는 20 장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스물 한 장 속에 있는 그의 위대한 과녁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인생에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우리에게 알려주

는 것이 아니다. 요한의 목적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그 사람의 신성과 영원한 신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며, 그로써 우리가 그분을 우리 구원자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고자 함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신격을 보여 주기에 더 합당할 수 있었을까? 요한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뚜렷이 예비되었다. 그는 택함 받은 사도로서, 그의 땅에서의 사역의 시작부터 주와 함께 있어 왔다. 요한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전능한 기적들을 행하실 때 그곳에 있었다. 요한은 주께서 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분과 함께 있었다. 요한은 구원자의 많은 설교와 그분의 우화와 그 우화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요한은 유일한 사랑하는 형제나 친구가 했을 것처럼 그의 머리를 주의 가슴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겻세마네에서 주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는 구원자께서 그분의 생명의 피를 저주 받은 나무에 뿌릴 때 그 옆에 있었다. 요한은 구원자의 어머니를 그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그녀에게 공급하고 보살폈다. 그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다시 오르셨을 때 현장에 있었다. 그는 유대 나라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밧모 섬에서 나타나 시간이 더이상 남아 있기 전에 성취하실 모든 것을 보여준 것도 이 사람 요한에게 었다.

그의 복음서의 이 여는 구절들 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시간과 신격과 창조와 사람들과의 그분의 관계 속에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 시간에의 관계

첫째, 요한은 우리 구원자의 시간애의 관계를 선포한다. 우리 구원자는 단순한 시간의 피조물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계시고 시간의 창조주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요한은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한다. 그는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을 때 존재하기 시작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세상이 있기 이전에”(요 17:5) 아버지와 함께, 지금 우리의 성공적인 보증자로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영광을 태초부터 소유하시며 계셨다. 그분은 물질이 처음 피조 될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으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다. 그분은 “모든 것 이전에” 계신다(골 1:17). 그분께서는 영원하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1-2 절). —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계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완전한 연합과 교제 안에 계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인, “보다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한 어린양”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다(딤후 1:9-10; 엡 1:3-6).

우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영원성의 별집에서 찾은 달콤한 꿀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한다. 그분께서 계셨던 동안,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다. 우리의 머리와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우뚝 서시자 마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로서 우뚝 섰다. 우리는 그분의 씨로서 그분 안에 있었다(시 22:30-31). 그리고 우

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 안에 있었다(시 139:14-18).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스런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 몸의 모든 지체는 그들의 실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그들 중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분의 책,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의 언약의 머리로 임명되고 모든 것과 확신 안에서 명령되었을 때, 영원 안에서 그분께 드러졌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육신과 그분의 뼈의 지체들이다.” 그분의 위대한 중보 기도 가운데 그분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요 17:9-10)라고 하셨을 때, 이 언약 집행 중에 계신 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얼마나 부드러운 우리의 복된 구속자인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 드러지고 그분의 비밀스러운 몸의 지체로 조성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보다 더 많이 멸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며, 모든 권능으로 소유되신 것처럼, 모든 사랑의 충만과 모든 지혜로 충만케 되었으며, 모든 공훈과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그의 지체들 가운데 누구라도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분에게서 영원히 잃어버리고 분리되게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인가? 어떤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심지어 작은 손가락의 끝 마디라 할지라도 기꺼이 잘려나가는 것을 허용하겠는가? 어떤 것이든 몸에서 떨어진 것은 사라진다면, 만약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잃어버리면 그것

이 우리가 막을 힘이 없어서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그분의 충만”인 그분의 비밀스런 몸의 한 지체라도, 그것을 구원할 그분 속에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멸망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된다. 우리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분의 몸의 지체였다.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구원적이고 체험적으로, 그 영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인하여 산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복된 영원한 연합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연합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 하나님에의 관계

둘째, 요한은 삼일 신격과 우리의 복된 구원자의 영원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뻐한다. 그러나, 요한이 여기서 그분이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인 말씀이심을 선포한 사실의 중요성을 보기 원한다.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암묵의 말씀이고 생각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들으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뿐이다. 그분은 너무도 충만하고 너무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 하시므로, “나를 보았던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고 선포하신다(요 14:9).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요 17:3).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만 보인다(고후 4:6).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봉인된 책을 열고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며 구속의 성취 가운데 그것을 충만케 하실 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이며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물인 하나님의 어린양이다(계 5:1-10).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충만케 하실 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우리 구원자로 살아나신 분이다(눅 24:25-27, 45-47). 영적 어둠의 장막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이며 말씀이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분이다(고후 3:14-18).

### 창조에의 관계

셋째, 요한은 우리에게 탁월한 단순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의 관계를 보여준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3 절). — 우리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구속주이시고 창조는 구속과 떼어놓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에서 창조는 대부분 언제나 구속과 관련이 있다.

자유주의자와 몰몬주의자와 여호와의 증인과 수도 없는 다른 이단자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말한다. 성령은 그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써 세상과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것이 만들어진 말씀이시다(시 148:5; 엡 3:8-9; 골 1:15-19). — “하나님의 말씀(그리스도)으로 인하여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벧후 3:5).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모든 것 이전에 계신 분은 영원하다.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전능하시다. 그리고 영원하고 전능

하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만드신 그 분이다(골 1:20). 은혜의 새 창조 안에서, 세상 그 자체의 창조 안에서처럼,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고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다. —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은 도처에 선포한다. —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그가 없이는 새 언약도, 새 이름도, 새 사는 길도, 새 마음도, 새 영도, 새 옷도, 새 노래도, 새 하늘도, 새 땅도 있을 수 없다. —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계 4:11). 만약 만물이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피조 되었다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사 53:11)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 사람에의 관계

넷째,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에의 관계를 보여준다. —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4-5 절).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모든 천연적인 생명은, 모든 영적인 생명은, 부활 생명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모두 생명이신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생명의 샘이고 생명 주는 분이 분명하다. “생명”이라는 말은 여기서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모든 피조물 생명은 그분에게

서 오는데, “그분 안에 우리가 살고 행하며 우리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영적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은 그분에게서 오며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요일 5:11; 11:25-26).

그리고 그리스도는 빛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적 빛과 하늘의 영원한 빛뿐만 아니라 이성과 양심의 천연적인 빛은 사람들의 빛이신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리스도는 오직 도덕적이고 영적인 빛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9 절). 모든 이성적인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어있다(롬 2:15; 롬 1:18-21).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자가 책임이 있고 책무가 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범죄와 죄들 가운데 천연적으로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 모두 책임이 있고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하였던 그 “빛”에 대한 책무가 주어질 것이다(히 9:27; 계 20:12).

5 절을 다시 보라. 요한은 우리에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어둠과 죄로 어두워진 혼 속에서 불을 뿜으신다고 말한다. 그것은 분명하게 5 절의 첫 부분의 뜻이다. —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 그리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며, 이는 비록 빛이 전에 없이 밝게 비추지만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알다”로 번역된 말은 때때로 “임하다”(살전 5:4)로 번역된다.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복되니,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비추시기 위하여 오실 때, 단순히 빛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 빛을 보도록 하신다. 그분이 그와 같은 거절할 수

없는 빛으로 그분의 구속된 자들의 마음 속에 비추시므로 우리는 쉽게 그 빛을 깨달을 수 없다. 오히려, 그 빛이 우리를 완전하게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옛 창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새 창조 안에도 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다(창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1-4). 그 말과 함께 사도 요한은 영원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그분의 복음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받았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찌어다. 아멘!”(딤후전 6:16).

## 4 장. “하나님께서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요한복음

1:6-14

“하나님께서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6-14)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듣고 지혜롭게 될 사람을 찾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죄가 있고, 약하며,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을 찾아라, 당신의 혼에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성경의 이 부분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요한은 그의 복음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설명 없이 주장하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1-5 절). 우리 구원자의 영원함과 영원한 신격을 선포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과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세상의 빛이심을 보이면서, 요한은 침례자 요한과 그의 사역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안내한다. 이 선지자, 침례자 요한은 전형적인 복음 전파자로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침례자 요한처럼 모든 참된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께서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로서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의 신성하게 영감을 받은 기술이 있다. — 그는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보내심을 받았다.

전도자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제사장이고 중재자이다. 복음 전파자들은 사회 복지사들이나, 심리 치료사나, 상담사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종교적 부흥사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단순히 반복하는 훈련된 종교적 앵무새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증인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도록, 첫 번째 증인들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여 안 것을 말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삼십 년 간 복음을 전한 후에 그의

가르침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가 “해명”이라고 불렀던 것을 전했다. 이것은 그가 한 때 전했던 그 전갈에 대하여 말했던 것이다. — “과거에 내가 말하고 썼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앵무새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 자신이 보았고 그 자신이 안 것들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것이 정확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일서 1 장을 여는 구절에서 그 자신에 대하여 말한 바로 그것이다(요일 1:1-3).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은 이 은혜의 복된 계시에 대하여 증거한다. —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를 통하여 길 잃은 죄인들이 믿는 유일한 빛이다. 그것이 베드로가 오순절 날 했던 것이다. —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행 2:40). 그것이 바울이 그의 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고 전했다(행 20:21).

복음 전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그들 자신의 은혜에 대한 체험으로 안 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증언을 하면서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의 모든 충만 가운데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증언을 하지 않는 전파자는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전파자가 빛에 대하여 신실한 증언을 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신실하

게 전파하는 한, 그는 그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의 전파하는 것은 듣고 믿든지 믿지 않는지 간에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존귀함을 받는다(고후 2:14-17).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전파자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제한된 의미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게 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신다. 어떤 자들은 요한이 전하러 왔을 때 이미 지옥에 있었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자들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믿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단순히 사람들의 모든 계층을 가리킨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함 받고 구속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다(롬 10:17; 벰전 1:23-25).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그 영의 권능으로 복음을 효험 있게 전파할 수 없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3-17).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전파하기 위하여 설 때마다 보내심을 받으며, 우리가 그 예전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행 2:4) 할 수 있도록 나와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요청한다. 전도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보내진 여러분의 목자를 보냈으므로, 그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엡 6:19),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골 4:3) 기도하라.

8 절은 여부의 선포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나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마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침례자 요한이 메시야인 것으로 여겼던 고대 이단 종파가 있었다. 그 자신의 시대에 어떤 자들은 그 침례자 선지자가 그리스도였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는 20 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신은 아마도, “오늘날 아무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은 전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을 마치 그리스도들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많은 침례교들은 전도자들을 그리스도인 것처럼 취급하는 하므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

전도자는 누구인가? 어떤 진실한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는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23 절; 사 40:3). 누가, “전도자는 누구인가?”라고 묻는가? 나는 Scott Richardson 형제가 그 질문에 대해 수년 전에 들었던 대답을 좋아한다. — “전도자는 누구든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분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하도록 보내진 무명인이다.”

## 빛이신 그리스도

9 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4 절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빛이심을 말씀한다. —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스도는 태양이 세상에게 있듯이 인간의 혼들에 있다 - 빛. 두 번이나 우리 구원자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 9:5). 그리스도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증거하는 자의 그 빛이다. 그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모든 빛의 그 빛이며 샘이다. 그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와 레위의 의식의 전형적 빛과 구별되는 참 빛이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태초에 어두운 땅에 빛을 주셨으며, 흑암으로부터 빛을 말씀하셨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시다.

이성의 빛이고 양심의 빛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모든 천연적인 빛과 이해는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본성의 빛, 이성의 빛, 양심의 빛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 없이 모두를 두기에 충분한 반면(롬 1:18-20), 영적이고 구원하는 빛이 아니며 결코 그럴 수 없다. 주 예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성에서 사람 속에 있는 그 빛이 강력한 흑암임을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마 6:23; 눅 11:35; 요 3:18-21).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시니”라고 말할 때, 그가 영적인 빛이 아니라 자연적인 빛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렇고, 여러분의 혼 안에 빛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다면,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빛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어떤 빛이든지 빛이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계획과 은혜에 따르셨으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실체화 되었으며, 그분은 죽음을 폐하셨고, 복음을 통하여 빛으로의 생명과 불멸을 가져 오셨다.”(딤후 1:9-10).

## 세상이 알지 못함

셋째, 10 절과 11 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 곧 세상의 빛이신 분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함을 말한다. —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섯 문장을 이 장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라.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 주의 땅에서의 생활과 사역을 서술하지 않고 있다. 이 풍성한 가르침의 다섯 문장은 우리 구원자에 대하여 이 장의 처음 아홉 구절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것을 그리고 설명한다.

-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 그분이 언제 세상에 계셨나? 이것은 우리 주의 성육신을 가리키지 않는다. 요한은 14 절에서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 이 문장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는 세상에서 과거의 존재를 말한다. A. T. Robertson 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1 절과 2 절에서처럼 성육신 전에 우주 가운데 계속하여 존재한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었다. — “그 '계셨다'라는 말은 세상의 창조로부터 모든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과거의 존재를 가리킨다.”(Jonh Gill). 그분이

세상에 언제 계셨는가? 그분께서는 모든 영원 전부터 세상에 계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그분의 인간 본성으로 계시지 않았는데, 세상이 그분에 의해 아직 창조되지 않았고 그분께서 아직 육신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이 단지 그분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세상에 계셨음을 가리키는 것이 이해될 수 없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 계셨는데, 그분이 언약적 특징 안에서 영원부터 세워지셨을 때, 여호와께서 그분을(그분이 스스로 선포하신 것처럼) 소유하셨을 때, 우리의 보증인과 중보자로서 “태초로부터 혹은 땅이 있었던 때부터” 우리의 지혜로 영원의 법정에 섰을 때, “그분의 땅에서 살기 합당한 곳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그분 자신을 기뻐하시며 계셨다(잠 8:22-31). 그리고 읽어보라...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 이것은 정확히 요한이 3 절에서 우리에게 했던 말이다. –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전 인류가 흑암 속으로 빠졌으며 “그를 알지 못하였다.”(시 14:1-2; 10:4). 세상은 그분을 그들의 창조주로서 알지 않았다. 세상은 그분에게서 받았던 공물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세상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두려워하기를 거절하였다.
- **그리고 기록되기를, “자기 땅에 오매.”** – 그 말씀은, 그분의 권

능의 날에 기꺼이 그분을 영접할 그분의 택함 받고 구속 받은 백성을 가리키지 않는,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다.”고 볼 수 있지만(시 110:3; 요 6:37), 그러나 나는 성령이 율법과 선 자들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을 주셨던 그분 자신의 육체적인 백성,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더 기운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성육신 전에 유대 백성이 있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에 주어진 예표와 그림 안에서 오셨다. 그분은 약속과 예언 안에서 오셨고, 구약의 말씀과 규례 안에서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 모세에게 오셨던 것처럼 직접 오셨다. 그분께서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기 위하여 유월절 밤에 직접 오셨다. 주 예수 자신은 전능한 손길과 벌려진 팔로 그들에게 오셔서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동정 가운데 그들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분은 시내 산에 직접 그들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신탁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드온과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사자 굴 속의 다니엘과 불구덩이 속의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직접 오셨다. 구약의 날들을 통하여, “자기 땅에 오셨다.”

-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 “”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반항 하였으며 그를 수시로 시험하였다. 그들은 그를 화나게 하였으며 그분의 성령을 화나게 하고 비통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의 선지자들을 세대에서 세대에 이어 멸시하였다. 그리고 그

가 세상에 온 이후, 유대인들은 그를 거절함으로 그들 자신의 성경을 충족시키며 그분과 그의 복음을 멸시하였다(호 9:17; 행 13:27).

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고, 절망적으로 사악한가!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았고, 말씀이 있기 오래 전에 육신이 되셨다. 그는 태초부터 창조 전체를 지배하고 명령하며 통치하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격려하며” 세상 가운데 계셨다. 그는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고, 계절마다 열매를 주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통치하였고 열방들이 늘어나고 사라졌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롬 1:25).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는 더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던 바로 그 백성에게 오셨고, 다른 열방들에서 구별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선지자들에 의해 자신을 계시하였던 자들에게 오셨다. 그분께서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그에 대하여 읽었고 그가 오심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였던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사악하고 부패했다는 훨씬 더 큰 증거가 있다. — 얼마나 자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의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제시되고 못 박힌 채로” 여러분에게 오셨는지(갈 3:1). 하지만, 여러분은 집요하게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불신의 반역자들에게 그분은, 예레미야애가 1:12 에서 말씀하신다. -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 썬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 다른 사람들

넷째,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다. 유대 나라는 그분을 거절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롬 3:3-4).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복되다. 다른 사람들, 영적 씨, 택함과 구속으로 그분의 백성이 된 백성, 그분의 권능의 날에 그를 기꺼이 영접할 백성이 있다.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12 절).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언급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께 다가가고 당신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접하다”는 말의 의미-취하다-이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영접한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와 구속자로서 영접한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용서와 사함과 의와 기업을 받는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생명을 받는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받는다! - “그리스도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시다!”

그분을 영접하는 이 많은 자들은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하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각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 중에서 나온, 영원한 생명을 안수 받은 많은 자들이며(행 13:48), 그분의 보혈로 구속 받은 많은 자들이고(사 53:10-12),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불러 내실 많은 자들이다(시 65:4; 행 2:39).

## 믿음의 축복

12 절을 다시 보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복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다.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수년 전, 우리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이 문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는 질문하였다. “그 ‘권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능력이나 권위인가요?” 나는 “그렇습니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능력과 권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로마서 1:16 에 능력이라 번역된 말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단어이다. 로마서 1:16 에서 “능력”이라 번역된 단어는 “전능한 능력, 강한 힘, 혹은 풍부한 힘”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가져온 단어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능하며, 폭발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능력이다.

여기서 권세로 번역된 그 말은 “권위와 능력”을 모두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 말 “실행하다(exercise)”와 유사하다. 그것은 권리와 역량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사용 하거나 어떤 것을 작동하게 하는 것에 대한 사상이다(요 5:27; 17: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량과 능력으로 심판을 행사하고 우주를 통치하기 위하여 권세(권리와 권위)를 받으셨으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믿는 죄인에게 그분의 차용인 그 권세(역량과 능력으로 행사할 권리)를 주셨다. 우리는 영

원 가운데 양자 되었으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졌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모든 권한(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요일 3:1-2; 갈 4:6-7; 골 1:12-14).

믿는 자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갈 3:26).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J. C. Ryle 이 기록한 것처럼, “새로운 하늘에 속한 출생으로 거듭났고, 왕 중의 왕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극소수, 그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의해 멸시 받은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해 무한한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매우 기뻐하신다. 시간 안에서 그들의 선을 위한 모든 것으로 그들을 공급하신다. 영원 가운데 그분께서는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들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고 특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처럼 그것들을 소유할 권리를 죄인들에게 준다.

## 새로운 탄생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새로운 탄생의 결과이고, 성령 하나님에 의한 거듭남의 결과이다. 여기 13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한 새로 태어남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불확실한 조항이 아닌 것에서 듣게 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새로 태어남은 우리 부모들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다. 그것은 “혈통

으로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 유래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갖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여 한 단계 오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세대에 의해 우리의 타락한 조상들로부터 아무것도 유래되지 않았고, 타락한 경주의 부패한 혈통에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영적 생활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 새로 태어남과 그와 함께 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육정”으로, 우리의 상상하는 자유 의지의 실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롬 9:16). 그리고 이 새로 태어남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뜻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하여 그것을 갈망하였고,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스마엘을 생명과 구원 속으로 의도할 수 없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것을 갈망하였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여전히 사라졌다.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도 아들이나 딸을 생명으로 의도할 수 없다! 아무도 사망한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 속으로 의도하거나 말하거나 설득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영원하며 거절할 수 없는 뜻에 의해 거듭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모두, 그분을 믿는 자는 모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였다.”(엡 1:19-20). 아,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보배로우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불쌍한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이며 뛰어난 공훈인가!

“아들들인 우리,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영원한 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제 받네.  
우리 구속자여, 우리 구속자여  
은혜와 영광을 주시도다!

모든 인간의 혼이 죄지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을 뿐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확정하셨네.  
택함 받은 죄인들이여, (수도 없이 많은 자들!),  
영광의 보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라!

멈추어라, 나의 혼아! 흠모하고 경탄하라!  
물으라, ‘아 왜 내게 그런 사랑을?’  
은혜가 나를 그 수 많은  
구원자의 가족으로 두었네!  
영화로우리, 영화로우리  
오직 주 나의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계수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귀한 아들 안에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믿음을 주시기를 (요 1:14; 고후 4:6-7).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존재와 같은 그런 것을 구원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으며, 우리가운데 거하셨고,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으니, 그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지어질 수 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바라본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은혜의 복된 선물이며, 전과된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잉태 되었으며(벧전 1:23-25),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함이다(사 52:7-10; 살전 5:12-13).

## 5 장.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가?—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 (요한복음 1:14)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가?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행 8:4, 8).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인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고 썼다고 추정하는가? 물을 필요 없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전갈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였다. 바울은 도처의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혼에 평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가련하고 길 잃은 죄인들은 그들이 구원자를 신뢰할 수 있기 전에 그들 자신 속에 어떤 선한 것이 보여야 한다고 상상한다. 얼마나 슬프고 어리석은 일인가! 그들은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곳, 그들의 선한 행위—그들의 느낌, 그들의 경험, 그들의 종교적 의무들, 죄에 대한 그들의 양심의 가책, 심지어 그들의 믿음—에서 안식을 찾는다! 그들은 쓸어 버려야 될 거짓된 피난처를 만든다. 그들은 너무 짧아서 다리를 뺄 수 없는 침대 위에 눕는다. 그들은 너무 좁아

서 덮을 수 없는 덮개로 자신을 감싼다. 그리고 그들은 왜 자신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까닭에 놀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혼을 위한 안식처는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어린양 앞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당신에게 안식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야 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는 너무도 깊고 충만하여 여기서 계시된 것을 잘 못 언급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주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당신의 혼 가운데 안식으로 축복받을 것임을 확신한다.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성막

요한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유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었던 것과 비교한다. 다른 번역본인 NKJV 를 통하여 그것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쳤더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노라.” 우리 번역에서 “내주하였다”라는 말은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지켰다.

구약 성경의 유대 교회 안에 그 가장 위대한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성막을 쳤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이나 이스라엘의 왕자의 장막에 내주하지(성막을 치지) 않으셨고, 광야의

성막 안에 내주 하셨다. 그 곳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셨다. 그리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그들은 그들 한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소유하였다.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려 했을 때 사람들이 갔던 장막이었다. 그것은 그분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려 할 때 체현적으로 오셨던 장소였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수송아지와 양들을 도살함을 통하여 서로 만났다. 양쪽(하나님과 사람)이 화목 되었던 것이 그 성막 안에서 였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것이였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막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이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다. 고대 유대인들이 경배하기 위하여 야영지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갔던 것처럼,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온다. 만약 유대인이 그들이 더럽혀졌고 의식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어떤 의식상의 불결함으로부터 해방되려 하였다면,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제물로 씻김을 구하고 평강이 하나님과 그 혼 사이에 회복되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음으로써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성막이시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나아가간다.

## 쉐키나

그 예화를 조금 더 따라가 보자. 성막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가장 거룩한 장소였다. 그 가장 거룩한 장소에 시온좌라 부르는 황금 덮개가 있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다. 시온좌 위에 날개가 서로 맞닿은

채 시은좌를 내려보고 있는 체루빔이 서 있다. 시은좌 위로 올라가면서 “쉐키나”라고 부르는 밝은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성막 안에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 그 빛 바로 위에 밤에는 불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었다. 구름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펄펄 끓는 태양으로부터 막아주었다. 쉐키나는 영광이었다.

여기 요한복음 1:14 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막임을 선포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요한은 말한다.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누구셨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셨는지 선포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막이다. “참 장막,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히 8:2),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신으로 거하신다.”(골 2:9). 우리는 이 성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며 바라본다.

## 은혜와 진리

여기 그리스도 참성막의 위대하고 출중한 탁월함이 있으며, 그로써 그것으로 그는 구약의 예표의 성막을 경이롭게 능가한다. 그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다. 유대 성막은 율법으로 충만하였다. 그의식과 예식은 은혜를 나타내고 예표 하였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었던 그 전형적인 제물들은 죄와 죄의식을 아무것도 없애지 않았다. 모든 율법과 함께 처럼, 그들 모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죄와 죄의식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였다. 그것이 히브리서

10 장을 여는 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다.

“유대의 제단 위에서 죽임 당하는  
모든 짐승의 피가  
죄의식의 양심에 평강을 주거나,  
그 얼룩을 씻을 수 없네.

하지만 그리스도, 하늘의 어린양이,  
우리 죄들을 모두 가져가네;  
더 귀한 이름과 더 부요한 피의 제물이  
그것들 보다 좋네.

나의 믿음의 그녀의 손을 내려 놓으리  
당신의 소중한 그 머리 위에,  
하지만, 참회하는 자처럼 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노라.

나의 혼이 되돌아 보는 것은  
당신께서 굽어지신 그 짐들  
저주의 나무 위에 달리실 때,  
그녀의 죄가 거기 있기를 소망하네.

믿으며, 우리는 기뻐하리  
저주가 벗겨짐을 바라봄을;  
즐거운 목소리로 어린양을 축복하고,  
구속하시는 사랑을 노래하네!”

옛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었던 울타리와 벽과 두꺼운 휘장이 있었다. 그 휘장은 우리가 범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였

다. 경배자들이 성막에 나왔을 때 옛 경배자들은 그들의 죄와 죄의식을 상기하게 되었고, 결코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참성막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나누어 놓는 휘장이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만족시키심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나누어 놓는 장벽을 허무셨다. 이제, 앞에서 말한 바처럼, 우리는 그분의 피를 믿고, 충만한 확신으로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충만”이시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히 10:19-22).

얼마나 “은혜의 충만!”이라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지! - 그분께 조금의 은혜가 없든지, 아니면 많은 은혜가 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부요한 풍성이 “은혜의 충만”이신 주 예수 안에서 소중히 여겨진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

옛 성막은 형상과 그림자들과 상징들과 그림들과 예표들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참 성막은 “진리의 충만”이다. 그리스도는 실체이지 그림이 아니고, - 실제이지 그림자가 아니다. 여기 우리의 큰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성막에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쉼기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께 나온다. 우리는 은혜의 상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신 그분께 나온다. 우리는 진리의 그림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로써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진리이신 그분께 나온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나왔는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가? 요한과 함께 -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수되고 있는

가?

## 성육신 하신 말씀

첫째, 사도는 성육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한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강조가 표시된 성경 가운데 어떤 구절이 있다면, 분명 이것이 그 한 구절이다. 모든 단어가 지대하게 중요하다. 이 장의 앞 13 절에서 너무도 높이 언급된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포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매우 강하다. 그것은 로마서 3:20 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말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육신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듣는다. 로마서 8:3 에서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언급된다. 여기에서 “육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부패한” 육신에 대하여 말하는 창세기 6:12 에 사용된 히브리 말처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 요한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심에 있어서 우리 구원자의 큰 겸손과 굴욕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이보다 더 강하고 더 강조하는 말을 쓸 수 없었다. 요한이 단순히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했다면, 그 의미는 하락의 선포를 그다지 강조하지 않은 게 되었을 것이다(빌 2:5-8).

“말씀이 육신이 되어!” –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어둠함으로 되었으며, 우리의 충만한 본성, 육신, 혼,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 본성을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연합 속으로 취하셨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며, 하나님-사람이시고, 우리 중보자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

어,” Augustine 이 4 세기에 말했듯이, “그의 어떠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니었던 것을 취하심으로”이다. 한 인격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은 분해할 수 없고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우리 하나님-사람 중보자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다.”(히 13:8).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마, 그러나 이 말씀을 에베소서 5:30 에서 한 사도 바울의 말에 연결 짓지 않을 수 없다. - “말씀이 육신이 되어”와 “우리는 그분의 몸과 육신과 뼈들의 지체들이다!” 지금 그렇고, 교회의 모든 시대 가운데 그래왔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 은혜 받은 백성

둘째, 요한은 은혜 받은 백성들에 대하여 묘사한다. -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가 이 은혜를 받은 백성인가?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 선택된 무리이다. 주 예수께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나니.”라 하셨다. 그분께서, “너희는 나를 택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택하였노라.”고 하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소유께 오셨으며, 그분의 소유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혈로도 아니요, 육의 뜻으로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날에 택함 받은 자는 그들이 작은 수의 남은 자들이라 할 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였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분께서 어디를 가시든 어린양을 따랐던 소수가 있었다.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은 택함 받은 무리들이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분의 택정하심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영원 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다(행 13:48). 그리고 여기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다(요 17:24).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은혜롭게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분에 의해 특별하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본다. -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막 3:13). -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10:3). 구덩이로 내려가려 하는 것을 구원하신 자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욥 33:28). -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시 40:3). -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사 35:2).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분의 양을 이름으로 부르시며 그들을 이끌어 내신다. 만약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분 자신께로 부르셨기 때문이며, 그 부르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택정하심의 결과이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이들은 신성한 빛비춤을 받은 백성들이기도 하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천연적으로 눈이 먼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때문이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나 우리가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다(고후 4:6). C. H. Spurgeon 은 말한다...

“이 세상의 임금 중 아무도 그분을 알지 않았다. 율법을 연

구한 제사장들은 그분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이었던 유대 공회 가운데 아무도 그분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헛되다 동쪽에 있는 별이여; 헛되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기적 같은 모습이여; 눈이 먼 세대는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네. 헛되다 눈먼 자의 눈을 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함 이여; 헛되다 죽은 자의 일어남 이여; 헛되다 그 모든 수 없는 표적들과 기사들이여;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알아차릴 수 없었도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린 자들에게 속한 자들에 대하여, Simon Barjonas 처럼, 이른바, ‘복되도다, 육과 혈은 이것을 너희에게 계시하지 않았음이라.’”

“너희 눈이 복되도다, 그들이 보게 됨이라!” –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나 그분의 양인 자들은 믿는다.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끄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분께 나오지 않는다. 그 눈이 그분 자신의 치유하는 손가락으로 열린 자들이 아니면 아무도 그분을 알아차리지 않는다. 당신은 그분의 영광을 보는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택하셨고, 당신을 부르셨고, 그분의 은혜로 당신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 계시된 것

셋째, 요한은 계시된 것들에 대하여 말한다. –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 “우리가 본다.” 본문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들었다든지,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고 한다. 그 어떤 특권인가!

이것은 주 예수에 대한 육체적이나 세속적인 이상보다 훨씬 더 좋

은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결코 보지 않았던 자들은 그들의 머리에 있는 눈으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결코 보지 않은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논리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들은 결코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는데, 그분을 알지 않으며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들 가운데 계시된 그분이 없기 때문이다.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할 때, 그는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벧후 1:16)라고 기록할 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변화산 위에서 그가,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았던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앞에서 변화되었다. 그들은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의 모습으로 보고 있으며, 세상이 있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갖고 계셨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던 죄인의 대속물로서 보았다(눅 9:28-31).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누가복음 9:28-31).

누가복음 9:31의 “별세하다(decease)”는 말은 글자 뜻은 “나가다(exodus)”이다. 이 제자들은 그 산에서 그분의 영의 구원의 운

행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동일한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죽음으로 율법과 예언을 그분께서 성취하셨고 만족케 하셨으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고(마 17:5),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으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주가 되실 권리를 받으셨으며, “공의의 하나님이며 구원자”(사 45:20-22)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진리”를 하늘로부터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시 57:2; 85:10; 115:1; 잠 3:3; 16:6; 미 7:20).

다시 묻겠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가? 그 영의 믿음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가? 만약 그분의 영광을 보려 한다면, 그분께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분은 나를 이해하라고 하시지 않고, 다만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분은 나를 섬기라 하시지 않고, 다만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분은 심지어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다만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봄으로써 당신은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며, 이사야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사 6:1-7)고 한 것과 같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다(요 11:40).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구속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본다!

**복된 이상**

넷째, 요한은 우리 앞에 있는 복된 이상을 우리가 우리 구원자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기술한다. 그것은 단지 이것이다: -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 앞에 어떤 영광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 그분의 경이로운 위격의 영광 - 하나님이며 사람!
- 우리 대표자로서 그분의 완벽한 의의 영광!
- 그분의 죄 속량 제물의 영광(고후 5:21)!
-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의 영광!
- 온화하고 측은히 여기는 인격의 영광!
- 그분의 하늘 중보의 영광(요일 2:1-2)!
-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영광(요 13:1)!
- 그분의 최후 승리의 영광(계 19:1-6)!

## 주어진 증인

다섯째,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 우리에게 너무도 은혜롭게 은혜를 주시는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의 권위에 대한 목격자”로서 그분이 영광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려 함이다(요일 1:1-3).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자마자,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단의 태우는 불로 여전히 불타는 입술의 그 죄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 그 영광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로 충만하시다!

“그분께 풍성한 은혜가 보이니, —  
나의 모든 죄를 덮는 은혜로다:  
치유의 흐름이 풍성하게 하라,  
나의 속이 순수하게 만들고 지키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충만하시다! 그분께서는 진리이시  
다! 그분은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실  
제이시다!

“모든 자가 모든 신성의 임마누엘을 높이네,  
당신 안에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네;  
당신은 가장 밝고, 달콤하며, 정결한 한 분,  
눈으로 보았으며 천사들이 알았노라.

아, 나로 그곳에 이르러 살게 하소서  
그분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는 곳에서.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을 성도들이 보는 곳에서,  
또 황금 선율에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는 곳에!”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가? 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로부터 영  
원토록 더욱 더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6 장. 하나님의 희년 전갈—요한복음 1:15-18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15-18)

우리는 레위기 25 장에서 희년에 대하여 본다. 매 49년 째 해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희년”이라고 부르는 일 년에 걸친 안식을 시작하기를 요구하신다. 매 오십년 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다.

구약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안식일을 주변으로 회전하였다. 창조의 마지막에, 주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에 안식하셨다. 율법을 주실 때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도록 요구하셨는지 전에 알았는가? 주님은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일곱 번째 주(50 번째 날)를 안식주로, 일곱 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그리고 오십 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는 것을 요구하셨다.

50년째의 안식년은, “희년”으로서, 우리의 안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예표와 예언 안에 있는 것 외의 모든 것, 그분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에 속한 것과 같았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매 오십 년마다 한 번씩 그들의 사회적 문제, 그들의 형제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부채로부터 해방하며, 잃어버린 소유와 재산과 유산을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고, 바로 잡도록 요구 받은 기간으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절기였다. 그것은 하나님과 서로 간에 있어서 택함 받은 죄인을 회복하는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 있는 영원한 안식의 그 위대한 안식 안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함에 있어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묘사하였고 예표 하였다. 그 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년은 “용납의 시간”이고 “구원의 날”이었다.

희년은 그 모든 땅에 두루 나팔 부는 소리로 알려졌다. 그것은 물론 복음 전파를 나타내는 것이다(사 27:13; 시 89:15).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고 대가 없고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기쁜 소리를 듣게 되었을 그 귀들은 복되다!

## 네 가지 나팔

이스라엘 야영지에서 네 가지 구별되고 특별한 나팔 소리들이 있었다. 각각은 복음 전파를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기념 나팔들은 초승달을 알리고 사람들을 기쁜 경배 집회로 불러 모으기 위하여 소리 낸다(레 23:24; 시 81:3). 전투 나팔, 전쟁 나팔(삿 3:27)은 사람들을 전장으로 모으기 위하여 소리 냈다(고전 14:8). 경고의 나팔은 사람들에게 긴박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들을 회

개로 불렀다(욘 2:1). 그리고 그 희년 나팔은 회복의 그 기쁜 해의 시작을 알렸다(레 25:9).

희년 나팔은 다른 것과는 달랐다. 나팔 소리는 매 오십 년마다 한 번씩을 제외하고 결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가난한 포로도 그 음악과 그 은혜로운 의미를 아는 순간을 놓치는 자는 없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하며 사로잡힌 죄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분이 죄인들에게 용서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되는 것을 선포할 때, 그분이 죄인들이 속량이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 방법이다. 바로 그 순간, 희년이 시작된다. 사탄과 율법에의 죄에 오래 동안 사로잡혔던 혼은 자유로워 지고 자유 가운데 행보하고 춤춘다. 얼마나 기쁜 소리인가! 얼마나 기쁜 날인가! 복음의 희년 나팔 소리가 혼 안에서 울릴 때, 주를 영접하는 해가 시작한다(사 61:1-2; 63:4).

아 천의 방언들이 노래하네  
나의 위대한 구속자의 찬양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의 승리를!

지워진 죄의 능력을 파하시며  
간힌 자들을 해방하시네!  
그 피가 불결한 자를 씻으실 수 있네—  
그 피가 내게 효능이 있었네!

## 희년 나팔

희년 나팔,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이 일곱 가지 것들, 죄인의 귀에 하늘에 속한 음악처럼 소리 나는 일곱 가지 것을 선포한다.

1. **속죄** - 희년 나팔은 속죄일에 울려져야 했다(레 25:9). 그곳은 언제나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곳이다. 복음은 속죄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전파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떨어져서는 기쁜 소리가 될 수 없다. 희년 나팔은 속죄의 피가 뿌려지고, 속량의 피가 받아들여지며, 속량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었으며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으로 옮겨졌다. 그분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성취되었고 우리 죄들이 영원히 없어졌기 때문에 셋째 날 다시 살아나게 되셨다!
2. **자유** - 희년은 속죄일에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바로 그 요구에 따른 자유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레 25: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자유자이며 자유를 선포한 자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눅 4:17-21).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분명히 하라. - 희년에 선포된 자유, 복음 안에서 선포된 자유는 은혜에 속한 복된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의해 요구된 자유이다. 레위 율법의 다른 의식들과는 달리, 희년에 대한 이 율법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 시간에 주어졌다(레 25:1).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대속자의 피로 완전히 만족되었으며, 모든 구속 받은 죄인의 자유를 요구한다. 은

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의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의를 통하여 통치한다(롬 5:20-21).

3. **용서** - 희년은 용서의 시간이었다(레 25:35). 모든 것을 잃고, 그 땅과 그리고 그 집과 마침내 자신을 노예로 팔아 그 엄청난 빛의 짐을 초래하였던 가난하고 불쌍한 자는 희년 나팔이 울릴 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고 빛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완전히 대가 없이 영원히 용서 받았다. 그의 빛은 희년의 기쁨으로부터 그를 가두지 않았다. 그의 빛은 나팔 소리를 울리도록 하는 자격을 그에게 주었다. 이제 나의 말을 들으라. - 나는 가난한 자에게 희년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 받았다.

“의로운 자가 아니네, 의로운 자가 아니네,  
죄인들을 부르시려 예수께서 오셨네!”

4. **안식** - 희년은 안식의 해였다(레 25:3-5).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식의 선포이며, 지친 죄인들을 안식으로 부르며 영원한 안식을 약속한다(마 11:28-30; 히 4:1-11; 시 116:7; 갈 5:1-4).
5. **풍요** - 희년은 위대하고 견줄 수 없는 풍요의 해이다. -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라.”(레 25:19). 아, 이 어떤 복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땅 안에서 완전히 안전한 가운데 거하도록 된다. 우리의 보물은 그리스도의 알수 없는 부요이다. “모든 것이 너희 소유임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자유 안으로 옮겨진 우리는 그분의 충만 안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모든 것에 감사하도록 하자.

6. **회복** - 희년에 그 유산을 잃은 모든 사람은 완전히, 대가 없이, 분명하게 어떤 종류의 저당도 없고 어떤 종류의 담보도 없이 되돌려 받는다(레 25:13).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다. 우리 자신의 의도적인 반역과 죄로 인하여 잃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 그는, “주께서 내 혼을 회복하셨다!”고 노래하였다.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손들이며,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다!

7. **형제 사랑** - 희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도록 율법에서 요구 받았다. -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25:17). 복음의 희년 안에서 구원 받은 죄인들은 서로 사랑할 것이 강요되었고 은혜로 가르침 받았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너희가 자의 제자들임을 알게 할 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라.” - 내가 내가 없이 사랑을 받았는가? 대가 없이 사랑하도록 하자. - 내가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는가? 대가 없이 용서하도록 하자. 우리는 마태복음 18 장에서 그 동료 종을 함부로 다루고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던 용서 받은 종에 대하여 본다. 그는 분명 사람을 앞에서 다루는 담대함이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인에게서 경험하였던 은혜와 동정과 용서가 극명하게 없었다. - 나는 대가 없이 받았는가? 대가 없이 주자.

그 마지막 희년의 시작에 누가 전파하기 시작했는지 아는가? 그는

침례자 요한이었으며, 그는 주께서 오실 그 해를 선포하고, 희년에 약속되고, 예표 되었고, 소망을 두었던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그분, 하나님의 어린양이 오셨음을 죄인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으로써 보냄을 받은 자였다!

## 침례자의 증언

희년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었다.” 15 절에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한 사도 요한의 서술을 본다. 그는 요한의 모든 일을 증언으로 서술한다. 여기 침례자의 증언이 있다. -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요 1: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 그것이 전도자가 한 것이다. 그는 구원자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그분 주 예수에 대하여,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교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신학적 체계에 대하여가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증거한다! 침례자 요한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증거하려,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보냄을 받았다 (7 절). 신실한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분에 대하여 신실하게 증거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처럼(사 40:3), 침례자 요한은 속죄가 준비되고 희년이 시작될 때 희년 나팔을 불기 위하여 보내진 외치는 자처럼 외치려 왔다. 요한은 외쳤다. 그것이 전도자가 하는 것이다. 그는 외친

다. “구속이 성취되었다! 공의가 만족되었다! 죄가 없어졌다!” 진  
 실된 열심과 열정으로 그들은 외친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리  
 스도의 피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킴이 성취된다!” 그들은 외  
 친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  
 라.” 그리스도는 침례자 요한의 뒤를 이어 육 개월 후 세상에 오셨  
 다.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의 뒤에 오셨다. 그  
 러나 그분은 그보다 전에 계셨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리스  
 도는 그보다 앞섰으며, 요한보다 앞섰으며, 모세보다 앞섰고, 어떤  
 선지자들이나, 어떤 사도, 어떤 전도자, 어떤 사람, 어떤 천사 그리  
 고 어떤 것보다 앞서 계셨다(골 1:18-19).

## 구속자의 충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16 절).  
 –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년의 전갈  
 이다. 모든 충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 안에 있다. 죄와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 가운  
 데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를 위하여 회복되  
 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 우리 혼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뿐이다. –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  
 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 구원자 안에는 무한한 충만이 있다! –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 –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골 1:19; 2:3,

9-10).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끝없고 무한한 은혜의 공급이 가  
난하고 궁핍한 죄인들을 위하여 있으며, 지금과 영원토록 은혜의  
큰 부요를 넘치게 한다! — “그분이 충만이어!” 놀라운 생각이다! —  
“그분의 충만”은 모든 충만이다. 모든 충만은…

-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약속!
- 하나님의 위대함, 선하심, 영광!
- 하나님의 순수함, 세심함, 능력!
- 하나님의 지혜, 뜻, 역사!
- 하나님의 의, 구속, 계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 그분 안에서 선택 받고,  
그분으로 구속 받았고,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에 속하여  
났으며,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  
을 받은 모든 자, 하늘에 속하여 난 혼은 모두, 모든 믿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믿음의 손으로  
그분의 충만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 그리  
스도 안에서 그분의 끝없는 충만으로부터 은혜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다.

- 택정함의 은혜로 인한 구속하는 은혜!
- 구속하는 은혜로 인한 거듭남의 은혜!

- 거듭남의 은혜로 인한 성화의 은혜!
- 성화의 은혜로 인한 믿음의 은혜!
- 보존의 은혜로 인한 보존의 은혜!
- 영원 가운데 은혜로 인한 시간 가운데 은혜!
- 언약의 은혜로 인한 시험의 은혜!
- 약속된 은혜로 인한 용서의 은혜!
- 전가된 은혜로 인한 분배된 은혜!
- 영원한 은혜로 인한 영원한 은혜!
- 은혜의 대가 없음으로 인한 은혜의 충만!
- 많은 은혜 위에 많은 은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복되도다!

### 구원자의 우월함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 17 절을 시작하는 말은 “것이요 (for)”은 우리가 방금 본 것과 이것을 연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이시고 중보자의 충만으로부터 이로써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것을 확실하게 잡아라. — 율법이 명하는 그것을 은혜가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계율과 나란히 간다. 실로, 은혜는 계율을

약속으로 바꾸며 실행을 약속한다. 이것이 모세 위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위대한 우월하심이다. 모세에 의해 율법을 주신 분은 그분이셨고, 은혜로 율법을 충만케 하셨던 분은 그분이셨다. 그분께서 주시는 율법은 의를 요구하셨다. 그분께서 행하셨던 은혜는 의, 완전한 칭의를 가져왔다. 그분이 주신 율법은 만족하기를 원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은혜는 만족과 완전한 구속을 주셨다. 그분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의 사망을 요구하였다. 그분이 행하였던 은혜는 우리를 대신한 사망을 이루셨으며, 대속물의 속량을 이루셨다. 그분께서 주셨던 율법은 거룩을 요구하였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은혜는 거룩과 거듭남 안에서 완전한 성화를 주신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확대하신 율법과 존귀하게 하였던 것인 이 모든 은혜는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공의의 최소의 타협도 없이 성취되었다(롬 3:24-26; 8:1-4).

## 아들의 선포

넷째, 18 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께서 하신 아들의 선포에 대하여 말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 —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며, 모양과 형태도 없고, 광대하고, 무한하며, 불가해하시다. 아무도 그분을 보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아무도, 모세도, 엘리야도 당신도, 나도 그분의 뜻의 결심을 알 수 있는 자는 찾을 수 없었다. 아무도 그분의 계명의 책을 취하여 그 봉인을 뿔만한 가치가 있는 자를 찾을 수 없었으나,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충만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신 주 예수 그리스

도, 아버지의 품에 계신 분만 예외이다.

그분은 창세전에 보좌 한 가운데에서 살육되었고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 책을 취하셨던 어린양으로 하늘 천사들 앞에 마주 섰다. 그분께서는 구약의 예언 시대를 통하여 사람의 형태로 자신을 보이셨다.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해셨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바로 그 영광이 그분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 안에서 빛나고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8 이 말씀하는 바이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는 말은 한 번, 마지막으로, 과거에 행해진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한다. 갈보리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대속물에 의한 성취 안에서, 우리 복된 구원자께서 아버지, 삼일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의 모든 충만과 사람에게 영광 안에서 선포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년 전갈이다. 우리가 희년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나라고 명하시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서 길 잃고 정죄 받은 죄인들의 타락한 마음인 어둠 가운데 빛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며 빛나신다!

## 7 장. 그리스도의 충만: 우리의 끊임 없는 공급—요한복음 1: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16)

요한복음 1:16 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서술의 계속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15 절은 사도 요한이 6 절과 7 절에서 했듯이 침례자 요한이 그가 전했던 동일한 전갈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가운데 삽입구이다. 14 절과 16 절을 함께 읽어 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로써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가운데, 그분의 부활 가운데, 그분의 승천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분의 중재 가운데, 그분의 재림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모든 충만한 구원자로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을 본다는 뜻이다. — 그리고 “그분의 충만한데서”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은혜를 끊임 없이 공급 받는다. 그것이 이 두 구절

에 있는 요한의 말의 의미이다.

## 우리 영광스러운 구원자

첫째, 요한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영광스러운 구원자이신 그분 자신, 육신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인 분의 인격으로 인도한다. John Newton 은 올바르게 말했다...

“죽을 때 내게 부담도 되지 않고 심판의 날에 내게 혐의를 두지 않을 것임에 매우 만족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 높이 생각 했거나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파와 오메가로, 주 우리 의로, 죄를 대신한 충분한 속량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서 너무 많이 소개하고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아아! 나의 죄와 비통함은 그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너무도 희미하고, 드문드문하고, 그분에 대한 나의 천거가 너무도 통탄스럽게 냉냉하고 그것들이 그래야 하는 것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말이 여기에서 언급되었지만, 중요하지 않다. — “우리 모두”가 언급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분의 충만한 것의” 수혜자로서 언급될 뿐이다. 모든 존귀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시 115:1). —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그리스도는 지금도, 언제나 탁월하시다.

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뚜렷하고 분명한 선

포와 계시, 아버지의 존재와 성품과 생각과 뜻과 마음의 드러남 이다. 하나님을 보겠는가?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격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선포하신다.

그러나 우리 복된 구원자는 단순한 말씀, 하나님의 생각의 단순한 표현 그 이상이다.

그분은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시며, 그의 충만으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는다. 1-5 절을 보라.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강조한다.
-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 구원자의 신성이 선포되었다.
-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행사들을 우리 구원자에 기인한다고 한다. —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그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계시며,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다른 방법이다. —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 요한 일서 1:5 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고 선포하고, 이 장의 9 절에서 말씀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요한은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받은 그 분이 모든 것 위의 하나님 자신이시며 영원히 복되시리라는 사실의 선포에 있어서 더 이상

분명하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도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로서 참 사람이심을 주장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본성을 흡수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셨다.”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조차 말하지 않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은 그분의 장막을 사람의 아들들로 치셨다. 그분은 죄인들과 고통 받는 자들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과 죽을 자들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사망에,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여정을 마치셨다.

삼일 하나님은 한 인격 안에서 그의 무한한 은혜의 충만을 그렇게 존엄하고 귀하게 만드셨기에 하늘과 땅은 그분의 임재의 존엄함에 떨며, 여전히 한 인격 안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셨기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Joseph Hart 와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쁘게 노래한다…

“한 사람 있네, 한 참 사람,  
아직 상처가 크게 벌어진 채,  
거기서 한 때 피가 넘쳐 흘렀네,  
손에서, 발에서, 또 옆구리에서.

우리 뇌리의 이 광폭한 상상은 없네,  
표현할 말이 없다네;  
하늘의 그 귀한 사람이 이제 통치하시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은 분이네.

우리가 말하는 이 놀라운 사람,  
참 전능자 하나님이네;  
그는 우리 혼을 사망과 지옥에서 사왔네;  
그 값은, 자신의 심장의 피라네.

그 인간적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시네,  
최상의 천국 기쁨 가운데 보좌에 있을지라도;  
유혹 받는 지체의 고통을 느끼시네;  
우리 고통은 그분 것이기에.

오라, 그러면, 회개하는 죄인아, 오라;  
겸손한 믿음으로 다가오라;  
네가 질 것은, 모두 합하여  
그분의 죽음으로 취소된다!

그의 피는 그 어두운 혼을 씻을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 버릴 수 있네;  
그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전부 보여줄 것이니  
그 엄청난 날에.”

이 장을 통하여,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 생각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며, 마치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만 향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언급되었지만, 그러나 소개된 것과 같은 각 자는 부인하는 자와 즉시 따라간다. 그는 침례자 요한을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수차례 언급하지만, 그러나 매번 부인하는 자와 함께 한다.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7 절). 그러나 “그는 그 빛이 아니었다.”(8 절). —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주자였다. 그러나 그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고 선포하였다(20 절). 모세가 언급된다(17 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어린양 앞에 엎드리는데 비록 “율법이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왔다.”는 것 때문이다. 안드레아, 시몬, 빌립, 나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조차도 이 장에서 이름이 언급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인자이신 우리의 모든 영광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그는 탁월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분명 그러하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사람과 모든 천사는 그분 앞에서 작아져야 하고 작아지며, 그분이 커지고 우리로 인하여 커져야 한다(요 3:30). 어떤 것이든 누구든 태양 그 자신을 제외하고 의의 태양의 빛 가운데 밝게 빛나지 않는다. -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그리고 모든 은혜의 무한한 샘으로 서 계실 뿐이다. 아,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엄과 위대함 가운데 우리 구원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처럼 우리가 “구원하실 분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뿐!” 입을 볼 것이다. -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더 많아지게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작아지게 하라.

## 그분의 충만

성령 하나님은 16 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자들에게 설명할 수 없이 소중한 두 가지를 가르치신다. 첫째, 그는 모든 충만이 이 영광스러운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게 됨을 말씀하신다. 둘째,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게 된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모든 은혜를 받는 은혜의 끊임 없는 공급이라는 것을 가르치신다.

첫째, 주 예수 안에서 보배롭게 되는 충만에 대하여 생각하라. — “그분의 충만.” 여기 측량할 수 없는 충만이 있다. 요한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그분의 충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것은 무한한 충만이다(골 1:18-19; 2:9-10).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는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만, 그분 외에 아무 데도 없다! —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적 관례와 의식과 포고령이나 어떤 체험에서든 찾을 수 있는 충만은 없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다.”고 말한다. “그분의 충만”은 “모든 충만”이다.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룩과 구원하는 충만, 그 모든 것이 임마누엘 안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그분의 아들 안에 두셨다. 다른 어디에 두실 수 있었겠는가? 모든 충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곳에 둘 수 없다.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분의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 그것은 그분의 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의 말씀과, 행사와, 역사에 가치와 무게와 공로와 효험을 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격이다. 은혜를 받겠는가? 구원을 받겠는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만이 모든 충만을 포함하기에 가장 충분하고 모든 충만을 보유하기에 가장 불변하며 모든 충만을 나누

기에 가장 합당하다.

반복하는데 “그분의 충만”은 “모든 충만”이다! 그 선포 가운데 얼마나 최고로 부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처럼 가난하고 파산한 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천연적으로 우리는 모두 텅 비어 있고 공허하다. 그러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공로가 없으며, 하나님과 함께 공로를 받을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다!

아 내 마음이여, 이것 가운데 기뻐하라! 아 나의 혼이여,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어라!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어는 곳이든 불모와 공허 뿐 아무것도 없다. —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복이 있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을 공급하셨다. 우리 가운데 모든 공허와 완전히 헛된 것만 있다. — “내게 있어, 말하노니,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은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다.

전에 말했듯이, 우리 안에는 전혀 공로도 없고, 어떤 것도 치유할 능력도 전혀 없으며, 할 수 있다면 치유할 의지 조차도 없다. 우리의 본성은 사막이며, 공허와 헛되며, 쓰레기이며, 오직 죄와 어둠과 사망만 남아 있다. 우리는 완전히 텅 비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한다. 당신은 사망하였는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다! — 당신은 죄인인가? 그리스도께서 의이시다. — 당신은 별거벗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옷 입히신다. — 당신은 굶주렸

는가? 그리스도께서 떡이시다. - 당신은 목마른가? 그리스도께서 물이시다. - 당신은 더러운가? 그리스도께서 씻으신다. - 당신은 눈이 멀었는가? -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다. - 당신은 지쳤는가? 그리스도께서 안식이시다. - 당신은 채무자인가? 그리스도께서 속량이시다. - 당신은 무력한가? 그리스도께서 힘이시다. - 당신은 죄의식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용서이시다. - 당신은 죄수인가? 그리스도께서 자유이시다. - 당신은 정죄받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다. - 당신은 공허한가? 그리스도께서 충만이시다.

그리스도는 본질이지, 충만의 그림자가 아니다. - 충만이지, 충만의 맛봄이 아니다. - 실제이지, 충만의 그림이 아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 구약의 예표들은 교훈적이지만, 구원하지 않는다. 율법의 조례와 의식은 죄를 없애는 자에게 우리를 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희생들은 아름답고, 값이 크고, 감명 깊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의식의 양심을 잠잠하게 하고, 단 하나의 죄도 없애 버릴 수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 예표와 그림의 모든 충만이시다(히 10:1-14).

유대 제단 위에서 살육된 어떤 짐승의 피라 할 지라도 죄의식의 양심에 평강을 주거나 한 점의 흠도 씻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모두 가져가고,  
시고,

그보다 더 귀한 이름과 더 부요한 피의 희생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의례와 희생들이 죄를 가져 갈 수 없

다면, 당신이 행하는 것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충만이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충만이시다(롬 10:1-1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계획의 모든 충만이시다(롬 8:28-31).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일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있다(골 2:9-10).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신성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고 있다. 분명히, 그분의 사람 됨은 영원하지도, 전능하지도, 무소부재 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분의 사람 됨은 그분의 신격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앉아계신 인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직 더 있다. — 무한한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모든 충만은 갈보리에서 죽고 이제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그 인자의 몸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알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는 모든 것이다! 우리는 삼위 일체 주의자들이다(요일 5:7). 그러나,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에 의해 알게 되면,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

여전히 아직 더 있다. 은혜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모든 충만”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의 충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분 중보자의 충만이다. 우리 주의 중보적 역사의 결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증이며 대속물이며 대표자로써, 영원한 의 안으로 옮기심에 있어서,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 버림에 있어서,

그리고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그 구속 가운데 그가 하셨던 모든 것의 결과로써,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한다. —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모든 충만. —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고 영구히 거한다(고전 1:30-31).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우리 모든 영광스럽고 모든 충만의 구원자 안에 있다. 자신에 찬 기쁨으로 노래한다…

당신은, 아 그리스도, 원하는 모든 것일세,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 이상을 찾았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32)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3-7)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의 혼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당신의 혼의 필요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가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가? 아픈 마음을 원하는가? 믿음을 원하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를 원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가? 분명한 보증을 원하는가? 당신의 혼이 깨끗하게 됨을 갈망하는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가? 은혜와 구원에 대한 축복된 확신을 갈망하는가? 당신의 혼의 필요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가라. 그것은 그분 안에 있다. 모든 충만은 우리 구원자 안에 있다.

어떤 세상의 언어가 이 무한한 풍성을 표현할 수 있는가?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소유이다. — “주는 당신의 기업과 잔의 분깃이다!” 이것을 붙잡도록 애써라. —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충만”은 당신 소유이다! — 무한히 당신 소유다! — 영원히 당신 소유다! — 현재 당신 소유다! — 무엇이 부족할 수 있는가? (고전 3:21-23)

“그분의 충만”은 은혜의 충만이다. 그가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보증인 계약을 취하게 하였던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은혜의 충만이었다. 우리의 위대한 보증으로서 그분의 채무의 해제 가운데 그분을 지탱하였던 것은 사랑과 은혜의 충만이었다. 그분이 그분의 역사 가운데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사 62:1)이라고 말

하도록 하는 것은 은혜의 충만이다.

그리스도 안에 궁핍한 죄인들 위에 부어주는 은혜의 충만이 있다. 용서의 은혜의 충만으로 어떤 죄라도 그분의 용서하는 능력을 넘을 수 없다. 의롭게 하는 은혜의 충만으로 “불신자를 의롭게 하신다.”(롬 4:5) 변하게 하는 은혜의 충만으로 “그분이 뜻하는 자를 그분 자신께 부르신다.”(요 5:21)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충만은 “그분이 뜻하는 자를 살아나게 하신다.” 정결케 하는 은혜의 충만으로 그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한다.”(요일 1:7) 위로하는 은혜의 충만으로 그는 우리를 결코 쓸쓸함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지탱하는 은혜의 충만으로 “그는 이스라엘이 졸지도 잠들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시 121:4) 만족하게 하는 은혜의 충만으로 우리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원함이 없을 것이다. 회복하는 은혜의 충만으로 “그가 나의 혼을 회복하신다.”(시 23:3) 풍족한 은혜의 충만으로 그분은 “나의 은혜가 네게 풍족하도다!”고 하셨다(고후 12:9).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어떤 은사나 은혜 안에서 제한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충만하시다. “그분의 충만”으로 마셔라. “그분의 충만”의 이 광대한 대양 속으로 뛰어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전에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알게 될 것이다.

## 무한한 충만

“그분의 충만”은 무한한 충만이고, 충만의 끊임 없는 통이다. —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우리가 다”라는 말에 주목하라. — “우리가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요한은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충만”이라고 부른다. 그

리고 골로새서 1:19 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모든 충만”이라 부르신다. 용서를 받기 위하여 첫 죄인이 그리 오기 전에 –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흐름인 그 강을 첫 죄인이 마시기 전에 – 그것은 충만이었다. 그리고 이제 무수한 피로 산 죄인들이 이 생명 주는 강을 마시고 난 후, 그것은 전에 없이 충만하기만 하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충만의 무한한 대양이다! – 이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을 것이다!”(왕상 17:14, 16)

## 받은 충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그분의 충만”으로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산더미 위에 산더미를 “받았다.” “받았다”라는 말은 12 절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말이다. 그것은 수동태 동사가 아니라, 능동형의 동사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리킨다. 주 예수를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은혜의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그분의 충만”으로 받았고 받고 있다. 만약 은혜가 있을 것이라면, 또한 “그분의 충만”으로 분명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을 공허로 채우실 때까지 “그분의 충만”으로 결코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시 107:9; 잠 27:7; 마 5:6). 주께서 당신을 은혜롭게 비우시기를, 그로써 당신이 채워지기에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굶주린 혼을 그분의 은혜의 충만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은혜의 산더미 위에 산더미를 “그분의 충만”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은혜의 산더미 위에 산더미를 “그분의 충만”으로 받았다면, 당신은 은혜가 당신을 영광으로 옮길 때까지 동일한 것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 이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을 것이다!”

## 8 장.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세 가지 질문—요한복음 1:19-2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쥬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러.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19-29)

침례자 요한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여자에게

서 난 가장 위대한 선지였다고 선포하였다. 그것은 어떤 천거였다! 그는 땅위에 행보하였던 최초의 침례자였고, 세상에서 바로 가장 첫번째 침례 전도자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사람을 처음 잠기게 한 자였다. 그것이 그의 칭호인, “침례자”가 의미하는 것은 침례주는 자이다. 이사야와 말라기 모두 그의 올 것을 예언하였고 그가 가졌을 사역을 묘사하였다. — 그는 영 안에서 엘리야의 권능과 함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내졌다. 그는 그의 모친의 자궁에 있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출생을 말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

여기, 성령 하나님은 이 위대한 선지자, 침례자 요한을 우리 앞에 잡아 놓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요한이 세 가지 질문을 특정지어 받았다고 말씀한다. 그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그를 참 선지자로 규정하며 참되든 거짓되든지 간에 그 뒤를 잇는 모든 전도자를 규정한다.

1. “네가 누구냐?” (v. 19)
2.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v. 22)
3.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v. 25)

## “네가 누구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광야에 나타났으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죄인들이 회개할 것을 외쳤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천국(\*역주: 하늘의 왕국)이 임박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

동하여 회개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되었고, 요한은 그들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소동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 상류층들 사이에 작지 않은 동요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한이 누구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19-21 절)

메시아에 앞선 자가 그들 앞에 섰는데, 그는 그리스도에 앞선 자로서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그 사실은 모든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였다!

이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그들의 말을 자르고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높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 이기적인 전도자들은 그들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것이든 하며, 심지어 그들이 경멸하는 말을 하는 자를 높일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도 높이고 선전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대의회(Sanhedrim, -rin)였으며, 유대인의 영적 통치자였음을 기억하라. 그들은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가장 공경을 받

왔고,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유대 교회 안의 큰 바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어떤 단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척 하였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크게 자랑하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았고, 그것에 순종한다는 상상 속에서 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척하였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알았다고 자신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자신만만한 지도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영적인 것들에 완전히 무지하였다. 그들은 얼마나 잘 교육받았든지 간에, 얼마나 잘 배웠든지 간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종교적이든지 간에, 거듭나지 않은 혼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사실의 슬프고 두드러진 예로써 우리 앞에서 있다. 영적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오며(잠언 2:6),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만 온다(고린도전서 2:14-16).

고린도전서 2 장에 바울의 교리의 증거가 있다. —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요한이 26 절에서 선포하듯이 그들의 한 가운데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를 보았지만, 결코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에 대하여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그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그분과의 사귄 가운데 살았지만,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실이었던 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사실이다.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은 정확히 그들과 같을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제시

되었지만, 당신은 그분을 보지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 같은 말씀을 읽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안다. 하지만 당신 모르는가? 왜?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공활을 베푸시고 당신에게 주 예수를 계시하고, 은혜롭고 효험 있고, 대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방문하기를 바란다 (누가복음 19:44; 욥기 10:12; 이사야 12:1-6; 25:9).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요한은 그들의 말을 자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를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나, 심지어 메시아(모세가 신명기 18:15-18 에서 말했던 선지자)의 재림으로, 만약 그가 간단히 그들의 칭송을 수락하고 그런 분들로 동일시 되려 했다면, 받아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참 선지자였다. 그는 그들의 존경을 거절하였고 자신에게 어떤 명예를 취하기를 거절하였다. 대신에, 그는 즉시 관심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렸다. 열 아홉 번이나 그는 자신이 오해 받지 않도록 확신시키면서 자신에게서 관심을 돌리도록 중복 확언을 하였다.

침례자 요한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대적들과 동일선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평가로 매수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칭송이나 심지어 사람들로 부터의 인정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은 존경을 갈망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존귀를 갈망한다. 그들은 세심하게 그들 자신으로부터 그분께 빛을 돌린다.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다음 질문을 보라. 그들이 만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압박을 가했다. —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2 절).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나는 제사장 스가라의 아들이다. 나는 내 어미의 모태로부터 그 영으로 충만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목할 만한 사람이며, 말라기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엘리야의 영과 권능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 받았다.” 그러나 대신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3 절).

하나님으로써 보냄 받은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영광이나 환호를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껏해야 쓸모 없는 종 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본다 (누가복음 17:20). 요한이 자신을 “음성”이라고 지칭했을 때, 그는 성경이 그에 대하여 이사야 40:3 에서 700 년 전에 사용하였던 바로 그 말을 사용하였다. 요한의 사명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음성은 들리고 보이지 않는다. 주 예수는 “음성”이 잠잠한 후에 오래 동안 참는다.

“음성”은 광야에서 외쳤지, 성전 안에서나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치지 않았다. 왜? 주께서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주의는 공허한 껍질에 불과하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의 나라였으며, 자기 의의 형식주의와 의식과 절차 속으로 스며 들었다. 그의 시대의 종교 속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었고, 그는 그 속에 자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참 선지자였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에 대하여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을 높이거나, 심지어 자신을 변론하기를 거절하였다. 그에게 그리스도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고 보내셨던 이유를 알았고, 그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되돌이켜 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사야 40:1-11).

요한은 그가 누구와 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를 대하고 있었다 (24 절). 그들은 철저하게 정통적인 이단자들, 이기주의적 종교 정치가들, 거만한 위선자들, 잔혹하고 박해하는 독선적인 율법주의자들, 눈 먼 백성의 눈 먼 지도자들이었다!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계속 압박하였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이 참된 선지자가 그들의 명성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으며, 자신에게 어떤 명예도 취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는 땅에 속한 종교적 권위에 속한 아무런 과장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종교적 조례를 수행하고 새로운 조례만 남게 한 그의 의로움에 도전하였다. 그는 신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는 어떤 땅에 속한 종교 단체에 의해 안수 받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계급을 통하여 나오지 않았다. 요한은 어떤 틀에도 맞지 않았다. 그는 어떤 종교 틀에 넣을 수 없었다. 그는 자유주의 사두개인도 아니고, 개혁파 바리새인도 아니었으며, 이교도 헤롯파도 아니었다. 따라서 종교적 상황의 이 선한 수호자들이,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라고 했다 (25 절).

모든 전도자가 대답해야 하는 것이 의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는 그의 대답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침례 주었다. 하지만 왜? 그 질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이다. 어떻게 침례가 수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을 수 없다. 침례는 잠김이다. 어떤 다른 것(뿌리는 것, 붓는 것, 등)도 침례가 아니다. —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6 절).

“으로(with)”로 우리 King James 성경에 사용된 말은 아주 형편 없는 번역이다. 그리스어 “en”은 위치를 가리키는 전치사이다. 요한은, “내가 물로 침례를 준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물속에 침례를 준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세 번째 질문,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 주어진 답을 보여주기 전에, 26-28 절를 보도록 하자. 다시, 요한은 조례가 아니라 구원자에게로 우리의 주의를 맞추는데, 조례는 구원자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침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며, 나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모든 것 가운데, 그가 탁월함을 가지심이 분명하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러.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26-28 절)

요한은 그의 입장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참된 사명, 죄인

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사명을 모두가 알기 원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와 침례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는 철저한 이방인이면서 의문을 제기하듯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결가지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논쟁하며 치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를 내버려 둔다. —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이다 (고린도전서 1:17).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요한복음 1:10-11). 그들 한 가운데서 계신 분은 여자의 씨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아들이며, 모든 약속과 예언과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에 의해 주어진 메시아의 예표들의 성취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몰랐다.

그리고 침례자가 말하기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이후 나타내게 되기 위하여 오시는 이).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자신의 하찮음과 그의 구원자의 존엄함과 지고함과 영광을 나타낼만큼 강한 표현의 말을 찾을 수 없었다. 20 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앞서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에 계셔야 한다!”고 말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며 영원한 구원자시다 (요한복음 8:58; 잠언 8:24-30).

그러나 왜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는가?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답을 주신다.

1. 침례로 이 상징적인 조례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어

떻게 모든 의가 그리스도, 우리 대속자의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취되었는가 이다 (마태복음 3:15).

2.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생생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그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죄속량의 죽음으로 씻음 받았으며, 우리가 생명의 영을 받았는가 이다 (사도행전 2:38; 22:16; 갈라디아서 3:13-14).
3. 침례로 믿는 자는 공개적으로 그 자신을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 그의 복음과 함께 입을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그가 주께 헌신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로마서 6:1-7).

## 그리스도 어린 양

첫 번째 침례처럼,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만을 보게 하고, 알게 하며, 경배하게 하고, 앙망하게 하며, 신뢰하게 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였을 것이다. —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 절).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고 결코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한다. 이 장대한 장면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네 가지 것들을 말해 준다.

1. 그분은 모든 참된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다 — “보라 어린 양이로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22).
2.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안수 받고, 주어졌으며, 보냄 받

왔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대신한 단 한 분 희생자이다. — “어린 양!” —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예비 하셨다 (창세기 22:8).
4. 이 축복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죄의 제거자이다.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 9 장.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29-

### 37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요한복음 1:29-37)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 안에서 요한은 요르단 넘어 베다바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믿는 자들

을 침례 주고 있었다. 그리고, 29 절에서 우리는 다음을 본다. —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그리스도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다. 그는 유일한 죄 속량 희생제물이며, 그 죽음의 속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며, 그 피로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은 은혜의 보좌 위에 뿌려지는 피의 유일한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다. 그는 어떤 길이 아니라, 그 길이다. 그는 어떤 문이 아니라, 그 문이다. 그는 어떤 구원자가 아니라, 그 구원자이다. —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다. 만약 그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신 분만 그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무한한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그는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이다. 그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지고 가는” 분은 그분이고 그분뿐이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어린 양,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피다. 그는 죄를 위한 효험 있는 희생이다. 그분은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시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죄를 지고 가기를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순히 죄가 없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죄를 지고 가신다!” 하

나님의 어린 양은 영원한 효험이 있는 제물이다.

요한복음 1:29 는, 비록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분이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지 않는다. 그분의 한 희생으로 죄를 가져가셨다. 침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했다. 아, “지고 가는”이란 그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우 과장함이 없이, “세상의 죄를 지속적으로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는 자이다. 그는 우리 죄를 지속적으로 지고 간다. 이 “죄”라는 단어가 복수 “죄들”이 아닌 단수임을 주목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와 죄가 가져오는 저주를 지속적으로 지고 간다.

이것은 구원자의 지속적인 역사다. 비록 우리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모든 그 세밀한 것 가운데 끝났어도, 우리 구속이 갈보리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더라도, 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속하여 수행하시며 그분께서 단순한 사실 선포로서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하심으로 그렇게 하고 계심을 각각의 믿는 자의 은혜에 대한 체험의 실재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확신시키신다. 그분이 영원 안에서 하셨던 것과 갈보리에서 하셨던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들을 수행하시기 전까지는 내게 그야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 그분은 “과멸로부터 너의 생명을 구속하신다.”(시 103:4). — 그분은 “가까이 계시므로 나를 의롭게 하신다.”(사 50:8). — 그분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롬 4:5). —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롬 8:33). —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시 103:3),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분”(요일 1:7),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 어린 양이

다. — 이 말씀들이 우리 혼에 얼마나 달콤한 은혜의 말씀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모든 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효험이 있는 제물이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분명하게,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의 죄를 가져가신다는 것을 알라는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지옥 가운데 그들 자신 위에 짊어진 많은 자들이 있고, 그들의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유일하게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전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서 모든 종류의 죄를 지고 가신다.

### 성경의 전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하나님의 책 안에 있는 그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제임을 당신이 보기를 분명하게 보기를 원한다. 성경의 주제는 어린 양에 의한 구속, 속량, 하나님께 다가감과 받아들여짐 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계시록에서만 스물 일곱 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언급된다. 이 축복의 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다(눅 24:27, 44-47).

그분은 구약의 예표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표이다. 그분은 그것들이 모두 언급하는 그 한 분이다. 그분은 그것들을 모두 총만케 하는 그 한 분이다. 구약 전체를 읽고 연구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과 예언 가운데뿐만 아니라, 모세의 경륜의 예표와 그림자들 가운데 제시도 있는 것을 본다. 구약의 그 모든 예표

들과 그림들은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주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 체계를 가르치셨다. 그러나 가르치신 구약의 예표들 중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일에 매년 제물로 드려졌던 유월절 어린양이었다(출 12; 레 16; 고전 5:7).

구약 성경 내에서 속죄일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살육되고, 드려진 어린양보다 더 아름답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없다. 구약 성경에 조금만 익숙한 사람이라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나타나셨을 것을 모두 알았다. 따라서, 요한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자는 모두 그가 말하고 있던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보라!”

성경은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가 하나님의 어린양이심을 선포한다. 우리는 영광으로, 오로지 영광스럽고, 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한 어린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운 희생으로서만 우리 죄들로부터 구속 받았다(사 53:7-8; 벧전 1:18-20).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정되었고 죽임 당하였다(계 13:8). 그리고 그분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기 위하여 시간의 충만함 가운데 체현되었고 계시되었다(히 9:26). 성경을 통틀

어서 우리는 희생제물인 하나님의 어린양의 모습 아래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을 본다.

1. 창세기 3 장 4 장에서 그분은 예표 된 어린양이다. 아벨은 그의 아버지 아담이 그에게 동산 안에서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어린양을 잡으셨고 그 가족으로 그들을 입히셨는지를 그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의 죄를 대신할 속죄물로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어린양의 피를 가져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은혜와 구속의 방법을 보여준다(엡 1:7).
2. 창세기 22 장에서 예언된 어린양으로 드러진 우리 주 예수를 본다. 이삭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경배 드리기 위하여 어린양이 죽임 당하여야 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7-8 절).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날 이삭대신 희생될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귀한 아들의 인격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될 어린 양으로서 그분 자신을 예비하셨다(고후 5:21).
3. 이사야 53 장에서 인격화된 어린 양으로서 제시된 그리스도를 본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한 사람, 우리와 같은 실제 사람이며, 주의 중이며, 우리와 구별되고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고(히 2:14-17), 우리의 죄를 입으셨으며(사 53:6), 우리 대신 죽으실 것임(벧전 3:18)을 우리에게 말했다.

4. 요한복음 1:29 에서 침례자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 로다.”고 말하며 어린 양이 구별되었다. 요한은 구약의 그 희생 양들에 대하여 모두 알았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구별되었다. 천사는, “사내 아이가 있다. 그는 네게 말해왔던 그 분이다. 그 사람이 죄를 없애려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말했다.
5. 요한복음 19 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으로서 영광의 주를 본다(17-19 절, 28-30 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효험 있게 구속하였다(갈 3:13; 4:4).
6.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영광스럽게 된 어린 양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모든 나라와 혈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그분의 백성을 효험 있게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희생적 성품 가운데 경배 받는다. 어린 양의 영존하는 영광은 우리 대속물로서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그분이 성취하신 것의 결과다(사 53:10-12; 계 5:6-14; 7:9-17; 14:1; 15:3; 21:22-23; 22:1-3).

## 전도자의 전갈

만약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책의 단독 전갈이라면, 각 설교단의

단독 전갈이 되게 하자. 하나님께 이 말씀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각 설교단에서 울려 퍼지고 선포되라! 나는 이것을 제한 없이 말한다. —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도자의 전갈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도자의 전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라면, 그가 하나님의 전도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라면,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자라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갈이다. 침례자 요한은 이 시대에서 첫 번째 복음 전도자였다. 그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다. 그의 전갈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였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회와 유대인 세계를 향한 주요한 대변인이었다. 그의 전갈은 같았다. 전도하던 집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도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복음 전도자였다. 사실, 사도 행전을 읽으면 모든 교회가 도처에 나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도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전하였다. 비록 이 시대에 거의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도처로 갈 것임을 알기 원한다. 침례자 요한의 예를 보고 복음 전도자가 누구인가 에 대하여 무언가를 배워라.

복음 전도자는 인생 가운데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일과 하나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다. — 그의 유일한 일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를 외치는 것이다. 요한은 이 목적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고 보내졌다. 실로, 하나님으로서 부름 받고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하나님의 죄속량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보내진다.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진다. 다른 것들로 돌아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영원까지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 사역과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인 가련한 혼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요한처럼, 우리는 시대의 종교들을 고발하여야 하고, 사람들의 죄들을 고발해야 하며,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불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같은 언제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죄인들을 향하게 하는 것을 실패한 전도자는 그 청중들의 혼에 대한 배신자다. 그는 종말의 날에 저주 받은 자와 함께 그의 분깃을 받는다(겔 33:8; 고전 9:16).

그 청중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종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그런 것 보다 더 끔찍한 멸망을 생각할 수 없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지 않는 설교들, 그리스도의 충만이 아닌 설교들,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자를 보게 하는 설교들은 심판의 날에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거의 힘들 것이다. 전도자가 영원에 매인 죄인들을 종교적 고찰과 신학적 미묘함과 종교적 신념과 예언적 신비들에 관한 사소한 것들로 즐겁게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잔혹함이다. 사람의 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살인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전도하고 있는 척 하는 자는 사람의 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그들이 전하는 것들을 저주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요한처럼, 내가 입을 열고 전도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전하는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없어야 하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은 또 우리에게 예로써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 시각을 고정한 자들임을 보여 준다. 35-36 절을 읽어보라. -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만약 그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할 것이라면 전도자의 시각은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한다. 그분을 최고로 보는 사람들이 그분을 최고로 전한다. 그리고 그 시각이 그분께 고정된 자들이 그분을 최고로 본다. 요한은 그리스도 외에 누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그는 그분으로 인하여 깜짝 놀란 사람처럼 황홀하게, 그분으로 인하여 황홀하게 된 사람처럼 사랑스럽게,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자처럼 변치 않고 그분을 바라 보았다. 따라서, 그가 어린 양에 대하여 말했을 때, 그의 말에는 의미와 능력이 있었다.

이것도 역시 주목하라: 요한은 그에게 그분이 나타나심을 보았을 때뿐만 아니라(29 절) 그 옆을 지나가고 계셨을 때(36 절) 주 예수를 바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전갈은 모두 동일하였다.

만약 이 장을 조심스럽게 읽는다면, 요한의 전갈이 변하지 않았음

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불신자 군중들에게 전도하였을 때와 그가 그의 두 제자들에게만 조용히 가르치고 있었을 때, 그는 동일한 전갈을 전도하였다(참고 29 & 36 절). 그는 한 가지 점을 유지하였다. 바울처럼, 그는 그의 청중들의 구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았다.

나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 열간이로 보여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도록 보내신 것을 안다.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너무 많이 안다. 그들은 아는 것이 없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다 더 죄인들에게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더 달콤하며, 죄인들에게 더 소망 있고, 의인에게 더 거룩하게 하며, 타락한 자에게 더 깨닫게 하며, 속량 받은 자에게 더 새롭게 하며, 성도들과 죄인들에게 더 영감을 주는 주제는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던 C. H. Spurgeon 에게 완전히 동의한다.

“예수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은 참 사역의 복된 단일 음조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제들보다 더 다양함으로 충만한 단일 음조이다. 예수가 첫째이며, 한 가운데이며, 마지막인, 그렇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일 때, 우리 사역의 증거를 충만하게 한다.”

## 복음의 계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계시다. 이것은 복음이 계시하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모든 상징적인 어린 양들은 단지 예표였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죄를 없애지 않았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지 않았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죄의식의 양심을 깨끗이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을 뿐이었다(히 10:1-10).

이것은 반드시 이해되어야 한다. - 죄는 희생이 없이 결코 없어질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진노로부터 탈출할 방법을 찾아내셨다. 그러나 그 방법은 그분의 공의를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정한 자가 태어나야 하는 공의의 모든 획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어린 양이다(히 10:5-7).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어린양이다(요일 4:9-10).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손수 희생하시고 드리셨던 어린 양이다(사 53:10).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어린 양이다(히 1:1-3; 9:12; 10:11-14; 엡 5:1).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율법의 예표와 그림자와 예언들 가운데,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제시하셨던 어린 양이다(롬 3:24-26).

## 10 장.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요한 복음 1:29-36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36).

성경이 당신에게 봉인된 책인가? 그 가르침과, 그 계율과 그 규례들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들에게 그것은 열쇠가 채워진 보물 상자와도 같다. 그들은 그것이 많은 보석들을 갖고 있다고 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열 열쇠가 없다.

## 열쇠

당신에게 그 책을 열어 그 황금 보물을 계시할 하나의 열쇠가 있다.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성한 진리의 기초이고, 중심이며, 원동력이다. 이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만약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어떤 교리와도 결별하면 그 교리는 이단이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어떤 교훈과도 결별하면 그 교훈은 자기의의 율법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교회가 우리 주께서 그분의 초기 사역 동안 세운 물리적인 종교 조직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은 영적 건축이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은 남녀로 이루어졌으며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그 위에 교회가 건축된 기초이며, 그로 인하여 교회가 통치 받는 머리이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가는 떡이다.

나는 다윗의 물리적인 왕국의 연속이거나 재건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다시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이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왕국에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왕국을 십자가 위에 세우셨다.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그분의 완료한 사

역의 직접적인 결과로 오늘날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 우리가 현재나 미래의 나타남 가운데 왕국에 대하여 말하든 않든, 이 왕국의 한 부분이 존재함은 주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장에 항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심지어 택정에 대하여 신학적 체계의 논리적 부분 그 이상도 아닌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도 했다. 택정은 그것이 합당하게 이해될 때 신성한 계시의 보배로운 진리이다. 우리의 택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예정하셨다. 택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앞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택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공의롭게 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저주하기 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심이다.

성경의 교훈에 관해서, 이것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중심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에 복종하는 것이 그분에 의해 자극된다. 우리가 “실제적인 원칙들”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은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 복음의 원칙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모세 율법의 연장이나 단순한 도덕적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다. 그것은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들의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여야 한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종들(피고용인들)은 그들의 주인들(고용주들)을 섬겨야 한다. 믿는 사업가들은

그리스도 그들의 주가 하늘에 계심을 알고, 그들을 친절함과 관용으로 그들을 다루시는 것처럼, 그들의 피고용인들을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다루어야 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들에게 범죄한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셨던 것처럼 기꺼운 마음과 관대함으로 주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께 섬김은 대가가 없고, 자발적이고, 속박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기가 부여된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로부터 일어난다.

나는 이것들이 성경의 몇 가지 교리와 교훈들뿐임 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요점을 예시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경을 거룩하게 하는 열쇠다. 성경의 모든 교리는 복음의 빛 안에서 이해되고 가르쳐져야 한다. 거룩의 모든 교훈은 복음의 원칙들에 기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만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참되게 전파한다.

성경의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한다. 나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쓰는 것을 읽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기를 보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기를 원한다.

1. 성경의 주제. — 성경은 “그의 책”이다. 성경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다.

2. 전도자의 유일한 전갈 (고전 2:2; 9:16).
3. 복음의 영광스러운 계시 (31-34 절; 고후 5:16).
4.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 (딤후 1:1).
5. 믿는 자의 유일한 통치 (요 13:15).
6. 경배자의 유일한 대상 (계 4 장과 5 장).
7. 삼일 하나님의 체현과 영광 (14, 16 절; 골 2:9).

### 요한의 전갈

당신은 우리 앞에 있는 전갈 안에서 이것이 연속된 이틀 간 요한의 전갈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첫 재날 요한은 요르단 건너 편 베다바라에서 공개된 곳에서 대규모 군중에게 전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침례를 주었던 믿는 자들이었고, 적어도 갖 회심한 사람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종교인들인 바리새 인들과 그들의 제자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으며 비록 그가 갈매기처럼 거칠고 정신병자 같은 전도자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선지자로 여겨 이 이상한 사람에 대하여 단지 이상하게 여길 뿐이었다. 다음 날, 요한은 그의 제자 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두 날 모두 그의 전갈은 정확히 똑같았다.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원 전부터 죽임 당하고(계 13:8), 갈보리에서 대신하여 희생당하고(롬 5:8-10),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고(요 17:2),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

하시며(요일 2:1-2),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다시 오실(딤후 4:1; 벰전 4:5; 계 6:12-17) 어린양이신 그분을 바라보라.

이전 장에서, 나는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전갈이며 참된 복음 전도자의 한 가지 전갈이라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이 장에서 나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를 보기 원한다. 이 전갈에 대하여 아주 실질적인 어떤 관찰을 하기 원한다. 죽음 당했고, 사망에서 일어났으며, 그분의 모든 구원하는 효험과 충만 가운데 높여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전갈이다. 내가 이 전갈을 왜 독점적으로 전하는지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겠다.

## 완전한 균형

첫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복음의 완전하게 균형 잡힌 전갈이다. —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신을 변명하거나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때때로 이 말이 항상 사용된다. — “나는 우리가 균형 잡힌 전갈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내게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역사에 대한 불균형된 전갈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균형 잡힌 복음의 전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전도자의 전갈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전도함에 있어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일 때, 당신은 그 전갈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교리의 가르침과 체험적 은혜와 실질적인 거룩의 전갈이다.

모든 중대한 교리적 가르침은 이 전갈 안에 포함되어 있다. — “보

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자는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그가 선포하는 가능한 가장 좋은 교리적 가르침을 제시한다…

-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격. — “그는 내 앞에 계셨다.”
- 그리스도의 성육신. —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 “죄 짓는 혼마다 죽을 것이다.”
- 죄의 거대한 해악. —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것을 없애는 데 요구된 희생이었다.
- 인간의 철저한 무능. —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어린 양이 필요 없다!
- 그리스도의 속량의 영광스러운 효험. — 그는 “죄를 지고 가신다!”
-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로마서 5:20-21).
-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로마서 5:6-8).
-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절대적 보증. — 어떻게 그런 희생을 받게 되었던 그들이 멸망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종교를 원한다면, 나도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체험적인 은혜, 당신의 혼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그것을 증진시킬 전갈이다.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당신은 죄로 고통 받는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 당신은 고통으로 괴로운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 당신은 위로가 필요한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 당신은 회복될 필요가 있는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 당신은 당신의 혼을 두려워하는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 당신은 미리에 대하여 두려운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 만약 당신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거룩”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이 전갈을 들을 필요가 있다.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무엇이 더 실질적일 수 있으며, 무엇이 그토록 선한 행위를 효험 있게 진작시킬 수 있으며,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보다 거룩에 더 영광을 줄 수 있겠는가? 디도서 2:1-14 와 3:4-8 을 읽어보라.
- 어떻게 주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싶은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고린도후서 8:9).
- 당신이 어떤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은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을 섬기는지 알고 싶은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당신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당신은 어떻게 고통을 인내하는지 알고 싶은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당신은 어떻게 기도할지 알고 싶은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6:9-13 을 읽어보라.
-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은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당신은 어떻게 죽을지 알고 싶은가?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우리의 지속적인 필요

둘째, 그리스도는 우리 목전에 그분을 언제나 소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죄 속량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많은 것들에 대해 필요한 생각과 숙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 한 가지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귀한 구속자다(골 3:1-3).

내 의미를 보여주기 위하여 시편 1:1-3 을 대신하도록 허락하라.  
 –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 위대하고 고귀하게 하는 주제

셋째,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 침 없이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생각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귀하게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학자나 크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는 약간 읽은 것이 있으며, 많은 것에 있어서 약간의 경험이 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비교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는 모든 진리의 합이며, 모든 지식의 정수며, 모든 창조의 목적이고, 모든 섭리의 의미이고, 생명의 혼이며, 빛 중의 빛이고, 하늘 중의 하늘이며, 영광 중의 영광이다! 한 마디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골로새서 3:10-11). C. H. Spurgeon 은 이렇게 기록했다…

“류트에 그 손이 무엇인가,  
플루트에 그 호흡이 무엇인가,  
냄새에 향기는 무엇인가,  
우물에 샘은 무엇인가,  
별에 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네.

아이에게 어미는 무엇인가,

전인미답 광야 가운데 인도가 무엇인가,  
 거친 파도에 기름이 무엇인가,  
 노예에게 속전이 무엇인가,  
 바다에 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네.”

이 세상에 어떤 주제도 이것처럼 광대하고, 숭고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 —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 신비에 대한 이야기 — 하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영  
 화롭게 되심을 시도해보라!
- 애정에 대한 이야기 — 하나님의 사랑을 시도해보라!
- 미에 대한 이야기 —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시도해보라!
- 지식에 관한 이야기 — 대속과 만족과 구속에 대한 지식을  
 시도해보라!
- 철학에 관한 이야기 — 철학적 용서를 시도해보라!
- 율법에 관한 이야기 — 은혜가 보장된 동시에 공의가 만족되  
 기를 시도해보라!

이것들과 비교되게 한 전도자가 오래 전에 말했다. “인간의 무지가  
 차례로 나타나기만 하는 지식은 무엇인가? 그 가르침과 비교되는  
 바벨의 혼탁한 선택뿐인 전통은 무엇인가? 몽상가이기만 한 시인  
 과 어리석기만 한 철학자들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무엇인가?” 예  
 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이고 아름다움이며 웅변이며 능력이다. 십자

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단지 한심할 뿐이다(고전 1:17-31).

## 필요한 한 분

넷째, 나는 그분이 필요한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38-42).

우리는 손해 봄이 없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처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중요한 것들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는 생명의 떡이다. 그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는 생명수이다. 그분 없이 우리는 필히 죽는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교리이며, 우리의 소망이다. 그의 피가 참 종교의 생명의 피이다. 다른 어떤 믿음은 생명이 없는 거짓 믿음이다.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다섯째, 나는 이 전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 이 전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구원자이며, 그분께 죄인들을 부르심을 선포한다(사 45:20-22). 구원은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그 체험 가운데 시작한다(사 45:22). 구원은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써 유지된다(히 12:1-2). 그리고 구원은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완성되고 완료된다(요일 3:2).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늘에 눈을 들어 지금 그를 바라보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을 사랑하라. 복음의 복된 규례 가운데, 구원 받은 죄인은 침례의 물 속에 잠기고 그로부터 올라올 때마다(마 3:13-17),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에 대한 기억 속에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만찬 상에 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 보라.”(고전 11:20-26) 우리의 침례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연합을 고백한다. 주의 만찬의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분의 죄속량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우리 구원자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한다.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11 장.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요한복음 1:29-34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29-34)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확신한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로마로 가는 길로 인도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만에 사망에서 일어나셨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 “죄인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반복한다면, 그들이 구원 받을 것이라고 들었다. 그들은 들은 대로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안다고 확신한다.

내가 당신에 대해 설명하였는가? 그것이 당신의 체험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단락에 있는 침례자 요한의 간증을 읽을 때마다 분명 충격을 받을 것이다. 사람인 친근한 주 예수를 알았던 사람, 그의 첫 번째 사촌인 그를 알았던 한 사람이 있으나, 두 번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선포한다.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침례자 요한, 우리 구원자의 첫 번째 사촌이다. 하지만, 그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을 알고 있다. 반복하건대, 그분은 요한의 첫 번째 사촌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 번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 상상하는가? 그 선언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이 공과에서 답하기 원하는 질문이다. —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다 때 무엇을 뜻하였나?

## 요한의 전갈

이 단락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한 그의 영감을 받은 이야기를 주고 있다. 침례자의 전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선포함이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려는 엘리야처럼 보냄을 받았다. 사도 요한이 그 위대한 선지자에 대하여 첫째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6 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렘 23:32; 롬 10:15).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며 주 예수 우리 구원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기 위한 사람을 보내심에 있어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사 52:7)? 침례자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7 절). 하나님의 선지지가 됨으로, 그는 인생에 있어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기능, 해야 할 한 가지 사역만을 가지고 있었고, 오직 그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쓸모 있었다. -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그 분만이 세상의 빛이신 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그는 그 한 가지 영광스러운 일로부터 제외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빛에 대하여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는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나는 빛으로 선포하였다(5 절). 침례자 요한은 은혜의 모든 풍성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선포하였다(16 절). 그리고 그는 모든 은혜와 진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17 절). 18 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침례자 요한은 삼일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뿐 아니라 그가 여기 땅 위에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영원한 말씀이심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리고 세상을 걷는 첫 번째 침례 전도자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탁월과 앞서서 계심을 선포하였다(30 절).

이제 29 절을 보자. 여기 요한의 전갈이 있다. -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자 요한은 주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 때 그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를 것을 외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한 어린 양”이다(계 13:8).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과 예언과 묘사들로 채워져 있다(출 12; 레 9:3; 사 53:7; 계 5:6). 그분은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며 하나님 자신이 예비하신 어린양이다(롬 3:25).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필요로 하신 것을 주시며, 그분이 주시는 것만 요구하시고, 언제나 그분이 주시는 것만 받으신다.

침례자 요한은 이 어린 양이 그분의 희생 덕분에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선포하였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이 세상 죄를 영구히, 지금 그리고 영원히 무궁하고 효험 있는 행위로 가져가고 계신다. 태양이 빛나고 샘물이 거칠 것 없이 흐르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세상에 걸쳐서 흠어진 그분의 백성의 죄들을 영원히 가져 가신다! 우리가 소유한 그분에 대한 영원한 그림이 되도록 하자.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분은 용서를 여러 번 하신다(슥 13:1; 사 55:7).

침례자 요한이 전하였던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다.”(7 절).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며, 구속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는 도구로서 전한다. — “믿음은 들음에서 오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이라.” 30 절에서 요한은 다시 그리스도의 지고와 영광을 선포한다. 그가 주 예수를 침례한 후에 이 모든 것이 완료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전해졌다.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31 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이 변화구를 던진다. -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33 절에서 한다. -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것이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한 침례자 요한의 추상이다. 그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고 말했다 때, 그가 아직 그분을 직접 만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자의 사촌이었다. 그는 그분과 함께 성장하였다.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녀의 집에 왔을 때 주 예수를 그녀의 주로 불렀으며, 그분에 대하여 요한에게 (우리가 확신 하건 데) 자주 말했다. 분명히 그녀는 구원자의 놀라운 출생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것이고, 그녀의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녀가 알았던 그분은 그의 선주자였다. 엘리사벳은 요한에게 마리아가 그녀의 자궁에 그녀의 주이자 그의 주를 데리고 왔을 때 그녀의 자궁에서 기뻐서 얼마나 뛰었는지를 자주 상기시켰음에 분명하다(눅 1:39-45).

비록 우리가 그에 대한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한과 주 예수는 그들이 자라면서 자주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은 구원자가 누구였는지를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였음을 확신하였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주 예수께서 그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마 3:14)

## 육신을 따라

그러면 요한이 두 번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반복하여 선언한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만약 26 절과 27 절을 다시 본다면 암시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러.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한 때 너희들이 타고 있던 것과 같은 배 안에 있었다. 비록 내가 내 부모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많이 알았으나, 비록 그랬지만, 너희들처럼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육신을 따라 그를 알았던 것으로 알았지만,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내게 계시될 때까지, 나는 그를 보지 않았으나, 지금 보노라. 하지만 이제 그를 아노라. 그는 너희들 가운데 걷고 계시다. 그는 너희와 관련이 있는 그 분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내가 누구지에 대하여 관심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해야 한다! 나는 아무도 아니며, 단지 광야에 있는 한 목소리, 한 소리이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행보하시는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와 나의 침례로 스스로를 관심하지 말라. 그와 그의 침례로 너희 자신을 관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그가 출생하기 전에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심겨졌다는 것이 메시야에 대한 전갈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가 이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그 모태로부터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가 모태에 있을 때조차도 그분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기뻐 뒤며 특별한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눅 1:41, 44; 렘 1:5).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지식은 은혜로운 기적이었으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이름, 요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혹은 여호와와는 은혜롭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고 말할 때, 그는 사실 이 사람, 그의 사촌이 그리스도였음이 그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다**

주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양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었고 알게 하였을까? 그가 강조하여 선포하고, 두 번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고 선포한 사실은 태산 같이 중대한 것인데, 요한이 그것을 33-34 절에서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를 위하여 그가 증거하고 그 길을 예비하게 하려 보냄 받았던 그 한 분임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비록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그를 이제 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 보았다(31-34 절). 그는 한 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았지만, 그러나 더이상 아니다. 이제 그는 그 영광을 따라 그를 알았다(고후 5:16).

###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나님 자신

이 직접 그가 한 번 계시된 그분에 대해 아무런 실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함으로 주 예수를 설명하셨다. 그분은, 분명한 목소리와 그의 마음 위에 신성한 충격으로, 혹은 그 영의 계시로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줄 알라.” 이 말은 분명하게 계시된 사실이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전달된다(롬 10:17; 약 1:18; 뱀전 1:23-25).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촉매다. 그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는 구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롬 1:16).

하나님의 책은 반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과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그분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운행이 복음 전파의 도구를 통하여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주 하나님은 그것이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과 기쁨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롬 1:15-17; 10:13-17; 고전 1:21; 엡 1:13; 딤후 4:12-16; 히 4:12; 약 1:18; 뱀전 1:23-25).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자 중 한 사람이 아무런 복음 전파자가 있었던 곳이 아닌 멀리 뉴기니아의 정글에 있는 야만 종족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한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겠는지 볼 수 있다. -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분은 그분의 공훈을 보이기 위하여 계획

하셨던 백성에게 그분의 예언을 어떻게 전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요나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성공을 확신하며 전한다(고전 15:58).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 헛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보내진 것 안에서 번창할 것이다(사 55:11).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부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 하나님의 영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상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효험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 장의 서두에 있는 본문을 다시 보라.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그에게 개인적으로 확증되게 하였다. — 하나님께서 주 예수 위에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보았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 위에 와 우리 안에서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의 복된 운행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셨던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요 14:22-23; 15:26; 16:8-11, 13-15).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자 마자, 그는 그리스도를 봤고, 그리

스도를 보았으며, 믿음의 은사로 그를 알았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34 절에서 말한 것이다. —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스가랴 12:10 을 읽어보라. 새로 남 가운데, 죄인들의 회심 가운데, 이것은 언제나 신성하게 명령된 공식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사들이다.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혼을 구원함에 효험 있게 되었다.

사도 요한의 말은, 침례자 요한의 체험을 설명하면서 모든 믿는 자의 은혜로운 체험에 관한 예언이었다. 요한이 주 예수를 침례하고 하늘로부터 음성과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오는 그 영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신 그분을 보았을 때,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4 절)를 이해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고 하나님의 계시로 계셨기 때문에 그는 갈릴리에서 온 이 사람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주의 침례 안에서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성취된 의의 상징적인 그림임을 보았다(마 3:13-17).

이 진리를 반복하는 것처럼,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발견되고,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를 발견한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체험하였다고 말한다(35-37, 40-41, 43-45, 49 절).

## 주권적인 택정

말씀을 통하여 그 영에 의한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또 다른 특징

이 있다. 26 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알지 않는 그를 나는 아노라.”고 말했다. 이 장 전체를 보면, 그것처럼 다른 장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셨던 그 죄인들에게 계시되심을 본다(행 2:39; 13:38; 갈 1:15-16; 살전 1:4-5; 살후 2:13; 고후 5:16).

## 복음 전파

모든 진실한 전도는 이런 이유로 복음의 선포에로 제한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의해서이다(벧전 1:25).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는 한 인격의 선포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죄인들의 구원자의 그 위격과 역사의 선포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주셨던 기록을 선포하는 것이다(롬 1:1-3).

- 복음 전파는 유일하신 한 인격의 선포이다.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은 한 사람,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게 사셨고 누구와도 같지 않게 말씀 하셨고, 누구와도 같지 않게 죽으셨던 한 사람이다.
- 복음 전파는 스스로 하나님이신 한 분에 대한 선포다.
- 복음 전파는 택하신 백성의 영원한 보증에 대한 선포다.
- 복음 전파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안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분, 하나님-사람에 대한 묘사다.
- 복음 전파는 와서 할 일을 마치신 여호와와 종,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다.

- 복음 전파는 그가 오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자를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시는 분인 구원자 예수의 선포다.
- 복음 전파는 죄가 없으시며 죄인들 가운데 사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되신 놀라운 사람에게 대한 선포다.
- 복음 전파는 죄인들의 친구였고 친구이신 그 사람에게 대한 묘사다.
- 복음 전파는 실패가 결코 가능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분에 대한 선포다.
- 복음 전파는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사셔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가 되신 분에 대한 묘사다.
- 복음 전파는 이 시점에 높은 곳에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셨고, 우주 전체에서 꿈틀거리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 위에서 절대적인 통치권으로 통치하고 잔잔한 쉼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에 대한 묘사다(민 23:9).
- 복음 전파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신 분에 대한 묘사다.
- 복음 전파는 성경의 모든 행과 단어와 기록과 제목이 기록된 분에 대한 묘사다.
- 복음 전파는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셨으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업의 참여자가 되게” 한

분에 대한 묘사다.

- 복음 전파는 그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완전하고 무한하게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모든 땅의 심판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완전히 아들과 딸들로 받은 분에 대한 묘사다.
-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만족과 구속이 되신 분에 대한 선포와 묘사다.
- 복음 전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고 선포하신 분에 대한 묘사다.

우리가 그분을 전하고, 전하며, 전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볼 것이며, 옛 도마와 함께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소이다!”고 부르짖을 것이다. 우리는 듣는 자가, “나는 그분을 알지 않았으나, 이제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완전히 말씀하심으로 아무도 그 묘사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분을 계시하셨고 내게 그분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고 말할 수 있는 자에게 전한다.

그분이 그분 자신의 소유에 오실 때, 그들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위에 육체를 매달아 놓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요, 은혜와 진리로다!”이다. 우리는 그분을 계속 전함으로 믿는 자의 존재의 모든 구석 구석이 그분 안에

잠기게 될 것이다(롬 11:36). 우리가 그분을 전함으로 모든 섭리와 모든 우연과 환경과 모든 사건이 그분의 사랑과 부드러운 보살핌의 의손길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롬 8:28; 골 1:16-17).

나는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그들은 전도자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난을 더 쉽게 만드는가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목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를 보여줌으로써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모든 전도자들이 찬양하고 내가 듣고 무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구속하고 구원하는 영광 가운데 충분하고 분명하게 전하기 때문에 칭찬 받는 사람에 대하여 거의 듣지 못한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완전히 도덕적 원칙이다. 사람들의 삶은 만일 복된 책 안에서 가르치는 원칙대로 거한다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결코 교도소로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가르침들은 당신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생각을 고적하고 눈을 자아에 고정하며 자아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누구도 은혜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전함으로 죄인들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게 되어, “그로 인하여 모든 자가 믿으며” 우리가 전하는 그분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고전 2:2-5; 고후 4:5-6).

침례자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내게 적용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그를 아노라고(고후 5:16-17; 요 17:3) 말할 수 있는가? 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의 구원자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 12 장. 베드로에 대한 네 번의 부르심—요한복음 1:35-

### 42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십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35-42).

이 몇 개의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신약 교회의 시작과 구원자의 첫 번째 제자들의 부름을 본다. 처음 세 명의 제자들은 안드레와 그의 형 시몬이다. 세 번째 제자는, 안드레와 함께 침례자 요한을 떠났고 “예수를 따라 갔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인 그는 아마도 언제나 그 신분을 감추려 했고 결코 자신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던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성경의 이 단락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 앞에 제시된 다섯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게 된다.

## 신실한 전도

첫째,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서 신실한 전도의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35-37 절). 침례자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처음 외쳤으며, 그것은 아무도 그의 전갈을 들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전도자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

요한은 무엇을 했는가? 그가 전도를 그만두었는가? 아니다. 그가 전도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하였다고 그는 결정하였는가? 아니다. 요한은 단지 그가 해 왔던 것과 그가 보냄을 받아 하도록 한 것을 계속 하고 있었다. 다음날, 그는 구원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다시 그는 그를 가리키며 외쳤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모든 성경 가운데에서 그려졌고,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버리신 어린 양이다. 그는 부활절 어린 양 가운데 제시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매일 드러진 아침과 저녁 제물의 어린 양으로 형상화 된 어린 양이다. 그는 우리의 죄 속량 제물과 대속물로서 미리 정해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다(벧전 1:19). •그분의 굴욕 가운데 희생된 어린 양이다. •그분의 부활 가운데, 유다 족속의 지배적인 사자이다(계 5:5). •시온의 왕으로서 그는 모든 자가 어린 양을 보내야 하는 분

께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다(사 16:1).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의 전갈을 짜맞추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기를 거절하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적합하게 된 우리 전갈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요한은 외쳤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은 아무도 그의 전갈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다음 날, 그는 밖으로 나가 아주 똑같은 전갈을 전했다. 그날, 두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믿었다. 그 두 사람들은 요한을 떠났고 “예수를 따랐다.”

나는 이 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사람의 혼을 섬기는 지를 예로써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이다. 영원히 매인 죄인들이 타다 남은 장작처럼 사탄의 발톱에서 낫아 채이는 것은 십자가의 전도에 의해서이다(고전 1:18-25; 2:1-5; 9:16; 갈 6:14; 고후 5:17-6:2). 복음 전파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외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죄인들의 구원을 명하셨던 것은 이런 방법, 전도의 어리석음이다(롬 10:17). 세상이 웃고 조롱하게 하자. 우리는 지옥의 문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의 이 전능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여리고 성의 담을 허물어뜨린 숫양의 뿔나팔 같은 것이다. 복음 전파는 희년 나팔을 부는 것이며, 요새를 무너지게 할만큼 능력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입증하였다. 세상의 도처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하여 행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라, 혹은 교회를 보라, 혹은 신조를 보라고 외치지 않았고, 다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쳤다. 만약 혼들이 구원 받아야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직접 향하게 되어야 한다.

복음의 모든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수고를 인내를 갖고 계속하도록 하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를 전하고 다시 전하라. 은혜로운 이야기는 행 위에 행으로 그리고 교훈 위에 교훈으로 반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공허히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사 55:11).

## 참 기독교

둘째, 이들 두 제자들의 행위에서 참 기독교의 그림을 본다. 우리는 이들 두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는 말을 듣는다. 구원자께서는 그들을 은혜롭게 받으셨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에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었다. 그 날로부터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랐다.

그들은 그분의 시험 가운데 그분과 함께 계속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을 따랐다. 그들은 택함 받은 사도들이 되었고, 은혜의 성전 안에서 주 건축자들이 되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믿는 자들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구한다(요 13:1-17; 엡

4:32-5:2).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분을 따른다.

## 그리스도의 거처

셋째, 우리는 이 두 제자들이 주에 의해 영접 받고 가르침 받았음을 본다(38-39 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십 시쯤 되었더라.”

그 선생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물었는데, 그분께서 알아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구원자의 질문을 개인적으로 취하라. -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대답을 주의하라. 그것은 누군가에는 이상한 반응처럼 보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들 자신의 마음의 대답이다. -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라고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혼에 있어서 가장 솔직한 질문인가? 당신은 나이든 읍처럼 울부짖는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꼬!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리라.”(욥 23:3). 주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다. - 와서 나를 따르면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어디에 내주하시는 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사 57:15; 마 18:20; 계 3:20). - 그분의 거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사야 57:15)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당신이 구원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마음을 열도록 하셨는가? 그가 당신을 깨뜨리고 그분 앞에 통회하게 만드셨는가? 내 혼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될 것으로 되게 하심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를! 하늘과 하늘들 중의 하늘이 우리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 무한한 영이여! 하지만, 그분은 세상과 상한 마음과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 위에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할 것을 약속하셨다. 아 은혜를 위하여 그와 같은 공훈을 소유하기 위한 마음과 생각의 성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 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직 더 있다. 주님의 거처는 우리의 모이는 장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경배 가운데 그분의 성도의 집회이다(마 18:20; 계 3:20; 고전 3:16).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고 자신을 보이시기로 약속하신 곳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장소뿐이며, 그곳은 공예배를 위하여 그분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특권을 가진 자들은 복된다. 그와 같은 모임이 있는 곳이 발견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가 임하시고, 우리의 하늘의 아

버지께서 임하신다!

## 그리스도의 증인

넷째, 안드레아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를 구원자께 데려갔다(40-42 절). 안드레아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던 그분을 찾았다. — 하나님의 어린 양 — 여자의 씨 — 아브라함의 씨 — 마노아가 본 한 분 — 참 나사렛 사람 — 여호와의 종 — 처음 난 자 — 그분의 영광 가운데 이사야가 보았던 한 분, 대속자 — 다윗의 아들, 그의 주 — 하나님의 구원!

기대치 않게 기쁜 소식을 들은 자처럼, 그는 그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그의 형제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말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던 것을 말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증언으로 베드로가 먼저 빛을 받았다. 베드로는 그의 형제의 증언으로 구원자께 가게 되었다. 그는 행해진 어떤 전능한 기적도 보지 않았다. 그는 어떤 강한 논리로 확신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의 형제가 그에게 그가 구원자를 보았다고 말한 것을 들었을 뿐이다. 소중한 형제의 단순한 증언이 베드로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께 연결하게 된 사슬의 첫 번째 고리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드레아를 모든 그분의 성도들의 것으로 하소서! 만일 스스로 회심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발견한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그것은 죽을 혼을 위하여 좋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선이 행해질 것인가? 얼마나 많이 주께로 인도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전도

자에게만 남겨진 일이 아닐 것이다. 공화를 받은 모든 자가 방언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마귀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자는 “집으로 가서 그들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해야 한다.”(막 5:19). 모든 믿는 자는 그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았노라.” 그런 천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찾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를 찾았으며, 그들이 그분에게 발견되었음을 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구한 모든 자는 그분을 찾게 될 것이다(렘 29:10-14).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 후로 알았노라  
그가 나를 찾으심으로 나의 혼이 그를 찾게 감동시키셨다.  
찾은 자가 내가 아니라, 오 참되신 구원자여,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발견되었노라.”

## 베드로의 부름

다섯째, 이 사람 베드로가 네 가지 은혜롭고 분명한 부름이 주로부터 있던 것을 체험하였음을 보기 원한다. 그 부름들은 어떤 일정한 순서로 주어졌고 체험되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자체와 주어진 순서 모두가 교훈적이다.

1.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추종자, 제자가 되려고 그의 형제 안드레아의 간증으로 부름 받았다. 그것은 요한복음 1 장에서 우리 앞에 있던 것이다. — 이것은 혼 안에서 은혜의 시작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로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알도록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를 알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버리는 분으로 계시하신다.

2.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에 의해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세상에서 찾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과 함께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목적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도록 부름 받았다(마 4:17-22).

베드로와 안드레아 모두 전도자가 되도록 부름 받기 전에 믿는 자들이었고, 참 제자들이었다. 그분이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근면하였고, 열심인 사람들이었으며, 어부로서 주를 섬겼다. 사역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 사람들은 게으른 멍청자들이 아니라, 일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다.

3. 주 예수께서 베드로가 사도가 되도록 부르셨다(막 3:13-16).

어떤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무장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사실이었다. 하나님에 의해 아주 위대한 일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주의 군대의 전방에서 있다. 그것은 그들이 총력을 다하는 사탄의 공격들을 확실하게 견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한 때

실패하고 비참하게 넘어졌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이 기억할 것이지만, 그분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그가 견디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 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4. 요한복음 21 장에 베드로의 네 번째 부름을 보는데, 신실하신 구원자의 달콤하고 은혜로운 회복의 부르심이며, 하늘로서 난 혼마다 조만간 필요할 것이 확실한 부름이다(요 21:1-18).

당신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릴 수 밖에 없게 한 까닭으로, 당신께서 우리를 버려두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기에,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당신께서 베드로를 끔찍한 타락에서 회복하셨기에, 당신만이 우리의 셀 수 없는 타락 가운데 우리의 가난한 혼의 회복자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분의 백성을 시온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때때로 모독하고 그분의 복음을 조롱하는 그 무덤과 외적 죄들로부터 주 하나님께서 섭리와 전능한 은혜의 강한 저지력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지키시는 것에 충분히 감사하지 않고 있는 공홀, 우리 하나님의 크나큰 공홀이다. 그분은 그분의 두려움을 마음 속 깊이 심으시고 혼을 통하여 흐르는 생명수의 샘이 되게 하고, 우리를 (대부분의 경우) 우리 외적 삶 가운데 크게 사악한 행위로부터 지키신다. 우리가 이 크나 큰 공홀에 대하여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렇다, 때때로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취하여 무감각한 채로 그의 드러난 치부와 부도덕함 앞에서 별거벗은 죄 가운데 발견될 것임은 사실이다. 부도덕은 치부를 드러낼 절정기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의 장막을 소돔을 향하여 치고 선택한 악한 장소에 머무는 것을 택할 것이다. 때때로 강력한 삼손이 그의 머리를 데릴라의 무릎에 내려 놓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간음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을 때 발생한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지라도 사악한 아내의 뜻에 굽힐 것이며 우상의 제단에서 경배를 드릴 것이다. 간혹 베드로처럼 위대하고 진실로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주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가장 확실하게 정통적이고 가장 쓸모가 있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전도자가 그의 머리를 밀고 유대식 서약을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슬픈 타락들이 분명 일어난다. 우리가 배우고 경고로서 그것들이 분명하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제지로 사악함과 죄의 외적 표출로부터 은혜롭게 지켜질 것이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중대하고 총체적인 외적 사악함으로부터 지켜지지만, 의인은 분명 타락하며 의로운 자들은 모두 그들이 하루에도 일곱 번 타락하는 것을 안다. —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진다.”(잠 24:16). — “일곱 번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 “그 자신의 총체적으로, 그의 실체와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의로운 사람, 의

로운 자는 지속적으로 타락한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 혼의 수호자이고 회복자이다. —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 썩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 썩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 이로다.”(미가 7:8).

## 13 장. “간사한 것이 없도다”: 과장이 없다!—요한복음

1:43-51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dana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dana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dana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dana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3-51)

주 예수께서 나dana엘이 그분께 오는 것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 우

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을 하셨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그분의 눈 앞에서 모든 것은 벌거벗었고 열려있는 그분께서 이 사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경 안에서 단지 네 번만 사람들이 간사함이 없음을 보게 된다. 여기, 시편 32:2, 베드로전서 2:22, 그리고 계시록 14:5 내에서 이다. 시편 32 편에서 사함 받은 죄인이 그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 베드로전서 2:22 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간사함(궤사)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계시록 14:5 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간사함(거짓말)이 없다고 한다. 계시록 21:27 에서는 간사함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천국이라 부르는 복된 처소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살육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계 21:27)에 온전하고 간사함이 없는 것으로 기록된 이름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 영접 받은 자들은 모두 간사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선포하실 때, 그 선포 속에는 과장됨이 없다.

성경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그분의 초기 제자들인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이 구절에 있는 모든 것이 보배롭고, 달콤하며, 교훈적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과를 우리 마음 위에 쓰시기를.

**“예수께서 하려 하시다가”**

첫째, 우리는 예수께서 하려고 하셨기에 갈릴리로 오셨다고 듣게 된다. -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43 절). 갈릴리로 돌아오시기로 한 것은 그분의 뜻이었고, 결심이었으며, 결정이었다. 우리 주께서 하셨던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으며,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의도적이다. 갈릴리로 오시기로 한 것은 그분의 뜻이고, 그분이 결정한 변할 수 없는 계획이었으며, 그분의 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성경의 성취 안에 있는 그분의 기적들이 시작되었다(사 9:1-2). 그분이 갈릴리로 오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었는데 빌립과 나dana엘이 갈릴리에 있었고 빌립과 나dana엘이 반드시 부름 받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었다.

43-45 절을 보라. 43 절에서 주 예수께서 빌립을 찾았다고 분명히 듣는다. 그리고, 45 절에서 빌립이 나dana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것이 사실인가? 구원자께서 빌립을 찾으셨는가, 아니면 빌립이 그분을 찾았는가? 물을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두 그분을 찾는다. 모든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면, 우리는 그분을 찾는다(렘 29:11-14).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면, 혼의 목자이고 감독이신 주 예수께서 빌립을 바라보았고, 그를 발견하셨으며, 그분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 그가 구원자에게 발견되었을 때, 빌립은 구원자를 찾았다. 구원 받은 자는 모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쁘게 인정한다(롬 9:16; 요 15:16).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 후로 내가 알았으니

그분께서 나의 혼을 감동케 하사 그분을 찾게 하시고, 나를 찾으신  
다;

찾으신 분은 내가 아니었으니, 아 참된 구원자시라,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의 손을 향하였고 나의 손이 감싸였으니;  
내가 풍랑의 바다를 걷다 빠진 것이 아니니, -  
내가 당신을 잡은 것이 아니었으니,  
당신께서, 사랑하는 주여, 나를 잡았음이라.

내가 찾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사랑하니, 그러나, 아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한 것은 나의 대답이 아니라, 주여, 당신께 속하니라;  
당신은 나의 혼보다 오래 전에,  
나를 당신께서 사랑하셨음이라.”

## 같으나 다르다

둘째, 빌립과 나dana엘의 체험을 보게 되는데, 비록 하나님의 택정  
함을 받은 모든 자가 그분의 은혜로운 동일한 구원하시는 운행을  
체험하지만, 우리의 체험은 모두 약간씩 다르다. 은혜로 말미암은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의 체험은 그 자신의 지문처럼 하나뿐이다.

빌립이라 부르는 사람이 주의 제자들에 더해짐을 여기서 보게 된  
다. 그러나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빌립은 그리스도  
그분께 의해 직접 부름을 받았다. 그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빌립  
은 신실하고 열심인 형제 혹은 친구의 증언으로 구원자에게 오게 되

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만큼 아주 진실하였다. 그들은 동일한 구원자를 품었고, 동일한 복음을 믿었으며, 동일한 주를 섬겼고, 마침내 동일한 집에 이르렀다. 그러나 각자는 약간씩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다.

그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각 세대와 각 방언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역사에 빛을 던져준다. 혼의 구원에는 다양한 작용들이 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에 의해 이끌림 받고, 한 피안에서 씻음 받으며, 한 주를 섬기고, 한 구원자에게 기대며, 한 복음을 믿는다. 모두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피를 통하여, 동일한 영으로 구원 받으며, 동일한 구원자를 소유한다. 그러나 모두가 정확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은혜의 체험은 다르다. 회심에 있어서 성령은 주권자로서 행하신다. 그분은 각자를 그의 뜻을 따라 따로 부르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많은 혼란에서 구원한다. 우리는 다른 믿는 자의 체험이 우리 자신의 체험의 척도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체험이 우리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이다.

## 구약 성경 내의 그리스도

셋째, 성령은 여기서 우리에게 구약의 전갈이 신약의 전갈과 동일함을 상기시킨다. —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옛 성경과 새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다. 그리고 그 전갈도 하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에게 설명 할 때, 그는, -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말했다(45 절).

모든 구약 성경은 단 한 분 “그 분”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종합이고 본질이다. 그분께 가장 빠른 약속은 아담과 에녹과 노아의 시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지목하였다. 그분께 모든 희생은 시나이 산에서 지명된 의식 경배 가운데 지목하였다. 그분에 대하여 대체사장이 한 분이었으며, 성막의 각 부분은 그림자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심판과 구원은 하나의 그림이었다.

율법서인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을 보면, 성경의 첫 다섯 권의 도처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씨이며, 그 안에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씨이다. 그는 사람들의 모임이 속한 실로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이 복종할 모세 자신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모세의 전갈일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선지자들의 전갈이다. -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다.”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처녀의 태를 통한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출생 장소인 베들레헴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선지자들은 구원자의 따라올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사망으로부터 부활에 대하여, 하늘에로 그분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서 높이지심과,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그분의 인격, 책무, 일에 관련한 많은 것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그를 다윗의 집의 왕으로서, 그의 아들로써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로 오셨던 분으로 분명하게 묘사하였다. 그는 이사야에 의해 미리 말한 어린 양이며, 예레미야에 의해 언급된 의로운 가지이고, 에스겔에 의해 묘사된 참된 목자이며, 말라기에 의해 약속된 언약의 사자이며, 다니엘에 따르면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상처를 받을 메시아이다.

만약 옛 성도들이 신뢰하였던 분을 알기 원한다면, 구약 성경을 읽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즉시 빌립이, “나다나엘,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그들 모두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았던 그 사람, 그들 모두 눈을 고정했던 그 사람은 우리가 신뢰하고 경배하는 사람 동일한 그리스도였다. 그들 안에 있던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증거하였다(벧전 1:11).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어렵게 보이는가?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모두 우리 자신의 것이다. 비난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눈멀과 무지이지, 성경의 상상 속의 모호함이 아니다. 우리의 이해의 눈은 빛 비춤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리개가 치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열 때 기도하자. “오 하나님의 영이여, 이 책을 내 마음 속에 여시고 이 책으로 나의 마음을 여소서. 이 지면들 위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취하여 내게 그것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책 전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취에 관한 것이다(요 5:29).

## 나사렛 사람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한 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은 그분을 특별하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야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임을 확증한다.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의 예수 구원자이다. 이 분은 나사렛 사람 그 한 분이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구원자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 임이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 안에서 요셉에 의해 한 아기로 나사렛에 오시게 되었다(민수기 6 장). 여기서 몇 가지를 보여 주겠다. 마태복음 2:23 을 펴보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 이러라.” (마 2:23). — 구약 성경 속에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말한 예언이 어디 있는가? 그와 같은 예언을 찾아보려고 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혹해 하였을 것임을 확신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문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 문장은 마태복음 2:23 안에서 외에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사렛 마을은 스블론에 있는 아주 작고, 하찮은 곳이었으며 구약 성경 내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태는 어디서 구약 성경이,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하였다는 생각을 얻었을까? 그가 구전된 전설을 취하여 그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 불렀을까? 그가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성경 내에서 발견 되는 오류인가? 그런 질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 의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

우리는 단순하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 “내가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한 것을 구약 성경 안에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태는 신성한 영

감으로 그것을 기록하였다. 이 문장을 계시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신 동일한 성령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하는 것 보다 더 잘 쓰셨음을 아신다.” 그것이 그 문장을 다루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사실 바로 그것이 내가 여러 해 동안 그것을 다루었던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그것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은 그것은 거기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강조하여 기록된 예언이다.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구약 성경 전권에서는 물론, 나사렛 민족의 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탁월한 나사렛 사람으로 분별된 한 분임을 선포한다. 유대인들은 경멸적으로 우리 구속자를 나사렛 사람 혹은 나사렛 인으로 불렀다. 진저리 치면서 땅에 침을 뱉으며, 그분의 비방자들은 “나사렛 사람”이란 이름을 마치 경멸의 극치였던 것처럼 내 뱉었다. 하지만, 축복된 나사렛인, 승리와 영광의 “나사렛 예수”는 그 영광이 구원 가운데 위대한 그 한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이다.

장님 바디메오는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질 실 것을 아주 잘 알았다. 여리고로 지나시던 분이 “나사렛 예수”임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다윗의 아들”로부터 오는 공훈의 소만으로 가득하였다(막 10:46:48). 그분의 적대자들에 의해 굴욕을 당하였지만, 그분은 그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흠모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조롱하였지만, 우리는 그분을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 여호와-예수, 왕 중의 왕, 그리고 주 중의 주로서 흠모한다.

이 위대한 구원자는 나사렛 사람이며(민수기 6 장), 우리의 전능자 이시고, 모든 영광의 삼손이다.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사망 가운데, 그분은 우리 대적들을 멸하셨다. 그분의 사망 후 셋째 날에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은 깨어나셨고 고봉으로 오르는 성(나사와 빛장과 기둥들)의 문을 가져가셨다.

삼손이 지고간 문들은, 우리가 듣기로 폭이 90 피트였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땅에서 뽑아서 어깨에 지고 이십 마일이나 떨어진 헤브론 옆의 산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놓여지셨다. 그 무덤은 커다란 돌로 봉인되었다. 모든 지옥이 떨고 있었던 반면,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려고 지명되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그분은 사망에서 일어나셨고, 사망과 지옥과 무덤의 철창을 부수고 하늘로 오르셨으며, 우리 대표자와 선주자로서 영광의 땅을 차지하셨고, 자신을 승리하고 모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날개 아래 치유함과 함께 오르신 의의 태양이심을 선포하셨다! 우리 죄의 그 모든 무게와 부담 하에도 그분은 결코 휘청거리지 않았다!

### 답변을 들은 회의론자

넷째, 46 절에서 우리는 회의론자에게 할 수 있었던 것 중 최선의 대답을 본다. 나dana엘의 마음은 구원자에 대한 의심과, 빌립이 말한 분으로 가득하였다. 그는, “나사렛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나dana엘의 회의론에 빌립은, “와서 보라.”고 대답하였다. 39 절에서, 안드레아와 요한이 그분이 어디에 계실지 물었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대

답하셨다. 그러나 거기서 그 말씀은 약간 다르다. 39 절에서 우리 구원자의 말씀은 강조적이고 확신적이다. 그분은, “오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나dana엘에게 한 빌립의 말은, 비록 영어로 동일하지만, 그리스어 본문은 다르다. 빌립의 말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 오는 것이다. 오면 그분께서 너에게 불 논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오기를 거절한다면, 너는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한다.

더 지혜로운 조언을 줄 수 없었다. 만약 빌립이 나dana엘과 논쟁하였다면, 그를 보도록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사항을 입증하려고 그가 와서 보라고 강권함으로, 그것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과 기꺼운 마음의 진실함 속에서 그의 전적인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빌립이 나dana엘을 다루었던 것과 똑같이 사람들의 혼에 관련하여 그들을 다루기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불멸의 혼을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다루어라. — “와서 보라.” 우리에게 비밀은 없다. 우리에게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불멸의 혼을 위하여 가장 선한 것을 하는 자들은 그 친구들에게, “내가 구원자를 찾았다. 와서 그를 보라.”고 말해주는 단순한 믿는 자들이다.

## 위대한 것들

다섯째, 성역의 이 부분의 마지막 절에서 나dana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격의 위대한 모습, 그분의 위대한 전지 가운데, 그로 인하여 나dana엘이 그분이 실로 그리스도 이심을 확신하였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 그에게 그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

을 볼 것임을 말씀하셨다(47-51 절).

이 약속은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대한 주의 약속이다. —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주 예수께서 베델로의 달콤한 방문을 야곱의 사다리처럼 그분의 모든 구속 받은 자에게 약속하셨다. 우리 혼에 계속하여 그 자신을 증거하시는 이 달콤한 방문들은 신성한 전지 전능의 단순한 계시보다 더 위대한 것들이다. 심지어 마귀들도 그런 계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오직 구원 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운 모든 축복을 보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모든 요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였기 때문에만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 간사함이 없음

이제, 47 절에서 이 사람 나dana엘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말씀에 여러분을 주목하게 하려 한다. — “예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dana엘은 겉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주 예수께서 정말로 그를 아셨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것처럼 보였다.

첫째, 주 예수께서는 나dana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는 단지 육체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가 아니었고(롬 9:6),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약속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갈 4:28), “하나님의 이스라엘”중 한 사람

이며, 아브라함의 영적 씨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중 한 사람, 언약의 은혜의 상속자였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께서 나dana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이다. —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는 종종 간사함이 없기를 중용 받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께서 한 사람에게 대하여, “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선포하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취해야 하겠는가? 간사함은 위선이고, 속이는 것이고, 간교함이며, 교활함이고, 표리부동이며, 부정직함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dana엘이 간사함이 없었다고 이해하라는 뜻인가?

시편 32:1-2 에서 우리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죄속량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된 사람임을 발견한다 (롬 4:8). 나dana엘은 하나님의 참 자녀였으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참 믿는 자였다. 그는 아주 작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 주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고 약속된 구속자를 독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혜로만 줄 수 있는 것, 곧 정직한 마음과 간사함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물을 필요도 없이, 용서 받은 죄인들은 그들의 사람의 과정에서 곧고 의로우며 간사함이 없다. 그들은 부정직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자녀들”(사 63:8)임을 선포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우리 주께서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여기서 나dana엘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임을 선포하시고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들만

이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강조하신다. 하지만, 모든 하늘로 난 혼은 그 자신의 마음의 역병을 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그들이 천연적으로 간사함으로 가득함을 안다.

우리 주께서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다고 선포하시고 모든 참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실 때, 그분이 과장하고 계셨는가, 아니면 진실을 선포하고 계셨는가? 그분은 진실, 순수하고 절대적인 진실을 선포하고 계셨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벧 3:3).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 안에 간사함이 없고, 표리부동함이 없으며, 위선이 없고, 거짓된 것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개인적이거나 개인적으로 성취된 기록의 선포가 아니다. 자신의 마음의 역병을 아는 자들은 더 잘 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 전형적으로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기록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다.
- 영원히 –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영원 전부터 죽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졌으며,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엡 1:3-6).
- 그들의 기록 안에서 – 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록 책 안에 우리에게 대하여 아무런 죄도 불법도 간사함도 기록되지 않았음을 선포하신다(렘 50:20).
- 영 안에서 – 새로 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 안에 참되게 의로우며 거룩한 새 본성,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을 창조하신다(고후 5:17; 엡 4:24; 요일

3:6-10). 그 새 본성은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골 1:27; 벧후 1:4).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므로, 모든 구  
원 받은 죄인은 나dana엘처럼 그 속에 감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당신은 속에 감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인가?

## 14 장. 계시된 영광: 믿음의 창조—요한복음 2:1-11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 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1-11)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에 있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본다. 이 기적을 행함에 있어 성령께서 특정적으로 우리에게 11 절에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

나라.”는 것을 말씀한다. 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영광의 나타나심으로 창조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여긴다.

## 실질적인 공과들

질문할 필요 없이, 요한복음 2:1-11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지는 몇 가지 매우 실질적인 공과들이 있다. 뒤따르는 모든 기적들처럼, “이런 기적의 시작”은 그분의 공사역을 시작한 후 단지 며칠이 지난 후 우리 구원자에 의해 행해졌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었으며” 우리의 교훈과 교화를 위하여 영감의 지면 위에 보존되었다. 이 기적 안에 우리가 배울 다섯 가지 사항이 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 — 우리 구원자는 그분이 손을 대시거나, 심지어 말씀으로도 아니고, 단지 그분의 뜻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어떤 선지자나 사도도 그런 것을 결코 하지 않았다. 단지 그 뜻의 행위로서만 보통 물을 평범하지 않은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만약 그가 나의 구원을 뜻하신다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만약 그가 나의 안전을 뜻하신다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만약 그가 하늘 영광 가운데 나의 영원한 기업을 뜻하신다면(그리고 하신다. — 요한복음 17:24),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할 수 없다.
- 높은 존귀를 우리 주께서 결혼식 위에 두셨다 — 혼인 잔치에 그분의 임재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은 존귀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다(창 1:28; 2:18-25; 히 13:4). 어떤 사회에서든 도덕적 하락으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

님의 이 계명에 대한 저 평가이다. 혼인의 신성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율법에 대한 경의가 없고, 도덕적 예절에 대한 관심도 없으며, 인간 생명에 대한 배려도 없다. 이것들은 함께 서고 함께 타락한다!

- 잔치와 즐거움의 예절 — 성경의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잔치와 포도주의 적절한 사용 모두에 대하여 그분의 호의를 보여 주신다. — “잔치는 회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전도서 10:19). 기독교는 결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반면에, 참 기독교는 사람들 가운데 참 기쁨을 증가시키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에서도 물론이다.
- 그리스도께 순종함의 축복 —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5 절).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종들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로 하였던 모든 포도주를 공급하실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식 하객들에게 그분의 공훈의 기적적인 은혜를 가져오도록 한 그들은 도구가 되는 복된 혜택을 놓쳤을 것이다.
- 그리스도의 은사의 특징 —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신다. 그분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시될 것은 우리 기업의 증표, 영광의 미리 맛봄일 뿐이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마지막을 위하여 남겨진다. 회개의 비통함은 용서의 달콤함이 따른다. 정죄의 쓰라림은 회심의 기쁨이 따른다. 십

자가 뒤에 왕관이 따른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후에는 비  
통함도, 죄도, 사망도 없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온다!

## 영적 중요성

그것들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실질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말씀의 글자 너머를 보아야 한다. 이 장의 시작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알았는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읽는 것이 1장에서 보았던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중에서 1장 내에서 두드러진 한 가지는 유대주의의 타락과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에서 등돌리는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가 누구인지 질문하려 요한에게 왔다. 그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요 1:19-26)고 말했다. 그들은 선주자를 몰랐으며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다(요 1:11).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요 1:11). 유대인들은 그분 자신의 나라였으며 율법의 모든 계명(유대교)은 그분 자신의 것들이었으나, 그러나 그분 자신의 나라도 그분 자신의 것들도 그분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령은 그것과 정확히 동일한 두 마디, “자기 사람”을 사용하여 요한복음 13:1에서 그의 참 백성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참되고 영원하며, 영원히 “자기 사람”인 자들에 대하여 말한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눅 16:16). 요한은 구약의 체계를 결말 내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유대교는 공허

하고, 무의미하고, 죽고, 쓸모 없는 종교 형태였다. —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이 동이 났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다(“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시편 104:15). 유대교는 여전히 종교적 체계로써 존재하였지만, 그 기쁨은 없어졌다. 그것은 마음에 위로를 주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차갑고, 기계적인 일상, 그야말로 기쁨의 빈곤으로 악화되었다.

그들은 주 예수 앞에 여섯 동이의 물 향아리를 놓았다. 그 비어 있는 돌로 된 물 향아리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를 대표한다. 6은 사람의 숫자이다. 사람이 창조되었던 것도 엿새 짜였다. 6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수이다(계 13:18). 여섯 개의 물 향아리가 있었지, 완전함의 수인 일곱 향아리가 아니었다. 유대교에 속하여 남은 모든 것이 육체였다. 주님의 잔치는 유대인의 잔치가 되었다(요 2:13).

물 향아리들은 돌로 된 물 향아리들이었지, 구속을 말하는 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비어있었다! 이 물 향아리들은 종교적 전통, 그들의 다양한 종교적 씻음과 같은 것을 지키는 유대인에 의해 사용되었다(6 절). 그러나 그것들은 비어있었다. —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기쁨이나 위로가 없다!

하나님의 영은 이 혼인 잔치가 세째 날에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특히 요구하신다. —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1 절). 그러나 그 것이 언제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잔치가 침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처음 선포한 후로부터 셋째 날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특정하게 말씀하는 것은 없다. 왜? 셋째 날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셋째 날은 부활의 날이다. 창조 가운데 땅이 물의 무덤에서 그 형태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 셋째 날이었다(창 1:9-11). 우리 주께서 셋째 날에 사망에서 살아나셨다.

베드로후서 3:8 에 따라 판단할 때, 이것은 이 복음의 날이 시작된 이후 셋째 날의 시작이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이 셋째 날에 있을 것이 가능 할까? — 아마도(호세아 6:1-2).

## 다른 혼인 잔치

그것이 언제 있을지에 대하여 아는 바 없지만, 혼인이 있기로 약속된 날이 있음을 안다(사 54:1-8). 하나님의 책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계 19:9)라고 말씀한다. 우리 구원자 예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다. 그의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

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요한계시록 19:1-9).

## 포도주

우리가 듣기로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9 절). 물은 포도주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 물은 포도주같은 맛이 나지 않았다.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 물은 포도주였던 것처럼 취급되지 않았다.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다른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요한복음 1:14).
-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고린도후서 5:21).
-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린도후서 5:21).

복음의 좋은 포도주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주께서 그분을 상하게 하시고 그분을 비통

함 속에 두셨을 때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진노의 포도즙들을 짜는 분은 그분이며 그분뿐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격려하는 포도주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백성의 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의 충만한 보증을 취하셨을 때, 주님은 스스로 매우 기쁨심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불쌍한 죄인이 주권적인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첫번째로 마시게 되었을 때, 그는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할렐루야! 그를 찾았네  
나의 혼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분!  
예수께서 나의 갈망을 만족케 하셨네,  
그의 피로써 나는 이제 구원 받았네.”

모세의 첫번째 기적은 물을 피로 바꾸었던 것인데, 율법이 사망의 원조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첫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것인데, 일단 그분이 당신의 삶 속으로 오시면 그분은 가장 평범한 공홍(물)이라 할 지라도 은혜의 혜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실로, 주님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셨다. 결코 이전에는 나의 혼이 만족하지 않았다.

## 마리아와 주

성경이 주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를 부드럽게, 심지어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분은 교황 주의자들이 일어나 마리아를 숭배하게 될 것을 아셨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그런 이단이 사람의 행위의 총체임이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어머니께 불경스러웠다는 것으로 상상하지 마라. 그분은 어머니를 “여인”이라 불렀는데, 그것

이 혼인한 여자들을 존경스럽게 지칭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녀의 부모로서의 권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았고, 주 예수께서는 그 권위가 그에게 더이상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도록 하셨다. 그분은 남자들(그리고 여자들)에게 앞치마 끈을 자르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의 질책을 받아들였고,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행하실 권한이 있음을 깨달았으며, 그 문제를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겼다. — 우리를 위한 어떤 공과인가!

### 그분의 때

4 절에서 구원자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한 복음에서 그 “때”에 대하여 일곱 번이나 언급하였다(요 2:4, 7:30, 8:20, 12:23, 12:27, 16:32, 17:1). 우리 주께서는 30 년 동안 조용한 은둔 속에 사셨다. 이 지점에서부터 그분은 공개되고 표적이 된 분이 되셨을 것이다. 그분의 때는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의 고통과 사망의 때를 가리킨다.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진 때이다(요 12:27-33; 롬 5:5-11).

### 은혜의 방법

우리는 우리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아방법,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의 그림을 본다. 기적을 행하셨던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로 채우고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도록 부름 받는다. 사용된 수단이 사람이었다. 비록 그 기적을 행하였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나, 물은 기록된 말

씀의 상징이었다(엡 5:26). 그리고 오늘 사람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는 방법은 전파된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효험있게 만드실 것이다(롬 10:17).

죄인은 물항아리처럼 비어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기록된 말씀의 물을 받는다. 물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낳는다. 그리고 새로 태어남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아주 분명한 기적으로 은혜의 기적이다. 이 기적은 그분의 영광 앞으로 나타난다(11 절). 연회장은 그것이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선포하였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인 은혜와 구속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 계시된 영광

11 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그분이 행하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는 것을 듣는다. 그것에 대한 길고도 짧은 단지는 이것이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의 영광의 드러남에 달려 있고 그에 의해 시작된다. 그분 개인의 영광, 그분의 성취된 구속의 영광, 그분의 모든 충만한 은혜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의 영광이다. — 하나님의 아들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화시킨다(사 6:1-7; 고후 4:6-7; 고전 1:18-31).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를 믿는 그침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될 것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분이 약속하신다(요 11:40). — “와서 보소서!”



## 15 장. 분노, 인내 그리고 믿음—요한복음 2:12-25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륙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

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2:12-25).

“그 후에…” — 이 장을 여는 절에서 우리는 우리 복된 구원자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본다. 그곳에서 그분은 첫번째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의 뜻을 단순히 행하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주 예수께서 모든 손님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포도주를 공급하셨다.

그분의 참석과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재자로서 행하셨던 첫번째 기적으로 혼인 잔치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놀라운 기적을 훨씬 더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첫번째로 그분의 교회와 자신을 의와 심판 안에서, 사랑의 친절과 긍휼 안에서, 신실함과 영원 안에서 혼인을 맺게 하셨을 때 그분의 위대한 경이로 기쁨이 넘쳐난다(호 2:19-20).

이 혼인 잔치를 위하여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이시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그분에 교회인 그분의 신부에게 은혜의 포도주를 영원히 공급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세사에 속한 물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하는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분을 믿고 더 믿게 하고 계신다. —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11 절).

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므로 매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 달콤하고 효험있는 그분의 영의 영향으로 그분을 끊임 없이 믿게 하시기를!

## 유월절

12 절을 보자. —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는 아주 짧게 머무셨는데, 13 절에서 보듯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주의 침례 이후 약 육 개월 후였다. 요한은 우리 구원자께서 침례 받으신 후 네 차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한 유일한 복음서 기자이다 (2:13; 5:1; 6:4; 18:28). 요한이 우리 구원자에 의해 지켜진 이 네 차례 유월절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공사역이 약 3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안다.

주 예수께서는 율법을 충만케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절기를 지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으로서 모든 세부적인 것을 충만케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로서 마지막 유월절에 죽으셨을 때 그분은 충만하게, 완전하게 상징적인 의식을 충만케하셨다. 그곳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고전 5:7).

## 정화된 성전

우리 주의 두 번째 기적은 14-17 절에 기록되어 있다. 가나에서의 기적처럼, 이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두 번째 기적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 두 기적들은 올 것들에 대한 예언적 표징으로서 지극히

중요하다. 그분의 첫번째 오심에서 영광의 주님은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고, 하나님의 경배를 더럽혔던 모든 자를 쫓아 내심으로 그분의 집을 정화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는 혼인 잔치를 여실 것이며 그분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 예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하셨음을 본다(14-17 절).

그분이 성전에 오셨을 때 우리 주께서 보셨던 것을 그려보도록 하라. 그분 앞에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있었다! 거기 성전 안, 하나님의 집, 삼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 새장에 갇힌 새들과, 우리 속에 있는 소들과 양들이 있었다. 수백 마리다! 악취를 상상해 보라! 너무 바빠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방해 받지 않으려는 자와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가져 올 수 없는 자들에게 편리하게 (그리고 물론 이득을 얻으려) 그것들을 사람들이 팔고 있었다! 환전하는 자들이 성전 앞마당 전체와 성전 입구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성소의 세겔 없이 예배에 급히 온 자들과 환전하기 위하여 상을 펴고(물론 비용을 받는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배를 이익을 내는 장사로 바꾸어 버렸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제사장들

의 동의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매우 열심인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그들의 거짓된 열심은 영광의 주를 구역질나게 하였고 격노하게 하였다.

시온의 노래가 불려지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 사람들은 잡답하고, 거래하고, 그곳 안팎으로 뛰어다니고, 마치 그들이 체육대회에 와 있는듯 하였다! 한 마디로, 오늘날 대부분 종교 집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때도 그랬다. —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존경도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때 그분이 보았던 것으로 격노하였으며, 그분은 오늘날 그와 같은 무례에 격노하신다.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3년 반 동안 두 번이나, 여기 그분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에 다시(마 21:12-13) 주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서 사람들의 동일한 모독적인 행위를 보셨다. 두 번 그분은 가장 강한 어투로 유대인의 불경에 대한 그분의 경멸을 보이셨다. “그것은 어떤 공과를 우리 마음에 더 강하게 새겨주기 위하여 중복된다.”고 J. C. Ryle 은 보았다.

우리 주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내 쫓는 것에 대하여 읽을 때마다, 나는 열왕기하 22-23 장에서 주의 전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는 젊은 요시아 왕이 생각나며, 전도서 5:1 에서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말씀 —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찌어다.”—을 기억한다.

## 기적

여기서 우리 주님의 행동에 의하여 의도된 영적 공과를 다루기 전

에, 이 단락에서 우리 앞에 벌어진 기적에 여러분이 주목하기 바란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사역 기간 동안 하셨던 가장 위대한 기적들 중 하나이다.

여기 성전을 지나시면서 그분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내쫓고, 글자 그대로 사람들과 동물들을 쓸어버리시며, 가축 무리를 내 쫓으시고, 상을 엮으시고, 바닥에 사람들의 돈을 쏟아붓는 주 예수가 있다. 아무도 감히 그를 저지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심지어 그분이 하시는 것을 묻지도 못한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처럼 그분의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의 어떤 초자연적 표출에 상당히 위압당했음에 분명하다. 그들은 하나님-사람의 얼굴에서 빛나는 권위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 앞에 완전히 엎어졌다.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 성경이 그들의 눈 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시편 69:9). —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119:139).

그분이 이 이기적인 장삿꾼들을 그들의 가축과 돈과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구원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어떤 선지자도 그런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리스도에 의한 이 성전 정화는 분명 말라기 3:1-5에서 말라기가 말한 것과 같아 보인다.

## 영적 공과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슨 공과가 여기서

가르쳐지고 있는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의 지면 위에 보존하기 위하여 성전을 정화하는 우리 주의 열성에 대한 이 기록을 하도록 하셨는가? 거기서 우리가 수집하여야 하는 영적 공과들은 무엇인가?

잘 알겠지만, 예루살렘의 물질적인 성전은 세 가지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1.) 우리 주의 육신(21 절), (2.) 우리 몸(고전 6:19), 그리고 (3.) 모여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고전 3:16-17)이다. 요한복음 2 장에서 보는 것들은 세 가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성전은 각자 믿는 자의 몸을 나타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유대인의 그리스도 거절로 황폐하게 남겨진 후,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와서 120 곳의 성전을 소유하셨고, 따라서 그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로 되었다(행 1:8). 우리는 반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고 사용할 것을 가르침 받으며, 그것으로 그분의 존귀에 헌신하게 된다. 우리는 부도덕적인 행동이나 우상숭배 종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전 6:9-20; 고후 6:14-7:1).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라. 그분의 성전을 정화하는 우리 구원자의 열성에 대한 이 기록을 우리 감사와 함께 찬양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 주를 당신에게 간청하여, 당신의 은혜로 매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처를 더럽히고,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우리 본성 깊숙이 자리 잡은 헛된 생각을 몰아내소서. 그래서, 당신의 거하심의 임재로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 곧 당신의 소유인 우리의 몸과 영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 하소서!

둘째, 성전은 하나님의 결집한 교회, 지역 교회를 나타냈으며, 경배를 위하여 모였다(마 18:20; 고전 3:16-17).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타락한 행위, 반목, 혐담, 중상, 타락한 종교 의식들, 인간 발명의 나무와 건축과 그릇터기, 혹은 타락한 교리로 더럽히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도록 하자.

## 그리스도의 몸

그러나, 만약 요한복음 2 장을 읽으면, 성전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우리 구원자는 우리의 강력한 삼손으로서, 산더미처럼 쌓고, 그의 집을 통하여 행진하는 것처럼, 그분의 신성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 육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18-22 절).

그들에게 성전을 정화하기 위하여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신 주 예수께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에서 그들은 그분이 실로 그리스도였음을 부지중에 확신받았다.<sup>i</sup>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은 격노하였을 것이다. 후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구원자를 멈추게 하고 그분을 죽이려 하였을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고 행하시던 어떤 것에도 저항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사역의 징표를 요구하였다. —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18 절).

그분의 굴욕의 날 가운데 그와 같은 영광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으로 주 예수 안에서 그분의 대적들을 심히 놀라게 하고(요 18:6) 그분의 성도들의 위로와 기쁨에(마 17:1-5) 때때로 빛났다면,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어떤 것인가(살후 1:7-10; 계 1:7)?

Robert Hawker 는 올바르게 바라보았다. — “아! 우리 흠모할만한 주의 인내다. 성전에서 그런 사고 파는 자들을 몰아 내실 때, 그분은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내시지 않았다!”

비록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기를 거절하셨고, 그분의 대적들의 요구에 답하기를 거절하셨지만, 우리 귀한 구원자는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기 위하여 오셨던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보배로운 표적을 주셨다. 그분께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심을 말씀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그분의 몸과 우리의 죄속량의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 후 사망에서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21 절; 롬 4:25).

따라서 주 예수께서 삼년 후 사망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과 하셨던 이런 대화를 기억하였고, 신성한 확신에 의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단락에서 배우기를 실패하지 말아야 할 다른 공과이다. — 하나님의 말씀

은 자주 처음 들은 후 오랜 후에 그 효험을 갖는다.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인식하는 것이 이 동일한 증거이다. 우리 구속자는 “능력과 거룩의 영을 따라, 사망에서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이 선포” 되셨고 되신다(롬 1:4). 이것이 우리가 그 위에 건축되는 기초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 받은 자도 역시 살 것이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 것이다.

홍해에서 구름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이었으나 이집트인들에게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주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눈을 가리고, 거치는 돌이며, 실족케 하는 바위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놓은 영광스러운 반석에 대한 복된 증거로서 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받았을 때, 우리 주의 이런 말씀을 그분에 대한 신성모독의 혐의로 사용하였다(마 26:61).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서,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을 본다. 내 몸의 이 성전인,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분은 선포하셨으며, 그리고 “사흘 뒤에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사악한 손으로 그들은 우리 구원자를 잡아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그분의 몸을 허물었다(행 2:23). 사흘 후, 그분 자신의 전능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일어나셨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 그분께서, “내가 그것을 일으킬 것이다!” 그분께서 사로 잡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풀어버리심으로, 그분은 그분 자신의 희생 가운데 성취하신 구속

의 능력으로 그분의 몸을 일으키셨다(행 2:24). 그분이 몸에 품으셨던 죄가 나무 위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무덤 속에 사로잡혀 계실 수 없었으며, 우리가 지었던 빛을 그분이 완전히 지불하셨고, 공의의 요구를 그분이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롬 4:25-5:5; 딤후전 3:16; 벧전 3:18).

## 읽혀진 마음

이 장의 마지막 세 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확고한 사실에 대하여 생각한다. — 하나님은 모든 자의 마음을 읽고 아시는 분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위임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다 아셨기 때문이며,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도 증거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분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드신 분보다 조금 못하신 어떤 분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알 수 있는가(히 4:12-13)? 당신은 그 차이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의 차이를 아신다. 천연적인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은 머리 속의 관념이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운행으로 있는 믿음은 마음을 그리스도께 위임하는 것이다.<sup>ii</sup>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은 당신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 그 사실은 무섭게 하는데, 의롭게 위선자를 위협한다. 그러나 이것은 믿은 자에게 형언 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는 사실이다(요 21:15-17).



## 16 장. “거듭남”: 무슨 의미인가?—요한복음 3:1-8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1-8)

니고데모에 대하여, 그가 밤 중에 주 예수께 왔던 것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주께서 그와 함께 나눈 거듭남에 대하여 많은 것이 들려지고 기록되어 있다. 니고데모가 거듭났는가에 대한 논쟁이 많다. 5 절에서 “물”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말이 있고 기록되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의도적으로 지나갈 텐데, 니고데모에게 한 우리 주의 전갈에 여러분의 주의를 초점 맞

추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분의 전갈은 오늘 날 죄인들에게 하는 그분의 전갈이다. 그것은 분명하고 명확하다. 우리는 7 절에서 최상의 명확성과 단순성으로 그것을 선포하였다. — “네가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남” —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거듭남에 대하여 말하지만, 사실상 아무도 새로 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나는 그 주제를 간단하고, 분명하며, 오류가 없는 용어로 다루고자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모두 새로 태어남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원하며, 어떻게 성취되는 가를 알기 원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이 거듭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란다.

우리 주변의 종교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배교 가운데, 새로 태어남을 어떤 결정을 내리고, 복도를 걷고, 기도를 말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새로 태어남과 관련한 그들의 오용과 오류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한, “거듭남”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부패하게 할 지라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우리 주의 훈계는 여전히 서 있다. 주께서 그 말씀을 이천 년 전에 하셨던 것 그 이상으로 오늘 날에도 필요하고 긴급하다. —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 당신은 수 년 간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아직 그리스도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오랜 시간 전에 믿음의 고

백을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을지 모른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당신에게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요구하라. —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여기 개인적인 말이 있다. — “네가.(Ye)” 이 전같은 당신을 위하여 있다. 당신이 도덕적인지를 안다. 당신이 종교적인지 안다. 당신이 교리적 진리에 대하여 잘 가르침 받았음을 안다. 니고데모도 그렇다. 그는 매우 존경 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치자였다. 니고데모는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는 전도자였으며, 그 이상이었다. 니고데모는 전도자를 가르치는 전도자였다. 그는 신학자였다. 이 사람은 유대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었다. 그는 모든 영적인 것들에 완전히 무지하였다. 그는 타락한 사람이었다. 만약 당신이 아직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이 없다면,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부터 온 이 말씀이 있다. — “당신은 거듭나야만 한다.”

여기 재촉하는 말이 있다 — “...해야만 한다.(Must)” “시간이 짧다.” “사람이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은 좋은 충고가 아니다. 이것은 건전한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긴급하다. 이것은 치명적이다. 이것은 필요성이다.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죄 속에 멸절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하에 죽게 될 것이다! 지옥이 당신의 영원한 분깃이 될 것이다!

여기 수동형 단어가 있다 — “된다.(Be)” 새로 태어남은 당신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행해지는 어떤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 속에서 하시는 어떤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천연적인 출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영적 출생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거듭남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은 수동적이다. 사람은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요 1:12-13).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당신이 하는 것으로 당신은 거듭날 수 없다(딤후 3:4-6). 도덕적 감화로서도 아니고, 침례로도 아니며, 종교적 열정이나 헌신으로도 아니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도 조차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새로 태어남의 이유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남의 결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에 따라, 그분의 은혜의 운행하심으로 믿는다(엡 1:19; 2:8; 골 2:11-12). 새로 태어남은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여,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행해지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당신은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Martin Luther 해야 했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만약 누구라도 구원에 대한 어떤 것을, 가장 사소한 것이라 할 지라도, 인간의 자유 의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지 않았다.”

여기 능력있는 말이 있다 — “태어나다.(Born)” 나는 은사에 대하여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평범한 은사만이 아

니다. 생명의 은사, 영원한 생명의 은사에 대하여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 주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선포하실 때,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의 대상과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그가 산 혼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영으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죄들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고, 천연적으로 무력하게 잃어버렸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 “당신은 거듭나야만 한다!”

여기 심오한 말이 있다. — “다시.” 새로 태어남은 은혜의 비밀이다. 그것은 설명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이해될 수도 없다. 그것은 우리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 주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의미는 이중이다. 다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그것은, “당신은 위로부터 나아한다.”를 의미한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다음 구절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17-18).

둘째, 그것은, “당신은 두 번째로 태어나야 한다.” 당신의 첫번째 출생은 죄 있는 부모들로서였으며, 그들의 형상 가운데 태어났다. 둘째 출생은 하나님께서이며, 그분의 형상 안에서 태어났다. — 첫번째 출생은 부패할 씨에 속하였다. 두번째 출생은 부패하지 않

을 씨에 속하였다. — 우리의 첫번째 출생은 죄 안에서 이다. 우리의 두번째 출생은 의 안에서 이다. — 우리의 첫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오염되었고 불결하였다. 우리의 두번째 출생은 영적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만든다. — 첫번째 출생으로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다. 우리의 두번째 출생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된다. — 우리의 첫번째 출생으로 육신의 죄와 욕망에 노예가 되었다. 우리의 두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 우리의 첫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두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 주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첫번째 잘못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주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 살도록 된 자들을 제외하고 영광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것이 행해져야만 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을 행하셔야 한다. 구속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거듭남은 죄인들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들이다. 사람은 구속에 대하여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거듭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땅 위에 아무런 외적 형상도,  
아무런 의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으며,

사람의 의지도, 혈통도, 출생은 아무 것도,  
혼을 하늘로 올려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우리를 은혜의 상속자들로 창조하시네;  
그분의 아들의 형상 안에서 내어났으니,  
한 새 특별한 종족이라.”

## 왜?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질문에 대한 많은 대답이 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 머물 것이다. 우리 주는 니고데모에게 왜 그가 거듭나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주셨다. 이 세 가지 사항은 당신이 거듭나야 하는 가를 필수적으로 만든다.

첫번째,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3절). 천연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공허하다.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논리적이고, 사리에 맞고, 이성적이고, 잘 교육 받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러나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서 당신은 미친 사람처럼 무지하고, 어리석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당신은 영적 지식에 대하여 아무런 수용력이 없다(롬 8:5; 고전 2:14). 돌의 마음은 단단하고, 차갑고, 완고하고, 감화를 받지 않는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적 본성을 볼 수 없다(마 5:21, 27, 38,

43, 48). 당신은 죄에 대한 영적 본성을 볼 수 없다(마 15:17-19). 당신은 구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롬 3:24-26).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다(렘 17:9). 당신은 구원의 영적 본성을 볼 수 없다. 그것은 마음의 역사이다(겔 36:25-27).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함의 영적 본성을 볼 수 없다(삼상 16:7; 롬 14:7). (모든 인간 종교는 육적이다. 그것은 육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다.) 당신은 믿음과 경배의 영적 본성을 볼 수 없다(빌 3:3). 당신은 하나님의 참 성품을 볼 수 없다(출 33:18-34:7).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후 4:6).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볼 수 없다(고후 5:18-21).

둘째, 전능하신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5절) 당신은 새로 태어남이 없이 당신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 당신은 새로 남이 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은 거듭남이 없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고, 종교에 열심일 수 있으며, 성경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고, 집사나 장로로 봉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복음 전파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와 가족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 당신은 결코 영생을 가질 수 없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성도들의 경배와 교통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은 결코 하늘의 빛비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계 20:6; 21:27).

셋째, 모든 육체는 더럽혀졌다. —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6 절). 모든 육체는 타락하였다. 모든 육체는 죄로 충만하다. 모든 육체는 저주 받았다. 모든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 육체는 당신의 천연적이고 죄 있는 자아이다(시 51:5; 58:3; 롬 5:12; 계 20:11-15). 영으로 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며, 당신의 육체는 공의롭게 벌 받을 것이다.

## 무엇인가?

새로 태어남은 무엇인가? 새로 태어남의 신비로움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확인하게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

거듭나는 것은 사망에서 되살아나는 것이다(엡 2:1-5). 거듭나는 것은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로 되는 것이다(벧후 1:4). 거듭남 안에서 새로운 본성이 우리 혼 안에 피조되며,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태어난다(갈 5:22).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모습을 나타낸다(골 1:27). 거듭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갈 4:19). 영생을 갖는 것은 당신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도록 하는 것이다(갈 2:20). 거듭나는 것은 은혜로 당신 속에 좋은 씨를 심게 되는 것이다(요일 3:9-10). 천연적으로 우리는 나쁜 씨 — 아담 — 으로부터 모두 싹텄다. 그러나 거듭남 안에서 우리는 좋은 씨 — 주 예수 그리스도 — 으로부터 싹튼다.

한 마디로,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가 되는 것이다(고후 5:17). 새로 태어남 안에서 하나님은 택정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새 마음과 그리스도의 지배에 무릎꿇을 새 의지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새로운 생각과 영적인 것들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새롭고 영적인 본성과 새로운 눈 곧,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믿음의 눈과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새 귀와 새 손 곧, 그리스도와 손 잡고 그분의 뜻을 행할 믿음의 손과 그리스도께 뛰어가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걸어갈 새 발을 주신다.

율법과 복음 사이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복음은 요구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준다!

“달려라, 달리고 일하라,’ 율법이 요구한다,  
하지만 내게 발도 손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달콤하고 선한 소식을 복음은 가져온다.  
그것은 내가 날게 하며, 내게 날개를 준다!

이로써 내 무거운 혼은 날 것이며  
그리스도께 날아가 하늘에 이르리,  
그 경주에는 나약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으리,  
그러나 은혜의 응원가가 함께 하누나!”

## 어떻게?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가? 사람의 본성과 새로 태어남의 본성을 이해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가 사망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도덕적 근거가 죄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달변과 논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 감정적 소용돌이가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의지의 단순한 실행이 사망한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 “네가 거듭나야만 할 것이다.”

거듭남은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8 절).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시간에, 성령이 영원한 택정함 가운데 은혜로 선택 받고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은 죄인에게 오시고, 그분의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으며 효험 있는 은혜로 그 죄인 안에 생명을 창조하신다(갈 4:4-7).

성령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도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12-16 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12-16 절)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과 함께 낳으셨다.” — 죄인들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

히 살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그리고 이것은 복음으로 당신에게 전도되는 말씀이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죽은 자가 들을 수 없다는 것과 복음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을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 사망한 죄인들이 살아나기를 부른다(엡 5:14). 그러나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라면, 죽은 자는 듣고 살아날 것이다(요 5:25; 계 20:6).

## 네 가지 그림

어떻게 타락하고 사망하고 쓸모 없는 죄인들이 거듭 나는가? 만약 하나의 그림이 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면, 성경 안에서 주어진 사천 마디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지적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죄인들이 거듭나는가? 당신은 다음과 같을 때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능력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 하나님은 혼란 속에 있던 세상을 재창조하셨다(창 1:1-3).
- 사망하고 오염된 유아는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회복되었다(겔 16:6-8).
- 에스겔이 보았던 메마른 뼈들이 생명에 되살아났다(겔 37:1-15).
- 나사로는 사망에서 살아났다(요 11:43-44).

가련하고, 타락하고, 죽어 있는 죄인들은 성령하나님의 주권적인 운행으로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듭난다(벧전 1:23-25).

## 언제?

언제 죄인이 거듭나는가? 나는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사건의 시간 순서에 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답변하는데 흥미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말할 때를 당신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 때, 당신은 거듭난다(요 17:3).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은 거듭난다(요 3:15, 36; 사 45:22). —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당신은 거듭난다(요일 5:10-13). 그리스도를 가지면 당신은 생명을 갖는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당신은 생명을 놓친다.

## 17 장.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요한복음

3:9-21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 하시니라.” (요한복음 3:9-21)

요한복음의 이 3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잘 교육을 받고, 잘 가르치며, 높은 존경을 받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를 우리에게 기록하였다. 이것은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락들 중 하나이다. 그 가르침은 심오하고 필수적이다. 성경 어디에도 여기서 보는 것 이상으로 믿음으로 거듭 남과 구원에 대하여 더 강한 문장이 주어진 곳은 없다.

니고데모와 한 우리 주의 대화 중 첫번째 부분에서 그분은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새로 태어남의 필요를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으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태어남이 없이 아무도 어떤 영적인 것을 이해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요 3:3). 그리고 새로 태어남 없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안에 피조된 새로운 의로운 본성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요 3:5, 7; 히 12:14; 계 21:27). —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7 절).

그리고, 8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니고데모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새로 태어남이 성령 하나님의 일과 역사임을 보여 주신다. —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8 절).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그 효과를 분

명하게 느낄 수 있다. 그렇다 할 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의 능력과 결과는 극명하다.

바람은 그 활동에 있어서 주권적이다. 그것은 사람의 통제 밖에 있다. 바람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가 규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도 그와 마찬가지로. 바람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대로 분다. 그 영도 마찬가지이다(출 33:19; 요 5:21).

바람은 거부할 수 없다. 바람이 그 힘으로 불 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하나님의 영도 그와 같다. 그분의 능력의 충만함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은 사람의 선입관을 부수고, 사람의 의지를 꺾으며, 사람을 정복하고 그리스도 품 안으로 그를 달콤하게 들어오게 한다. —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도다.”(시편 110:3). —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시편 65:4). —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요나 2:9).

니고데모와 우리 주와의 대화는 9-21 절까지 계속된다. 거듭남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의 의롭게 됨의 가르침에 바로 이어진다. 여기서 그분은 어떻게 죄인들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다. 니고데모에게 새로 태어남에 대한 필연성과 본성을 선포하신 후, —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요 3:9) — 우리 주 예수께서 10-21 절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신다.

## 영적 무지

이 단락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첫번째 것은 영적 무지에 대한 섬광

같은 표출이다. 모든 종교적 사상 문제를 공부하였고, 그 시대 모든 종교적 경향에 완전히 익숙하였고, 학식과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모든 영적인 일들에 상당히 무지하였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한 사람이 있다(9-12 절).

그가 새로 태어남에 대하여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즉시 소리쳤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은 아무리 잘 훈련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높이 존경 받는 사람들이라 할 지라도,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의 영적 무지를 드러낸다. 니고데모는 매우 잘 교육을 받았고, 매우 종교적이며, 높은 도덕적 성품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 “이스라엘의 선생!”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육과 도덕과 신실함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않았다(잠 4:19; 엡 4:18). 전도사들,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다. 어떤 전도사가 어떤 종교 센터에서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는 사실이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다(요 6:44-45).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이해를 공급하기를 그만두었던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있었으며, 모두 구덩이로 빠지고 있었다(마 15:14). 그런 사람들의 후계자들이 모든 세대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넘쳐난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어떤 전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지

간에 영적인 것에 대하여 언급하게 한다면, 당신은 고린도전서 2:14에 있는 바울의 선포 같은 섬광과 같은 예를 보게 될 것이다.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다음 구절을 보라. 니고데모의 무지를 꾸짖으신 후, 우리 주께서 그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신다. 그것은 구원자의 증언을 받기를 그가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11 절).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배가 된다. 첫째, 그들이 어떤 영적인 것도 분별할 능력이 없다. 둘째, 그들은 그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기를 거부하였다.

누구도 보지 않을 자들만큼 눈이 먼 자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이해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계시된 빛 가운데 행보하므로, 우리는 더 밝은 빛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무지에 대하여 비난하여야 한다(요 5:40-44).

### **땅에 속한 것들과 하늘에 속한 것들**

12 절은 약간 혼돈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땅에 속한 것들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무엇이냐 말씀하시는가?

“땅에 속한 것들”은 새로 태어남,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바람”에게로는 그것으로써 거듭남 가운데 그 영의 은혜로운 운행을 예

시하였다. 이런 것들을 니고데모는 에스겔 36:24-27 에서 알았었 으리라. 만약 그가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 지 않았다면,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계획에 관련되는 것 들, 은혜의 비밀들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들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는 것이 쓸모 없었을 것이 다(고전 2:9-10).

우리 주께서 그분의 백성의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로서 성취하였던 것들에 대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의미 없었을 것이 다. 그것은 주 자신께서 말씀을 효험있게 만드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13 절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그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 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들은 실로 하늘에 속한 것들이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는 그분, 하나님-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사람이 이미 하늘에 올 랐다고 강조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강조하 신다. 그리고 셋째, 그분이 땅 위에서 행보하시는 동안 조차도 하늘에 계셨음을 말씀하신다. 분명히 우리 구원자는 우리 언약의 보 증으로 서계시고 받아들여지셨고,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로부터 살육당한 어린 양으로서 계실 때부터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분이 성취하셨던 것에 대하여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 한 마디로, 우리 주는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그분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시려 했던 일은 하늘에서 그분에 의해 이미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다 (롬 8:29-30; 10:4-9; 히 4:3).

에녹과 엘리야 모두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은 이미 하늘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그곳에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중보자, 우리 대속물의 효험과 중보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13 절에서 우리 주의 말씀을 다시 읽고 기뻐하라. —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자들은 하늘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그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교회, 은혜의 택정하신 자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전 12:12). 우리와 우리 구원자, 교회, 그리고 그 머리는 한 분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묘사된다(엡 1:23).

## 다른 필요성

우리 주 예수께서 새로 태어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로 태어남은 새 창조이고, 신성에 참여함이거나 영생이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피조된 새로운 의로운 본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죄인 이든 그런 은혜를 보장 받을 수 있기 전에, 누구든 하나님께 속하여 나기 전에는 어떤 다른 것이 행해져야 했다. 따라서, 둘째로, 우리 구원자는 니고데모에게 다른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하시기 전에, 그는 자신을 위하

여 어떤 것을 행해야만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15 절).

만약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의롭고 공의롭게  
우리 위에 임해야 한다. 영생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에 의하지 않  
고는 사람 위에 결코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들  
려올려져야 한다. 영생은 그분의 대속 죽음에서 와야 한다. 그리스  
도의 희생의 역사는 그 영의 운행의 근거와 하나님의 생명의 은사  
의 근거다(사 53:4-6).

속량은 오직 죄 있는 자의 본성 안에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분은 사람의 아들이다. 오  
직 사람으로서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위에 우리의 죄와 벌을 지  
우실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다윗의 보좌로 들림 받든지  
올림받아야 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 전에, 그분은 치욕의 십  
자가 위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면서 올려지셔  
야만 한다.

그분의 사망에 대한 특징과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  
귀한 구원자는 민수기 21:6-9 에 있는 놋뱀에 대한 잘 알려진 일  
을 언급하신다.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으며, 소망  
이 없었다. 모세는 그 원인과 유사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어올  
렸다.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살았다. 그리스도는 죄로  
충만한 육체의 모양으로 지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다. 주 하나님께  
서 특징하게 그분의 저주를 선고하였던 유일한 동물은 뱀이었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던 우리 주 예수께서 저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의롭게 대표되셨다. 그분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모든 자는 살 것이다(이사야 45:22).

“들려 올림”으로, 우리 주는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 자신의 죽음보다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셨다. 그 죽음은, 그가 우리가 알도록 하셨을 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다(요 6:51). 세상 전체를 통틀어 그의 백성의 죄들을 위한 그 큰 위로와 만족이 되도록 영원 전부터 정해졌다. 그것은 무한한 가치와 공로의 전능의 대속과 대표로서 우리 빛의 지불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체계이다. 무한한 지혜와 선 가운데 그분의 귀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려 계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많은 죄들이 그분 위에 놓여졌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고후 5:21; 갈 3:31).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혼을 위한 완전한 용서를 사셨으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여기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진리는 우리 믿음의 바로 그 초석—대속—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분의 십자가는 하늘에의 우리 자격이다. 갈보리에서 “들려 올려지고” 치욕에 놓여진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하늘 영광에 오르는 사닥다리이다. 우리는 죄인들이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죄진 채무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 빛을 지拂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 이 위에 우리가 사는 동안 기대도록 하자. 이것에 우리가 죽을 때 매달리자.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들려졌으며,” 가련한 죄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버렸다!

## 원인

셋째, 우리 복된 구원자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16-17 절).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이 책무이고 필요였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들려질 것이다.”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은 들려져야 한다.”고 하셨다. 만약 하나님의 주장들이 충족되어 한다면, 공의 요구들이 만족되어야 한다면, 죄가 없어져야 한다면, 그리고 택정 받은 자들이 구원 받아야 한다면 다른 차선책은 없다. —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한다(롬 3;25-26; 고후 5:21).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그것을 요구한다.

요한복음 3:14 은 죄에 대한 법적 구제를 선포한다. 그리스도께서 들려져야만 한다. 15 절이 그 결론이다. —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절은 이유이다. —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의와 공의와 진리와 거룩의 표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의 전시보다 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표시와 체현이다. 요한복음 3:16은 우리를 모든 것의 그 기초로 데려 간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사랑으로 공급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만들기로 결정되었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속량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영향이었다(요일 4:9-10).

“그것은 여호와와 사랑이  
그 백성을 향한 불꽃이 되게 하려함이 아니었네,  
위의 보좌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되셨네.

그것은 그가 인내하셨던 죽음도 아니었고,  
그가 지셨던 모든 고통도 아니었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였음은,  
하나님께서 전에 사랑이셨기 때문이라.

그는 그의 택한 자의 세상을 사랑하셨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그분의 긍휼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소중히 사신 그 혼들이라!

그분의 품의 따뜻한 애정이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불타네;  
또 그의 사랑 안에서 그분은 언제나 안식하실 것이라,  
그의 맹세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네.”

16 절에서 우리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일곱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그분의 사랑의 시제. —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다(롬 5:8; 렘 33:3).
- 그분의 사랑의 크기. —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은 무한한 사랑이다(요 15:12).
- 그분의 사랑의 범위.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분의 사랑은 유대인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에게 향한다(계 5:9).
- 그분의 사랑의 본성. —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그분이 주셨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의 최고의 이익과 잘 됨을 구한다. 사랑은 비이기주의적이다. 그것은 준다.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
- 그분의 사랑의 희생적 특징. 그분은 그분의 아들이 사람들 사이에 세상에서 살도록 주셨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하셨다(빌 2:6-8).

- 그분의 사랑의 설계. —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을 백성을 소유하고 계시다. 어떤 정죄나 심판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롬 8:33-34).
- 그분의 사랑의 수혜. —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그분의 소유에게 나누어주신 것이다: — 영생과 영광 (요일 3:1-3).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은 이미 정죄되었다(롬 5:18).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구원 받게 하려고 인간의 육신 안에 세상 속으로 오셨다. “하려고 (might)”라는 말은 그들이 구원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것은 오심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목적과 계획을 나타낸다. 그분은 세상이 구원 받게 하려고 오셨다.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인격과 역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의와 의인이 되게 하였다(벧전 3:18; 사 45:20:25).

## 믿음으로만

넷째, 우리 주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모든 축복을 얻는다고 가르치신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

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18-21 절).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생명의 결과이다. 그리고 믿음은 의를 성취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그 의의 결과이다. 하지만, 아무도 믿음이 없이 구원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 받은 모든 자는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데, 구원은 은혜로서 있기 때문이다(롬 4:16). 세 번이나 우리 주는 니고데모에게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반복하신다. 두 번 그분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히 않을 것이다.”를 선포하신다. 한 번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징죄 받지 않는다.”고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구원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필요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그분 안에 있는 믿음 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금식을 할 수 있고 죄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고, 의로운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종교 의식을 사용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물건을 줄 수 있지만, 용서받지 않은채 남을 수 있고 당신의 혼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죄의식 있는 죄인으로 그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 온다면, 영생이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없이, 구원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가장 형편 없는 죄인은 영원히 구원 받는다.

구원이 이 문제 안에서 믿음은 행위가 없이 홀로 선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될지 알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있다. —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18 절).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롬 8: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셨기 때문이다(사 53:4-6).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우리 위에 임한 죄의 저주를 갖고 이 세상에 왔으며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엡 2:3). 죄와 정죄는 끈덕진 불신으로 증가된다. 만약 누구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잠 1:23-33; 마 11:21-30).

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롭게 되며 생명의 은사를 주시기를.

## 18 장. 낫뱀의 비밀—요한복음 3:14-15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4-15)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에스겔 33:11). 주 하나님 자신이 사악한 자의 죽음에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선포하시고, “어찌 죽고자 하느냐?”고 물으신다. 그것은 사실이며, 하나님은 죄를 벌하신다.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 그분의 율법, 그분의 공의, 그리고 그분의 의가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의는 지옥에 있는 저주 받은 자의 영원한 고통 속에서 기쁨도 만족도 발견할 수 없다. 실로, 모든 인류가 지옥의 끝없는 불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는 기쁨도 만족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유한한 피조물일뿐인 사람은 무한한 공의의 요구를 결코 만족시킬 길이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쓸모 없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지옥의 불은 어느 날인가 불타오를 것이다. 그러나 무한한 공의는 무한한 만족을 요구한다. 지옥은, 따라서, 영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사악한 자의 죽음에 만족하실 수 없다. 그분은 죽은 자의 죽음 속에서 만족이 없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공의의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으며 완전하게 만족시켰습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서, 그분은 우리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 안에서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백성의 대속물로 바라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사람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공의 그리고 의가 기쁨과 만족을 갖는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한 사람의 혼이라도 지옥에서 멸망할 가능성은 없다. 율법은 믿는 죄인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홀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분은 멸망하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죽을 것인가? 이제 주께 돌이키고 주를 구하며, 그분의 공홀을 부르짖으며,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지금 잡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주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에, 나는 고집스럽고 반역적인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도록 설득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것을 구한다. 그것이 요한복음 3:14-15에 있는 우리 주의 의도이다.

모세에 의해 들려진 놋 뱀에 대한 구약의 역사는 가련하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기 위하여 우리 구원자에 의해 사

용되었다. 모든 구약 성경 안에서 낫 뱀보다 더 우리 축복의 구속자에 대한 더 나은 예표와 그림은 없다. 이 두 구절 안에서 우리 구원자 스스로 우리 앞에 보이신 것 보다 더 분명하고 교훈적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그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예표는 없다.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는 여기에서 민수기 21 장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키신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좃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 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민수기 21:4-9)

## 치명적인 독

이 그림 안에서 내가 첫 번째로 본 것은 우리 인류에 대한 초라한

사실이다. — 우리는 모두 죄의 치명적인 독에 감염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인정하기도 좋아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더 빨리 알면 알수록 더 좋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패하고 병에 걸려 있으며, 죄로 타락하였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천연적인 상태이다. 그리고 발의 신발 밑창에서 머리의 왕관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어떤 온당함은 없이 상처와 긁힌 곳과 고름이 흐르는 상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결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공활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민수기 21 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민수기 21:6)고 듣는다.

이스라엘 장막 촌에 공포와 혼란을 상상할 수 있는가? 어느 날 그들은 불의 군대, 날아다니는 뱀들의 공격을 받았다! 뱀에 물리면 치명적이었다. 그 독은 몸에 열이나 타 죽게 하였다. 마치 불이 혈관 속에 있는 것처럼, 고통이 몸 전체에 있었다. 죄의 과멸적 본성이 그렇다. 그 뱀에게 물린 자들은 그들의 혈관 속에 사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죄의 치명적 본성이다.

“지독한 질병처럼, 죄는,  
우리의 생명의 피를 감염시킨다;  
유일한 향유는 주권적인 은혜 뿐,  
그리고 의사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힘은 도망갔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 가까이 이끌리네;  
그러나 그리스도, 주는 죽은 자를 부르시네,  
그분의 전능하신 호흡으로.

광기는, 천연적으로 안에서 지배하고;  
욕망은 불타고 분노하리;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신성한 능력으로,  
내적 불이 누그러질 때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 그림은 실로 검은 그림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뱀에 물렸고, 그들은 뜨겁게 불탔으며, 결국 그들은 죽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한 아들딸들과도 그렇게 함께 한다. 우리는 모두 옛 뱀에 물렸으며 동산에서 죄로 독이 퍼졌다.

죄는 다른 사람을 접촉함으로 오는 사회적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타고난 가족 병이다.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온다. —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롬 5:12, 19). 다윗은 울부짖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 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 이여.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시 58:3).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 모든 사람이 사탄의 뜻에 따라 사탄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 육신의 모든 행위는 사악하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

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갈 5:19-21). 이것들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고 본성적으로 인간의 의지의 행위들이다(마 15:17-20; 막 7:21-22).

천연적으로 사람은 너무도 악한 피조물이고 사악함으로 타락하였으므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죄로 얼룩져있다. 사악한 자의 희생이라 할지라도 주께 혐오스럽다. 그의 바로 그 의들은 하나님의 눈에 불결한 누더기들이다. 적어되라. — 사람은 천연적으로 죄인이며,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서 지독하게 추악하다.

하나님께 대한 죄 목록을 살펴보라. 우리는 모두 우리가 어릴 적으로부터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겨왔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여 어기고 있다. 우리가 구원자의 피로 씻음 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거듭났어도 지속적으로 그분께 죄를 범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빙에 물린 후, 그들은 속에서 타기 시작하였다. — 죄는 즉각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산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간의 시간을 주면, 옛 뱀 그 자체처럼 아무리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라 할 지라도 죄가 당신의 혼에 고통스러운 독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불뱀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으켰던 것보다 더 지독한 아픔을 낳을 것이다. — “이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쏘 것이며.”(잠 23:32). 청년들은 그의 자제력을 바람에 날리고, 방탕하게 살지만, 독주가 속이는 자임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젊은 여자는 쾌락과 유행과 난교를 찾지만, 죄인의 길이 힘들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와 부모와 종교와 혹은 자존감으로 억제되기 때문에 그 날의 악행 속에 빠지지 않지만, 그들 속에 모든 음탕한 욕망으로 불타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 그림이 더 어두워진다. — 뱀에 물린 자들은 많은 고통 후에 마침내 죽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끔찍한 죽음으로 그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그들은 울부짖었고, 그들은 몸부림쳤으며, 그들은 애걸하였고, 그들은 죽었다. 곧 당신도 역시 분명 죽는다. 당신 속에 뱀의 독이 있다. 곧,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곧 당신은 지옥에 있을 것이다! 언젠가 사망이 경고도 없이 엄습한다. 언젠가 사람들은 너무도 경직되고 굳어져서 두려움 없이 무덤 속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종종, 그들이 죽게 될 때, 사악한 자는 그들의 혼이 무서워하는 느낌을 깨닫게 되었다. 예서처럼, 그들은 눈물로 회개할 곳을 찾지만, 그곳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죽은 후에 — 지옥이다! 모든 사악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거기에는 양심의 불타오름과 생각의 불길과 혼의 고통 같은 죄의 영원한 결과들이 있다.

이 불뱀들은 이스라엘에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Matthew Henry 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진노는 불평하는 것을 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던 그 불뱀들과 같다. 율법의 저주들이 불뱀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모든 징조들이다.” 이스라엘은 주를 대항하여 죄를 지었다. 따라서 그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런 불뱀의 독침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이 죄인들의 마음에 적용될 때 하나님의 율법의 합당한 표현이었다(롬 7:9).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빛 가운데 그의 죄에 대한 넘쳐나는 죄의 충만을 보여준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인을 두렵게 한다. 율

법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라. — “죄 짓는 혼마다, 죽을 것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니.” “하나님은 결코 죄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향하는 것을 차단 한다. —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죄인의 마음에 적용될 때, 그러면 죄는 그 혼 가운데 쓰라림이 되며, 양심 안에서 불이 되고, 그 마음 안에서 지옥이 된다.

이것이 죄의 자각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가련한 죄인은 그의 지체들 가운데 사망을 느끼게 한다. 그의 자만과 자기 의는 부패한다. 그의 별거벗은 사악함은 드러나 보인다. 그러면, 오직 그 때에만 죄인은 긍휼을 구하며 울부짖을 것이다. 사람이 그 죄를 알기 전에는 긍휼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기 전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찌른 것은 뱀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옛 뱀이었으며,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 본성에 독을 넣은 마귀였다. 그 모든 유혹과 공격과 독은 불처럼 뜨겁다. 그리고 죄의 치명적 영향이 깨어난 양심 속에서 느껴질 때, 그들이 혼 속에서 공포로 얼마나 타오를지!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를 도울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사망한 자들은 그들의 상황을 바꾸도록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나쁜 버릇이 그 자신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느낄 때, 그는 다른 분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독에 물린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 상처를 치료할 약은 무엇인가? 없다! 사람의 능력에는 아무런 치료법이 없었다. 뱀의 독은 모든 과학과 약과 기술과 능력을 헛되게 만든다. 그것은 모든 치료의 시도를 거절하였다. 그것이 죄다. 아무런 기도도, 아무런 눈물도, 아무런 시도도, 아무런 후회도 죄를 씻어버릴 수 없다. 만약 죄인이 회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긍휼만으로서만 일 것이다.

## 하나님의 치료

눅 뱀의 예표 가운데 우리 앞에 제시된 두 번째 것은 우리의 저주를 위한 하나님의 치료, 우리의 파멸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이다. — 죄의 병폐와 하나님의 율법의 타오르는 진노로부터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제시하는 눅 뱀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주권적인 은혜와 대가 없는 사랑 가운데 치료약을 예비하셨던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눅 뱀을 예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시간은 충분 가운데 죄의 종말이 오도록 하기 위한 그분 자신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다. 많은 자들은 눅 뱀이 어리석은 치료약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그것은 해를 일으켰던 뱀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어리석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명된 대속물이다.

뱀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주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죄인들의 치유를 위하여 주어졌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16 절).

뱀은 뱀쇠로 만들어졌다. 뱀쇠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금속이며, 종의 형체를 스스로 취하신 우리 주의 겸손을 적절하게 나타낸다. 뱀쇠는 밝고 빛나는 금속이므로, 아버지의 영광의 빛과 그분의 인격의 표출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한다. 그리고 뱀쇠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표현하는 단단한 금속이다. 그리고 뱀쇠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그리스도의 불변성의 전형이다. 그러나 사막 태양 속에서 밝게 빛나는 뱀쇠로 만든 뱀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세상 가운데 가장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그 머리에 나쁜 질병을 가진 자의 눈에 빛나는 밝은 빛은 경련과 발작이 그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 같다.

뱀은 뱀의 모양을 가졌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독이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지어졌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보였으나, 하지만 그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무해하고, 순결하며, 죄와 구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뱀 뱀이 있었으며, 그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 한 분

의 중보자,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구원 받게 될 하나의 이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 있다.

뱀이 장대 위에 들려져야 했었기 때문에, 뱀에 물린 모든 자가 볼 수 있었다. 그런것 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들려 올려져야 했으므로, 죄인들이 도처에서 그분을 바라보고(믿고) 살 수 있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는 택정 받은 죄인들 대신 그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분이 말씀 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인자가 들려져야만 했다.” 그 표현, “인자자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에게 죽어야 할 메시아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 필요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필요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표와 상징 때문에, 은혜에 속한 언약 안에서 우리 보증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의 때문에 필요하였다. 그것이 없이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 질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어야 했다. 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합당한 대속물이 고난을 받고 대신 죽느냐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바로 그 사랑과 긍휼은 그분의 아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뱀은 저주 받은 피조물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나무 위에 달렸을 때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벧전 2:24 상). — 모세가 들어 올렸던 놋 뱀은 불뱀이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는 우리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불의 진노를 견디도록 되었다. 바로 그 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을 때 지옥의 불길에서 타도록 되었다!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이것이 구원자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인자의 들림은 ‘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치료가 아니다. 이런 방법 안에서만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사랑의 요구가 만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를 위한 유일하게 가능한 치료이다.”

하지만, 이 짧은 단락 속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인자는 또한 그분의 높여지심 가운데 들려져야 한다. 죄로 감염된 모든 자에게 보여 질 수 있는 그분은 오직 높여지신 그리스도로서 뿐이다. 타락하고 파멸되고 사망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진 분은 부활하고 높여지신 구원자 뿐이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히 7:25) 분은 높여지신 구속자 뿐이다.

그리고 인자는 복음의 전파 안에서 들려올려져야 한다. 전도자들은 놋 뱀이 고정된 장대와 같다. 우리는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들어 올리고 높이는 한에서만 유용하다. 그것은 전도자의 놋 뱀이며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에 달린 분을 전하

는 일일 뿐이다.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용서하며 화목케하며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전강이다. 우리는 죄인들의 명을 결코 치료할 수 없지만,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치는 분께 죄인들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 갈 수 없지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할 수 있다.

###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보기 원하는 세 번째 사항이 있다. — 그리스도를 믿으며 멸망하는 모든 죄인은 구원 받을 것이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자 앞에서 들려 올려진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데, 그것을 위한 구원자 자신의 말씀이 있다. —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하라고 들었는가? 그들은 어떤 치료 약을 만들라고 듣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도우라고 듣지 않았다. 그들은 뱀과 싸우라고 듣지 않았다. 그들이 뱀에게 제물을 주라고 듣지 않았다. 그들은 뱀에게 기도하라고 듣지 않았다. 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라고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상처를 바라보라고 듣지 않았다. 그들은 바라보라고 들었다. — 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지독하더라도 관계 없이, 그들의 시력이 얼마나 약하더라도, 만약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은 치료되었다.

당신이 구원 받기로 할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의 표현이다. 당신은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에게 바라볼 것을 명령하신다(요일 3:23).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당

신이 보도록 한다. —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사 45:22).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격을 바라보라. 그분의 구속하는 피를 바라보라. 그분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을 바라보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분의 충만을 바라보라. 성령이여, 그 피로서 가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바라본 결과는 무엇인가? — 영생이다! 바라보는 것이 당신의 혼에 치유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영생을 받는다! —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 19 장. 침례자, 신부, 그리고 신랑—요한복음 3:22-36

“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

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22-36)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침례자 요한의 마지막 간증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람, 침례자 요한은 시작할 때처럼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도 동일하였다. 그분 자신의 관점에서 동일하고, 그리스도의 관전에서 동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동일하다. 그 목자가 침례자 요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과 영광을 선포함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담대하고, 변함 없는 그 교회는 복이 있다!

### 많은 물

이 단락에서 분명한 첫 번째 것은 믿는 자의 침례의 복음 규례를 행하기 위하여 “많은 물”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성령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한다(22-24 절). 몇 방울의 물을 뿌리거나 혹은 심지어 물 한 컵으로 누구든 침례 할 수 없다. 믿는 자의 침례의 복음 규례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물”이 필요하다.

요한은 아직 헤롯에게 체포되어 죽임당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세상에서 그의 시간의 마지막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 그가 그에게 오는 모든 자를 침례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세 구절을 한 줄 한 줄 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만약 성령께서 22 절에 말씀하신 것과 요한복음 4:2 에서 말씀한 것을 비교한다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종이 행한 것이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행해진 것임을 본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 예수 그분 자신의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으며, 대접받게 되어야 한다(고후 5:18-6:2; 눅 10:16; 히 13:7, 17).

23 절은 “침례의 방법”이라 부는 것과 관련하여 성경에 가장 확실하게 정의된 것들 중 하나이다. —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만약 침례가 물을 뿌리거나 붓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었다면, “많은 물”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침례는 잠김으로서다. “침례 받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나 영어 모두) 담그거나, 잠기거나, 가라앉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주 자신의 사례가 이것과 관련한 모든 논쟁을 가라앉혀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어떤 생각도 침례가 잠김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신약을 읽을 수 없다. 주 예수는 잠겨졌다(마 3:16). 침례는 장사지는 것이다(롬 6:3-4; 골 2:12). 그것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의해 모든 의의 충만을 상징한다(마 3:15). 그리고 그것은 부활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소망을 보여준다(롬 6:4). 이것들은 머리 위에 물을 몇 방울 튕기는 것으로 상징적인 그림이 될 수 없고 정식 침례라 부를 수 없다. 그것들은 오직 물의 무덤 속에 믿는 죄인을 장사지냄으로 묘사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우리 구원자와 함께 생명의 새롭게 함 가운데 일어나 행보하는 것이다. 침례는 잠김이고, 장사지내느 것이다. 그 외에 어떤 것을 침례라 부르는 것은 엉터리다.

## 사탄의 의지

이 단락에서 가지는 두 번째 것은 사탄의 선호하는 의지들 가운데 하나에 대한 경고이다. 지옥의 악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고 그의 종들을 가르려 한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곁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5-26 절)

요한의 제자들 중 몇과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정결케 함의 의식과 예식들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 휘말렸다. 유대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정결케 함의 의식들을 지켰다. 어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분의 은혜에 속한 역사의 그림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요구되지만, 이런 대부분의 의식들은 종교적 전통 때문에 지켜졌고 성경 안에서 어떤 근거도 전혀 없다.

이 유대인들은 요한이 새로운 정결케 함의 의식을 실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옳았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들의 의식의 실행을 거절하였다. 마태복음 3 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침례를 받고자 요한에게 왔을 때, 그의 침례를 그들의 전통에 매려할 때, 그는 거절하였다.

26 절을 자세히 읽어보라.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저희”는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25 절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그 동일한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1 장에서 요한에게 질문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보내진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다(요 1:19).

이 동일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가 증거하였던 그 분이 침례를 주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에게 나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요한이 질투하고 시기하도록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갈라 놓으려 시도하고 있었다.

그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의지들 중 하나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려 시도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을 분열시키고, 다른 종들에게 질투와 시기가 일도록 애쓴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런 예를 계속하여 본다(민 11:26-29; 빌 1:14-18; 엡 3:8). 지옥의 악령들이 형제들을 갈라놓는데 성공할 때 모든 지옥이 웃으면서 소리치고 고함을 칠 것이 분명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마귀의 도구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화의 산출자들로 만드소서(엡 4:1-7). 분쟁과 분열은 끔찍하게 악하며, 교활하고, 전염성이 있으며, 복음의 목적에 상처가 된다. 그것이 일어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며 그것에 어떤 기여도 하지 말도록 하자!

## 신실한 종

셋째,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진실로 신실한 종의 전형과 사례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27-35 절). 여기 “겉손으로 웃 입혀진” 한 사람이 있다(벧전 5:5).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27-30 절).

여기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침례자 요한, 메시아의 선주자가 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려고 하였을 때, 그는 그 존귀를 그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렸다. 27 절에서 요한은 사람이 가진 어떤 존귀도,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어떤 쓸모 있음도, 어떤 섬김의 장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알고 그의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순종하는 그 종은 복되다(고전 4:7; 12:11, 18; 엡 4:7). 요한은 이 사람들의 관심을 그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 곧 여호와의 종으로서 세상에 오신 나사렛 예수께로 돌렸다.

28 절에서 요한은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한 목소리,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도록 보냄 받은 한 목소리임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겸손을 거짓되게 보이거나 겸손한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었다. 그의 후에 바울처럼,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 15:10)라고 말한다. 우리는 침례자 요한에게서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보이는 것과 아주 다른 영을 본다. 그것을 받기 보다, 하나님의 다른 종을 높이기 위하여 그는 그것을 다른 종에게 돌렸다. 그것이 신실한 종이다. 우리 종은 주 예수 그

리스도 였음은 사실이지만, 그 원칙은 동일하다.

찬양과 인정에 대항하고, 그 자신 위에 빛이 비추게 하려하고, 그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전도자들도 주의하라. John Trapp 이 보았던 것처럼, “자애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만들며, 그들 자신을 더크게 보이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작게 보이게 하려고 가르치려 한다.” 에스겔은 다니엘의 이름을 높였다(겔 14:14). 바울은 에바브라를 칭찬하였다(골 1:7). 그리고 베드로는 비록 그가 안디옥에서 바울에 의해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음에도 바울을 찬양하였다(벧후 3:15; 갈 2:11). 신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지만, 자신을 결코 높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인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친구들이다. 결혼식에서 최고의 사람처럼, 신실한 전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품에 그의 신부를 안으려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 기뻐한다. 그들은 보여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분의 신부로 보여지기를 원한다(29 절). 그들은 단지 반지(평강의 영원한 복음)를 들고 있다.

그 신부는 교회, 모든 세대와 열방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신랑에게 속해있다(아버지에 의해 주어졌으며, 그분의 피로 구속 받았고, 그분의 영으로 그에게 옮겨졌다). 신랑의 친구는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그는 참 친구이며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기쁨은 신랑이 영화롭게 될 때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 —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30 절을 처음 읽은 이후,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내 마음에 처음 편하게 한 그 날 이후로, 나는 주 하나님께서 매일 이것을 내 마음의 열망으로 만드시기를 기도하여 왔다.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나의 뜻과 계획도 그렇게 되도록 하자.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그분의 위대함 가운데 흥하여야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너무나 높이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많이 찬양할 수 없고, 지나치게 사랑할 수 없으며, 그분께 과도하게 헌신할 수 없다.

그리고, 31-35 절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고 자신을 쇠하게 하기 시작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31-35 절).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다. 나는 땅에 속하였고 땅에 속한 자로서 말한다(31 절). 주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지만,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거절한다(32 절). 하지만, 그분의 증거를 영접하는 모든 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을 친다(33 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진리로 인친다. 그러나, 이 33 절은, “그분의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참이시므로 이미 인침을 받았다.”고 번역되어야 한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온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으로 인치셨을 때 그분을 믿는다(계 7:1-3). 그 번역은 성경에 의해 확인된다(고후 1:21-22; 엡 1:12-14; 유 1:1).

그리스도는 측량 할 수 없이 그 영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34 절).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다. 그는 완전한 진리이다.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측량할 수 없이 그분 안에 거한다(골 2:9).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께 그에 대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35 절; 요 10:16-18). —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모든 것을 포함하는가?” 그것은 우주에 부속하는 모든 것이고, 생명에 관계하는 모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달에 부속하는 모든 것이고, 교회에 부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또한 그것에 부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한 분 위에 우리 혼을 위한 도우셨다(시 89:19).

## 당신의 책임

넷째, 36 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그의 처형 전에 전한 마지막 설교의 최종 요점을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죄인의 대속자인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영광을 선포하므로, 그는 당신의 영원

한 운명이 당신 자신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가까움과 현재임이 있다. 침례자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선포한다. 용서와 평강과 영생과 천국에의 완전한 직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죄인의 즉각적인 소유이다. 모든 충만 가운데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의 즉각적인 소유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장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해져야 할 행위도 없고, 충족되어야 할 조건도 없으며, 지불되어야 할 대가도 없으며, 통과 해야 할 심사 기간도 없다. 그리스도를 믿으며, 당신은 즉시 용서 받는다. 그리스도로만, 모든 믿는 자는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게 된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와 함께 현재의 즉각적인 특권을 가져온다면, 믿지 않는 것으로 남는 것이 엄청난 위기의 상태에 있게 된다. 만약 하늘이 믿는 자에게 그토록 가깝다면,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가깝다! —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가진 자의 혼의 축복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 지옥의 고통의 영원한 고통임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스도에 의해 없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다!”

“겸손한 죄인은 오라, 그 품 안에서  
수 천의 생각들이 되풀이 하네;  
당신의 억눌린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오라,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해결책으로 만들라.

나 주께로 가리, 비록 내 죄들이  
산같이 내 주위 가까이 에워싸도;  
나 그의 법정을 알며, 그 안으로 들어가리,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엎드리리 그의 보좌 앞에 엎드리리,  
그리고 거기서 나의 죄를 고백하네;  
그분께 말하리라 나는 파멸한 철면피임을  
그의 주권적 은혜 없는.

나 은혜로운 왕께 나아갈 것이네,  
그 왕권이 용서를 하네;  
아마도 그는 내가 접촉할 것을 명하시리,  
그러면 애원자는 살리라!

그는 나의 변명을 받겠지만,  
나의 기도를 들겠지만;  
그러나 내가 멸망한다면, 내 기도할 것이라,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 멸하리라.

내가 간다면 오직 멸망할 수 밖에,  
시험하게 결정 될 것이니;  
왜냐하면 만일 멀리 있다면, 나는 아네,  
영원히 죽을 것임을.

하지만 구하던 공홀로 죽는다면,  
내가 왕을 시험했을 때,  
이는 죽어야 하는 것이었으니(기쁜 생각!) —  
죄인은 결코 죽지 않았음이라!”

그 모든 것을 말하였으므로, 그 동사 시체에 매우 주의하며 36 절을 읽어보라.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현재 시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미래 시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령이 요한에게 다른 동사 시제를 사용하도록 영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두 곳에서 모두 현재나 미래 시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 않았겠는가? 아니다.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요한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현재 시제)”라고 선포할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곳마다 생명이 이미 존재함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영생을 낳지 않는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산출한다. 그가,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주장할 때, 모든 책임이 믿지 않기로 선택한 죄 있는 혼 위에 놓여지는 한편,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아

들을 믿지도 믿을 수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향한 가련한 죄인을 차단한다. 동시에, 요한은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렇다는 증거이다(요일 5:1, 10-13).

## 20 장. 죄인의 회심을 위한 다섯 가지 필요 사항—요한복 음 4:1-26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1-26)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취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회심이 이루어지는가? 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전능한 공화로 그분 자신에게 있는 생명과 믿음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면서 그녀를 그분 자신에게 데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답하고자 한다. 성경의 이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을 보여 주신다. — 회심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존재한다. 여기 죄인의 회심을 위하여 필요한 다섯 가지 사항이 있다.

## 교차로

첫째,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먼저 오시기 전에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께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죄인의 길을 지나치시기 전에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1-2 절).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를 떠나셨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확고한 말씀인가!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의 한 가운데 계셨다. 그분은 그들의 길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분이 유대의 거리를 걸으셨으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경멸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의롭게 되려는 종교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그분은 그들의 상상의 빛의 어둠 속에 그들을 남겨두셨다. 그분은 그들의 자기 의의 망상 속에 지옥에 가도록 그들을 남겨두셨다. 그분은 그들을 그들 자신에게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라. —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과 다투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버려두신다면, 당신은 이미 지옥에 있던 것처럼 지옥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기도한다.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당신 자신 외에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이고, 당신 자신의 행동이며, 당신 자신의 잘못일 것이다(잠 1:23-31). 그러나 당신의 불신이 변할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상상할 만큼 어리석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롬 3:3-4).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의지의 동의나 어떤 사람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분께 결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구원 받아야 하고 받을 택정한 남은 자가 있다. 사랑의 약속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선택되고 그분의 보혈로 구속된 죄인에게 오실 것이다. 사랑의 약속된 시간에 선한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욕시쯤 되었더라.” (4-6 절)

이것은 만날 기회, 행운의 휴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 장소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되어 있었다. 그 조그만 땅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사서 야곱에 의해 우물을 파게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그 땅 조각은 사서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께서 잃어버리고 파멸한 죄인을 만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려 그곳에 오셨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찾으려 우물에 오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분께서 그녀를 찾아 우물로 오셨다(사 65:1).

하나님의 섭리가 그 궁핍한 죄인과 전능하신 구원자께서 그 우물에 그 동일한 때에 있도록 안배하셨다. 그녀는 한 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정오(한 낮의 제 육시)에 그 우물로 왔고, 그 때는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 같은 때였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이름과 평판이 그녀가 엄청난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였던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시간에 왔으며, 이는 그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주목하라. — 주 예수께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과만 계시도록 안배하셨다. — 그분이 그의 제자들을 빵을 사도록(사기 위함이며, 구걸하기 위함이 아님<sup>iii</sup>) 멀리 보내셨다(8 절).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에 대하여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읽는 것이 떠오른다. —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호 2:14).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7-9 절)

Robert Hawker 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을 발견 못하지 말라. “우물 가에서 일어났던 그 회심은, 예수와 이 여인 사이에서 우리 주께서 시작하셨다. 그렇다! 은혜의 모든 서곡들은 주님으로부터 먼저 온다(요일 4:19).”

### 피조된 흥미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녀의 길로 지나시고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일단 그분께서 그녀의 길을 지나셨고, 주께서 그녀 속에 흥미를 만드셨다(10-14 절). — 그분은 그녀에게 물 한잔을 요구하셨는데, 그가 목말랐기 때문이며, 그렇지만, 해결하려 오신 그 갈증은 그녀의 혼을 위한 그분의 갈증이였다. 그분의 요구는 그녀의 흥미와 주의를 끌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그 여인은 무례한 말대꾸로 그분의 요구에 대답하였다. 본질적으로 그녀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관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대신 길어 달라고 요구하시다니! 당신이 나를 생각하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는 그분의 택한 자를 향하여 오래 인내하고 계시며, 그들 중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의도하고 계시다. 따라서 그분은 그녀의 무례를 무시하시

고 그녀의 마음을 파고 드셨다. 10 절을 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쯤 달라 하는 이가 누구 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10 절)

지금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 구절에 있지만, 분명한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

-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롬 6:23). —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측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셀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위대한 선물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그리스도는 영생이다(누가복음 2:30; 요한복음 17:30).
- 하나님의 선물을 알도록 될 때까지, 당신은 결코 구원 받지 못하며, 그리스도께로 오지도 않을 것이다. Henry Mahan 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총체적 문제의 뿌리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다. 그것은 영생이다(요한일서 5:11). 하나님은 증여자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받는 것이다. 사람은 그 선물을 모르며, 그리스도, 증여자를 모른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공황이 필요함을 모른다. ‘만약 네가 이것들을 알았더라면, 내게 요구하였을 것이다.’ 요구는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각과 계시 가운데 우리를 다루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아닌 누군가에 기초하여 그녀

를 다루심을 주목하라. 그것은 교리가 아니라, 행위보다 더한 어떤 것이며, 그것이 구원한다. 그것은 그 인격—예수 그리스도—이다!”

- 구원은 요구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요한복음 7:37-38; 누가복음 11:9-13). —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 구원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로마서 10:8-9). 그리스도께서는 넘쳐흐르는 풍성함 가운데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이 생수를 기꺼이 부어주신다! —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까지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고리도전서 2:9-14).

11 절과 12 절에서, 이 가련한 여인은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말하거나, 말하려 애쓸 때 행하는 것을 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전한 무지를 보였다. 그녀는 그녀가 대화를 하고 있는 분과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요한복음 3:4 의 니고데모처럼, 그녀는 그냥 말하고 있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  
까?”(11-12 절)

13-14 절에서 주 예수께서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의 공허함을 선포  
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는 샘물이 되리라.”(13-14 절)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우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다. —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당신 속에  
있는 갈증은 당신의 혼의 갈증이 너무도 깊어서 이 세상의 물로는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그러  
나 하나님으로 난 그 사람, 생명의 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하나  
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고린도전서 1:30; 골로새서 2:9-10).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죄인에게 오시기 전까지 어떤  
죄인도 결코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그의 혼 가운데 갈증을 낳게 될 것  
이다.

## 드러난 죄

셋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그 죄인에게 드러내시기 전에 어

편 죄인도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다. 공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오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알고 인정하게 되어야만 한다. 그분이 그녀에게 은혜롭게 되기를 의도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이 여인이 그분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셨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15-18 절).

그분은 그 여인이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셨다. 이것은 언제나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는 빛보다 오히려 어두움을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책망 받지 않으면, 빛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빛이 우리 위에 쏟아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피난처를 찾아 우리 자신을 빛으로부터 가려지게 한다. 그것이 정확히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19-20 절)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 그녀의 목소리와 주제를 바꾸었다. 그녀는 존경스럽게 말하기 시작하였고, 종교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그녀의 부도덕적이고, 음탕하고, 고집스런 행위의 주제로부터 피하기를 원했다. 그녀의 양심에 찔림을 받았고, 그녀의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그녀의 양심을 달래려 하였다. 그녀는

종교적 논쟁을 방패로 주의 화살의 가시를 부러뜨리려 하였다. 사람들은 이 노련한 늙은 여자처럼,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한다. 여기 그 여인, 한 남자와 동거하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최소한의 거리낌도 없이, 자기 조상의 종교를 방어하는 여인, 매춘부보다 더 천한 지위의 여인이 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녀를 함정으로 이끌지 않으려 하셨을 것이다. 그분이 한 가지 점을 입증하는 입장보다 그녀의 혼을 훨씬 더 염려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것만을 하였다. 그분은 그녀의 거짓 도피처를 파괴하셨다.

### 부서진 피난처

넷째, 어떤 죄인도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시도하는 모든 거짓 피난처, 모든 거짓의 피난처를 파괴하기 전에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 안에 있는 피난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모든 반역적인 죄인은 거짓의 피난처, 그가 세운 종교적 피난처, 그의 혼 주변에 있는 어떤 종류의 요새, 그 안에서 동산에 있는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도피처를 갖고 있다. 그 피난처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

주 예수께서 이 여인의 피난처를 어떻게 파괴하였는지 보라. 그분은 그녀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너희 아르메니아 사마리아인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이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단지 그녀에게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으며 그녀의 피난처를 파괴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21-24 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3:1-3 에서 우리 구원자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신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순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분께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 드리는 것을 찾고 계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실함의 영 안에서, 믿음의 영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여야 한다(이사야 28:14-22; 히브리서 4:14-16; 10:16-22).

### 그분 자신을 계시하심

다섯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그분께 오기 전에, 그 죄인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한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25-26 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를 마치셨다(로마서 10:17;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 이 여인은 그녀의 거짓된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품으로 구원되었다. 그녀가 그분 안에서만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자마자, “내로라!” — “내가 그로라.”고 말씀하셨다. —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죄인을 구원자 — 그리스도의 계시 — 께로 데려가기 위하여 택한 것이다(스가랴 12:10).

일단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당신 속에서 계시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궁핍한 죄인과 주권적인 구원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면서, 모든 것이 영원히 안정되었다(이사야 45:20-25; 마태복음 11:28-30).

## 21 장. 축복된 은혜의 매임—요한복음 4:1-9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4:1-9)

요한복음 4 장의 이 여는 절에 우리의 주목을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하는 일곱 가지 공과들이 있다.

- 이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첫번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위에서 사시고 죽으신 그 사람이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요한 복음의 최우선 목적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육신 안에서 체현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 구원자의 신격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그분께 알려드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한 암시는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아셨다.” 누구든 어떤 것에 대해서든 그분께 알려드리는 것에 대한 필요는 없었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그분 앞에서 어둠이 빛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낮추신 그 한 분, 그분 자신과 우리 인성을 연합하도록 무한히 낮추심을 택하신 그 한 분, 여호와와 종으로서 인간의 육신 안에서 땅에 거하시려 이곳에 내려오셨던 그 한 분은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에 “주”라고 여기서 불리우신다!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목수로 경멸스럽게 취급하였던 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도 아니셨으며,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사람들을 위하여 인자로서 영원한 의 안에서 오신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임에 분명하다. 죄인들을 위하여 인자로서 그의 피를 흘림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그분은 그분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에 분명하다.

- 종교적 세상은 지금도, 언제나 그래왔으며, 시간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을 것이다.

주류 종교는 항상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반대가 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믿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었을 때”가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런 때를 내게 보여주려는 누구든 반대한다.

그 사실인 즉,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에녹과 노아와 욥의 시대를 지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행보하였던 동안, 모세의 시대로부터 구약 성경 역사의 해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광범위한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경멸하였는데,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자들이기도 하다. —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상숭배자들이다. —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지 숭배자들이다. —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찾으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행위를 혼합하려 헛되게 애를 쓴다.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지키며, 그 길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배척하고 거스러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배척한다. 그러나 그 종말은 사망의 길들이다(잠 14:12; 16:25).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4 장에서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보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우리 주의 공사역 중 이 초기 때에 조차도,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없애기 위하여 분명하게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따름을 질투하였다. 그들이 요한을 부추겼었다는 것은 매우 나쁜 것이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요한과 경쟁을 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침례자 요한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주의 영향력으로 위협을 받았다. 그들은 종교지도자들로서 그들의 지위와 권력과 특권을 잃을까 두려워 하였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 의해 아무런 선지자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요 7:52) 아주 천한 계급에서 나온 사람으로(그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오셨다!) 취급되었다. 그들은 아무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으로만 알았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경멸하였다. 우리 주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공허한 종교 의식주의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질책하셨다.

- 여기 세번째 공과가 있다. 믿는 자의 침례는 그것은 우리의 책무이지만, 그러나 오직 경배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의 의식이다. — 침례는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1-2 절). — 여기서 순서에 주의하라. 첫째, 제자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 유아로 누구든 침례를 받는다든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든지, 혹은 회심하기 전에 침례를 받는 자를 찾아보기 위하여 성경을 뒤지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믿는 자의 공개적 고백이며, 그로써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자인하여 공개적으로 그

리스도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복음에 헌신하기로 한 것이다(로마서 6:3-6)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 문장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C. H. Spurgeon 은, “우리 구원자는 친히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침례를 주시지 않았다. 이제, 만약 침례가 침례 주는 자의 특성이나 지위에 좌우된다면, 예수는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침례 주는 사람이 침례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는 침례를 주지 않으셨고, 다만 그 일을 그의 제자들에게 넘기셨다.”

- 여기 다른 공과, 그것을 분명하게 만든 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에게 분명한 공과가 있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사람을 심지어 본성적인 것보다 더 교만하고, 편협하며, 비열한 마음으로 만든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9 절). —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하층민으로, 하등한 종족으로 깔보았으며 그들을 경멸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배를 공유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냉소적인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혼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였다. 해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 관심 있을 뿐이었다. 내가 이전에 알았던 가장 교만하고, 파렴치하며, 가장 부정직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믿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적이 사람—들이었

다!

- **경멸당한 빛은 꺼지고 어둠으로 변할 것이다.**

3 절에서 발견된 것이 얼마나 슬프고도 슬픈 말씀인지. — “유대를 떠나셨다!” 우리 주님은 돼지들에게 그분의 진주를 던져주시기를 거절하셨다. “유대를 떠나셨다!” 그 말씀이 얼마나 경고를 주는지. — 경멸당한 빛은 꺼져버리고 어둠으로 변할 것이다(요한 12:35-46; 고린도후서 5:20-6:2).

모두가 복음을 믿기를 강력히 권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대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도처의 죄인들에게 호소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한다.

-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불신으로 바뀌지도 바뀔 수도 없다.**

거리가 멀다!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것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였다면, 또 만약 당신이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였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방법의 열매를 먹으며 당신 자신의 의지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불신, 당신의 반역, 당신이 하나님의 결정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로마서 3:3-4).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던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던

져 버리셨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에게 심판을 가져옴으로써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옮기게 되었던 바로 그 도구가 되었으며, 그로써 이방인의 충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게 되었다(로마서 11:1, 25-26, 29, 33-36).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여전히 사실이며, 영원히 사실일 것이다. —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디모데후서 2:19).

비록 유대인들이 그분을 멸시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멸하려 하였지만, 그분이 유대를 떠나셨지만…

- 4 절에 기록되기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함은, 전능한 은혜로서 그리고 주권적이고, 변치 않을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 받아야하고 받을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있는 그대로 본문을 읽어보라. “그분이 하겠는지라.” 그분이 하실지도, 원하신다, 소망하신다, 만약이라면 그럴 것이다, 혹은 하려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는다. 본문은, “그분이 하겠는지라!”고 한다. 그 의미는 —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이다.

이것은 그분이 했을지도 혹은 하지 않았을지도 한 것이 아니었고, 그분이 하셔야만 하는 것이다. 왜? “사랑의 시간”이 도래한 택하고 피로 산 죄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사랑의 시간”이 지금 도래한 택함 받고 피로 산 많은 죄인들이<sup>iv</sup> 사마리아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받아야 한다!

비록 아무것도 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하지만 우리 보증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속한 지정된 행사를 하셔야만 했으며, 그로써 그분이 우리를 영광으로 옮기실 수 있다. 그분은 스스로 그분 소유를 구하여야 하셨다(요 10:16-18). 그것은 선택 받은 죄인들의 구원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진리와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매우 필요한 문제임이 확실하다.

그분의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고, 그분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신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셔야 했던 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고 안다. 그들이 정확히 만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롭고 흠모할만한 섭리 가운데 그 길을 지름길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인데,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이다. C. H. Spurgeon 이 언급한 것처럼, “섭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노상에 직접 사마리아를 세우도록 지시하셨고, 은혜가 구원자께서 그 방향으로 이동하시게 주장하셨다.”

사랑의 시간이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들을 위하여 왔을 때, 주 예수께서 지대하고,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구원하는 능력 안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이 권능의 날에 기꺼이 행할 것이라는 사실로 그분을 칭송하고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해야 한다(must)”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전능한 “해야 한다”를 거스른 입장은

없다. 이 말씀, “그분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에 대하여 네 가지 이유를 주도록 하겠다.

##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신성한 계획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성한 예정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교리를 믿고 기뻐한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교리이며, 믿는 자의 마음을 위로함으로 충만한 교리이다(로마서 8:28-30; 에베소서 1:3-6, 11).

“잠잠하라 모든 피조물들이여,  
그리고 너의 창조주의 승낙을 기다려라:  
내 혼이 떨며 서서 노래하리  
하나님의 존귀를

생명과 사망과 지옥, 그리고 세상은 모르니,  
그분의 확고한 천의를 붙들어라:  
그는 미덥지 않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 않으니,  
대신하는 것은 아무런 것도 남아 있지 않네.

그의 보좌에 묶여있는 한 책이 있으니,  
사람들의 모든 운명들이 있네,  
각양 천사의 모습과 크기로,  
영원한 빛으로 그려져 있네.

그의 섭리가 그 책을 열고,  
그의 판결이 빛나게 하네:  
여는 쪽마다 그리고 모든 글이  
어떤 빛나는 계획을 성취하네.”

— Isaac Watts

##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신성한 약속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영원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약속에 따라 운행하신다. 그렇다. 성경은 택정함의 교리를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듣는다(디도서 1:1-3; 데살로니가후서 2:13-14; 디모데후서 1:9-10).

“아버지, 우리를 아셨던 것은 당신의 사랑이었음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오래 전부터이네:  
그 동일한 사랑이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시게 하였으니  
그 달콤하고 강요하는 능력으로라,  
또 지금과 영원히 더욱 더 우리를 지킬 것이라.”

— J. G. Deck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영생의 신성한 약속에 따라 모든 것을 안배하셨다. 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에게 한 영생의 약속은 다음에 준하여 세워졌다…

## 신성한 약속.

“그분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신성한 약속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주권적인 약속으로 모든 것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며 은혜에 속한 축복된 언약은 우리 대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우리 보증자와 이루어졌다. 언약 사랑 보다 나의 혼에 더 기쁜 것은 없다(사무엘하 23:5). 우리 구원자가 스스로를 노예 상태로 두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책무 아래 스스로를 두심은 그 언약 안에서 였다(요한 복음 10:16). “그분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그 다른 양떼 중 몇몇이 그곳에 있었고, 그분이 그의 우리로 데려와야 했던 자들이다. 한번 더, “그분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의 이유는…

## 신성한 취득.

주 예수께서 이 여인과 그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는데, 그들을 그분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실수가 없으실 것임을 도처에 있는 죄인들에게 말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는지.

주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했던 것은,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그분께 아버지께서 주셨던 자들이 있었고, 그분이 자원하여 모든 책임을 그들 대신 지셨으며, 그분 자신의 보혈로 사셨으며, 구원하셔야 했던 자들이 사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 중 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마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당

신은 수 년 동안 그분에게서 도망가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당신을 쫓아가 잡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정복하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소유하실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그분은 이미 오고 계시며 그분이 당신이 소유하실 것임을 말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 그분이 구원하셔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으며, 그들에게서 “안돼요”라는 대답을 받지 않으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때, 그분은 옛날의 삭개오에게 오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오실 것이다(누가복음 19:5, 9-10).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이사야 25:9).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축복된 매임이다. 그의 백성은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4:4 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를 본다.

## 22 장. 은혜로운 두 이야기—요한복음 4:4-7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곧 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 4:4-7)

나는 사역의 일과 영원에 매인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대하여 나의 완전한 불충분함을 지속적으로 깨닫는다. 혼들에게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얼마나 큰 지혜와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에게는 모두 다른 필요, 다른 배경, 다른 경험, 다른 환경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똑같은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은혜와 용서와 의와 구원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 왔었을 두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이롭고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 받은 두 사람이 있다. 이 두 큰 죄인들과 우리 위대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가장 놀라운 방법 안에 있는 계시의 이 두 장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1-3).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 4:4-7)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그 본문이 있는 곳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지 않으면 옳바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경께서 성경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감의 책 안에 우리가 받은 것의 순서를 계시하셨고 확정하셨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두 이야기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 모두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데 있어서 아무도 너무 높이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아무도 너무 낮게 내려갈 수도 없음을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은혜로운 두 이야기들의 마지막에, 우리는 요한 복음 4:42 에서 이 위대한 선포를 갖

는다. — “이는 실로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원자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계신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열방과 방언과 세상에서의 지위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의 구원자이다(사도행전 4:12). 모든 구원 받은 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 받았다. 우리는 은혜로(에베소서 2:1-10),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대속자의 행하심과 죽으심을 통하여(고린도후서 5:17-21),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계시로(고린도후서 4:3-6; 갈라디아서 1:15-16) 구원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별개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체험한다. 어떤 죄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다루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은혜 체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자.

## 큰 구별

첫째, 우리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큰 구별이 있음을 본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우리는 바로 인접한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하여 이런 사실을 본다. 일단 주께서 그녀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자, 그녀는 즉시 그녀의 물동이를 버리고 그 성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29 절). 많은 사람이 그녀의 말 때문에 믿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 장에서 주 예수의 장례에 왔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즉시 회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회심되었다. 주께서 그에게, — “네가 거듭나야 하겠

다.”고 하셨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한 공효로 거듭났다.

은혜로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두 죄인들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 구별되고 분별된다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비는 대부분의 평상적인 독자에게 분명하다.

-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인정 받고 중요한 세상 물정을 잘 아는 통치자이고, 이름과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 그녀는 이름 없고, 하찮은 무명인이었다.
- 니고데모는 교만한 유대인이었다. — 그녀는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었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그들 자신의 신들을 경배하였고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 경배를 혼합하였다.
- 니고데모는 부유하고, 잘 교육 받은 학자였다. — 그 여인은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
- 니고데모는 남자였다. — 사마리아인은 여자였다.
- 니고데모는 그의 높은 도덕성으로 알려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 그녀는 간통녀였다.
- 니고데모는 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밤에 구원자께 왔다. — 이 여인은 지킬 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피하여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왔다.
- 니고데모는 주 예수를 찾았다. — 주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

으러 사마리아에 오셨다.

-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심되었다.  
— 니고데모는 구원자의 입술에서 나온 복음을 처음 듣고 한동안이 지난 후 선한자로 회심 되었다.

사회적으로 서로에게서 더 다양하고 더 비슷하지 않거나 더 구별되는 두 사람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영광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 함께 자리하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 분리자들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무너진다(골로새서 3:10-11; 에베소서 2:12-22). 은혜가 죄인을 하나님께 화해시킨다. 그리고 은혜가 죄인들을 서로에게 화해시킨다.

## 큰 동일성

둘째, 비록 많은 것이 서로에게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분별하고 구별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커다란 동일성이 있었다.

내가 매번 복음을 전하러 서서 내 앞에 앉아 있는 죽지 않을 혼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서로 간에 천연적으로 우리를 구별하는 많은 점들을 본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동일성이 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그들 옆에 있고 그들 앞에 있고 그들 뒤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남자(혹 여자) 같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많은 점에서 실제로는 정확히 동일하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었

는가? 나는 이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있음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네 가지 점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네 가지 점들이 있다.

- **자기 의!** — 그들 모두 그들이 영적으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다. 물을 것 없이, 아무도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 그들의 혼은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의 양심은 편치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거짓 피난처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그들 자신을 자기 의 안에서 감추었다<sup>v</sup>. 둘 다 종교적 피난처를 가졌고, 그것이 피난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도망가기 전에 파괴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실이다(이사야 28:14-20).
- **영적 장님!** — 니도네모나 사마리아 여인 모두 최소한의 영적 이해나 분별력이 거의 없었다. 아무도 하늘 왕국을 볼 수 없었다(고린도전서 2:14).
- **반역자!** — 교만한 바리새인과 사마리아 간통녀 모두 타락한 반역자들이었다. 니고데모는 그가 이해하지도 반박하지도 못하는 것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 그는 그가 이해 할 수 없는 것을 조롱하였다(요한복음 3:4). 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하여 말하셨을 때, 그녀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행동하였다(요한복음 4:11-12). 사실인즉, 이 여인과 니고데모는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가 아직 없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반역자들이었다. 기록된 바와 같다. —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6).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로마서 3:12).

만약 당신이 타락하였다면, 그것은 당신이 다루기 힘들고, 고집세고, 무자비한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책말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엎드리기를 거절하였고, 그리고 당신 존재의 바로 그 핵심 안에서 하나님을 증오하기 때문일 것이다.

- **공허함!** —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모두,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것을 덮기 위하여 열심히 시도했지만, 그들 혼 안에 공허함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종교의 물병이나 그들의 성취나 그들의 욕망으로 채울 수도 없었다.

어거스틴은, “당신께서 당신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내 평생 거친 숨을 내쉬었으니  
맑은 샘에서 한 모금 들이킴이라.  
내 소망함은 불타는 것을 끄려는 것이니  
속에서 느끼는 갈증이라.

내 주변의 각지로 연명하니,  
나의 힘이 거의 소진될 때 까지라,

나의 혼이 좀더 나은 것을 갈망하였다면,  
끓주릴 때까지 뿐이라.

불쌍하였으니, 풍요로움만 찾았네,  
무언가 만족하게 해 줄 것을,  
허나 내 주위에 모은 것은 욕망들이니  
슬퍼 울부짖는 나의 혼을 속였을 뿐이네!”

### 위대한 구원자!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이신가! 이 큰 죄인들을 위하여 그분이 하셨던 것을 보여 주겠다. 주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그들 스스로에게 숨기고 있는 거짓의 피난처를 파괴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반역과 불신과 죄를 드러내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들이 알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반역의 지점을 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은혜로 그들을 정복하셨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시편 65:4)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니라”(시편 110:3)



## 23 장. 그리스도 구원의 우물—요한복음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4: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의 강과 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다(계시록 22:1). —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시편 46:4). —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운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시편 65:9).

주 예수는 “생명의 샘”이며 “이스라엘의 샘”이다(시편 36:9; 68:26). — 그분은,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의 우물로 우리 혼 안에서 샘 솟는 “생명수의 샘”이다(예레미야 17:13).

그리고 그분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죄와 부정함으로 인한 우리에게 “열린 샘”이다(스가랴 12:10). 성경 안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 축복된 구원자께서 “물”로 언급되고 있는가. 그분은 강물이며 샘물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6 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한 죄인을 만나고 계심을 본다. —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말씀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이 축복의 책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모든 율법은 의식 법 하에서의 모든 경배에 속한 방면과 모든 예언과,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사건과, 계시의 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영감에 속한 계획으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우리가 결코 성경을 가볍게 읽거나, 단순한 여가용으로 읽거나, 혹은 우리 일상의 규율을 만족하게 하려 읽지 말아야 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읽는 각 단락에서 영적 말씀을 언제나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영적 말씀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본문에 넣고 읽는 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본문의 영적 말씀을 추구하여야 하며, 각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임을 이해하는 것이다(누가복음 24:27, 44-47; 요한복음 5:39; 사도행전 10:43).

만약 영감의 책 전체가 우리 사랑하는 구속자의 위격과 역사를 계시하려 기록되어 있다면, A. W. Pink 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비록 하찮을 정도로 시시콜콜한 것처럼 보여도, 심오한 중요성이 있다.”라고 보았던 바처럼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께서 간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곳, 은혜가 그녀에게 부어졌던 그 장소, 그녀가 생수를 발견했던 그 장소, 그것이 그녀의 혼에서 “영생에 이르는 우물물이 샘 솟고 있던” 곳에 여러분이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

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다.”

## 장소의 중요성

그리스도와 이 가련한 죄인 사이에 발생하였던 그 모든 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우물에서 일어났다. 종종,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을 알고 그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때까지 그 사건들의 영적, 복음적 의미를 이해하의란 불가능하다. 내가 의미하는 것의 몇 가지 예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그들을 피와 능력으로 구원하실 때 이집트에 있었다. —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속해 있고, 사탄의 폭정과 율법의 공포 아래에 있는 어둠과 노예 상태의 세상을 상징한다.
- 침례자 요한은 유대의 광야에 전도하러 왔다. — 그 광야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의 공허와 불모와 황폐함을 적절하게 묘사한다.
-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시기 위하여 높은 장소인 산 위로 올라가셨다. — 그 산은 그분의 보좌의 높이와 그분의 가르침의 하늘에 속한 본성과 근원을 보여주었다.
- 그분이 그분의 왕국에 대한 우화를 주셨을 때, 그분은 해변가로 내려 가셨다. —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 세상을 대표한다 [1]. 따라서, 그분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인 모든 세상을 통틀어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한 것이었음을 가르치셨다.

-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에서 우리 구원자는 그분은 예루살렘 (축복과 평강의 장소, 하나님의 성)에서 여리고(저주의 장소)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인 가련한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던 분으로 묘사된다. — 그것은 사람의 타락에 대한 그림이다.
- 그분은 탕자의 우화 속에서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탕자는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도망갔으며, 그 자신을 비참한 가난과 심각한 고향으로 가게하였다.

더 많은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성경 안에서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의 의미를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한 필요성을 보여 주는데 충분할 것이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신성한 계시로 기록되었으며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주 예수는 야곱의 우물에 오셔서 그 지점이 간통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려한 그 장소로 택하심은, 그분 자신이 구원의 우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보도록 하자. 이사야 12:3 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를 본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물이며, 우리가 생명의 물을 길을 많은 구원의 우물들이 그분 안에 있다.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하나의 것에 한정 짓는 것은 큰 실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전능한 은혜로우 행사로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취하신다. 우리가 생명수를 길을 수 있는 많은 구원의 우물이 그분 안에 있다. — 그분의 신성의 우물(요한복음 1:1-3) — 그

분의 인성의 우물(요한복음 1:14) — 그분의 의의 우물(예레미야 23:6; 33:6) — 그분의 속량의 우물(로마서 5:1-11) — 그분의 부활의 우물(빌립보서 3:10) — 그분의 찬양의 우물(빌립보서 2:8-11) — 그분의 중보의 우물(요한일서 2:1-2) — 그분의 내주하심의 우물(골로새서 1:27) — 그분의 재림의 우물(데살로니가전서 4:13-18) — 그분의 임재의 우물(유다서 24-25).

구약 성경 안에는 그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우물들이 울 주 예수의 예표들이었다. 성경에서 지극히 중요한 장소들로 의미되는 일곱 개의 우물을 보도록 하겠다. 이 일곱 곳의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우물들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위대한 구원자,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물을 그분으로부터 길어야 할 우물이신 그분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보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하찮고 의미 없다.

- 만남의 우물(창세기 16:6-7, 13-14)

(창세기 16:6-7)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결,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창세기 16:13-14)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브엘라헤로이”는 “나를 살리고 보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물에 대한 첫번째 언급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가련한 추방자가 그 우물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님은 하갈을 보셨고, 그녀를 만났으며, 우물에서 그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다.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죄인들을 바라보실 수 있고 바라보실 유일한 장소는 그리스도이다. 우리 혼의 필요가 공급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그리스도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물을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곳을 “브엘(Beer)”(생명의 우물)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그 길 때문에 낙심하였을 때”(민수기 21:4), 그들은 그 우물로 돌아와서 거기에다 노래를 불렀다(민수기 21:14-18).

(민수기 21:14-18) “이러므로 여호와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 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봤고 백성의 구이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그들이 (우물 가에서가 아니라) 우물에서 노래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고 그 영에 의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되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신 우물들을 바라

보기를 가르침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요한복음 7:37-39).

- **계시의 우물(창세기 21:14-19)**

여기 다시 우리는 하갈을 본다. 이번에 그녀는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열조의 집에서 쫓겨났다.

(창세기 21:14-19)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이 우물은 하갈에게는 계시의 장소였다. 여기 가련하고, 추방된 죄인이 황폐한 광야에서 스러져가고 있다. 그녀는 주님 앞에서 의지할 데 없이 흐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흐느끼고 있다.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 하고, 의지할 바 없이, 그녀의 유일한 아이가 죽는 것을 바라보며 죽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았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가(잠언 20:12; 요한일

서 5:20). 우리가 구원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들에게 계시하신다(요한복음 1:18).

이 장에서 다른 우물을 보라.

- 언약의 우물(창세기 21:27-31)

(창세기 21:27-31)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이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마[맹세의 우물 - 약속의 우물]라 이름하였더라.”

열조들은 그들의 우물을 소중히 하였다. 그들은 우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그 우물들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치루었다. 그것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필요한 것의 좋은 묘사이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여기, 창세기 21:27-31 에서 우물에서 맹세함으로 인친 언약에 대하여 듣는다. 그것은 선을 위한 언약이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떠오르게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증이라는 은혜에 속한 더 낮고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떠오르게 한다(히브리서 7:20-22).

- 기도의 우물(창세기 24:10-12)

창세기 24 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를 찾는 것을 본다. 그가 그의 일로 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한 우물가에 멈췄다.

(창세기 24:10-12)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 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꿰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스도, 구원의 우물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닥아갈 그 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우물이며, 기도의 처소이다(히브리서 4:15-16).

- 안식의 우물(창세기 29:1-3)

(창세기 29:1-3)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이 우물은 광야가 아니라 들판에서 발견되었다. 여기 초록색 목초

에서 선한 목자가 우리 혼에 모든 것이 좋음을 확신시키면서 그 양떼를 앞히고 쉬고 그의 양떼에게 은혜의 우물에서 물을 먹인다. —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이사야 3:10).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색의 우물이다. 그분은 우리의 안색이다. 그분은 우리 만족의 우물이다. —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사무엘하 23:15).

(이사야 40:1-2)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찌니라.”

### ● 피난의 우물(출애굽기 2:15-17)

(출애굽기 2:15-17)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낮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버지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죄인들이 피난처로 숨을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 우리 피난처는 이 우물이 가리켰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사야 32:1-2)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드로의 딸들처럼 우리는 이 우물에만 와야 한다. 샅꾼 목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는 그 전도자들은 죄인들을 피난의 우물에서 거짓의 피난처로 쫓아낸다. 하지만, 이런 어둡고 어두운 날 가운데에서 조차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목말라 하는 혼들을 돕기 위하여 일어서서, 주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분의 종들을 소유하셨다.

### ● 야곱의 우물!

(요한복음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구원자이다. 야곱은 신성하게 택함 받은 죄인이었다(로마서 9:11-13). 그는 피로 산, 구속 받은 죄인이었고(시편 77:15; 이사야 43:1),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정복되고 구원 받은 죄인이었다(창세기 32:24). 야곱은 그리스도, 구원의 우물, 생명의 물을 마신 죄인이었다. 당신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가?

## 24 장. 행로에 곤하여—요한복음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4:6)

지쳐 있는가? 당신의 혼을 귀찮게 하는 시험과 유혹으로 피곤한가? 당신의 마음 속에서 격노하는 전쟁으로 지쳤는가? 수고와 고역으로 지쳐 있는가? 당신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으로 지쳐 있는가? 이 세상으로 지쳐 있는가? 여정으로 지쳐 있고, 피곤하고, 닳아 버리고, 두들겨 맞고, 소진 되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요한복음 4:6의 말씀이 당신에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우리 앞에 그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가! 여기 우리 위대한 구원자,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잃어버리 바 된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한분,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사셨던 그 한분이 있으며, “그분의 행로로 곤하셨다.” 우리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분을 바라 봄으로 격려를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분의 여정으로 지치셨고,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구원자가 그분의 행로의 수고와 무게로 피곤하고, 지치

고, 스러지고, 기진해졌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분명, 이 사실은 우리 구원자의 특성에서 어떤 약점을 드러내려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구속자의 생에서 이 사건은 우리 소중한 구원자께서 실재 사람이고, 우리의 결점들에 대한 느낌을 받은 인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다.

## 실제 사람

첫째,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참 인간이신지 본다. 사도 요한은, 다른 어떤 복음 기자보다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 주기 위한 대화로 그의 복음을 기록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 보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아들 하나님이며, 성삼위의 두 번째 위격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은 요한이다(요한복음 1:1-3; 요한일서 5:7).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짜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방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요한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참되고 절대적인 신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진짜 인성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다수가 우리 구원자의 인성의 실재를 붙잡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혼에 많은 유익을 잃었다.

우리 구속자이신 그분은 분명 한 영광스러운 위격 안에서 하나님 이시고 사람이시다. 한 완전한 인자 외에 아무도 우리 대속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공의를 만족할 수 없었다. 그 하나님-사람, 우리 대속자는 죽으

셨고, 불의한 자를 위한 의인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디모데전서 3:16)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한복음 1:14) — 우리는 성경의 그 문장들을 쉽게 따라 한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의 사람 되심의 실재와 충만을 아직 붙잡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우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신격을 붙잡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인성을 붙잡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나도 그렇다는 것을 안다.

내가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고, 지지자이며, 통치자이심을 읽을 때, “아멘, 나의 구원자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과 그분의 혼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과 인자로 지치셨다는 것을 읽을 때, 나의 첫째 경향은 그분의 유혹과 고난과 지치심의 실재를 설명해버리려고 노력하려는 나의 수치를 고백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려 갈망하는 그분을 모욕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모든 점이 그분의 신성만큼 우리 구원에 필요하며, 모든 점이 위로가 된다.

우리 구원자가 그분의 행로에 지친 인자로서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그분의 백성에게 위로를 사역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죄인들을 격려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 구원자의 신성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정도에서든 인자로 고난 받는 것에 대한 그분의 수용능력을 감쇠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떡과 물고기를 불어나게 하셨으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분이 왜 그분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좋은 질문이다.

그분이 40 일 간의 금식 후에 허기지셨고, 사탄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도록 그분을 유혹하였을 때, 그분은 분명 매우 쉽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물을 필요 없이, 그분이 단지 뜻하기만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분이 지친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은 땅에서 솟구쳐 올라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 의해서 조차도) 공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속량으로 사역하고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증으로 그분 자신의 속박의 처지에 계시며, 우리 대속물로서 죄를 없애셨을 것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든 결과를 견디실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었다. —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분이 육신이 되신 그 순간부터, 타락의 저주가 생명과 영광의 주 위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비록 그분은 죄를 알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셨고, 온전히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순결하며, 죄인들과 구별되셨지만,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죄의 결과로 인한 타락한 인성의 모든 악함과 결점들을 체험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 노출된 모든 고난들을 체험하셨다. 우리 구속자는 세상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도록 한 모든 가시와 영경귀로 찢리셨다. 그분은 마침내 그분의 아버지께

서 시편 22:15 에서 그렇게 되셔야 한다고 하신 것과 똑같이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굴욕적인 죽음으로 옮기셨다. 이것들은 구속자께서 그가 육신 안에 계실 때, 죄를 알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로인하여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행하신 상황이었다.

우리 구원자의 전체 생애는 지침과 비탄과 고뇌의 삶이었다. 그분은 인성의 모든 일반적인 비통함에 노출되었다. 그분은 비애와 모든 비통과 모든 고통 이 세상 가운데 알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아셨다. 인자 그리스도 예수는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모든 신음을 그분 자신 속에서 느끼셨다. 선지자가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셨다.”(이사야 53:4; 마태복음 8:17).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우리 구원자, “그의 여정으로 곤하여 우물 위에 앉으셨던” 분에 대하여 듣는다.

이 곤함은 진짜 지친 것이다. “지쳐서(곤하여; wearied)”라는 말은 우리 구원자가 피곤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곤하여라는 것은 “피곤한(tired)”것 보다 훨씬 더 강한 말이다. “지쳐서(wearied)”라는 이 말은 피곤하고, 아프고, 참을 수 없고, 기진하고, 쓰러지고, 힘들다는 의미다. 우리 구원자는 “지쳤다!” 그분은 피로와 그분의 여정으로 지쳤다. 그분은 사람들의 혼에 대한 염려로 지치게셨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의 부담으로, 그분이 육신에 계시는 날들을 통하여 지고 가셨던 짐으로, 곧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가 되셔야만 했던 그 사실로 지치셨다. 이 곤함은 어느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실질적이다.

하지만, 것은 자원한 지침이다. 이것은 그분이 오셔서 없애려 하신 저주의 한 부분이었다. 반복하겠는데, 아담의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 “주여! 아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내가 왔나다.”(이사야 53:4; 마태복음 8:17; 히브리서 2:10, 17-18; 4:15-16; 7:24-26) 라고 말씀하시며 모태로부터 나온 그순간 부터 인자이신 그분에게 엄습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는, 곤함이 엄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를 올려다 본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본보기이다. 비록 누구보다 더 지쳤지만, 그분의 곤함이 그분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곤함은 그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곤함은 그분이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곤함은 그분이 불쌍하게 영원히 매인 죄인의 필요를 섬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

여호와와 종으로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여정으로 지치셨는가? 그분은 정말 지치셨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셨다. 따라서 여정 가운데 자주 지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보이도록 하자. 그분께서 그분의 여정으로 지치셨는가? 그분은 정말 지치셨다. 따라서 나의 여정으로 결코 불평하지 말자. 그분의 머리를 설 곳이 없을 만큼 그분이 여정으로 지치셨는가? 그분은 정말 지치셨다. 따라서 만약 내가 머림 받은 자로 나를 취급한다는 것을 안다면, 불평하지 말자. 그분의 여정으로 지치셨는지, 비록 부유하나, 하지만 가난한 척하고, 생명과 영광의 주인아, 하지만 “비통한 사람, 비통함을 아시며,” 그분 스스로 굶주림과, 갈증과 지침과 고통에 처하게 하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농락을 당하시고, 경멸당하시도록 하시고, 그렇

다, “벌레 같고, 사람도 아니며, 사람의 질책과 사람들의 버림받은 자”로 인하여 지치셨는가? 그분은 정말 지치셨다. 하나님이 영이여, 사람의 모든 시험의 상황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가, 이 세상 가운데 제가 지명하신 여정의 지칠 때마다 나의 복된 주 “그분의 여정으로 곤하여 우물 위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 죄로 지친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것이었음을 의심치 않는다. 그것은 우리 구원자의 인선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그것은 따르기 위한 하나의 본 이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주어졌다. 이것들 처럼 위대한 것이 더 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불신으로 지쳐계시다.

우리는 죄에 무관심 할 지 모른다. 불신은 우리에게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죄와 불신은 하나님께 사소하거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본문은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통한 그분의 여정, “그분의 여정으로 지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림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죄로 지치셨다(이사야 43:24).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신다. —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흠족케 아니하고, 네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분은 말씀하신다. —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흠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아모스 2:13).

영광의 주는 또한 인간의 종교로 완전히 지치셨다(이사야 1:10-15). 종교적 형식과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는 거룩한 주 하나님께는 간음과 간통과 동성애처럼 구역질나게 한다. 사실상, 그것들은 그 분이 이사야서의 첫 번째 장에서 모든 그리스도 없음과 믿음 없음과 종교적 행위들과 비교하신 바로 그것들이다(이사야 1:10-15; 57:11; 시편 78:36).

반역과 불신 속에서 고집을 피우고, 복음에 거슬러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빛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닫아버린 미친듯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들의 행로에서 하나님을 밀쳐버린 죄인들이 성령을 거절함으로써 그분을 지치게 한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할 수 없는 것임을 완전히 깨닫고 있다(시편 65:4; 110:3).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아무도 결코 구원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책임지도록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분의 영에 저항하는 것에 책임지도록 붙잡으신다. —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도행전 7:51; 창세기 6:3).

아마도 당신은, “만약 은혜가 거절할 수 없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며, 사람의 의지나 결정이나 선택이 그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거절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라. 사람의 의지, 사람의 선택, 사람의 결정은 구원과는 결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저주와 모든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주를 화나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를 듣지만 거부한 자들은 그분의 진노를 일으킨다. 불신으로, 그들에게 전하졌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섞이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던 것처럼,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불신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는 한, 사람을 중국에 지옥으로 데려 갈 것은 사람의 의지이다(잠언 29:1; 1:23-3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잠언 29:1).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찌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찌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피에 배부르리라.”(잠언 1:23-31)

## 지친 죄인

이 지쳐버린 구원자는 이 특정한 장소에, 이 특정 시간에, 한 지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은 이 동일한 그리스도, 지쳐버린 구원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롭고 부드러운 말씀 안에 있는 그분에게 죄인들을 부르신 분이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거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하지만, 어떤 죄인도 결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을 그분 자신께 그분의 선택된 자로 데려오시기 위하여 만나러 오실 그 장소에 가셔야만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자신의 죄로 그분을 지치게 만들었던 한 지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이 여인이 그녀의 죄로 영적으로 지쳐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녀는 지쳐있었다. 아무도 그 여인이 살았던 그런 삶처럼 곧 속으로 지치게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없다.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 밖에 있는 그 작은 지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그린 그림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욕시쯤 되었더라.”(7절).

이 장면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야곱의 우물 위에 앉으신 것을 볼 때, 나는 은혜롭게 됨을 기다리는 영광의 주를 본다(이사야 30:18). 그에 대한 예언이 선포한다. —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이사야 30:18). 그분이 보이지 않는가? 그곳에서 그분은 죄인, 특정한 죄인을 기다리며,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복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나는 여기서 기꺼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누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흔쾌한 마음을 의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가 거슬러서 어려서부터 죄를 지어왔고 우리가 내뿜는 매 호흡마다 거슬러서 죄를 짓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긍휼 가운데 기뻐하신다.”고 말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분은 기꺼이 수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편에 지쳐 앉아 계시지만,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다. 그는 그녀를 구원하시려 거기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녀를 구원하셨다. 그렇다, 그분은 지치셨다. 하지만, 그가 위하여 오셨던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그분의 곤함은 사라지는 듯 하였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의 그 출현으로 그분은 활기 있게 되셨다.

## 만족한 구속자

한 가지 더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 그날 사마리아에서 우리의 지친 구원자를 새롭게 하고 생기를 주었고, 그분의 혼의 고뇌를 이제 만족하게 하는 것은 죄인들의 구원이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

왔을 때, 주 예수는 여전히 우물가에 앉아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더이상 목마르지 않다. 그분은 전혀 지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그분은 기운을 얻고 활력을 찾았으며 완전히 만족하셨던 것처럼 보인다(요한복음 4:26-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요한복음 4:26-32).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마실 것을 달라.” 그리고 그녀는 드렸다. 그녀는 그녀의 물동이를 우물 속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분이 구하시던 물을 그분께 드렸다. 주 예수께서 스스로를 그녀에게 알려주시자 마자, 그녀는 그분을 믿었다. 그녀가 그분이 얻고자 오셨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만족되셨다. 기록되기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이사야 53:11).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자시다!”

## 25 장. 만일 네가 알았더라면…—요한복음 4:1-10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 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1-10).

우리 주 예수는 이 불쌍한 사마리아 간통녀에게 그분이 한 젊은 부자 치리자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젊은 부자 치리자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 한 가지가 부족하였다. 단지 한 가지 것이 그녀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택정 함의 사랑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녀를 택하셨다. 그녀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길을 잃었다. 그녀는 여전히 반역자였다. 그녀는 여전히 불신자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시고, 그녀의 대속자로서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그녀의 죄를 없애시려 세상에 오셨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녀는 그녀의 성경 역사를 알았다. 그녀는 그녀의 종교 교리를 알았다. 그녀는 그녀의 교회가 믿었던 것을 알았고 그녀의 교파를 격렬하게 방어하였다. 그녀는 메시야가 오실 것과 구원이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리스도만 인간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되었고, 한 가지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되었다. 어떤 한 가지가 빠졌는가?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짐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10 절).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게 하는 한 가지, 죄인들을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게 하는 한 가지 사항은 바로 이것이다. —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알았다면,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했다면,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였을 것이다. 당신을 불신 속에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무지이다. 우리 주께서 직접 말씀하

시지 않았는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요한 복음 8:19; 14:7). 그분은, “너도 알았다면”(누가복음 19:42)이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두고 흐느끼셨다. 사실상,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세상 통치자들이 그분이 누구였는지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한다(고린도전서 2:8).

사람을 여전히 불신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 간통녀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적 무지와 혼의 눈이 가림이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 그녀에게 비추고 의의 태양이 그녀 속에서 떠오를 때, 그녀가 보고 믿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정복할 수 없는 은혜의 전능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의 빛이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그들에게 주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임이 나의 기도이다.

## 구원의 지식

첫째, 주 예수는 구원의 지식에 대하여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쭈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다면,...”이라고 말씀하셨다. 교리적 지식은 구원이 아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라. — 교리적 지식은 구원이 아니다. 은혜는 배우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의는 학습의 보상이 아니다. 구원은 연구의 후계자가 아니다. 당신이 모든 옳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모두 놓칠 수 있다.

구원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이다.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당신이 무엇을 알든지, 혹은 모르든지 정말 무관하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복음을 알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식은 산소가 숨쉬는데 필요한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게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이다.

우리 주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약 그녀가 알았다면, 그녀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녀는 구원 받을 것이고 믿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당신이 본문 중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줄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요한복음 4:10).

복음의 지식은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 받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두고 떠들게 하라. 그것은 단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아르미니안들과 의지 숭배자들과 행위 떠벌이들이 구원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만큼 물몬들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멸하는 자들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 쓸모 없는 쓰레기로 그들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 은혜의 영을 멸시하는 자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모른다. 복음 지식은 구원

의 믿음에 필수적이다. 모르는 구원자를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로마서 10:13-17). 그들이 만약 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를 부르고 경배하기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전도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서 누구도 그리스도를 전하기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정확히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10:13-17 에서 선포하신 것이다.

## 두 가지 필수적인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빛 가운데 걷고 있다. 구원의 지식이 없이 구원의 믿음은 없다. 이 구원의 지식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실로, 이야기 되어야 할 많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은 특정하게 두 가지 것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만약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했을 두 가지 것들은 아무도 천연적으로 알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알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없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알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이라고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며(로마서 6:23),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요(에베소서 2:8-9), 그분의 귀한

아들의 형언할 수 없는 선물(고린도후서 9:15)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고, 순수하고 대가 없고 받기에 합당치 않은 주권적인 은혜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 Simon Magus 처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종류의 인간의 공로로 살 수 있다고 헛되게 상상한다(사도행전 8:20).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한다. — 어떤 선물이 아니라 은사이다! — 제공이 아니라 은사이다! — 제의가 아니라 은사이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아는 지식을 포함하며, 그 은사가 오는 분에 대하여 아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은 없다.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지 않는 자는 아무도 구원 받지 않는다.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요한복음 17:3)

우리 주 예수께서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에게 질문 하실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구원자께서 그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의 눈이 열려 그분을 보게 되었고, 그의 귀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즉시 표현하는 영적 의미 안에서 모두 사실이 되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고,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와 증명으로,

그는 “그분께 절하였다.”(요한복음 35-38).

우리 구원자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전에, 그분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런 그분에 대한 우리의 필요가 분명히 있다. John Gill 이 그것을 기록하였다…

“사람은 그의 본성의 부도덕과, 죄의 넘치는 사악함과, 그것에 합당한 결점과, 사람을 그 속으로 몰아넣었고 거기로부터 그리스도 구원자 외에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는 끔찍한 상태와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공물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사도들이 비통함 가운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마태복음 8:25)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부른다. 그러나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될 때까지, 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과 자신의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음과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볼 때까지 아무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결코 부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죄인도 그가 전에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만의 은혜로, 그리스도 만의 피와 의를 통하여, 그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결코 엎어지지 않을 것이다.

죄인들의 대속자와 보증과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충만과 능력을 알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알기 전에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 그분이 우리 혼의 필요에 합당한 구원자이

심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이 갈보리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성취하셨던 구속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도록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 구속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확신할 때까지는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 만을 신뢰할 수 없다.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그분께서 우리 죄를 없애 버리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가 확신받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용서에 대한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구원의 능력을 갖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의로운 오른편에 계신 그분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구원자로서 신뢰할 수 없다. 어떤 죄인도 그분 안에 모든 구원이 있음을 보기 전까지 그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 만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고린도전서 1:30).

구원의 지식이 없이 구원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지식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로서, 그리고 동일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을 알았고 믿었노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확고하게 확신받는다(요한일서 4:16). 하나님의 성들 가운데 믿음의 가장 강한 행동은 때때로 지식의 말씀으로 표현된다. —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 계심을 아노니…나는 내가 믿었던 그분을 아노라.”(욥기 19:25; 디모데후서 1:12).

## 신성한 계시

이 지식은 오직 신성한 계시에 의해서만 죄인들에게 온다. 구원의 지식은 관념이나, 발상이나, 심지어 사실 이상의 어떤 것이다. 그

것은 개인적이며 체험적인 사랑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 학문적 지식도 아니고, 간접적인 지식도 아니며,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다. — “내가 믿은 분을 나는 아노라!” 그것은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새로 태어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고 태어나는 지식이다(로마서 1:16-17; 에베소서 1:13-14; 베드로전서 1:23-25).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다(고린도후서 5:16).

### 믿음의 요구

다음,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떤 요구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4:10 을 다시 보라.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쯤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따르는 것이 확실한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사에 관한 지식은 믿음, 어떤 요구 가운데 표현된 믿음이다.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기만 했다면, 나의 구원자를 알기만 했다면, 당신은 그분에 대하여 물었을 것이다. 당신은 세리처럼 그분께 소리쳤을 것이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문둥병자처럼 기도하였을 것이다. “당신이 뜻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매오처럼 기도하였을 것이다. “그로써 내가 나의 시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그분께 간청하였을 것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 그리스도의 약속

이제,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간청하는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보자. —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 “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생명수를 주실 것이다!

주께서 여기에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생명수”라고 하신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물은 생명에 절대로 필수적이다. 물은 보편적인 필요에 부합한다. 물은 하늘로부터 온다. 물은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 물은 대가가 없다. 그리고 물은 누구도 결코 가진 것을 잃증내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며 그분이 주신 구원은 우리 혼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이다.

### 그리스도의 두 관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롭고 효험 있게 그녀에게 그분 자신을 따르게 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그분이 갖고 있던 두 가지 달콤하고 소중한 교훈적인 관점이 있다. 우리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분의 특징적인 이 두 가지 관점 안에서 우리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하자. (1.)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어떠한 심과, (2.)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이유와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증명서 모두를 준다. 이 두 가지 커다란 것들에 대한 무지는 죄의식으로 고난당한 그 가련한 혼 가운데 있는 많은 비참함의 원인이며, 믿는 죄인들 가운데 많은 불안감의 원인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무지, 은혜에 속한 달콤한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과 그분과의 연합을 누리는 것을 크게 방해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줄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증거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

주 예수께서 누구이며 그분 자신 가운데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그분의 위대한 인격과 하나님-사람, 우리 구원자로 그분의 중재자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어떠하심의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이 성취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사람으로서 얻으셨던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은 그분의 택하신자의 보증인으로서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겨진 모든 충만의 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분의 일의 덕과 공로와 능력이나 하나님-사람으로서 존재 중 아무것도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없고 우리를 위한 것 뿐이다. 그분은 그것이 필요하지도 필요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필요하다.

Robert Hawker 가 기록한 것처럼, “따라서, 가련한 죄인이 예수께는 그분의 충만을 주시는 것이 합당한 만큼, 예수께서 가련한 죄

인에게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합당하다.”

만약 따라서 그분을 알고 그분께 나온다면, 우리는 그분이 모든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을 받고 그분의 충만을 주는 것을 갈망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은 나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의 모든 중보의 일과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임을 선포하신다. 여기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믿으라고 명령 하셨다(요한일서 3:23). 그것은 믿음의 증거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위한 죄인의 권리이고 권한이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그렇게 그분을 사용하라. 당신의 가련한 혼의 모든 필요를 위하여 그분을 사용하라.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성례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만 은혜를 받는다. 그분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이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귀한 아들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하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 혼의 갈증은 가뭄이나 우기에 좌우되는 어떤 물 웅덩이로 해소될 수 없으나, 생수를 주신 분이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샘 솟는 우리 혼 안에 있는 영원한 생수의 샘이신 그분 자신이다.

죄인들이 구원 받는 것을 막는 한 가지 사항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무지라면, 우리 삶의 일을 그분을 알게하는 것으로 만들자. 가서, 이웃들과 가족과 친구들과 당신의 대적들에게 만약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당신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것을 도처에 말하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 26 장. “어디서 생수를 얻겠삽나이까?”—요한복음 4:10-

### 1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요한복음 4:10-11)

얼마나 축복된 선물인가 — “생명수!” 얼마나 놀라운 제공자인가 —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기쁜 말인가 —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은 하나님의 책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그분 자신 안에 갖고 계심과, 그분이 그것을 죄인을 위하여 대가 없이 주기 위하여 갖고 계시고, 그것을 그분께 구하는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기 위하여 여기에 계시받아 기록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교훈, 성경의 전갈이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만약 당신이 그분께 이 생명수를 당신에게 주실 것을 구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채우실 것이며 당신 안에 그분의 영, “영생 안으로 솟아나는 물의 우물”을 두실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사람들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도록 계획되는 것이 두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으

로부터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영원히 속박된 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웅변적 기술로 감동을 주는데 관심이 없으셨다. 그분의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불멸의 혼을 확신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분은 그분의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분명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가련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이신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 “어디서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주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녀는 그분에 대하여 구하였을 것이며, 그분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의 완전한 의미를 알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그분이 야곱의 우물에서 얻었던 물과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음을 이해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깨닫는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하는 원천인 물이 샘솟는 우물로부터 생명으로 넘쳐나는 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따라서, 그녀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하였다. — 그녀는, “어디서 생수를 얻겠삽나이까?”라고 말했다.

## 생명수와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에서 성령에 의한 그분의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묘사하는 “생명수”라는 말을 사용하신다. —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주 서술되는 길이다(이사야 12:3; 스가랴 13:1; 요한복음 7:37-38; 계시록 21:6;

22:17). 여기 우리 주께서 “생명수”라는 말을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선물을 묘사한다. 그분의 구원을 “생명수”에 비교하는 것은 매우 함축성이 있다. 그분의 구원을 “생명수”에 비교하는 것은 매우 암시적이다. “물”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합당한 말이다.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창조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물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이다(로마서 6:23; 에베소서 2:8).

물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사치스러운 것에 선택이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다. 물은 생명에 필수불가결 하다. 아무도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물이 없으면 죽는다. 다시 말해서, 대비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

물은 보편적인 필요를 채운다. 물은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이다. 아담의 모든 아들딸들은 이 동등한 입장 위에 서 있다. 얼마나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얼마나 배웠는지 문맹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물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물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물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그 필요를 채운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가 가는 자는 모두 길을 잃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두 구원 받았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모두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자는 생명이 있다.

물은 하늘로부터 내려 온다. 그것은 땅에 속하였거나 땅의 것이 아

나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하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사실이다. —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구원은 물이 구원처럼 많은 유익을 가진 선물이기 때문에 “물”이란 단어로 잘 묘사된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 준다. 물은 열이 난 이마를 식힌다. 물은 갈증을 해소한다. 물은 지친 자를 상쾌하게 한다. 그리고 물은 사람의 혼을 만족시킨다.

물은 우리가 절대로 싫증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인간 타락이 있는 도시의 물에 싫증이 날지도 모른다. 당신은 활력이 없고 침체된 신자유주의, 즉 플라스틱 물병의 물에 싫증이 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물 한잔 마시기 위해 멈추지 않고 뜨거운 여름 날 언덕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웅달샘 옆을 걸어가는 누구도 거부한다. 선택 받은 죄인들은 결코 택정함의 사랑을 싫증내지 않는다. 구속 받은 죄인들은 결코 피의 속량을 싫증내지 않는다. 용서 받은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싫증내지 않는다. 구원 받은 죄인들은 결코 구원의 은혜에 싫증나지 않는다.

물은 주권적으로 분배된다. 어떤 곳에서는 풍성하다. 다른 곳에서는 모자라다. 어떤 곳에서는 계절에 따라 온다. 다른 곳에서는 모든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내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구원도 그와 마찬가지로이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늘의 이슬을 보내주신다. 어떤 곳에서는 하늘의 창문을 열어 은혜를 매일 내리신다! 어떤 곳에서는 구름만큼 많이 보내시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이 물, 이 “생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만 죄인들에게 온다. 만약 이 물을 가진다면, 그분으로부터 그 물을 얻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단 두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다.

**1 은혜, 구원,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무한한 풍성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요한복음 1:16-17; 골로새서 1:19; 2:9-10; 고린도전서 1:30-31). 구원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은혜는 종교적 “성례”들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 의식이나, 지금의 배교와 은사 시대의 도덕적 개혁이나, 감성적 결정이나, 종교적 인기주의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취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갖는다. 그리스도를 잃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는다(요한복음 1:16-17; 골로새서 1:19; 2:9-10; 고린도전서 1:30-31).

거룩함의 모양은 당신에게 아무런 좋은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가 없이 종교적 체험은 저주하는 체험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2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기꺼이 넘쳐나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겠다. 나는 신중히 반복하겠다. 이 것을 보도록 이 행들을 모두가 읽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선물이다. 구원은 희생으로 살 수 없다.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다. 구원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 구원은 당신의 친척들로부터 상속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지라!”

## 질문

이제 이 여인이 물었던 질문을 보자. 어떻게 그리스도만 이 선물을 갖고 있는가? — “어디서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어떻게 그리스도만 궁핍한 죄인들에게 주실 은혜와 구원과 영생이 그분 자신 안에만 있고, 다른 누구나 어떤 것에도 있지 않은가?

구원이 삼일 하나님의 역사임은 사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셨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이 생명수를 주시지도 않을 것이며 주실 수도 없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지도 주실 수도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만 이 생수를 가련하고 궁핍하고 목마른 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인가? — “어디서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그분이 구원을 소유하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 내려오실 수 없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오를 수 없다. 만약 두 분이 함께 오신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중보자와 중재자가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중재자, 그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다(사도행전 4:12; 디모테전서 2:5).

성경의 저자들이 거의 대부분 항상, 대부분의 경외와 경배의 항목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얼마나 주의깊었는지 알고 있었나? 단지 그분의 세상적인 이름, “예수”를 사용해서만 그분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분이 종종 그분의 직책인 “그리스도”로 불리고 “주”라는 표현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어떠한 심이 그분에 의한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부분 불리어진다(갈라시아 6:14; 고린도전서 16:22).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 안에 모든 구원을 소유하셨다. “주” 말고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 “의인의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 구원은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그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든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마태복음 1:21).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한 구원을 그분 안에 갖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기름부음 받은 자이다.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요르단 강에서 그분이 잠기신 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을만큼 그분께 그 영을 주셨다. 이것이 그분이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공표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다(누가복음 4:16-21).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줄 구원과 은혜와 영생의 이 “생수”를 소유하고 계시다.

그분은 또한 이 “생명수”를 신성한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곳에 오셔서 은혜의 모든 축복들을 빈곤한 죄인들 위에 부어주시려 오셨으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로마서 3:24-26; 베드로전서 1:18-20).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얻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 안에 이 “생명수”를 갖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 중보자, 대표자, 보증인, 그리고 대속자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자신의 피로 사셨다. 이것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의 성취의 결과 때문에 그에게 약속하셨고 주셨던 보상이다(요한복음 17:2; 19:30; 히브리서 9:12; 이사야 53:10-12).

저쪽 넘어를 보라, 하나님의 보좌 위 그곳에 2 천 년 전 이상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이 앉아계시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오르셨으며 사람들, 또한 반역자들을 위한 선물을 받으셨으며, 그로써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셨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어떠한 심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셨던 것 때문에 우리 가련한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 안에 이 “생명수”를 갖고 계시다. 죄인들의 대변자와 대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그분의 중재 때문에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을 위한 은혜와 구원과 영생, “생명수”를 갖고 계시다(히브리서 7:25-27; 요한일서 2:1-2).

## 구하고 받으라

이 생명수는 구하면 당신의 것이다! —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그것은 우리 주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10 절).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은혜도 구원도 영생도 평강도 관용도 속량도 용서도 의도 갖고 계시지 않다. 그분은 이것들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그분은 모든 충만 안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는 생명수, 목마른 죄인들을 위한 구원과 은혜의 생명수를 갖고 계시다. 마르지 않는 충만 가운데 이 생명수를 갖고 계시다. 그분께 그것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다 — 당신의 물병조차도! 오라, 아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아, 오라 — 오라, 아 나의 혼이여, 오라 — 오라, 아 나의 형제여 — 올라, 아 나의 자매여, 샘으로 와서 마시라! —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17).

## 27 장.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혹은 드러난 죄—요한 복음 4:15-18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요한복음 4:15-18)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라도 했다면, 그분은 그분의 공훈의 대상이 그분의 진짜 모습으로 그분 자신을 보게 하실 것이며, 그분의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가 보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지 않고 구원 받은 사람은 없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언제나 함께 한다. 당신의 부패와 혼란과 정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지 않고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추리력으로 도달한 결론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사실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우리 앞에 제시된 하나님 책 안의 모든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의 죄를 자복하며 그분 앞에 엎어졌고, 부서졌고, 회개하였다.

- 욥 (욥기 42:16)

- 모세 (출애굽기 3:11; 19:16; 히브리서 12:21)
- 다윗 (사무엘하 7:18).
- 이사야 (이사야 6:1-6)
- 다니엘 (다니엘 10:8)
- 베드로 (누가복음 5:8)
- 다소의 사울 (사도행전 9:1-9)

아무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보고 그분이 실재로 누구시며 어떤 분이  
인지 보기 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의 먼지 속에 주권  
적인 은혜로 엮드려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인 죄인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심판받도록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결  
코 구원 받지 않을 것이다. James Bioce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  
다...

“기독교는 인간 자신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진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을 확신시키며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그들을  
위하여 성취하신 것을 이해하도록 그들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  
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될 유일한 곳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모세에게 그  
분 자신을 계시하셨던 곳인 “바위의 쪼개진 틈”에서 이다(고린도  
후서 4:4-6).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  
다면,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정

죄가 영원히 매인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곳이다(요한복음 16:8-11). 가련한 죄인이 그 죄를 고백하자마자, 그는 그리스도를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서 죄의 용서을 받는다(요한일서 1:9).

이 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 한 죄인을 은혜롭게 데려오시는 주 예수, 위대한 혼의 승자를 본다. 선한 목자는 여기서 그분의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하나를 찾고 계시며, 그 양을 그분 자신께로 데려 오실 때까지 안식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 언제나 극적이 아니다

첫째, 15 절에서 그 회심이 언제나 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배운다. 구속은 극적이다. 거듭남은 극적이다. 그러나 회심은 보통 하나의 과정이다. 회심은 하나의 과정인 은혜의 체험이다. —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15 절).

그 장면을 거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주 예수께서 이 닳고닳은 늙은 여자에게 영생과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그

러나 그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약간 자만심이 강하고, 빈정거리며 무례하였다. 그녀는 종교에 대한 또 다른 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녀는 거의 관심할 수 없었다. 물동을 우물 속에 던져넣고, 한 손으로 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그녀는, “그 물을 주시면 제가 다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우리 생각과 그녀와 같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된다. 육적인 생각은 언제나 육적인 것들로 점령된다. 천연적인 사람은 그의 타락된 본성의 제한된 관념으로 모든 것을 본다. 그 사람은 육정의 제한되고 묶인 영역 안에서 산다. 따라서, 그가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한정된다. 그 스스로에 남겨져서, 그 곳에 살 것이며 그 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 가련한 여인을 보라. 세상의 구원자께서 그녀 앞에서 계셨지만, 그녀는 그분을 몰라 봤다. 세상의 빛이 그녀 앞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분을 볼 수 없었다. 의의 태양이 그녀의 얼굴에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분으로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배부분의 사람들처럼 의문으로 가득하였다. 구원자는 물한 잔을 그녀에게 요청하였고, 그녀는 — “어떻게?”라고 말했다. 그분은 그녀에게 물을 원했고, 그녀는 — “어디서?”라고 말했다. 그분은 그녀에게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녀는 비웃음으로 답하였다 —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시종일관, 주 예수께서는 은혜를 위하여 그녀를 예비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권능의 날에 그녀가 기꺼이 행하도록 만드는 과정에 계셨다. 우리 주께서 이 여인을 다루셨고 피의 문제로 동일하게 그 여인을 다루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시거나 동일한 과정을 우리 모두를 이끄시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즉각적으로 회심하지 않았다고 그가 결코 회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체험하였을 동일한 느낌들이나, 마귀의 고난들이나, 기쁨의 황홀감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추측하여서는 안 된다.

갑자기 주께서 완전히 기대치 않았던 어떤 것을 행하셨다. 그분이 이 죄인을 손가락으로 정곡을 찌르셨다. 그분은 그 여자가 대화하기 관심 없는 문제를 들추어내셨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오셨던 그것을 말씀하려 지금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시간을 만들며 서성이고 계셨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과 양심 안으로 바로 찌르신다. 16 절을 보라. —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즉시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17 절). 그 여인은 바로 거기서 대화를 끝내기를 원했다. (적어도, 그녀는 끝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갈고리에 그녀를 걸었다. 그분은 그녀를 가게하려 하지 않으셨다.

### 선주자의 판결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

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 여기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두번째로 죄의 판결은 변화의 선주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대화가 불친절하고, 전도자들이 사람들을 끔찍할 정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상상한다. 오늘날 전도는 의도적으로 책임회피를 한다. 만약 마귀를 상대해야 한다면, 전도자가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지 아무도 느끼지 못할 그런 일반적이고 애매모호한 말로 상대한다.

주 예수는 여기서 한 번에 그 여자의 가장 깊은 죄를 드러내고 그 분이 알았던 것을 그 여자가 알게하면서 이 여인의 얼굴의 뺨을 때렸다. 얼굴 뺨을 그렇게 치는 것은 그 분이 그녀를 위하여 할 수 있었던 가장 달콤하고 관대하며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허식은 쓸모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주제를 바꾸려 시도하였다(20, 25 절). 그러나 갈고리에 걸렸다.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녀는 정말 몰랐지만, 그녀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그녀에게 말씀하고 있던 이 분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분이 그녀가 전에 했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그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왜 주 예수께서 이것을 그녀에게 들이대셨을까? 분명히, 사람들을 다루기 위하여 이보다 더 낮고, 쉬우며,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없었다. 수술이나 약, 고통과 불편 없이 당신의 암을 치료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는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당신의 적이지, 아군이 아니다. 그리고 “약간, 흐느끼는 평

안, 평안, 평안이 없을 때” 당신의 혼의 상처를 치료할 것 같은 것처럼 인간의 혼의 그런 구원자들은 백정들이며, 혼에 속한 자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실인즉,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다. 당신이 길을 잃을 때까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2:17). 구원은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당연히 그렇다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탈출하여 피난처인 그리스도께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지옥에 갈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 당신은 결코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정죄함 없이 회심은 없다. 죄의 고백 없이 죄의 용서는 없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당신에게서 쥐어 짜내기 전까지 당신에게서 죄의 고백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모든 선택 밖은 죄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다. 탕자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그리스도께 올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선포한다. — 사람의 타락의 총체와 우리 마음과 본성의 완전한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우 분명하고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그것은 간단히 부인될 수 없다. 죄는 우리 모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행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것이다 (창세기 6:5; 시편 14:1; 143:2; 로마서 3:10-23; 요한일서 1:8-10). 솔로몬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전도서 7:20)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자들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물질주의자들이다 (로마서 1:18-32). 어떤 사람들은 도덕주의자들이고, 철학적 윤리주의자들이다 (로마서 2:1-16).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주의자들이다 (로마서 3:10-23).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무도 선하지 않든지, 아니면 선한 것이 무서인지 조차 모른다.

모든 사람이 양심은 그 자신이 죄로 인하여 자신을 정죄한다. 그것에 따라 사는 척하고, 당신의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규정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은 부응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십계명에 따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십계명의 하나라도 우리가 언제나 전혀 어기지 않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산상수훈에 따라 산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아무도 그 요구하는 기준에 근접하지 않는다(마태복음 5:48). 매우 종교적이라고 여겨지기를 좋아하지 않는 도덕주의자들은 그들의 지침으로써 Ben Franklink 의 윤리강령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 강령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황금률(Golden Rule)에 따라 사는 척 하지만, 아무도 정말로 다른 모든 사람을 그가 다른 사람이 그를 취급하도록 하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철저한 사악함과 그의 완전한 타락과 그의 당연한 정죄에 대한 것을 납득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 Milford Hall 은 올바르게 관찰하였다...

“그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회복하는 것만큼 그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확신시키기란 힘들다. 오직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실 수 있다! 누구든지 기꺼이 도움을 받고자 할 때까지 당신은 누구든 도울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를 기꺼이 돕게 만드실 수 있다. 누구든지 스스로를 품을 수 없을 때까지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참되게 품을 수 없다.”

이것이 주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이다. 그분의 권능의 날이 왔다. 따라서 그분은 그녀가 기꺼이 하도록 만들고 계셨다.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하여 기꺼이 구원 받도록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서 별거벗기심으로 그분의 의로 기꺼이 옷 입도록 하신다.

그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가! —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거룩한 전지의 눈 앞에서 별거벗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뒤를 보신다. —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별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13).

## 사마리아인

다른 것을 보여 주겠다. 사마리아의 원 거주자는 앗시리아 왕에 의해 그들의 영토에서 추방되었으며, 다섯 가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고, 각각 그들 자신의 신들이 있으며, 바벨론에서 그 당에 거주하기 위하여 이주되었다(열왕기하 17:29-33).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신들이 거짓 신들이고 이 세상의 종교가 사악하고, 가증스러우며, 부정함을 보게 되어야 한다.

이 가련한 죄인은 그녀의 사마리아 종교가 부정(우상숭배)하며, 그녀의 이전 신들이 그녀의 부정한 사랑(매춘부)이었으며, 그녀의 설교자들이 매춘부였음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혼인할 수 없었다. 아마 내가 암시를 아주 조금만 펼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 성경을 찾아서 만약 그것이 모든 자유 의지, 즉 행위의 종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가를 볼 것을 강권한다. 성령께서 행위의 목사들을 개들(남창들)이라고 부르시지 않겠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거짓 종교의 간음을 포기하고, 바빌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죄와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하시지 않는가(계시록 18:4; 고린도후서 6:14-7:1)?

### 그리스도의 계획

요한복음 4:16 을 다시 보고, 이것을 배우라. — 만약 주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장신에게 언제나 드러내신다면, 그분께서 당신은 굴욕의 땅 속으로 끌어내리신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그분 자신께로 끌어 올리시려 함일 것이다. 그분은 용서하실 것을 드러내신다. 그분은 그분이 높여지실 정도로 낮아지신다. 그분은 그분이 채워지실 정도로 비우신다. 그분은 그분이 옷을 입히실 것이므로 벗기신다. 그분은 살리실 것이므로 죽이신다. 그분은 우리가 피난처로서 그분께 도망가게 하실 것이므로 우리의 거짓된 피난처를 파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 주님은 단지,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셨다. 일단 우리 자신의 타락과 하나

님 앞에서 벌거벗었음을 보았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이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임을 안다. 우리 첫 번째 생각은 — “나 같이 불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실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과 완전한 의에 의해서만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그런 쓰레기를 품으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복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하실 수 있고, 그분은 하신다! 첫째, 주 예수께서 그녀의 양심에 찌르는 진리의 말씀을 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마음에 비할데 없는 은혜의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리로 데려오라!” 성경의 이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A. W. Pink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의 힘은 이것이다. 만약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생수를 진정 원한다면, 오직 가련하고, 정죄받고, 회개하는 죄인으로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라’는 것을 더하셨다. 그녀는 가서 그녀의 남편을 불렀을뿐만 아니라, 그녀의 실제 인격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했다.”

## 28 장. 다섯 남편과 한 남편—요한복음 4:16-22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요한복음 4:16-22)

당신에게는 혼을 위해서 다섯 남편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한 남편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다섯을 택한다면, 당신은 그 한 사람을 결코 택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택한 그 다섯은 당신의 혼에게 남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한 사람을 택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다섯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리둥절하게 보이는가? 이 장을 다 읽고 난 그 시점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아주 분명히 하실 것을 소망한다.

### 사마리아인의 근원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왜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대를 하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 한적이 있는가? 앓수르 왕인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의 열 개의 종족을 정복하고 그들을 사로 잡아 왔을 때, 그의 영토 전체에서 유대인들을 멸시하였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경작하기 위하여 앓수르에서 그 자신의 종들을 보냈다.

앓수르 사람들은 이교도들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이었다. 그들은 이곳 저곳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던 신들을 경배하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그 땅에 그들과 함께 자신의 신들을 가지고 왔다. 주 하나님께서 그 때에 이 우상숭배자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사자들을 보냈다. 사자에 겁을 먹고, 그들은 앓수르 왕에게 그들에게 제사장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땅의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도록 요청하였으며, 그는 그렇게 하였다.

일단 그들이 “그 땅의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난 후, 그들은 그분의 진노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그들 자신의 신들을 계속 섬기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척 하였으나, 그들은 그분께 돌이키지 않았다.

머지 않아서, 이 이교도 앓수르인들은 유대인들과 인척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혼합 종교를 가진 혼혈 종족이며, 그들과 유대인들은 상대를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유대인들과 연합하려 했지만,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신실한 자들 중 나머지가 그들의 조력을 “너희는 우리와 상관 없느니라.”(에스

라 4:3)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 그 때의 이스라엘의 신실한 통치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종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뒤섞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종교는 혼합 종교였다. 오늘날 대다수처럼,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종교적 행위로 가득하였지만, 그러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주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다. — 사마리아인들은 가짜 개종, 거짓 믿음, 종교적 위선을 대표한다.

### 혼란스런 우상 숭배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철저하게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녀는 주 예수께서 선지자였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른 신들을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였고, 유대인들은 여호와, 홀로 하나님으신 분을 경배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유대의 종교가 그녀가 구원 받을 가능성을 제외하였다고 알았다. 하지만 주예수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에 대하여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셨으며, 동시에 그녀의 종교가 쓸모 없고, 무지하며, 우상숭배 종교임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성경 학교나 신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으셨고, 정치가나 전도자 어느 쪽으로도 훈련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그분의 입술 모두에서 타협의 기술이나 교묘한 화술을 결코 배우시지 않았다. 이 시대에, 전도자들이 종교와 종교적 의견에 있어서 그런 분명하고 완전한 대조와 직면할 때, 그들은 세계교회주의라는 헛된 영에 호소하며, 상호 반대되는 사상 사이에서 합의의 영역

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상, 현대 종교와 정치적 정확성의 기준으로 그분은 무례하고, 꼴사나우며, 완고하게 생각될 것이다. 문제에서 발빠하는 대신에, 정중하려 시도하는 대신에, 주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녀의 마음에 통렬하게 찢리도록 그녀의 말 중간에 멈추게 하려 하셨던 것 같다. 그분은 그녀의 소망의 바로 핵심에 화살을 바로 꽂으셨다. 그녀가 숨고 있었던 그 나무의 뿌리에도끼로 내리 찍으셨다. 그분은 그녀의 거짓말의 피난처의 얇은 벽을 뜯어 내시고, 그녀의 종교적 집의 바로 기초를 허물어 버리신다.

그분은 그녀에게, 자신의 종교를 방어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신다. 다른 말로 해서, 그분은, “여자여, 내가 네게 하는 말이 이것이다. —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그분의 예배, 그분의 백성, 혹은 그분의 구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그분의 구원을 얻은 자는 모두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 참된 경배는 계시된 지식, 하나님 자신의 계시된 지식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경배다.

## 질문

여러분 자신의 혼을 위하여 내가 대답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답변할 한 가지 질문이 있다. — 당신은 당신이 경배하는 분을 아는가? 당신의 종교가 육체와 피로, 인간의 전통으로, 그리고 종교적 의식으로 당신을 지나쳤던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가? 당신의 종교가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한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한 결과인가?

### 많은 거짓 종교들

사람의 혼이 속고 저주 받은 많은 거짓 종교들이 있다. 이 여인의 종교는 세상의 종교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잡종 종교를 가지 혼혈 종족이었다. 이것을 열왕기하 17 장에서 분명하게 볼 것이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북쪽 열 개 종족이 앗수르 인들에게 사로잡혔던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여인과 행한 대화보다 750 년 앞서서 였다.

### 다섯 백성, 다섯 신들

사마리아의 원주민들이 앗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 그들의 땅에서 추방당했을 때, 바벨론에 있는 다른 다섯 지역 백성들, 그들 자신의 신을 가진 각 집단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기 위하여 보내졌다. 사마리아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였으며 여호와와 경배 속에 그들의 신에 대한 경배를 혼합하였다. 그들이 주 —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경배하였다고 계속 주장하였고 그들이 행하였던 것으로 그들 자신에 대해 확신하였던 한편, 그들은 근본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경배를 저버렸다. 열왕기하 17:29-33 을 읽어보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속곳브נות을 만들었고[1], 갓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2],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3],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4],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5],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다섯 신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다섯 남편들처럼 우상숭배의 모든 거짓 신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남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야만인들의 신들은 하나님ی 아니었고 그녀의 궁핍한 혼에 남편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었던 그분, 영원전부터 그녀를 그분 자신의 배우자로 삼으셨던 주 예수께서 “그녀의 입에서 발람의 이름들을 가져가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만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다(호세아 2:16-17). 아 그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얼마 후, 열방의 남쪽 종족들, 유다족은 사로잡혔으며 70년 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구별된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경배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 거절된 도움

유대가 바벨론에서 구출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약 BC 450년),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돕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의 신실한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였다. 사마리아인들은 분노하여 그리심산에 그들 자신의 성전을 세웠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날 이유로부터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분상한 자부심의 문제였다. 부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패배자이고, 그의 종교, 그의 조상의 종교가 거짓 종교이며, 그의 신이 우상이라는 말을 분형히 듣는 것보다 더 격노하게 하는 것은 없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 사마리아인들과의 이 균열은 영적 고결함의 문제였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의 신들을 그들 스스로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고서 용납할 수 없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많은 신과 많은 종교적 의식과 그들 종교를 위한 많은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많은 종교들처럼 모든 사마리아인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경배하기를 거절하였지만, 여호와와 형제와 경배자들로서 서로 용납하였다. 비록 그들이 많은 이름을 입고 다른 종교적 상징과 의식들을 가졌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종교와 똑같이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잠언 14:12; 16:25).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택한대로 경배하였다. 사마리아의 종교는 Danville, KY 나 당신들 마을의 종교들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에 기초한 종교들이었다. 사람에게 기원하였기에 사마리아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의 종교들처럼 사람 중심이고, 쾌락과 즐거움과 인간의 정욕에 탐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나의 요점을 놓치는 경우를 위하여, 그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하도록 하자. — 모든 자유 의지, 행위의 종교는 우상숭배이고 저주받을 것

이다.

그런 종교의 추종자들은 주를 두려워하고, 도덕적으로 흠 없이 행하며,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과 피의 구속과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하여 끊임 없이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그리스도만의 뜻과 가치와 역사보다 오히려 사람의 뜻과 행위와 가치에 의해 좌우되거나 결정된 어떤 방법으로 이루게 하는 모든 자는 근본적인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 의를 이루기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하다. 그리스도 만으로, 은혜로만으로 구원 받기를 거절하면서 — 개인적인 의의 똥과 종교적 우상숭배를 생각하기를 거절하면서, 자신들이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이 지옥으로 향한 어둠과 미신과 무지 안에서 더듬거린다. — 그들은 매주 일요일 그들의 높은 곳으로 가서, 거룩한 날을 지키며, 향을 태우고, 그들의 신들에게 많은 제물을 드린다. 그러나 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에 완전히 무지하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신들이 거짓 신들이며 이 세상의 종교가 사악하고, 가증스럽고, 부정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야 한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역사에 대해 뉘우치기를 거절하고, 그 양심이 사망의 행위의 인간 종교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되지 않은 어떤 죄인에게도 구원은 없다(히브리서 9:14).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빌립보서 3:1-9) 그 의가 더

러운 누더기이고, 하나님께 추악하며, 그의 종교가 똥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 어떤 바리새인도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다. — 그게 맞다, 똥! 거짓 종교는 단지 밑바닥 종교일 뿐이다. 그것은 욕외 화장실 종교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가련한 죄인은 그녀의 사마리아 종교가 부정(우상숭배)하고, 그녀의 이전 신들이 그녀의 불륜의 애인들(호색가)이었으며, 그녀의 목사들이 매춘부들이었음을 인정할 때까지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혼인할 수 없었다. 똑같이 모든 우상숭배자들에게도 사실이다. — 그녀는 다섯 남편을 두었지만, 그녀는 남편이 없었다. 똑같이 이 세상의 종교인들에게도 사실이다.

당신은 아마도 내가 암시를 약간만 늘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결코 잡아 늘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모든 자유 의지, 행위 종교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는가? 성경이 행위의 목사들을 개들(남자 매춘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가? “개들을 조심하라.”고 바울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개를 구원의 일에 있어서 행위와 은혜를 뒤섞는 자들과 동일시 하였다 — “간결”. 주께서 우리에게 거짓 종교의 음행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명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그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계시록 18:4; 고린도후서 6:14-7:1 을 읽어보라.)

###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하나의 참 종교**

실상은, 오직 한 분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구원자, 한 분 성령, 그리고 하나의 참 종교와 하나의 참된 구원만이 있다. 우리 주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그녀의 영적

무지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모두 말씀하셨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하도록 하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기만 아래 있다. 아르미니아 주의, 자유 의지론, 행위 종교는, 개신교나 교황 예찬자, 침례교나 불교의 이름을 입었든가 문제가 되지 않고, 저주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 중심에 인간의 의지를 가진 모든 종교를 “자의적 숭배”라고 부르신다(골로새서 2:23). 그리고 자의적 숭배는 저주 받은 종교이다.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의 샘에서 마시려 하였다면, 그녀는 자신의 깨진 물통과 그 속의 더러워진 물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그녀가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랑이 되고 그분의 구원이 자신의 남편의 공급이 되게 하려 하였다면, 그녀는 자신의 이전 남편들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발견 하였다면, 그녀는 사마리아의 신들과 성전과 사람들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과 나도 똑같이 해야 한다.

만약 구원 받으려 한다면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참 성품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유일하신 참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시은좌이신 그리스도에서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제단인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 하나님을 경배해

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좌 안에서, 그분의 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린도전서 1:30-31; 에베소서 2:8-9; 디모데후서 1:9; 로마서 4:16).

당신이 만약 구원 받으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경배와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해야만 할 것이다. 이 구분은 믿는 자의 침례 안에서 최초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이고 평생 동안의 것이다. 믿는 자의 침례는 선행처럼 구원과 관련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구분짓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일말의 기여함이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구분을 짓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마태복음 10:32-33).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 지는 것을 보았고 그분 안에 피난처와 구원을 주장하기 위한 성경 근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유대인들이 되었을 때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며,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오고, 심비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계수되는 자들을 제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을 주장하기 위한 성경 근거, 확신의 성경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모압 여인 롯은 유대인 롯이 되었다(룻기 1:16). 수리아인 우상숭배자 나아만은 주께서 그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으시자 여호와와의 경배자 나아만이 되었다(열왕기하 5:17). 엘리사는 요르단 강에서 씻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그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했고 그를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치

료하려 했던 거짓 치료술사들은 물론 그 자신의 땅의 훨씬 더 물질적으로 매력적인 강들과 관계를 끊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 했다. 위대한 나아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치료받기 위하여 몸을 숙여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문둥병으로 멸망해야 했다. 동일한 것이 당신에게도 진리가 된다!

일단 치료가 행해졌고, 나아만이 수리아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대행렬에 두 마리 나귀가 수리아로 가져 올 수 있는 만큼의 이스라엘 흙을 가져왔는데, 그가 유대인 개종자, 하나님 경배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땅에 속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출애굽기 20:24-25). 비록 그가 수리아에서 살고 죽었지만, 나아만은 수리아에서 유대 흙 위에서 하나님의 제단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시온좌를 향하여 유대인으로서, 은혜로만 구원 받은 죄인으로서 제단과 시온좌와 성전과 희생이 예표가 되신 그 구원자의 공로를 통하여 엮드리며 기도하려 무릎을 꿇었다!

에스더의 시대에, 하만이 교수대 위에서 목매달린 후 그는 모르드개를 위하여 건축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덮쳤으므로, 많은 수의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이 되었다(에스더 8:17).

당신은 당신이 경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나는 안다. 나는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씨이고, 백성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경배한다. 내게는 아무런 의가 없으나 그리스도께는 있다. 내게는 아무런 속량이 없으나 그리

스도께는 있다. 내게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으나 그리스도께는 있다. 내게는 소망이 없으나 그리스도께는 있다. 그리스도는 내 혼의 남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얼마나 많은 남편을 갖고 있는가? — 다섯인가, 아니면 하나인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라면, 만약 우리가 그분과 혼인하였다면, 아, 얼마나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여야 하는지!

## 29 장. 예배—요한복음 4:23-24

일요일 아침 — 2008 년 11 월 16 일

(말씀 읽기: 역대상 13:1-12 와 15:1-29)

### 요한복음 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 서론:

마음 속을 후벼내는 메시지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 일상의 대화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당신에게 정말 가까이 접근하고, 당신의 죄, 비밀스런 죄, 당신의 개인적인 죄,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상기시킨다면,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요한복음 4 장에서 우리 구원자는 의도적으로 타락하고 죄의식에 찬 죄인의 마음을 살피셨다. 그분은 그녀의 간통을 드러내셨다. 그녀가 억누르려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식을 그분은 의도적으로 흔드셨다. 그녀는 그녀의 종교를 방어하고, 그녀가 언제나 지켜왔던 조상의 종교적 전통과 종교적 의식들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으로 대응하였다(요한복음 4:19-20).

(요한복음 4:19-20)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그녀의 종교가 거짓 종교이고 그녀의 상상 속의 영적 지식이 심각한 무지였음을 그녀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후,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주 예수께서 그녀의 죄를 드러내시자마자, 이 여인의 양심이 깨어났다. 그녀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녀는 염려하였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자신들의 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과 영원을 염려하게 된다는 것은 소망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한 곳이다. 이 전에, 그녀는 이것들에 대하여 거의 생각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혼란스럽다.

주께서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살피셨다. 그녀는 그것들로 인하여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그녀의 타락한 마음은 구원자의 날카로운 화살로부터 자연적으로 움츠렸다. 그녀는 하나님의 꿰뚫는 진리로부터 도망하였다. 그것은 너무도 들춰내고, 너무도 개인적이고, 너무도 혼란하게 하고, 너무도 열등감을 갖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그녀가 숨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던 최선의 피난처로 날아들어 갔다. 그녀는 종교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것은 육적인 생각의 천연적인 피난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번째 그 양심을 찌를 때, 그 죄인의 처음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깜짝놀란 쥐가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동지로 도망가는 것처럼 그의 종교의 굴로 도망가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의 말씀을 종교적 논쟁과 교과적인 질문들과 역사적 종교 전통 요점들을 토론하면서 딱 자르려 했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하지만, 그런 행동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죄의식으로 직면하였을 때 죄인들의 자연적이고 공통적인 반응이다.

그녀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를 묻는 대신, 그녀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20 절)고 말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 영적 진리만큼 인간 육신에 적대적인 것은 없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현실주의”처럼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련된 것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천연적인 생각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피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것을 중단하는 대신, 타락한 마음은 거룩한 곳과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날과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관습과 교회 신조와 예언 체계에 대한 질문으로 달아난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패와 죄와 반역에 대해 정직하고 실랄하게 다루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거의

어떤 종교 주제에 대하여 기꺼이 말하고 토론하려 한다.

매우 놀라는 그녀에게, 주 예수께서는 그녀가 제기한 문제가 무관한 것임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논쟁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 더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그 질문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때가 왔으니, 그렇다 지금이니, 종교의 모든 외적인 것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날들, 안식일, 제물, 제사장, 율법, 그리고 의식들, 그리고 성전 그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하고, 진리와 영적 예배로 대체되어야 할 때이다.” 그 얼마나 소름끼치는 것이었든가. 여전히 소름끼치는 것이다!

**명제:** 모든 참 예배는 영적이다. 모든 육적이고, 율법적이며, 의례적인 예배는 우상숭배이다.

이 아침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간결하지만, 철저하게 교훈적인, 참 예배의 필요와 본질에 대한 설명을 주셨다.

(요한복음 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예배, 참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내 메시지의 제목은 이것이다. — 예배. 이 메시지는 주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1.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는 곳에, 영적 생명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구원도 없다. 하나님으로서 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예배자들이다 (빌립보서 3:3).

(빌립보서 3: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24 절을 다시 보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선택은 없다. 이 문맥에 세 번의 “해야 한다(must)”가 있다. 세 번 모두 절대적 명령인 것들을 가리킨다.

- 요한복음 3:7 에서 우리 주께서,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 3 장의 14 절에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여기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받으셔야 “할찌라.”

이 세 가지 사항이 주어진 순서는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모든 자와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구속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고 의롭게 되고 그분의 영으로 부름 받은 모든 자와 그들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릴 수 있고 경배할 것이다. 기록되기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였다(잠언 15:8).

2. 이 메시지는 이 시대에 참 예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역시 중요

하다.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의 행위이다.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위대함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오늘날 예배로 통하는 대부분의 것은 예배가 아닌 어떤 것이다.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라 부르는 것들은,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찬양의 의식이라기 보다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탐닉과 만족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앞선 세대의 종교적 실행보다 더 불쾌하기조차 한 예배를 갖고 있다. 그것이 “현대(contemporary)” 예배라고 불린다. 이름을 잘 지었다. 왜냐하면 (영어)사전에서 “현대(contemporary)”는 “경멸(contempt)”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다.

참 예배는 참 기독교에 필수적이며, 우리 시대에 예배로 통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표시라기 보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경멸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매우 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의 책 안에서 이다. 아무도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그 한 분을 제외하고 참 예배를 규정하고 설명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면,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대로 “순서에 따라서” 그분께 예배드려야 한다.

여기 요한복음 4:23-24 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일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말씀하신다. 이 두 구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구하므로,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 참과 거짓

첫째,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있음을 말씀하신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하여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그녀에게 즉시 말씀하셨다. 그분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한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그분은, “예비가 무엇인지 너희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였다. 그분은 동시에 유대인의 예배에서조차도 그들의 외적인 의례와 의식에 있어서 전혀 예배가 없다고 강조하고 계셨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배는 신성한 예배의 육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적인 조례들을 채용하였지만, 그러나 참 예배, 하나님의 예배는 단지 결코 외적이고 육적이지 않고, 언제나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었다(이사야 1:2-18).

(이사야 1:2-18)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리갔도다. (5)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8)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원두밭의 상직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9)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이다. (10)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찌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찌어다. (11)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찌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배워야 할 바로 첫 번째 것이다. 외적인 종교적 행위, 의식 절차, 의식, 형식, 혹은 활동 그 이상이 아닌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의 가르침의 본질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종교적 활동을 보이게 하는 어떤 방법으로나 방법에 만족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내 자신을 앞으로 약간 달아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5, 6, 7 장에서 모든 참된 예배는 본질적으로 내적인 것임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참된 섬김은 본질적으로 내적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

- 겸손과 믿음과 회개는 내적 은혜들이지, 외적 과시가 아니다(마태복음 5:1-12).
- 기도는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 베품은 개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 과시하듯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 금식은 당신과 주를 제외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집에는, 예배자들이 있고 예배자들이 있다. 우리는 함께 선다. 우리는 같은 찬송을 부른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함께 우리 머

리를 숙인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노력하며 여기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 그분을 아는 것이다.
- 그분에게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다.
-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 당신은 여기의 의무감으로 있고, 당신의 양심을 가라앉히고 평온하게 하려고, 친구나 친척을 기쁘게 하려고, 혹은 단지 체면을 세우려고 여기 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존귀히 여기고 섬김에는 실질적인 관심이 없다.

## 하나님과의 혈연관계

둘째, 참 예배는 하나님과의 혈연관계를 포함한다. 우리의 본문에서, 주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신성한 경배와 관련하여 전혀 아무 것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로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구약 성경에서, 주 하나님은 아도나이로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셨다(창조주 하나님 — 만물의 시조와 지주). 그분은 여호와로서 숭상받으셨다(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엘샤다이로서 찬양 받으셨다(전능자 하나님 —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러나 그분의 권능의 보좌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않

왔고, 주 예수께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도 누리지 않았던 그분의 피로서 하나님께 닥아가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히브리서 10:19-22).

(히브리서 10:19-2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1)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성령 하나님께서 효험 있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로마서 8:14-17; 갈라디아서 4:4-8).

(로마서 8:14-17)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4:4-8)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8)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고 부를 능력과 권위와 권리를 주셨다.

(요한복음 1:12-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주 하나님을 우리 주권자와 창조주와 율법 창시자와 심판자로서 최상의 존경심으로 경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서 경배한다. 어떤 특권인가!

(요한일서 3:1-2)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우리는 아들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영원한 예정하심으로,  
주권적 은혜를 이제 받노라!

멈추어라, 나의 혼아! 흠모와 경이로다!  
묻노라, “아 내게 그와 같은 사랑이?”  
은혜가 나를 계수하니  
구원자의 권속에 속함이라!

## 은혜 역사

예배는 마음의 내적 역사이다. 그것은 육신이 아닌 마음의 역사이고,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적 믿음의 행위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셋째, 참 예배는 은혜의 역사이다. 예배는 마음의 역사이고 아들의 역사이며 은혜의 역사이다. 우리의 본문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찾아낸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예배하도록 된 자들임을 선포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한복음 4:23).

그 함축된 의미는 분명하다. 아무도 하나님에 의해 찾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가르침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결코 참되게 예배할 수 없을 것이다.

(시편 65: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말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다. 옛 찬송 가사의 한 소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는 사람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라,  
그것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리니.”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였던 바다. “하신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사무엘하 7:27). 예배와 기도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한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분께 예배드릴 것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

## 영적 예배

참 예배는 영적 예배이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예배”라는 말은 영어의 두 단어, “가치(worth)”와 “배(ship)”에서 왔다. 예배는 “가치 있는 배(worth-ship)”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분의 참 가치를 정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그분의 참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

“예배(worship)”으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의 의미는 “개가 주인의

손을 활듯이, 손에 입맞춤하다 이다. 그것은 아양을 떨다, 웅크리다, 허리르 굽히다, 제단 앞에 엎드리다를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마음의 행동과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 주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외하고, 참 예배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예배는 육체적이고 몸으로 하는 기능이 아니다. —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육체의 행위를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 예배는 내적이고, 마음의 문제이지, 단순한 육적이고 외적이며 종교적 실행이 아니다. —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테전서 4:8).
- 예배는 감정적이고 혼적인 것이 아니다. — 그것은 흐느끼거나 웃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느낌은 아니다.
- 예배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며, 심적인 것의 역사이다.

형상들이 없음 —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적 형상이나, 십자가들이나, 상징물들, 그림들, 조각상이나 물질적 표현물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영적 예배는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예배다.

삽화: 돛 뱀

“누후스단!” (열왕기하 18 장)

(출애굽기 20:3-5)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거룩한 것이 없음 — 만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한 날로서 어떤 날이나 혹은 거룩한 장소로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믿는 자에게, 모든 날이 거룩하며 모든 장소가 거룩하다. 우리는 매일을 “주의 날”로 부르며, 모든 곳을 “여호와삼마(Jehovah-Shammah)”로 부른다.

모든 참된 예배는 내적이고, 영적이며, 심적인 예배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 제단이다.
-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씻음 받은 물두멍이다.
- 그리스도, 생명의 떡은 우리의 진설병 상이다.
-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의 분향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의 증거케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 선물인 하나님이다!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믿음의 예배이다. — 그것은 우

리 마음 속에서 그분을 부르는 것이며, 그분의 귀한 아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로마서 10:9-13)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 단순하고 영적이 예배가 그토록 매우 드문 것인가?

- 타락한 사람은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신을 원한다.
- 타락한 사람은 신의 은사와 역사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어떤 신을 원한다. — 가인이다!
-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보다 형식과 의식과 절차와 의례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 영적 예배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매매를 위한 우상이나 초상이나 장신구의 금지. — 봉사하고 두려워하는 성직자의 부재. — 경배하기 위한 거룩한 장소의 부

재. — 얻거나 잃는 대가의 부재.

## 진리 안에서

다섯째, 만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예배드려야 한다. —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분께 진정으로, 진심과 정직과 곧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표리부동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열고,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겉치레를 없애버릴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개적인 집회 안에서나 밤 중에 침대 위에서 적막과 고요함과 어둠 속에서 든지 간에, 만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의도적으로 별거벗어야만 한다(마태복음 15:8-9).

(마태복음 15:8-9)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나 더 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계시된 진리에 따라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 예배드려야 한다(요한복음 17:17). 그것이 무슨 뜻인가? 물을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사항을 의미한다.

1. 만약 하나님의 집에서, 공예배를 위한 우리 집회 안에서 하나님

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분이 설명하신 방법 안에서 그분께 예배드려야 한다. — “마땅한 순서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 침례
- 무교병과 포도주
- 그분의 말씀을 읽음
- 그분의 찬양을 노래함
- 그분의 긍휼을 구함 — 기도
- 복음 전파

2. 만약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분께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  
...

- 세리처럼 우리의 죄들을 고백함 — (완전한 타락).
-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신뢰함 — (효험 있는 속량).
- 층계 없는 땅 위의 제단 위에. — 대가 없는 은혜로만 (출애굽기 20:24-26).

(출애굽기 20:24-26)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5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6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  
니라.”

**적용:**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불태우는가! 거룩한 분, 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실로 그러하다 (아가서 2:14).

(아가서 2:14)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 진리 안에서 그분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 피의 속량의 기초 위에서.
- 그의 영의 권능으로.
- 믿음의 마음으로.
- 그리스도를 바라며.
- 그분께 예배를 드리겠는가?

아멘.

# 30 장.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진정한 예배—요한복 음 4:24

일요일 아침 — 2008 년 11 월 23 일

(말씀 읽기: 빌립보서 3:1-21)

##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찌니라.”

### 서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답을 얻어야 할 질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상이나 감정에 근거하여 답할 수 없다. 그것은 신조나 신앙의 고백, 혹은 종교적 관습으로 답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다. —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한다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려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한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그분께 예배드리려야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서, 영적인 방법 안

에서 그분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분께 예배드려야 한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과 솔직함과 올바름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표리부동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열고,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겉치레를 없애버릴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개적인 집회 안에서나 밤 중에 침대 위에서 적막과 고요함과 어둠 속에서 든지 간에, 만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의도적으로 별거벗어야만 한다(마태복음 15:8-9).

(마태복음 15:8-9)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나 더 있다.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계시된 진리에 따라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분께 예배드려야 한다. —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17).

그것이 무슨 뜻인가? 물을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것을 의미한다. 만약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예배드려야 한다...

- 세리처럼 우리의 죄들을 고백함(완전한 타락) — 요한일서 1:9.
-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신뢰함(효험 있는 속량). —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 “주의 이름을 부르라.”
- 층계 없는 땅 위의 제단 위에. — 대가 없는 은혜로만 (출애굽기 20:24-26).

(출애굽기 20:24-26)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25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6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주 예수께서,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선포하신다(요한복음 4:23). 얼마나 은혜에 속한 놀라운 선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 안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분께 예배하는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

- 피의 속량의 기초 위에.
- 그의 영의 권능으로.
- 믿음의 마음으로.
- 하나님께 닥아가고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그리스도만 바라

봄으로.

우리 본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한복음 4:24).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고 경향이다.

- 신성한 예배의 정례의식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규례를 사용하는 대신, 육적인 의식과 섬김과 의례로, 하나님과 관계 없이 그것들을 타락시킨다.
- 우리는 스스로 외적 예배의 육체적인 실행에 만족해하고 영적 예배의 내적 실재에 무지하다.
-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거룩한 것보다 천박한 것을 선호한다.

바울은, “육체의 연습”(신성한 예배의 단순한 외적 동기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디모데전서 4:8)라고 말했다.

당신과 나는 외적 종교에 의해 감동 받고, 기뻐하며, 빠져버린다.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그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누가복음 16:15).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라. — 외적인 공예배와 외적인 하나님의 섬김은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외적 예배가 모두라면 우리가 하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다! 진정한 마음의 결여,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의 마음의 헌신의

부재는 종교의 모든 외적 행위들을 헛된 예배로 만든다. 이사야 29:13-14 를 보라.

(이사야 29:13-14)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마태복음 15:1-9 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예배를 위선적이고 외적 종교적 봉사 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락시키는 우리 시대의 모든 자에게 이 본문을 적용하신다. 마태복음 15:1-9 를 보라.

(마태복음 15:1-9)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2)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5)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렸으되, (8)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전통을 더하였고, 그들의 전통에 복종하기를 고집하였다(마태복음 15:3).
-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기 섬김, 자기 의, 위선의 종교에 계승자를 맞추려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하였다(마태복음 15:5-6; 마가복음 7:6-13).

마가복음 7:6-13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0)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1)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12)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13)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 주 예수께서 그런 모든 종교는 모두 헛되고 위선적임—하나님께 지극히 가증스러움—을 선포하신다.

## 다섯 가지 말씀

1. 단지 외적인 모든 종교, 마음의 예배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헛된 예배이다. —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불렀다.
-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체 하였다.
-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었다고 말했다.
-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였다.
-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예배를 가증스러운 것, 단지 거룩의 형태뿐인 것으로 여기셨다(이사야 1:10-18; 66:1-3).

(이사야 66:1-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3)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

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2. 신성한 예배의 모든 행위들과 의에 속한 계명들과 사람의 전통과 관습으로 교회 위에 주어진 교리들은 단지 헛된 예배이다.** — 하나님께서 이사야 29:13 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도신경, 신앙고백, 예배문답).

- 로마 카톨릭교!
- 유아 세례!
- 율법주의!
- 금욕주의!
- 자유의지주의!
- 종교 활동!
- 종교 의식, 행사, 등!
- 안식일, 성일, 종교 명절!

**3. 모든 참된 예배는 마음의 행위이다**(요한복음 4:23-24; 빌립보서 3:3; 로마서 10:9-10).

(요한복음 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24)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

로 예배할찌니라.”

(로마서 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빌립보서 3: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 믿음은 마음의 일이다.
- 회개는 마음의 일이다.
- 찬양은 마음의 일이다.
- 기도는 마음의 일이다.
- 전도는 마음의 일이다.
- 들음은 마음의 일이다.
- 침례는 마음의 일이다.
- 성찬 — (주의 만찬) — 은 마음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 활동의 육체적 실행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 “내 아들이, 내게 너의 마음을 달라.” 만약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신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신성한 예배의 우리 섬김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4. 만약 우리가 헛된 예배의 위선으로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려 시도한다면, 하나님은 헛된 종교의 우둔함 속에 우리를 남겨두실 것이다** (이사야 29:14). —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요엘 2:12-14 —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영적 어둠과 우상 숭배와 이교사상과 미신의 오늘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가자.

**5. 성령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참된 예배의 충격적인 본을 주신다(빌립보서 3:1-14).**

함께 빌립보서 3 장을 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메시지를 마무리 하겠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의 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앞

에 놓여져 있다. — 그의 회심은 우리가 듣기로 참된 회심의 표본이다. 그의 전도는 모든 참된 복음 전파의 표준이다. 그리고 그의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의 한 예로써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의 지면 위에 여기 우리 앞에 놓여 있다.

## 기쁜 권고

이 장은 달콤하고 기쁜 권고로 시작한다(1 절). — 바울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다. 그는 이 단어, 기뻐하라를 이 짧은 서신서의 네 장 안에서 열 번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과 혼의 깊은 곳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여야 한다. 우리의 예정된 체험과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항상 갖고 있다. 여기 기뻐하기 위한 권고가 있다. 얼마나 복된 명령인가!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4:4). 그분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드린다. 기뻐하라…

- 우리의 모든 충만한 대속물로서 그분의 인격의 위대함 안에서.
-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분의 피의 능력 안에서.
- 우리에게 의롭게 함을 위하여 귀속되고 거룩하게 함 가운데 부여된 그분의 의의 완전함 안에서.
-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한 그분의 은혜의 풍성 안에서.
- 결코 거짓되지 않은 그분의 사랑의 불변성 안에서.

- 우리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는 그분의 섭리의 통치 안에서.
- 우리 대신에 지속적이고 효험있는 그분의 중보의 사실 안에서.
-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안에서.

이것이 바울이 이 장을 열면서 말한 권고이다. —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선을 위하여 나로 그렇게 행하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 중대한 경고

2 절에서 사도는 중대한 경고를 한다. — “개를 조심하라.” — 그는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개라고 부른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돈을 위하여 팔았던 자들이다.

(신명기 23:18)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사야 56:10-11) “그 파숫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 이것은 사람이 중심되고, 행위를 기초되고, 자유 의지 종교의 어떤 체계든지 가르치고 전하고 고무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다(마태복음 7:22-23).

(마태복음 7:22-23)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 중심이고, 행위를 기초하고, 자유 의지 종교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 가장 악하고 단 하나 가장 큰 악의 근원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의 “선행들”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장 가증스럽게 악한 행위들이다. 구약 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들은 매음과 매춘과 남색과 알콜중독에 비유된다.

-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훔친다.
-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발 아래 짓밟아 뭉갠다.
- 그들은 은혜의 영을 모욕한다.
- 그들은 서서히 사람을 가장 낮고, 가장 한심한 상태로 떨어뜨린다(로마서 1:25-31).

(로마서 1:25-31)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8)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악행하는 자들”은, 바울은 이 문맥 안에 사용하는 용어처럼, 의지 숭배자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자유 의지 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간결의 경고” — 간결한 것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희망 속에 그들의 몸을 자르고, 불구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 고행을 행함
- 사순절을 지킴
- 수도원 생활, 채찍질

- 종교적 문신, 금욕주의

본질에 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고무하는 어떤 형태의 종교 관습, 교리, 혹은 활동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

### 참된 종교의 설명

이제 3 절을 보자. 여기에 참된 종교의 설명이 주어져 있다.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말씀한다. 이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다.

(빌립보서 3: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참된 종교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다. — 참된 종교는 의식이 아니라 영적이다. — 참된 종교는 신조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이다. — 참된 종교는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다. — “우리가 할례당이라” — 우리는 하나님의 참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참 자녀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참된 예배는 영적 예배이지, 육적이거나 의례상의 의식주의가 아니다(요한복음 4:23-24).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 우리는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 안에 우리 모든 확신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만 신뢰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

(고린도전서 1:30-31)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 니라.”

(골로새서 2:9-10)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 우리는 절대 우리 육체나, 육체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혹은 (가상의) 탁월함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의 특권들, 육체의 느낌들, 그리고 육체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뢰의 근거가 아니다.

### 참된 자아 부인

4-8 절에서 바울은 참된 자아 부인의 예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 참된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의 의도적 부인을 포함하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장도, 어떤 권리도, 혹은 어떤 가치에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빌립보서 3:4-8)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열심으로는

교회를 휩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 부인은 구원의 믿음의 필수적인 방면이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듯 생명의 모든 방면들을 점진적으로 이해하지만,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근거로서 모든 개인적 가치와 공로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복되고 순수하며 완전한 의를 위한 그의 자기 의의 더러운 누더기를 내려놓은 고위직의 율법사가 있다. 바울은 그의 육체적이고, 세속적이며, 당연한 특권들과 종교적 특별함과 교육의 우월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는 그의 육체에 신뢰를 두지 않았다. 그는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았다(마태복음 13:45-46).

주: 이것은 주께서 그를 구원하실 때인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졌다(7 절).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위탁과 헌신이 증가하고 성장하며 그가 매일 하였던 결정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네 가지 큰 야망

왜? 이 사람의 자기 부인과 헌신과 위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이 사람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었는가? 바울은 네 가지 믿음의 큰 야망들로 영감을 받고 동기가 부여되었으며 절대적으로 사로 잡히기에 이르렀다. — 그는 8-11 절 내에서 그 네 가지 큰 야망을 우리에게 준다. 8 절의 마지막 행을 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라!” —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놀라운 야망이다! 믿음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평생 추구하는 것이다.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인격과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분이 더 알려질 수록, 그분은 더 원함을 받는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리스도는 들판에 숨겨진 보화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쁘게 모든 것을 허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높은 가격의 진주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되어야만 하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여야 할 한 가지 것이다.

- 내가 복을 받은 많은 삶의 위로에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만 한다.
-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 나는 건강에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 나는 나의 가족에게 감사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 “분명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그리스도를 얻을 것임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9 절) —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구함이다.

(빌립보서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것은 믿는 자의 입장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기독교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 덜한 것도 아니고, 더 낮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율법 안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으면 규례 안에 부분적으로나 교회 안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다. 구원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 **종교는 교리와 사실들을 아는 것이다.** —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요한복음 17:3; 요한일서 5:20).
- **종교는 내가 믿는 것을 아는 것이다.** — 기독교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디모데후서 2:12).
- **종교는 사람들을 새로운 개종자들로 만든다.** — 기독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들로 만든다(고린도후서 5:17).

- **종교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요한복음 15:1; 에베소서 5:30).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 하나님의 영원한 천명. — 성령의 은혜로운 운행으로. — 개인적인 믿음으로.

도해: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를 소유함이다. — 우리의 의는 선행을 행함으로 우리가 성취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만드셨다.

(로마서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 우리에게 전가되고 나누어진 하나님의 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내가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 나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다.
- 내가 그분께 어떤 섬김이나 기도나 제물을 드릴 때이다.
-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이다.

- 내가 그분의 위대한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이다!

이제, 빌립보서 3:10 을 보라. — “그로써 내가 그를 알것이라!” —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10) “(그로써 내가 그를 알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이며 나는 그분의 소유임을 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손실과 배설물로 여기므로, 그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고, 그리스도를 알려는 것이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지만, 아, 얼마나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지! 나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과 그분과의 교제를 계속 증가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마음의 야망이다. 나는 그분과,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와 나의 구속자와 나의 주를 알기 원한다!

## 1 나는 그분이 내 혼의 위대한 은인으로 알기 원한다.

- 그분의 위격의 비밀과 영광
- 그분의 은혜의 부요
- 그분의 구원의 위대함
- 그분의 긍휼의 유익
- 그분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눈을 그리스도로부터 결

코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혼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존재의 모든 것을 소모하는 대상으로 만든다! “그로써 내가 그분을 알려함 이라!”

## 2 나는 “그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알기” 원한다.

-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한다(로마서 4:25).
-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내게 영적 생명을 주었다(에베소서 1:19).
-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나의 부활을 보장한다(고린도전서 15:47-49).
- 그러나 나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의 지식 가운데 걸으며 매일 시험함으로 살기 원한다. 생명의 새롭게 함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보하므로, 나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지시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 3 나는 “그분의 고난의 교통 가운데 그분을 알기” 원한다.

- 그분의 고난 가운데 나의 개인적 유익을 알기 원함
- 그분의 고난 가운데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알기 원함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영광이므로, 나의 영광이 될 그분의 고난을 원한다(갈라디아서 6:14).

(갈라디아서 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4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의 교통을 언제나 “그의 죽으심을 본 받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알기를 원한다. — 이것이 그 의미이다 — 내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한다.

- 하나님의 영광에 전적으로 성별됨.
-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함.
- 나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사랑 외에 아무것에도 동기되지 않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11-14 절)  
—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구함이다.

(빌립보서 3:11-14)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12)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3)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분명, 이것은 마지막 날에 내 몸의 부활을 위한 커다란 소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여기서 언급된 갈망은 죄에 대한 사망과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들어내는 은혜에 속한 도덕적, 영적 부활

을 위한 갈망이다. 세상과 육체와 모든 인간적인 생명은 죽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실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생명이 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아직 얻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에 접근하고 있다. — 나는 영원 가운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갈보리에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을 원한다(에베소서 1:3-6). 나는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한다!

## 적용

내 마음의 야망들, 내가 추구하는 목표들, 내가 사는 이유들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내게 더욱 더 실재가 되게 하실 것을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그것들을 우리 마음의 야망들로 만드실 것을 기도한다.

- “그로써 내가 그를 얻으려 함이다.”
- “그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 “그로써 내가 그를 알려 함이다.”
-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자의 부활에 이르려 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을 이것들에 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20-21 절).

(빌립보서 3:20-2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배, 참된 예배는 행위나 행사나 의식이 아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아멘.

## 31 장.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요한복음 4:25-30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25-30)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은혜가 택함 받은 죄인에게 오게 될 영원 전부터 확정된 날, 선한 목자께서 그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발견하게 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된 시간이 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된 “사랑의 시간”이라고 불린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은 예정된 자녀, 택정된 죄인이 구원 받을 때가 있다. 그 시간에, 구원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혼에 확실하게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한 때 죄인들의 친구였던 분이여,  
슬픔의 사람이 여기 머물렀네;

영원한 사랑을 정하시니,  
그가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하네.

하지만 무엇이 그의 소중한 발길을 향하게 하랴,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지시 않았다면,  
어디로부터 구원의 축복이 흘러,  
그가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셔야 하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 방황하니,  
그가 그 피로 사신 자를 보셨으니;  
욕망에 이른 이 비참한 노예 위에로구나,  
주권적 은혜가 그 깃발을 흔들었구나.

여기 구별된 은혜 안에  
밝고 찬란히 빛나는 불꽃으로 빛나노라:  
죄로 죽은 만민이 누워있으니,  
은혜가 이 반역적인 음녀에게 가까이 왔노라!

음녀의 밑바닥, 거짓 꿈에서 일어났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음녀가 경배를 드렸으며,  
그 순수한 생명수를 마셨으니,  
그로써 끝 없는 해를 견딜 것이라.

영원한 사랑의 이 대상은,  
위의 보좌를 충만케하려 정해졌으니,

복음 역사에 빛날 것이라,  
또 택정이 모두 거룩함을 증거할 것이라.

예수 우리 목자, 하나님, 그리고 왕,  
당신의 보호하는 보살핌과 사랑을 노래하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요롭고 자유함으로 찬양하니,  
당신의 방황하는 양을 당신께 데려가네.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있기까지,  
불의 방패와 은혜의 벽이,  
그분의 모든 피로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라,  
부르심이 택하심을 확실히 증거할 때까지!”

— John Kent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이 질문한 그런 생각의 상태, 아마 언젠가 질문하였을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만약 그분께서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보장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주께서 나를 언제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 경계의 말씀

성경에 계시된 은혜의 표본이 분명하게 있는 반면, 그것은 단지 표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죄인들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몇 가지 특정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은혜의 체험은 폭넓게 다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몇몇에게 있어서 회심은 극적이고 혁신적인 체험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매우 점진적인 것이다. 개인의 믿음의 다양성을 우리 체험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체험의 잣대로 우리 믿음의 가치로 판단하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해야 한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방면들을 체험하는 순서를 크게 걱정스런 문제로 만든 것 또한 잘못이다. 그것들을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관념은 종종 실제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탄생은 믿음의 원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오직 우리가 받고 난 후라는 것을 안다. 회개와 믿음은 매우 근접하여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둘이 별도의 은혜임에도 서로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다섯 가지 특징된 것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일어난 것을 보여 주겠지만, 그것들의 실재만으로 이것들의 순서로 스스로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의 권능과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려 오실 때마다, 그분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당신이 만약 이미 구원 받았다면, 당신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 받았으며,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고, 당신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구원 받았을 것이다(로마서 9:16). 그리고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 하시기라도 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당신 안에서 이 다섯 가지 것들을 하실 것이다.

1.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하신다면, 그분은 당신의 길을 가로지르실 것이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요한복음 4:3-7).

얼마나 놀라운가! —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에서 온 타락한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로 오셨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 나올 수도 없었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은 “찾은바 된 자”이다(이사야 62:11-12).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로 발걸음을 떼시고, 당신의 여정을 가로지르시고, 당신이 지옥으로 미친듯이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면, 당신은 결코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2. 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관심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이다. 그 여인

이 야곱의 우물로 나왔을 때, 그녀는 그분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관심이 없었다. 아, 그녀는 종교와 지옥에서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하여 주 예수께서 그녀가 관심을 갖도록 만드실 때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7-15 절에서, 주님은 그녀가 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셨다. 의심할 것 없이, 그녀는 처음에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이유로만 물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주께서 그녀가 그녀의 생각에서 그것을 꺼낼 수 없음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와 같은 영적 진리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생각을 거의 들을 수 있다 —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생명수는 무엇인가? 그가 이 물을 어디에 갖고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내게 줄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갖고 싶다.”

3. 여전히, 다른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찍이 당신을 구원 하신다면, 주께서 벌써 당신의 혼에 공흠을 주신다면, 당신에게 구원이 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온다면, 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그녀에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당신의 죄를 드러내실 것이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요한복음 4:16-19).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에 직면하고, 그것을 다뤄야

하며,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렇다, 고통스럽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열어 벗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그분께서 마음을 전혀 여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마음을 결코 감싸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상처를 먼저 내신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신다. 그리고 주신다. 그는 죽이신다. 그리고 살아나게 하신다. 그분은 가져가신다. 그리고 주신다. 그분은 갈증을 만드신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게 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배고프게 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먹이신다. 그분은 비우신다. 그리고 채우신다. 그분은 결코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

4. 나는 당신이 피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언제고 도망갈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안다 — 그분께서 당신의 거짓 피난처를 부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피난처를 찾아 그분께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거짓 피난처라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수기 전까지 그것을 결코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이사야 28:14-20). 주께서 이 사마리아 매춘부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그분은 그녀의 종교적 피난처를 부숴버리셨다(19-24 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 복음 4:25-30)

5. 만약 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신뢰하게 될 것이라면, 그분은 당신에게 당신 안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여야 한다.

구원은 계시로 인하여 온다. 당신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시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그분을 알 수 없다(고린도후서 4:4-6; 갈라디아서 1:15-16). — “여자가 가로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 “내가 그로라”

그분께서 땅 위에서 행보하셨을 때, 여기서 이 사마리아의 죄인에게 하셨던 것보다 더 분명하고 충분히 누구에게나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신 적은 결코 없었다.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주께서 이 여인에게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선포하신다(이사야 52:6). 구원자께서, “내가 그로라.”고 말씀 하셨을 때, 그분은 이 여인에게, “내가 성경이 말하는 바의 그로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믿음과 지식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오늘날과 정확

히 동일한 방법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 구원 받았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갖고 계시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 만이며, 은혜에 의해서 만이고, 믿음만을 통해서 이다.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그분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도 모든 참된 믿음의 대상이었다. 그 구약 성경의 믿는 자들이 가졌던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구속자께서 여자의 씨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브가 이해하였을 것을 안다(창세기 3:15). 아벨은 피의 속량에 대하여 알았다(창세기 4 장). 아브라함은 구속자께서 하나님의 성육신일 것을 알았다(창세기 22:8). 다윗은 용서가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자의 피의 속량을 통하여 확실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였다(시편 22; 32, 51). 에녹은 주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기도 하였다(유다서 14). 욥조차도 영감의 책에 기록된 첫 번째 책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묘사하고 있고 종말에 있을 부활에 대하여 말한다(욥기 19:25-27). 이사야는 죄인의 대속자가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며, 그분의 구속과 은혜의 역사는 택함 받은 죄인들의 구원에 효험이 분명히 있음을 이해하였다(이사야 7:14; 9:6-9; 52:13-53:12).

수 많은 다른 자료들이 주어질 수 있다. 이것들은 실로 오직 몇 개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임의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 요지를 논쟁의 여지가 없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구약 성경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효험 있고, 전능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에 오르시고, 통치하는 구원자로 알고 신뢰하였다.

성경을 무심코 읽는 사람에게 조차도 모세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

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하였고 그 안에서 기뻐하였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 하나님의 주권 (시편 114:3; 135:6; 다니엘 4:35-37; 이사야 46:9-11)
- 완전한 타락 (시편 14)
- 무조건적 택정 (시편 65:4; 사무엘하 23:5)
- 제한적 속량 (이사야 53:8-11)
-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시편 65:4; 110:3)
- 성도들의 인내 (시편 23:6)

한 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그 성도들에게 초자연적 계시와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 믿음을 주셨다. 말할 필요 없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모세의 시대만큼 욥의 시대에 충만하지 않았거나, 말라기의 시대만큼 모세의 시대에 충만하지 않았고, 침례자 요한의 시대만큼 말라기의 시대에 충만하지 않았으며, 바울의 시대만큼 침례자 요한의 시대에 충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보여주었던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이나,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을 다룸에 있어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수준을 결코 체험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정해야 하겠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분을 알았고, 경배하였으며, 신뢰하였다(요한복음 5:39). —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 인간 육신 안에 있는 위대한 “나로다”임을 선포하고 계셨다. 이 26 절의 영어 번역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주님의 말씀인, “나로다.”를 번역함에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해야 했다. Young's Literal Translation 은 요한복음 4:26 을,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다.’”라고 번역한다. “나로다”는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삼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였던 구약의 이름이었다. 이는 어떤 성경도 그분 자신을 먼저 물에 잠기지 않고 기록할 수 없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공황이 필요한 한 죄인 앞에서 서서 스스로 “나로다!”임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안에서 열네 번 이상 이 주장을 하셨다. 열네 번 아무에게도 아닌 하나님께만 속한 이 직분을 그분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취하셨다(4:26; 6:20; 8:24, 28, 58; 13:19; 18:5). 그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6:35),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9:5), “나는 문이다”(10:7, 9), “나는 선한 목자다”(10:11, 1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나는 포도나무다”(15:1, 5)고 말씀 하셨다.

이 이름, “나로다”는 그가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선포다! 그분은 자신을 이 죄인에게 성경이 말씀하신 한 분, 그리고 인간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알려주셨다.

우리 주께서 “내가 그로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이 여인에게 그

분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계셨다. 메시아란 말은 “기름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정확히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들은 모두 메시아가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고, 택함 받고, 분별되며, 거룩하게 된 사람이며, 그 — 선지자, 대제사장, 왕 — 안에서 모든 구약의 거룩하게 약속된 일들이 성취될 것임을 기대하였다. 주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그가 그 사람이며,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사람: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신명기 18:18),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모든 우리 적들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통치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심을 선포하셨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람, 갈보리에서 죽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 그 사람, 지금 영광 가운데 앉은 사람, 세상의 구원자인 이 사람이 당신과 나에게 말씀한다. — “내가 그로라!” — 성경이 그에 대하여 말씀하는 분이다. —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다. — 그분 나로다. — 그리스도. — 메시아. — 이스라엘의 구원!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사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9)

## 32 장. 구원 받은 수가성의 죄인—요한복음 4:27-30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27-30)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 “이 때에.” 무슨 때인가? 요한은 그 말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분 자신에 대한 우리 주의 계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분은 그녀의 통행을 가로지르셨다. 그분은 그녀의 혼에 관심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녀의 죄를 드러내셨다. 그분은 그녀 자신에게 그녀를 드러내셨다. 그분은 그녀의 거짓된 피난처를 파괴하셨다. 그분은 그녀에게 그분 자신을 이제 막 계시하셨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26 절).

그리고, 27 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려진 슬프고도 슬픈 그림을 본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공훈의 임무로 사마리아에 오셨다. 선한 목자께서 그분의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하나를 이제 막 찾으셨다.

그분은 나쁜 평판의 여인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그녀를 변화시켰다.

## 충격 받은 제자들

제자들은 약간의 음식물을 사러 멀리 있었다. 그들은 주 예수와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였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들이 현장에 와서 주 예수께서 공공 장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본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즉시 “이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분의 행동을 그들의 잣대와 판단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후안무치 한가!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반적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기 의와 율법의 종교와 사람이 발명한 모든 금기의 수의보다 더 흔들기 어려운 것은 없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려 하는 많은 관습과 전통과 도덕적 규범을 발명한다. 이것이 정확히 이 제자들이 여기서 행했던 것들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런 행위와 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고 잘 알려진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히 여겼다. 그들의 율법(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은, “자신의 아내라 할 지라도, 그의 이웃의 아내와는 더욱이, 여자와 대화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그들의 종교 교사들은, “남자가 여자와 말할 때, 자신에게 악의 원인이 되고, 율법의 말씀을 그치게 하고, 마침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 이것은 만약 대화가 공개적인 곳이나, 여관이나, 길거리에서 벌어진다면 매우 악한 것이라고 특별히 생각되었다. — 이것이 그들의 종교적 전통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남자는 아무도 길거리에서 아무 여자와, 다른 남자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아내조차와도 말하지 말도록 하라.”

이 제자들은 그들이 본 것이 어떤 악한 것이었다고 추측하였다. 그들의 “도덕적 강직함”이 그들을 그런 것에 민감하게 만들었다. 전도자(교사, 랍비, 학자, 율법사)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말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질색이었다. John Gill 은, “이것은 학자에게 흠(이라고 여겨지는)이 되는 여섯 가지 사항 중 하나, ‘길거리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비록 자기 아내, 혹은 자신의 자매 혹은 딸이라 할 지라도 길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인이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나쁜 상황을 그들의 눈에 더 나빠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었다.”(실언을 하는 것으로 결코 알려지지 않았던 베드로조차도 공개적으로 주께 묻지 않았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혹은 왜 그 여자와 말을 하십니까?”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말했다: —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하자.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가능한 가장 좋은 가설을 두려 한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안다고 결코 추측하지 말라. 그들은 당신만큼 상당히 오해 받지 않을

것이다. John Trapp 은 그것을, “모든 나쁜 생각과 불길한 추측은 태동 때에 억제되고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7:1-2 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것의 길고 짧음은 이것이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 — 사랑은 의심스럽지 않다. 사랑은 스스로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종교와 자기 의는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만들지 않고 추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사랑은 최선을 소망하며, 최선을 믿고, 최선을 말한다.

## 임무 완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28-30)

주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분은 언제나 성취하신다! 그분은 가련한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셨고, 그것은 이루어졌다.

제자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발견하였을 때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 분명하다. 우물에 왔던 이 가련한 죄인은 아담의 타락한 자손이었다. 그녀는 둘째 아담 안에서 기뻐하는 성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우물에 와서 일시적으로 그녀의 갈증을 해소시킬 물인,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염려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혼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우물처럼 솟아나는 생명의 물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녀는 죄지은 음탕함과, 죄의식으로 맞고, 부끄러움으로 그 성에서 나왔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 받고, 의롭게 되고, 분별되어 집으로 갔다. 그녀는 타락하여 내려왔다. 그녀는 신성하게 되어 돌아갔다. 그녀는 저주 받아 나왔다. 그녀는 자유롭게 되어 돌아갔다. 나는 그녀의 찬양을 거의 들을 수 있다...

이제 나는 자유롭게, 정죄함이 없네!

예수께서 그의 완전한 구원을 내게 주셨네.

“내게로 오라.” 그분의 달콤한 부름을 들었네;

그리고 이제 그가 나를 구원하였네,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녀는 남편들이 아닌 다섯 남편을 갖고 수가 성에서 나왔다. 그녀는 실로 믿음직하고 참된 남편인 한 분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갔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에게 그녀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회심의 증거들은 분명하다.

##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회심은 언제나 새로 태어남의 결과, 은혜의 열매이다.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마태복음 18:3; 예레미야 31:19; 사도행전 3:19).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일어나는 크고, 엄청난 변화, 급진적인 변화, 그러나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아이가 엄마의 태에서 나왔을 때, 빛을 보기 전에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던 눈, 거의 37도에 달하는 작고 따듯한 공간 속

에서 기분 좋게 쉬고 있다가, 차디찬 세상으로 나와서 15 도에서 20 도나 더 차가운 온도로 적응해야 하는 몸, 그를 통하여 생명의 피가 언제나 흘렀던 것이 잘리고, 하나님에 의해 설계에 따라 모태 속에서 열려 있어야 했던 어린 아이의 심장 속에 있던 특정한 밸브가 스스로 영원히 닫혀져야 하며, 그래서 그 심장을 통하여 흐르는 사용된 피와 신선한 피가 섞이지 않으며, 폐는 공기로 가득 차고 평생의 기능을 시작한다. 수십 가지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코, 목구멍, 소화기관, 심지어 피부도 큰 변화를 겪으며, 그 모든 것이 만약 아이가 살아야 하고 건강하게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다.

아이의 출생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듭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으로 난 사람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다. 이 변화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있다.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이 구절들에서 계시된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참된 회심의 네 가지 표시들이다[1].

## 공개적인 고백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있는 첫 번째 것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아기를 받은 후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매우 첫 번째 것은 아기를 울도록 하기 위하여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다. 아이의 울음은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거듭 남에 있어서 생명의 첫 번째 표시는, 혼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첫 번째 표시는 새 생명에 대한 울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한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외침,” 혹은 “기도”라고

부른다. 사람들 앞에서 이 표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자의 공개적 고백이다.

당신은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듣지 않는가? 그녀는 이웃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구원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은 선택적인 것이라고 결코 상상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고백해야 하며, 믿는 자들은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마태복음 10:32-33; 로마서 10:9-10). 남의 눈을 꺼리는 제자들은 언제나 의심스러운 제자들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자의 고백은 믿는 자의 침례의 확고한 의식으로 한번 행해진다(로마서 6:1-6).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또한 입으로 하는 것이다. 충성의 표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 속에서 은혜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체험한 은혜, 계시된 그리스도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든다(요한일서 4:19).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분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뻐한다. 우리는 남편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말하고, 할머니가 그 손주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

## 긍정적인 변화

이 여인의 회심은 말로만 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상이었다.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행해지고 힘 입었다. 28 절을 읽어보라. —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마음 안에 더 나은 것을 가졌고 관심해야 할 더 큰 관심 거리들을 가졌다. 이제 그녀의 혼 안에 생명의 물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에 분명하여졌고, 방금 전까지 그녀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에 분명하게 되었다. Henry Mahan 목사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녀는 한 가지 것만을 그녀의 생각 속에 가지고 우물에 왔다 — 물 한 동이.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생명 주는 물을 맛 보았고 그녀가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와야 했던 그 물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물동이조차도 버렸다. 일단 마음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분이 주와 구원자로 계시되고,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면, 이 세상의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신약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동일한 것을 본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그물을 버렸고, 그들의 일도 버렸고, 그들의 친구들을 떠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 따라서, 역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교회와 왕국과 영광을 위하여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 받은 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므로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어야 한다(골로새서 3:1-3).

**개인적인 염려**

여기에 이 여인의 회심에 대한 다른 표시가 있다. 일단 그녀가 구원자를 만났으면, 그녀는 그분을 알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위한 개인적인 염려를 보였다. 그녀의 지금까지의 생애에 이르도록,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였다. 전에는 많은 것을 알았고, 그것들만 너무 잘 알았는데,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선한 것을 알지 않았다. 그녀는 많은 쾌락을 주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선한 것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이용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이용하였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혼을 염려하였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내가 구원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어야 했다. 나는 그를 알게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읽게 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안드레와 빌립은, 그들이 직접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으며 그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세리인 레위(마태)는 일단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를 하였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여 그분과 함께 앉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이 그분을 역시 잘 알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일단 회심하자, 그의 육신에 관련된 형제들과 인척들에 대하여 크게 염려함을 나타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자를 알기 원하였다. 그런 것은 참된 은혜의 본성이다.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알기 원한다.

1866년, Scottish Bible Society 에서 종교서적 행상인(성경과 책 배포자)으로 중국에서 일하던 Robert J. Thomas 라 부르는 Welshman 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국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는 큰 부담이 있었다. 그는 General Sherman 호라는 미국 배에 올랐고, 중국에서 한국의 북부 지방의 대도시인 평양으로 향해하였다. 배가 항구에 접근하였을 때, 한국인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고 해상에서 불탔다. 선원과 모든 승객들이 살해당했다. 배와 배의 모든 것이 가라 앉고 있었을 때, Robert Thomas 는 해변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다. 그는 양팔에 책을 가득 들고 바다에서 해변가로 겨우 도달하였다. 그것들은 성경책이었다. 그들이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을 때, 그는 성경을 해변의 한국인들의 손에 밀쳐내었다.

왜? 그는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은혜를 맛 보았다. Robert J. Thomas 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압도와 생을 통제하는 불을 그의 혼 안에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5:10-15 에서 기술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

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 열정적인 외침

이 구원 받은 죄인은 열정적인 외침을 갖고 그녀가 알았던 사람들에게 갔다. —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의 외침에 대하여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은 없다. 그녀는 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라.”고 하였으며, 그들을 구원자께로 데려갔다. —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것은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의 관심사이다. 구원 받은 죄인들은 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한다(시편 46:8; 이사야 1:18).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본을 따르며(마태복음 11:28-30; 계시록 22:17),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자께로 부른다. 오라, 아 죄인아, 와서 구원자께 어서 오라! Joseph Hart 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오라, 가련하고 사악한 너 죄인들아,  
 나약하고 상처입고, 병들고 상처 입었으니;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려 서 계시네,  
 권능이 함께한 충만한 동정으로:  
 그분은 할 수 있네, 그분은 할 수 있네,  
 그분은 뜻하시네; 더이상 의심할 바 없네.

오라, 너 궁핍한 자여, 와서 받으라,  
하나님의 대가 없는 풍성, 영화롭게 하라;  
참 믿음과 참 회개,  
당신 가까이 가까이에 가져오는 모든 은혜.  
금전이 없이, 금전이 없이,  
예수께 와서 사라.

오라, 너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여,  
타락으로 상처받고 부러졌구나;  
더 나아질 때까지 산다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네:  
의가 아니라, 의가 아니라,  
죄인들을 예수께서 부르시려 오셨네.

양심이 너를 게으르게 하지 마라,  
합당함에 속한 것으로 어리석은 꿈꾸지 마라;  
그가 요구하는 모든 합당함은  
그분에 대한 너의 필요를 느끼게 함이라;  
그가 너에게 주는 이것, 그가 너에게 주는 이것;  
그것은 그 영의 부활하는 들보라.

주여! 성육신 하나님, 승천하셨네,  
그의 피의 공로를 주장하니;  
그분께 의지하라, 전적으로 의지하라,

다른 것 신뢰함이 방해할 것 없게 하라.  
예수 외에 아무도, 예수 외에 아무도,  
속절 없는 죄인들에게 선한 것 할 수 없네.

나는 살아 예수께로 가겠네,  
그가 나를 그분의 팔 안으로 안으실 것이라.  
내 사랑하는 구원자의 팔 안에,  
아 그곳은 만만의 매력이 있다네!”

그리스도께 와서 영원히 살라! 아 하나님의 영이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니, 당신의 전능한 은혜로 인함  
이라.

### 33 장. 두 사람의 위대한 혼의 승리지—요한복음 4:30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30)

오늘날 우리는 혼의 승리에 대하여 많이 듣지 못한다. 사실상, 그 주제에 대하여 복음 전도자가 하는 설교를 전에 들은 기억이 없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혼의 승리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며 혼 승리에 속한 자를 무지한 아르메니아 주의자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잠언 11:30 을 읽어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4 장에서 우리에게 혼의 승리지에 대한 아름답고 교훈적인 그림이 주어진다. 실제로, 우리는 이 장에서 두 위대한 혼의 승리지자들이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 위대한 혼의 승리지자로 오셨으며, 잃어버린 혼을 찾고 계셨다. 그리고, 그 분이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죄인은 즉각적으로 스스로가 혼의 승리지자가 되었다. 보여 주겠다.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27-30).

당신은 사람들의 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들의 구원에 흥미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고자 하는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였다면, 만약 주께서 은혜롭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였다면, 자신의 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다면, 나는 당신의 대답이 “그렇다”임을 안다.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가장 감당하기 힘든 대적들이 구원자가 필요함을 당신은 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이며, 당신은 그것을 안다.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그렇지 않은가? 잃어버린 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데려가는 것이 당신의 가장 높은 명예이고 가장 구별되는 특권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이것을 갈망하지 않는 어떤 믿는 자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당신을 방해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큰 염려이다. 당신은 사람의 혼에 쓸모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일치되는 방법 안에 있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하나님을 모욕스럽게 만들 어떤 말이나 행위를 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의 승리에 대하여 당신이 들었던 모든 것은 혼의 승리자들이 아닌 파괴자들인 의지 경배자들로부터 왔다.

얼마나 많은 때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가? “옆집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 “내 친구가 복음 듣기를 좋아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 “나의 수리공에게 어떻게 내가 사역할 수 있겠는가?” — “나의 아

내나, 남편, 아들 혹은 딸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는가?”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이 다른 죄인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특권이고 책무이다.

## 생명의 나무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혼의 승리자다(잠언 11:28, 30). 혹자는 생각할 것이다. “택정함과 예정하심과 제한적 속량과 신성한 주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상한 말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언 11:28, 30).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번성하는 가지”(열매 가지 — 요한복음 15 장)와 “생명의 나무”로 묘사된다. 그의 삶의 전 과정 가운데, — 그의 기도, 가르침, 본보기, 영향 — 그의 삶의 전 과정에서, 믿는 자는 “생명 나무”이다. 동산 가운데 있던 생명 나무와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 광야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 열매가 풍성한 나무(계시록 22:2; 잠언 10:11, 31, 32).
- 영양분이 풍성한 나무(계시록 2:7; 잠언 10:21).
- 치유하는 나무(잠언 12:18; 15:4).

물을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스스로에게 잃어버린 혼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기뻐한다. Charles Bridges 는, “그분만, 자신의 피로 그들을 산 분만 그들을 자신에게 승리의 대가로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주권적인 능력과 전지와, 그분의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사망한 죄인들을 생명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 자신 뿐이다. 그분은 그분이 뜻하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회개는 오직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하지만, 큰 은혜와 동정스런 긍휼 가운데 그분 자신에게 잃어버린 죄인들을 이끄시기 위하여 구원 받은 죄인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택하신다(에베소서 3:8). 이것이 실로 긍휼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셨다. 지혜자가 여기 선포한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언 11:30).

이것은 우리 주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위임이다(마태복음 28:19-20).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행진하도록 해 주셨다. 그것들은 지극히 분명하다. 이 명령들은 하나의 단위로 모든 복음주의 교회와 개인으로서 각각의 믿는 자를 위함이다. 인간의 혼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 주의 일에 대하여 언제나 함께 하자. 의로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살고, 남편 앞에서 온유와 온건함으로, 자신의 남편으로 그를 존경함으로 잃어버린 남편을 얻기를 추구하여야 한다(베드로전서 3:1-2). 믿는 이웃은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행위로 그 믿지 않는 이웃을 얻기

를 구한다(야고보서 5:19-20).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사는 자는” 없다(로마서 14:7).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든 혹은 악하게든 영향을 준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 그들의 죽을 혼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영향을 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기도인데, 매번 내가 다른 영원히 매인 죄인의 집에 갈 때마다, 혹은 다른 사람의 혼과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곧 만나야 할 것이다: — “주 하나님, 이 가정에, 혹은 이 사람에게 선과 영원한 선을 위하여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은혜를 주소서.”

만약 우리가 실로 구원자에게 혼을 얻는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은, 혼은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의 의지는 반드시 정복되어야 한다. 그들의 편견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각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한 마디로, 지혜인분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나, 그러나 그분이 없이는 모두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도, 혼을 얻는 이 역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위대한 명예이고, 참여하기에 높은 특권이다. 어떤 역사도 구원자에게 혼을 얻게 하는 지혜자에게 속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다니엘 12:3). 얻어진 모든 혼은 구원자의 왕관을 위한 보석이며, 그분의 성전의 다듬어진 돌이며, 하늘 가운데 기쁨을 위한

이유이며, 그분의 혼의 수고의 희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혼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이기적인 배은망덕의 극치가 될 것이다(고린도전서 9:20-22; 10:31-33).

## 그리스도 혼의 승리자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앞에 이 장에서 위대하고 지혜로운 혼의 승자로서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4 절에서, “사마리아로 통행 하여야 하겠는지라.”를 본다. 왜 그분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했는가? 그 답은 32 절과 33 절에서 주어진다. —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 34 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숨겨있는 기술과, 은혜로운 인내와, 무한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로, 하나의 혼을 찾고 계심을 본다. 비밀스럽게, 어떤 과시함도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분은 조용하고 끈기 있게 그분의 아버지의 일,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일을 행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원자께서 그들을 찾으셨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잊어버린듯 하였다. 그런 망각에 죄의식을 갖지 말자(이사야 51:1; 고린도전서 6:9-11). 나도 역시, 오 주여, 당신께서 이 죄인과 이야기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은혜 안에서 어떤 죄인, 특별히 이 죄인을 선택하셨음에 이상하다. 아, 당신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당신의 보혈과 완전한 의와 견줄것 없는 은혜로 구원하려 여기 오신 것을 얼마나 우리가 이상히 여기는지!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과 전형적인 혼의 승자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신다. 만약 우리가 혼을 얻으려 한다면, 혼 승리자의 주로부터 그 기술의 지혜를 배우자. 이 궁핍한 죄인의 구원을 찾으셨던 우리 주께서 하신 다섯 가지 사항을 보여주겠다. 만약 우리가 잃어버린 죄인들 얻음을 주께 드리는 이 복된 일에 쓸모가 있게 되려면, 그분의 본을 따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도록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1. 그분은 죄인과 친구가 되셨다. 그분은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 그녀를 친구로 여기셨다(4-6 절).**

주 예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분 자신이 죄인들의 친구임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 외로운 자, 비통한 자, 타락한 자, 멸망하는 자, 궁핍한 자, 절망적인 자에게 가셨고, 그들 사이에서 친구로 행보하셨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은 가장 부정한 사람들을 그분의 무리 가운데 완전히 안심하게 만드셨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친구이시다.

**2. 주 예수께서 그녀에게 질문, 그녀가 확실하게 관심을 가질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심으로 대화 안으로 이 죄인을 끌어들이셨다.**

그녀는 물주전자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우물에 왔었다. 따라서, 그녀가 물에 관심이 있었음을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

께서 그녀가 물에 대하여 말하도록 하셨다. 그분은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다.

이것을 제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조금 재미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녀는 궁핍한 자였다. 그분은 그녀를 도우러 오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 하기를 요청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었으며, 그로써 자신을 그녀를 직접 접촉하게 하셨고, 그녀가 그분께 관심을 갖도록 하셨다. 그녀는 그녀가 말하게 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그 목소리는 그들 자신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끌어들이셨다. 그분은 그녀의 호기심을 일으키셨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 “이 사람이 아주 재미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순수한가.”

### 3. 구원자께서 그 여인에게 합당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려 하는 것은 완전히 쓸모 없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녀가 알아 차렸던 것과 다른 것을 그분의 마음에 갖고 계셨으며, 대화로 그녀의 관심을 이끌므로 해결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녀에게 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그분께 거듭남에 대하여 물었다. 그래서 구원자께서 새생명, 새로운 시작에 대하여 말씀하셨다(요한복음 3:3-7). 봉사로 태어난 사람에게 그분은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알게 하셨다(요한복음 9:5).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분은 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녀의 필요, 그녀가 가졌다

고 (어떤 의미에서) 알았던 필요들—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13-14 절).

#### 4. 또, 주 예수께서 복음에 대하여 강조하셨음을 주지하라.

그렇다, 그분은 죄를 다루셨다. 그렇다, 그분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걸돌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른 문제들로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녀가 그분을 그들의 다른 종교적 종파나 교리나 실행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에 끌어들이도록 결코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명의 물로 그녀와 대화하게 하셨다.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 물 — 생명주는 물 — 새롭게 하는 물 — 깨끗하게 하는 물 — 갈증을 푸는 물 — 영원한 물.

#### 5. 그리고, 주께서 이 여인이 결정하도록 하셨다.

그녀가 마침내 반드시 오실 것이라 배웠던 분인 메시아에 대한 주제로 왔을 때, 주께서는, “내가 그로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으로, 그녀는 그분의 주장을 믿어야 할지 부정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시에 엿드리든지 아니면 그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어야 했다 (요한일서 5:7-13).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여인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었다. 그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다.

#### 혼의 다른 승자

일단 주께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나자, 이 구원 받은 죄인은 혼의

승리자로서 지혜의 역사에 대하여 열중하였다(요한복음 4:28-30).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구원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 성의 사람들에게 갔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느 남편을 불러올지 그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모두를 불렀다. 분명 그들은 군중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는 물동이를 버렸다. 그녀는 간단히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고, 더 중요한 어떤 것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수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죄인들을 구원자께 부르러 갔다. 나는 거의 그녀의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외침을 들을 수 있다. — “와서 이 사람을 보라.” — “내가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 와서 보라!

그녀는 구원자께서 그녀에게 하셨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것은 증언이라고 부른다(마가복음 5:18-20).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였다. 어떻게 그가 그녀에게 그녀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녀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은혜롭게

그녀를 받았는지.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 간증은 매우 간단하고, 솔직하고, 분명하였다. — 그분께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당신도 받으실 것이다!

## Charlotte Elliott

150년 이상 전, 영국에 한 여자가 있었으며, 그녀의 생애 전체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녀는 거룩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그녀의 오빠는 전도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33세가 되기 전에 지체장애자가 되었고, 그녀는 매우 분노하였다. 그녀는 하나님께 화를 냈고 그녀의 가족에 분노가 가득하여 적대적이었다.

어느날, 교회 예배에 앉아 있었고, 분노와 절망, 투쟁과 두려움의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한 채, 그녀는 한 매우 나이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 예배의 중간 쯤에 설교자가 멈추어서 그녀를 손가락으로 똑바로 가리키는 것 같았고, 그리고, “거기 아가씨,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 당신은 지금 바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하였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활에서 쏘아진 날카로운 화살이었다. 그녀는 복음을 믿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의 혼에 흘러내렸다. 그날 밤, Charlotte Elliott은 이 글을 썼다…

“나 같이 한 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자,  
하지만 당신의 피가 나를 위해 뿌려졌네,  
그리고 당신께 나를 오라 하시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내가 갑니다.

나 같이 기다리지 않는 자,  
나의 혼에서 한 질은 흠을 없애시려,  
당신의 피가 모든 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당신께,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내가 갑니다.

나 같이 버려졌지만,  
많은 투쟁, 많은 의심을 가진,  
투쟁과 두려움들, 안과 밖에,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내가 갑니다.

나 같이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먼 자에게, —  
마음의 시력과 부요와 치유를,  
그렇네, 내 모든 필요 당신 안에서 찾았네, —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내가 갑니다.

나 같은 자, 당신께서 받으시고,  
기꺼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안도케 하실 것을;  
당신께서 약속하시니 내가 믿고,  
오 하나님의 어린 양께 내가 갑니다.”

## 참조:

1.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2.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 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3.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4.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줄 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5.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 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6.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 34 장. 모든 보석 중 가장 귀한 보석—요한복음 4:31-34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31-34)

모든 보석 중 가장 희귀한 것은 마음의 평온의 보석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 그러나 거의, 아주 거의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진짜 영속하는 평온과 만족을 갖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줄 것인가? 만약 당신이 정직하게, “나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줄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평온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영원히 피조된 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우물에서 마시는 자는 모두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빵을 먹는 자는 모두 더 많은 빵을 고평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혼의 갈증을 해소할 물이 있는 우물이 있다. 한 번만 먹으며 우리 죽지 않을 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하게 될 빵이 있다.

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오늘 그 빵을 먹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실 것과, 당신의 혼 가운데 만족함을 찾게 되며, 당신의 대화가 탐심이 없게 되며, 당신이 “당신이 소유한 것과 같은 것으로 만족하게”(히

브리서 13:5) 되기를 기도한다. 이 영감의 몇 구절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보석들 중에서 가장 희귀한 것을 보여 주신다. 우리의 본으로 우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가 여기서 우리에게 평온의 비밀, 만족의 비밀을 가르치신다.

제자들은 음식물을 사러 갔었다. 그들이 마을에서 돌아와서 주께서 드시게 하려 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혼의 만족과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찾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만일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 당신 자신의 양심에 반역하는 삶, 권능자에게 저항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께 엎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당신은 결코 평강과 만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여전히 당신의 혼 안에 평강과 위로와 만족의 이런 문제로 분투하고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당신의 반역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완전한 평강, 온전한 위로, 그리고 전적인 만족을 줄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는 한,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말해 두겠다. —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섬겨야 할 계획과 해야 할 일일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신이 위로와 평강과 만족을 찾을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을 행하면 당신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 죄인을 위한 격려

여기 죄인들을 위한 격려가 있다. 주 예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만약 당신의 혼을 염려한다면 당신을 위하여 더 위로가 되거나,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훈과 은혜를 갈망한다면 당신에게 더 격려가 되는 말을 상상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잃어버린 죄인의 구원을 구해오셨다. 일단 그분이 찾던 것을 얻으시면, 그분은, “너는 이 구원 받은 죄인을 보는가? 이는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는 내가 만족하게 되는 음식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죄인들의 구원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임을 선포하신다. —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한 심판자이고, 진노 안에서 기뻐하는 폭군이며, 인간의 혼의 파괴에 경주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어떤 것도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사실 심판은 그분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낮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여야 하고 하실 것임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긍휼 가운데 기뻐하신다!”

주 예수는 하나님을 긍휼이 많은 분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기 오시지 않았다. 그분이 오심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엄격한 의와 공의를 유지하는 한편 죄인들에게 긍휼을 보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롭게 되시게 하기 위하여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하려 오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기 때문이다(요한복음 3:16; 로마서 5:6-8; 요한일서 3:16; 4:9-10). John Kent 는 그것을 그의 위대한 찬송 중 하나에 넣었다…

“여호와와 사랑을 죄인을 향한 불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네,  
보좌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 고통 받는 사람 되셨네.

그가 인내하신 죽음도 그가 견디신 모든 고통도 아니라네,  
그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나눔은 하나님께서 전부터 사랑하심  
이라.

그가 택하신 자의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  
라;  
그분의 긍휼이 그리 치르고 사신 혼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리.

그분의 가슴의 따뜻한 애정 그 택하신 자에게 타오르네;  
또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안식하시리니, 그분의 맹세로 인함이 아니  
라.

아직 그의 옛 맹세를 확증하려나, 하늘에서 그의 경배를 보라;  
맹렬한 비탄 없으나, 말할 수 없는 사랑, 이제 그의 자녀를 기다리  
네.

곧 나의 영 깨달으리 그 성스럽고 기쁜 장면을,  
그의 모든 성도, 하늘 위에 있을 때, 그 보좌를 에워쌀 것이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면, 침입  
자로서가 아니라, 환영받는 손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궁핍의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문을 여셨다. 당신이 만약 하나  
님의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하늘 보좌를 얻는다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  
을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온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  
뢰한다면,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이 하나  
님의 계명을 어겼다가, 그분의 계획을 전보하였다거나, 혹은 미  
리 예정하심과 택정하심을 부인하는 것을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  
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에 택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계수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영으로 당신을 부르셨다. 당신은 갈보리에서 그리  
스도의 피로 산 바 되었다. 만약 당신이 구원 받았다면, 그것은 하  
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결코 뒤엎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전에 겪었던 가장 어리석은 두려움들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나 택정 받은 자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속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기를 기뻐한다. 택정 하심의 사랑, 절대적인 예정하심, 효험 있는 속량,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는 모두 위대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복음의 가르침이며, 성경 안에서 분명히 계시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공홀에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많은 자들에 의해 오해되고 악용된다. 만약 이런 위대한 진리들이 영광의 하나님, 삼일의 여호와께서 “공홀 가운데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모순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공홀 가운데 기뻐하시기” 때문에 엄밀히 사실이다.

하나님의 책이 이것에 관하여 강조하여 폭넓게 가르치시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분명히 하라.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영원 전부터 갈망하셨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원한다면, 그분이 당신을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그분에 대하여 굶주렸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생명의 떡이다. 만약 당신이 그분에 대하여 갈급하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명수의 샘이다. 그분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장소에서,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백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죄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 일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위하여히이 세상에 오셨다(마태복음 1:21; 9:13; 마가복음 2:17; 누가복음 5:32; 디모테전서 1:15).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면, 그것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이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한 자격이 있다.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지 아닌지에 대해 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방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해야 하는지. 환자는 어떤 의사에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가련하고 굶주린 사람은 무료 급식소로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른 사람은 샘솟는 우물 앞에서 그 우물 위에 그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왜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함에 망설여야 하는가?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이유일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죄인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그 안에서 그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체험하는 것임을 선포하신다.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고 음료이다. 옛 영원 전부터, 그분은 몸이 그분을 위하여 예비될 오늘날까지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속하시기를 바라셨다.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그분은 진지한 자원자로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히브리서 10:5-9). 그분이 이 세상을 행보하시는 동안, 언제나 그분의 아버지의 일,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는 일로 분주하셨다.

이것이 그분에 대하여 주장되었다. “이 사람이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주장이 사실이다! 그분이 백부장의 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지 몇 마디로, 혹은 그분의 뜻의 실행으로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대신에, 그분이 그분의 손을 더러운 문둥병자 위에 얹으시고 우리 중 한 사람이 되고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시고, 그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려 하셨다. 그분이 여기 오심으로 그가 죄로 되셨고,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인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영광에 데려가실 수 있었다. 당신은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의적인 구원자, 무력하고, 파괴되고, 길 잃고, 멸망하고, 저주 받고, 혐오스런 죄인들의 자의적인 구원자이다. 그분의 혼의 기쁨은 죄인들의 구원이다.

하지만, 그 위대한 명예스런 역사, 모든 것이 만들어진 역사, 죄인의 대속물자로 고난과 사망의 그분의 역사, 우리 혼이 효험있게 구속되었던 역사는 동시에 그분이 가장 큰 비탄과 고통이며 그분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었다. 이것이 그가 침례 받아야 했던 침례이다. 그가 그 안으로 잠겨질 때까지 그는 제한되었다. 이것은 그가 마셔야 했던 쓴 잔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마시기를 갈망했다.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누가복음 22:15). 그분의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조차도, 우리의 복된 그리스도는 그 앞에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은 그분의 거룩한 혼을 지탱하고 만족시켰으며, 궁핍한 죄인들을 위하여 무한한 사랑으로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분 앞에 놓였던 그 기쁨은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 가운데 그분의 혼의 만족이었으며 만족이다(이사야 53:9-11; 히브리서 12:2).

지금 그분은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 자리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이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으려 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다. 당신의 죄와 마음의 굳음을 바라보는 것은 당신을 절망으로 몰고 갈 뿐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 안에 녹아내리라(스가랴 12:10; 이사야 45:22).

평강, 기쁨, 위로, 그리고 만족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인들에게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다.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요한일서 3:23). 요한복음 4:31-34 가 첫째로 또 최우선적으로 죄인들을 위한 격려로 선다.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게 되시고 위로로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역사이며 아들 하나님의 기쁨이다.

## 성도들을 위한 본

여기 우리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의 본을 본다. 우리 주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 앞에 따라가야 할 하나의 본을 두셨다. 인간으로서 땅 위에서 위로와 만족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는 그 것이다.

만약 당신과 내가 낙심과 실패와 의혹과 두려움과 약점과 일반적인 무익한 느낌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된 다섯 가지 사항들 가운데 하나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과 만족을 갖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런 영역들 안에서 우리 주를 따라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 **1.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그분의 뜻을 복종하게 만드셨다.**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고, 그분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실 것입니다.”(누가복음 22:42).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슬픔은 자기 의지의 뿌리로부터 솟아나온다. 만약 나의 의지가 온전하게 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였다면, 나의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하였을 것이다. 만약 내가 고통을 향하여 그렇게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고통은 나의 혼에 놀라운 위로를 갖게 한다. 만약 내가 그렇게 탐욕스러지 않았다면, 손실은 나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의 방법을 몹시 갈망하지 않았다면, 쓰라림은 놀라운 달콤함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 **2.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왜 그분이 여기 계셔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큰 평강과 위로 가운데 사셨다.**

왜 아버지께서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긴급한 느낌으로 사셨고, 큰 책임감으로 압박받았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위임을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가지 사명으로 오셨다. 그분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 오셨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 오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분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일이다. 그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요한복음 20:21-23; 사도행전 1:8; 26:13-18).

### 3.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자의 위로와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발견되었다.

그분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그분은, “나는 항상 그를 기뻐하게 하는 것을 행한다.”(요한복음 8:29)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한다고 결코 만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논쟁함으로 평강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양식, 그분의 혼의 음식을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찾으셨다.

사람들이 “의기소침”이라 부르는 것의 아주 대다수가 의미 있는 책임이 부족한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자신들이 의미 있는 일로 여겼던 일에 참여된 사람들, 그 손에 책임의 무게가 가득한 자들, 의기소침으로 크게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내 생애 가운데 아주 거의 알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들이 처리하도록 남겨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안다 — 영적 문제, 의기소침, 그리고 끊임없는 의구심과 두려움은 오직 그들 자신보다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압도한다. 충만한 마음과 손에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

내게 질문이 많은 사람을 찾아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겠다. 내게 의문과 두려움으로 끊임 없이 고통 당하는 사

람을 찾아주면, 내가 다른 사람의 혼에 사역함에 있어서 아무런 쓸 만한 계획이 없이 섬기는 사람을 보여 줄 것이다. 그분의 부르심에 대하여 영원히 의심하는 전도자를 찾아주면, 그가 그 일에 참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슬렁거리야 하는 사람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분의 걱정하심에 영원히 질문하는 자를 찾아주면, 그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든 않든, 그가 주를 사랑하든 않든, 내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거의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여 줄 것이다.

#### 4. 우리 구속자의 평강과 위로와 만족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그분의 인내로 왔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루나 이틀, 일 년이나 이 년 동안 할 것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것을 마치실 때까지 하도록 결정하셨다. 그분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셨다. —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세대의 마지막에 왔던 것처럼 그를 지탱하였던 이와 동일한 자신감과 만족감이었다(디모데후서 4:6-8).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 혼의 만족이 되게 하자.

#### 5. 주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그분의 뜻을 복종하도록 하셨으며, 그가 왜 여기 있는지 아셨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고, 아버지의 뜻을 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기를 인내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그분의 전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셨다(요한복음 12:27-28).

아 나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일을

마침으로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복된 구원자여, 당신의 본을 따르고, 당신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이유의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은혜를 내게 주소서(전도서 9:10; 고린도전서 10:31; 베드로전서 2:21-25). 아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양식과 나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구약의 율과 함께, 내 아버지의 뜻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히 여기게 하소서(율기 23:12). 또, 오직 그 때, 내가 이것, 모든 보석들 중 가장 귀한 보석—위로—을 가질 수 있는지요. 나의 뜻이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될 때, 그 때가 되지 않아서 나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힘써 향하는 것의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힘 쓰도록 은혜를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닮은채 깰 때, 우리가 만족할 것입니다.

## 35 장. 다른 사람이 수고한 곳에서 거둬: 다른 사람이 거두도록 수고함—요한복음 4:35-38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35-38).

여기 사명과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동기들이 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어떤 예외적인 것을 하도록 하거나, 어떤 이유로 희생을 하도록 부름을 받으며, 그들은 그 것들을 유발한 어떤 것을 확실히 갖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대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건설을 당신의 손에 맡기신 모든 것을 헌신하도록 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에게 외치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행하도록 나 자신에게 외친다.

여기 요한복음 4:35-38 에서, 우리 구원자는 모든 복음주의적이

고 전도사적인 노력을 위한 하나의 큰 동기가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때가 지금이다. 지금은 기회의 때이다. 주께서 여기서 복음을 위한 어떤 미래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자신을 복음 전파의 일에 새롭게 헌신하도록 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친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실로 그분의 증인이 되자. 구약의 다윗처럼(사도행전 13:36),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세대를 섬기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과 소명과 평생의 일이다. 주 우리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섬기도록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 근거들

첫째,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성경에서 주신 근거들을 보여주겠다. 물을 필요 없이, 복음 전도와 포교 사명에 대하여 내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근거들과 동기들이 있다. 나는 가장 두드러진 몇 가지 만에 나 자신을 한정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사려 깊고, 기도로 충만한 숙고 끝에, 이 위대한 일을 위한 일곱 가지 고귀한 근거들을 선택하였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자극 하도록 주신 일곱 가지 사항이 있다.

1. **하나님의 영광**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2. **위대한 임무** —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들을 받았다. 그 명령들은 아주 분명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거듭난 우리 각자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명령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성경을 통하여 수 차례 주어졌다. 그러나 그 명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각각은 그 강조점이 다르지만, 명령들은 동일하다. 마태복음은 주와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강조한다. —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18-20). 마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이다(마가복음 16:15-16). 누가는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위대한 임무를 제시한다(누가복음 24:44-49). 요한의 글에서, 구원자의 임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분 자신의 임무와 연계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21). 사도행전에서, 그 위대한 임무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와 왕국의 프로그램과 계획으로서 자세히 천명되었다(사도행전 1:8).

3. **하나님의 진노** —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모두 길 잃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린도후서 5:10-11).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멸망한다. 우리의 아들딸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우리의 부모들은 심판에서 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진

노 아래 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 가족에게 하듯,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동정 어린 것을 행하며, 우리의 적을 사랑하고 악의적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4. 그리스도의 사랑**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린도후서 5:14-15).

**5. 우리가 가진 기회** —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35).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일 떠맡겨진 기회로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당신은 주께서 책무를 주셨을 때, 우리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가? 그분은, “주여! 내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고 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한 그분의 임재이다. 우리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복음을 위한 외침의 문을 여는 것과 그것을 효험있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임재이다.

주님은 여기서 우화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들을 일 구고 씨를 뿌리고나서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 주는 여기서 복음의 일에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수

확이 다른 날을 위하여 있다는 관념으로 절대 수고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즉각적인 수확의 기대 속에서 그 포도밭에서 수고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씨뿌린 곳에서 추수하는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 뿌려진 씨로부터 얻은 수확의 곡식을 씨뿌린 곳에서 수확할 것이다.

때가 되어 다시 돌아 올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 빵을 물 위에 던진다. 그러나 우리가 던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던진 빵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소중한 씨를 뿌리며 아침에 나간다. 그러나 수확의 곡식을 들고 저녁에 돌아오는 기쁜 기대를 갖고 나아간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보좌 위에 임하실 때, 이 복음의 세대의 예언들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다 (레위기 26:4; 시편 126:5-6; 아모스 9:13).

**6. 은혜의 택정** — 택정과 예정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헛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확신 시킨다. 사도 바울은 종종 택정하심에 있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의 동기로 비유하였다(디모데후서 1:1, 8:12; 디도서 1:1-3).

**7. 섬김의 준귀** — 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의 큰 보화를 우리 같은 그런 질그릇에 두셨으며, 우리 같은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경이롭고, 견줄수 없고, 대가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심이 얼마나 준귀한가 (에베소서 3:8; 고린도전서 1:26-31).

상급

둘째, 36 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분의 왕국의 유익을 섬기는 자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혼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받을 샀은 사람들의 혼이다. —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테살로니가전서 2:19). 그리고 우리가 수확하는 열매는 영원하다. 우리의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은 일시적으로 중요한 수고가 아니다. 아, 아니다! 우리가 수확한 과일은 “영원한 생명에” 있다. 그렇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혼에 영원히 중요한 것이며 삼일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중요한 것이다!

## 추수자들

셋째, 우리 주께서 36-38 절에서 추수자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신다. (1.) 모든 하나님의 종은 하나이다. (2.) 우리가 씨를 심든 혹은 추수를 하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씨 뿌리는 자는 모두 어떤 수확을 하며 수확하는 자는 모두 어떤 씨 뿌리는 일을 한다. (3.) 씨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자는 한결같이 사소하다. — 하나님은 증가를 주신다!

다른 누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빚진 자로 생각한다. 내게는 죽어가는 세상이 필요한 약이 있다. 그것을 내 자신에게 갖고 있어야 한다면, 나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범죄, 불멸의 혼의 영원한 파멸에 대하여 유죄일 것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4-17).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분의 은혜로 당신 자신의 마음에 적용하기를 요구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라.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 나의 혼이여, 나를 결코 이렇게 말하지 말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예레미야 8:20). 천연적으로, 씨 뿌리는 때와 추수가 있으므로, 그것은 은혜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은, 주께서 “약속된 추수의 기한”을 주실 것임이라.(예레미야 5:24).

밀이 여물면서, 더 황금색이 되고 무거워진다. 곡식이 더 실패지고 영글어가면 갈 수록, 땅으로 더 구부러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가면서, 하늘 공간을 위하여 영글어간다. 영적 생명으로 더 채워지면 질수록, 자신의 눈은 더욱 더 낮아진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점점 더 보배롭게 되고 찬양 받으신다. 그리고 주께서 이제 그분의 추수철이 되었음을 알릴 때, 믿는 죄인들이 “기한에 찬 곡식단 같이” 무덤에 이른다(욥기 5:26).

축복의 구원자, 추수의 주여, 내 마음 속에서 당신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 하소서. 땅에 뿌린 좋은 씨가 당신의 은혜로 좋아지게 하여,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듯이 내 마음 속에 당신의 복음이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아, 추수때 나를 예비 하소서! 당신께서 낫을 드실 때, 당신의 하늘 공간에 나를 거두어 모으소서!

## 36 장. 그 여인으로 인하여—요한복음 4:39-42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39-42).

한 여인 때문에 지나가야 했던 성경에 계시된 것을 생각하는데 망설인적이 있는가? 물론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여자에게 타락을 핑계대었다. 그리고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방해하는데 이용하려 했던 많은 지저벨과 살로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 그러나 당신은 전에 영원한 구원과 같은 것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 하나님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금하셨다. 신약은 엄격하게 여자 전도자, 집사, 등등을 금하고 있다. 여자들은 하나님 집 내에서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대와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여인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아무도 구원받지 않을 것이며, 많은 점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인들을 사용하여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이며, 동산에서 하와에게 약속된 씨이다. 유다 족속의 사자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언약의 땅에 데려왔고 택정한 나라를 보존하였던 사람은 라합이란 이름의 여자였다. 주 하나님은 가나안 왕인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드보라(여선지자, 하나님의 경배자)라고 하는 여자를 일으키셨다. 시스라의 머리를 땅에 박았던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란 또 다른 여자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의 믿지 않을 시대에 왕족이 보존되었던 것은 모압 여인 룻의 믿음으로 인함이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의 동정녀 모태로부터 육신으로 오셨다.

여기, 요한복음의 4 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간증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성의 많은 수의 사마리아 인들이 내가 했던 일을 그가 말하였도다 라는 간증을 하였던 그 여자의 말로 인하여 그를 믿었다.”고 하신다.

##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있는 곳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란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식물이 아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나 큰 믿음에 대하여 말하든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룩한 부모에 의해, 애정

어린 보살핌과 가르침으로, 건전한 복음 하에 성장한 자에게 있는 믿음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육 받은 야만인으로서 배신 가운데 성장하였고 가장 지독한 부도적함 가운데 그 생의 절반 모두를 살았던 자에게서 믿음이 발견된다면, 그의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사람에게 절대로 좌우되지 않는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운행이며 성령의 역사이다(에베소서 1:19-20; 2:8-9; 빌립보서 1:29; 골로새서 1:12).

나는 이 사실로부터 큰 격려를 받는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사역의 일에 있어서 결코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1].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례나 그런 책무를 주신 적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모든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팔레스타인 지도를 연구하셨다면 그분은 아마도 복음을 믿고 그의 제자들이 되었을 사람들을 찾기를 기대하였을 더 있을 법한 땅을 나라 전체에서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마리아는 주 예수의 추종자들이 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떤 땅도 있을 법한 곳이 아니었다. 주 예수께서 그곳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께 대항하는 인종 혐오의 큰 악을 발견하셨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하였고 결코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의 말조차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 감정을 양갓음 하였고,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여전히, 주 예수께서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 큰 수로 그분의 택하신 자를 모았던 자들은 그 믿음이 혼합 믿음이었던 혼혈 종족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부터 였다. 요한복음 4 장의 사건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방법과 반대로 가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곳과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옳으며 그분의 길은 언제나 최선이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가 빌립보라 부르는 곳으로 내려가서 몇몇의 사람들의 구원하기를 계획하셨다(사도행전 16 장).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역사이며, 운행하심 입을 진실로 배우고자 한다면, 초자연적인 일, 그것은 심오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효험 있게 만들려고 구상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이며, 단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려 하시는지 결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분을 섬길 것이다. 누가 구원 받을 것 같은지 결정하려 하는 것을 그만둘 것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을 정치적으로 맞고, 사회적으로 입맛에 맞으며, 문화적으로 상응하게 만들려 하기를 멈출 것이고, 단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이 세대의 전도자들, 개종한 눈에 보이는 죄인들의 이름으로 복음을 타협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타협이 아무것도 이

를 수 없을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타협으로 얻어진 어떤 개종도 그들의 이전 상태보다 두 배나 더 지옥의 자녀들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수행된 작용이고 성취된 역사이며 부여된 선물이다(로마서 10:17).

당신과 나는 아마도 그리고 반드시 우리처럼 약한 자들은, 우리처럼 쓸모 없는 자들은, 죄인들의 구원자에 대하여 죄인들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보배로운 씨를 확산할 것이고 확산해야 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손은 의미가 없다. 생명은 씨 안에 있지, 씨 뿌리는 손 안에 있지 않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흙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흙을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은혜가 올 때까지, 모든 것은 불모지이고 비어 있으며 황량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뿌려진 씨를 열매가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분은 어디서든 영생 안에서 그것을 싹트게 할 수 있으시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싹트게 만들 수 있다. 구약에서처럼, 그분은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였고,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이 솟게 하셨으므로, 모든 것이 그야 말로 황량한 곳에 그분의 영광에 추수를 가져오실 수 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과 관련하여 의심을 하지 말며, 그것과 관련하여 낙심하지 말자. 오히려, 그분이 기뻐하는 어떤 곳에서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도하며, 계속하여 우리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자. 그분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며 언제나 그것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하시도록 하자.

## 하나님의 도구

첫째, 39 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도구를 보여 주신다. 우리는 한 늙은 매춘부,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매춘부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특정하게 듣게 된다. —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겸손하신 선하심과 은혜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쁘시! 그분의 은혜의 대상은 사마리아 인들이었다. 이 사마리아 인들은 단지 죄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멀리 받은 죄인들이며, 섞인 종교를 가진 혼혈들이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개와 세리와 여자들보다 더 낮은 계급에 있던 세상에서 유일한 것은 사마리아 인이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가 선택하기에 가장 꺼리는 자들이라는 것이다(사무엘상 16:12).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가장 생각지도 못할 자들이라는 것이 사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과 그분의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가장 생각지도 못할 도구를 사용하심을 보여주는 사실이다(고린도전서 1:26-29).

은혜의 전갈은 한 매춘부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전해졌다. 그녀가 말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많은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도구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강력한 손아귀를 끌어내리기 위하여 강한 도구들 중 가장 약한 것을 강력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것이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것들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늙은 매춘부가 전하였던 메시지는 그녀의 체험에 대한 간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가 보았던 것을 이웃들에게 말했고, 그녀가 말하고 있던 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그들에게 와서 보기를 재촉하였다. — “여자가 물둥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28-29).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권을 여기서 역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 은혜가 행사되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은 체현된 주권을 본다. 그것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을 보기 위하여 눈을 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지만, 전부는 아니다(사도행전 13:48; 마태복음 22:14). 회심한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 사마리아인들이었지, 빗비춤을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이 실행되는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단지 은혜의 말씀에 의해서 회심하였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8-9).

## 그리스도께 매달림

둘째, 40 절에서 이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본다 — 궁핍한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매달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기 17:9).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 그 한 문장은 우리의 혼을 위한 실질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의 갈망과 그에 대한 우리 주의 따르심이 그분을 원하는 자들과 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리스도의 기꺼운 마음을 보여준다(마태복음 8:34). 사마리아 인들은 그와 머물기를 그에게 간청하였다. 모두 그들이 원했던 것을 가졌다! 엠마오 길에서 길 잃었을 그 두 제자들이 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려 하였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누가복음 24:29). 만약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분 없이 있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가서 3:5).

## 체험이 다름

셋째, 당신에게 한번 더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다. 필요는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하다. 구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은혜와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체험은 매우 다양하다. 41 절을 읽어보라 —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 여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회심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는 말씀으로 회심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회심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수가성에서 이틀 간의 우리 주께서 사역하는 과정에 점차적으로 회심하였다.

하나님을 결코 우리의 작은 상자에 집어 넣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상기 시키기 위하여 이것에 당신이 관심 갖기를 요청한다. 그분은 그냥 맞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합당하다고 보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거기서, 내가 그것을 했다. 나는 이런 저런 사람이 누릴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신다.

모든 지옥은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 고백한 사람들이 살아 있으나 영원 전부터 호흡하는 죽지 않을 혼들에게 신학적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장광설을 늘어 놓는 동안 큰 소리로 웃을 것이다! — 전도자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다툼하고 싸우면서 편을 들고 나뉘는 동안, 죄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미친 짓인가! 나는 당신이 어떻게 왔고, 언제 왔으며, 그 때 어디에 있었는지는 관심이 없다. 나는 오직 이 한 가지 것만 관심한다. — 당신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그것들을 말했을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을 아무도 오해하지 말라.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동일한 믿음**

넷째, 우리는 각각의 믿는 자의 믿음이 동일함을 본다. 하나님으로 난 자는 모두 동일한 것을 믿는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 “성도들에게 일단 주어진 믿음”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일치된 것”을 본다. 모든 복음 전도자는 동일한 전갈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죄인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이 42 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 조만간, 모든 구원받은 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다. 니고데모와 아리마테의 요셉처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고백할 것이다. 믿는 자들이 구원자와 함께 그들 자신을 구별할 것이다 (로마서 10:9-10).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은, 일단 그들이 회심하였을 때,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말했다. 그 말 속에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불신자들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종교적이었나? 그렇다, 그러나 불신자들이었다. 성경을 믿는 자들이었나? 그렇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동일한 성경을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도덕적이었나? 그렇다, 매우 도덕적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불신자들은 .도덕적이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들의 이전 종교에 대한 회개를 하였고 그것을 영원히 포기하였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왔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죽을 사람의 말이나 주장에 근거하여 나오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우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신성한 계시의 결과다. 그것은 개인이적인 체험의 문제이다 (요한일서 1:1-3; 갈라디아서 1:11-12).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앎이니라.” — 그 말은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안다.” 혹은 “이분이 참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안다.” —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모두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랐고 믿었다. 그러나 그 둘 모두 정치적 구원자, 도덕 개혁자, 거짓 “그리스도”를 찾았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참 그리스도를 알고, 소유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배한다.

그 두 가지 것들은 언제나 함께 연합된다. —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혼을 낮추실 때, 그분은 은혜롭게 구원자의 필요를 죄인에게 알게 하신다. 따라서 자기 혐오와 그리스도 찬양은 언제나 함께 간다. 욥이 무슨 말을 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언제 보았는가? —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기 40:4; 42:5,6).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때 무슨 말을 했는가? —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영화이신 왕을 뵈었음이다.” (이사야 6:5; 요한복음 12:41). 다윗은 무슨 말을 했는가? —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43:2). 바울은 무슨 말을 했는가?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24).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미천함과 그리스도의 충만을 당신에게 열으셨더라면, 당신은 같은 방법으로 응답할 것이다!

이 한분의 유일한 참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이다! 그분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세상의 효험있는 구원자이고,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자이다. 당신은 그분을 아는가? 이 여인과 이들 사마리아인들이 했던것 처럼,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을 만났는가? 당신의 죄가 사악함을 초월한 것을 보았는가? 당신은 그리스도가 보배로움을 초월한 것을 보았는가?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구원의 계시로, 그분의 은혜에 속한 구원의 체험 가운데 그분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분, 하나님과 함께 한 분으로서 알고 있다. 이제, 당신은 구약의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진실로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삽나이다.”(요한복음 6:69).

당신 자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아는 것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이 여인과 이들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분을 당신이 믿도록 할 수 없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를! 아, 그분께서, 이 그리스도 멸시의 시대와 세대 가운데 주 예수를 알고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이 이 여인과 이들 사마리아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만약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식과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다면, 그 사마리아 매춘부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러 오도록 진정한 기쁨으로 그들을 부르자. 그리고 그 같은 진정한 정죄 아래 있던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의 말을 듣게 될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여 말하자. — “이제 우리가 믿으나,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며,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것이다!”

### 37 장. 어떤 사람만을 위하여—요한복음 4:43-54

“이들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칠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43-54)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눈을 열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실을 놓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 위에 코가 있는 것 만큼 분명하다. 마태복음 9:18 에서 주 예수께서 공홀을 베푸셨던 야이로라 하는 “어떤 치리자”를 본다. 그는 절대적인 필요 가운데 있었다. 그의 딸이 죽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지만, 주 예수께서 도우셨다. 구원자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기로 하셨을 때, 그분은 12 년 간이나 피의 문제로 역병을 앓고 있었던 “어떤 여인”에 의해 지체 되셨다 (마가복음 5:25). 그녀의 필요가 얼마나 컸던가! 그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던가! 그녀는 평생을 아무런 쓸모 없는 의사에게 소진했고, 단지 악화되기만 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간질병이었고, 구원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나왔고, 그 아들을 위해 공홀을 베푸실 것을 외치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마태복음 17:14-21). 누가 이 가련한 사람을 동정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그가 공홀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 아들은 마귀에게 몹시 괴롭힘을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7:25),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그 딸이 더러운 영에 의해 사로 잡혀 있었다. 그녀는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그녀는 이방인 개였다. 그러나, 그녀의 필요가 절대적이었고,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상 아래, 그분의 개처럼 그 딸을 데려다 놓았다. 그 가련하고, 절체 절명의 필요가 있는 혼은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마루바닥에 그분께서 던지실 공홀의 어떤 부스러기로도 만족하게 되었을 것이다.

죽음에 직면하였던 “어떤 백부장의 중”이 있었다(누가복음 7:2).

무덤 사이에 기거하며, 군대 귀신에 사로 잡힌, 거친 사람인 “어떤 남자”가 있었다(누가복음 8:27). 그의 필요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 “어떤 남자”(누가복음 14:2)는 부종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누가복음 16 장)에 대해서 읽었다. 주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셨을 때 그곳에 길가에서 구걸하며 앉아 있는 “어떤 소경”이 있었다(누가복음 18:35).

선한 사마리아인의 우화(누가복음 10 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옷을 벗기고, 그에게서 물건을 훔치고, 상처를 입혔으며, 거지반 죽게 하여 절대적인 필요 가운데 있었던, 도둑들 사이에 쓰러진 “어떤 사람”이라는 모습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찾아 가셨던 모든 사람을 묘사하신다. 반복하건대 —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은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련한 죄인들, 하나님의 공휼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문둥병 걸리 혼들, 썩고 불결한 자,  
있는 그대로 예수께 오라:  
병든 자이고, 건강한 자가 아니니,  
위대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네.

아 병든 믿음을 깨달으라  
그것은 기껏해야 착각 속의 믿음이니:  
치료 받고 상처 받지 않은 것이,

타락하기 전에 찾을 것이라.”

— Joseph Hart

“이들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 이 장의 시작으로 되돌아 가본다면(1-3 절), 우리 구원자께서 이틀간 사마리아에서 지체되었을 때,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많은 수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때가 왔기 때문에 지체되었다. 주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 간의 놀라운 날들을 보내셨다. 일곱 가지 큰 공과들이 요한복음 4 장의 마지막 열 두 구절들 내에서 큰 글자로 찍혀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쓰시고 우리 기억 속에 확정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때와 혼란을 통한 여정 중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 선지자들과 존귀함

여기서 가르치는 첫번째 공과는 선지자와 존귀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사람들의 멸하지 않을 혼의 필요를 위하여 신실하게 사역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존귀히 여김을 받을 자는 없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반복하여 “선지자가 그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증거하셨다 (44 절).

우리 구원자는 갈릴리로 돌아가셨지만, 멸시 받고 거절당하였던 그분의 고향인 나사렛으로는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은 그의 첫번째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

들이 그분을 영접했던 가나로 돌아가셨다.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그것을 영원히 잃었다. 갈릴리의 가나에서, 주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기 시작했던 곳인데, 궁핍한 혼들이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귀함을 받았던 그 곳으로 돌아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리는 선지자들인 복음 전파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높이 존귀함을 받아야 함을 배운다.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 높이 칭송 받아야 한다(데살로니가전서 5:12-13; 디모테전서 5:17).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극히 높이 평가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하지만, 존귀히 여김을 받기보다 더 일반적으로, 특히 그들 자신의 나라와 인척에 의해서 모욕을 받는다 (누가복음 4:24; 마태복음 13:57). 요셉이 선지자로서 시작할 때, 그는 형제들에 의해 증오를 받았다. 다윗의 형제들은 극심한 모욕으로 그를 깔보았다(사무엘상 11:21).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에 의해서 욕설을 들었다(예레미야 11:21). 바울은 유대인들인 그의 조국 사람들에 의해 멸시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 주의 가까운 인척은 그분에 대하여 모욕적으로 말했다(요한복음 7:5). 그의 가족 친구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했다(마가복음 3:21).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책망하게 둔다. 그리고 그들은 동료라기 보다 덜하게 생각하는 자의

가르침과 책망으로 창피를 당한다. Matthew Henry 가 올바르게 관찰하였다. “새로운 것과 설득력이 없고 값비싸게 산 것에 대한 갈망, 그들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고, 그들이 자신들이 잘 알았던 것들을 경멸하게 만든다.” 거만한 종교인들은 명예로운 직함을 좋아하지만, 진리를 멸시한다. 교만한 교양인들은 학위를 좋아하지만, 신조를 경멸한다. 거만하게 학식 없는 사람은 고등 교육을 좋아하지만, 하늘의 빛비춤을 멸시한다.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시골 사람들, 이 두뗏사람들, 갈릴리에서 온 이 무식한 촌놈들에 대하여 무엇을 듣는지 보라. 45 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였고, 그분을 환영하였으며,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품었다고 우리에게 말쑈한다. 그 주어진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구원자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살았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들의 길은 사마리아를 관통하게 한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도 사마리아를 통행하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은 그 절기에 올라갔고, 거기서 그들은 주 예수를 알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구원자의 기적,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다.

## 이루어진 것들

둘째, 46 절에서 우리 주 예수의 첫번째 기적이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해졌던 것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을 상기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던 것들, 전에 그렇지 않았던 것을 만드신 것들,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것들에 대하여 여기에 공과

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을 듣는다. 그분은 그 물을 포도주처럼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처럼 맛나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분은 그것이 포도주였지만 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은 물을 포도주가 되는 결과를 갖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만들었다”는 말은 한 가지 행동을 가리키며 “이게 하였다” 혹은 “되게 하였다”라는 뜻이다. 그것은 어떤 것의 완전한 변화를 가리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으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이라”고 들었던 고린도후서 5:21의 첫 부분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당신이 어떤 것을 보기 원한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로 되셨다. 되게 되셨다). 그분이 죄가 되셨을 때, 우리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은 우리 죄들의 모든 유죄를 우리의 대속자로서 품으셨다. 그렇지 않으면, 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그분을 벌하실 수 없었다(잠언 17:15).

고린도후서 5:21의 두번째 부분에서 “되었다”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말의 모두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실 때, “되었다”로 번역된 말은 “초래하다,” “이 되도록 야기하다,” “마치다,” 그리고 “성취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갈릴리의 가나에서 물처럼, 우리 주 예수는 죄를 우리 대신에 그분이 저주가 되셨고

(갈라디아서 3:13)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 결과로,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사람은 은혜로 의에 났으며, 의로운 자들로서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들이 되었다(고린도후서 5:17-21).

## 믿음과 말씀

셋째, 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과가 우리 앞에 있다. 구원의 믿음은 듣고, 보고, 믿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려 왔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떼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모든 것을 당신이 보도록 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은 신성한 계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공의를 만족케 하시고,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셨으며, 우리의 대표자와 보증으로서 그분의 순종에 의해 영원한 의 안으로 옮기셨고,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어떤 귀족이 공회를 구하려 구원자계로 왔는데, 그가 “예수께서 오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베드로전서 1:23-25). 이 사실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 안에서 복음 전파의 조력으로 창조된다(베드로전서 1:25). 우리 구원자께서 이 귀족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48 절) 그가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50 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의 마음에 그가 믿도록 하면서 자리 잡고 왔다.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것이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시는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그것은 배울 때 달콤하고 복된 것이다. — 우리 구원자의 말씀은 그분의 임재만큼 좋은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귀족의 아픈 아들을 보시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다. “네 아들이 살았다.” 전능한 능력이 그 짧은 문장과 함께 가셨다. 바로 그 시점에 그 소년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치유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니, 치명적인 질병이 멈추었다.

그 사실은 위로로 가득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던 모든 긍휼과 은혜와 평강의 약속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만약 우리가 구원자의 말씀 위에 우리 소망을 세운다면, 우리는 바로 그분의 이름 위에 그분이 높이셨던 반석 위에 세워진다 (시편 138:2).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이 굶어지셨던 것은,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은, 그분이 선하게 만드실 것이다. 주 예수의 말씀에 그 혼을 안식하는

죄인은 영원토록 안전하다. 자신의 눈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보았다면, 더이상 안전할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7). 내가 왔으니, 그분은 결코 나를 내어 쫓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세상 것들 가운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이지만, 복음 안에서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 부모와 자녀

요한복음 4:43-54 를 다시 보고, 네 가지 공과를 보라. 그것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공과, 자녀 양육에 관한 공과이다. 부모들은 모두 이 귀족이 했던 것을 하도록 하라. 진정성을 갖고, 끈질긴 기도와 당신의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주 예수께 피신하고, 범죄와 죄들로 죽었지만, 공황을 위하여 구원자께로 도망했다.

여기서 견지하고 신약을 통하여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격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 구원자께서 찾았던 공황을 그 자녀를 위하여 얻지 못했던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의 필요를 결코 한번도 구원자께 가져가지 않았다.

아 혼이 아픈 자녀의 믿는 부모들이여, 당신의 아픈 귀한 자식들을 주 예수께로 데려가라. 그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들을 위하여 그분의 공황을 갈구하라!

## 섭리와 은혜

다섯째, 섭리와 은혜에 관한 공과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분의 종의 증언에 의해 그 귀족에게 증명되었던 것 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증명한다.

— 아,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을 가졌기를! 그리고 그 귀족의 아들의 질병이 그를 구원자에게 데려왔으므로, 그로써 하나님의 고통스런 섭리들이 종종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달콤하게 구원자의 품 안으로 가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

심판이 결코 회개를 산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 받은 죄인들이 은혜롭게 그분의 공휼을 구하게 하려고 섭리의 모든 행사를 은혜롭게 안배하신다. 그것이 시편 107:1-43 에서 보는 바로 그것이다.

고통이 종종 우리 혼에 가져오는 유익이 얼마인지! 그 아들에 대한 염려가 필요한 때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 귀족을 그리스도께로 보냈다. 구원자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번은 무한한 가치의 공과를 배웠다. 마침내, “그가 믿었고, 그의 전 가족이 믿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의 병의 결과로 일어났음을 기억하라.

고통은 하나님의 치료약 중 하나이다. 역경으로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당신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보리밭을 태우시기를 망설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의 밭이 타는 것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할 것이다. 수 천 명이 자신을 망쳤으며,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고통에 의한 은혜와 고통의 막대에 의한 순종을 배웠다.

고난의 시간에 불평하는 것을 조심하자.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확실히 안정시키시기를 바란다—모든 눈물을 위하여 있으며 우리 위에 떨어지는 모든 슬픔 가운데 하나

님으로부터의 전갈이 있다. J. C. Ryle 이 올바르게 관찰했다. “고통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만큼 유용한 공과는 없다. 질병과 고통만큼 성경을 열어주는 해설은 없다.” 부활 아침이 우리의 모든 손실들이 실제에 있어서 영원한 소득이었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2:11; 베드로전서 1:3-7).

“여호와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07:31, 42-43).

## 부와 슬픔

여섯째, 이 단락에서 부유한 귀족들이 가난한 하찮은 사람들과 동일한 슬픔이 있다는 것을 본다. 이 부유한 귀족은 큰 고통 속에 있었다. 그의 사랑스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돈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회에서 그의 고결한 지위는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았다. 그는 귀족으로 태어났고 상상을 초월하는 부유 가운데 출생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누워 죽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죽어가는 아들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부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비단과 수가 흔히 아주 무거운 마음을 덮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고위직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다. 황금과 은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을 더 참을 수 있게 만들 수 없다. 나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폭풍 속에 더 흔들린다. 가지가 더 넓으면

넓을수록, 번개가 칠 수 있는 더 큰 표적이 된다. 다윗은 베들레헬에서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칠때가 그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통치하였을 때보다 더 행복하였다.

부와 명성은 구할 것들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당신의 손에 두신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하여 매우 큰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은혜를 구하라. 공활을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 쓸모를 구하라. 그러나 부를 구하지 말라. 명예를 구하지 말라 (골로새서 3:1-3).

## 죽음과 나이

일곱째, 우리 앞에는 죽음과 나이에 대한 매우 균형 있는 공과를 갖고 있다. 여기 그 공과가 있다. — 죽음은 나이든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질병과 사망은 나이든 자에게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온다. 죽을 병의 아들과 이를 바라보는 무력하고 건강한 아버지가 있다. 그 소년은 무덤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을 묻어야 한다.

그 공과는 우리가 천천히 배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분명한 사실들에 눈을 감으며, 젊은 사람이 죽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모든 묘지의 묘비가 다른 이야기를 해준다. 지금까지 이 땅 위에서 봤던 첫번째 무덤은 젊은 사람의 무덤이었다. 지금까지 죽었던 첫번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고, 아들이었다. 아론은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랐던 사람인 다윗은 세 자녀들이 묻히는 것을 불만큼 오래 살았다. 옴은 하루에 그의 모든 자녀를 빼앗겼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들은 반짝이는 등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하라! — 내일 당신은 죽을 것이라!”

## 38 장.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요한복음 5:1-16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사 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삼십 팔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 지라.” (요한복음 5:1-16)

우리 구원자 하나님 자신을 구별하는 많은 위대한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라파(Jehovah-Rophe), “당신을 치유하시는 주”가 있다. 기적적으로 바다에서 그들을 위하여 길을 열고 바다 깊이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자손을 매우 은혜롭게 구원하신 후, 사흘 동안 물 없이 방황하게 하였던 술의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 타는듯한 태양 빛이 그들 위에 내리 쬐었다. 사막 모래가 그들의 발을 뜨겁게 달궜다. 그들의 가축들이 사라져갔다. 그들의 자녀들의 혀는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바싹 말라갔다. 그들은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사흘 동안 떠돌아 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마라의 풍성한 샘물에 이르렀다. 그들이 마라의 물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소망과 기대 가운데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들이 마라로 접근하면서, 거의 물 맛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입에 차갑고 신선한 물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물은 썩고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이 느꼈을 낙심과 실망을 상상할 수 있는가?

즉시, 그들이 모세에게 돌아서서, 투덜거리고 불평을 시작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이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던 주 하나님께 돌아섰다. 비록 주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끄셨지만,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채로부터 기적적이고 은혜롭게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들 앞에 있는 쓴 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갈증이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무런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섭리를 경멸하였다.

당신은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사람을 아는가? 만약 우리가 정직하다면, 나는 우리 모두가 그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될까 두렵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공훈이 넘치는 구원자를 바라 보아야 했을 때, 그들은 마라의 쓴 물만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기도해야 했을 때, 그들은 투덜거렸다. 그들이 믿어야 했을 때, 그들은 불평하였다. —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라 멸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는 육체뿐이라…기억하셨음이로다.”(시편 78:38-39).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마라로 데리고 왔던 분은 하나님이였다. 그분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분 자신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여기 데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하러 그것을 하셨다. —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린도전서 10:11). 출애굽기 15:25 와 26 절을 읽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

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요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물 못을 보는데, 베테스다라고 불리는 못이며, 그 의미는 “공홀의 집”이다. 이 못 여호와라파에, 여호와 우리 치료자께서 누워서 그 못을 바라보고 있던 가련하고 무능한 죄인에게 하신 그분의 위대하고 기억될만한 공홀의 행위들 가운데 하나를 행하러 오셨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모세가 불붙은 덩불에서 주를 보았을 때 느꼈을 것이라고 했을 것이라 느끼며,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에 있는 모든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여기 기록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과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다.

## 치유의 못

우리의 주의를 끄는 첫번째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를 위하여 기술된 치유의 못이다. 우리는 1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유대인의 연중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듣는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절기였는지 듣지 못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복된 구원자는 모세의 율법에 합당하게 예루살렘에 오르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언약의 보증과 대표자로서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끝내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양문 가까이에, “양 시장”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베테스다라 불리는 행각 다섯 개가 있는 못이 있었다. 이 베테스다 못

은 겻세마네를 지나는 기드론 시내 가까이에 있었다(요한복음 18:1). 이 양문은 느헤미야 시대에 성별되었으며(느헤미야 3:1, 32; 12:39), 예레미야 31 장에서 예레미야에 의해 중요한 장소로 언급되어 있다(38-39 절). 이 양문 혹은 양 우리 바로 옆에, 베테스다 못이 있었다.

이 못의 이름, “베테스다”는 “공홀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그 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 받은 까닭에 이 이름이 주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단순히 유대인의 미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은 외적 종교 의식의 육체적 계명에 사로잡히고 그 의식들의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점차 더욱 더 미신적이 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제물의 피가 베테스다 못의 물과 섞여 물에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치료하는 어떤 효험을 주는 특정 성분의 미네랄이 물 속에 있다고 입증하려 시도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이 베테스다의 못과 물을 동하게 하였던 천사 모두에 대하여 말하고, 물을 특정한 시점에 치료에 효험이 있게 만든다는 것을 요한이 했듯이 그에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다.

이 베테스다 못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기억하라, 그 이름 “베테스다”는 “공홀의 집”이다. 물을 필요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구원의 운행 가운데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공홀과 은혜와 선하심과 연결된 어떤 것의 상징이다.

아마 베테스다 못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의 방법들, 그분이 택하

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룩하게 약속된 방법들을 가리킨다: —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그분의 집에서 복음의 전파이다. 하나님 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부요하고, 풍성한 은혜와 긍휼은 죄인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이고 기초로 선포된다. 여기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의 언약 가운데 보여지는데,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그리고 그분에 의해 성취된 구속이 전파된다. 여기 긍휼의 집, 구속과 거듭남과 죄의 용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진다. 그리고 여기, 은혜의 집 안에서, 구원의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가련하고 무력한 혼들을 위하여 펼쳐진다.

베데스다 못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를 가리키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스가랴 13:1 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가리키는 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공개되고, 모든 죄로부터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는 샘을 본다. 이 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 그것은 복음 전파로 긍휼의 집 안에 열려 있다. 복음 그 자체는 물의 샘과 비유된다(이사야 4:1; 스가랴 14:8; 요엘 3:18).

베데스다 못이 양문 옆에 있는지, 아니면 주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던 양 우리 옆에 있는지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것 만큼은 확실하다: —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발견된다.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셨던 자들, 그가 위하여 죽었던 양들을 그분이 데리고 들어오셔야 한다. 그들을 어디서 찾든지 간에, 거기에 그분의 말씀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들을 모으

시고 그들을 치료하신다(시편 107:20).

하나님이 영은 우리에게 그곳에 행각 다섯 개, 다섯 개의 크고 지붕이 덮힌 행각이 베데스다 못 가까이에서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한다. John Gill은 이 다섯 행각들이 율법,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율법서들을 가리키려 의도되었을 것이며, 율법의 역사들 안에 은혜도 긍휼도 구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제시한다. 만약 우리가 구원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단단하고 차가운 죽음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생수로 들어가야 한다(로마서 9:30-10:4; 갈라디아서 2:16, 21; 3:21; 5:1-4).

### 무기력한 대중

둘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다섯 행각에 누워있는 무기력한 대중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가련하고 길 잃은 죄인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3 절). 우리 조사 아담의 죄와 타락 이래로 우리의 길 잃고 파멸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용된 그 말이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

“무기력” — 그것은 타락한 사람을 묘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는 율법 앞에서 무기력하다. 죄로 약해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무기력한 것 처럼 무기력하다. 그는 스스로를 구속할 능력도 없고, 그 스스로 거듭날 능력도, 심지어 구속되고 거듭나도록 선택할 능력도 없다.

“소경” — 타락한 사람은 범죄와 죄 가운데 사망하였고, 그가 무기력한 것처럼 소경이다. 그는 영적인 것: 자기 자신, 하나님, 그 아

들, 그의 의, 그의 은혜, 그의 구원에는 모두 무지하고 소경이다.

**“절뚝발이”** — 죄인들이 무기력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양 발을 저는 “절뚝발이”이다. “절뚝발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망설이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멈춰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그 말은 때때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무기력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오류나 실패들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것은 사람이 걸을 능력이 없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은혜와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이키고 이끌어내시고 데리고 오시는 것을 제외하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걸을 수 없다.

**“혈기 마른 자”** — 그 말은 “말라버렸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우리다. — 말라버렸다!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인가! 팔이 모두 꼬이고 말라버린 한 사람이 있다. 다리가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 근육이나 몸에 전혀 물기가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자가 있다. 은혜의 빈곤, 소망의 빈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가련하고 길 잃은 죄인들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다!

**“기다림”** — 가련한 혼들, 병자, 소경,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마른 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거기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늘에서 보내셔서 그 못에 있는 물을 동하게 하시는 어떤 특정한 날을 알려주고, 천사에 의해 물이 소용돌이 칠 때 그 못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치유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 거기 그들은 누워서 지혜의 문에 기다리며, 그 문의 기둥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 동하게 한 천사

셋째, 이제 물을 동하게 하였던 이 천사를 보라. 나는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데,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베데스다 못이 예루살렘에 현존하는 기적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침묵의 암흑기가 동안, 말라기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이인, 주께서 예언의 영을 제하신 그 침묵의 해들, 우림과 둠뭍이 없었고, 세키나가 그분의 집에서 보이지 않았던 때에, 그분의 공홀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려 특정하게 의도되었다.

베데스다 못은 주께서 “그가 이전에 알았던 그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의 서 있는 증인이었다. 따라서, 무기력한 사람, 소경,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마치 가련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도록 여기로 데려와 졌다. 우리 복된 주 예수께서 죄와 불결함으로 인하여 그 날에 다윗의 짐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 열릴 샘이었던 것처럼, 베데스다 못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셔서 성경의 이 지면에 기록된 공홀의 기적을 행하셨고, 베데스다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물을 동하기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나는 죄와 불결함을 위하여 열린 샘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천사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파이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 공홀의 날 ‘주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

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출애굽기 15:26; 이사야 30:26). 그리고 이제, 그분, 그 못이 증거한 분이 오셨고, 실체가 나타나셨으므로, 그림자는 치워졌다. 베데스다 못과 그 치유하는 물에 대한 어떤 언급도 우리가 다시 듣거나 읽지 못한다.

하지만, 베데스다 못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말씀의 사역 사이에 충격적인 유사성이 있다. 복음 교회는 이 복음의 날에 속한 베데스다이고, 공훈의 집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천, 언약의 전능한 천사 그리스도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말씀의 물에 치료의 능력과 구원의 효험을 주기 위하여 강림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의 물을 동하게 하는 특정한 철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신성하게 지정된 절기 기간 동안 이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때가 신성하게 지정된 예배일인 안식일이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천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복음 베데스다에 오셔서 물을 동하는 특정한 시기가 있다. 공예배의 지정된 시간에, 그분의 이름 가운데 함께 두 셋이 모인 곳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물을 동하러 오신다(마태복음 18:20; 고린도전서 3:16). 태지정된 사랑의 때,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이 부름을 받아야 할 때, 언약의 천사는 그분의 택함 받은 자에게 언약의 모든 축복을 가져오기 위하여 오신다.

물을 동함(휘저음, 동요, 흔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붓고, 그분의 말씀이 구원의 능력과 효험 가운데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에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는 궁핍한 혼을 치유하는 분,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다. John Gill 은 다음의 교훈적인 의견을 하였다...

“하나님의 영, 첫 번째 창조 가운데 수면 위에 이동하셨던 분은 말씀의 사역 안에서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신다. 또 선지자가 예언하는 동안, (그분은) 마른 뼈 사이에서 요동치게 하시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진다. 복음 전파를 위한 특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부름을 받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회심을 위하여 좀더 특정하게 확정되고 안정되고 약속된 때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든지, 복음 전파 시에 그리스도께 앞으로 발을 떼고 나올 수 있으며,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들의 혼의 모든 병폐와 질병들이 치유 받으며, 그들이 의도한 바가 될 수 있다. 그들의 모든 악행은 용서 받으며, 그들의 인격은 의롭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 받는다. 그리고 이 치유는 물에 있는 어떤 천연적인 덕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며, 천사의 물 동함에 의한 것도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죄인의 회심은 사역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사역된 말씀과 계율에 따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월하는 능력에 따른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시간 가운데 행해지고 그가 기뻐하는 자들 위에 있다.”

그러나 베데스다 못과 우리의 복음 베데스다 사이에는 두 가지 때

우 큰 차이가 있다. — 여기 위대한 공홀이 있다. (1.)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련하고 무기력한 혼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복음의 초대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모든 자에게 발해진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께 오는 모든 자에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요한복음 6:37)는 것을 확신시키신다. 그리고 (2.)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물로 죄인들이 걸어 들어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분은 가련하고, 무기력한 죄인들과, 소경과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에게 오신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분의 영의 기름을 부으시며 은혜의 포도주를 부으시고, 무기력한 자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 치료된 환자

그리스도는 위대한 의사,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다. 넷째, 우리 앞에 치료받은 가련한 환자, 무기력한 사람, 소경,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다. 그는 무기력하고, 오래, 오래 동안 그 길에 있었다(38년). 그는 분명한 사람이었고, 주권적으로 선택 받았고, 구별되게 택정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감시의 눈 아래 있었다. —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없었고,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효험 있는 부름을 받았다. —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라.” 그것은 명령이고, 그 명령을 가진 순종해야 할 능력으로 오셨다.

“거기 삼십 팔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 치료의 날

다섯째, 이 사람을 치료한 날은 안식일이었다고 듣는다. 얼마나 자주 우리 주께서 안식일에 긍휼의 역사를 행하시고 긍휼한 혼을 치료하는 것을 보는지(마태복음 12:1-12; 누가복음 13:11-12; 14:1-4; 요한복음 9:1-16).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부터, 우리의 저주로부터, 우리의 수고로부터 안식을 주신 날이다(마태복음 11:28-30). 우리는 아무런 육체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을 보지 않는다. 우리의 것은 믿음의 안식일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안식이 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히브리서 4:4-11).

## 더 이상 죄가 없음

성경의 이 부분의 연구를 우리가 10-16 절을 읽을 때 우리 생각에 즉각적으로 튀어 오르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결론 짓는 것은 내게 무책임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 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우리 구원자께서 하셨던 것은 그분이 치료하셨던 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를 의미한다.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분은 그분이 종말과 함께 온전하게 되 어느 때 계셨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다. 주께서 만약 그가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신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하셨나? — 아니다. 주 예수께서 만약 구원 받은 죄인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것으로 의미하셨는가? — 물론 아니다! 구원자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셨는가? — 당신이 더 잘 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명령을 이렇게 읽어보라. — “더 나쁜 것이 네 위에 임하지 않게 죄를 끊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 장을 펴면, 거기서 우리 주가 의미하신 것을 정확하게 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

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전서 4:1-4).

만약 주 예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자신의 희생으로 구속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대속물로서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에 당신의 죄들을 품으셨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당신은 그분 안에서 죽었다. 이제, 당신은 실로 죄에 대하여 자신이 죽어야 함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한다 (로마서 6:11). 죄로부터 끊어라. 그리스도를 신뢰함은 자유 안에서 산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 당신을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그분께로 살라(고린도전서 6:19-20). 하나님께 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며, 달콤하고 복된 “믿음의 기쁨” 가운데 살라.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결점으로 파괴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식의 느낌으로 되돌아감으로 인하여, 사망의 두려움 안에서 삶으로 우리 자신 위에 비통함을 가져올 수 있다. 비록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지만, 몸의 어떤 질병

보다 더욱 더 나쁜 것을 당신 자신 위에 가져올 수 있다. 비록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대가 없이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을 때, 당신은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게 하는 의도적인 죄로 마음의 큰 비통 아래 당신 자신을 가져갈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당신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공포가 당신을 대항하여 열을 이루고 있을 때(욥 6:4), 그것은 육체의 어떤 참사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다(시편 32:3-4; 51:4-12; 88:9, 12, 14-18).

구원자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셨나? 만약 그렇다면, 죄를 그치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살라.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 39 장.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요한복음 5:17-2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

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17-27).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 후에, 타락한 쌍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보낼 사람,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려 올 사람,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보상을 하고 그가 가져가 버리지 않았던 것을 회복할 사람을 약속 하셨다 (창세기 3:15).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 육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본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었을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죄가 없어지게 할 희생,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할 희생이 되실 것을 말했다 (창세기 22:8).

구약 시대 동안, 믿는 죄인들은 한 부의 오심을 기다렸으며, 그분은 “인자”로 알려지셨다 (시편 80:17; 다니엘 7:13-14). 그 분이 하나님-사람, 사람-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주이시다.

신성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가장 깊고, 가장 중대하며 심오한 단락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앞에 있다. 여기서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신성을 말씀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주장하심으로 심지어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분을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와 같이 분명히 명료하게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자들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그분의 말씀이 오해될 수 없다. 이 구절들에서 인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그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선포하신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가장 분명하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인자”이신 분,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이 부분이다. 사실상, 우리 구원자에 의해 그분의 신격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기서 사용된 바로 그 말씀은 그분 자신을 “인자”로 계시하신 말씀이다. 실로, 우리의 단순한 두뇌로는 간단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의 그 구절에 많이 있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에 의해 언급되고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신성한 계시로 기록된 것들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39:6).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그분의 영원한 신격에 대한 일곱 가지 빛나는 선포를 붙잡아 두신다. 하지만, 여기서 그분이 강조하신 그 것들은 모두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분의 책무의 능력 안에 그분에 대하여 사실로 언급된다. 여기서 시편 저자의 말이 성취된다: —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시편 21:5). 어디에서고 그분의 성품의 신성, 그분의 존재의 위대함, 그분이 소유한 영광이 이 일곱 자기 것들 안에서 보다 더 충만하게 나타난 곳은 없다.

## 그분의 구속 역사들

첫째, 우리 축복된 구원자는 그분이 경이로운 구속의 역사들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선포하신다. —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17 절).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택한 자의 완전한 구원은 삼일 여호

와, 우리 위대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 (로마서 8:28-30; 에베소서 1:3-6). — “세상의 기초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히브리서 4:3).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비록 완전히 성취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은혜의 계획 안에서 영원 가운데 행해진 은혜의 달콤한 체험 안에서 빛으로 데려오시며 구속의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 우리의 보증으로 자신을 약속하셨다 (디모데후서 1:9-10). 모든 그분의 경이로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삼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들의 역사이다. 아들의 역사는 아버지의 역사다 (요한복음 9:4; 14:10). 그분 앞에 선 유대인들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였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18 절). — 이 유대인들은 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인 그들이기에, 안식일에 치료한 이유로 안식일에 그분을 죽이려 시도하였다.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족쇄를 채우려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율법의 일로 그들이 죽이려 한 혼들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귀를 하나님께 가져갔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치료는 안식일에 있다고 말하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일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안식한다! John Chapman 목사는 이렇게 썼다…

“천연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제외하

고 어떤 것이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것이며 믿는 자는 남은 죄로 인하여 그것을 하려 수고해야 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브리서 4:9-11).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반복하겠다. 이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정확히 이해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까닭에 그분을 죽이고자 하였다 (요한복음 10:30-33; 19:7).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하지만, 그분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는 그분의 아버지께 순종함에 있어서 수행하는 역사인데 (요한복음 10:15-18), 우리 보증인, 중보자, 그리고 대속물이며,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이며, “인자이기 때문이다.”

## 그분의 뜻과 계획

둘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이다 (19 절). 기억하라, 우리 구원자는 그분을 죽이려 하였던 종교적 율법주의자들과 자기 의의 열광자들에게 특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은 그분의 성육신으로 그분의 능력 위에 놓여진 제한이나 한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구원자는 단지 그분의 아버지께 속한 어떤 것을 결코 독립적으로 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가운데 행하신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이 그분 위에 제한을 두었다고 상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하실 없었던 것을 하시도록 한다. 오직 우리 가운데 한 분이 되는 것으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는 것으로 그분은 다음을 하실 수 있다…

-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의 안에 가져오신다.
-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 안에 우리 죄들을 품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 우리의 대속자로 죽의 고통을 받으신다.
- 신성한 공의를 만족시키신다.
- 죄를 없애신다.
-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신다.
- 우리의 결함을 느끼심으로 동정하여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 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와 하나이시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다. 그리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다. —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선포하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한 사람의 중재자, 인자 그리스도 예수로 밝히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사람, 사람-하나님,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의 성품과 권위와 능력을 보여 주신다. 이것들은 그분을 하나님이심을, 그러나 하나님 이상이심을 보여준다. 인간 육신 아의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완전히 한 인경 안에서 연합되었다. 그분은 “그분이 인자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사람이시다!

### 그분의 완전한 지식

셋째, 동일한 것이 구원자의 지식과 관련하여 사실이다. 지식 안에서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20 절). 만약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안다면, 그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분 안에 전능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그분 안에는 전지가 부족하지 않다. 피조물에 불과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일을 알고 이해할 능력이 없다(로마서 11:33-36).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인자로서, 사람-하나님으로서,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께 전해진 지식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던 모든 것은 그분의 영원한 뜻 안에서 행하며, “그분이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시고 시간 가운데 수행하신다 (잠언 8:22-31).

그리고, 주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 보다 더 위대한 것, 믿지 않는 자조차도 놀라게 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계시하셨을 것임을 주장하셨다 (요한복음 6:61-62; 디모데후서 1:10).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그분의 완전한 지식으로 인함이다 (이사야 53:12).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과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에 대한 그분의 성취로(히브리서 10:5-9), 주 예수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신다.

### 그분의 영광스러운 주권

넷째,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스러운 주권 가운데 하나이다. —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1 절). 여기서, 우리 주 예수, 사람-하나님 우리 중보자는 신성한 주권에 대한 주장을 하신다. 그가 절름발이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 그는 모든 무기력한 사람을 치료하시지 않고, 단지 “어떤 사람”으로만 구별된 한 사람을 지칭하였고 그를 온전하게 하였다. 아들은 아버지처럼 그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은 문제를 끝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찻집에서 논쟁될 신학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선포되고, 마음 속으로 믿어지며, 혼 가운데 기뻐하게 될 은혜에 속한 영광스러운 계시이다 (출애굽기 33:18-19; 로마서 9:13-16).

### 그분의 당연한 존귀

다섯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과 존귀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2-23 절).

아버지는 우리가 천연적으로 우리가 심판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이다. 그분은 대항하여 죄를 지었고, 잘못하였으며, 그분의 주장들은 거절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31)기 때문에, 사탄의, 사람들의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이 이유는 “모두가 아버지를 존귀히 여김 같이 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함”이며,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1:14-18).

### 그분의 구원의 능력

여섯째, 사망의 입에서 가련한 죄인들을 낚아채서 생명의 기쁨 안으로 그들을 데려가며, 아들이 그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4-26 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범죄함과 죄들 안에서 한번 죽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의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고, 전능하며, 생명 주는 음성으로 부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생명의 증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만약 우리가 영생을 가진다면, 우리는 정죄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그 자신 안에 가진 그 생명은 그의 택하신 자를 위한 생명의 선물이다.

### 그분의 심판의 실행

일곱째, 아들은 판결 권능과 권위에 있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실행에서도 아버지와 하나이다. —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7 절). 하나님 아버지, 삼일 여호와와는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본성을 그분 자신과 연합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실행할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육신을 취하고 사람으로서 이 땅을 행보하셨기 때문에 멸시 받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분이 우리 중 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한 영광은 거절되었고 인정받지 못하셨다! 따라서, 멸시 받은 분은 최고의 존귀와 권위의 처소를 갖게 될 것이다. 모든 자가 그분께 엎드리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그가 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36; 빌립보서 2:5-11; 마태복음 28:18; 요한복음 17:1-2; 이사야 45:20-25). 이 모든 존귀와 영광, 이 모든 권한과 능력은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중보자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어졌고 주어진다.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일이며, 그가 뜻하신 자에게 생명을 교통하는 것은 그분의 일이다. 구원하든지 멸하든지 하는 것은 그분의 일이다. 구덩이 속으로 가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나, 그 구덩이 속으로 던지는 것은 그분의 일이다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은 모두 그분의 일이다! 얼마나 이것이 그분을 우리 혼에 사랑 받게 하는 것인지!

## 43 장.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는가?—요한복음

5:39-4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39-40)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성경 안에서 많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앞에 제시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22). — “보라,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2). 믿음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신뢰함 같이, 그리스도를 신뢰함이다. —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12). 믿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다. 믿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줄을 붙잡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으로 성경에서 기술되고 있다. 주 예수께서 그분으로 하나님께 오는 자들 모두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베드로전서

2:4)

얼마나 자주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이 땅 위를 행보하는 동안, 그리스도께 왔으며, 절대적인 필요 가운데 그분께 데려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궁핍한 혼이 우리 전능하고, 언제나 은혜롭고, 모든 궁핍의 구원자께로 왔던 것처럼, 그는 치료의 능력과 필요한 구원의 긍휼을 얻었다 (마태복음 8:1-3; 9:1-8, 20-22, 18-26, 27-31). 구원은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얻어진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 주 예수께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11:28; 요한복음 6:37; 요한복음 7:37-38). 그리고 복음서의 이야기들에서 그리스도께 나왔던 모든 가련한 죄인은 그가 구하던 구원을 얻었다.

요한복음 5:39-40 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종교인들, 매주 교회를 갔던 사람들,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치며, 보수적이고, 종교적이며, 교회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 구원자께서 이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구속에 대

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 죄로부터 구원은 절대 없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믿음이 최고의 상태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경 안에 있고, 심지어 영원한 천국과 불타는 지옥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선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그들의 죄들 안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한다 (히브리서 9:22).

그리스도는 “길”이며, 그분이 없는 모든 자는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리스도는 “진리”이며, 그분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을 산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그분이 없는 모든 사람은 범죄와 죄들 가운데 죽었다. 그리스도는 “빛”이며, 그분이 없는 모든 자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며, 그분이 없는 자들은 불이 던져지게 될 말라 죽은 가지들이다. 그리스도는 “반석”이며, 만약 그분이 없다면, 심판의 홍수로 쓸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떡”이고 “생명의 물”이며, 만약 그분이 없으면, 영원토록 굶주림과 갈증을 겪을 것이다.

이 진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설교대,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물, 그리고 인터넷에서 매일 매일 신실하게 전파될 때,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면, 만약 구원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으로 얻어진다면, 주 예수께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던 모든 자가 그분에 의해, 그

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구원을 얻었다면, 왜 그분께 나오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불안과 불행과 죄 안에 계속하여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책에서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을 것인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만약 나이 구원자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주 예수를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충만의 구원자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다섯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 영적 소경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아담의 모든 아들딸들은 영적 소경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 사람의 문제는 그가 소경이라는 것이며, 너무도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가 거듭나지 않고 거듭날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은 어떤 영적인 것도 보거나 분별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고 복음이 그들에게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다. 바울은 말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3-4). 소경은 Great Smokey Mountains 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지 못한다. 귀먹은 자는 교향악단의 장엄한 음악을 감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인 죄인, 영적인 것들을 보고 받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영적인 눈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

나님께 속한 것들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다. 모든 인류는 죄를 통하여 잃어버린 상태에 있고 멸망하는 상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안에 태어나며, 죄악 가운데로 보내진다. 각각은 거짓을 말하는 모태로부터 태어난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아무도 계수할 수 없는 많은 수를 구원하실 것이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선택 받고, 구속 받고, 구원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셨다. 아들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게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모두 구원하실 것이지만, 나머지는 그들의 눈이 소경 되고 편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 계속하여 사악한 마음에 넘겨지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가 없이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로마서 1:28). 긍휼의 모든 그릇은 영광으로 예비될 것이며 진노의 모든 그릇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파멸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9:11-28).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주권의 문제이다 (요한복음 5:40; 10:25-26).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그 수고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명과 전도와 증언에 드려야 하며, 그로써 우리 구원자의 위대한 위임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음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의 이름도 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수고들, 우리의 가장 열심이고 신실한 수고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공허할 뿐이다. 그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소유와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과 위로에 까지 축복하실 것을 언제나 기도하자.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실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보여 주실 것이다. 그분만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보기 위한 눈과 믿기 위한 마음을 주실 수 있다 (요한복음 16:8-11).

길 잃은 사람들을 결단과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교회와 설교자들의 모든 계략과 속임수와 변명과 구걸은 소용 없고, 쓸모 없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고 사람들의 혼에 대한 조롱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경 된 마음 속에서 신성한 운행을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 위한 그들의 눈을 여시지 않는다면, 눈먼 죄인들은 눈먼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무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 할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사람들을 아들에게 이끄실” 수 있다. 죄인들은 그들이 소경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상태와 필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을 것이며 나올 수 없다. 천연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사악함을 보지 못하고 “그 사악함으로 인하여 매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을 보지 않는다 (시편 7:11). 그들은 그들 마음의 역병을 모른다. 그들은 구원이 그리스도 피 안에 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십자가를 전함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이다. 이런 모든 영광스런 진리들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운행하심으로 만 계시되고 알려진다.

그렇다, 우리는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죄하고 변화시키

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오늘날 강조점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전도 위에 있지 않고, 죄인들을 “결단하게 만드는 것”에 있고, “죄인들의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에 있다. — 한 번이 아니다! 성경 안에서 당신은 “주의 말씀의 부담”을 가져다 주고, 죄를 정죄하며, 죄인들을 회개케 하려 부르고, 영의 찌름 아래서 상처받으며, 그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외칠 때까지, 그들의 발을 불 속에 붙잡아 두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은 운명론으로도 반복음주의 영으로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교리를 합당하게 강조하는 데로 우리를 이끌 것이며,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정을 내렸지만, 그 영으로 결코 거듭나지 않았던 상당한 수가 되는 구원받지 않은 교회 체제를 열거하는데 사용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개종하게 만드는데 사용된 그런 비성경적인 방법을 바로 잡을 것이다. 숫자와 사람으로부터의 칭송에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세상 주변의 교회들은 쇼를 하며 교회 직분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뱀기름 장사꾼의 모든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들이 지옥에서 깨어날 때까지, 영원히 길을 잃을 때까지 안심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혼을 속이는 이런 현대의 속이는 자들은 한 사람의 제자나 백만의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땅과 바다를 누볐으며, 그들은 어떤 것의 유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더욱 더 지옥의 자녀들로 만들려 하였다. 그들 가운데 모든 종교적이고 육체적인 행위의 결과로 이 부도덕한 세대의 교회들은 그리스도 없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 애를 쓰고, 거룩함을 지니지 않고 거룩하게 행도하려 애를 쓰며, “소경”인 자가 “소경을 인도”하려 애를 쓰는 죄인들로 가득하다.

설교자들과 교회가 정직해지기 시작할 때다. — 술수를 쓰고 믿음이 없이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며, 거듭남 없이 결단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들에게 대한 죄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한복음 5:40).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37-44).

## 영적 사망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영적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범죄와 죄들 안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야만 한다. 사람의 마음 속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않는다. 사람의 혼에 영적 생명은 없다.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찾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사망하였다. 그들은 마치 시체가 육체적으로 무력한 것처럼 영적으로 사망하였고 무력하다. 나는 죄인이 그 죄로부터 일어나서 성령의 되살아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께로 오기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죽은 자가 그 관에서 나오기를 기대하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스스로 마실 것을 기대할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전에 죄로부터 구원 받았다면, 그는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효험 있게 깨어나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쓰는 서신에서 우리가 그 영에 의해서 생명으로 “깨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을 호소한다 (에베소서 2:1).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영의 이 효험 있는 역사를 수행하시지 않고, 오직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던 자들의 마음 속에서만 행하신다. 그분은 계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편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우리 편을 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더이상 은혜가 아니라 행위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게 만들며, 순수하고 대가 없는 은혜로 인한 구원을 완전히 파괴한다. 사람은 에덴에서 그의 결정을 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불

순종하고 사탄을 섬기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정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한다. 이제 하나님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로부터 그 백성을 부르시며, 그분의 귀한 아들의 보혈로 구속 받은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운명이 혼의 승리자들처럼 우리 성공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거듭남의 역사는 그분의 손, 그 영의 전능한 은혜의 손에 있다!

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설교자가 빌라도의 말을 설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마태복음 27:22). 죄인의 혼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를 위한 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죄인에게 시도하고 증거하려 사용한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설교자들이 주 예수께서 빌라도의 이 말에 대한 대답을 충실히 설교한다. 그분은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9:11).

거기 있다, 죄인아, 우리는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고 그분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도 대응하고 대답할 수 없는 분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의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19).

## 영적 대적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가?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셋째, 그들의 마음

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으로 가득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적대적인 죄인들은 복음에 대하여 영적 대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격렬하게 반대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 앞에서 어떤 능력도 없이 멸망하고, 저주받고, 죽을 죄인들임을 선포하신 사실을 멸시한다. 그것은 완전한 타락의 교리이다.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만의 뜻과 선택으로 있다는 사실을 증오한다. 그것은 무조건적 택정의 교리이다. 아, 사람들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효험 있는 구속의 공로로 죄인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그것은 제한된 속량의 달콤한 교리이다. 도처의 죄인들은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으로 만 온다고 듣기를 몹시 싫어한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이다. 그리고 죄인들은 구원의 보증이 오직 우리가 은혜로 보존되고 보호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완전히 보증된다. 그것은 성도들의 인내의 교리이다.

죄인들은 구원의 조건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기를 거절한다. 평균적인 사람은 만약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그의 생명의 고삐를 자신의 손 안에 잡을 수 있다면 지옥의 불에서의 구원을 기꺼이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주로써 향복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야말로 나 자신을 그분께 향복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4:25-33).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 나를 중심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중심 삼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중심 삼는 믿음이 있다. 만약 내 믿음이 우선적으로 내

게 관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심한다면, 그러면 나의 믿음의 대상은 나이다. 내가 실로 나 자신을 경배한다. 만약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관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다. 나는 그분을 경배한다.

Martin Luther 는 구원을 “인간 필요의 만족보다도,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깨달음”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그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엮드리는 것 이라고 보았다. Calvin 은, “참 믿음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이시라는 것에 대한 마음에 기꺼이 갖는 확신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가지 관심사이다.

죄인들은 그들이 그분의 조건을 싫어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폭로하고 그들의 자기의의 누더기의 그들을 벗기시고 그들의 모든 거짓 기초들을 파괴해 버리실 때까지, 전쟁의 무기와 반역의 무기들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 다른 피난처

이사야 28:14-20 은 우리에게 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인지 네 가지 이유를 주고 있다. 만약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이 단단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면, 당신은 다른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할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찌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찌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사야 28:14-15).

무엇이 당신의 피난처인가? 어디에 당신은 숨을 것인가? 무엇이 죽음과 한 당신의 약속인가? — 당신의 선한 행위들인가? — 예수를 위한 당신의 결단인가? — 당신의 종교적 체험인가? 우리 혼을 위한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위하여 공급하셨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이시며, 그분의 피, 그분의 의, 그분의 은혜이다! —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16).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죄인들을 그 거짓의 피난처로부터 쫓아내고 성경의 하나님을 높일 어떤 전도자들을 주신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이사야 28:17-20).

## 은혜가 없이

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다섯번째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죄인들은 그들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구원자는 요한복음 5:40 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고 말씀하신다. 6장의 44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이 자기의의 바리새인들, 이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이유는 그들이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오지 않을 자들은 그들의 완고한 의도적인 불신 때문에 비난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를 막는 것은 그 본성에 있는 인간의 의지의 완고함과 타락과 노예상태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증오하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모든 것이 언급되고 행해질 때,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다. —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가 없다. 만약 이제 그리스도께 온다면, 당신이 오는 것은 나오기 위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홀로 버려두셨고, 당신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3-10). 만약 하나님

의 아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8-9).

#### 44 장. 그리스도 없이 계산함—요한복음 6:1-14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찌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1-14)

우리 주 예수에 의해 실행된 모든 기적들 중, 오천 명을 먹인 것은 사복음서 각각에 의해 기록된 유일한 것이다(마태복음 14:13-21; 마가복음 6:32-44; 누가복음 9:10-17; 요한복음 6:1-14). 우리 구원자께서 행하신 모든 위대한 역사들 중, 어떤 것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천 명을 먹인 것 같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행해진 것은 없다. 유일하고 특별한 중요한 것인 그 위대한 기적에 대한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후에” (1 절). — “이 일들”은 5 장에서 언급된 그 일들을 가리킨다. 병자를 치료하고, 주 예수께서 그 궁핍의 기적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와 인자와 메시아와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분의 신격과 권능과 사명에 대한 그분의 긴 담론을 가리킨다. 그 모든 일 후에, 그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 그들의 거짓 종교적 전통을 믿고 그것에 매달렸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저주 받도록 버려두셨다. 이것이 모든 종교적 의식 주의자에게 있을 그 어떤 경고인가!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많은 수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2 절). 각 세대 가운데 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가련한 혼들은 기적들 가운데 있는 흥분을 사랑했고 기쁨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의 교리를 받는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의 구원자, 그리고 언약의 메시아로서 신뢰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2:23-25; 요한복음 6:25-26). 오늘날 동일한 것을 본다. 도처에 있는 사람들은 교활한 전도자들과 거짓 치료사들과 기적 행위

자들과 종교 흥행사를 따르지만, 그리스도 구속자,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의 구원자에게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3 절과 4 절에서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따랐던 군중으로부터 조차도 그분 자신을 피하셨다. 그들의 불신에 지쳤으며, 그들의 자기 의와 공허한 전통에 지치셨기에,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을 조용하고 격리된 장소로 데려가셨다.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리고 요한은 주의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절기” 속으로 퇴화했음을 언급한다. 비록 유월절이 가까웠으나, 그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알려지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

### **부드러운 보살핌**

첫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우리 구원자의 부드러운 보살핌에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요청한다. 잠시 후, 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4:14-15). 주님은 그리고 빌립을 큰 시험에 두셨다. 그분은 하셔야 했던 것을 아셨다 (6 절). 그러나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당신이나 나와 아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군중을 보았고, 그 필요를 보았으며,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약간의 음식물을 살 충분한 돈이 없으니, 그들이 알아서 먹도록 돕시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 찌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시험에서 빌립이 우리의 슬픈 초상이 아닌가! 우리의 일상의 시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필요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뒤로 물러서는가.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혼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일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우리는 그 필요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뒤로 물러서는가. 빌립은 이 큰 군중을 먹일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신의 자산과 능력을 계산하기 시작했고,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 무한한 능력과 부의 임재 가운데 “조금씩”을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분의 능력에 비교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분의 충만에 비교하여 우리의 공허함은 무엇인가? 그분을 바라보는 대신, 우리처럼 빌립은 그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았다.

불신은 끔찍하게 전염되는 것이다. 8-9 절에서 다른 어떤 자들보다 더 오래 제자였던 안드레아는 똑같은 것을 말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동의하였다 (마가복음 6:37). 안드레아, 빌립,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배웠던 것을 잊어버린 듯 하였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에 일시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여기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 — 그들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었다! (시편 78:19-22). —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14).

“헛간도 창고도 없는 새들은 먹는다;  
그 새들에게서 빵을 위하여 신뢰하는 것을 배우자.

합당한 그의 성도들은 결코 부인되지 않을 것이니,  
기록되어 있는 한 — “주께서 공급하실 것이라.”

우리 자신의 능력은 없고, 우리가 주장하는 선도 없네;  
하지만, 구원자의 위대한 이름을 알았으니,  
안전 위한 이 우리의 강한 탐 안에 거하네, —  
주는 우리의 능력이라; — ‘주께서 공급하시리라!’”

만약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많은 사람, 그가 알았던 많은 사람은 그분의 것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동정으로 감동받으셨다면,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위하여 공급하려는 놀라운 기적을 수행하셨던 것에 너무도 감동되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께서 우리 혼과 육신을 위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셨을까? 형제여, 자매여, 두려움과 불신으로 던져지게 될 어떤 것도 당신을 시험하게 하지 말라(아무것도 나를 시험하게 하지 말라!)! Hawker 가 기록한 바처럼, “써서 사라지는 당신의 떡과 영생을 허락할 것 모두 주어질 것이며, 당신의 물도 분명 주어질 것이다.” 기록되기를,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3:16). —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 사용된 제자들

둘째, 우리 주 예수께서 군중을 먹이시기 위하여 이 동일한 제자들을 사용하기를 택하신 것을 주목하라. 주 예수께서 그분의 믿지 않

는 제자들에 대해 얼마나 인내하셨던가! 비난의 암시조차 없었다 (시편 103:13-14). 주 예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을 앓게 하라”(10 절)고 말씀하셨고, 마치 가련하고 나약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이 그를 완전하고 주저함 없이 믿었던 것처럼 그들을 사용하여 다른 기적들을 계속 진행하셨다.

마가는 백 명씩 그리고 오십 명씩 열을 지어 무리를 앓혔다고 말한다 (마가복음 6:39-40). 여기서 네 가지 사항을 본다.

1.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정렬하여 앓도록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4:33).

2. 그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생명의 떡을 공급받으려 한다면, 육체의 활동은 끝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이 사람들이 자리하도록 요구하셨다 (시편 23:2).

3. 우리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과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게 그런 사소하고, 약하며, 쓸모 없는 것들을 사용하신다 (요한복음 11:39; 고린도전서 1:26-29; 베드로전서 1:23-25) .

4. 그분은 심지어 우리가 그분께 직접 드렸을 가장 사소한 선물들도 받아 사용하신다. 11 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된다. 그분은 그것이 조금이라 떡 덩이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그 물고기도 업신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것들을 사용하신다.

## 떡을 나누심

셋째, 11 절과 12 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일은 굶주린 혼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얹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 예수께서 “떡과 고기를 가지셨다.” 그분은 “감사”를 하셨다. — 따라서, 그분은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 자신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셨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기적을 수행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한 분명한 그림인가.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결코 경멸하지 말자 (에베소서 4:10-13; 고린도후서 4:7; 고린도후서 5:18-21).

제자들은 떡과 고기를 증가시키고 배가시키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은 증가되었고 배가되었다. 이상하고 하늘에 속한 것같은 선행으로 그것들은 나눔으로 배가되었고 빠르게 증가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특히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 안에서 늘어난다. 그치지 않는 음식의 공급을 제공했던 것은 구원자의 전능한 능력이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나누어주는 것은 그의 제자들의 일이었다.

그것은 모든 복음 전도자가 하도록 의도되었던 그 일의 매우 생생한 그림이다. 전도자의 일은 생명의 떡을 받는 것이며, 그것은 그의 주가 공급하며, 그분이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흔들 사이에 분배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사람이 그 떡에 가치를 주게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는 그 떡을 효험 있고 유익하고 원하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는 그 떡을 어떤 필요에 맞추거나, 그것을 누구로 하여금 먹게 할 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전도자의 일이 아니다. 전도자들은 그런 것들에 책임이 없다.

복음 사역의 전체 일은 생명의 떡의 신실한 분배이다. 전도자는 정직한 기도와 근면한 연구로 떡을 구하여야 한다.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안수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그들 자신을 생명의 떡을 구하는데 헌신하고 땅에 속한 떡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사도행전 6 장). 전도자들은 굶주린 흔들 가운데 그 떡을 신실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 하나님의 전능

넷째, 이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을 부인할 수 없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것을 본다. 하루가 저물었을 때, “열두 광주리의 조각들”이 그 수천 명이 모두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은 후 남았다.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하심이 이 위대한 기적을 수행하실 수 있다. 이 사람, 하나님-사람은 그 전에 없었던 음식이 있게 하셨다.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전에 있던 것을 고치고 회복하셨다. 여기서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 창조되었다.

이 기적은 특별히 교훈적이고 죽지 않는 혼에 선을 행하려 하는 모든 자에게 격려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며,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은 죽은 심령 위에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부수어진 것을 고치시고, 버려진 것을 세우시며,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고 하신다. 그분은 전에 있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명령하시고 (고린도후서 5:17),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부르신다! 그분의 영으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구원자께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 **모두 배불렀음**

다섯째, 12 절을 보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저희가 배불렀다.”이라고 말한다. 그 모든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로 먹었을 때, 배가 불렀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 그분은 우리를 은혜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혼을 풍성함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골로새서 2:9-10). 그분의 은혜는 모든 충만의 은혜이다 (로마서 5:20-21; 고린도후서 12:1-10).

### **버리는 것이 없음**

여섯째,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요구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들이 모았을 때, 남은 것으로 가득히 열두 개의 수복한 광주리가 남았다 (12-13 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풍성했으며, 그 소년은 열두 광주리를 집으로 가져갔다. 자유로운 혼이 기쁨지게 되었다 (잠언 11:25).

나는 우리 구원자의 의도가 여기서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의 땅에 속한 물질을 아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아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훨씬 더 필요하다. 그분은 남은 조각을 이렇게 모으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복음의 풍성을 우리의 무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히브리서 2: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복음의 소망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말자. 노예의 멍에와 율법의 행위로 결코 얽매이지 않도록 하자.

끓주린 혼이여, 와서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고 영원히 살라 (요한복음 6:47-50, 53-58).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

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47-50, 53-58)

## 45 장. 어둠 속에 홀로—요한복음 6:5-21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찌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6:5-21)

내가 소년이었을 때, 소년들은 결코 두려움을 보이지 말 것을 배웠다. 만약 소년이 다른 사람이 그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그 두려움의 끝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은 다른 두 가지 사항이다. 나는 두려움을 결코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어머니께서 벨트를 쥐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외에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없다.

이 구절들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의 위대한 기적 중 두 가지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다. 처음 읽을 때, 그것들은 관계가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매우 특정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일어난 일들은 아주 세밀한 순서로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주의 기적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위대함과 은혜에 대한 특정한 관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세밀한 순서로 수행되었고 기록되었다. 5-14 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한 소년의 손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다. 15-21 절에서 우리는 파도가 일고 폭풍이 치는 바다를 건너는 주 예수를 본다. 첫번째 기적에서 주 예수께서 빌립과 다른 사

도들을 시험하려 많은 수의 굶주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두번째 기적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폭풍 속으로 그 제자들이 곧바로 향해 하도록 보내셨으며,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셨을 것이다. 이 제자들처럼, 당신과 나는 우리가 시험 받는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종종 시험의 시간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시험의 시간은 그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증명하시며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증명하는 주께서 직접 약속하신 시간이다. 이 때는 시험과 역경의 때, 믿음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때 등등 많다. 이 시험의 때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공훈의 전능한 품에 안기도록 하며, 우리가 결코 하지 않으려 하던 것을 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도록 하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역사하시는 때이다. —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의 시간이 얼마나 놀라웠는가! —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야곱에게 그 모든 해가 어떤 시험의 시간이었는가! — 주 예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로 걸러내게 허락하셨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큰 시험의 시간을 가졌든 가!

이 두 가지의 기적들로부터, 이 두 가지의 시험의 때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당신과 나를 위하여 이 두 가지 기적들이 갖고 있는 공과는 무엇인가? 왜 그 기적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가 배우고 훈계 받기 위하여 여기에 기록되었는가?

### 주께서 아신다

첫째, 이것을 배우고 기억하라. — 주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언제나 그분이 하실 것을 아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5-6 절).

우리는 종종 방심한다. 아무것도 결코 그분을 방심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놀란다. 아무것도 결코 그분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준비되지 않는다. 그분은 결코 준비 안되지 않는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과 구원자는 언제나 무엇을 하실지 아신다. 그분은 타락한 루시퍼 앞에서, 죄지은 아담 앞에서, 모태로부터 빛나간 우리 앞에서 무엇을 하실지 아셨다. 그분은 모든 세상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 받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보혈로 구속 받은 가련하고 길 잃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실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아신다.

“그는 아네: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리라;  
그는 아네 나를 위하여 예비된 길을;  
나의 모든 비통함을 위한 치유의 향유—  
아 복된 생각이여! — 나의 구원자께서 하시네!

나의 지친 발을 찌를 그 가지들;  
내려오는 구름들, 폭풍우가 고동치고;  
그리고, 고요한 정적의 기쁨으로,  
아 복된 생각이여! — 내 구원자가 하시네!

그가 아시니: 이것으로 나를 족하게 하라;  
내가 볼 수 없는 마지막을 그는 아시니;  
그리고 나의 근심스런 마음을 잠잠케 하시네,  
그리고 인내로, 나의 구원자의 뜻을 기다리라.

힘을 구하며 그에게 하는 나의 기도가 알려졌네,  
비록 비밀스럽게 홀로 숨쉴지라도;  
지친 마음, 눈물이 흐르네,  
아 복된 생각이여! — 나의 구원자가 아시네!”

우리 구원자께서 그가 이 두 구절에서 하려 하셨던 것들은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이다.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지극히 불충분함을 보여주려 하셨다 (요한복음 15:5).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모든 충만을 보여주시려 하셨다 (고린도후서 12:7-10) 기드온의 군대가 300 명의 수로 줄었을 때 물 한잔을 얻기도 두려웠다. 실로 강한 군대였다. 주 예수께서 당신 위에 비추는 그분의 은혜의 빛을 발하게 하시기 전에 그분의 공포의 흑암으로 당신을 채우실 것이다.

### 버리는 것이 없음

둘째, 주 예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검사하실 때, 비록 그분이 우리를 밀처럼 체로 거르시고, 은처럼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시험으로 잃을 것은 없고,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시험하셨던 바로 이 제자들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요

구를 받았다 (12 절). 그리고 그들은 열두 광주리의 남은 조각들을 모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보낸 사백 년으로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이 노예 상태의 땅에서 나올 때 이집트인들을 손상시켰다. 읊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그러나 그의 시험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타는 화로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를 채로 치는 사탄에 의해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고 물으신다. 그리고 모두가, “없었나이다”고 인정해야 했다 (누가복음 22:35).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사야 43:1-5).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 그분이 하신

것을 본 자들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다 (14 절; 요한복음 1:21; 신명기 18:15). 이스라엘의 모든 자처럼, 그들은 혐오하는 로마인들에 대항하여 성공인 반란으로 그들을 이끌 인도자와 왕과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사도행전 5:36-37).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인 영적인 왕국, 이 세상에는 없는 왕국이며 (요한복음 18:36), 그러나 우리 안에 있다. 그들은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를 묘사하는 희생과 속량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지자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들에 의해 잘못 인도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만들기 원했던 이 야망의 사람들로부터 즉시 피하셨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구속하며, 모든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을 불러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디도서 2:14; 베드로전서 2:9-10).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로 고백하였고, 강제로 그분을 왕으로 만들려 하였으나, 이들 사이에 들어온 다른 책무가 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그분 자신을 죄를 위한 희생으로 드리며 책무를 하셔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들에 의해 왕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왕이시다 (계시록 19:16).

### **어둠 속에 홀로 지내는 밤들**

여기 세번째 공과가 있다. —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홀로 지내는 밤들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

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6-17 절).

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달콤하게 죄책감과 죄의 어둠 가운데 홀로 갇혀 있게 만드시는 죄인은 복되다 (요한복음 8:1-8). 마태는 제자들이 이 배를 탔고 건너편으로 향해하도록 한 것은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14:22-23). 그들은 지나는 모든 배에서 주를 찾았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리고, 어두워졌고, 그분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들이 바다 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께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 그들만 있었다. 그리고 끔찍한 폭풍이 일어났다 (18 절). 그들은 노를 저었고 폭풍을 가로질러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이 경험 있는 뱃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도 가고 있지 않음을 알았다. 어둠은 짙었다. 폭풍은 엄청났다. 바람은 강했다. —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 그들만 있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들은 주께서 그들이 하라고 하셨던 것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들은 열 광주리의 음식을 배 안에 함께 갖고 있었지만,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다.

모든 타락한 죄인의 삶은 하나의 길고 별도 없는 밤이다. 그러나 믿는 자도 역시 그 밤이 있다. 우리는 시험과 역경과 고통의 밤들이 있다. 우리는 공허함과 황폐함과 고뇌의 밤들이 있다. 우리는 비통과 사별과 애통한 밤들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밤이 있다. 교회는 “밤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밤들”이 있다. 어둠과 폭풍우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다. “기근과 별거벗음과 위험과 검”은 계속하여 우리를 습격한다 (욥 30:26; 미가 7:8; 이사야 50:10).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그 밤이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를 떠나버리기 위하여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지루하고 무미 건조한 시간들인지,  
내가 주를 더이상 볼 수 없을 때;  
달콤한 기대, 달콤한 새, 달콤한 꽃들,  
내와 함께한 그것들의 달콤함을 모두 잃었네!  
한 여름 태양이 빛나지만 흐려지고,  
들판이 멋지게 보이려 헛되이 애쓰지만;  
내가 그 안에서 기쁠 때,  
선달이 오월처럼 즐겁네.

그의 이름이 가장 풍성한 향기를 낳고,  
그의 목소리는 음악보다 달콤하네;  
그의 임재가 나의 우울함을 훌어버리고,  
내 안에 모든 것을 기쁘게 만드네!  
그가 언제나 그렇게 가까이 있다면, 나는  
바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라:  
나처럼 기쁜 자 아무도 없어라,  
나의 여름이 일년 내내 지속되리.

그의 얼굴 바라봄으로 만족하니,  
그분의 기쁨 향한 내 모든 것이;  
계절이나 거처의 변화를 그치게 하였네,  
내 마음 속 어떤 변화가 있게 하였을 것이네.  
그분의 사랑의 느낌으로 축복받는 동안,  
궁전이 하찮게 보일 것이라;  
그리고 감옥이 궁전임을 증거할 것이니,  
예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면.

귀하신 주여, 실로 내가 당신 것이라면,  
당신께서 나의 태양이고 나의 노래라면;  
말씀하소서, 왜 내가 비참해지고 그리워해야 하며,  
또 왜 나의 겨울이 그토록 긴 것인지요?  
아 이 어두운 구름들을 나의 하늘로부터 몰아내소서,  
혼이 환호하는 당신의 임재를 회복하소서;  
아니면 나를 높은 곳에 계신 당신께 데려가소서,  
그곳은 겨울과 구름이 더이상 없는 곳입니다.”

— John Newton

어두움이 당신을 공포스럽게 만드는가? 위협이 당신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가? 버려짐으로 당신을 말라버리게 하였는가?  
—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 — 하나님의 자녀, 구원자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 밤은 당신이 행한 어떤 악한 것으로 인하여 오지 않는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다시, 또 다시 당신의 완전

한 불충분함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당신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밤의 시기들, 어둠 속에서만 있는 시기들은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게 만든다. 구원자의 공훈, 사랑, 은혜는 불변하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한 마리의 양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내 변덕스럽고, 연약한 혼은, 아아!  
하루에도 천 번이라도 넘어질 것이다.”

이 밤의 시기들은 버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이 밤의 시기들은 우리 혼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시기들임을 발견한다. 밤의 어둠 속에서 주 하나님은 빛을 위한 별들을 주셨다 (예레미야 31:35; 계시록 1:20). 어둠의 기간 중에 우리 자신을 어둠 속에만 발견할 때, 우리는 구원자를 구하도록 된다 (아가 3:1-5). 흑암의 밤은 구원자의 가장 달콤한 계시들이 오는 때이다 (다니엘 7:2, 9; 스가랴 1:8). 니고데모는 밤에 구원자에게 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가장 어두운 밤에 주 하나님 우리 구원자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요새를 위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이사야 4:5-6).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4:5-6).

## 그리스도는 흑암 속에 오신다

넷째,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폭풍우의 밤에 당신에게 오실 것이며, 그분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 없으므로 그런 방법으로 당신에게 오신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17-20 절).

주의 제자들은 끔찍한 폭풍 한 가운데, 칠혹 같은 밤의 한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고난으로 힘들게 나아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스럽고 영원한 은혜의 구원자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심한 고난을 일으켰던 바다 위로 고난을 겪고 있던 그의 친구들에게 걸어오고 계셨다. 그들은 두려웠다(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유령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작고 폭풍에 뒤 흔들리는 배로 접근 하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하셨다. 그리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복음 6:45-51).

이것은 당신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주 예수께서 당신의 폭풍에 흔들리는 삶 속으로 은혜롭게 걸어 오실 것이며 오늘날 당신에게 그토록 반대로 부는 바람이 잠잠해 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 것이다.

기억하라, 주 예수께서 친구들을 폭풍으로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들을 그분에게서 멀리 보내셨던 분도 주 예수였다 (마가복음 6:45-46). 그분이 제자들이 절실하게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오셨을 것이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였고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었던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던 것은 매우 특징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폭풍우 한 가운데에서 당신의 부드럽고 전능한 구원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 그는 당신의 혼 가운데 폭풍우를 일으키셨고 그것을 제어하실 것이다. — “내니라.” 그분은 당신의 재난을 보내셨고, 그 안에서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이다. — “내니라.” 그는 용광로에 불을 붙이셨으며, 그 불꽃을 지키실 것이며 당신이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 “내니라.” 그는 당신의 짐을 만드셨으며, 당신의 십자가를 짊으셨으며, 당신이 그것을 짊어질 힘을 주실 것이다. — “내니라.” 그는 당신에게서 당신이 힘과 건강을 취하셨고, 당신의 평강과 평안을 취하셨다. — “내니라.” 그는 당신에 관한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셨고 역풍을 일으키셨다. — “내니라.”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으나, 당신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이며,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구름으로 내 마차를 만들고, 옷으로 입히듯 폭풍우로 나 자신을 입는다. 밤 시간은 너에게 가기 위한 나의 시간이다. 어두

운 격동의 파도와 소용돌이는 내가 너에게 걸어가기 위한 포장도로이다. 용기를 가져라! — “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 “내나라.” 나는 너의 친구, 너의 형제,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니라! 나는 너의 삶의 모든 환경을 너의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할 것이다. — “내나라.” 너를 공격하는 이 폭풍을 가져왔다. 빛의 천사가 어둠의 관복을 입었던 것처럼, 너의 고난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왔으며, 하늘은 축복을 보냈다. William Cowper 의 찬송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아주 잘 묘사한다. Cowper 가 쓴 것처럼 우리는 자주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비밀스런 방법으로 운행하시네  
그의 행하시는 경이로움 들이여,  
그의 발걸음을 바다에 심으시고,  
폭풍우 위에 오르시네.

깊도다, 측량할 수 없는 광산 속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기술에 속한,  
그는 그의 빛나는 계획을 감추어 두고,  
그 주권적 뜻을 행하신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새 용기를 취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들은  
공홀 가득히 크고 부수어 버릴 것이니  
축복 가운데 네 머리 위에서라.

연약한 느낌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지니,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위하여 그를 신뢰하라.

분노의 섭리 뒤에  
그는 미소 띤 얼굴을 감추신다.

그의 계획은 속히 완성될 것이니,  
매 시간 내어 놓으시네.  
봉오리는 쓰디 쓸지라도,  
그러나 꽃은 달콤할 것이라!”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분이 당신의 혼을 위하여 분노 가운데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폭풍을 보내셨다. 확신을 가지라, 나의 형제여, 확신을 가지라, 나의 자매여, — 당신의 시험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언제나 당신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 “내나라.” 그분은 명령하셨고, 안배하셨고, 통제하신다. 모든 풍랑 속에서, 모든 어두운 밤 가운데, 모든 외로운 시간 가운데, 매번 일어나는 두려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기운 내라. 내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은혜를 주실 것이다.

가련한 죄인아, 삶을 단념하겠는가? 죄의식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둠 가운데 홀로 가두었는가. — 주께서 당신의 옷을 벗기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입히실 것이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을 비우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채우실 것이다. 만약 그분이 상처를 입히셨다면,

면, 그분이 치료하실 것이다. 만약 그분이 죽이신다면, 그분이 살게 만드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필요한 것을 알았다면, 그분이 공황을 가지고 당신에게 오셨으므로, 공황을 위하여 그분께 오라. 만약 이제 당신이 그분의 공황을 구한다면, 공황에 대한 당신의 외침은 이미 주어진 공황에 대한 대답이다.

“내가 주를 찾았으니, 후에 알았네  
그가 나를 찾으며, 내 혼으로 그를 찾게 감동시키셨네;  
내가 찾은 것이 아니었으니, 아 참 구원자여,  
아니라, 당신으로 내가 발견되었네.

당신의 손을 뺀어 나의 손을 감쌌으니;  
폭풍—혼란한 바다—위를 걸었으나 가라 앉지 않았네.  
내가 당신을 붙잡지 않았으니,  
당신께서, 귀하신 주여, 나를 잡았음이라.

내가 찾고, 내가 걷고, 내가 사랑하나, 그러나 아 그 모든  
사랑은 그러나 나의 대답은, 주여, 당신에게라;  
당신께서 오래 전에 나의 혼과 함께 계셨으니,  
언제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 배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섯째, 구원자께서 오시자마자, 고난 받는 혼은 그분을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배는 그 바라던 안식처로 상륙한다. —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1 절).

이 말은 은혜의 기적이 즉각적으로 행해졌음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들은 위험에서 곧바로 구원 받았다. 그들의 마음의 갈망은 충분히 채워졌고, 즉시 채워졌다! 즉시, 그들은 오랫동안 갈망하던 안식의 피난처에 이르렀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배로 영접되자 마자, 구원자에 대한 그 영접은 언제나 구원과 안식이 따른다 (마태복음 11:28-30). 즉각적인 구원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의 선물이다.

제자들이 호수의 한 중앙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난파될 것같이 보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주 예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즉시 하셨다. —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하셨나니.” (디도서 3:5).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와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 도다.  
 저희가 이리 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 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시편 107:23-31).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과 지식 안으로 좀더 완전하게 알려주는 어둠의 그 밤이 축복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되며, 낮이 오고 있으며, 길고 영원한 영광의 날이 손에 있다! —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테살로니가 전서 4:17). 만약 그분의 임재가 밤을 이 제자들에게 견딜 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쁘게까지 만들었다면, 그분의 임재가 오는 날에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무런 번뇌가 오지 않을 날이 오고 있으니  
 더 이상 하늘에 구름이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네.  
 그 기쁜 황금 물가에서 모두가 평화로우니,  
 놀라운 날이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어떤 슬픔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져야 할 짐이 없으며,  
 그곳엔 더 이상 질병이 없고, 고통도 없으며, 더 이상 헤어짐이 없  
 네:

그리고 영원히 나는 나를 위하여 죽은 그 한분과 함께 하리니,  
 놀라운 날이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나의 예수를 볼 그 날은 놀라운 날이 될 것이니,  
또 내가 그의 얼굴을 보네,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분을;  
그가 내 손을 잡고 또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놀라운 날이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  
놀라운 날이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

## 46 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요한복음 6:22-29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22-29)

유대 탈무드는, “모든 율법은 613 개의 계율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확언한다. 그것이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약되어 주어졌다 (출애굽기 20:1-17). 그 십계명은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면모를 계시하며 우리 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십계명은 우리를 위하여 죄를 구별

하며 우리가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 구속자, 그리고 대표자에 대하여 필요함을 보여 준다. 그분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이사야서는 모든 계명을 여섯 개로 줄였는데, (1.) 의롭게 행하며, (2.) 강직하게 말하고, (3.) 압박을 받는 것을 싫어하며, (4.) 뇌물 받기를 거절하고, (5.) 꾀 뿌림을 배척하며, 그리고 (6.) 악한 것에 등을 돌리는 모든 자는 “높이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들이다 (이사야 33:15-16). 선지자 미가는 모든 계명을 단 세 가지로 줄였다 (미가 6:8). 그리고 주가 세상에서 사역하는 날들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명을 단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음을 선포하셨다 (마태복음 22:37-40).

육백 열 세 가지 율법의 계율은 그것들의 본질로 줄였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것들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다. 여전히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한 가지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 가지 행위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 그것을 29 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각자의 마음의 생각들을 아신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는 척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숨은 동기들을 아셨다. 22-26 절에 대한 주석을 J. C. Ryle 은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의 종교 안에서, 또 우리가 그 밖에 어디에 있든지 진실되고, 참되며, 신실하도록 하자. 위선자의 충만한 죄는 매우 크지만, 그 어리석음은 여전히 더 크다. 사역자와 친척과 친구들을 속이기는 힘들지 않다. 외적으로 조금 깔끔한 고백은 종종 멀리 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속이기는 불가능하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 1:14). 그분은 우리를 꿰뚫고 보신다. 기쁨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의 것이다 —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17).”

“찍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27 절). — 여기에서 우리 주께서 금하신 것은 물질적인 것에 관련한 수고나 관심이 아니다. 주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나태함이나 게으름을 장려하지 않으시며, 어디에서도 우리의 세상적 책무들과 관련하여 무관심을 조장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금하셨던 것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다. 파멸을 위한 것으로 점 찍힌 것에 우리 스스로 전념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분을 구하고,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두고, 영존하는 생명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을 위한 것을 위하여 살기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치신다. 이 영존

하는 생명은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시며,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셨던” 분께서 그분의 옥쇄로 인치셨고, 보증을 위하여 표시하셨으며, 비밀로 지키셨던 것이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8 절). — 우리는 행위를 좋아한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에게 할 것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종교이고, 세상이 종교이며, 본성적으로 당신과 나의 종교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 자신의 창자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지으며 스스로 의의 거미줄을 짓기를 원한다. 아무도 대가 없는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

Martin Luther 는 그가 종교 행위를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불렀을 때 아주 정확히 옳았다. 행위로 구원받기를 구하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기 위한 큰 고통을 취하기 때문에 그는 “악마의 순교자들”이라고 불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 절). — 그것을 올바르게 읽었는가? —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유일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일이다. 요한일서 3:23 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는 것을 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다섯 가지 사항들

나는 믿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말한 백부장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나는 이 주제에 대단히 흥미로우며, 당신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씀한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6).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40). — 그분은 한 때 한 매춘부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50). — 그분께 아픈 친구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분은 그를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20).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 붙여 화평을 누리자.”고 말했다 (로마서 5:1). — 그는 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했다 (에베소서 2:8).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높이 칭송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다섯 가지 사항이 있다...

## 1. 믿음은 기초 은혜이다.

사랑이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인 한편 소망은 위로와 기대의 은혜이며, 믿음은 그로부터 사랑과 소망 모두 솟아나는 기초 은혜이다 (요한복음 3:36; 마가복음 16:15-16; 로마서 10:11-

15). 혼 안에 있는 생명의 첫번째 증거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됨 안에서 형벌의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거듭남 안에서 영적 사망으로부터 구원 받았다.

어떤 형태의 행위, 어떤 종교적 고백, 얼마나 많은 지식, 어떤 느낌이나 감정도 죄 있음에서 면제되고 하나님으로 낚음을 확신시켜 줄 수 없고, 다만 믿음만 할 수 있다 (요한일서 5:1).

믿음이 혼 안에 있는 생명의 첫번째 증거이므로, 모든 참되고 영적인 생명은 믿음으로 유지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감정이나 헌신, 그의 느낌이나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Spurgeon 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분의 언약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진심 어린 믿음은 혼의 생명이며, 아무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믿음과 사랑’은 성도와 죄인 모두를 위한 변치 않는 계율이다.”고 말했다. John Flavel 은, “혼은 몸의 생명이다. 믿음은 혼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생명이다.”고 썼다.

믿음은 기초 은혜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생명이 없다. 당신은 아직 당신의 죄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있다.

## 2.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신은 많은 것을 믿을지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사람 안에는 믿음의 많은 형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 죄인을 살아 있고 용해될 수 없는 연합 안에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그 믿음은 하나

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8-9). 그것은 육체의 소산물이 아니다 (요한복음 1:12-13; 빌립보서 1:29; 에베소서 1:19; 골로새서 2:12).

### 3. 죄인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은 의롭게 함의 이유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은 의롭게 함의 기초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이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게 함의 음성이다. 믿음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의롭게 함을 선포하는 수단이다 (로마서 4:25-5:11; 갈라디아서 2:16).

### 4. 진실한 구원의 믿음은 성장의 은혜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만약 우리 믿음이 종교적 고백과 교리적 정통성의 죽은 믿음이라면, 그것은 성장하지도 증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 믿음이 살아 있는 것이라면, 성장한다. —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테살로니가후서 1:3). 믿는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간다” (베드로후서 3:18).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확신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그리스도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안식과 평강이 증가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성장하면 할수록, 삶에 대하여 우리는 덜 염려하며, 이 세상에서 덜 흥미를 느끼며, 시험 가운데 덜 초조해 한다!

### 5. 믿음의 많은 모방과 구원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거짓 믿음이 있다.

거짓 믿음은 사람을 대단히 감명 줄 수 있고 우리 자신으로 우리를

감명 줄 수 있다. —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19). 성경을 가볍게 읽기만 해도 거짓 믿음이 다음과 같음을 계시한다…

- 크게 빛 비춤을 받게 될 수 있고 큰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히브리서 6:4).
- 돌처럼 굳은 청취자의 애정을 흥분시킬 수 있다.
- 외적 삶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종교적 바리새인들로 만들 수 있다.
-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 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다.
- 유다처럼 큰 비탄과 함께 죄를 고백할 수 있다.
- 베옷을 입고 스스로를 낮추게 될 것이고 아함과 함께 재가 될 수 있다.
- 에서처럼 회개할 수 있다.
-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매우 관대할 수 있다.
- 벨릭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떨게 될 수 있다.
- 종교 안에서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다 (히브리서 6:1-4).
- 롯의 아내처럼 큰 종교적 특권을 누리게 될 수 있다.
- 말씀을 전하고, 기적들을 행하며, 악령을 내치게 될 수 있다 (마태복음 7:23).

- 디오드레베와 함께 교회 안에서 높은 직책을 얻을 수 있다.
- 바울과 함께 행보하였던 데마처럼 위대한 전도자들과 함께 행보할 수 있다.
-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평화롭고 안심할 수 있다.
- 심지어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고 남게 될 수 있다 (마태복음 7:22-23).

## 세 가지 질문

무엇이 구원하는 믿음인가? — 나는 어떤 계획이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고, “이것을 따라라, 저것을 해라,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고 말할 수 없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당신에게 말하는 누구든 믿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권이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선택되고 구속된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로마서 10:17; 베드로전서 1:23-25). 그리고 구원의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디모데후서 1:12).

**1. 지식** —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디모데후서 1:12).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당신은 알지도 못하고, 드러나지도 않은 구원자를 신뢰할 수 없다 (요한복음 20:30-31). 아무도 그가 성경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알며, 그 자신의 타락과 죄 있음과 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에 대한 것을 알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이며,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 때까지

지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다. 구원의 믿음은 어둠 속에서 뛰어 오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믿음은 계시된 진리와 지식에 기초한다 (로마서 10:13-14). 그러나 지식보다 더한 것이 믿음에 있다. 또한 있어야 할 것이 있다...

**2. 확신** —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38).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을 알며,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완전히 동의하고 합의한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찍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여전히, 지식이나, 심지어 확신보다도 더 많은 것이 구원의 믿음에 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이 복음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 세번째, 믿음의 치명적 요서가 그들에게 빠져 있다.

**3. 의탁** —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12). —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였다. 그는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신뢰하여 위탁하였고 그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 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였다.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께;  
아 언제나 믿을 자는,  
나의 구원자와 나의 하나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31). Thomas Brooks 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죄들이 결코 그렇게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죄들이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필요한가? — 이 것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되고 있다. 그러나 간단히 하기 위하여, 믿음의 필요에 대한 세 가지 이유,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겠다.

**1. 타락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이다** (히브리서 11:6; 로마서 3:31; 8:1-4).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를 제외하고,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신뢰하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한다.

**2. 믿음을 떼어 놓고 어떤 참된 겸손은 없다.** — 은혜는 겸손한 자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교만한 자를 거절하신다. 그러나 세상에서 유일하게 겸손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 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의 근거로서 주장하려는 어떤 것을 갖고 있거나, 그가 한다고 상상한다. 믿는 자들은 진실하게 겸손하다. 우리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

며 그것을 안다. 우리는 빈 손으로 모든 것을 위하여 그분을 신뢰하며 그리스도께 나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샅이나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선물로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전적이고 영원한 용납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고린도전서 1:30-31).

“아무것도 내 손에는 가져갈 것 없네,  
단순히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리네.  
별거벗은 자 옷 입기 위해 당신께 오네,  
무력한 자 은혜를 위해 당신을 바라보네!”

**3.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고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필요하다** (로마서 4:16).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요한복음 14:6). 그리스도만이 문이다 (요한복음 10:9). 우리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1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 내게는 있는가? — 이 질문은 매우 중대하다. 이것은 가볍게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13:5).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의 부름과 택정함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신에게 할 수 없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답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나는 안다. —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다. 믿음은 교리 그 이상이다!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체험은 성장하는 체험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극히 높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베드로전서 2:7). 그분의 피는 보혈이다. 그분의 의는 다른 어떤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가진 모든 자에게 보배롭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모든 그들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개인적인 의를 포기하고 계속하여 포기한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어떤 분임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만이 그분을 아는 모든 자에게 보배롭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28-29 절). —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다. —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 47 장. 인침 받은 어떤 것들—요한복음 6: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27)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하신 것들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 차례 읽었다. 매번 내가 이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교훈을 받으며 나의 혼 안에 축복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성경을 기꺼이 열어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함 가운데 우리에게 인치신 이 것들을 계시하기를 바란다.

### 인침 받은 구원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 주 예수는 여기서 그분을 인자로서, 그를 신뢰하는 자들 모두에게 영생을 주는 분으로서 인침 받은 구원자로 선포하신다. —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인침 받다”로 번역된 말은 “보증을 위하여 도장을 찍은, 보존된, 혹은 비밀로 지켜짐”을 뜻한다. 실로, 그 문장은 더 정확하게 번역된 것 같다. —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만약 그렇다면, 요한은 여기서 오순절 날에 베드로

가 선포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2:22-23). —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보이셨다.

이것은 아주 적은 말로 거룩한 신학의 큰 책을 보는 성경 내의 많은 보배로운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단일곱 마디로 삼일의 신격의 모든 세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구속과 은혜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협력함을 선포하신다. 나는 Robert Hawker 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 완전히 동의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성경은 복되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 달콤한 부분에 특정한 축복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관점에서 성삼위가 하나임을 나타내고, 연합하여 죄인의 구속 가운데 협력한다.”

여기서 언급된 “그분”이 주 예수가 아니라면 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가 그를 인칠 수 있겠는가? 인침 받고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성령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구이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완전하고 교훈적이며 축복의 증거를 그런 일곱 마디로 성경 전체의 영광스러운 기초 진리에 줄 수 있겠는가? —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 믿음의 보증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 우리 중보자의 신성한 권위를 보도록 하자. 그분은 (그리고 그분 만이) 모든 상태와 모든 상황에서 우리 가련한 혼의 필요를 위하여 무한히 합당하시다. 그분의 모든 은혜로운 행위와 행동의 가치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이것에 기초한다. —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 영원 전부터 표시되었고 도장이 찍혔으며, 그분의 선택과 약속과 계명에 따른 것이며,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음 당하고 받아들여진 어린 양으로서, 시간 가운데 그분의 영에 의해 표시되고 도장이 찍혔다.

- 예언의 영에 의해서 (사도행전 10:43).
- 그분의 기름부음의 영에 의해서 (그의 침례).
- 그분이 주신 영에 의해 (갈라디아서 3:13-14; 사도행전 2장).
- 계시의 영에 의해 (요한복음 16 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고, 포로 된 자에게 구원을 주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 (누가복음 4:18-19) 그가 기름부음 받으셨을 때, 그분 위에 임한 분은 여호와의 영이었다.

이 위대한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분이 그러므로 그분의 구원의 필요를 아는 모든 가련한 죄인에게 하늘에 속한 위대한 인침으로 언급되고 제시된다. 그분의 사랑에 속한 모든 행위,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 그분의 손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 그분의 은혜에 속한 모든 역사는 주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로서 선포한다! 아 주 하나님이며, 당신의 축복의 영으로 가련한 죄인들을 도우사 하나님에 의해 인침 받은 자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인침 받기에 부족함이

없이 안식하게 하소서.

모든 믿음의 행위 가운데, 우리 혼의 모든 성향 가운데 우리가 우리 축복된 구원자 아래 살게 하시고, 교회가 외칠 때, 교회의 동일한 그 진정한 갈망들로 살게 하소서. — “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아가 8:6).

### 봉인된 책

첫째, 우리에게는 인침 받은 구원자가 있다. 계시록 5 장에서 봉인된 책에 대하여 듣는다 (계시록 5:1-7).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계시록 5:1-7)

요한이 본 책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명의 책이다. 그것은 주권적 예정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원한 계획을 나타내며,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의 위대한 보증인이 말씀하시며 언급한 것은 이 책에 대해서이다. —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시편 40:7-8; 히브리서 10:5-10).

William Hendriksen 이 책에 대하여, “그것은 역사를 통하여 우주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하며, 모든 세대와 모든 영원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은 계획,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계획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46:9-11). 예정하심 안에 있는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목적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이다 (로마서 8:28-30).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다 (로마서 11:36).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택하신 자의 영원한 구원의 효험 있는 성취이다.

택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실 백성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심 가운데, 그분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게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명하셨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 그분은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시간 가운데 성취하신다.

요한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은 닫혔고, 일곱 인으로 봉인된 비밀이었다. 일곱 인은 시간에 속한 상상 속의 “일곱 가지 분배”를 나타내지 않는다. 속과 뒤에 기록된 것과 일곱 인은 단순

히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고, 완벽 되고, 온전하며, 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그것에 더해질 수 없다. 아무것도 그로부터 제해될 수 없다. 일곱 인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계시하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계시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비밀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 인침 받은 백성

계시록 7장에서 인침 받은 백성에 대하여 본다. 이 세상 가운데 “택정 받은 자”라 불리는, 영원 가운데 선택되었고 갈보리에서 구속 받았으며, 은혜의 영에 의해 인침 받았음이 확실한 많은 수의 백성이 있다 (계시록 7:1-4).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요한계시록 7:1-4).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2 Peter 3: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 하더라.” (계시록 7:9-12)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실 때, 그 죄인은 성령으로 인침 받으며,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표시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비밀스럽게 보존되고 지켜진다 (에베소서 1:12-14; 4:30). 구약 성경에서 할례 의식으로 상징되었던 것이 그 영의 인치심이다. 그 영의 인치심은 손으로 하지 않은 마음의 할례다 (로마서 2:29; 골로새서 2:11-12).

에베소서 4:30 을 우리 일상의 행보의 좌우명으로 만드는 것은 현명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 예수를 잃어버릴 때 비탄스러워 하시며, 어떤 죄 가운데 탐닉함으로 죄로 인하여 인내하였을 그 고난들의 광경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분은 비탄에 빠지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이 방해 받고, 속량 받은 혼 중 누구든지 잃어버리고 부주의한 삶을 살 때, 우리 귀한 구원자의 모든 고통과 피땀이 잊혀진다.

사악을 허락함으로 내가 성령, 나이 신성한 수호자를 비탄스럽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런 광경에 아 주여, 나를 위하

여 비탄해 하실 것입니까? 나같이 세상의 가련한 벌레가 그런 관심과 주의에 흥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염려가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주 예수 자신이 우리를 그분의 복된 성령으로 마귀로부터 지키실 때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의 타락한 마음에서 분출되는 유독물질을 열심히 따라갈 것이다.

찬양합니다, 언제나 은혜로운 주 하나님, 당신의 제한되지 않는 영향을 거두지 마소서. 우리 자신의 의에게 한 순간도 우리를 남겨두지 마소서! 만일 당신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잘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찬양하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11). 구속의 날에 나를 인치신 자를 내가 비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봉한 샘물이다. —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가 4:12-15).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한 일들, 그분을 위하여 행해지는 일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창조하셨던 일들로 꽃피는 정원이다. 교회는 그분의 은혜로 식수되고 그의 영으로 물을 공급 받으며, 너무도 철저히 그리고 효험 있게 물을 받았으므로 교회는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세상에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로, 정원의 향기와 열매가 가득한 샘과 생수로 화했다. 그것이 아가서 4:12-15에서 그려진 그림이다. —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

내로구나.”

우리의 일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지는 그 일들은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결코 여기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였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했던 것을 하였을 것이라 안다. 우리는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고 귀하고 의로운 일들이라 할 지라도 지속적으로 회개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 우리의 하자없는 일들을 그분의 기뻐하는 열매들로 바라보신다. 그것들은 풍성하고 달콤한 향기이다. 그 향기는 그의 마음을 황홀하게 한다. 그것들은 믿음과 사랑의 일들이다. 그것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산출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존귀하게 된 일들이다 (에베소서 2:10).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해진 그 것은 그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그분에 의해 존귀하게 되고 받은 바 된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언제나 안식하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행보하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우리 구속자를 신실하게 섬기자.

## 봉인된 묵시

이사야 29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묵시인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배운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

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목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 29:9-12).

스스로에게 남겨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모든 죄인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14)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은 봉인된 목시다.

### 봉인된 복수

신명기 32 장에서 우리는 봉인된 다섯 번째 것을 본다. 이곳에서 봉하여진으로 번역된 말은 물로, 히브리 말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약간 다르다. 그 말의 의미는 “단혀지다, 끝나다, 멈추다”이다. 이 장에서 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므로, 그들 위에 실행하셔야 하는 복수와 진노가 약속의 시간을 위하여 봉인된 복수이기 때문이다. 죄인들아, 경고하노니, 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난처를 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공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

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신명기 32:34-35).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11).

## 봉인된 주머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께 나오며 그분으로 산다 (요한복음 6:45).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모두, 그들이 그분께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이 끝없는 망각의 바다의 깊은 곳인 하나님 등뒤로 던져진 주머니 안에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성경 안에 봉인된 것으로 기술된 여섯 번째 것은 봉인된 주머니이다 (욥 14:17).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 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욥기 14:14-17).

고대에 사람이 바다에서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은 함께 꿰매고 봉인된 무거운 주머니 속에 넣어졌다. 그리고 그 시신들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하신 것이다. 그 죄들은 “바다의 깊은 곳으로” 던져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것으로 되었던 우리 죄들로 인하여 그분의 하나의 희생으로 죽

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 모든 죄들을 없애 버리셨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바다 속에 묻혔고, 없어졌으며, 결코 다시 가져오지 않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지우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 죄들을 기억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덜 은혜롭게 취급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용서다!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8).

16 절에서,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욥이 물을 때, 그 분명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어떤 죄든 발견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받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봉인된 주머니에 그 죄들을 던져버리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50:20).

일곱 번째 것은 갈망하는 인이다. — “너는 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아가 8:6).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기도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와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는 어떤 죄인이든 은혜의 보좌에서 하게 될 기도이다. — “너는 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여기서의 암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에게 있다. 기도는 실로 두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랑에 관심 있음을 알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팔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다 (출애굽기 28:12, 29-30, 36-38).

믿는 자들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 기도의 의미를 안다. 그것은 구원자의 마음 위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아는 은혜를 구하는 죄인의 갈망과 소원이다. 시편 기자의 말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 말씀한다.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시편 35:3). 당신의 사랑을 관심하길 소원하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관심함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이름을 쓰시고, 당신의 마음 위에 도장으로 그것을 새기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볼 것이며 그것을 알 것입니다.

물을 필요 없이, 자신의 이름이 우리 주의 마음에 새겨졌으나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원부터 그들을 사랑해 왔다. 그분의 마음은 영원으로부터 그들 위에 놓여 있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아직 보지 못 했다. 그분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은 그분의 마음 위에 있는 그 이름들을 품으신다.

-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중재를 하신다 (요한복음 17:9, 20; 요한일서 2:1-2).
- 그분은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몸에 그들의 죄들을 품으셨다 (베드로전서 2:24; 3:18).
- 죄들에 대한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 이르는 신성한 심판의 그치지 않은 진노와 무서운 격노의 모든 것을 견디셨다 (이사야 53:9-11).
- 그분은 그들의 죄들을 자신의 희생으로 없애면서 그들을 위한 속량이 되셨다 (히브리서 9:26).

- 그분은 그분의 피의 공로로 그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히브리서 9:12).
- 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신다 (민수기 6:24-27; 에베소서 1:3-6).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우리 구원자의 팔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구원자의 마음과 손이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보증되었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증되었음을 보고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혼의 욕망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변호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속량 중보자이심을 알고 확신하기를 원한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어떤 처소를 갖고 그분의 팔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우리 혼과 함께 평안하다. 그분의 팔은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위하여 공급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이다. 이보다 더 욕망을 가질 것이 무엇인가? — “너는 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 네 가지 변명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갈 때마다, 우리의 요구를 그분께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변명과 논쟁과 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분이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공휼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들은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시편 51:1-5).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탄원하는 우리의 근거는 반드시 그분 안에서

찾아야 한다.

어떻게 배우자가 여기서 그녀의 요구를 재촉하는지 보는가? 그녀는, “나로하여금 나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사랑에 관한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그것은 죽음 같이 강하다. — 그것은 무덤만큼 견고하다. — 그것은 불처럼 강하다. — 그리고 그것은 영원처럼 없앨 수 없다. 이 네 가지 변명을 가지고, 우리는 공황을 위하여 우리의 탄원을 뒷받침 하고 압박한다.

**1. 당신의 사랑을 보이소서, 당신의 사랑이 죽음 같이 강하니라.** —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처럼 거부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죽음을 넘어 승리하였다. 죽음이 그 희생자들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포로된 자를 포기하기를 거절한다. 아무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을 사랑하기를 그치고 그들을 가게 두도록 할 것은 없을 것이다.

**2. 당신의 사랑을 보이소서, 당신의 사랑은 무덤처럼 견고하니라.** —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니라.” 이 말은 보다 정확히 번역한다면, “투기는 지옥처럼 가혹하니라.”가 될 것이다. 우리 주는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투기하신다. 그분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에게서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마음 위에 새긴 자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않았던 것을 보기보단 지옥의 문이 열린 것과 지옥의 불이 꺼진 것과 저주 받은 자의 영이 자유롭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로마서 8:28-39).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자들을 그분은 결코 버리지 않으

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던 자들을 그분은 결코 팔지 않으실 것이다. 그가 의롭게 하셨던 자들을 그분은 결코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가 찾았던 자들을 그분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가 사랑하였던 자들을 그분은 결코 증오하지 않으실 것이다.

**3. 당신의 사랑을 보이소서, 당신의 사랑은 불처럼 맹렬하니라.** — “그곳의 숯은 불붙은 숯이라, 그것이 아주 맹렬한 불꽃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제단에서 항상 불탔고 결코 꺼지지 않았던 그 불에 대하여 암시하는 것 같다. 불타는 그 석탄은 예표적인 레위 시대 안에서 항상 계속 불타고 있었다. 그 불꽃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점화되었다. 신성한 연료로 그것에 끊임 없이 공급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 계속 더타는 그 제단의 석탄 같은 것이다. 자신이 택하신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강렬한 사랑이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유일한 이유는 그분 자신 안에 있다. 그분의 사랑과 비교할 어떤 사랑의 형태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분의 택하신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영원하고, 구원하며, 변치 않는 사랑이다.

**4. 당신의 사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의 사랑은 영원처럼 꺼지지 않으니라.** —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니.” (로마서 8:37-39). 그 어떤 사랑도 정말 없앨 수 없는 것은 없지만, 우리 구원자의 사랑은 없앨 수 없다. 그분이 사랑은 영원하고 영존하며, 변치 않고 불변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 그 이

상으로 무한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유일한 사랑이며, 하늘이나 땅이나 지옥에라도 아무것도 그것을 끄거나 식힐 수 없는 단 하나의 사랑이며,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의 오직 하나 뿐인 사랑이다 (에베소서 3:14-19).

## 꺼지지 않는 사랑

우리 구속자의 사랑이 여기서 꺼질 수 없는 불에 비교되고 있다. 그런 것처럼 “물”과 “많은 물”이 그 불을 그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홍수가 삼켜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시편 69:15; 93:3). 하나님의 진노의 물들은 그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칠 수 없었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1).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끔찍한 것을 기꺼이 견디게 하였던 것은 우리에게 대한 우리 구원자의 견줄 수 없는 사랑이었다.

굴욕과 고난의 물들은 그것을 그치게하고 삼기려 하였다. 그것들은 그것의 넘침을 방해하였고, (베드로처럼) 구원자와 십자가 사이에 왔을 것이지만, 그의 사랑은 갈보리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쳐지기를 거부하였다. 그 불은 꺼지고 삼켜지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 불은 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생명은 삼켜질 수 없었다 (시편 69:1-7).

사망의 물들은 그 불꽃을 사그러뜨리려 하였다. 사망의 파도와 너울은 우리 혼의 위대한 사랑 위로 덮쳤다. 무덤은 그분의 사랑을 차갑게 하고 사그러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 불꽃은 사망보다 더 강함을 스스로 증거하였다. 사망도 무덤도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바꾸거나 약화시킬 수 없었다. 그 불꽃은 이전처럼 강하게 사

망과 무덤에서 나왔다. 사랑이 사망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것을 극복하였다.

우리 죄들의 홍수조차도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갈시킬 수 없었다. 우리의 무가치함의 물들은 우리 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갈시키지도 삼키지도 못했다. 사랑은 늘 사랑스러운 것에 이끌린다. 어떤 추하고, 불쾌하며, 매력 없는 것이 올 때, 사랑은 (그렇게 불렀기에) 그 대상으로부터 빠져나간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모든 부적당함과 사랑하지 못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갈시키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한다. 그것은 사랑스럽지 않은 것에 매달려서 떨어지기를 거부한다.

우리의 오랜 거절의 물들은 그 불꽃을 꺼지게 하려 하였다. 비록 복음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무가치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을 수 없음을 보여 주었지만,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기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대적 위로 올라가며, 우리의 불신 위로 올라가고, 우리의 냉담함을 이겨냈다. 우리의 어떠한 것과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마르지 않았다.

비록 그분의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매일의 모순의 물들은 그분의 사랑을 그치게 하려 하지만,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흠모할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라도, 우리는 계속하여 그분의 일축할 수 없는 사랑을 퇴짜 놓는다! 이 어떤 모순이고, 냉담함이고, 미적지근함이고, 불신이며, 세상적이고, 무정함이며, 철저한 사악함이 매일 우리에게서 구원자의 사랑을 향하여 그 사랑의 불을 끄고 그 생명을 수장

하려는 강력한 홍수인지! 하지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 그 사랑은 꺼지지 않고, 꺼질 수 없으며,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악함은 “물들,” “많은 물들” 같고 “홍수”와 죄의 격류이고 악의 과도와 놀—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치게 하고 집어 삼키려 지속적으로 애쓰는 모든 것—과 같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사랑, 그분의 것보다 못한 어떤 사랑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

“죽어가는 내 귀한 구원자에게 구하니  
나를 그 마음 위에 두소서;  
나의 예수께서 나를 그곳에서 고치신다면,  
삶도 죽음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론이 그의 흉부 위에 품었듯이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안식 가운데 품으시니  
당신의 귀한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라.

하지만 나도 역시 당신의 팔로 감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의롭지 않으시니이다.  
해를 피하려니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당신의 어깨 힘이 필요하네.

이 이중 봉인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고,  
나를 안전하고 잘 지키네;  
당신의 마음과 어깨가 확고히 하실 것이라  
지옥의 모든 주인으로부터.”

## 48 장. 함께 실에 꿰인 세 개의 진주—요한복음 6:30-40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30-40)

복음의 영광들 가운데 하나는 그 단순함이다. 복음은 매우 단순하

며, 아주 단순한 언어로 제시되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심오한 반면,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분명한 것에 걸려 넘어지고 지옥에 가는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제시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6 장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갖고 있는 문제였다.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주 예수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28 절),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9 절). 그리고 30 절에서 그들은 표적에 대하여 그분께 물었다. —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그분이 그들에게 대답조차도 하기 전에, 그 교만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광야에서 모세가 그들을 먹인 일에 대하여 자랑하기 시작했다 (31 절).

우리 주는 그분이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할 기회를 잡으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낸 만나 안에서 예표 되셨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들의 영원한 구원인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그분의 성공의 확신을 선포하기 위한 기회를 잡으셨다 (32-40 절).

목걸이에 있는 진주들처럼 함께 꿰어진 우리 주의 위대한 말씀 세가지가 있다. 각각의 말씀은 소박하기에 달콤하고 심오하기에 보배롭다. 함께 취해진 모든 세 가지 말씀은 계시된 진리의 깊은 광산을 형성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금보다 더 보배로운 광석을 발견한다.

## 그분 자신에 대하여

여기 첫번째 진주가 있다. —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한 선언을 하신다. 그분은 35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떡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율법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다. 그 예표의 떡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조차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광야에서 그 떡을 먹은 자 모두는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 떡이다. 그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다.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나는 존재한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분은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생명에 양분을 공급하고 유지시키는 떡이시다.

우리 주는 그분 자신이 사람의 혼을 위한 약속되고 필요한 식량이심을 우리에게 할게 하셨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혼은 죄로 인하여 천연적으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적 필요의 만족자, 구원자,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주어지셨다. 그분과 그분의 중보의 일 가운데, 그분과 그분의 속량의 죽음 가운데, 그분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 가운데, 그분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그분 안에서만 공허한 혼들은 그분의 필요가 공급 받는다. 그분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다.

- 떡은 성경에서 필요한 음식,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 그리고 배고픈 자를 만족시키는 음식으로 예표 되는데 사용된

다.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 가운데 사망할 것이다.

- 떡은 모든 자에게 어울리는 음식이다. 다른 음식들은 우리가 단지 아주 가끔 먹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떡을 원한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중보와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날은 결코 없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 불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범죄와 죄들 가운데 사망한 자들을 깨우기 위하여 (에베소서 2:1), 또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자들만큼 많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다. 만약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분께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한다.

당신은 영적 굶주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가? 나는? 당신은 양심과 마음과 애착 속에서 갈망과 공허함의 어떤 것이든 느끼는가?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해방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으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책무이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와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수중에 우리 혼을 맡겨야 한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시간과 영원 모두를 위하여 지속되는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분의 최고의 말씀을 약속하신다. 기록되기를, —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 하였다.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여기 두 번째 진주가 있다. —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그분에 백성에 대한 선언을 하신다. 37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광범위하고, 무조건 적이며, 자격이 필요 없고, 전적으로 솔직한 약속을 하신다. —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가!

“내게 오는”이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은 죄인이, 그 죄들을 느끼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적용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죽지 않는 혼의 모든 무게를 그리스도께 기대며, 그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신뢰할 때 일어나는 혼의 움직임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사람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하여” 듣게 된다. —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무엇을 뜻하셨는가? 그분께 오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관계 없이 구원하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을 의미하셨다. 당신의 과거 죄들은 매우 많고 매우 컸을지 모른다. 당신의 현재 죄들은 매우 많고 매우 클지도 모른다. 당신의 약함과 결점은 매우 컸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그리스도는 당신을 품으실 것을 약속하시며 당신을 영원히 품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은혜롭게 받으실 것이며, 당신을 대가 없이 용서하실 것이며, 당신을 그분의 귀한 자녀들로 계수하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께 오는 모든 자를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에서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어 쫓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 이것은 실로 황금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많은 죽음의 침상을 유연하게 하였고, 많은 고난 받은 양심을 잠잠케 하였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 깊이 자리하도록 하며, 거기에 계속 거하자. 육체와 마음이 실패 때,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왔음을 그 영계서 우리 영을 증언하신다면, 그 날에 우리는 기쁘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여기 세 번째 진주가 있다. — 40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매우 분명한 말씀, 그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말씀을 주신다. 38-40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세 번이나 하나님,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말씀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1.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보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38 절). (마태복음 1:21; 히브리서 10:1-14).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 육신 가운데

이 세상으로 오셨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은 하나이다. —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30). 그러나 여기서 아들은 여호와와의 종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사야 42:1-4).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의인이 완전하고 영원히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자)이 새 창조 안에서 살게 하도록 하며, 그분 자신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기 위하여 오셨고 이것을 그분은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 53:10-11).

2. 우리 구원자는 그에게 주어지고 그를 신뢰하는 자들과 그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신뢰하였던 자들 가운데 아무도 잃지 않았음이 그분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39 절).

주 예수는 은혜에 속한 영원한 언약 가운데 아버지에 의해 그분께 주어졌던 백성의 확정된 무리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는 요한복음 17 장에서 여섯 번이나 이 축복의 무리를 지적하신다 (2, 6, 9, 11, 12, 24 절). 영원 과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각자는 시간 가운데 구원 받아야 할 타락한 죄인으로 그분께 나온다. 그분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떨쳐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요한복음 10:24-30).

영원한 택정과 영원한 예정이 영원한 보존을 보장한다. 우리 구원자는 아버지에 의해 택정 받고, 아들에 의해 구속 받고, 그 영에 의해 부름 받은 자는 모두 무덤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살아날 것이고,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선포하신다. 우리의 구원, 보증, 부활은 우리 안의 어떤 것이나, 우리에게 의해 행해진 어떤 것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

아들의 순종과 희생, 그 영의 은혜로운 운행에 전적으로 안식한다 (빌립보서 3:10-11, 20-21).

3. 주 예수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선포하신다 (40 절).

이 절은 앞서의 절에서 가리켰던 동일한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 하나님의 택정 받은 자. 그러나 택정만이 구원이 아니다. 택정은 구원에 이른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 당한 어린 양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한다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택정된 사람은 영원 가운데 생명에 선택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 가운데 은혜로운 체험 가운데 구원 받아야 한다. 모든 선택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어야 한다 (로마서 10:17; 베드로전서 1:23-25). 각자는 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각자는 그의 의와 성화와 구속인 믿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각자는 신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3:18, 36; 로마서 10:13-17; 데살로니가전서 1:4-6). 그리고 택함 받고, 구속되고, 부름 받은 죄인들의 이 모든 위대한 주인은 모든 섭리의 사건과, 믿음의 시험들, 사탄의 유혹들, 그리고 그들의 셀 수 없는 타락을 통하여 보존될 것이며 마지막 날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이다 (유다서 24-25; 빌립보서 3:20-21). —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분께 오는 어떤 혼도 잃어버리거나 던져버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영광에 이르도록,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그분의 비밀스러운 몸의 뼈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양떼 가운데 한 마리의 어린 양도 결코 광야에서 뒤로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날에 영광으로 그의 책임에 위탁된 전체 양떼를 올리실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20-21).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찌어다. 아멘.” (유다서 24-25).

## 49 장. 부서진 자유의지: 높여진 대가 없는 은혜—요한복음 6:41-51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 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41-51).

무시무시하고 추한 괴물, 세상 속에 살아난 숨어 있는 짐승은 세상에 있는 각 교회 건물 내부 벽에 못박힌 것을 보고 싶다. 이 짐승은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 있어왔다. 그에 대하여 계시록에서 읽게 된다 (계시록 11:7; 13:1-4, 11-12, 14-15, 17-18; 14:9-11; 15:2; 16:2, 10, 13; 17:3, 7-8, 11-13, 16-17; 19:19-20; 20:4, 10). 그 짐승은 바다, 이교도의 우상숭배 이방 세상에서 일어났다. 그 짐승은 많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언제나 “모독”이다. 그 짐승은 언제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탓을 한다. 그 짐승은 세상 도처에서 발견되며, “일곱 머리”를 갖고 있다. 그 짐승은 매우 능력이 있고 “열 개의 뿔”을 갖고 있다. 그 짐승은 높은 곳에서 발견되는 데, “열 개의 관”을 쓰고 있다. 그 짐승은 표범처럼 기만적이다. 그 짐승은 파괴적이며, 곰의 발로 어두운 숲을 통하여 걷고 있다. 그 짐승은 파괴적으로 사자의 입으로 먹어 치운다. 많은 수가 그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그러나 그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 — 666 이며, 그가 낙담과 실패와 패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 짐승은 살육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살육될 것이며, 힘으로도 아니고, 권력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다. 그는 복음의 전파로 살육될 것이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다시 또 다시 지지했으나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손은 팔에서 떨어졌고 머리는 몸에서 떨어진 채로 그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도 우리 구원자 앞에 추락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찬양 받았기에 다곤이 그 앞의 흠에 쓰러졌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찬양 받을 때 자유의지는 그분 앞에 흠에 쓰러질 것이다. 다곤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은 집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

와 대가 없는 은혜는 함께 거할 수 없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과 우리 하나님 앞 흠에 던져버리고, 우리 발 아래 그것을 짓밟고 던져버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 우상숭배

이 세상 모든 가운데 우상숭배보다 더 어리석고, 인간성을 더 추락시키고, 하나님께 더 모욕되게 하며, 사람의 혼에 더 확실하게 저주하는 것은 없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신들, 무지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말 못하는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면 비통하다. 우상숭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악하다 (시편 115:4-8).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우상숭배에 속한 것 중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바울이 “의지 경배”라고 부르는 자신에 대한 경배이다 (골로새서 2:23). 구원을 사람의 의지와 행위와 가치에 전적으로 혹은 일부에 기인한다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사악한 우상숭배자들인데, 그들은 자신을 경배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주의는 자아의 경배이다. 율법주의는 자아의 경배이다. 자유의지 행위 종교는 사람들을 그 자신을 구원자로 만드는데, 그것이 사람의 의지와 행위와 가치를 구원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구원이 전체든지 일부에서든지 당신의 의지나 행위에 좌우되거나 결정되는 어떤 것으로서 당신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길을 잃고 그리스도가 없는 혼이며, 우상숭배자이다. 당신은 하나님과 은혜, 그리스도와 구속, 성령과 거듭남에 대하여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 당신 자신을 경배한다. 당신은 당신 자

신의 결정을 신뢰한다. 당신의 자신감은 당신의 개인적 선 안에 있다. 당신의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당신이 이룬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구속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밖에서 협력하여 성취된 어떤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외부에 있고, 우리의 체험 안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 속에는 당신을 저주 받은 자들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 영의 부르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지, 당신 자신의 행위,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에 있다. 만약 내가 당신과 당신의 종교를 평한다면, 당신 마음의 어둡고 우상숭배의 방에 직접 들어가서 당신의 신들을 파괴하고 싶다.

가장 위대한 폭과 중요한 복음 진리들은 이 장에서 서로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 선포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 장에 있다고 나는 확신하지만, 이 구절들에서 다섯 가지만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요구한다.

## 계략의 덫

첫째, 41 절과 42 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본다. 이사야는 동정녀에게서 난 자인 주 예수, 메시아가 많은 사람에게 덫과 거치는 돌과 장애가 되는 바위가 될 것임을 예언하였다 (이사야 8:14-15).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41-42 절).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가 피난처로 삼을 지성소인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혼들이 그 덫에 걸리고 지옥에 데려가게 될 덫이다 (로마서 9:30-10:4; 베드로전서 2:7-8).

그분이 자신을 그들에게 자신을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셨

고, 불분명하지 않은 말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고 하셨으며, “내가 그리스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것에 마주쳤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기쁘게 찾은 바로 그것에 대하여 숙덕거렸다. 왜? 그들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별된 은혜로 만드셨던 차이이다 (고린도전서 4:7).

그가 땅 위에 계셨던 동안, 우리 주의 치욕, 그가 그 자신을 아무런 명성이 없도록 하신 바로 그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다. 이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말한다. 우리 주께서 그의 추종자들과 그의 행렬 가운데 강한 군대에게 부와 명예를 내려주는 정복자 왕으로 오셨다면, 그들은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고, 낮으며, 고난 당하는 메시야는 그들에게 걸림 거리였다. 그들의 교만함이 그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실적인 색으로 스스로를 보여주는 인간 본성이다. 우리는 사도 시대에서 동일한 것을 본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1:23).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시대 복음이 전해졌던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십자가에 대한 실족함은 그치지 않았다. 십자가의 교리가 사람에게 하찮기 때문

에, 복음의 구별된 교리를 경멸하는 많은 수의 종교인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범적 섬김을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그분의 피로 인한 죄 값을 치름은 멸시한다. 그들은 그분의 “도덕적 원칙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희생으로 인한 피의 속량, 형벌의 대속, 그리고 공의의 만족을 용납할 수 없다. 그분의 자아부인을 앙망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멸시한다.

이 세상의 종교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소망의 모퉁이 돌이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부요가 되는 그분의 궁핍에 대하여,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분의 순종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라. 그러면 그들이 죽도록 증오하며 이런 것들을 증오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감히 주장하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하여 그들이 적개심을 드러낼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범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 인간 무능

둘째, 우리 주께서는 44 절에서 사람의 철저한 무능함, 그분을 믿기 위한 사람의 완전한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은혜로 사람의 마음을 이끄실 때까지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다른 말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역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으로 필요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오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하다. 우리 구원자는,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다.”고 하신다. 그것은 말하자면, “아무 내게 나올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천연적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자는 없다. —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7).

타락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올 능력도 의지도 없다. 사람은 범죄와 죄들 가운데 사망하였다. 자신에게 생명을 줄 능력이 없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눈이 먼 자는 그리스도께 나올 아무런 필요를 보지 못한다. 어둠 속에 걸으며, 그 길을 알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다른 것에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자랑하고 그것에 대하여 허풍을 떠다. 도처의 사람들, 교황주의자들, 이교도와 오순절, 불교도들, 브라만교도들 그리고 침례교, 감리교, 모라비안, 메노나이트 모두가 사람의 “자유 의지”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한다. 모두가 사람의 “자유 의지”의 교리를 지킨다. 심지어 무신론 철학자들도 “자유 의지”의 모독적 개념을 방어한다.

그러나 우리 주는 사람의 문제가 그분의 뜻임을 분명히 하신다. 무엇이 사람의 무능력함인가? 그것은 죄인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신체적 무능력이 아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그들을 멀리하는 도덕적 무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자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는 사람의 바로 그 의지이다. 그를 노예 상태로 붙잡아 두는 자신의 타락한 의지이다. 죄인들은 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고 운행이기 때문에 아무도 천연적으로 그리스도께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새로운 본성이 당신 속에 넣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새 마음이 당신 속에 넣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올 수 없다. 새 창조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당신의 혼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당신 속에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올 수 없다 (에베소서 2:8-9; 골로새서 2:10-15).

하지만, 무능함이 불신에 대한 변명이 아니다. 실상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에 대한 당신의 무능함이 당신의 어떤 책임도 덜어주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종말에 잃어버린 바 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잘못이다.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리고 지옥에 갈 것이라면, 우리 구원자께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때문이다. (요한복음 5:40). 당신의 피는 당신 자신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 신성한 효험

세째, 우리 주께서 우리 앞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하는 은혜에 속한 신성한 효험을 우리 앞에 두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것들 가운데 이 위대한 효험을 보여주신다.

- 아버지의 이끄심 (44 절).
- 아버지의 가르치심 (45 절).
- 아버지의 계시 (46 절).

당신이 만약 이미 구원 받았다면, 당신이 만약 이미 그리스도께 나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분께 이끌렸으며, 그분의 은혜의 거절할 수 없는 힘으로 그분께 이끌렸음이 분명하다.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 절). 아, 얼마나 축복된 “아니하면” 인가!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리고 만약 아버지께서 당신을 구원자께로 이끄신다면, 당신은 그분께 올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서,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기 때문임을 안다.

“이끄시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우물에서 물을 길는 것과 같은 생각을 준다. 아무도 양동이에 얻을 물을 구걸하거나 간청하지 않는다! 그렇다, 만약 당신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에 간다면, 당신 자신의 노력의 행위로 아래로 구부려서 물 위로 양동이를 담고 그 물을 당신 자신에게 끌어 올리면 된다.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린다. 하나님은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죄인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가련하고,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 가운데에서 “거듭남,” 혹은 “새로운 출생”의 역사를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공훈의 대상을 그리스도께로 은혜롭게 이끄신다.

“이끌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 내에서 다른 몇 군데에서 사용된다. 그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동일한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힘과 강요를 내포한다. 그것은 결코 초대나 혹은 심지어 재촉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6:19 에 마귀가 씌운 소녀에 의해 부자가 된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 사도행전 21:30 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저희가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애걸하거나 간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끌고 갔다. 그들은 강제로 그를 끌어 갔다. 야고보서 2:6 에서 믿는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던 부자에 대하여 알 것을 경고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초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의미한다. 성령 하나님은 효험 있고 성공적으로 선택되고 구속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으며, 구원하는 것이다.

45 절을 보라. 만약 당신이 구원 받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께 나오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 받는다. —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54:13, 예레미야 31:34 그리고 미가 4:2 를 읽어보라.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 영생에 안수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께 주어진 자와 그분 안에서 택함받은 자는 모두, 그가 대신하여 죽고 영원한 구속을 얻은 자들 모두, 특별한 양자됨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 조만간 하나님의 가

르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읽어보라. —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효험 있다. 우리 주께서는, “전도자에게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하셨다.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생명과 평강의 길과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배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모두, 그분의 은혜의 달콤한 힘에 의해 그리스도께 나온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운 선포와 약속을 들으면서 그 혼을 그리스도께 내 맡기며 그분께 위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격과 피와 의와 희생을 의지하며, 평강과 용서와 의롭게 하심과 속량과 하나님께서 받으심과 의와 거룩하게 됨과 영생을 의지한다.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께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사람 중보자이신 그분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6 절). Joseph Hart 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말의 표현, 언제나 듣기 좋으나,  
결코 혼을 구원할 수 없네;  
성령께서 상처 받은 자에게 주셔야 하네,  
그리고 상처 받은 자를 온전케 하셔야 하네.

하나님의 택정 하심이 진리일지라도,  
그것으로 나는 조그만 위로를 보네,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심을 들을 때까지,  
그가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염려하시니,  
그분께 그렇게 내가 기도하였을 때부터라,  
또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지옥처럼 검은 그 죄인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받았으니, 내가 충분히 잘 아네;  
내가 그분의 공활을 알지 못하였기에,  
또 나도 지옥처럼 검다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니,  
그분의 말씀에 증언을 품으며,  
그분의 모든 구원의 능력과 함께로다.”

## 믿음의 확신

47 절에서, 우리 복된 구원자는 믿음에 달콤한 확신의 말씀을 주신다. 여기 있다.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 만약 당신이 주 예수를 믿고 있는 자신을 받

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믿음은 당신이 그것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믿음은 당신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았으며, 그 영에 의해 부름 받았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히브리서 11:1; 요한일서 5:1).

이 구원은 영원히 지속되며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파멸될 수 없는 현재의 일이며, 현재의 소유이다.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짐이 이 생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신음과 번뇌의 오랜 과정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받게 될 것이지,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결코 소망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끔찍하게 틀렸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신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고, 당신의 죄들은 없어졌으며, 하늘에서 확실한 지위를 소유하고 있다. 사탄도, 지옥도, 심지어 당신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거나 없애 버릴 수 없다!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 **굶주린 자를 위한 떡**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림으로 그분 자신이 생명이 떡, 굶주린 혼을 위한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신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48-51 절).

구원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만, 우리의 대속자로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을 신뢰함으로써만 소유될 수 있다.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그분 위에서 살아야만 하는지 이다.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6). 떡이 몸을 위한 생명의 지팡이인 것처럼, 그리스도, 하늘의 떡도 혼의 생명이다. 그리고, 몸이 매일의 음식이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혼도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없이 지탱할 수 없다. —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영원히 주소서!”

## 50 장. 어려운 말 아니면 먹기 위한 달콤한 떡—요한복음

6:48-60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요한복음 6:48-60).

요한복음 6 장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후, 우리 주 예수께 많은 따르는 자들이 모였다. 그를 따랐던 많은 수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더 많은 종교적인 자극을 원했다. 그들은 더 많은 기적들을 보기 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공짜로 더 많은 빵을 원했다 (26 절).

27-36 절에서 주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필요성, 그를 신뢰함에 대한 필요성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대한 축복의 대가 없음과 확신을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37-40 절).

44-47 절에서 주께서 사람의 완전한 무능과 하나님의 대가 없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복되고 주권적 효험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48 절의 시작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함이 떡을 먹고 먹은 떡으로 사는 것과 같음을 설명하신다.

그 모든 후, 기적을 보고 난 후,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난 후,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가 없음과 확실성, 사람의 무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효험의 필요에 대한 그분의 담화를 듣고 난 후, 주 예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간단히 떡을 먹는 것을 사용하신 후, 우리는 60 절에서 다음을 본다. —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본문 가운데 우리 주의 가르침을 종합할 다섯 가지 문장들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사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렵고, 걸리는 것들이다. 믿는 자에게, 그것들은 달콤하고 기쁜 것들이다.

## 1.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48 절에서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천명된 것을 본다. 거기서 주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신다. 그 두 마디, “나는 이로다”는 그분은 출애굽기 3:13-14, 모세가 주 하나님께 물었던 곳, 덩불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분,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라고 물었던 곳을 가리키신다. 그 대답은, “나는 이로다.” 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곧 생명의 떡이로라.” 고 하였고, 그는 “나는 이로다”라는 덩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주장하는 그 위대한 여호와 자신을 가리키는 직함을 사용하셨다.

기억하라, 요한의 복음서의 목적은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1-3; 14:9). 요한이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밝히시는 이 복음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께서 “나는 이로다”를 사용하심을 기록할 것을 영감 받았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요한복음 6:35, 48-58; 8:12; 10:9, 11, 14-16, 36, 33; 11:25; 13:19; 14:6-9; 15:1-10; 18:37, 49; 19:19-22).

- “나는 생명의 떡이니” (6:35, 48-58). —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 그리스도는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지키고 유지하는 참되고 유일한 떡이다. 그분은 모든 죄인이 필요로 하고 그것이 없이는 모두 멸망하게 될 떡이다.
- “나는 세상의 빛이니” (8:12). —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더이상 전통과 미신과 우상숭배와 죄의 어둠 가운데

데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 걷는다.

- “내가 문이니” (10:9).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 “나는 선한 목자라” (10:11, 14-16). — 선한 목자는 그 장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며, 그의 양을 알고, 그의 양을 모으며, 그의 양을 지킨다.
-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10:36). — “따라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신성과 영원성과 신격 안에서 위격의 복수성과 신성한 위격의 단일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였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완전히 이해하였다 (10:33).”
- “나는 부활이니” (11:25). — 그를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 “내가 그로라” (13:19). —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분, 그 이름이 나는 이로다이신 분,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던 그분이다 (18:19).
- “나는 길이요.” — 그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없다.
- “나는 진리요.” — 그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 “나는 생명이라” (14:6). — 그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
- “나는 포도나무이니” (15:1-10). — 우리는 가지들이다. 가지들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들은 전지되어야 하고 포도나무에 거해야 한다.
- “내가 왕이니라” (18:37; 19:10-22). — 그는 도처에서, 모든 것 위에, 영원히 왕이시다. 그는 통치하셔야 한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명하셨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성도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고, 여호와께서 성육신 하셨으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찬양 받으신다!

## 2. 그리스도는 그로써 우리가 사는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49 절). — 광야에서 만나는 물을 내어 주었던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묘사하였다 (고린도전서 10:4). 만나도 반석에서 흘러나왔던 물도 구원의 어떤 유익이나 효능이 없으며, 육체적 생명을 주거나 유지할 수 조차 없고, 오직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뿐이다.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그 떡을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였다 (히브리서 3:17-19).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떡이다. — 그 떡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떡은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마태복음 3:17; 17:5).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다 (고린도전서 9:15). 그는 산 떡이고 생명의 떡이다. 그는 생명이다. 그는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산다. 그는 달콤하고 만족케하는 떡이다 (요한복음 6:32-35).

### 3. 우리가 살 수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0 절). — 만약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는 영생을 갖는다.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먹는 것이 육체적 생명의 지속을 위하여 우리 몸 안으로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떡으로부터 생명이 유지되고, 그로써 성장하고, 그로써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강해진다. 마찬가지로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지 않는다. 믿음은 생명의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주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며, 문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어가는 것이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앞드리는 것이며,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며,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며, 샘물인 그리스도로부터 마시는 것이고,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하는 것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

도께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 대속자로서 먼저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생명을코 얻을 수 없다. 그가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떡이 되셨다. —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떡은 옥수수, 호밀, 보리, 밀 혹은 다른 곡식의 밀가루로 만들어진 다. 곡식은 식탁에서 먹기 좋은 음식이 되기 전에, 털고 체로 털고, 갈고 걸러지고, 걸러지고 반죽되며, 구워진다. —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누가복음 24:46).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생명주는 떡이신 그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 “인자의 살과 피”는, 그가 그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저주의 나무 위에 있는 그 자신의 육신의 희생을 가리킨다. 그 말씀은,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속량, 우리 대속자로 받으신 그분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만족,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견디심으로 성취된 구속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구속과 죄의 용서와 영생을 갖게 됨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에 의해서만이다 (히브리서 10:18-22).

#### **4.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강력한 개인적인 것이고, 마음의 영적 행동이다.**

기록되기를, “마음으로 믿는 자는 의에 이른다”고 하였다 (로마서 10:9-13).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은 이들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의미로 해석하려 하였다 (요한복음 3:4). —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 절).

오늘날, 가버나움에 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예배를 육적인 것으로 만들려 헛되이 추구하는 대중들이 있다. 대중들은 영생이 육적인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무지하게 상상한다. 교황 예찬자들은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주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성체” 혹은 “신성한 교제”라고 부르는 떡과 잔을 먹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가르친다. 로마의 이교도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많은 신교도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의 만찬의 “성찬식”이라 부르는 것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심을 가르치면서, 필연적으로 동일한 이단을 가르친다. 종교 근본주의자들은 적어 놓은 기도를 반복하고, 교회 통로를 걷거나, “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이 논리적인 결정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인간은 종교를 형식이나 의식의 문제로, 행위나 성취의 문제로, 성례나 성찬식의 문제로 만들려 부단히 노력한다. 타락한 사람은 참으로 영적인 것과 마음을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경멸한다. 인간은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수준과 육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것에 가두려 애쓴다. 로마의 영향을 절대 인식하여야 한다. 그것은 언제나 사악하다. 사그것은 결코 선하지 않다. 침례와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우리 구원자에 의해서 명해졌고 가르쳐졌다. 그것은 예배의 복되고 복된 방법이지만, 그러나 “성체”가 아니다. — 그것들은 은혜의 수단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그것은 죄인이 그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마음의 행동이고 육체와는 관련이 없다. 죄인이 자신의 유죄와 죄를 느끼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의와 죄속량의 피를 신뢰할 때마다, 그는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그 혼은 몸이 떡을 먹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먹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먹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마신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 우리가 그것으로 유익을 얻는 그것은 갈보리에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속량이다. 믿는 자의 침례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모든 의의 성취를 묘사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은 우리 중보자로서 죽음에 이른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묘사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53-54)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 없게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그것이 성취 되어야 할 것을 보장한다. 어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하셨던 것은 시간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단순히 시간 가운데 일어날 것을 분명하

게 만드셨다. 비록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된 어린 양이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취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주어지셨고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그들을 구속하신 반면에, 사람은 영원 전부터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 받았고 (로마서 8:29),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6:37-44; 로마서 10:14-15). 그리스도께서는 영접되고 믿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생명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여야 한다. 당신을 대신하여 아무도 먹고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 “첫소생이 살육되었던 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았던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안전은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은 죄인을 위한 생명은 없다.” (J. C. Ryle).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나는 이제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부활 영광 가운데 그것을 영원히 갖고 있을 것이다. —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요한일서 5:1). 이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문제이다. 그것은 정확히 우리 구원자께서 55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울은, “내가 믿은 자를 내가 아노라.”고 말했다. 그것은 단지 사

람에게 양분을 주게하는 먹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올바른 음식을 먹을 때에라야만 영양분을 얻는다. 독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의 살(순종)은 참 생명주는 음식이다. 그리고 그의 피(죽음)은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는 피이다. 문제가 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나 심지어 당신이 생각하는 나의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가?”이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유일한 것이다. 내게 평강을 주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다. 그분은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에게 흠 없이 임재하실 수 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이다. —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마다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다!” 하나님께 자유로이 닥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때문이다. —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베드로전서 4:1-2). 거룩한 하나님을 달래고 만족시키는 것은 내가 죄의 짐 아래에서 슬퍼하고, 신음하고, 고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죄와 죄의 무게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 받으셨다는 사실이다. —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18). 나는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나는 “귀한 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음과 은혜와 소망 안에 지속시키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그분의 능력이다. —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

켜진다!” — “그는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지키실 수 있다!”

## 5.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과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56-59).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여기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생명은 살아 있고 불가결한 그분과의 연합임을 선포하신다 (요한복음 15:1-5). 하나님-사람, 우리 보증인,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으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옆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자와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능한 가장 친근한 연합과 교통과 교제를 누린다 (갈라디아서 2:20).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의 임재와 충만과 완성은 우리와 분리할 수 없다 (골로새서 2:10).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그분의 임재와 분리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에 참여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그분의 존재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분과 함

께 우리 존재를 가진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아들 안에서 하나이다. —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23). 그가 하신 것을, 우리가 하였다. 그가 소유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하였다. 그리고 그가 계신 곳에, 우리가 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0 절). —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의 매우 단순함은 “어려운 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전갈,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은 혼을 위한 달콤한 떡이며, 먹기 위한 달콤한 떡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께서 당신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를 바란다. 아 성령이여, 이곳의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고파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모든 굶주린 혼을 먹이소서.

## 51 장. “그 때로 부터”—요한복음 6:60-71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 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요한복음 6:60-71)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하더라.” (66 절). — 그 말을 주목하라. “그 때로부터 (이러므로).” — 이 때는 우리 주의 세상 사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때이다. 우리 주를 따르고 있었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를 버렸을 때이다. 그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주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이로운 일꾼을 원했지만, 주권적인 구원자는 아니었다. 이 때는 유대국에 매우 중요한 때였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눈 앞에서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였고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다. 그러나 그는 멸시 당했고, 거절되었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나라로부터 모든 빛을 없애셨고, 황량하게 버리셨으며,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왕국에 매우 중요한 때임을 입증하였다. 첫번째 실질적인 시험이 왔다. 사람들 가운데 약간의 영향력과 존경을 얻기 시작할 때, 그들 스스로 교회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렸다. —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때가 어떤 때였는가?

그것은 선포의 시간이었다. 우리 주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분은 자신과 자신의 왕국에 관련한 많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혼돈되었고 마음 상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등을 돌렸고 그와 함께 더이상 함께 걸어가지 않았다.

-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원한 계획을 선포하셨다 (37-40 절).
- 그는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셨다 (46 절).

- 그는 그의 신성한 주권을 선포하셨다 (63 절).
- 그는 사람의 무능을 선포하셨다 (44, 63, 65 절).
- 그는 구원이 하나님 만의 역사임을 선포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의한 택정과 아들 하나님에 의한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한 거듭남.
- 그는 구원이 신성한 계시에 의해 오는 것을 선포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만 죽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당신을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만드실 수 있다.

이는 결정의 시간이었다 (53-54 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야 하고 그를 먹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의식주의와 유대교의 마른 겨를 택하여야 하고 자기 의의 오염된 저수지에서 물을 마셔야 한다.

이 때는 배신의 때였다 (66 절).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의 제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 그들은 자신의 옛 친구들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정욕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예전의 공허한 종교로 돌아갔다. 그들은 돌아갔고 더 이상 주 예수와 행보하지 않았다. 한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고, 후에 그분에게서 돌아선다. 그러나 지속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리며 그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특징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홀과 은혜이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단락에 어떤 매우 분명한 공과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두 놓쳐버리는 공과들이다. 따라서 성경을 앞에 열고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읽어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치실 것을 구하라.

## 1.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기분 상한 것이다.

종교적인 사람과 비종교적인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가르침, 특히 요한복음 6 장에서 그분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의해 기분 상한다. 우리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추측해서는 안된다 (60-65 절).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구원의 가르침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셨다. 그분은 마치려 오셨던 모든 것을 마치셨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다른 것은 63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선포하셨던 가르침,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살리는 영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의 복된 선포이다. 도처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 그 문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택정함 가운데 결정되고 (사도행전 13:48; 요한복음 10:25), 구속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취에 의해서 결정되며 (갈라디아서 3:13-14), 성령의 효험있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살리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자의 죽은 몸을 살리셨던 분은 그 영이었다. 그분의 육신은 스스로 살아나지 않았다. 선포된 말씀이 살리는 능력을 갖게 하였던 것은 그 영이

다. — “육은 무익하니라!” 사망한 죄인을 살리는 것은 그 영이다.  
—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구원자에 의해 가르쳐진 다른 것은 교만한 사람에게 너무도 마음상하는 것이어서,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그것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 영에 의해 살아난 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영적인 것들 가운데 인간의 심각한 무능함에 대한 가르침이다 (63-65 절). 그를 살린 영을 제외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를 살린 영을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를 살린 영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 버려진 혼을 받을 수 없다. 그를 살린 영을 제외하고 아무도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그를 살린 영을 제외하고 아무도 타락하였을 때 자신을 회복할 수 없다. — “육은 무익하니라!”

**2.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으로 보이는 많은 자들이 돌아가고 더이상 그분과 함께 행보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하더라.” — 한 때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따르지만, 구원이 그리스도와 믿음의 인격적 연합을 포함한다는 말을 들을 때 망설인다. 이 단락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그분과 함께 많이 하였다. 그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그를 왕으로 삼기 원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그를 따랐다. 하지만, 그가 하늘로서 온 떡이라 말씀 하셨을 때, 그들은 수군거렸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고 하였

고,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 등을 돌리고 더이상 그분과 함께 행보하지 않았던 이유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혼에 대한 어떤 염려를 갖고 있다. 그들은 좋은 설교를 듣기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주장에 압박을 받을 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도록 강요당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동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여야만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흔들거리고 쓰러진다. 그들은 돌아가고, 더이상 그와 함께 행보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그랬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대다수가 그가 행하고 말씀하셨던 많은 큰 일들에 기뻐하였다. 그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셨을 때, 그들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생명을 줄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매우 경건하게 말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셨고,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다. 그분이 그들의 생명이 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하였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돌아갔고, 그분과 더이상 함께 하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에 걸리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난 자는 모두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걸린다. 그들은 교만한 반역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그 가르침을 비웃고 조소하였다. 구원자께서,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니…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시자, 그들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만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했다.

고난의 태양으로 속히 말라버릴 돌 밭에 뿌려진 씨, 혹은 땅에 속한 염려, 이 세상의 염려, 부의 기만의 잡초들에 의해 숨막히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3. 비록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구원자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돌아갈 수 없다. (67-69 절).**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67-69 절).

참된 믿는 자들은 결코 구원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등을 돌릴 수 없다. 군중이 돌아갔을 때 구원자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분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믿는 구원자들이 자신들을 멀리 떠나게 될 위험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택했던 너희들, 내가 씻어주었던 너희들, 내가 거룩하게 하고 영과의 소망을 채웠던 너희들, “너희도 가려느냐?” 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분 자신을 바라보셨는지! 그는 일곱 황금 촛대의 한 가운데를 걷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이다.

참되게 믿는 자들은 그들이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 (예레미야 31:3, 31-34; 32:38-41).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길 잃을 수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지켜지기 때문에 등을 돌릴 수 없다. 그들은 그 영에 의해 인침 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지속시키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변하실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생은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것으로 사람에게 온다. 사람은 천연적으로 영생을 갖고 있지 않다. 영생은 “영적 진화”의 어떤 비밀스러운 과정으로 사람의 죄로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진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능력으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 “선물”이라는 바로 그 말은 영생이 빛이나 보상의 문제로 사람에게 온다는 사상을 금한다. —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수여하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나 행위 가운데 없다 (예레미야 31:3; 로마서 8:30; 에베소서 2:1-4).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생의 선물을 가져가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의 마음이나 행위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이사야 54:10; 시편

89:30-36).

R. L. Dabney 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함에 있어서 그분이 보신 가치 있고 흥미로운 것을 보심으로 첫번째 경우에 있어서 그분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 모든 선한 것의 연이은 결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접으시도록 하는 어떤 새로운 동기가 아닐 것이다.”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없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반대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11:29). 영생의 은사는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이며, 지금 현재의 죽을 존재의 우연성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영생이 사람의 선함으로 얻은 것이거나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한다면,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전도서 3:14).

종교적 오류로 눈이 멀지 않았던 자녀라면 누구나 영생이 필연적으로 영원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영생”이 믿는 자의 생명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기 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생명의 질을 더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영원 동안의 생명에 적용된다. 우리 주께서, “영원”을 언급하실 때, 그분은 영원한 것을 뜻하신다. 어떻게 생명이 끝난다면 영원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면, 내가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나, 어떤 배경에 의해서도 그것을 잃거나 멸망시킬 수 없다. —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피조된 새로운 본성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요한일서 3:5-

9).

믿는 자의 생명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하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너무도 실제적이고 참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분도 역시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멸망할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실로 하나이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이 연합은 변할 수 없고, 해체될 수 없는 연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혼인하였다 (호세아 2:19-20; 에베소서 5: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에베소서 1:23). 당신은 불구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소멸하라! 하지만, 그분의 몸은 하나의 지체라도 잃는다면 완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생명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생명 안에 보존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기간의 생명이다 (에베소서 1:14; 4:30). 성령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고 보존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지셨다. 그는 생명 주는 자이고 생명의 보존자이다. 하나님의 영은 새 언약의 인치심이다. 그 도장은 소유권의 표시이다. 도장은 어떤 것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도장은 영원히 선명함을 제시한다. 도장은 모든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4. 그리스도 외에 갈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된 믿는 자가 되 돌아 갈 수 없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 회심하지 않은 생각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다. 그들 자신에게 말씀, 영생의 말씀은 시험하고 입증되었다. 세상을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바로

그것이 그분 자신의 제자들을 그분께 더욱 더 가까이 이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할 때 마음이 상한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영생의 말씀이다. 종교주의자들은 혼에 거하여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떠난다. 믿는 자는 더 가까이 닥아가며, 주여, 내게 영원히 거하소서라고 말한다. 의지 경쟁자들은 구원이 모두 은혜로 인함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분과 더 이상 함께 행보하지 않는다. 믿는 자들은 흠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홀로 부도덕한 자로부터 그를 구별하는 분을 찬양한다. —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 그분이 믿는 혼을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하는 우리 신성한 구원자이심은 이 확실한 판결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람일 뿐이라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위한 보증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그가 우리를 위한 충분한 보증인이심을 안다. 용서를 위하여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갈 수 있겠는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그 영을 주실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으며 우리 가운데 영원히 그분의 영을 두실 수 있음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새 마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누구에게 갈 수 있겠는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러면 당신은 복된다. “이를 당신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 5. 구원은 모두 우리 구원자의 택하심의 결과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 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70-71 절).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16).

#### 6. 지옥 그 자체의 영향 아래 사람에게 의해서 행해진 가장 악한 행위들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위대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고 통치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 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70-71 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23)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

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시편 76:10)

세상의 아르메니안 주의자들, 행위 장사꾼들, 의지 경배자들로 하여금 모두 그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두라. 이것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을 비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한다. 그들을 경멸하는 자들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붙이시는 하나님을 경멸한다 (에베소서 1:3-14).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 52 장.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요한복음 6:59-61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한복음 6:59-61)

요한복음 6 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만이 공급할 수 있는 떡을 먹기 원했지만 그분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은 싫어했던 타락한 종교주의자들 사이의 생생한 논쟁의 기록이다. 단지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였던 그 큰 기적을 우리 주께서 행하신 후, 사람들은 때를 지어 그분께 물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복음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 시대에 타락한 종교인들에게는 걸리는 돌이고 거치는 바위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여전히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걸림이 된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너무도 분개하여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던 것을 본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히 전하려 하는 어떤 사람도, 주님 자신이 전했을 때처럼, 거듭나

지 않은 종교인들 가운데 동일한 반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해 둔다.

이 장에서 우리 주님은 26 절에서 그분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분을 따르는 유일한 이유가 더 많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더 많은 떡을 먹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비난하셨다. 말씀은 58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 영생의 약속으로 마친다. 그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주 예수께서 그들의 트집을,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는 말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을 계속 전하시며 재차 강조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들을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하셨다 (62-65 절).

그분이 모두 마치셨을 때, 모든 군중이 그분을 떠났는데, 남자 오천 명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떠났다. 우리 주님은 대중을 즐겁게 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남았던 열 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머물렀지만, 군중은 떠났다. 군중은 복음으로 인하여 걸림이 되었다. 그들이 경배하는 모든 신, 그들이 소중히하는 모든 제단, 그들이 매달린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다. 우리는 더이상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의 전통에 매달리며, 복음에서 돌아섰으며 지옥으로 갔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요한복음 6 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렸던 것처럼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걸림이 된다. 복음은 그 때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 복음을 모두 거절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걸림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데려오든지, 아니면 그들을 완강한 반역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몰아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전도는 그분이 복음을 보내신 곳에 그 계획을 성취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2:14-16; 이사야 55:11).

## 일곱 가지 진리

나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전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후에 요한은 그의 두번째 서신에서, —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 2 서 9).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입술로부터 나온 복음의 일곱 가지 위대한 기초 진리들이 있다. 이 일곱 가지 사항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임은 부인될 수 없다. 그것들은 그분에 의해 가르침 받은 것이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영감을 받아, 그가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것들은 세상에 걸림이 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을 위한 위로와 기쁨의 충만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보하시고 전하셨을 때 가르치셨

던 일곱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셨던 그것을 각 세대에서 그분의 사자들인 모든 사람이 역시 가르친다.

## 1. 신성한 주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은혜의 실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을 전파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37-40).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지명되고, 대리로 파견되고, 분별되었으며, 보내지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을 때,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인 보좌에서 언제나 그 분 보시기에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전하셨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한다고 알고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 하

나님 앞에서 빈곤자로 만든다. —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참조: 이사야 14:24, 26, 17). 전도자가 사람의 머리에서 왕관을 감히 벗겨서 그것이 속한 곳, 하나님의 머리에 둘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대가나 결과에 관계 없이 다만 그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이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결정되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의존되며,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절대적으로 통치받는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적이고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통치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었다 (사도행전 2:23; 히브리서 10:1-14).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그분의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 (에베소서 1:11)고 우리에게 말한다. 야고보는,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야고보서 4:15)고 말한다.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의 왕들과 군주들과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계시록 17:17)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서신을 적었을 때, 그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라” (고린도전서 4:19)고 말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다고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사야 45:22). 만약 당신이 구원 받았다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당신을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 (사무엘상 12:22).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그분의 아들을 상하게 하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 (이사야 53:9).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영광의 모든 충만을 두심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 (골로새서 1:18). 당신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시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 (갈라디아서 1:15).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 (고린도전서 1:21).

신학교와 성경 학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한다. 도처에서 전도자들이 그것을 반대한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 그것을 증오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전하셨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단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고 할 때만 그것이 당신에게 걸림이 된다.

## 2. 완전한 타락

기억하라,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 이야기에서 그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여줄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안에서, 특별히 이 6 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인간의 완전한 타락과 무능을 전하시는 것을 본다 (요한복음 6:44). 그분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신성한 주권과 완전한 타락과 택정함과 무한한 속량에 대하여 전하고 계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44)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61-65)

우리 주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썩어 문드러진 사람을 전하셨다. 그분은 찬양 받는 하나님과 추락한 사람, 하나님은 높으시고 사람은 낮은 것을 전하셨다. 사람은 언제나 낮지 않았지만, 죄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우리 조상 아담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아담의 자손들은 타락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전하셨다. 그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한복음 6:44)라고 말씀하셨다. 자의 주께서 사람을 영적 무덤 속에 넣으셨고, 그분 자신의 힘으로 살리실 수 없으며, 불구자의 침대 위에서 그가 무기력한 것이고, 걷지도 못하며, 소경의 지팡이로 볼 수 없음을 선포하셨다.

도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걸림이 되기보다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전하고 가르칠 때, 우리는 선한 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그렇지 않은가?

자유 의지와 결단을 전파하는 것은 인간의 혼을 속이는 것이다. 인간은 지옥의 마귀들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전지한 공훈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다. — 그 계획 안에서, 그 구속 안에서, 그 수행 안에서, 그 보존 안에서, 그리고 그 완전함 안에서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림이 된다.

### 3. 무조건적인 택정함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자들에 대한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택정하심을 전하셨다. 우리는 64 절과 65 절에서 그것을 읽게 된다.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구원자께서는, —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요한복음 6:65)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15:16).

택정은 구원을 사람의 손에서 완전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정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고 매우 눈에 띄는 성경 가르침이다 (에베소서 1:3-6; 데살로니가후서 2:13-14). 그리고 택정은 가장 축복되고 위로가 되는 가르침이다. 우리를 적그리스도의 현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택정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 장).

#### 4. 피의 속량

우리 구원자는 피의 속량을 전하셨다 (요한복음 6:54-57).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피의 속량의 전도에 분개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그것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피에 의한 구속을 전하셨다 (요한복음 3:14-16).

-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28)
- 거룩한 피 (출애굽기 30:10)
-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18-20)
- 하나님이 흘리신 피 (스가랴 13:7)
- 구원의 피 (로마서 5:9)
- 효험 있고, 죄 속량의 피 (히브리서 1:3; 9:12)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피를 그의 양떼라 불리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효험 있게 속량으로 만들었고 구속하였다는 것을 전하셨다 (요한복음 10:11, 15, 25).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를 헛되이 흘리시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2:21). 우리 구속

자께서 피의 속량으로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피 이외에 아무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피 이외에 아무 것도 나의 죄를 씻어버릴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죄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다른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하여 “거짓의 피난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걸림이 된다.

## 5. 효험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을 전하셨습니다.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63).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로 모두 부르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복음의 그 일반적인 부름은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구원자께로 데려오는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마음 속에서 효험 있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 전해진 말씀들을 듣는 어떤 자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시편 65:4; 110:3).

전과된 복음을 들을 특권이 주어진 모든 자는 복음의 전과로서 외적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들, “부름 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적이고 효험있고 거절할 수 없게 부름을 받았다. “부름 받은 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다. 그들의 택정과 구속과 부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왔다는 사실로 실체가 된다[1].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는 부르심에 의해 은혜의 체험 가운데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온다.

그것은 다윗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65:4)라고 하며 노래하였던 이 부르심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 속에서 그 아들을 계시하셨으니” (갈라디아서 1:15, 16)라고 하였을 때 말하고 있었던 부르심이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서신을 쓸 때 이 내적이고 효험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말하였다. —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기록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테후서 1:9-11).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전혀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걸림이 된다.

## 6. 확실한 보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보존과 인내를 전하셨다 (요한복음 10:27-30). 양은 연약하고, 무력하며, 방어력이 없는 동물이다. 그들은 그들의 적에 대항할 아무런 힘이 없다. 만약 그들이 길을 잃으면,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만약 아프면, 그들은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만약 위협을 받으면, 그들은 위협에서 탈출할 수 있을만큼 빨리 도망할 수 없다. 만약 공격을 받으면,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

양떼가 갖는 유일한 안전은 그들의 목자 안에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목자가 현명하고, 선하고, 강하다면, 그들은 안전하다. 만약 양떼가 살아남고, 그들이 살아 양분을 취한다면, 그 공로는 목자에게 속한다. 만약 양떼가 멸망하면, 그 비난은 목자에게 속한다. 양떼를 지키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다. 이것을 안다면, 주의 양떼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27-30).

이 본문에서 우리 주의 가르침은 매우 평이하고 분명하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떼다. 연약하고, 무력하고, 방어력 없는 피조물들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지혜롭고, 선하며, 강한 목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귀한 목자께서 그분의 모든 양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의 절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동요하지 않는 안전을 선포하신다.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리,  
그분에게서 온 것은 아무것도 우리 혼이 가를 수 없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림이 된다.

## 7. 충만하고 대가 없는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고 대가 없는 구원을 전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16-18)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대가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은 무조건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존하고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걸림이 되는 것은 단지 당신이 대가 없는 은혜로만 구원 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걸림이 된다면,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걸림이 된다. 만약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당신의 가르침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을 돕지말 것을 확실히 하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이서 1:9-11)

## 53 장. 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증오를 받는가?—요한복음 7:1-13

“이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7:1-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행보하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자 마자, 이 세상의 권력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 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증오를 받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날 그토록 증오를 받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의 이 열 세 구절에서 발견된다.

이 장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요한의 선포로 시작한다. 그분은 너무도 증오를 받았고, 너무도 심하게 경멸당하였기에 유대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성경 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장로들, 등등)은 하나님의 율법에 모순이 되는 어떤 것도 행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를 죽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 유대인들의 명절

이 단락에서 분명한 첫번째 사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군중이 신앙심의 한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군중은 종교적이지만, 타락하였다. 2 절에서 본다. —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2 절).

그것이 얼마나 손상을 입히는 정죄의 말인지! 여기 언급된 거룩하게 지명된 초막절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유대인들의 초막절”을 가리킨다! 이 신성한 경배의 축복된 성찬식은 너무도 타락하여서 더이상 신성한 경배의 성찬식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다만 유대 종교 전통의 풍습으로 지켜졌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매년 일곱 번째 달의 15 일에 지키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진 명절였다. 당의 열매를 수확한 후, 그들은 광야에서 40 년 간 보냈던 것을 기억하며 칠일 동안 장막에서 기거하도록 하였다 (레위기 23:34-36, 39-44). 그 명절은 추수의 주께서 그분의 공홀로 인하여 찬양 받았던 대수확 축제였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움막에 기거하였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기둥 안에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때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을 말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 안에 장막을 치시므로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영원한 영광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오게 되었으며, 죄와 모든 악한 결과가 영원히 사해지고, 없어지고, 정화되고, 가버렸으며, 영원히 잊혀지는 때를 예시하였다 (시편 72:16-19; 요한복음 1:14; 계시록 21:1-7).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행하는 것을 보다니. — 경건의 모습에 매달리지만, 한편으로 그 능력은 부인하고, — 외적 의식에 매달리지만, 한편으로 영적 예배는 경멸하다니! 마음의 예배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공예배는 의미 없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지 않으면, 침례는 공허한 의식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기억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의 만찬은 무가치한 의식이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언제나 구하도록 해야 함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해함으로 기도하려 함이고, 영으로 노래하고 또한 이해함으로 찬양하려 함이며, 영으로 말씀을 읽고 또한

이해함으로 읽으려 함이며, 영으로 들으며 또한 이해함으로 듣기 위함이며, 영으로 경배하고 또한 이해함으로 경배하려 함이다.

## 불가능한 믿음

둘째, 우리 구원자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와 운행과 능력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변칙이는 선포를 본다. 우리가 분명하게 들은 인간 본성의 완고함과 불신은 너무도 완고하고, 너무도 절망적으로 사악하며, 너누도 크다. —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5 절). 그분은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해가 없으며 흠이 없음에도, 육신에 따라 우리 주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그를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구원자로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았다. 그분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은” 충분히 나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더 나빴다.

이들 “형제들”(3-5 절)은 우리 구원자의 세상의 친인척들이었다 (마태복음 12:46-47; 13:55). 이 “형제들”은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 유대교의 중심부로 가셔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곳의 그의 추종자들이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전능한 역사와 기적들을 보도록 하였다. 그들은 초막절이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좋은 때라고 생각하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형제들”은 주 예수께서 명성을 얻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의 명성

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만약 당신이 명성과 악명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을 세상의 이목 속에 두어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만약 당신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만 말씀을 전한다면,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모를 것이다. —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야하며 거기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어야’(4 절)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가복음 3:21 에서 “그가 미쳤다!”라고 말했던 “그의 형제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너무 완고하고, 너무 부패하여 우리 주의 친인척마저도 비록 그들이 그분과 계속하여 동행하며 살았고, 날마다 그분의 행동을 보았으며, 그들 앞에서 완벽한 삶을 보았으며,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분을 믿지 않았다. — 그분 자신의 친인척들이 믿지 않았다! 그 사실은 세상의 관계가 그분의 은혜를 확고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혜가 어떤 가족 내에서도 행사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온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성한 운행의 열매이고 결과이다. 믿음은 거듭남 가운데 새로 태어난 혼 가운데 태어나며,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에 의해 드러나며, 하늘로서 낳은 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행사된다.

영적 이점과 특권의 단순한 소유가 구원의 효험을 갖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권능이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 요한복음 6 장에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요

한복음 6:44, 65)고 하셨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달리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사람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어떤 곳에서 회개에 부족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설교자들에게 비난을 하고 교회 지체들에게 비난을 하는 말을 듣는다. 그렇게 어리석지 말라! 구원은 하나님의 특전이다. —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 그분의 때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때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상기한다. —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도서 3:1). 물을 필요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과 순종과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분 자신에게 신성하게 약속된 때에 성취되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6-8 절).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형제들과 이 특별한 때에 명절로 오르시기를 거절하셨는데,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기적을 공개적으로 보이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그분 자신을 메시야와 왕으로서 계시하시며, 그 대적들과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기게 하여 그분을 공개적인 모욕을 주며 십자가에 못박게 할 때

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형제들에게, “너희의 때가 이미 예비되었다.”거나, 언제든 너희를 위하여 안성맞춤이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이며, 세상은 너희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 생각에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세상 왕국과 큰 은혜와 세상의 칭찬에 대한 것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구속하려 오셨고, 일반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세상을 정죄하려 오셨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사람의 진노를 일으켰다. 약속의 때가 왔을 때, 그분은 직접 보이셨고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죽음을 이루셨다 (로마서 5:5-8).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구원과 연결된 모든 것은 그분 자신의 약속된 사랑의 때에 성취되었다 (갈라디아서 4:4-6).

## 세상의 증오

넷째, 우리 주 예수는 우리에게 7 절에서 그가 그 행사들이 악함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가 사셨던 세상에 의해서 그분은 미움을 받으셨다. —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분께서 육체를 따라 그분 자신의 친인척들인 “그분의 형제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스스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게 한다. 그들은 이 장에서 종교적이고 신학적이며 예언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이들은 취하지도 않았고, 부도덕하지요 않았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부랑자들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추켜세우는 보수적인 종교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라고 말씀 하신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 “세상”은 이 세상의 종교적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종교를 가리킨다. 그분은 자기 의와 행위의 종교, 즉 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지고, 고무되며, 사랑받고, (크든 작든지 간에) 실행되고 있는 종교를 가리키고 계신다. 그것은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애니미즘, 힌두교, 혹은 무신론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종교다. 그것은 도처의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 진다. 그리고 그것들은 악하게 보이게 될 때 격분한다 (잠언 11:12; 16:25).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세상이 그분을 그토록 미워하였던 것이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그 때 진실된 것은 오늘날 진실된다. 그것은 처음부터 너무도 분명하다. 사람들이 선한 행위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나,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께서 악하다고 선포하신다.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였던 이유였다.

사실은, John Calvin 은 그것을 이렇게 규정하였다. “복음은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유죄이며, 그 혈육은 따라서 파괴되고 무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는 신실하게 전파될 수 없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께서 정확히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소용 없는 것이라 선포하시면서, 그분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종교 관습이 사람의 무가치한 발명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관습을 행하기를 거절하셨고, 식사 전에 공개적으로 손을 씻

는 것을 거절하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물론 그분의 행동으로 주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자기 섬김의 위선일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회개)과 완전한 의의 필요, 완전한 속량의 필요, 새로 태어남의 필요, 그리고 거룩한 보존의 필요를 전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가 없는 종교이며, 성령 하나님이 없는 종교 행위이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없는 종교적 지식이 저주할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세상은 종교를 사랑한다. 세상은 모든 형태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너그럽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에 대한 경의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을 세상은 용납할 수 없다.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같은 수준—굴욕의 땅—위에 둔다. 복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사람들을 놓는다. 복음은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게 한다. 복음은 모든 교만과 자존과 차별에 속한 사람을 벗긴다. 그리고 복음은 왕관을 복음이 시작된 삼일 여호와의 머리 위에 씌운다.

## 구분짓는 의견

다섯째, 우리는 10-13 절에서 도처에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가지 강한 의견으로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본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

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선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의 사기꾼이었다고 말한다.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언제나 보수와 진보 정치인들처럼 이런 저런 방법으로 서로 어울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세번째 무리 사람들은 포용하지 않을 것이다. —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타락한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확신한다. —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록 세상 모두가 나의 선택을 비웃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는 나의 분깃이 될 것이라;  
그 외에 내가 아무 것으로도 기뻐하지 않기에;  
선한 자 중에서 가장 선한 분은 그분이라.”

## 54 장. “그가 어디 있느냐?”—요한복음 7:11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요한복음 7:11)

어떤 자들은 그를 데리고 가서 죽이려 하였다. 다른 자들은 그를 데리고 가서 왕으로 만들려 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기적들을 보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그를 찾았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를 찾았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께서 초막절 동안 예루살렘에 계실 것으로 알았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이 때 왔던 이스라엘인으로서 그의 관습과 의무였다. 따라서 모두는 그가 그곳에 있기를 기대하였다. 명절 기간을 통하여, 그분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 그것은 명절 때에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그가 누구인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겹옷을 들어올렸을 때,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니이까?”라고 외쳤다 (열왕기하 2:14). 그의 큰 시험의 때에, 그의 신음과 마음의 무거움 가운데, 읊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꼬.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라고 외쳤다. (욥기 23: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는 자들이 모든 마음으로 그를 구함으로 발견될 수 있는 곳이 약속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진정으로 찾고자 원한다면, 그분이 발견될 곳이 있다.

## 많은 자들의 질문

첫째,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데,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이유로 한다. 우리의 본문은 특정하게 유대인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시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종종 행해진 질문이다. 이 땅에서 그분이 인자였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가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그들이 그분을 싫어하였고 그를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헤롯 왕이 언제 우리 구원자께서 먼저 세상에 오실지 현자들에게 한 이 질문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인 채 하였지만, 실제로 그를 과멸시키고자 원했다 (마태복음 2:1-13).

헤롯처럼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많은데,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복음과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반대와 박해가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인 척 하는 자들로부터 올 때처럼 더 위험하지는 않다. 교황제도자들의 박해와 자유의지론자와 행위론자의 이단과 거짓 형제들의 비방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비난이며, 그분의 세상과 그분의 영향을 제거하려 시도한다. 이교도들, 우리 주의 그 존재를 냉소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그 백성을 비웃고 조롱한다. — “먼저 이것을 알찌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후서 3:3-4).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믿는 자들이 물은 어떤 질문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때로는 시험과 고난, 고뇌와 비탄으로 너무도 지쳐서 그들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들과 그분의 섭리에 의문을 갖는다. 그렇게 약해질 때, 우리 마음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친다. 읊은 분명히 그랬다 (읍기 23:8-9).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시편 22:1).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절대적 신뢰와 확신에 대한 가치가 있으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파도 치는 폭풍 속에서 작은 배 안에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마가복음 4:38)라고 울부짖는 제자들과 같다.

회개하는 죄인들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며, 그들이 그분께 나오게 되고 그들의 죄를 그분께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8). —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사야 26:9).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그들의 온 마음으로 그를 찾는다.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고린도후서 5:9; 빌립보서 3:7-14).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그를 찾는다 (아가서 3:3). 우리 사랑하는 자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그분에 대한 죄로 충만한 무지와 그분께 불순종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감추신 때, 일단 우리가 우리의 죄와 그분의 부재를 몹시 비통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갈

망한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 과의 교제를 갈망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그분의 체현의 임재를 그리워 한다.

돌아오소서, 사랑스런 주여, 돌아오소서!

내 방황하는 마음을 붙잡으소서!

당신의 임재를 알게 하실 것이라면,

나의 혼이 축복을 받을 것이니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은혜롭게 할게 된 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도록 은혜롭게 하심만으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를 갈망하는 것이다 (애가 5:2-8).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며, 절망하여 그분의 재림을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목말라하는 혼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친다. 우리 구원자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 할 지라도, 오소서, 주 예수여.”라고 답한다 (계시록 22:20).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다 내게 영광이리라!”

## 성경으로 답함

두번째, 이 질문, — “그가 어디 있느냐?” — 는 하나님의 책 안에

서 분명하게 답변되어 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측을 남기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펼친다면, 매우 분명하게 답변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 답을 찾을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에 계시다 (요한복음 1:18). 그리스도는 하늘의 중심이시다. 여기에 영광 중의 영광이 계시다 (계시록 4, 5 장). 그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다. — “그가 어디 있느냐?” 그는 우주 통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 거기서 총체적 주권의 평온 가운데 앉아 계시다. 거기서 그는 그의 모든 적들이 그분의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통치하시고 통치하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모든 자의 주시다 (요한복음 17:2; 로마서 14:9; 고린도 전서 15:24-28). 그는 높은 곳에서 주권자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위대한 대체사장으로서 대표와 변호의 위치에 계시다 (로마서 8:27, 34; 요한일서 2:1-2).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하고, 죄있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의 보좌에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과 나와 같은 궁핍한 죄인들 가까이에 계시다. 그는 그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닥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4:15-16).

### 체험으로 답함

셋째, 체험으로 답해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 “그가 어디 있느냐?”

그분의 은혜에 대한 달콤한 체험으로 내가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해보자. 아직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 안에 흥미를 일으키셨기를 기도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 당신이 흥미를 갖기를 소망한다. “그가 어디 있느냐?” 만약 그 대답에 관심이 있다면, “나의 혼이 사랑하는 자를 찾은” 궁핍한 혼의 간증을 주기 원한다. 내 마음의 벽장 안에서 비밀스러운 기도 가운데 그분께 외쳤을 때 시온좌에서 그분을 찾았다 (이사야 65:24). 그분을 구하며 하나님의 책을 열었을 때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을 발견하였다 (요한복음 5:39; 누가복음 24:44-47). 그분이 자신을 만날 것을 약속하셨던 곳에서 그분의 백성이 모인 가운데 그분을 발견하였다 (마태복음 18:20). 그분의 만찬상에서 주의 만찬의 떡과 잔에서 그분을 발견하였다.

내가 그분의 명령을 행하기를 구하였기에 나는 봉사의 장에서 그분을 발견한다 (마태복음 28:18-20). 우리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영광의 유익을 섬기기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구하기에, 우리가 사람들의 혼을 섬기기를 노력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세대를 섬기려 하기에, 우리 구원자께서는,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노라!”고 말씀하신다. —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 그분은 동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길을 변창하고 성공하게 만들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시험의 불타는 용광로마다에서, 박해의 모든 사자 굴에서, 어려움

의 모든 폭풍 속에서, 그리고 내가 노출되었던 비판의 모든 강에서 나는 그분을 발견했다. 나는 많은 장소를 갖고 있었다. 나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였다. 나는 길을 따라 약간의 고난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신 분이 필요 없는 어떤 곳에도 있지 않았다 (이사야 43:1-5). 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발견하였다 (빌립보서 4:4-7).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다 (골로새서 1:27).

### 개인적인 질문

넷째, 나는 당신에게 이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 나와 관련하여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당신 안에 있는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는 당신 안에 계시고 그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으며 (골로새서 1:12),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는다.” (테살로니가후서 1:5). 이것이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가?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소망의 기초에, 당신의 믿음의 기초에만 계신가? 그분이 당신의 기쁨의 뿌리에 계신가? 당신 안에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영과 태도와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의 목표, 당신의 혼의 소망, 당신의 여정의 마지막, 당신이 추구하는 분을 향한 하늘의 상으로 당신 앞에 계신가?

“그가 어디 있느냐?” — 우리 주는 언제나 집에 계시지만, 같은 방에서 그분의 가족을 언제나 만나시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기도의 골방 안에서 그분을 만나다. 다른 때는 공예배의 집인 그분의 왕국

의 큰 집회장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아침 저녁 묵상 가운데 그분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그분의 현관에서 그분을 만난다. 나는 성경을 읽으며 그분의 서재 안에서 그분을 만난다. 내가 그분이 포도원에서 수고하면서, 그분의 정원에서 그분과 교제한다. 나의 마음이 생생하고 소망의 기대로 가득할 때, 그분은 공개적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나의 영이 침체할 때, 그는 지하실에서 나를 만나셔서 손을 잡고 나를 데리고 계단 위로 인도하신다. 그분의 집의 모든 방이 좋다. 그분이 나를 만날 때마다 나는 기쁘다. 그러나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은 내 앞에 있는 그분의 식탁을 펴서 자신을 나의 혼에 “기름진 것들의 잔치”(이사야 25:6)인, 떡과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곳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위에 살며 그분과 함께 걷는 우리 마음의 언제나 증가하는 갈망이 되게 하자!

## 55 장. 성전 가르침—요한복음 7:14-36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때,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찌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요한복음 7:14-36)

초막절의 한 가운데,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7:14-36 에서, 우리는 그분이 하셨던 가르

침을 본다. 하나님께 그럴 것이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주장하는 곳 도처에서 그런 가르침이 행해졌다. Robert Hawker 는 이렇게 보았다…

“율법 전체를 성취함에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 가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매우 복되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그곳에 가지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 장에 기록된 이 신성한 설교를 잃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셨던 충분한 이유로 그분을 찬양하여야 한다. 그렇다. 실로 이것이 초막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마지막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의 위대한 점들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분의 백성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여기에 이 단락에서 보게 될 가르침의 일곱 가지 결정적인 점들이 있다.

### 1.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이다 (16-17 절).

사람의 의지와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행위 때문일 것이다. —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그것은 요한복음 7:16-17 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바로 그 가르침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불신은 사

람의 선택, 의지의 결정, 하나님께 행하는 집요한 반역의 의도적인 행동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에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라면, 당신은 그분의 가르침을 알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복음 22:67)라고 말씀하신다. —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40).

## 2. 스스로를 칭찬하고 높이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높이고 싶어하며 출중함을 갖기 좋아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로 도처에 있는 교회의 설교단을 채운다. 그런 사람들은 교활하며, 사람들을 자기 섬김으로 사용하는 자들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셨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4:5).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의 구원자의 전능함과 그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느낀다. 그는 자신 안에 죄와 무가치함과 부족함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는 그가 아무 것만도 못함을 안다 (에베소서 3:8; 고린도전서 15:9).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하지 않은 것을 안 그 사람은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단점을 덮으려 애쓴다. 구약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처럼,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높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치며, 삼 일 하나님을 높인다.

### 3. 공홀과 동정을 파괴하는 어떤 종교도 거짓 종교이다 (19-23 절).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안식일에 불구자를 낫게 하신 사실을 두고 여전히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요한복음 5:1-8). 그 동일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팔일 짜 아이에게 할례를 주는 것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였다. 그들은 안식일에 영아의 포피를 자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23 절) 그들은 주 예수를 경멸하였다. —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뿔박하게 된지라.” (요한복음 5:16).

하나님의 종들은 교리를 방어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혼을 돌보는데 더 관심한다. 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기 보다 죄인들을 돕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동정을 회개보다 더 우선하며, 그들과 그들의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 보다 주 예수를 알고, 신뢰하며, 섬기고, 경배하는 것에 더 관심한다.

### 4.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심판은 경솔하고 성급하지 말고, 주의 깊고 의로워야 한다 (24 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현자는, “재판할 때에 낮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잠언 24:23). —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신명기 1:16-17). —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1).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너무도 성급하다. 사람의 눈에, 안식일에 할례 받은 아이를 보는 것이 악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 역시 악한 것이 아니었다. 공홀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 일들을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자.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능한 가장 큰 관용으로 판단하라. 만약 우리가 엄격하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엄격해야 한다. —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5).

**5. 불신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부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가 없다 (25-29 절).**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들은 구원자의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그분의 기적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이 육신을 따라, 다윗의 왕족에 속함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눈을 감았는데, 그들이 영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머리는 사실들로 가득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부러 잊으려 한”(베드로후서 3:5) 사람들은 가장 분명한 사실들과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해

서 그들의 눈을 감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주와 구원자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믿기 원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44-47). 따라서 그들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눌렀다.” (꼭 눌렀다, 억압했다).

**6. 우리 위대한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만물, 심지어 사람의 의지까지도 그분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30 절).**

너무도 웅대하게 지혜롭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들의 생각조차도 통치하시며, 그분이 뜻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의 구속 가운데 그분의 은혜에 속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사용 하신다. —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니라.”(30 절).

우리 주의 모든 고난은 자원하심이며, 그분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분이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로 가지지 않았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셨다.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안나스나 가야바,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도, 위로부터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분을 해칠 수 없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명령에 따라 행해졌다 (사도행전 2:23). 십자가형은 삼위일체의 영원한 결정 가운데 계획되었다. 우리 주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시각까지 시작될 수 없다. 이것이 커다란 비밀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성한

진리의 복된 계시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것은 달콤하고 기쁘며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충만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자.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시간과 사건들을 지배하신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명령에 의하지 않고서 일어날 수 없다. 우리 머리의 머리칼도 모두 계수된다. 비탄도 질병도, 가난도, 박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돕기 위하여 도구로서 안수되지 않으면, 그분의 택하신 자를 손댈 수 없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시편 31:15). 모든 것이 괜찮다!

“인간은 여기에서 영원하네,  
그들의 일이 끝날 때까지!”

## 7.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열릴 수 없다 (31-34 절).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는 “생명의 향기가 생명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죽음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면,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다. 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 예수이신 문을 기꺼이 여시고 당신을 그 안으로 달콤하게 들어가게 하시기를. 아, 그분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당신을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고 구원 받기를 원한다.

“너 죄인들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니,  
그분의 진노를 너는 견딜 수 없으리니;  
그분의 십자가의 안식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구원을 찾으라!”

## 56 장. 목이 마른가?—요한복음 7:37-39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37-39)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때에 유대인들의 종교는 오직 외적 형태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퇴락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성막의 본으로 주셨을 때 모세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경배를 거의 닳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 요구되는 많은 외형과 성일과 크고 거룩한 집회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예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들이 실행했던 의식의 의미에 대하여 실로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유지하였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지켰으며, 그들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실행하였다. 하나님의 책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그들은 무시하였다. —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인들과 대단히 유사하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에 더하여, 유대인들은 개가 벼룩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람이 고안한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갖고 있었다. 그런 것들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하여 말하도록 하겠다.

초막절 동안, 명절의 여드레가 되는 날에, 그 날은 명절의 마지막 날이었으며, 그들은 그날을 “명절의 가장 큰 날”로 생각하는 날이었으며, 그들은 율법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그리고, 그들의 명절의 절정이었으므로, 그들은 매우 엄숙한 의식, 모두 그들 자신의 고안에 의한 의식을 수행하였다. 나는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더 그럴듯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매우 엄숙한 행렬 가운데 그들은 양동이를 들고 실로 강으로 행진하고 성전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올라갔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물 양동이를 받아 제단 위에 부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고 노래 했을 것이다 (이사야 12:3).

그것은 요한복음 7:37-39 에 우리가 있는 곳과 정확히 일치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올라가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8 일 동안 있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공허한 종교적인 모든 의식과 제전을 지나왔다. 그들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하라고 한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그들에게 갈증을 남겼다. 이제 그들은 집으로 갔을 것이며, 명절에 올라 갔을 때처럼 단지 공허한 갈증을 갖고 집에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성전을 떠나고 있을 때, 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셨고, 큰 목소리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이 마른가? 당신의 종교가 갈증을 남겼는가? 그리스도께 오라. 생명주는 샘의 물을 마시라. 그리고 더이상 목마르지 말라.

## 갈증

주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신다. — 그분이 말씀하신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목마르고, 당신의 혼이 목마르며, 마음이 목마른 자이다. 그것은 죄의식에서 일어나는 혼의 염려, 자책감에서 일어나는 용서에 대한 갈망, 심판의 공포로부터 일어나는 양심의 평강을 갈망하는 것이다. 당신의 죄책감, 당신의 죄들, 당신의 사악함을 느끼는가? 당신은 용서를 원하는가? 당신의 혼의 필요에 민감한가? 당신은 도움과 안도를 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하는 구원자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었으며,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고 울부짖었던 빌립보 간수는 목이 말랐다. 당신은 목마른가?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

매번 헛된 것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목말라하는 자는 거의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 거의 목말라하지 않는다. 당신은 목이 마른가? 이 영적 “갈증”의 체험으로 어떤 것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 모든 참 기독교의 시작은 우리가 죄가 있고, 공허하며, 궁핍한 죄인들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길 잃었다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늘로 향한 그 첫 번째 걸음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죄의식, 때때로 사람에게 경고

를 주며 자신의 경우가 소망 없이 절망적임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신호이다. 그것은 사실상 혼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표시이다 (마태복음 5:1-6).

이 말씀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포괄적인가!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를 위한 것이다. 복음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무엇을 했든지 관계가 없다. 주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고 하신다. 만약 당신이 목마르다면, 그 초대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어떤 다른 자격도 요구되지 않는다. 목마른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체험해야 할 회개나, 행해져야 할 개심이나, 체험하게 될 은혜에 대한 준비나, 얻어야 하는 지식이나, 행해져야 하는 행위들을 여기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목이 마른가? 당신을 지옥으로 짓누르는 죄들의 무게를 느끼는가? 당신은 평강과 관용과 용서와 의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지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다.

##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 여기, 죄와 깨끗하지 않음을 위하여 열린 샘물, 생명수의 강을 내뿜는 깨진 바위, 구원의 우물,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그 손을 뻗으며, 목마른 혼을 그에게로 오게 불러 마시게하는 생명의 샘이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 필요의 공급자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 필요의 위로자시다. 그분은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는 모든 자를 그분께 와서 위로를 찾으라고 부르신다.

그 말씀, “내게로 오라.” 는 매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 말씀은 모든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의 지혜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강력한 질문을 해결한다. 그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해준다. 그 말씀은 평강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와 대속자로 신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스도께 “나옴”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께 오는 것이다. 평강을 얻는 다른 길은 없다. 구원은 당신의 혼을 그리스도께 던짐으로 얻을 수 있고,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께 위임함으로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주 예수께 나온다면, 우리는 자녀로 입양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대가 없이 충만한 의롭게 됨을 받는다 (요한복음 1:12-13; 6:35, 37; 로마서 4:25-5:11).

각 세대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샘을 마시고 구원을 찾은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들은 혼의 갈증을 체험하였고 그들의 혼의 갈증을 없애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였다. 그들은 죄의식과 공허함을 느꼈으며 구원에 갈급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용과 긍휼과 은혜의 충만한 공급에 대하여 들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믿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선과 가치 안에 있던 모든 확신을 제쳐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온다. 그렇게 나옴으로 그들은 구원을 찾았다. 그렇게 매일 나옴으로 그들은 산다. 그렇게 나옴으로 그들은 죽기를 소망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 “마시라!” — 그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목마른 죄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분은, “내게로 와서 너의 혼이 필요로 하는 것— 공허, 은혜, 관용, 평강, 힘, 지혜, 의, 성화, 구속—을 모두 내게로부터 자유롭게 취하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이다. 샘에서 마셔라! 샘 안에서 목욕하라! 샘 안에서 헤엄치라!

## 생명의 약속

37 절에서 주 예수께서 와서 마시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신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의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주 예수께서 그분께 오는 모든 목마른 죄인이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강에서 생명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신다.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모두 그분 안에서 그들을 위한 풍성한 만족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는 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도움이 되는 근원이 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샘인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선포하신다!

한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 죄 가운데 죽었네,  
아무런 빛도 내 마음은 볼 수 없었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이 이제 빛나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이라!

저 멀리 태양에서 오는 광선처럼,  
땅의 꽃들이 자유로우니,  
생명과 빛과 사랑이 솟아나오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네,  
아! 이 어떤 구원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이네.

놀라운 평강과 소망, 위로와 기쁨,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부요를  
우리 귀한 구원자 안에서 찾는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우리의 날을 따라 힘을 찾는다. 나 자신 가운데 실망 외에  
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실망한 적 없  
다.

나의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받은 죄인들이 내게 있게 하신 것이 얼  
마나 축복된 것인지 설명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내 혼에 흘러나는 달콤한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발견한다. 나의 도  
움을 보증한 그들의 사랑, 나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한 그들의 살아  
남, 다른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한 그들의 준비, 죄인들을 보  
려는 그들의 열정이 구원자를 알려 나오며,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 모두 나의 혼에  
영원히 신선하고 살리며 격려하는 살아 있는 강물이다.

오직 심판의 날에만,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분의 배로부터 생수

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각각의 믿는 자에 의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선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자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사도들과 복음을 처음 전한 자들처럼 그들의 혀로서 선한 것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죽을 때 스테반과 뉘우치는 강도처럼 선을 행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Bunyan, Gill, Spurgeon, Hawker 등과 같이 그들이 죽은 후에 선한 것을 행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말을 읽을 때, 나는 “그것을 말씀하는 단락을 생각 못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색인을 내려놓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 곳을 찾기 시작했고,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도처에서 그것을 선포한다 (이사야 12:3; 35:6-7; 41:18; 44:18; 55:1; 스가랴 14:8, 16).

### 분명해진 난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마음내키지 않지만, 명쾌하게 될 필요가 있는 난제가 본문 중에 있다. 39 절을 보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역자주: 한글 성경은 이 천 문장이 괄호 밖에 있음.]

분명히, 성령께서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존재하셨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며, 삼일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위격이다 (요한일서 5:7).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분이 하시는 것과 똑같이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영적 생명이 없다. 그분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다. 그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없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과 동일하게 은혜에 속한 그 달콤한 축복들을 누렸다. —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한 달콤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였고 예언의 영에 의해 말하였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 다윗은, “내게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외쳤다.

그러면, 39 절에 있는 요한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분은 아직 이방인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의 체현되고 시작의 은사로서 드러지지 않으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요한복음 16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의 축복, 그 영의 약속이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의 택함받은 죄인들 위에 그분의 모든 생명 주는 능력 가운데 흘러내렸을 것이 우리에게는 편리하다. 그 영의 은사는 성취된 구속과,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 완성된 구원, 받아들인 보증, 그리고 충만하게 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다 (시편 68:18-19).

당신은 목이 마른가? 그리스도께 와서 마시므로 당신의 혼의 갈증을 없애라!

“오라, 너 죄인들아, 궁핍하고 비참하며,  
연약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아픈 자들아;  
예수께서 이미 너를 구원하시려 서 계시니,  
연민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시다:  
그는 하실 수 있다, 그는 하실 수 있다,  
그는 기꺼이 하실 것이니: 더이상 의심마라.

호오! 너 목마른 자여, 오라 환영한다;  
하나님의 대가 없는 풍성함이 영화롭게 하니;  
참 믿음과 참 회개,  
우리 가까이 가져오는 모든 은혜가,  
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사라.

양심이 너를 꾸물거리지 않게 하라,  
적당히 상냥한 꿈에 속한 것도 아니라;  
그가 요구하시는 모든 합당함은  
너의 그분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것이라;  
그것은 그 영의 떠오르는 광선이라.

오라, 너 지치고 무겁게 짐진 자여,  
떨어져 상처나고 영망이 된 자여;  
더 나아지기를 기다린다면,  
결코 오지 못할 것이니;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르러 오신 죄인들은.

동산에서 머리 숙인 그분을 보라,  
주여! 너의 창조주께서 거짚을 엮드리게 하시니;  
피 묻은 나무 위에 그를 보라!  
그가 죽기 전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인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주여! 당신은 성육신 하나님 승천하셨으니,  
그의 피의 공로로 탄원하라;  
그분께 과감히 나가라, 전적으로 나가라,  
어떤 다른 믿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오직 예수만이라, 오직 예수만이라,  
무력한 죄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네.

성도들과 천사들아, 협력하여 연합했네,  
어린 양의 찬양을 노래하라;  
행복이 넘치는 하늘 보좌가  
달콤하게 그의 이름을 메아리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들이 여기서 함께 찬양하리.”

(Joseph Hart)

## 57 장. 그리스도 분열의 원인—요한복음 7:40-53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헬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7:40-53)

얼마나 끔찍한 분열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가! 노아의 시대로부터,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나뉘어 왔다. 천연적으로 사람은 연합보다 투쟁을, 교제보다 충돌을, 평화보다 전쟁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곳곳의 사람들은 분쟁에 대한 변명을 찾는다. 가족, 남편과 아

내, 형제 자매들, 자녀와 부모들 조차 얼마나 쉽게 서로 분열하는가! 너무도 슬프다! 너무, 너무 슬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조차도 분열이 종종 나타난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이며,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고, 복음 안에서 협력자들이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였다. 모두 복음의 촉진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위대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싸움에 빠졌고 서로 갈라졌다!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당신의 가정에 다툼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형제들 사이에 다툼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책이 말씀하는 것이다: —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잠언 13:10). 경쟁의 교만, 신분의 교만, 체면의 교만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이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분열의 원인이다. 할 일 없는 뒷얘기가 비방하는 혀로 다툼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잠언 15:18). —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6:28). —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6:28). —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잠언 17:19). —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잠언 26:20-21). —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통을 일으키나.” (잠언 28:25). — “노하는 자는 다통을 일으키고.” (잠언 29:22). — “노를 격동하면 다통이 남이니라.” (잠언 30:33).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나의 영향과 정력을 사용하도록 내게 친절을 가르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이시여, 교제를 오염시켜 당신을 비탄스럽게 하는 것에서 나를 지키시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게 하고 다통을 일으키는 쓰라림과 분노와 진노와 악한 말로부터 나를 지키소서.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임이요.” (마태복음 5:9).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말하지만, 모든 다통이 악한 것은 아니고 모든 평화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분열은 언제나 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합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연합한 반역의 폭도는 여전히 반역의 폭도들이다. 평화로운 의식은 여전히 평화로운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7 장에서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다통에 대하여 읽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큰 분열의 원인이 된다. 왜 요한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을까? 왜 그는 우리에게 주 예수로 인하여 일어났던 사람들의 이런 분열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까? 이 단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 것들이 분명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한다.

## 쓸모 없는 지식

첫째, 종교적 지식과 영적 지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종교적 지식은 쓸모 없고, 해를 주는 지식이다.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의 은혜에 속한 은사이고 수반되는 것이다. 종교적 지식은 그러나 육체의 요구이다.

우리는 주의 청취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했던 곳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듣게 된다. 그들은 분명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알았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씨에 속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태어나실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때 그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의 시각은 밝아지지 않았다. 그들은 심각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렸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들 앞에 서 계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볼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 한 가운데 서 계셨다. 그리고 그들은 위치와 가계와 일자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으며, 신뢰하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물을 필요 없이, 지식이 없는 곳에 믿음은 없다. —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믿음은 어둠 속에서 뛰는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참 경배,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당신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으며,

사랑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다. 그러나 영적이고 구원의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7 장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 말씀들을 잘 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레미야 9:23-24).

바로 그 마귀들은 성경을 당신이나 나보다 더 잘 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귀일 뿐이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마귀들과도 같다. 그들은 성경의 글에는 친숙하고, 본문의 문장을 인용할 수 있다. 그들은 신학적 이론에 대하여 추론하고, 주장하고, 논쟁한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와 죄들 가운데 사망했다.

구원의 지식은 마음의 지식이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것을 전달할 수 없다. 전도자들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없다. 부모들이 그것을 줄 수 없다. 마음의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실 때 주어진다 (갈라디아서 1:15). 마음의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새로 태어남 가운데 형성될 때 주어진다. 그 때까지, 당신은

영적 지식이 없다 (고린도전서 2:12-16).

구원의 영적 지식, 은혜에 속한 새 창조에 의해 오는 그 지식은 하늘로 태어난 혼이 그 자신의 마음의 재앙, 죄의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성취를 알도록 한다 (요한복음 16:7-11).

이것은 다른 어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정도의 지식이다. 당신이 만약 그것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당신은 영생을 가졌다. 만약 당신이 이 구원의 지식이 부족하여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소망을 던져버리게 한다면, 종교적인 것들에 있어서 당신의 모든 배움과 지혜, 모든 지식과 기술은 단지 어둠과 착각일 뿐이다.

### 권위로 전함

둘째, 우리 주는 모든 전도자들이 따르는 본으로써 이 단락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그는 우리에게 권위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우리는 그분을 체포하기 위하여 보내진 대제사장의 관리들조차 경이로움에 충격을 받았고 그분의 전하시는 말씀에 놀랐던 것을 듣게 된다. 그들은, —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46 절)고 말했다. 그것은 정확히 우리 구원자에 대하여 그가 산상서훈을 전하는 것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들은 것이다 (마태복음 7:28-29).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주의 권위는 그분의 목소리의 크기나, 그가 보여주셨던 웅변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분명하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배움의 권위나 과장된 연

출에 의한 권위가 아니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주의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있는 자신감이었다. — 그분은 믿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꾸밈 없음에서 보여졌다. 권위 있는 말씀 전함은 그것을 덮기 위하여 아무것도 필요 없고, 뒤로 숨을 장애물이 없고, 뒤로 피할 수 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다. 말씀 전함에 있어서 우리 주의 권위는 그분이 사람의 마음에 전했던 그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전도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고린도 전서 2:1-5).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권위로 전할 수 있는 많은 삶을 일으키시기를 바란다.

## 단계적 역사

세째, 우리는 죄인을 회개케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종종 단계적인 역사임을 니고데모의 예에서 본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우리 주의 대적들의 회의 가운데 서서 그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공손하게 탄원하는 것을 듣는다. —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1 절).

니고데모는 18 개월 전에 밤 중에 우리 주께로 왔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여기 있고, 여전히 공회 가운데 포함되기를 만족해 한다. 여전히 그는 그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제자, 그의 구원자와 함께 자신을 억지로 구분한 비밀스러운 제자였다. 분명히 그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가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주의 변호편에서 말한다. 곧, 이 동일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멸시 받은 나사렛 사람과 한편임을

알렸을 것이며, 거의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는 곧 아리마대의 요셉과 함께 나와서 우리 주의 시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빌라도로부터 허가를 원해야 했다. 그는 그렇게 했고, 모든 주의 선택 받은 사도들이 주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를 기억하라 (요한복음 19:38-39).

그 영의 역사는 택함 받은 죄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언제나 동일한 속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실제적이고 사실이지만 매우 느리게 보일 것이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의 체험이 우리 자신의 것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으로 그들을 너무 빨리 정죄한다. 누가 구원 받았고 누가 타락했는지 말할 수 있는 관사들처럼 결코 우리 자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주 앞에 서거나 넘어지게 내버려 두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당신과 내 앞에 서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틀리게 판단한다. 믿음과 신실함의 강한 예라고 한때 생각했던 사람이 중국에는 타락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스스로 타락했다고 증명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들이 신실함을 증명하였다. 추수 때까지는 밀과 잡초를 구별할 수 없다. 추수 때에 잡초는 똑바로 높이 선다. 밀은 그 머리를 숙인다.

### **그리스도로 인한 분열**

넷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의 원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 —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3 절). 평강의 왕이신 그분은 세상이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을 가장 크게 분열하는 자이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라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속이는 자라고 하였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면서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다.

주 예수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분열이 있었다. 언제나 있다. 이것은 위대하고 넓은 분열이다. 더 분명하게 보일수록 더 좋다.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분열이다. 믿었던 자들과 믿지 않았던 자들은 함께 걸어갈 수 없다. 결국, 니고데모는 그 스스로를 평생의 친구들과 분리하여야 했는데,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이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다면, 동일한 일이 당신과 나에게 사실로 될 것이다.

계시록 18:4 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모든 세대에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다. —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모든 거짓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것은 구원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거나, 사람에 의해 결정되거나, 결심된다고 선포하는 어떤 종교와 모든 종교이다. 바벨론은 사람의 종교이다. 바벨론은 세상의 종교이다. 바빌론에서 우리는 나와야 하며, “각자 그 혼을 구원해야 한다.” (예레미야 51:6). 우리는 고린도후서 6:14-18 에서 오직 광범위한 조항 내에서 동일한 명령을 받았다.

거짓되고 배교의 종교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구별되게 분리하는

것은 각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신다. 그러나, 롯 형제처럼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기를 주저한다. 우리 육체가 구별된 분리에 반대한다. 바벨론의 종교는 우리 육체를 너무도 끌고 만족을 주기 때문에, 천사가 롯을 붙잡아 그를 그의 사랑하고 중요한 소돔에서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이끌어 내시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모두 바벨론에서 이끌어 내시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7:43 에서 “쟁론(division)”이라 번역된 그리스어는 분열이다. 그것은 심한 쪼개짐, 난폭한 다툼을 포함한 나뉘음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그리스도에 의해 원인이 된 이런 갈라짐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을 나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실제적이며, 가장 영원한 분리이다. 하지만, 믿음이 올 때 분리가 이뤄지며,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을 연합이 산출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서로 간의 연합을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난 모든 자는 하나, 한 몸, 한 가족, 한 왕국, 한 교회이다 (에베소서 2:11-2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국적은 혼합된다. 갈보리가 바벨을 치유한다. 개인적 특질은 분열을 그치게 한다. 직위, 지위, 부는 은혜의 연합하게 하는 영향 앞에 엎드린다. 모든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택정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이다 (골로새서 3:1-3, 10-15).



## 58 장. “여자 외에 아무도”—요한복음 8:1-12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12)

초막절이 끝났을 때, 우리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는 말을

듣게 된다 (요한복음 7:53). 그러나, 비록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8:20). 따라서 요한복음 8:1 에서 우리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라는 말씀을 본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분은 자주 그곳에 가셔서 그분의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 그분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과 홀로 밤을 보내셨다 (누가복음 22:39). 이곳은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고, 그 배신자는 주께서 계셨을 곳을 정확히 알았으며, 그를 체포하기 위한 한 무리의 병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자주 가셨던 곳이었다 (요한복음 18:1-2).

그리스도의 위대한 예표인 다윗이 감람산에 맨발로 비탄스럽게 올라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사무엘하 15:23). 여기 겐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어둠의 왕을 곧 직면해야 할 것을 아셨다. 이곳 겐세마네에서 그것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는 것에 대한 예측 가운데, 여기서 그가 배신당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저주받은 나무로 체포되어 데려가질 것임을 아시며 피땀을 흘리셨을 것이며, 우리 복된 구원자께서 감람산과 그 동산, 겐세마네를 땅에 속한 그분의 좋아하는 곳으로 만드셨다. 실로, 이 장소는 그분께 분별된 땅이고, 그분 자신의 보혈로 신성하게 된 곳이다! — 겐세마네의 기억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스럽게 되어야 하는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1-2 절). — 그분은 밤에 겐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낮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

셨다. 그분의 시간은 이 두 가지로만 나뉜 것처럼 보였다. 기도와 말씀 전파.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6:2). 우리가 사람들의 혼을 섬길 것이라면,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명분을 섬길 것이라면, 우리가 쓸모 있게 될 것이라며, 모든 복음 전파자는 자신을 기도와 말씀 전파에 헌신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와 공부와 말씀전파에 열중하는 목자를 일으키시기를 원한다! 그가 그것을 했어야 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 초막절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의 칭송과 높이 찬양 받는 지도자들인 자기 의의 율법사와 바리새인을 격분하게 하셨다. 그 한 주간을 통하여 명절 기간 내내 그들은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이유를 찾고자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의 평판을 추락시키고자 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분명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했던 계획을 열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는 여자를 덮으로 놓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여인을 간음 행위로 유혹하였다. 그가 이 여인과 그의 천막에서 누워 있을 때, 천막 문 밖에서 그의 친구들이 바로 그 매춘 행위 중에 있는 그녀를 잡기 위하여 감시하며 서 있도록 하였다.

절기가 끝난 다음날, 우리 주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오셨다. 그분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변에 모였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치고 들어와서 이 여인을 군중 한 가운데에 앉히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고 하였다. 그 가련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자를 놀라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 너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잘난 체 하며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신을 안 보이는가? 그들은 주 예수께서 모든 밤을 이 여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자의 사랑의 대상을 그분께 데려올 때, 나는 거의 그분 마음의 광선 같은 미소를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녀를 죽게 하려고 그분께 데려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녀를 구원하시려고 그녀를 그분께 데려오는데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 교만한 바보들은 주 예수께서 탈출할 수 없을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여자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서 용서 받을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이유를 만들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신다면, 그들은 그를 율법에 불경을 범한 죄로 고소할 것이었다. 만약 그분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한다면, 그들은 그가 긍휼과 동정이 있는 척하며 거짓되게 행하였다고 그를 고소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공의를 포기해야 하든가, 아니면 그가 긍휼을 거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극악무도한 시각으로 이 자기 의의 사람들은 죄지은 사람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계된 모든 문제들 중 그 문제를 생각해냈다. 그 문제는 이것이다: — 한편으로 의롭고, 거룩하며, 참되신 하나님께서 한 죄인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보이실 수 있겠는가? —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분이 될 수 있겠는가? —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

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 의의 종교주의자들의 생각에서 볼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성경의 이 단락에서 우리는 우리 주의 죄인들에 대한 동정심과 긍휼과 은혜의 생생한 그림을 본다. 그분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32)고 하셨으며, 그것이 그분이 하셨던 것이다. 자기 의의 바리새인들은 당황한 채로 멀리 갔고, 가련한 죄 있는 죄인은 받아들여 졌으며,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다. 여기 우리가 간음 가운데 잡힌 여인의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다섯 가지 매우 중요한 공과가 있다.

## 자기 의

첫째,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행동과 태도에서 우리는 자기 의의 끔찍한 사악함을 본다. 이 단락에서 보여진 진짜 사악함은 간통이 아니라, 자기 의이다. 진짜 죄인은 교만하고 종교적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이지 이 여인이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비록 실제에 있어서 그들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자이지만, 그들의 의로운 체하는 것과 도덕적인 체하는 것을 매우 자랑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

물을 필요 없이, 자기 의는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이다. 그것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 하나님의 시각에 더 무례하고 가증스럽다. 살인은 끔찍한 범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기 의의 혐의를 받기보다 차라리 살인 혐의를 받겠다. 도둑질은 굉장한 범죄다. 그러나 신성한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의보다 차라리 절도 혐의를 받겠다. 간통은 메스꺼울 정도로 악하다. 그리

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 인간보다 차라리 간음한 자로 서겠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매우 어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 죄로 보여지기 보다 차라리 거짓을 말한 죄로 보여지겠다.

이것은 새로운 죄가 아니다. 사람이 죄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로부터 의롭다고 자칭해 왔다. 자기 의는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죄다. 화, 분노, 질투, 증오, 그리고 정욕들은 쉽게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극복 될 수 있다. 그러나 교만과 자기 의는 가장 잘 숨겨져 있다. 이것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자기 의는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 가장 잘 번성하고 자란다. 거기서 그것은 기도로 물을 받고, 종교적 선서로 경작되고, 종교 의식으로 영양분을 공급 받는다 (마태복음 6:1-4, 5-8, 16-18). 우리 공개적 기도의 대부분, 종교적 행위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이 은혜에 속한 구원과 증거의 확신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대부분이 의라는 것이 자기 의 외에 아무것도 아님이 두렵다. 우리의 상처 받은 느낌의 모든 것이 자기 의의 나타남이다 (마태복음 6:1-8, 16:18).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의에 대항하여 가장 격렬하게 불탄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스스로 의로운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누가복음 20:46-47).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 한다. 자기 의는 모든 험담과 중상과 박해의 뿌리다. 사랑은 죄를 덮는다. 자기 의는 죄를 드러낸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있었

다. 그들은 이 여자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속의 사악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싫어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혜로만 구원—을 싫어하였다. 그들은 이 여인을 그들 자신의 계획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살든지 죽든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세와 율법 모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계획을 위하여 율법과 모세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은 언제나 그랬다. — 그들은 자신들 외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는 종교적 광신자들이었다.

자기 의는 모든 죄들 중 가장 치명적이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의 어떤 소망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 장어로 만든다 (요한일서 1:10).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배척한다. 자기 의는 우상숭배의 가장 역겨운 형태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경배한다.

그것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첫째로 분명한 것이다. 자기 의는 끔찍한 악행이다.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자기 의이다 (누가복음 16:15).

## 엄격한 공의

이 단락에서 보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완전한 엄격함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엄격한 공의에 있어서 확고하며, 가차 없으며, 단호하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여자는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명기 22:22-24; 레위기 20:10). 율법에 기록되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썬다.” (에스겔 18:20).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게 분명하며 철저하게 엄격하다. 고려될 예외도 변명도 참작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 눈 감아 줄 여지가 없다. —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찌라!” 율법은 죄인의 나이가 아니라 오직 그 유죄 여부만 관심한다. 율법은 죄인의 능력이 있음이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오직 그 유죄 여부만 관심할 뿐이다. 율법은 죄인의 환경이 아니라, 그 유죄 여부만 관심할 뿐이다. 율법은 죄인의 지력이나 무지가 아니라 그 유죄 여부만 관심할 뿐이다.

거룩한 율법에 대한 한 번의 범함, 한 번의 범죄, 한 번의 범죄 행위가 우리가 벌 받아야 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생각에서나, 말에서나, 혹은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영원한 저주를 부르게 된다. 죄는 무한한 하나님에 대항하여 저지르는 악행이며, 무한한 만족이나 영원한 정죄를 부르게 된다. 우리는 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요구한다. —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찌라!” 하나님의 율법은 관대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은 자비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은 관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은 용서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은 철저하고 융통성 없이 엄격하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것은 처벌 받아야 한다. —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19-20).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한 구원은 어리석은 논리적 모순이다. 율법

은 완전함이나 심판을 요구한다. 율법은 다른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엄정한 준엄을 보라. 그리고 조심하라!

## 하나님의 용서

셋째, 성경의 이 단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죄가 하나님의 범해진 율법이 침묵하기 전에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기 전에 그분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하셔야 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도록 하겠다.

이 여인이 용서 받을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처리되어져야 한다. 그 여인을 고소한 자들은 침묵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든 용서 받을 수 있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고소가 잠잠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하지만, 그분은 율법을 파괴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 가련하고, 죄 있는 간음한 여인을 구원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시는 한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는가?

첫째,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여인의 고소자들을 침묵하게 하셨다 (6-9 절). 우선, 그분은 이 종교적 위선자들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했으며, 왜 그것을 하였는지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궁지 속에 그분이 이

제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압박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그분은 여자의 고소자들을 쫓아 버렸다.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 심판의 빛을 던지셨다. 분명히 그분은 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들에게 충격을 준 무언가를 땅 위에 쓰고 계셨다. 그분은 아마도 바로 이 사람들을 포함한 어떤 이름과, 시간과 장소를 쓰셨을 것이다. 그분은 간음의 행위 중 이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자의 이름을 쓰셨을 수도 있다. 그분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써내려 가셨을 수도 있다. 그분은 심지어 이런 것과 같은 것을 쓰셨을 수도 있다. — “이 여인의 처지를 대신 할 완벽하게 죄가 없는 한 사람의 자원자를 생각해 보겠는가? 그 여인을 가게 하고, 대신 나를 잡아라. 내가 그 여자의 대속자가 되어 나 자신을 주겠다.”

그분이 쓰셨던 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 위선자들이 법적 기소를 멈추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책감의 양심으로 찢렸다. 마침내, 그들은 모두 떠났다. 이 여자를 고소할 아무런 증인이 없었으며, 따라서 율법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었다. 주 예수께서 이 불쌍한 여자의 고소자들을 잠잠케 하셨고 그들을 쫓아 버리셨다.

그래서, 역시,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한 사람의 완전한 충만과 죄속량의 희생, 우리 주 예수,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항하는 율법의 요구를 영원히 침묵하게 하셨다 (로마서 8:1-4).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효이 베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

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처벌에 따라 죽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하신 대속의 희생은 신하나님의 용서의 유일한 근거다. 그리고 만족된 공의가 죄인이 풀려나게 되도록 요구한다 (로마서 8:31-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있는 여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셨다. 그녀는 죄가 있었지만, 정죄받지 않았다! 율법이 그녀를 정죄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정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녀는 용서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녀는 풀려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죄가 있었다. 실로, 우리는 유죄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죄는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셨다. 율법은 잠잠하게 되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 기소할 수 없다.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만족시키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무죄석방을 얻어 내셨네,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네;  
율법의 엄청난 저주를 그가 안으셨네;  
공의가 결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네.

징벌을 하나님께서 두 번 요구할 수 없으니,  
첫째로 나의 피 흘리는 보증자의 손에서라,  
그리고 내게 대가를 요구하시니,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이라.

잠잠하라, 나의 혼아, 그리고 달콤한 안식을 찾으라 -  
나의 위대한 대제사장의 공로들이니,  
그의 의와 보혈이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켰음이라.

그리스도의 효험의 피를 신뢰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두려워 하지 않을 것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이며,  
또 나를 위하여 탄원하려 사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믿는 자에 대해서 정죄함은 없다. 정죄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제 정죄함은 없다. 앞으로도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 관용과 용서는 절대적으로 대가 없고 무조건적이다. 만약 우리 주께서,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불쌍한 여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고 하셨다. 나의 관용과 용서는 대가가 없다.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말라.”

누가 끝없는 화염에 정죄하라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생명책 안에 그들의 이름이  
예수의 피로 분명히 기록됨이 아닌가?

그가, 그분의 택정한 자들의 죄에 대하여,  
충만하게 완전한 속량을 만드셨으니;  
공의가 결코 기대하지 않으리  
동일한 빛이 두 번 치뤄져야 하는 것은!

죄 있는 죄인들이기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가치 밖에 없기에, 그분의 피로서 대가 없이 완전하고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를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 보혈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실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 흘린 피는 효험이 있고, 구원자께서 죽으셨던 모든 죄인의 용서를 확증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죄인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 주권적인 은혜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비밀스러운 방법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여기서 받는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사악한 의지를 제외한 어떤 힘이나 강요가 없이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여 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 하나님은 그 시대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주권적으로 조정하고 계셨다. 그분은 이 사악한 사람들이 이 불쌍하게 죄지은 여자를 그녀의 구원자에게 데려오도록 비밀스럽게 역사하고 계셨다. 실로, William Cowper 가 쓴 것과도 같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움직이시니  
    그분의 경이가 행하려 함이라;  
그는 바다에서 그분의 발자국을 심으시고,  
    폭풍 위로 임하시네.

    알 수 없는 나의 깊은 속  
    결코 실패하지 않는 숨씨로,  
그분의 빛나는 계획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역사하시네.”

이 불쌍하고 죄짓고 벌벌떠는 여자는 주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분이 그녀를 택하셨다. 그분이 그녀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녀를 구속하려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약속된 시간이 왔다. 그녀는 그분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그녀가 죽기를 원하고 그녀가 파멸되기를 추구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의 선택된 대상을 그녀의 구원자의 품 안으로 데려오도록 사용되었다. 그분은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녀의 치부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그녀를 그분께 데려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녀의 역겨운 죄조차도 사용하셨다. 그분은 지혜롭고, 은혜롭고, 주권적이고, 부드럽게 그녀가 그분의 권능의 날에 구원자를 기꺼이 품게 만드셨다. 은혜의 때에, 그분은 이 여자의 마음 안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셨다. 일단 그녀가 그리스도를 보자, 자신의 죄를 증오하였고,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랑 안으로 쓰러졌다.

## 참 회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한 가지는 참 회개의 본성이다. 사도 바울은 회개 되어야 할 회개, “사망을 역사하는” 회개 있음을 말한다 (고린도후서 7:10). 참 회개는 단지 삶의 개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태도의 변화이다.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이 여인은 그녀의 죄에 대해 확신하였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변론에서 변명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 앞에 죄의식 가운데 조용히 섰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그들의 유죄가 판결되었다. 이 여인은 구원자에 의해, 자신을 그녀에게 알게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그녀의 유죄가 판결되었다. 바리새인들의 판결은 공포스런 율법에 따른 유죄판결이었다. 그녀의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 부수어지고 회개한 복음의 판결이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그녀의 주로 깨달았다. 그녀는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분이 자신을 저주하실 권한을 갖고 계시고 구원하실 권능을 갖고 계심을 깨달으면서, 주권적이신 주 앞에 순종함으로 단지 기다렸던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떠나기를 거부하였다. 그녀는 그분의 은혜로 압도되었고 그분의 사랑으로 정복당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자 그 구원자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외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그녀는 그리스도 주의 권위와 통치에 스스로를 순종하였다. 그 날로부터 앞으로 그녀는 자신

의 십자가를 짊어졌고 그분의 가시는 길을 따랐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보며 서 있던 군중과 같은가? 그들은 용서를 목격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가? 그들은 은혜가 베풀어졌던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도 교만하고 스스로 의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않았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으로 부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무겁고 무거운 죄의식과 죄의 짐으로 상처 입은 이 가련한 여자 처럼 죄가 있고, 더럽고, 모두 드러나고, 별거벗었는가? 만약 우리가 우 예수 곁에서 이 가련하고 더러운 간음한 여자와 우리 위치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도 역시 용서하셨을 것이다!

## 59 장.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한복음 8:12-20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앎이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 례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12-20)

빛과 생명 사이에는 매우 근접한 유사점이 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 빛은 생명에 불가결 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의 바로 시작, 창조의 바로 시작에서 이것을 본다 (창세기 1:1-2:3). 빛

은 세상의 창조 가운데 있었고, 은혜의 새 창조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의 죄로 어두워진 마음 위에 동하실 때, 그분의 구속 받은 자 안에 있는 타락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하여 그분의 영을 보내실 때, 그분은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주시며, 그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예표와 예언 가운데 언급되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려 빛이 되실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이사야 42:1-6; 49:6; 60:1-3).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불기둥이었다. 그리스도는 지성소 안에 있는 황금 촛대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성전 보고 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보고를 공표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알았거나, 알아야 했으며, 그분은 자신을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선포하셨다.<sup>vi</sup>

## 흑암의 세상

첫째,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흑암, 엄청난 흑암이 있는 곳임을 상기시키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영적 흑암을 과장하기란 불가능하다. 나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밝지 않다는 것을 한 순간이라도 주장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여전히 “흑암이 땅의 표면을 덮고 있고, 총체적 흑암이 사람들을 덮고 있다” (욥기 5:14; 12:25; 이사야 9:2).

이 세상이 어떤 흑암과 어떤 겹겹의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가!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눈이 먼 세상에 살고 있다. 어떤

흑암 가운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매일의 생활을 살고 있는지! 감정적인 분노, 정신적 고문, 가정의 혼란은 대다수가 이 흑암의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살게 되는 것들이다. 그 흑암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것이 지속적이고 겹겹이 쌓이는 흑암이고 어둠인가? —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의 욕망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 (에베소서 4:17-19).

비록 학문과 과학을 공부하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수가 그들 자신의 본성, 우리 인류의 부패, 하나님의 품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 죄, 의, 심판, 다가올 세상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절대 아무것도 모른다. 할 수 있는 한 아주 개인적이 되기를 원한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런 도덕적 나침반이 없다. 당신은 아무런 영적 이해가 없다. 당신은 삶에 대한 인도함이 없다.

## 빛이신 그리스도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당신의 혼을 에워싼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여기, 주 예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다. —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의 복음서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보이려 의도되었다. 요한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이 복음서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장에서 분명하다 (요한 복음 1:1-5).

그분의 신격을 보여주기 위하여, 불타는 덩불에서 모세에게 자신

을 계시하셨던 자존 하나님으로 자신을 선포하시려 “나는 이다”라는 말을 사용하셨던 것 안에서 우리 구원자에 의한 일곱 가지 분명한 문장에 대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말한다. 매번 우리 구원자께서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신 곳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나는 여호와-예수,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48).
2.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12).
3. “나는 문이니” (요한복음 10:9).
4. “나는 선한 목자이니” (요한복음 10:11).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25).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6).
7.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5).

50 번 이상이나 요한은 주 예수께서, “내가 그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한다. 여기 요한복음 8:12 에서 그분 만이 빛이시며, 그분을 제외하고 아무런 빛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위대한 “나는 이다!” — “나는 세상의 빛이니” — 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9:5; 12:35, 46).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동일한 주제를 집어내고 있다 (요한일서 1:5).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둡디 어두운 세상이 한 가운데 있는 죄로 흑암으로 변한 혼들에게 빛과 생명과 평강과 구원을 확산

하시기 위하여 태양처럼 부활하신다. 태양은 전체 태양계에 무엇이냐는 것 — 빛과 열과 생명과 다산의 중심 — 은, 의의 태양이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생명 주는 광선을 비추시는 모든 자 위에 모든 것이다. 추론의 빛은 비논리적이다. 자유의 빛은 속박이다. 교육의 빛은 무지이다. 양심의 빛은 비양심적이다. 종교의 빛은 모독이다.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오신 참 빛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신 분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요. —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36:9).

즉각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5:31 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하면서, 그분 자신의 말로 끼어들었다 (13 절). —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말씀으로 덮에 걸렸다고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구원자는 그 기회를 차단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강조하셨다 (16-18 절).

그분이 이 세상을 통과하실 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그분은 비록 인자로서 우리의 성육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늘에서 아버지의 품에 계셨고, 그분은 그들 앞에서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증거와 심판 안에서 혼자가 아니셨다. 여기서, 또한 그분과 아버지는 하나였고 하나이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임을 확증하신다. 따라서, 바로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그분에 대항하는 데 사용하기를 소망하였고, 구원자께서 그분의 중상비방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고 하신다 (17 절; 신명기 19:15). 그분은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또 다시 강조하셨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침례 때, 변화 산상에서, 갈라진 휘장으로, 그분의 영을 부으심으로 증거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 만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 자신에게는 사람으로, 죄인들에게는 구원으로 계시하신다. 갈보리에서 그분의 대속의 속량으로서 그분 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우시며 죄 있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지를 보여 주신다.

###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셋째, 우리는 여기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본다. —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 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당신 당신의 유일한 주이고 구원자로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위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에 엮드리며 당신 자신을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다. — “따름”은 “믿음”에 대한 단지 다른 말이다. 그것은 오직 관점의 다른 점에서 보이는 동일한 혼에 속한 행동이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광야에서의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랐듯이 — 그것이 움직였을 때 움직이고, 그것이 멈췄을 때 멈추고,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진한 것 —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계시록 14:4). 우리는 그분의 가

르침, 그분의 계율,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지침을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걷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처럼, 무지 가운데 남겨지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구원자께서 치유하셨던 소경처럼, 의혹과 불확실성 안에서 더듬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분명하게 본다. 그들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거룩하고 주권적이고 — 공의롭고 공흠이 풍성하고 — 은혜롭고 참되시다) 분명하게 본다. 우리는 보며,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본다. — 죄인들은 은혜로 구원 받았다! 우리는 본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그가 왜 하셨는지,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본다. 우리는 본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지 분명하게 본다 (신성한 결심으로 — 신성한 의로 — 신성한 구속으로 — 신성한 거듭남으로 — 신성한 부활로).

빛 가운데 걷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비추는 자들 위에 많은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다. 빛은 어둠을 좋아하는 피조물에게는 혐오스럽다. 만약 숲 속에 있는 통나무를 뒤집는다면, 어둠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여기 저기로 도망 갈 것이다. 빛은 그들에게 혐오스럽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빛은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혐오스럽다 (요한복음 3:14-19).

빛은 빛이 비추는 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다 (고린도후서 4:3-6). 빛은 땅을 새롭게 하며, 생명으로 솟아나게 한다. 태양 빛으로 식물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보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한다.

빛은 평화롭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태양 빛처럼 평강의 처소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빛은 우리를 평강의 처소로 데려가신다. 우리는 죄의 짐을 벗었기 때문에 평강을 얻으며 삶을 통한 여정과 우리의 영원한 집에 이르게 하는 여정이 분명하고 확실해지며,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지도가 그려졌고 안배되어 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 혼 가운데 안식을 준다. 그것은 마치 한동안 가족으로부터 멀리 있다가 당신의 집에서 현관 불빛을 보았을 때의 기쁨과 위로 같은 것이다.

그리고 빛은 반사된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 혼 위로 떠오르면, 하늘로 난 혼은 그가 사는 곳에서 그 빛을 반사한다 (마태복음 5:14-16).

###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넷째,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거둬나지 않은 자의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는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의 어둠, 종교적 미신의 어둠, 이단의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의 빛 가운데 다닌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는 뜻이다. 비록 우리가 소경일지라도, 지금 우리는 본다. 비록 한 때 우리가 믿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을 안다. 빛 가운데 다니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안다. 우리는 은혜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늘과 영원한 기쁨으로 가고 있다.

그리스도 꺼질 수 없는 빛이시다. 많은 사람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빛은 시험 가운데 깜빡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꺼지며,

쓸모 없는 것 이상으로 더 형편 없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신 빛과 그가 주시는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 하나님을 모르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빛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 구원자께서 모든 거짓된 빛으로 그분 앞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19 절).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중보자, 죄인의 대속자이고 보증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계시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영생을 갖는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범죄와 죄들 가운데 사망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분으로 살도록 하시기를 바란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사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을 알도록 성장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빌립보서 3:10).

60 장.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요한복음  
8:19-59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19-59).

자녀들 대부분은 언제나 그들의 부모를 닮는다. 그리고 같은 가족의 자녀들은 대부분 언제나 서로 닮는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 닮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한 가족의 자녀들이 서로 닮지 않는 것이나, 그들의 부모를 닮지 않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요한복음의 이 8장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의 평판을 깎아 내릴 것을 찾았고 그분을 죽게 할 방법을 찾으려 하였다. 이 바리새인들은 전체적인 유대인처럼 그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 위선자들의 가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벗겨버리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42 절). 19-59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하게 하는 일곱 가지 사항을 보여 주신다.

그렇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특별히 구별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렇다. 언제나 은혜를 따르는 것으로 특징하게 성경 안에서 명명된 몇 가지가 있다. 여기 그 일곱 가지 것들이다.

### **1.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그리스도를 안다 (19 절).**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관점과, 그들의 배움과 지식과 이해의 깊이를 자랑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였다. 그들은 알아야 할 것 모두에 대하여만 알았고, 그것을 알았다. 그들은 성경의 역사적 사실,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의 땅의 부여, 그들의 신경과 관습, 율법과 심판, 의식과 제전, 희생을 위한 올바른 동물, 희생제물, 그들의 안식일과 성일을 알았다. 그들은 절기와 금식과 십일조에 대하여

모두 알았다. 그들은 “필요한 한 가지”를 제외한 종교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여기,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 상했을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공개적인 조롱거리였다. 주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그들과 그들의 종교와 영적 우월성의 허위를 나무랐다. 이것을 배워라.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 (요한복음 1:18; 14:6; 17:3).

하나님이 주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위격의 표현된 형상이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실로 아들이 그분을 계시한 자 말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우리가 만약 성경에 계시되신 분으로 그분을 알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덧붙이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요한일서 4:2-3; 5:1; 요한이서 1:7). 만약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분에 대하여 계시하였던 것처럼 그분을 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의 교회의 언약의 머리, 그분의 택정한 자들의 보증인, 그분의 백성의 율법 성취자, 그분의 택하신 자의 전능하신 죄 속량자,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효험 있는 구원자로 알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의 아들을 모른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를 당신의 구원자로, 당신의 유일한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으로 알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아들을 모른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까지, 당신은 이들 바리새인들과 같고, 하나님과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것(당신의 지식, 체험, 느낌, 교리적 의식과 종교적 의식, 자신의 의, 기도와 금식, 회개와 믿음, 비통과 눈물)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는 증거다. 당신의 모든 상상하는 의는 당신의 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단지 영원한 파괴일 뿐이다. 당신 상상 속의 모든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영원히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악한 행위들일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것이다!

**2.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은 은혜 가운데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난 자는 모두 은혜 가운데 보존된다 (30-31 절).**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청중들에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갈보리에서 그분의 희생 이후 그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지식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들 앞에 그분의 가르침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분의 사명과 그분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임재의 탁월과 신성을 제시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 그분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

였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자에게는 능력으로 왔고, 믿음이 들음으로 왔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고 매일 매일 마찬가지다. 어떤 자는 믿었고 어떤 자는 믿지 않았다 (사도행전 28:24). “영생을 주 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48).

은혜 가운데 새로 태어난 이 아기들에게, 주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선포하신다. 두 가지 종류의 제자들이 있다. 자칭 제자들과 참 제자들이다. 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한다. 거짓 제자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들 중에서 가버린다 (요한일서 2:19).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복음의 믿음 가운데 버티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 난 자가 아니며, 결코 참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 —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22; 고린도전서 15:1-3; 히브리서 3:6; 4:14; 10:23). 하나님으로 난 모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하는 모든 자는 마지막까지 견딜 것이다 (욥기 17:9; 시편 1:3; 125:1; 138:8; 전도서 3:14; 이사야 46:4; 예레미야 32:40; 빌립보서 1:6).

**3.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은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대가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36 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고린도전서 7:22). 주께서,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 절)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36 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라고 선포하

신다. 하나님으로 난 자는 모두 참으로 자유하다. 그리스도께서 사로 잡힌 자를 자유케하시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자유케하시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종교적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며, 미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

율법의 큰 저주로부터 자유하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한 저주가 되시려고  
또 나무 위에서 죽으셨네.

율법의 의식들  
그리고 모든 율법의 명령들이  
그리스도 주 안에서 만족되었네,  
그분의 손으로 성취되었네.

율법과 함께한 어떤 언약도  
이제 우리와 함께 존재할 수 없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는 은혜로 서 있으니,  
자유롭고 영원한 축복 모두를.  
더이상 진노의 공포가 없으며,  
더이상 두려움으로 강요 받음 없이,  
우리는 예배하고 섬기리 우리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을 갖고.

예수 안에서 우린 자유하네,  
예수 안에서 우린 자유하네 -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네,  
우리는 자유 안에서 산다네!  
우린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리,  
피로 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리니,  
그 은혜가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만드시네.

#### 4.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 (39 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어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유대인과 이방인)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영적 자녀,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인 사람들이다 (로마서 2:28-29; 갈라디아서 3:29; 빌립보서 3:3).

우리 구원자께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말씀 하실 때 무엇을 가리키고 계신가? 무엇이 아브라함의

행사인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의 특징인 이 행사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행사는 믿음과 사랑의 행사다. 그것들이 모든 믿는 자를 특징 짓는 것들이다.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던 자들은 주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40-41 절).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이다. 그것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으로 나갔을 때 그가 한 행동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로 난 모든 자에 의해 수행되는 아브라함의 행사,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특징지어주는 아브라함의 행사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 (창세기 12:1-4).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언약의 희생을 소중히 하였다 (창세기 15 장). 아브라함은 도량이 크고 용서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생애와 가장 특별히 롯에 대한 그의 취급을 통하여 본다. 아브라함은 후하고 관대한 사람이었다 (창세기 18 장). 아브라함은 주 예수를 보았던 사람이며, 그가 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였던 것을 본 사람이었다 (창세기 22 장).

**5. 만약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면,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소유한 모든 자는 진실로 구원자를 사랑한다 (42 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우리는 많은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점

에서 모든 하나님의 참 자녀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자녀와 같다. —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곧 그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구원자를 정말로 사랑한다.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신의 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을 아는 사람이 그분의 은혜로운 구속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생명의 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많은 약함과, 죄들과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 되게, “주여,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을 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앞선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 받으려는 어떤 갈망을 갖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찾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회개나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소유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다. 그분께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보다 먼

저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 사랑의 원인이다.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내 마음은 너무도 경직되었고, 이 의지가 너무도 완고하였으며, 만약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정복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주 예수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죄와 타락의 한 가운데에서, 그분은 지나가셨으니, 보라, 그것은 “사랑의 시각”이었다! 삼일 여호와, 주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계시하셨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반역자의 마음을 정복하셨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여야 하게 된다. 말해보라 내 형제여, 말해보라 내 자매여,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은가? 하늘로 난 혼은 모두 Phillip Doddridge 와 함께 찬양할 수 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나요? 오 나의 주여.  
 나의 마음을 보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상을 등돌리니,  
 그것이 감히 당신과 견주려 하노라.

당신을 사랑하지 않나요? 오 나의 주여.  
 그러면 나로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사망이 모든 쾌락에의 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움직이지 못하실 때라.

당신의 이름이 아름다운 선율이 아님은  
여전히 내게 청종하는 귀에게라?  
모두가 기쁨의 고동으로 두근거림은  
나의 구원자의 목소리를 들었음이 아닌가?

당신의 모든 양 떼 안에 한 마리 양이 있음은  
내가 먹이기를 멸시하였을 것이 아닌가?  
당신께 대적이 있음은, 그 얼굴 앞에서  
당신이 탄원하게 할 것을 두려워 함이 아닌가?

나의 영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다투니  
보좌 주위의 천사들과 함께  
당신의 신성한 뜻을 행사하려네,  
또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할까?

내 마음이 아닌가, 그 피를 쏟아 부으니  
당신의 이름의 존귀 가운데?  
또 사망의 차가운 손을 도전하니  
불멸한 불꽃을 끄려 하느냐?

당신은 아시니 내가 당신을 사랑함을, 사랑의 주여,  
하지만 아, 날아 오르고 싶어라  
이 세상의 기쁨의 영역으로부터 멀리,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더욱 더 배우리!”

6.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가진 모든 자, 모든 참 믿는 자,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47 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음이다.” — 모든 구원 받은 죄인들은 복음을 믿는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품었고, 믿었고, 기뻐한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졌다. 이것은 모든 종교주의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많은 종교인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은 의지경배자 들인 아르미니아주의자 들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안다.” (32 절; 요한일서 2:21). 믿는 자에게 신성한 주권에 대하여 말하라, 그러면 그는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그에게 택정하심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고백한 것처럼 흐느끼는 것이다. 그에게 효험 있는 피의 구속, 한정된 속량에 대하여 말해보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윗처럼 춤출 것이다.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말해보라, 그는 소리칠 것이다. “아멘!” 그에게 성도의 보증,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마지막 인내에 대하여 말해보라, 그러면 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은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7.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 결코 사망을 맞보지 않을 것이다 (51 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 그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육신의 이

몸을 버릴 것이지만, 그것이 죽음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낡아 버리고 더이상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에녹처럼, 우리는 변화될 것이며 결코 사망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26). 엘리야처럼, 우리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데려가게 될 것이며,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9), 우리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계시록 20:6; 고린도후서 5:1-9).

## 61 장.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요한복음 9:1-4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교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1-41)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초기 사역의 삼 년 동안 많은 공훈에 속한 기적을 행하셨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으며, 떡과 물고기를 여러 배로 만드셨다. 그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셨으며, 병어리가 말하게 하셨고, 비틀어진 팔을 곧게 하셨으며, 절름발이가 걷게 하셨고, 소경이 보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아 일어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로 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29:18; 35:4-10; 42:6-7; 마태복음 11:4-5).

주님의 기적들 중 두 가지는 그 커다란 중요성 만큼이나 성경 전권에서 각각이 한 장 전체씩을 차지 할 만큼 영적으로도 교훈적으로 그 위치를 갖고 있다. 요한복음의 11 장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일어나게 된 나사로의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 장

의 시작에서 우리는 나사로의 병과 사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요한복음 11:4).

여기 요한복음 9 장에서 성령은 우리 앞에 소경으로 난 자, 주 예수께서 치료하신 자를 두셨다. 여기서 또한 장 전체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할당되어 있다. 나사로의 부활  
처럼, 이 사람의 치유는 우리 혼을 위한 가르침의 충만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질병과 사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을  
들은 것처럼, 이 사람의 실명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자 함”이 계획되었고 의도되었다고 요한복음 9:3 에서 읽는다. 이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함  
가운데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고 나타내하고자 의도되었  
다.

### “예수께서 지나가심”

이 눈먼 자의 치유 이야기는 주 예수로 시작된다. 얼마나 적절한  
가! 그 사실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사람, 그의 소경, 그의 치유에 대하여 읽기 전에, 하나  
님의 영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사람을 본지라.”고  
말한다. 길을 지나가고 그 사람이 얻었던 공허에 인도하였던 그를  
본 분은 주 예수였다. 따라서 그것은 은혜 안에 있다. 주께서 그 죄  
인을 지나가고 그를 살도록 할 때까지, 죄인이 주께 한 접근은 없  
다. 구원은 사람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하나님께 온 사람  
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에스겔 16:1-14). 만약 우리가 그분을 사  
랑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19).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을 경멸했던 성전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셨다 (요한복음 8:59). 그분은 그들 스스로를 종교로 짓어두고 배척 가운데 영원한 파멸로 인치게 한 채, 심판 가운데 그들을 지나가셨다. 은혜는 언제나 확실하고, 개별적이고, 구별된다. —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옆으로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은 궁핍 가운데 이 사람을 지나가셨다. 그분은 영원한 택정 가운데 우리 혼을 지나셨고 구원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분은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 혼을 지나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안배하셨다. 그분은 사랑의 약속된 시간에 우리 혼을 지나가셨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주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 바디매오는 그것을 알았다. —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마가복음 10:47).

손을 뺀어 주를 만지라  
 그가 지나가기 때문이라!  
 그가 심히 바쁘시지 않음을 알 것이니  
 너의 마음의 외침을 들으리라.  
 이 순간을 그가 지나가신다  
 너의 필요가 공급될 것이니,  
 그러니 손을 뺀어 주를 만지라  
 그가 지나감이라!

###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를 본다.

“보았다”로 번역된 그 말은 응시하다, 주시하다, 지켜보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은 또한 통찰력과 이해력, 그리고 인지함의 관점을 갖고 있다. 하나님 아들의 지켜보시는 눈 하에 있는 자들은 복되다! 구원자께서 “한 사람을 보셨다.” 그분은 그가 누구였는지 보셨다. 그분은 그가 어디 있는지 보셨다. 그분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셨다. 그분은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지금까지 그의 모든 것을 보셨다. 그분은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람을 위하여 할 모든 것을 보셨다! 하나님의 영이 탕자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우화를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5:11-20 에서 비슷한 단락이 있다.

그분의 은혜를 행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요한복음의 이 9 장에서 예가 되고 있다. 구원자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 그 사람이 그분을 보지 않았다. 이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공흔을 베푸시기를 호소하지 않았다. 주께서 주도권을 쥔 분이였다. 그것이 언제나 그런 방법이다. — “구원은 주께 속하나니!”

### “날 때부터 소경임”

이 사람, 성령 하나님에 의해 명쾌하게 듣게 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 사람의 실명에 대하여 여기서 언급된 것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었나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고자 하심이니라.” (1-3 절).

제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신체적 불행들은 죄의 행위 때문에 사람들에게 찾아 온다고 생각하였고, 질병은 하나님의 화와 언짢음의 표시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생각은 틀렸으며 교만과 자기의의 잠재적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의 부모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원죄에 대해 죄가 있었고, 모두 실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로마서 3:23; 5:12). 주님은 단순히 그가 소경이 되었던 원인이 그의 부모의 특정한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었음을 밝히고 계셨다. 물론 우리는 모든 질병과 사망은 죄의 결과라고 안다. 죄가 없었다면, 질병이나 사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가정이 교만한 무지의 표시이다. 그것은 옴의 세 친구의 잘못이었다. 카리스마 주의와 오순절, 거짓 치료술사들은 동일한 우를 가르친다.

사실은 이 사람의 실명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계획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의 실명은 그분의 긍휼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그의 실명은 하나님의 선견의 은혜에 속한 일이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운행을 위한 길을 포장하셨다. 그의 실명은 하나님의 섭리의 특별한 안배로 인함이었다 (로마서 8:28). 사실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불행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계획되었고 일어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4:17-5:1; 베드로전서 1:2-7).

어떤 것도 우연이 일어나거나 신성한 계획 없이 발생한다고 상상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은 타락의 사실과 세상으로 죄가 들어온 사실로 인하여 끔찍하게 혼돈하는 것 같다. 그들은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고, 죄가 들어왔을 때 창조주께서 그의 피조물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그것은 신성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것은 신성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이사야 14:12-14, 24, 26-27; 시편 76:10; 로마서 11:33-36).

이 사람의 소경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과 아담의 타락 안에서 인류의 파멸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 아담이 그분의 예표였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속한 그분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되고 그분의 은혜에 속한 영광의 찬양에 이르게 계획되었다 (로마서 5:14).

더욱이, 이 사람의 소경 됨은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의 영적 소경을 나타낸다. 이 사람의 육신의 소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게 하도록 하였다. 혼의 소경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도록 하는 기회를 줄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영적 소경,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는 소경 상태에서 모두 태어난다. 모두가 천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소경, — 그분의 교회와 백성의 머리이고 신랑으로서 중보자의 성품 가운데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 역사, 은혜, 긍휼, 은

혜, 그리고 모든 수 많은 아름다움과 뛰어나심에 대해 소경, — 그분 자신의 본성과 영광 안에서와 선택 받은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모두 축복의 영의 영원한 권능과 신격에 관련된 모든 것에 소경이며, 우리 자신의 철저한 타락과 파멸과 미완성 상태에 대해 소경, — 구원자에 대한 우리의 필요와 심지어 우리의 소경 됨에 대한 소경들이다.

### “하야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4-5 절). — 아, 여기서 읽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 우리 언약의 보증자, 죄인들의 대속자는 행해져야만 했던 일로서, 그가 “하야야 하는” 일, 그가 이 세상을 떠나 그를 보내셨던 그분의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마쳐야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여호와와 같은 그분의 일을 마쳐야 한다 (요한복음 10:14-18).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것을 끝내라!

- 의가 완성되었다!
- 만족이 완성되었다!
- 구속이 완성되었다!
- 칭의가 완성되었다!
- 사함이 완성되었다!
- 성화가 완성되었다!

- 구원이 완성되었다!

우리의 전갈은 “복음,” 기쁜 소식이지 좋은 조언이 아니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7:4). 어떤 것이 더 복될 수 있겠는가? 구속 역사는 완성되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 받았다. 여호와와는 영화롭게 되었다. —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7).

### “가서 씻으라”

6 절과 7 절에서, 주 예수께서 이 가련한 소경에게 그분의 은혜로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매우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 “이 말씀은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구원자는 덕이나 치유의 능력이 없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사용된 방법들은 천연적인 생각에 어리석고 불쾌하였다. 따라서 복음 전파로,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영적으로 소경이고 사망한 죄인들이 보고 살아나게 된다. 복음 전파는 세상에게 어리석음이지만,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18-24).

사용된 방법이 쓸모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임을

알도록 하자. 진흙과 실로암 못은 복음 전파처럼 그리스도의 손에는 단순한 도구들이다. 그러나 그분이 없이는 진흙은 시력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보는데 더 큰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축복이 없이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영적 소경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고린도후서 2:15-16; 계시록 3:18).

### “네가 믿느냐?”

이 사람은 엄청난 기적, 부인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그에게 가져왔던 엄청난 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욕하였고 마침내 그와 단절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체험으로 일어섰다. 그는, “이런 일이 세상 역사상 누구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내가 소경으로 난 것을 난 안다. 이제 내가 보는 것도 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심지어 주목 할만한 기적이라도 기적 이상의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을 낳기 위하여 필요하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오직 신성한 계시에 의해 올 뿐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한 공훈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분에 의해서만 온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5-38 절).

이 사람은 시력을 받았지만,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분을 믿기 위해서 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들음에 의해서 계시된다 (로마서 10:9-17). 하나님은 그분이 명하셨던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방법은 복음 전과다 (베드로전서 1:23-25).

### “소경이 되다”

이제, 39-41 절을 보고, 소경을 보게 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로 그 복음을 배워라. 그분은 자신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경을 사용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 (39-41 절).

이 바리새인들 위에 내린 우리 주의 심판과 소경으로 난 자 위에 내린 그분의 긍휼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이집트인들을 두렵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빛을 주었던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에 있던 구름을 생각나게 한다 (출애굽기 14:19-20). 그리스도는 시대의 반석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놓으신 확실한 기초이다. “믿는 그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끝이 없는 세상이라.” 그리고 그는 “거치는 돌이요, 마음 상하

게 하는 바위라.” 타락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를 갈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신명기 32:4; 이사야 28:16; 베드로전서 1:6-8; 마태복음 21:44).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사야 63:1-4)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도록 도우신다. 이 소경이 안식일에 치료 받았던 것처럼 (14 절),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 당신의 영원한 안식일이 시작된다 (마태복음 11:28-30).

## 62 장. 참 목자와 거짓 목자—요한복음 10: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0:1-6)

주 하나님은 예레미야 3:15 에서 그분의 교회에 약속을 하나 하셨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다.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내가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예레미야 3:14). 이 약속은 모든 때를 위한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다. —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하신 승천의 은사들인 그 목자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목자들인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은혜에 속한 지식과 복음의 지식과 성경 지식, 그 지식들과 타락한 상태에 있고 구속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지식으로 그 양떼를 먹

인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사로잡힌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예레미야 6:16)고 강조한다. 그들은 이해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역시 당신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고, 때를 이해한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 자신의 마음을 따라 지식과 이해로 그분의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을 주실 때, 그분의 양떼는 “다시는 두려워 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3:4).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를 주신 백성과 교회는 복되다!

어떤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선물인 자인가? 요한복음 10 장의 처음 여섯 구절들이 보여준다. “목자”라는 말은 단순히 “양치기”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선한 목자이며, 목자장이고, 양떼의 위대한 목자이다. 모든 신실한 목자들은 단지 목자들 아래 있으며, 주 예수께서 그분의 양떼를 보살피도록 위임한 자들이고, 지식과 이해로 그분의 양떼를 먹일 책임이 있는 자들이며, 그분의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이 요한복음의 10 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을 본보기로, 표본으로, 표준으로 사용하시며, 그로써 모든 참 목자들이 구별되고 알려진다.

## 상황

만약 우리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이 우화에서 우리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우화에서 우리 주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고, 오직 도둑질 하

고, 흠치고, 죽이기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 주의 양떼를 이용하고 탄압하는 그 거짓 양치기들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특정한 말씀이다.

9 장에서, 주께서 소경을 치료하신 후에,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와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회당에서 끌어냈다 (요한복음 9:39-41). 그리고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얼마나 그 말씀이 그 도둑과 강도들, 사람의 혼의 파괴자들, 거짓 양치기들을 찢리게 하였겠는지!

여기 거짓 목자가 있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주께서 모든 거짓 목자를 설명하신다. 여기 참 목자가 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 말씀으로,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을 묘사하시고 양떼의 모든 참 목자를 설명하신다.

## 거짓 목자

첫째, 우리 구원자께서 모든 거짓 목자, 모든 거짓 선지자, 모든 거짓 전도자를 설명하신다. 우리 주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모두 거짓 목자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대를 통틀어서 바로 어제까지도 그 바리새인들 같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은 단지 증가할 것임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경고 받는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처럼, 거짓 목자들은 언제나 타락한 종교적 세상에 의해 인정받고, 갈채를 받으며, 높여질 것이다. 그리고 참 목자는 언제나 경멸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24; 사도행전

20:30; 디모테전서 4:1; 베드로후서 2:1; 요한일서 2:18; 4:1; 요한이서 1:7).

누가 거짓 목자인가? 거짓 목자는 성경에서 많은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주 예수께서 나무 뿌리에 도끼를 대시며 세상 가운데 언제나 있을 모든 거짓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 우리로 다른 방법으로 넘어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신다.

거짓 목자는 문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를 거절하는 자이다. 그 자는 타락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이며, 그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자이다.

이것에 대하여 질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주께서 그분이 문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 절).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로 구별되는 하나의 큰 표시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1 절). 이것이 모든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표시다. — 그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는 타락한 믿지 않는 반역자이다.

그 자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자는 양 우리로 들어가는 다른 길을 만든다. 그 자는 다른 소망, 다른 중보자를 제시한다. 진실로, 이들은 위험한 시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요.”라고 하신다. 거짓 목자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16)라고 선포하신다. 거짓 목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 이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신다. 거짓 목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자신의 피로, 사함을 구하였고, 죄를 없앴으며, 영원한 구속을 얻었고, 범죄의 끝을 이루었으며, 영원한 의를 왔다.”고 하신다. 거짓 목자는, “사함, 의, 그리고 구속은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신다. 거짓 목자는, “그 영은 살리기를 원하지만, 구원과 영생으로 당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당신 자신의 육신의 뜻이다.”고 말한다.

## 적그리스도

거짓 목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는 뿔 달리고, 꼬리와 삼지창을 들었고, 그 이마에 숫자 666 문신을 한 채 붉은 옷을 입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종종 한 사람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다수이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자유의지, 행위 종교,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누구나다.

여기서 우리 주는 모든 거짓 목자들이 실제로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수를 언급하는 대신 하나의 거짓 목자를 언급한다. 모든 거짓 목자는 적그리스도이다. 모든 거짓 목자는 죄에 속한 사람이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로 담을 넘으며, 문이신 그리스도로 들

어오기를 거부하면서 양우리로 들어오며, 바울, 베드로, 유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거짓된 가식으로 교회에 스며드는 자들이고, 의를 진작하는 자들로 “몰래” 교회로 들어오는 자들로 묘사한다.

거짓 목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 또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자이다 (갈라디아서 1:6-9). 거짓 목자는 당신의 생각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부터 부패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1:3-4).

사도 바울은 죄에 속한 사람이 드러나야 하는 때에 대하여 말하며, 데살로니가후서 2 장에서 그를 분명히 구별하였다. 그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의 말을 많은 때 들었다. 사람들이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곳이라면 거의 모든 곳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다 —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7-12; 계시록 13:1-2).

양 떼의 큰 대적, 거짓 목자로, 양처럼 오지만, 곰의 발을 가진 자가 적그리스도임에는 질문의 여지가 없다. 그는 사탄에 의해 직접 능력을 받고 지시를 받는다. 거짓 목자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자유의지 행위 종교를 전하는 자이고, 사람의 종교를 전하는 자이다. 바울은 로마서 1 장에서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타락하는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 종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 종교,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종교가 진리의 사

랑을 받기를 거절하였던 세대 위에 임할 하나님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와 같은 종교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비정상적 행위를 나타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덕적 타락이다.

실제로, 남색은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헌신을 포함하지 않는 사랑의 가식이다. 그것은 생명을 결코 산출할 수 없는 남자들의 연합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의 열매이고 실행이며,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건방진 생각의 결과이다.

만약 우리가 이 저주, 적그리스도의 종교의 저주로부터 구원 받는다면, 그 안에 당신과 내가 서로 잡히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다: —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2:13-14).

무엇이 거짓 목자의 목적인가? 무엇이 그 자가 와서 하려 하는 것인가? 나는 종종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듣는다. 그들은 당신이 거의 그들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 경고를 던지시 말한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실제로, 그들은 팬참고, 팬참은 형제들이며, 그들의 두뇌는 단지 약간 혼란스러운 사람들이다.” 우리 주께서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런가?

주님은 모든 거짓 목자에 대하여, “그 자가 도둑이요 강도라.” (1절)고 하신다. 10 절에서 그분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큰 목적은 흠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다. 그것이 모든 거짓 목자의 목적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적들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대적들로 여겨야 한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 (시편 139:21-22; 갈라디아서 5:12).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보좌를 흠치고,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영광을 흠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그 씨를 흠치고, 그분의 혼의 수고를 위한 만족을 흠치며,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서 생명의 길을 흠치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을 당신에게서 흠치며, 당신에게서 구속과 구원과 용서와 평강과 영생을 흠치며, 당신의 혼을 파괴하려 강도와 파괴의 드러난 목적을 위하여 온다 (마태복음 23:13).

경계하라. 적그리스도로부터 도망가고, 또 도망가라! 모든 자유의지 행위 종교로부터 도망하라. 모든 거짓 목자로부터 도망하라. 두 번이나, 현자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는 그 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는데, 그 길의 끝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다 (잠언 14:12; 16:25).

## 경계하라

거짓 목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언제나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러나 속으로 그들은 탐욕스러운 늑대들이다. 그들의 목적은 은혜와 섞인 행위들과 복음과 율법을 뒤섞고, 노예상태를 자유로 자유를 음탕함으로 부르며, 구원을 어떤 방법과 어떤 부분, 어떤 정도로 당신에게 좌우되고 당신—당신의 의지, 행위, 가치, 경험, 그리고 배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만들며, 파멸하고 파괴시키는 것이다.

## 참 목자

둘째, 주 예수께서 자신과 모든 참 목자를 설명하신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2-5 절).

양 떼의 목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11 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고 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양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다. 양 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대신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분은 그분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고 발견하셨다. 그분은 길 잃은 그분의 양을 찾으실 때 그분의 전능한 어깨 위에 올려 놓고, 전능한 은혜로 잡으시고 집으로 가는 길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다.

그리스도는 참 목자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 우화에서 그분의 목적은 우리에게 참 양치기와 거짓 양치기,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사이의 분명한 구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따르는 모든 참 목자의 본보기로서 자신을 사용하신다. 참 양치기, 참 목자에 대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참 목자는 문으로 양 우리로 들어가는 자이다 (2 절). — “양의 우

리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2 절에서 언급된 문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을 성취하며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분명 옳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9 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 “내가 문이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그분이 문인가? 그렇다. 그분이 그 문으로 들어가셨나? 실로 그렇게 들어가셨다. 그것이 정확히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11-12).

우리 구원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같은 문으로 들어가시며 자신을 선한 목자이심을 보이셨다. 즉,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실로, 그분 위에 우리 죄들을 취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면, 그분은 들어 가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 그분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양 떼를 돕도록 보내신 모든 참 목자의 첫 번째 표시이다. 그는 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 온다. 그는 그 거대함을 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말한다. 그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에 대하여 말한다. 그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피에 의한 대가 없는 칭의를 선포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의를 선포한다. 그는 그 능력을 느꼈기 때문에 보혈을 전한다. 그는 목자의 어깨 위, 목자의 손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전을 전한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 이것이 없이, 다른 자격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대학이나, 신학 대학이나,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배움이 결코 그를 목자로 만들 수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달변도 결코 설교자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자로서 봉사하는 자만 양떼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참 목자는 양 떼를 보살피는 자이다. —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3-4 절).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연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종들, 그분의 참된 목자들을 위하여 길을 여신다. —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양 떼는 목자의 음성, 그의 복음을 듣는다. 그들은 그 참 목자들, 신실한 목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음성을 듣는다 (요한일서 4:5-6).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 물을 필요 없이,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으로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개인적이고, 특정하며, 효험 있는 부르심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 떼에 대하여 갖고 계신 완전한 지식을 보여 준다. 그분은, “내가 그들을 아나” (27 절)이라고 하신다. 삭개오가 길 잃은 양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가 나무 위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 — “삭개오

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5).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방황하는 양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셨다” (요한복음 1:48). 그분의 부활 이후, 그분은 마리아를 보셨고 그녀에게, “마리아야.”라고 하였고, 그녀가 자신에게 돌이켰고 그분께, “랍오니여 (이는 히브리말로 선생이라)”라고 했다 (요한복음 20:16). 따라서 아직도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 떼를 아시며, 그분은 자신의 양 떼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은 그분을 따라간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양 떼를 위한 그의 사랑을 수반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이름을 사랑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셨던 자들의 이름을 사랑한다. 당신의 이름이 그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며,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여기 더 있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양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그분은 아브람에게,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5)고 하셨다. 그분은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창세기 32:28)고 하셨다. 그분은 게바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복음 1:42)고 하셨으며, 그 뜻은 돌, 하나님의 집에 살아 있는 돌이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양 떼를 부르실 때, 그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 실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그리고, 우리가 위에 있는 성전에 올 때, 그분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12)고 말씀하신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면, 당신은 새 이름, 하나님 자신이 당신에게 주신 이름을 갖는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에게 주신 이름 — “주 우리의 의”이다 (예레미야 23:6 과 33:16).

그리스도의 참 목자들인 사람들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양 떼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 신실한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양 떼는 그들도 역시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단지 죄 있고, 연약하며, 더럽혀지고, 무력한 양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그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그의 양 떼를 부른다. 그들은 그의 성도들이다. 실로, 그들은 그분과 하나이며, 철저히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행해지는 어떤 것도 그분을 위하여 행해지며, 그들에게 행하는 어떤 것도 그분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11-12).

이것이 이 우화에서 우리 구원자에 의해 예가 된 공과이고, 바리새인들이 잡을 수 없는 공과이며, 우리 세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잡을 수 없는 공과이며, 그분의 소유로서 섬기는 모든 목자들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공과이다. — 만약 우리가 선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 어떤 권능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과 동정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능력은 그들과 함께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자로서 그들과 공감하는 데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외적 힘이나 권력만으로 감동시킬 수 없다. 마음은 단순한 논리와 이론과 교리 만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 마음은 마음으로 감동한다!

당신은 사람의 손발에 사슬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종교적 교리와 종교적 규정, 으름장과 위협으로 그의 행동이나 말을 억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혼이 혼과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의지를 움직이고 애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만약 우리가 마음 속으로부터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공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무도 동일한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며, 스스로 양 떼와 함께 하나가 되지 않는 자는 양 떼의 참 목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그분 자신을 예로써 가르치고 확증하셨던 공과다. 선한 목자는 자신을 선한 목자임을 입증하였으며, 참 목자가 그분의 양떼를 향한 그분의 관심과 부드러움과 동정과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셨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사셨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으며, 그들과 함께 굶주리시고 고통 받으셨다.

우리 복된 선한 목자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분의 양 떼와 하나이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태를 통하여 유한한 생명으로 들어오셨

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고스럽고 매일의 걱정스런 여정으로 삶을 지내셨다. 그는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고난과 사망의 동일한 문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출구를 만드셨다. 삶과 죽음 안에서 그는 양 떼와 함께 행보하셨다. 따라서, 그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단순히 아버지에 의해 위임 받고 보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전능한 능력을 수행하는 것 때문이 아니다.”고 말씀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이다.”고 하였고, “내가 나의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참 목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 “그가 그들 앞에 가신다” (4절). 목자는 언제나 양 떼 앞에 간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따른다. 그가, “우물로 가자.”고 말하면, 그들은 그를 따라간다. 그가, “저 킁킁한 계곡으로 내려가자.”고 하면, 그 뒤를 따라간다. 그리스도와 함께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자신이 가지 않았던 곳으로 양을 가도록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의 양 떼가 지도록 하신 그 모든 것을 견디셨다. 우리 구원자는 깊은 비탄, 마음의 비통, 혼의 비통, 그분의 양 떼를 위한 지옥의 바로 그 비통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분이 우리를 고통 받도록 부르실 때 놀라지 말자. 우리는 그분이 가지 않았던 곳으로 부름 받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발을 디뎠던 곳에 당신의 부드러운 발을 내려 놓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당신 앞에 가심은 여전히 사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 앞에 계시다 (이사야 43:2).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참 목자들에게 마찬가지다. 그들은 양 떼 앞에 가며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양을 채찍질하지 않으며, 양을 때리지 않고, 양을 묶지 않으며, 양을 놀라게 하지

않고, 양을 몰아내지 않는다. 그들은 양 떼를 인도하며 앞에서 간다 (고린도전서 11:1; 빌립보서 3:17; 데살로니가전서 1:6; 히브리서 13:7, 17).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사이에 한 가지 더 큰 차이가 있다. —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어주느니라.” (10-15 절). 피고용인들은 단지 피고용인들이다. 그들은 양 떼를 관심하지 않는다. 그들이 양 떼를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더 봉사할 때마다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포기할 것이다. 선한 목자가 아니다. 우리 주 예수는 양이 생명을 얻도록 이 세상에 오셨고, 양을 위하여 사셨고, 양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그의 참 목자들은 그의 본을 따른다. 참 목자의 삶은 양 떼와 그들의 영원한 유익을 섬기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 참 목자는 보수를 받을 가치가 있지만, 그는 피고용인이 아니다. 참 목자는 양 떼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주고 내려 놓는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가? 복음의 전파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가? 당신은 그분을 따르는가? 주를 완전히 알도록 따르라. 곧 우리는 유혹하는 마귀도, 속이는 세상도, 거짓 목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이상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위에 해가 비치지도, 어떤 열기도 없을 것이다. 보좌의 한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생명수의 샘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모두 닦아버리실 것이다 (계시록 7:16-17). 그 위대한 영원한 날에, 우리가 목자 아래에 있을 필요가 더이상 없을 것이다. 그 영원한 날에 하나의 양

떼와 한 분의 목자가 있을 것이다!

## 63 장. 양—요한복음 10: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0:1-6)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려 계획하셨던 아담의 타락한 아들들 가운데 일부가 있다. 그들은 “그분 소유의 양”이라 불린다. 이 양들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에 의해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 받았으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은 죄인들이다. 그들 각각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으로 부름 받으며 영원한 영광으로 그분 안에서 보존될 것이다.

### 양과 염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 인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진다. 양과 염소이다. 양은 결코 염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염소는 결코

양이 될 수 없다. 우리 주는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양이며,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양이 아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염소들이다 (마태복음 25:31; 요한복음 10:16, 26). 인류의 이런 구분은 영원한 택정함 안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영원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셨다.

이 구분은 시간 안에서, 사랑의 때에,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으로 양들이 부름 받을 때 실현된다. 그 영의 부르심과 우리의 결과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나누어지지 않거나 우리를 양으로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은사는 구분을 나타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양이고, 은혜로 선택되고, 구속되며, 부름 받았음을 나타낸다.

이 인류에 대한 구분은 영구적이고, 변할 수 없는 구분이다. — 양은 결코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는 결코 양이 될 수 없다.

### 길 잃고 찾음

인류가 두 가지 부류(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처럼, 주의 양 또한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방황하는 양과 돌아온 양, 길 잃은 양과 찾은 양, 떠도는 양과 우리에게 있는 양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25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마음은 양에게 있다. 나의 마음은 양

위에 고정된다. 나는 염소에게 많은 관심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양의 길 위에 있다. 나는 염소를 위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염소에게 방해 받지 않는다. 나의 일은 양과 관련 있다. 나는 길 잃은 주의 양을 찾고 있다. 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양에게 고정하였기에, 나는 내가 선하고 귀한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목자의 뜻과 조화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는 목자의 생각이 그분의 양 위에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목자의 마음은 언제나 그분의 양 위에 있다. 선한 목자의 영광은 그의 양의 구원으로 마무리되며 그 양과 하나되는 것이다.

## 네 가지 길

주 예수께서는 자주 “내 양”을 언급하신다. 그는 그의 백성을 “그 자신의 양”으로 부르신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이 그의 양을 얻으셨나? 어떻게 그분의 양인 자들이 그분의 양이 되었나? 나는 오직 목자가 양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가 목자에게 속한 양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네 가지 길이 있다.

1. 사람은 은사로 양의 소유권 안으로 들어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그리스도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영원 전부터, 성령의 효험 있는 부르심으로 시간 가운데 드러졌다 (요한복음 6:37-40).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원 전부터 주신 자들,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서 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자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속한 선물로 아들을 믿게 된 자들,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자

들은 모두 같은 백성이다. 그들은 “그분 자신의 양”이다!

2. 사람은 또한 합법적 취득으로 양의 소유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양을 그분 자신의 보혈의 합법적으로 요구된 대가를 치르고 신성한 공의의 손에서 사셨다 (요한복음 10:11, 15).
3. 셋째, 만약 사람이 양 무리를 소유하고 그 양 떼가 다른 양을 출산한다면, 그 새로 태어난 어린 양은 태어나면서 원 소유자에게 속한다. 따라서 그것은 역시 우리가 도움을 받아 태어남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이사야 66:8).
4. 그리고, 넷째, 사람은 상속에 의해 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원 소유자가 그 양을 다른 사람에게 그의 유산으로 준다면, 그러면 그 양은 유산으로 그의 소유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귀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불려진다 (베드로전서 5:3; 에베소서 1:18; 시편 2:8).

## 열 가지 성경의 설명

성경을 조사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그분 자신의 양 떼”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계시된 열 가지 사항을 찾았다.

1 그리스도의 양으로 그분께 속한 모든 자는 선택 받은 양들이다 (요한복음 15:16; 에베소서 1:3-6; 데살로니가후서 2:13). 양은 택정함의 교리를 좋아한다. 우리는 은혜의 택정함이 없는 곳에 은혜로 인한 구원이 없을 것임을 우리는 안다. 택정함은 양의 친구

다. 모든 양은 택정함의 친구이다. 그들이 모두 고백하기를…

“내가 당신을 택하였던 것이 아니니,  
주여,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거절할 것임은,  
당신께서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음이라.  
나의 마음은 당신 앞에 가진 것이 없어라.  
당신의 부요한 은혜를 내가 갈망하니,  
이것을 아는 것은—만일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2 모든 주의 양은, 본성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이다 (이사야 53:6). “양” — 보다 적당한 말이 우리를 설명할 것을 찾을 수 없다. 방황하는 것은 언제나 양의 본성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길을 잃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며 모태로부터 길을 벗어났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잡으실 때까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선택으로 각자가 자신의 길로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을 방황하였다 (에베소서 2:1-5).

우리는 모두 길을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우리 중 아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라 할 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악한 마음의 본성이다. 그리고, 지금조차도,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돌아오게 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그분께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를 돌이키소서,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그리하면 우리가 돌이켜질 것입니다. 나를 이끄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릴 것입니다.”

다.”라고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된다.

“방황하기 쉽나니, 주여, 내가 느끼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나이다.  
여기 나의 마음이 있으니, 오, 취하여 인치소서.  
위에 있는 당신의 법정을 위하여 인치소서!”

주의 구원 받은 양 가운데 아무도 완전한 타락의 교리에 어떤 문제가 없다. 그것은 우리 매일의 체험의 쓰디 쓴 실재이다!

**3** 나는 모든 주의 양이 구속 받은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는 것이 기쁘다 (요한복음 10:11, 15).

“구속 되었네! 그것을 선포함이 얼마나 좋은지!  
어린 양의 피로 구속 받았네.  
그분의 특별한 속량으로 구속 받았네!  
그 자녀와 내가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구속 받았고 (계시록 13:8), 의롭게 구속 되었으며 (로마서 3:24-26), 각별하게 구속 되었으며 (요한복음 10:25), 대리로 구속 받았으며 (갈라디아서 3:13), 그리고 효험 있게 구속 받았다 (히브리서 9:12). 제한된 속량에 대하여 양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들은 기뻐할 것이다. 효험 있는 피에 대하여 말하라, 그러면 그들은 찬양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각별하게 구속 받았는지 양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그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혼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전갈을 선포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양은 목자의 보혈을 존귀히 여긴다.

**4**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사랑의 시간에, 그 택함 받고 구속 받

은 길 잃은 양의 각각은 양이라 불린다 (요한복음 10:2-4). 선한 목자는 언제나 그의 양을 “그가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그리고 그가 찾으실 때, 그는 언제나 그분의 전능하고,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양을 집으로 이끄신다. 이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은 다윗이 그의 종 시바에게 그의 궁으로 므비보셋을 데려오라고 명령할 때,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며, 사로잡는 은혜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사랑의 때에 주 예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선택 받고, 구속 받고, 길 잃은 양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시는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10:2-4 에서 어떻게 선한 목자가 이 부르심을 묘사하고 있는지 주지하라.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부르신다. 그는 결코 염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양,”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미리 예정된 양을 부르신다. 그가 그의 양을 부를 때,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는 결코 헛되게 부르지 않는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것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이며, 효험 있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양을 부르실 때, 그는 언제나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 그의 부르심은 전능하고,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알고 기뻐한다. 어떤 사리분별 있는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놓고 논쟁하겠는가? 어떤 건전한 사람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은혜로 화가 나겠는가?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 사망에 대해 아무것도 할 의도도 없고 할 수 없을 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를 사망의 아구로부터 낚아챈 친구에게 분을 낼 수 있겠는가?

5 주의 양 각자는 특별하게 알려진 양들이다 (요한복음 10:27). 주 예수께서, “내가 그들을 아노라.”고 하신다. 세상은 그들을 모른다 (요한일서 3:1). 그들이 부름 받기 전에, 교회는 그들을 모르며, 전도자가 그들을 모르고, 그들도 그들 자신을 모른다. 때때로 그들이 부름을 받은 후에도 교회와 전도자들이 그들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들을 아노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아신다. 그분은 그들을 예외 없이 아신다. 그분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며 그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여 아신다. 그분이 아시는 모든 자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 받았다.

주의 양들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안식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구별된 지식 가운데 안식한다. 우리 구원과 의롭게 함과 영생과 확신의 원천이고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지식이 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니다. 영생의 체험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가운데 발견되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지식 안에 있다 (이사야 53:10-11).

6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의 모든 양이 알고 있는 양임을 선포하신다 (요한복음 10:14). 선한 목자가 그의 양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소유가 나를 아노라” (요한복음 10:4)고 하신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20-27 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한다. 염소들은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교리의 모든 바람에 내몰리고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한다. 양은 그들 모두 목자의 모성을 알며 목자를 따른다 (요한복음 10:4-5).

7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부름을 받자마자, 주의 모든 양이 양 우

리에 있는 양임을 우리에게 말씀 한다 (에스겔 34:11-15). 주께서 그분의 양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의 우리 안으로 그들을 데려 온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그분이 그의 양을 그분의 교회 안으로 데려온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모든 참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 안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에스겔의 예언은 그 보편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약속은 이것이다: — 나는 내 양을 지역 교회의 우리 안으로 데려 올 것이다. 여기서 그분이 좋은 초장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이 좋은 우리 안에 평강과 안전함 가운데 그들을 눕게 하신다.

나는 많은 사람이 믿는 자의 침례와 교인 자격의 빛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침례도 교인 자격도 우리 구원과 어떤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비 본질이라는 생각으로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주의 양이 일단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의 우리 밖에서 주의 양들이 발견된다는 어떤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없다 (에스겔 20:37-38). 그리스도의 모든 양은 믿는 자의 침례의 물 무덤으로 그를 따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양은 우리 안에서 그와 함께 그의 양과 함께 거한다. 양 떼는 서로가 필요하다. 그들이 길을 잃거나 병이 들지 않으면 결코 혼자 발견되지 않는다.

8 모든 주의 양은 따르는 양이다 (요한복음 10:4, 27). 그 양 떼 본성적으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그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신다. 어떻게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일 수 있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목자가 양 떼들이 다르도록 한다. 하지만, 목자는 그 양들이 그를 완전히 기꺼이 따르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다. 목자는 그의 막대기로 그의 양이 그를 따르도록 사랑스럽게 다룬다. 그러나 양은, 모든 양은 목자를 따라야 한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과 권고와 그의 영의 지시와 그의 뜻의 계시하는 것을 따른다. 그들은 모두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른다.” (계시록 14:3-4).

**9**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의 양은 안전한 양임을 확신 시키신다 (요한복음 10:28-30). 이 세상에서 양은 많은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많은 늑대들이 그들을 잡아 삼키려 찾아 다닌다. 그들 자신의 육신은 그들과 전혀 반대로 행한다. 마귀가 모든 수단을 써서 그들을 파멸하려 한다. 그리고 세상은, 종교적 세상과 물질적 세상 모두가 우리의 적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려 찾는 도구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위협들 한 가운데에서, 모든 양은 완전히 안전하다. 우리는 우리의 친애하고 전능한 목자의 수중에 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이 삼일 신격의 위격들 가운데 찾게 된다는 단순한 선포이다. 아버지의 계획은 파해칠 수 없다. 아들의 피는 낭비될 수 없다. 그 영의 인침은 깨질 수 없다. 불변의 은혜는 바뀔 수 없다. 전능한 능력은 정복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다.

**10**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어떤 양에 대하여 말씀한다. 그들은 “다른 양”으로 불린다 (요한복음 10:16). 우리 구원자께서,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신다. 이 다른 양들은 나며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다. 다른 양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 받았다. 다른 양들은 그리스도의 수중에서 매우 안전하다. 다른 양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효험 있게 부름 받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다른 양들” 중 하나라면, 선한 목자께서 당신에 관하여, “그들도 역시 내가 데려와야 한다.”고 하신다. 만약 당신이 이 “다른 양들” 중 하나라면, 선한 목자는 당신을 잡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께 되돌아 오게 하신다.

## 64 장. “내가 문이니”—요한복음 10:1-1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1-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는 이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그 이름을 계시하셨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는 영원한 자존의 하나님이다. 신약에서 그는 “나는 이다”라고 심오

한 단순함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신다 (요한복음 6:35; 8:12; 9:5; 10:11; 11:25; 14:6; 15:1).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 주는 자신이 단순성의 주임을 직접 보이셨다. 그것은 그가 또한 주 전도자이셨음을 의미한다. 그는 거의 두 세 음절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절대로 한번도 학자처럼 보이지 않으셨다. 그는 결코 그가 알았던 것으로 그의 청중들에게 인상을 주려 결코 시도하지 않았다. 그의 의도는 듣고 이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언제나 아주 평이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그는 수사법이나 웅변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복잡한 논쟁으로 그의 가르침을 입증하려 하거나 강요하려 하지 않으셨다. 그는 단순히 그것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단순성으로 그것을 선포하셨다. 우리 구원자는 가장 심오한 진리들을 취하셨고 어떤 어린 아이도 볼 수 있는 그림 속에서 그것들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0:1-10에 있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 방법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림보다 더 심오하게 단순한 것은 없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두 번 말씀하신다. — “내가 문이니.”

그리스도는 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고 그리로 들어가야 하는 유일한 문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하려 우리 주 예수께서 사용하신 방법으로 모든 비유들 가운데, 아무것도 이것 — “내가 문이니.” — 보다 더 단순하지만, 더 심오한 것은 없다.

얼마나 공허이 넘치고, 얼마나 은혜로우며, 얼마나 친절한가! 우리

구원자는 자신을 문에 비유하시고, 그래서 매번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방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나게 된다. 문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구나 안다.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고, 따로 두기 원하는 사람을 밖으로 내몰고 닫아 버리게 한다. 그리고 문은 원하는 사람은 나가게 해주며,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을 안에 두고 닫게 해 준다. 우리 구원자께서 9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 “들어가고” 또 “나가고”

그 말씀 —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으로 그분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러나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분이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면, 만약 우리가 문이신 그리스도로 구원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나오게 될 것이며, 거기서 나와서 은혜의 양우리로 들어가서, 우리 혼을 위한 꼴을 발견 한다.

### 나가는 문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그는 문이며 우리 속박의 집에서 나오는 유일한 문이다. 이 세상에는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많은 속박의 집이 있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정죄 받은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의 자물쇠로 갇혀 있다 (갈라디아서 3:22). 우리는 유죄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하에 빛진 자이고, 범죄자들이며, 양심으로 정죄 받았으며, 우리 자신의 말로써 정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 정죄 받았다. 앞으로 올 더 힘든 감옥이 있지만, 이것이 그것으로 가는 길, 고통의 시작이다. 이 감옥에서 나오는 문도, 빛을 갇는 방법도, 신성한 공의에 만족하게 하는 방법, 곧 우리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있다. 그리스도가 그 문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정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8:1; 이사야 61:1).

주 예수께서 많은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하셨다 (시편 116:16; 디모테전서 1:13-15). 그분이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의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분은 이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고, 믿는 자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그분으로 나오게 될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할 그의 종들을 보내신다 (의롭게 얻은 자유! — 피로 산 자유! — 빛을 청산함에 따른 자유 — 그의 영의 권능으로 인한 자유!).

모세의 손과 어린양의 피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통과하여 나올 때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노예 상태와 어둠과 속박의 집에서 나오는 문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두 정죄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율법에 매인 자들이다. 정죄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멸한다. 그러나 이 속박을 우리는 사랑한다. 그것은 율법주의의 속박이고, 자기 의의 속박이며, 행위의 종교이다. 아, 사람들이 얼마나 의무의 족쇄와 의식의 족쇄와 연민의 창고와 율법 수행의 감

옥을 사랑하는가! 율법을 섬김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고, 그 노예상태를 사랑했다.

주 예수는 문, 율법의 굴레에서 나오는 유일한 문이다 (마태복음 11:28-29). 그분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문이다. —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36). 하지만 그들 스스로 자유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한 자들에게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자의 아들 이삭을 증오하였고 박해하였으며,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자유로이 행보하는 자들을 증오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한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잔혹한 율법 종교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문이다.

믿음의 가족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고뇌의 속박 가운데 없었던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큰 불행을 견디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비탄의 날들과 흐느끼는 밤에 질병과 고통과 싸우며, 가정 불화와 경제적 위기를 연이어 당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한, 그들 가운데 전쟁, 육신과 영 사이의 전쟁을 당하고 있다.

영적 문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몸 안에 사는 것을 멈출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29). 그리고 그리스도는 문, 우리의 문제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문이다. 다른 문이 없다 (베드로전서 5:6-7; 시편 27:8-10; 73:21-28). —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지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 전서 5:6-7).

곧 당신과 나는 무덤에 우리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고, 거기서 우리 육신이 안식할 것이며, 소망 가운데 안식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문, 유일한 문, 그리로 우리가 그 감옥에서 탈출 할 문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25; 계시록 20:6;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그리스도는 정죄와 속박과 율법주의와 고난과 무덤에서 나올 문이다!

## 들어가는 문

그리스도께서 속박으로부터 나오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문, 양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가는 어떤 다른 길을 올라가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거절하면서 외적으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분을 믿으며 문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 것이다. 구원 받음으로, 그들은 속박의 집에서 나오고, 자유 가운데 걷는다. 그리스도는 들어가는 길이다. 그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은 열려 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

는 환영 받는다.

그리스도는 문, 죄인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에베소서 2:13, 18; 3:12; 히브리서 10:19-22). 우리 구원자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실 수 있도록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3:18). 그분은 속량과 화목의 문이다 (로마서 4:25-5:11; 고린도후서 5:18-21).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언약계약자 언약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선한 것들의 보고이고 그 보고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은혜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광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소유이다!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 두 배의 약속

요한복음 10:9 에서 주 예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두 배의 약속을 하신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0 절)하셨다. 요한복음 10:9 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약속의 첫 번째 부분이 있다. — “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는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다.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당신은 밖에 있다. 그리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15). 그리

나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 즉시 구원 받는다! — 완전히 용서 받는다! — 완전히 의롭게 된다! — 죄로 인한 모든 악한 결과로부터 구원 된다! — 영원히 구원 받는다!

여기에 약속의 두 번째 부분이 있다: — “꿀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 와서 당신의 혼을 위한 꿀을 그분 안에서 찾아라. 그분의 복음 안에 그의 양을 위하여 얼마나 맛있는 꿀이 있는가! 신성한 경배의 계명들 안에서 우리 혼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초지를 찾게 되는지!

##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은혜에 속한 많은 달콤한 약속들을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이보다 더 달콤할 수는 없다. —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우리 주는 이사야서 안에서 목마른 자를 불렀다. —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사야 55:1). 요한복음 7:37 에서 그분은, 마지막 날에, 명절의 그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37)고 말씀하셨다. 계시록의 거의 마지막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 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21:6)라고 말씀하신다. 마태 복음에서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1:28). “누구든지.” 그것은 각별하게 보배롭다. 그 말씀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지친 자는 누구든지, 수고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거운 짐 진 자는 누구든지 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다. 그

것은 누구든지: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높거나 낮거나, 당신이나 나나를 의미한다. —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 닫아 버림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에 넣고 닫아 버리는 문이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에 넣고 닫는 문이다 (요한복음 10:28; 빌립보서 1:6; 베드로전서 1:5).

“예수는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  
인도자, 조연자, 그리고 친구시니:  
그는 결코,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을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선이 시작한 그 일,  
그분의 강한 팔로 마치실 것이라;  
그의 약속은 예이고 아멘이라,  
결코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미래의 것들도, 지금 있는 것들도,  
그 모든 아무것도 아래나 위어나 없으리니,  
그분이 그분의 계획을 버리게 할 수 없으며,  
혹 나의 혼을 그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구나.

그분의 손 바닥으로부터 나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  
그분의 마음에 새겨지니 남으리니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 안에서라.

그렇다, 나는 마지막까지 견디리니,  
정직한 자가 받은 확신만큼이나,  
더 기쁘고, 그러나 더 안전하지 않으나,  
영광스러운 영들이 하늘에 있으리라!”

## 65 장.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요한복음 10:11-16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11-16)

얼마나 복되고, 기쁘며, 교훈적인 주제가 우리 앞에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일들을 가져와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 양 떼의 목자시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우리의 체험을 설명한다. —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25).

###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속자께서 인자로 세상에 오실 것과, 구속과 은혜에 속한 그분의 일의

한 가지 주요 특징이 양을 사고, 찾으며, 모으는 목자의 특징이 될 것임이 예언되어 있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는 목자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11). —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9:10).

주께서 직접 에스겔서에서, “나 주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에스겔 34:11). —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찌라.” (에스겔 34:22-23). —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에스겔 37:24).

다윗이 이것들을 피했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과 자신감과 믿음과 희망으로 부풀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 특징적인 형용사가 우리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특징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구속의 위대한 역사에 있어서 우리 구원자는, “선한 목자”로 불린다.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1). 그분의 부활 영광 가운데, 그분은 “큰 목자”로 불려진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구속자를 “양의 큰 목자”로 묘사하며 히브리서를 마친다 (히브리서 13:20).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하여 베드로는 그분이 “목자장”이심을 선포한다 (베드로전서 5: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하여 선한 목자이고, 그분의 부활과 관련하여 큰 목자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관련하여 목자장이다. 이 세 가지 형용사는 언제나 구별된다. 그것들은 결코 함께 뒤섞이거나 교환되지 않는다. 각각 합당한 곳과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그분의 양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일을 성취하는 데에서 사용되고 있다.

##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신다. —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11, 14). 우리 혼의 구속과 구원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21-25에서 이 구속의 주제를 다루면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보여준다. 기억하라, 그것은 “선한 목자”라고 그리스도가 불려지는 것은 우리 혼의 구속과 구원과 관련해서이다.

### 1. 선한 목자는 고통 당하는 목자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21). 여기 우리의 부름이 있다. — “이

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모든 참되게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리스도께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게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는 모두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포함하는 삶에 부름을 받았다 (빌립보서 1:29).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기록되기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2:12).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16). —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 받는 것들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자. 이것은 실로 위대한 명예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 받도록 부름 받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여기 우리 삶의 규범이 있다. — “그리스도도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려 함이니, 너희는 그의 발길을 따르라.” 반역자들은 율법으로 판결 받아야 하며, 샅꾼은 그 보상으로 판결 된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판결 받는다. 우리는 종교적 관습과 전통의 규약, 우리 자신의 양심의 규약,

혹은 모세 율법의 규약에 의해 살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본과 그분의 영으로 산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보여진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한 목자가 고난 당하는 목자라는 사실이다. —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 받으시는 고난을 차제하고, 신성한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받으심을 차제 하면, 어떤 누구를 위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였다 (로마서 3:24-26).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 날 수 없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2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로 고난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결코 자유롭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13).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나무 위에서 사망 위에 그분의 생명의 피를 뿌리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지 못하셨을 것이다 (히브리서 9:12). 선한 목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3:18). 그러나 그가 무한한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 이르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위하여 고난 받고 죽으셨던 모든 자들은 구원 받아야 하고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헛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무효하다!

**2. 다음으로, 선한 목자는 죄 없는 목자로서 묘사된다.**

“그가 죄를 알지 않았으니.” 그는 “거룩하고, 흠 없고, 순결하며, 죄인들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으며,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다.” (베드로전서 2:22). 그가 죄 없는 목자가 아니셨다면, 그는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없었다. 그가 전혀 죄가 없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 죄들을 위하여 속량하실 수 없었다. 그는 우리 대속자가 되실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합당한 대속자이며, 그분으로 하나님께 오는 최대한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비록 그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되셨으나, “그는 죄를 행하지 않으셨다.” 비록 그가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셨으나, 결코 어떤 “꾀사도 그의 입에서 찾을 수 없다.” 우리 구원자는 아무 죄가 없으셨다. 원죄도 없고, 개인적인 죄도 없으며, 실제적인 죄도 없다. 하지만, 이 흠 없는 거룩하고 죄 없는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지어졌다. 그는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처소를 취하도록 시간 가운데 우리 처소를 취하셨다 (로마서 5:19; 고린도후서 5:21).

### 3. 다음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충직한 목자이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23). — 물론, 삼일 신격 가운데 복종은 없다. 성 삼일의 세 위격들은 영원히, 그리고 변함 없이 모든 것 안에서 동등하다. 그러나, 그의 양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기로 동의하였다. 그는 기꺼이, 지원하여 그의 양을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지셨다. 그리고 우리 중보자로

서 그분의 일의 능력 안에서, 그분은 우리 목자로 삼일 하나님의 뜻을 그분 자신께 받아들였다. 그것이 요한복음 10:16-18에서 계시된 것이다.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셨고, 자원하여 여호와와 종이 되셨다 (출애굽기 21:5-6; 시편 40:6-8; 이사야 50:5-7). 주 예수는 그분의 성육신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자신을 복종하셨다 (히브리서 10:5-10).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인생의 날들을 통하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자신을 순종하셨다. 이 세상에서 그분의 첫 번째 말씀과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순종을 보여준다 (누가복음 2:49; 요한복음 12:27-28; 19:30). 그분의 삶은 어두운 갯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하신 그분 자신의 말씀 안에 잘 종합되어 있다. —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뜻의 희생자, 자원한 대속자, 죄인들을 위한 자발적이고 강요되지 않은 희생자였다.

#### 4. 이제 24 절을 보라. 베드로가 선한 목자는 대신하는 목자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4; 요한복음 10:11, 14, 15). 대속은 복음의 바로 심장이다. 대속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가나다를 결코 배우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이다 (이사야

53:4-6, 9-11).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제적인 대속자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대속자이고, 자진하는 대속자이며, 합법적 대속자이고, 만족스런 대속자이고, 효험 있는 대속자이다. 그는 우리의 입장을 대신하는 척하거나, 우리 죄들을 가져가는 척하거나, 우리 죄를 가져가고 우리 심판을 가져가는 척 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실제 대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제로 가져가셨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구별되게 제한된 속량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준다. 당신은 제한된 속량을 믿지 않고 대속의 속량을 간단히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그 피를 헛되이 뿌리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범위와 대상과 목적과 목표와 유익은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한정되고, 특정하게 계획되었으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의 보혈은 그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절대적인 만족과 완전한 속량을 만들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구원 받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선한 목자는 염소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그런 어리석음을 제시하는가? 당찬은 일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려 놓았다. 그것은 침례교 말도 아니고, 칼빈교 말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그렇지 않은가? 요한복음 10:11 과 15, 요한복음 10:26 과 27 을 읽어보라.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혼들이 위험에 처한 곳이다.

- 보편적인 속량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이 사람의 뜻이 구원과 구속의 효험 있는 이유라고 전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전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12-13).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16).

- 보편적 속량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은 그 피가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헛되게 흘려졌다고 선포하면서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된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실패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한다 (이사야 42:4).
- 보편적인 속량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신을 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임을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지불되었던 죄 빛이 이미 지불된 자들로부터 아직도 요구된다고 주장 할 때 전하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운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한다 (이사야 45:20).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두 번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시니,  
 첫째는 나의 피 흘리는 보증자의 손에서요,  
 그리고 다시 내 손에서라!”

- 보편적인 속량은 거짓 영을 전하는데, 죄가 없어졌고, 의가 성취되었고, 심판이 완료되었음을 사람들에게 확신 시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짓임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것들은 실로 완성되었다고 강조한다 (요한복음 16:8-13).

우리는 그런 모독적인 왜곡을 허용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 양의 가족을 쓴 늑대들이 인간의 혼을 파괴하려 하고,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흠쳐가려는 데, 내가 감히 내 혀를 붙잡거나 나의 붓을 막지 못할 것이다! 선한 목자에 대한 베드로의 묘사를 한 번 더 보라. 그는 고난 당하는 목자이고, 죄 없는 목자이며, 순종하는 목자이고, 대속의 목자이다. 그래서, 바로 25 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한다...

## 5. 선한 목자는 성공적인 목자이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25). —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방황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타락하고, 죄로 충만하며, 방황하는 피조물들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거짓을 말하며 타락하였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타락하였다. 가련하고, 무지하며, 길 잃은 양은 결코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개들은 할 수 있다. 고양이들은 할 수 있다. 말들은 할 수 있다. 심지어 염소와 돼지들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은 간단히 집으로 오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다. 방황하는 양은 오직 방황만 할 수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무력하며, 가장 불

쌍한 동물이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결정하였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이, “너는 돌아왔노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아, 아니다!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처럼 멍청한 양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안다! 다음 문자에서, 너희가 “이제 너의 혼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는 타락하였다. 그가 우리를 찾으셨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그가 우리를 찾으셨다. 우리는 지옥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분의 어깨 위에 지셨다.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지도, 돌아갈 수도 없다. 그가 우리를 그분 자신께 돌아오게 하셨다. 선한 목자이신 그는 성공적인 목자이다. “그는 그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위대한 역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다.

## 큰 목자

이제 히브리서 13:20을 보자.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 영광과 관련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목자이심을 보여준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히브리서 13:20-21)

성령께서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서술하는지 알라. 비록 그가 거룩 안에서 영광스러우며, 공의 가운데 강직하며, 권능 가운데 당당하시며, 진노 가운데 무섭지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불리신다! 그분은 평강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불려진다. 그분은 평강의 길이시고 평강의 언약을 만드셨다. 그분은 평강을 만드셨다. 그분의 귀한 아들의 피의 속량으로, 주 하나님은 화목하게 되셨고, 화해 하셨으며, 만족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증여자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찬양 받으시는 그리스도는 “양의 큰 목자”로 불려지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행하셨고 성취하십시오에 있어서 그분의 겸손 안에서 선한 목자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은혜로 그분의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불려지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에 있어서 더이상 그분과 관계가 없다. 여기 우주의 보좌 위에 앉으신 목자가 있다. 그는 “양의 큰 목자”이다. 그는 그분의 위격 안에서 위대하다. — 하나님-사람! 그분은 그분의 지위 안에서 위대하다. — 지극히 높은 곳의 왕의 보좌 우편! 그분은 그분의 권세 가운데 위대하다. — 완전한 주권! — 절대적 전지전능! 그분은 그분의 소유 가운데 위대하다. — 모든 충만!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공급 가운데 위대하다. — 모든 은혜! — 모든 영광! — 만물!

우리 주 예수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 목자로서 그분의 위대함을 획득하셨다. 그 언약에 대하여 예레미야 31:31-34 에서 본다.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고 죄속량의 피이며, 우리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그러나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언약의 피와 연결되어 있는가?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한 가지에 의존되어 있다. 그것은 모두 한 가지 궁극적이고, 최종적이며, 극적인 것에 의존되어 있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의 충분함과 효험과 만족에 달려 있었다 (히브리서 9:12-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며, “다 이루었도다.”고 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분은 마침내 언약의 항목들과 조건들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만족을 이룩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속량의 효험은 그분의 사망으로부터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모두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그분과 우리의 해방 모두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언약 가운데 우리의 보증이신 아들에게 한 아버지의 약속이었다 (이사야 53:10-12).

우리 죄들은 그분의 것으로 되었고, 따라서 우리 축복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 그분의 사망은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에 품으셨던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였다. 이제 사망이 더이상 그분 위에서 통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이기 때문에, 사망이 더이상 우리 위에 통치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4:1-2).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수행하시는 것은 그 양의 이 큰 목자를 통해서이다. 히브리서 13:21 에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 그 양이 그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큰 목자이다. 그분 보기에 매우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큰 목자이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은혜에 속한 그분의 모든 일을 찬양하는 분은 그리스도 큰 목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과 구원에 속한 그분의 역사 안에서 “선한 목자”이다. 그는 그분의 부활 영광 안에서 “큰 목자”이다.

## 목자장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에서 목자장이심을 선포한다. —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4). 그리스도는 목자장이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오직 한 분의 대장이 있다. 그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모든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전도자와 사역자와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목자의 종들이지, 양 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목자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만이 목자장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은 목자장으로서이다. 곧, 목자장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사망으로부터 우리 몸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목자장은 그분의 모든 양에게 “사라져 버리지 않을 영광의 왕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갈 것이며,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 영광의 모양으로까지 닮아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

님의 계획이 완료될 것이다 (로마서 8:28-29; 요한일서 3:1-3).

그리스도 우리 목자의 이 세 그림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들 위에 중보하며, 그들로부터 위로를 끌어내며,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 — 우리를 구속한 선한 목자, —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통치하는 큰 목자, — 우리를 영광 안에 계신 그분 자신에게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목자장으로서. 우리 구원자이신 목자 그리스가 그분이다. 구원은 모두 그분의 일이다. 그는 언약 안에서 그것에 동의하셨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는 그의 보좌로부터 그것을 적용하신다. 그는 그것을 계획하셨다. 그는 그것을 사셨다. 그는 그것을 수행하셨다. 그리고 그분만 그것에 대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 66 장. 그리스도의 대가 없는 순종—요한복음 10:16-18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16-18)

이사야 53:10-12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우리를 위한 죄가 되게 하실 때 그분의 아들에게 하셨던 것으로 묘사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3:10-12)

이사야 50:5-7 은 우리 주의 죽음에 이르는 희생의 순종을 우리의 자원한 보증자와 대속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묘사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율법처럼, 출애굽기 21:1-6 에서 매인 종에 대한 율법은 메시아의 예언적 율법이었다. 그것은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묘사했다. 은혜의 언약 가운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는 여호와와의 자원하는 종이 되셨으며 그로써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께 대가 없이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실 수 있었다. 이것이 이사야 50:5-7 에서 이사야가 묘사한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 50:5-7)

여기 요한의 복음 10 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은 선한 목자로 말씀하신다. 그분의 그 복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하겠다: —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

거니와” (11 절). —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 절). 그리고, 16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선포하신다. —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17 절과 18 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양을 “양의 목자”이로서 아버지께 한 자신의 순종 가운데 양 떼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음으로 그의 우리에게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한다. 아, 양이 살 수 있도록 죽으신 그분이 어떤 목자이신지! 성경의 이 두 개의 숭고한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죽음, 그분의 아버지께 자원하고 대가 없는 순종의 행위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셔야 하는 죽음을 설명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 주의 죽음에 이르는 희생의 순종, 십자가에서의 죽음, 우리의 자원하는 보증자와 대속자로서의 죽음에 대하여 묘사함을 본다.

## 의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경이로 우며, 놀랍고, 숭고한 사건이다. 어떤 것도 과거에나, 앞으로도, 이 사건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분이 백성의 죄들을

품고, 죄로 인하여 자원한 대속자로 죽으시고, 우리 같이 지옥에 가기에 합당하고, 죄인들이기를 작정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통하고, 설명할 수 없는 애통함을 표현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찌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아애가 1:12).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나무 위에 매달리시면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괴 흘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에 대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에게 의미 없고 사소한가?”

모든 우주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눈에 더 경탄할만하고 장대한 것은 없다. 구원자 자신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하늘의 천사들, 시온좌를 마주하는 그룹(천사)들 같은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놀랍게도 구속의 비밀과 경이로움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구속의 경이로움 들과 구속자의 영광으로 압도되어 신실한 복음 전파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구하고, 영광스러워 하며, 전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 (이사야 6:1-6; 갈라디아서 6:14; 고린도전서 2:2). 세상에서 구속 받은 죄인들은 우리를 대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행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소중히 하지 않으며, 아무 것에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2:20; 요한일서 3:16; 4:10). 영광 안에서 속량 받은 자는 보좌 한 가운데 계시

는 어린양의 죽음에 이르는 사랑을 제외하고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계시록 5:9-12). 지옥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놀랍고, 설명할 수 없으며, 비밀스러운 것으로 바라 본다. 나는 이것이 사탄 자신이 이해 할 수 없는 한 가지라고 확신한다. — 그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겼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그 머리를 부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며 주를 배반하도록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결코 집어 넣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상하는 것처럼 놀라운 것은, 우리 귀한 구원자께서 말씀하시고, 경이로움이 있었던 만큼, 그분의 죽음이 의미 없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속량의 죽음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주는 여기에서 그분을 지나치고, 그분의 희생을 지나치며, 죄인들의 대속자로서의 그분의 죽음을 지나치는 모든 자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아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혼, 그것은 당신이다! 아 차갑고, 따지고, 무심한 전도자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나가는 자는 당신이요, 당신의 입술을 무의미하고 사소한 것(정치, 사회 문제, 교파간 다툼, 종교 역사, 전통, 등)으로 만드는 자는 당신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둬나지 않고 믿지 않는 혼들에게는 단지 세속적이고, 무의미하며, 하찮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기도이다. 나는 당신과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소모될

것과 우리 마음, 우리 생명, 우리 혼의 모든 가닥이 우리의 죄 속량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속적으로 지배될 것을 기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 대하여, “은혜가 당신의 입술에 부어지나이다”고 기록되었으며, 그의 갈보리에서의 죽음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직접 순종한 대가 없고 자원한 행위이며, 그로써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인자로서, 우리 중보자와 보증자로서 받으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17-18).

## 아버지의 계명

요한복음 10 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 백성의 선한 목자, 중보자, 보증자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한다. 그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하신다. 그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 대속자로 그의 죽음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안배되었음을 선포하신다 (시편 40:7; 히브리서 10:7-10).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들의 안배나 지옥의 안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안배로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2:23; 베드로전서 1:18-20).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한한 사랑의 안배로,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성취되었다 (요한복음 3:16; 로마서 5:6-8; 히브리서 10:5-14).

## 아들의 순종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을 자원하여 내려 놓았으며, 이는 그분의 아버지께 대한 대가 없는 순종의 행위로서 였다. 아무도 그가 죽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게 하시지 않았으며, 그분에게서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다. 아, 아니다! 우리 구원자는 자기 자신의 뜻으로 자원하여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가 자신의 혼을 사망에 부으셨다.” 그것이 사실이며, 우리는 “그를 상하게 하심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께서 외치시기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스가랴 13:7). 그러나 우리의 복된 주 예수, 우리 귀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손 안에 진노의 잔을 취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공의의 검 위에 넘어지셨다. 우리 구원자는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죽었다. 주 예수께서 공의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우리 구원자는 선택 받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자로서 그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우리 복된 구속자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다시 취하실 것이므로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로마서 14:9; 빌립보서 2:5-11).

##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 구원자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라고 하신다. 나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분의 사랑하고 죽어가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

랑만큼 목상하기에 너무도 달콤하고 설명하기에 너무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신격의 사랑스러움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심은 그가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 놓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그가 그 백성의 영광스럽고, 구원하는 효험 있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자신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저주의 나무 위에서 그분의 귀한 아들의 죽음만큼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토록 사랑스럽고, 그토록 무한하게 그분의 사랑과 칭찬과 존귀의 가치가 있는 것을 결코 보신 적이 없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 이 사랑의 위대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보증자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대가 없이 수종하신 이 위대한 행동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사야 53:4-12; 요한복음 3:35; 17:2).

우리 주와 구원자의 말씀과 본으로부터,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크게 고난 받을지라도, 종종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지라도, 그로부터 종종 아버지의 얼굴이 감추어지게 될 지라도, 하지만 그가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귀한 대상임을 배우도록 하자. 아버지는 그분의 격렬한 진노를 그분 위에 두실 때 보다 더 그분의 아들을 완전히 사랑하신 적은 없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가치는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7:22-26).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구속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전서 6:19-20).

## 네 가지 공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우리 구원자의 순종으로부터 이끌어 내어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공과들이 있다.

1. 비록 하나님의 자녀는 종종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게 하며 이 세상에서 대단히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의 소중한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분노를 그분 위에 쌓고 있었을 때 그분의 아들을 더이상 충분히 사랑하실 수 없었다!
2.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신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긴다.
3.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승인과 용납의 우리 유일한 가치는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7:22-26).

4.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그 영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구속되었다!”

믿는 자여, 당신의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자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67 장. 샓꾼과 목자—요한복음 10:6-21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샓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능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샓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요한복음 10:6-21)

George Whitefield 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백성에게 신실하고, 성실하며, 강직한 사역자를 보내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보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그들을 눈 멀게 하고, 거듭나지 않고, 육체적이며, 뜨뜨미지근 하고, 숙련되지 않은 안내자들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모든 세대 가운데, 양의 가족을 쓴 많은 늑대들이 있으며, 불리지 않은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유연한 것들을 예언하였던 많은 자들을 발견한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시대에 만연하였다. 그들은 우리 주의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일반적이었다. 그들은 사도 시대에 초기 교회들 가운데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보편적이다. 사실, 역사를 통하여 늑대들은 언제나 다수였으며, 종교적인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찬양 받고, 박수를 받으며, 높여지는 지도자들이었다. 그리고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은 언제나 그래왔고, 오늘날도 있으며, 멸시 받고, 경멸당하며, 비웃음 당하고, 조소를 받으며, 중상을 받으며, 반대를 당하는 늑대들로서 감히버렸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뒤따르는 목자들이고 목사

들이며, 그분의 교회에 그 혼을 보살피기 위하여 주어졌으며, 지식과 이해로 그들을 먹이도록 주어졌다 (예레미야 3:15). 하나님께서 신실한 목사들을 주신 백성과 교회들은 복되다. 모든 거짓 선지자는 샅꾼들이다. 샅꾼과 거짓 선지자들을 목사로 가진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

요한 복음의 10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하여 말씀하셨고 그들을 샅꾼 목자로 구별하셨다. 기억하라, 이 우화는 주님에 의해 치유 받았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양에게 가르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며 목자의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하나님의 권위도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먹였지만 양 떼를 먹이지 않았다. 주 예수께서 그들을 샅꾼, 도적들, 강도들이라 부르신다.

이 우화에서 양우리는 (1 절)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와 의이다 (1, 7, 9 절). 참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다. 그는 양을 위하여 그 목숨을 주었다. 그는 그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고 광야로부터 가나안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벨론에서 양우리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열고 양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며 그를 따르게 하는 문지기는 성령 하나님이다. 양 떼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어떤 자들은 우리 안에 있다. 어떤 자들은 아직도 선한 목자와 그의 우리로부터 나와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이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6-10 절)

그 말씀을 하시며, 우리 구원자는 모든 거짓 목자들과 모든 참 목자들을 자신을 참 목자의 표준과 예로서 사용하시며 분명한 구별을 보여 주신다. 그분은 계속하여 다음 절에서 동일한 유추를 하시면서, 삯꾼과 목자들 사이에 하나의 큰 구별이 바로 이것임을 선포하신다: — 삯꾼은 양을 보살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삯꾼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15 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성경 전체를 읽는다면, 우리 구원자

가 이 축복의 책 안에서 자신을 묘사하는 많은 이름을 찾는 것이 교훈적이고 기쁜 일일 것이다. 백 여가지 이상의 이름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107 가지 이다. 그의 이름이 왜 그리도 많은지 좋은 이유가 있다. — 우리의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대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책무들이 있다. 실로 그 모든 이들이 모두 그분을 설명할 수는 없다. 바울은, —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8).

주신 모든 이름들 가운데 목자에 관한 것이 아마도 가장 달콤하다. 우리 구원자는 주 예술가였다. 그는 말씀을 정의하는 책들보다 더 분명하게 일들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신다. 이 장을 열면서, 그분은 자신을 낫선 자와 비교하신다. 여기서 (11-15 절), 그분은 자신을 샅꾼과 비교하시는데, 샅꾼은 양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다. 그 단락을 보고, 샅꾼과 참 목사들, 참 목자들과 비교를 해 보자.

샅꾼은 “대가를 위해서만 일하는 자이며, 그 일의 가치에 대해서 거의 혹은 전혀 관심하지 않는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자이고, 양 떼를 감독하며, 양 떼를 위하여 공급하고, 먹이고, 조심스럽게 보호하는 보호자이고 수호자이며, 방어자이고, 지키는 자이다.”

**여기 샅꾼이 있다.**

우리 구원자는 모든 이기적인 전도자, 목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곧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으로 양우리에 들어가기 를 거부하고 다른 길로 넘어들어가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 “샅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 — 샅꾼, 거짓 목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로 넘어들어 가는 모든 자가 도둑이고 강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1 절). 그들은 오직 “죽이고, 흠치고, 파괴시키려” 온다 (10 절). 여기 샅꾼 전도자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샅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2-13 절)

샅꾼인 자는 오직 자신의 고용만 관심하는 자이다.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모든 신실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용으로 지속될 것임을 가르친다. 어떤 사람이 그가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지지받는다든 사실은 그를 샅꾼으로 만들지 않는다. — “일군이 그 샅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0:7). 사실상,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샅꾼이 될 수 있다. 샅꾼은 그 자신의 욕망에 따라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참 목자는 그의 주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양 떼는 샅꾼을 조정한다. 참 목자는 양 떼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실한 목자는 그가 섬기는 양 떼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다 (고린도전서 9:7-14; 갈라디아서 6:6; 디모데전서 5:17-18).

하나님의 교회는 사업이 아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고용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돈이 도처에서 말한다. 그리고 돈이 종교 단체에서 말한다. 그러나 돈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목소리가 없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신실한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용으로 그의 생활 가운데 지원을 받고 유지되어야 한다.

샬쿰은 양 떼가 아니라 품삯을 향하는 자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공통된 책무이었다. 이사야는 그의 시대에 이것에 불만을 표했다. — “그 과숫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사야 56:10, 11). 예레미야도 그의 시대에 같은 말을 했다. —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 6:13).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자신을 먹이는 자로서 샬쿰 목자를 묘사하면서, 정확히 같은 방법으로 말했다. —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찢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에스겔 34:2). 바울도 그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정확히 동일한 것을 말하였다. —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2:21).

이것은 샬쿰의 흑점이다. — “샬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러나 샅꾼을 표시하는 것은 돈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다. 샅꾼은 자신을 위한 것을 좇는다. — 편안함 — 명예 — 명성 — 지위 — 권력 — 영향력.

샅꾼은 “양도 제 양이 아닌” 자이다. — 그는 양을 위한 사랑이 없다. 샅꾼은 가족의 일부가 아니다. 샅꾼은 아들이나, 형제나, 아버지가 아니다. 그는 양 떼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는 사람들의 혼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는 “성직자” 가운데 하나, “목사”이다. 그들은 단지 “평민,” “양떼”이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샅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 그것이 샅꾼의 또 다른 모습이다. 나는 이 회중에서 다른 회중으로 움직이는 어떤 사람이든 샅꾼임을 제시하거나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경우이다. 하나님은 이 섬김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사람을 옮기신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의미는 우리 주께서 샅꾼은 언제나 최고를 바라보는 것임을 이해할 것을 의미한다. 샅꾼은 언제나 자신을 관심한다. 만약 늑대가 울부짖으면, 샅꾼은 도망하는데, 그가 샅꾼인 까닭이다. 샅꾼은 언제나 늑대 편에서 발견된다!

샅꾼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어떤 치욕이나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사자와 꿈을 좇아갔던 다윗처럼 양 떼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 그것들이 양 떼를 향하여 올라왔을 때,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기습하여 그것들을 죽였다. 샅꾼은, 에베소서에서 야수들과 싸웠고, 아무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았으며, 진리가 계속되게 한시도 아무에게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사도 바울

처럼 양지기가 아니다.

늑대가 올 때 (사탄, 고난, 핍박, 반대, 중상, 치욕), 샓꾼은 도망가고, 양 떼는 흩어지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모욕을 당한다. 그러나 샓꾼은 자신을 보호하고 “주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그의 일이 끝났다”고 말하며 초장으로 나간다.

샓꾼은, “그는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양이 목자가 가장 필요할 때 도망가는 자다 (12-13 절).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성, 자신의 미래 뿐이다. 그는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양이 어떻게 될지 관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성공의 길에 있는 많은 자같이다.

John Calvin 은, “급료를 기대하고, 양을 구하지 않는 자는, 비록 그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지라도, 교회가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나, 한편으로 그가 분쟁 속으로 올 때, 그의 배신의 증거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 “화 있을찜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스가랴 11:17).

### 참 목자가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참 목자, 신실한 복음 전도자를 구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것이 샓꾼을 구별하기 때문에 샓꾼에 대하여 말했다. — 샓꾼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만, 그러나 신실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일한다 (고린도후서 2:17; 4:1-7).

샓꾼은 양에 대하여 개인적인 관심이 없다. 그 양은 그의 것이 아

니다. 참 목자는 양에 대하여 매우 개인적인 관심을 갖는다. 그 양은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권속은 그분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양은 그분의 양이다. 신실한 목자들은 주의 양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있다. 신실한 목자들은 아버지라 불린다 (고린도전서 4:15; 갈라디아서 4:19; 디모테전서 1:2; 빌립몬서 10). 아버지처럼, 그들은 출생의 수단이다. 아버지처럼, 그들은 가족을 부양한다. 아버지처럼, 그들은 가족을 교육시킨다. 아버지처럼, 그들은 가족을 이끈다. 아버지처럼, 그들은 가족을 보호한다. 아버지처럼, 그들은 가족에게 헌신한다.

참 목자들, 참 양치기들은 감시대에 서 있는 감시자로서 지명된다. 그들은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는 혼들을 지킨다 (히브리서 13:7, 17).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백성들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관계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18; 빌립보서 4:1; 골로새서 1:25-29). 하나님의 종들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양을 보살피도록 위탁하신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양을 돌본다 (사도행전 20:31; 로마서 1:9; 고린도후서 2:4; 빌립보서 1:3; 4:1; 골로새서 2:1; 데살로니가전서 3:9).

이것이 참 목자의 표시다. 그러나 샅꾼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 샅꾼은 양을 위하여 울지도 않으며 울수도 없다. 그는 그들을 위한 마음의 고뇌가 없다. 샅꾼은 양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관심하지 않는다. 늑대가 올 때, “그가 샅꾼이기에 양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샅꾼은 도망가지만, 그러나 신실한 목자는 늑대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늑대는 특징하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모두 상징한다 (사도행전 20:29). 늑대가 오는 때는 참 목자가 누구인지 표시가 나는 때이다. 이단이 올 때나 세상의 박해가 그들에게 손을 뻗칠 때 그는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선다. 그럴 때, 참 목자는 우리와 위험 사이에 선다 (이사야 52:7).

### 선한 목자가 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 14, 15 절). — 선한 목자는 그분의 양을 위하여 그 생명을 주셨다. 이 문장은 우리를 향해 기록되었다. “네가 정녕 죽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 들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5). 그분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가 없는 사랑으로부터 그것을 행하셨다. —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16). 우리가 하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양 떼를 위하여 그 목숨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자로 인하여 모두 함께 될 것이다.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안다. 그는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호감의 영원한 지식으로 그의 양을 안다. 그는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양, 그의 피로 구속되고, 그의 영으로 그에게 데려온 양인 그의 양을 안다.

선한 목자는 그의 양에 의해 아는데, 그가 자신을 양 떼에게 은혜

롭게 알게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안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우리는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를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찾는다 (16-18 절). 그리스도는 그의 양을 찾으며, 모든 참 목자들, 모든 참 양치기들은 주의 양 떼를 찾는다. 양은 그리스도의 목자 (양치기)의 일이다.

## 분열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19-21 절)

여기 대규모의 종교인들이 교리를 놓고 나누어져 있다. 종교인들은 언제나 그랬다. 교리를 놓고 변론하고, 다투고, 가족과 친구를 나누며,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야단법석을 떠는데, 그를 결코 신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 주 예수는 그들 한 가운데 서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구원자의 가르침 — “이 말씀으로 인하여” 분열하였다 (19 절).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귀로 점령된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 (25 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알게 하셨는가? 그분께서 진리이신 그분을 알도록 하는 이해를 당신에게 주셨는가? 진리이신 그분 안에 있는가? 이것이 모든 그분의 양의 표시이다. “나를 나의 소유가 아노라.”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그분을 따른다. 그들은 그를 알고 그의 음성을 안다. 그들은 낫선자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 한다면, 선한 목자는 당신을 그의 우리 안으로 데려가셨을 것이다.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구속했고, 그가 불렀으며, 그가 지킬 당신을 그분의 양으로 주장하셨다. 따라서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한 그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3:15; 33:12-16).

## 68 장. 확인된 영벌—요한복음 10:19-30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19-30)

영벌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구원자 하나님, 삼일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택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어떤 것들 중 하나님의 선택이다. 영벌은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 아니라, 지나치는 것이다. 예정은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를 향하고 그들을 위한 은혜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영별은 하나님이 모든 다른 것들을 그들에게 남기는 것이다. 구원은 그분의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고,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위에 있는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전능하고 경이로운 역사와 운행이다. 영별은 하나님이 다른 자들을 그들에게 내맡기는 것이다. 택정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의 모든 아들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영별은 하나님이 에서와 에서의 모든 자손을 증오하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이 당신을 홀로 버려두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영별은 하나님이 당신을 홀로 남겨두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방법에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영별은 당신을 당신의 의지, 당신의 선택, 당신의 방법에 남겨두는 것이다.

### 이것 때문에 믿지 말라

요한복음 10:26 을 읽어 보라.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지 없는 투명성으로 영별의 성결 교리를 강조하신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라. 그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읽을 것을 분명히 하라. 그 본문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읽어라. 그 본문에서 아무것도 빼지 말라. 그 본문의 말씀을 재배열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읽어라. 강조된 영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친구에 의해 강조된 것이 있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얼마나 확고한 말씀인가! 주 예수께

서 누가 택정 받은 자이고 누가 버림 받은 자인지 아는 지금까지 살았던 유일한 분이다. 그분 만이 누가 그분의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아신다. 그리고 여기 가장 평범하게 가능한 문구로 역설하시므로 반역과 불신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이 유대인들, 의도적으로 그들의 귀를 막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이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에 기분나빠 했던 이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이다. 이제 그들의 특성이 완전히 나타났고,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 받았고, 그들 좋은대로 하게 된 타락한 자임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셨다.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확고한 것인지!

우리 주의 말씀의 힘은 절대적이고 분명하다. 하지만, 설교자들과 신학자들과 성경 해설가들은, 그들의 불신 가운데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을 잘라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왔다. 거의 모든 성경 해설자들이 요한복음 10:26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를 그 순서를 뒤집어서 설명해 버린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의미가 되도록 그 말씀의 의미를 만들기 위하여 재 배치 한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읽는다. — “너희들이 믿지 않으므로, 너희는 내 양에 속하지 않았다.” — 그러나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 말 하였으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뒤집어 엎으며, 특별히 타락한 종교인들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싫어하는 것, 자신의 종교적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 자신의 고견과 대치되는 어떤 것이 나올 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을 엎드려 받는 대신에, 그것을 무시하든지, 자신의 종잡을 수 없는 생각에 따라 그것을 재

배열한다.

여기에서 주 예수께서 이같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불신에 매우 전념하는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왜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는지도 역시 말씀하신다. — 그들은 그의 양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정 가운데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의 증거이다 (히브리서 11:1).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이 시달되기 전에 그분의 양 가운데 하나로서 선한 목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다. 만약 의도적이고, 완고한 불신을 계속하며 당신의 죄들 가운데 멸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맡겼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 자신의 의지, 당신 자신의 선택, 그리고 당신 자지의 방법에 버려두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버림 받았다.

## 요한복음 8 장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 구원자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정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다고 이전에 언제 언명하셨는가? 언제 그들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전에 선포하셨는가? 요한복음 8 장을 보라. 거기서 그분은 바로 동일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48 절에서,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그분의 전하는 말을 거절하였으며, 그분이 하찮은 사마리아인

이라고 선언하였고, 마귀를 품었다고 하였다. 42-45 절에서 주님은 왜 그들이 그를 믿을 수 없는지를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라,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42-45).

다시 47 절에서, 주 예수께서 그들이 그분의 양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믿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음이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므로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의 양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믿지 않았다. 각각의 경우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로 이것을 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속하지 않았다는 확고한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속하였다. 그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들이었다.

## 분열

첫째, 나는 그 안에서 우리 구원자의 말씀이 발견되는 상황을 보기

원한다 (19-30 절). 이전의 장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여기는 교리로 분열된 큰 무리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 교리를 두고 가족과 친구들과 변론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자들,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논쟁하면서, 그를 결코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예수는 그들 한 가운데 서서, 복음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며,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구원자의 가르침 — “이 말씀으로 인하여” 분열하였다 (19 절). 그분은 달콤하고, 복음에 속한 주권적인 택정의 가르침들, 언약의 공훈, 그분 자신의 보증의 직분 책임, 제한된 속량,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성삼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어떤 자들은 그분이 마귀가 썩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다 (25-26 절).

우리가 만약 동일한 것을 우리 자신의 시대에 보게 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자. 인간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이 은혜가 없는 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 그리스도 복음을 경멸하는 대적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였음이 분명하다 (로마서 8:7; 고린도전서 2:14).

만약 우리가 우리 주에 대하여 동일한 체험을 겪는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복음은 여전히 실족케 하나는 것과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다툼의 원인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이 말씀에서 비웃음과 거슬리는 말과 비열한 핍박을 견뎌야 할 것이다. —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죽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마태복음 10:25).

## 양

우리 주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이름에 대하여 특별한 인식을 취하라. 그분은 깊은 의미로 가득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 “내 양”이라고 부르신다.

물을 필요 없이, “양”이란 말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징과 방법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분의 택정한 자의 약함과 무기력함과 무해함과 유용함에 대하여 말한다. 양과 믿는 자 사이에 모든 닮은 점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양”이라는 이름을 주려 의도된 최우선하는 것은 그 목자에 양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었다. 양이 그들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른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순종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께 기대고, 우리의 혼을 절대적으로 그분의 뜻과 지시에 맡긴다. 목자와 그 양의 길은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출한다. 우리는 우리 친애하는 목자에게 은혜와 섭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의지한다.

“내 양”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가까운 연결을 가리킨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의 은사로 그분의 것이며, 사들임으로 그분의 것이고, 우리 마음의 기꺼운 동의와 순종으로 그분의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산이다. 그가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

가 우리를 그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다. 그가 우리를 그분 자신의 보혈로 사셨다. 그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발견하셨으며,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부르셨다.

## 특권

27-28 에서 우리의 친애하는 구원자는 그분의 양인 우리에게 수여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광대한 특권들을 선포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을 인가와 승인과 사랑의 특별한 인식으로 안다. 그리스도는 그의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는 우리의 많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완벽한 의로 옷 입히시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새 피조물로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갈 권리와 지위를 대가 없이 수여하셨다. 돈과 건강과 세상적인 행운을 그분의 양에게 종종 지혜롭게 저지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광을 주시는 것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그의 양이 “결코 멸망치 않으리라”고 선포하신다. 그들이 약하니, 그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길을 잃거나 버려지지 않는다. 그들 중 아무도 하늘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는 나무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방황할 때, 그들은 다시 데려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질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혼의 적은 세고 강하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자는 더 강력하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구원자의 손에서 강탈하지 못할 것이다.

## 영벌

둘째, 본문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말씀의 의미를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26 절). —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본문 중에 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 “나는 너희를 아노라!” —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가? 분명히, 우리 주는 여기서 그분의 복음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영벌을 강조하신다.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양뿐만 아니라 염소들도 있다는 것이다. 아담의 아들딸들 가운데 택정된 죄인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이 세상에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공허의 그릇이 있다 (로마서 9:10-24; 베드로전서 2:6-8; 유다서 4; 요한복음 12:39-40). 초를 녹이는 동일한 태양이 진흙을 단단하게 한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마음을 녹이는 동일한 복음이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말해 주겠다. 그 말씀은 이런 뜻이다. — 나는 너희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31:3; 로마서 9:13). —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않았다 (로마서 8:29-30). — 나는 결코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13:48). — 나는 결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예레미야 31:31-34). — 나는 너희의 보증자가 아니다 (히브리서 7:22). — 나는 너희를 구속하지 않았다 (이사야 53:8;

요한복음 10:11, 15). —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 오지 않았다 (마태복음 1:21). — 나는 결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7:9, 20). — 나는 절대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로마서 8:29-30; 디모데후서 1:9). — 나는 너희가 거짓말을 믿을 강한 현혹을 보냈다 (데살로니가후서 2:10-12). — 나는 너희 마음에 세상을 두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일을 발견할 수 없고 나를 알 수도 없다 (에클레시아 3:11). — 나는 너희의 눈을 멀게 하였으니 너희가 볼 수 없다 (이사야 6:9-10; 요한복음 12:39-40; 고린도후서 4:3-4).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시기로 결정되었음이다. 너희 혼을 위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

## 너희의 잘못

하나님은 뜻하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리고 뜻하신 자를 완고하게 하신다. 그 사실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당신의 불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 하거나 그분의 뜻을 바꿀 수 없다. 당신의 영원한 저주가 영광 가운데 비통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반역으로 당신이 다치게 할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당신의 불신으로 인하여 당신 자신을 영원히 지옥의 불로 떨어뜨리게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혼자 두도록 당신이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이 지옥에 가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당신을 지옥에 보낼 것이다 (로마서 6:23; 잠언 1:23-33; 29:1).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 뿐일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 외에 아

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 찬양

셋째, 우리 주의 영벌에 대한 강조가 그의 택정한 자들의 마음에 찬양과 감사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보기 원한다 (27-30 절). 주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버려두실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을 포기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구원으로 택하셨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26-30 절).

매번 우리가 가련히 버림 받은 자들과 영원히 길없는 자와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버려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림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들어 올리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

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1-14)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7)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3-7)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그분의 양 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믿는다. 당신은 영원 가운 아버지께 의해 그분께 주어졌다. 당신은 갈보리에서 그분께 의해 구속 받았으며, 공회 가운데 그분께 의해 찾고 발견되었으며, 구원 가운데 그분께 의해 부름 받았다. 당신은 은혜 가운데 그분께 의해 지켜지며 기쁨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그분에 의해 곧 드러질 것이다!

69 장.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요한복음  
10:27-30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27-30)

양은 약하고, 무기력 하며, 방어력이 없는 동물이다. 그들은 자신의 적에 저항할 힘이 없다. 만약 그들이 길을 잃으면,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만약 병들면, 그들은 자신의 병을 물리칠 수 없다. 만약 위협을 받으면, 그들은 위협에서 탈출할만큼 충분히 빨리 도망갈 수 없다. 만약 공격을 받으면, 그들은 자신을 방어 할 수 없다.

양이 가지는 유일한 안전은 그들의 목자 안에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목자가 지혜롭고, 선하고, 강하다면, 그들은 안전하다. 만약 양이 살아 남고, 그들이 살아 건강하다면, 그 칭송은 목자에게 속한 것이다. 만약 양이 멸망한다면, 그 비난은 목자의 것이다.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다. 이것을 알면, 주의 양들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뻐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 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본문에서 우리 주의 가르침은 매우 명백하고 분명하다. 믿는 자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 — 약하고, 무기력하며, 방어할 힘이 없는 피조물 — 들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지혜롭고, 선하며, 강한 우리 목자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귀한 목자께서 그분의 모든 양을 염려하는 말씀이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확고한 안전을 선포하신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영원한 안전과 보존에 관한 성령의 가르치심을 왜곡하는 것을 인지한다. 어떤 자들은 그 가르침을 그들의 혼의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거짓으로 비뚤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를 주장함으로 그들의 사악함을 모든 책임을 제외하도록 정당화 하려 한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끔찍하고 혐오스런 사악함 가운데 살지라도, 그들이 실제로는 구원 받았다는 환상으로 그들의 양심을 비위맞추려 애를 쓴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 식의 가르침은 무법과 반율법주의를 조장한다.”고 외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한다고 간주한다. 그들이 가요받는 종들이고 용병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

들께 자원한 순종 같은 것은 없다고 간주한다.

나는 그런 왜곡에 유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악한 자가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으로 기분상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뒤로 감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는 심지어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비꼬고, 그분의 가르침을 왜곡하며, 그가 전하였던 복음으로 기분 상할것을 알았을 때도 진리를 선포하기를 결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 주께서 율법의 성취를 선포하셨을 때, 그분의 대적들은, “그는 율법의 대적이다.”고 말하였다. 그가 택정을 전할 때에도,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대가 없는 사함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며, 음란을 조장하는 자이다.”고 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덕적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전하였을 때, 그의 대적들은, “그는 식충이고 술고래다.”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서,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의 절대적 보증과 보증을 알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당신들 가운데 몇몇은 그분의 가르침에 혼란스러울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그들 자신의 혼의 파멸로 이르게 내 가르침을 비꼬고 왜곡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장에 제시된 가르침은 그들의 혼에 위로와 평강과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 인내

의문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를 가르친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인내하여야 하고 인내 할 것이다. 그들은 그

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믿고 믿음을 지킨다. 참된 믿는 자는 믿음 가운데 시작하고, 믿음 가운데 살며, 믿음 가운데 죽는다. 참 믿음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 (마태복음 10:22; 요한복음 8:31; 고린도전서 15:1; 골로새서 1:23; 히브리서 3:6, 14).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다. 오직 믿음을 지속하는 자만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최종 인내의 교리이다.

## 보존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보존을 가르친다. 하나님께로 진실로 난 자들은 전능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아무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고 충만하고 강하게 성도들의 보존을 가르친다.

인내는 믿는 자가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인내는 믿는 자가 믿음의 손길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보존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손길로 믿는 자를 붙잡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인도자, 변호자, 그리고 친구:

그는 결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리, 우리도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우리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양은 그분

의 손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어떤 참된 믿는 자도 멸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 신성한 구분

여기 신성한 구분이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비난하게 하라.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신다. 그분은 어떤 자들은 선택하시고 다른 자들은 지나치신다. 그분은 어떤 자는 구속하시고 다른 자들은 저주 아래 버려두신다. 그분은 어떤 자는 부르시고 다른 자들은 거절하신다. 그분은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다른 자들은 구원하지 않으신다. 은혜가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분은 공혹을 베푸실 자들에게 공혹을 베푸신다 (로마서 9:16).

우리 주께서 이 장에서 구원에 있는 그분의 주권을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거절하였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에 대한 이유가 그들이 그분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6 절). 믿음과 모든 다른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 말을 붙잡고 그 말씀을 당신의 마음 속에 잠기게 하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은 믿는 당신과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이 백성은 “내 양”이라고 하신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하셨으며, 우리가

그분 자신의 양, 그분 자신 고유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믿는 모든 자는 분명한 택정으로 그리스도의 양이다. 우리는 그분 자신의 영원한 선택으로 그분의 양이 되었다. 은혜로운 언약 안에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려 하나님은 그의 양에 낙인을 찍었으며, 그들 주변에 울타리를 쳤다 (16 절). 주 예수께서, “나는 저희를 알며.”라고 하신다. 또 그가 아는 것은 그분 자신의 택정과 전지한 사랑에 속한 특정하게 아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양을 아신다! 그분은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얼하는지, 그들이 한 모든 것과 그들이 어떤 했던 모든 것,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언제 그들에게 은혜롭게 될 것인지, 또 그들을 어떻게 집으로 데려 오실지를 아신다.

우리는 또한 분명한 매입에 의한 그분의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 15 절).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양을 위하여, 그 양 대신에,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자리에 대신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그분은 죄에 대한 자발적 제물로서 자신을 드렸다. 하나님의 아들은 대신하는 대속자로서, 그의 양을 위하여 율법의 형벌로 고통 받으며 죽으셨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승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구별된 부름으로 그분의 소유로 된다. —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에게만 하신 특별한 거절할 수 없는 그 부르

심이다. 그것은 언제나 효험 있다. 그것은 언제나 구원을 성취한다. 그것은 언제나 양 떼를 목자에게로 데려온다. 선한 목자는 그 자신의 양을 부르며, 그 외에는 부르지 않는다 (3 절). 그는 이름으로 그의 양을 부른다. 그가 양을 부를 때, 양 떼를 효과적으로 인도한다. — 어둠에서 빛으로! —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를 따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계시록 14:4).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가?

주님은 그분의 양과 관련한 것 외에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분의 양 떼는 낯선 자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오류와 구별한다 (5 절; 요한일서 2:20, 27). 그분의 양인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 영으로 모든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진리를 오류와 구별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은사

여기 신성한 선물이 있다. —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영원한 안전을 믿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것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라, 사람 안의 하나님의 운행이다. 영생은 대가 없는 은혜의 문제로 선택되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온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생을 갖고 있지 않다. 영생은 “영적 진화”라는 어떤 비밀스런 과정으로 인간의 죄로 충만한 마음으로부터 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권능으로 마음 속에서 실행된다. “주

다”라는 바로 그 말이 영생이 빛이나 보상의 문제로 사람에게 돈다는 생각을 금지한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나 행위에 없었다 (예레미야 31:3; 로마서 8:30; 에베소서 2:1-4).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생의 은사를 가져가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나 행위 가운데 없다 (이사야 54:10; 시편 89:30-36).

R. L. Dabney 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있어서 칭찬할만하고 끌리는 것으로 본 어떤 것에 의해서 우선 먼저 그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모든 선한 것이 결과적으로 결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철회하도록 하는 어떤 새로운 동기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대가 없이 주셨던 그분의 은사를 없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특성에 반대가 된다 (로마서 11:29). 이런 영생의 은사는 대가 없이 베풀어진 은사이다. 이런 현재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의 우연한 사건에 좌우될 길은 없다. 만약 우리가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사이고, 절대로 사람의 선에 의해 얻어 지거나 좌우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 영생이 베풀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전도서 3:14).

종교적 오류로 소경이 되지 않아온 어떤 자녀라도 영생은 필연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영생”이 그의 생명의 기간을 가리킨다기 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는 자의 생명의 특질을 더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영원한 기간의 생명을 의미한다. 우리 주께서, “영원한”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영구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생명이 그 마지막에

이른다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은사를 받았다면,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나 어떤 근거로 내가 그것을 잃거나 멸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하나님으로 난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피조된 새 본성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요한일서 3:5-9).

믿는 자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하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멸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감히 멸할 수 없도록 매우 실질적이고 참되게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참으로 하나이다. 그분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하신다. 이런 그리스도와 그 백성 사이의 연합은 변할 수 없고, 녹아 버릴 수 없는 연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하였다 (호세아 2:19-20; 에베소서 5: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들이다 (에베소서 1:23). 불구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소멸하라! 하지만, 그의 몸은 하나의 지체라도 잃어 버리게 된다면 완전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생명이 반드시 영구한 기간의 생명인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생명 안에 보존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14; 4:30). 성령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을 부르기도 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 지셨다. 그분은 생명의 수여자이고 생명의 보존자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새 언약의 인침이다 (에베소서 1:13-14; 4:30). 도장은 소유의 표시다. 그것은 어떤 것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인침은 영원한 신선함을 제시한다. 인침은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다!

## 하나님의 약속

여기 신성한 약속이 있다. —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신다. 그것은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결말, 모든 사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다. 우리 주는, 그분의 모든 양과 관련하여,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하시며, 그들은 내 양이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고 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이고 그들의 열정이 강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일 그들이 연로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시력이 흐려졌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일 그들이 유혹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일 그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일 그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일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일 그들이 타락한다면?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일 그들이 하루에도 일곱 번 타락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만일 그들이 하루에 이른 번 타락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약속은 모든 양 때를 포함한다.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리스도의 양 떼 중 단 하나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하나라도 아니다! 이것은 호의를 받은 몇 사람을 위해 남겨둔 특유의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선택 받은 양 떼에 대한 공통된 긍휼이다.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당신이 영생을 받았다면, 당신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것을 약속하셨다. 절대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고 버릴 수 없다. 노아의 타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덜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 롯의 사악함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덜 의롭게 만들지 않았다. 다윗의 범죄가 그를 멸망하게 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주를 부인함이 그의 주께서 그를 부인하게 하지 않았다. “구원은 주께 속하니!” 그리스도의 양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안전에 대한 이 교리는 모든 계시된 진리와 함께 모든 방면에서 일관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가장 확실하게 믿어진다. 이 약속을 부인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중 한 마디라도 믿겨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믿겨질 수 없다. 여기 그리스도의 양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일곱 가지 이유가 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 “그들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2:19; 요한일서 3:19).
2. 하나님의 계획은 폐해 질 수 없다 (요한복음 6:37-40).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다. 택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

복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증 계약은 무효로 될 수 없다 (히브리서 2:13).

### 3.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무효로 할 수 없다 (이사야 53:10-11).

하나님의 책은 실제로 과장되지 않고 성취된 대속의 구속을 선포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을 위하여, 그들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빛을 지불하셨다. — 우리는 갚을 빛이 없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 — 우리가 받아야 할 남은 형벌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범해진 공의를 반족하게 하셨다. — 우리가 저야하는 것도 없으며, 우리가 만족시켜야 하는 것도 없다. 공의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공홀만큼 강하게 대언한다 (로마서 5:10; 8:31-34).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해야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던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였을 것이다 (에베소서 5:25-27; 갈라디아서 1:4-5; 디도서 2:14).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멸망해야 한다면, 그분은 결코 그분의 혼의 고뇌에 대하여 볼 수 없을 것이고 만족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 4. 믿는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는 돌이킬 수 없는 은혜에 속한 행사이다.

심판은 끝났다. 하늘 법정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선포하였다 —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믿는 혼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실 것이다 (로마서 4:8).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

리 죄들을 영원히 없애 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  
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다. 우리의 칭의는 대가 없고, 충만하며,  
영원하다!

5.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결코 좌절될 수 없다 (빌립보서 1:6).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것을 완전하게 실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기꺼이 완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완료하시기에 충분히 지혜롭다. 하나  
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완료하시기에 충분히 강하다. 전  
혀 주정할 필요 없이, 모든 참 믿는 자는 기쁘게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작한 역사, 그분의 힘센 팔로 마치  
실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예이고 아멘이니, 결코 몰수되지 않았다:  
미래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나, 아래나 위에 이는 어떤  
것도,

그분이 계획을 그만두게 할 수 없고, 내 혼을 그분의 사랑  
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나의 이름을 그의 손 바닥에서, 영원은 지우지 않을 것이  
다:

그분의 마음에 찍혀 지워 버릴 수 없는 은혜의 표시 속에  
남아 있다:

그렇다, 나는 마지막까지 견딜 것이니, 증표가 주어진 것처  
럼 확실하다.

더욱 기쁘나, 더이상 안전하지 않으니, 하늘 가운데 영화롭

게 된 영들이다.”

6. 그리스도의 대언의 역사는 널리 퍼져야 한다 (요한복음 17:9-11, 15, 20; 요한일서 2:1-2). “우리의 근거는 절대로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예수께서 대언하시고 반드시 널리 퍼지기 때문이다!”

7. 성령의 인치심은 파괴될 수 없다 (에베소서 1:13-14).

### 하나님의 보증

여기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 보존되어 있다. “당신의 모든 성도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수중에 있다. 얼마나 축복된 곳인가! 이것이 우리 보증의 장소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찢렸던 그 손이다. 이것이 전능한 능력의 손이다. 이것이 우주 통치권의 수단을 잡은 손이다. 이것이 생명 안에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이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손이다. —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29-30).

### 사람의 반응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보증에 대한 이 복된 교리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강한 반응을 이끌어 낸다. 자기 의의 종교주의자는, “그것은 위험한 교리다. 그런 교리는 사람을 죄로 인도할 것이다.”

고 말한다. 종교의 뻔뻔스러운 고백자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도록 죄를 짓자.”고 말할 것이다. 참된 믿는 자는, “그와 같은 경이로운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나뉘지 않은 사랑과 찬양과 헌신 가운데 그리스도께 드리게 한다.”고 말할 것이다 (로마서 11:33-12:2 를 보라). 은혜는 감사를 낳으며, 감사는 헌신을 낳는다.

아마도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은혜의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은혜의 말씀은 주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만을 신뢰하는 모든 자복한 죄인을 위함이다. 만약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것은 나를 위함이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면, 그것은 당신을 위함이다. 당신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가?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70 장.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한복음 10:31-42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찌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0:31-42)

요한복음 10 장에서 우리 주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모든 것에서 아버지와 하나이고 동등함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였다. 그들은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함은,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였고 싫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싫어하였고, 그것을 전하는 그분을 싫어하였던 것은, 비록 그들이 매우 종교적이고 종교적 실행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였기 때문이었다.

요한복음 10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된 것을 보기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많은 수의 종교 반역자들에게 막 선포하셨던 것들을 상기하도록 하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 축제와 의식들 가운데 하나—봉헌절<sup>vii</sup>—를 축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였다. 그들의 허례 허식 속에서 그들은 주께 드리는 그들의 봉헌을 선포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모였다. 그러나 그들의 절기가 끝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이 철저히 드러졌다고 주장하는 분인 하나님을 죽이려 하였다!

왜 그들은 주 예수를 향하여 그토록 격분하였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바로 그 성전에서 그를 죽이려 하게 만들었는가? 그분은 “나는 문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구원의 유일한 문임을 선포하셨다 (9 절). 주 예수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 위에도 세우시기로 약속하셨던 선한 목자이며, 하나님이 그의 양을 자신에게 모으실 것을 약속하셨던 문임을 선포하셨다 (11-15 절). 그리고, 구원자께서는 그 교만

한 자들, 인종적으로 편협한 유대인들에게 그가 구원하려 오신 양 때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됨을 선포하셨다 (16-18 절).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주 예수,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셨다 (30 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 이 장면을 그려볼 수 있겠는가? 주님의 담론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화가 났다. 그분이 더 말하면 할 수록, 그들은 더 화를 냈다. 곧, 그들의 화가 격분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격분이 살인을 하려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2-33 절).

우리는 이 장을 앞서 읽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31-42 절에서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 다만 여러분이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중요

여기서 가장 빛나게 나타난 첫번째 것은 사람 각자의 마음이 천연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다. 격분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로마서 8:7 에서 본 것을 사례로 선포한다. —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 인간성의 극단적인 사악함이다! 사람은 그 조물주를 싫어한다. 피조물이 그의 창조자를 싫어한다. 옛 저자들 중 한 사람이 기록한 바처럼, —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하

나님께 닥아갈 수 만 있다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죽이려 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우리 주의 기적들이나 그분의 말씀에 감동받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마치 그들이 앞서 요한복음 8:59 에서 했던 것과 같다.

우리 주는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를 입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강도도, 살인자도, 그 땅의 율법에 저항하는 반역자도 아니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선한 것을 행하시기 위하여 허비하셨던 분이다. 그는 35 년 동안 “착한 것을 행하러 다니셨다” (사도행전 10:38).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잘못이나 모순이 없었다. 아무런 범죄 혐의를 그분에게 둘 수 없었다. 그분은 거룩하고, 해가 없으며, 순결하였다. 그런 사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짓밟지 않으셨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싫어하였고 그분의 피에 목이 말랐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 —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요한복음 15:25; 시편 35:19).

우리 복된 주께서 열심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손에 직면하였던 동일한 증오를 우리가 만났을 때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교만한 자기 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나 더 의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싫어하고, 자신들의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악함을 노출시키는 자신들에 대해 자신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이 단락의 가르침이 아니며, 또 이 책의 다른 어떤 단락에 있는 가르침도 아니다.

나를 오해하지 마라. 만약 당신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옳은 태도로 행동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자신의 양심이 말하는 것을 행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들의 질투와 격분을 야기시킬 것임을 나는 충분히 깨닫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옳을 것을 행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격노하게 하는 믿는 자가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서 행당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 주 예수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행을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으로 그분과 논쟁하지 않았다. 그분이 안식일에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격노하게 되었지, 그것을 행한 것으로 인함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무도 선행을 한 것으로 당신을 결코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고,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합당한 옷을 입고, 술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베풀고, 기부하고, 교회 출석 등등으로 미움을 받은 어떤 사람을 알지 않았다.

오늘날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대하여 세상을 격노하게 한 것은 우리 주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을 격노하게 하였던 것과 아주 동일하고, 아벨에 대하여 가인을 격노하게 하였던 것과 아주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전한 예수의 증거인 복음이다. 가인이 아벨을 싫어하게 하였던 아벨의 의로운 행동은 그의 믿음에 속한 행동들이었다 (요한일서 3:10-13; 창세기 4:3-8; 히브리서 11:4).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위 없이 살육된 양 덕분에 아벨을 받으셨지

만, 그와 그의 의로운 행동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가인은 격노하게 되었다. 아벨의 의(그리스도)는 가인이 불의, 그의 자기의, 행위 종교의 누더기 옷을 드러냈으며, 가인은 그것 때문에 아벨을 증오하였다 (히브리서 11:4).

세상, 특별히 종교적 세상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오한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복음이 거짓말의 도피처인 그들의 종교를 드러내므로 그들에게 소망이 없게 버려두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주 예수를 돌로 치기 위하여 돌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속에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면, 그의 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신을 죽일 것이다. 유대인을 격노케 하였고 도처의 타락한 종교인들을 격노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만에 의한 구원의 복음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한다면, 세상, 특히 종교적 세상의 증오를 언제나 기대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18).

## 성경

이 단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번째 것은 주 예수께서 성경에 두신 높은 준귀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34-36 절)

주 예수께서 이 트집쟁이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시편 82:6 을 인용하셨다. 분명히, 그분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거나 그들의 격분을 가라 앉히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말씀은 오직 그들을 더욱 격분시켰다 (39 절). 여기서 우리 주께서 시편을 참조하신 것은 옆에서 있었던 그의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시대에 있는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였다.

만약 시편 기자가 사람들을 “신들”과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공의를 집행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며 (모세가 바로에게, 다위시이 이스라엘과 그 적들에게,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것이 모독이 될 수 없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이고 자존하시며, 우리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시도록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성별되셨고, 시간의 충만 가운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구속의 창시자가 되시도록 세상 속으로 보내심 받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일서 5:7) 예수는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5).

여기에서 우리 주의 계획이 35 절에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라고 선포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성경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선포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실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있을 수 없다. 그 근거가 확정

적이고 분명하다. 성경의 모든 기록과 제목은 사실이며, 권위 있고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것은 광대하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을 확고히 움켜쥐고, 절대 놓치지 말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영감은 성경의 생각과 사상에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들에 까지 확장된다 (디모데후서 3:16-17; 베드로후서 1:16-21).

### 주의 기적들

셋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에 얼마나 큰 중요성을 두셨는지를 성경의 이 부분에서 보지 않으면 결코 안된다. 그분은 그분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 자신의 신성한 사명과 신성의 나타내심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호소하신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보고, 할 수만 있다면 부정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찌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6-38 절)

복음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마흔 번도 넘게 완전히 기적적인 일을 하신 것에 대하여 보게 된다. 병자를 바로 치료하시고, 한 마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들을 내 쫓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즉각적으로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단단한 땅위를 걷듯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린 것들이다. 어떤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행해졌지만, 대부분은 적개심을 가진 증인들의 눈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졌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도 익숙하여 그 일들이 가르치려 하는 공과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 이 기적들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이 일들이 가르친다. 그 일들은 그분의 가르치심들을 각인하며 신성한 권위의 표시가 있는 교훈들로 각인한다. 창세 때 만유를 창조하셨던 그분 만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의 율법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 강력한 역사로 그의 사명을 확증하셨던 한 분을 거절하는 것은 광란과 우둔함의 극치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주님의 기적들은,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기적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신성의 증거 이상을 보지 않는다면, 주 예수의 기적들의 참된 가치와 중요성 안을 거의 보지 못한다. 주님의 기적들은 인간의 육체적 감각에 그분의 위격의 신성을 크게 강조하며, 그분을 증오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조차도 강조 되었다. 그러나 이 역사들의 위대함은 이 안에 있다: — 그것들은 그분의 은혜에 속한 보다 고귀한 운행들에 대한 외적 간증들이었으며, 그들의 외적 표적들처럼 잠시 동안만 인내하는 것이 아닌, 모든 영원을 통하여 인내하는 것이다.

그분은 봉사에게 시력을 주셨으며, 그것은 그분이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사람들의 생각에 이해를 주시는 것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증거하려 하셨다. — 그분은 귀먹어리 귀를 여셨으며, 그로써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올바르게 듣고 영원히 살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떤 분에 의해서만 되는 지를 알수 있도록 한다. — 단번에 그분이 견게 하셨던 절름발이는 그분의 백성이 우리가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이며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 그분이 악취 나는 몸의 문둥병을 치료하셨던 것은, 오직 그분만으로 혼을 덮고 더럽히는 훨씬 더 지독한 죄에 속한 문둥병을 치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 그분의 명령으로 사라져버린 모든 질병은, 우리가 우리 혼의 회복자이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그분에 의해 영원토록 부요하게 된다. — 그분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고 돼지를 점유하여 결국 파멸되었던 그들을 고통받게 하셨으며, 그분이 홀로 구원한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였고, 그들을 시간의 험한 과정 하에서 격렬하고 신속하게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비통의 심연 속으로 그들을 몰아 가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 굶주린 많은 자들이 그분이 영적 생명을 주는 자만이 아니라, 매일 매일에서 지속적인 지지자이고 양분주는 분임을 설명하는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먹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작고 사소한 방법으로 이것을 행하셨으며, 그것은 그분의 능력의 뛰어남이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이며 피조물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고 축복을 받고 쓰임 받는 자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 바람과 파도는 즉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든 영적 파도와 이 세상의 무질

서한 광란과 사탄의 맹위와 만유의 혼돈을 잠잠게하는 자인 그분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그분께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이상 큰 소리를 내고 거품을 낼 수 없으며, 그들이 거품을 뿜어내고 큰 소리를 낼 때, 마침내 그분의 백성의 선을 위하여 그쳐질 것이다. — 죽은 자가 우리 부활하신 주이신 그분의 권능을 선포하기 위하여 일어났으며, 영적 생명과 끝없는 사망의 문제 역시 모두 그분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는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우리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우화의 그림들 안에서 공홀과 은혜와 사랑의 무한한 공과들을 계시하셨던 공홀의 행위였다. 그분의 모든 역사는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잃어버렸던 듣지 못한 수 백만의 구속자이고 회복자이심을 선포하였다.

아 하나님의 자녀여, 이 일들로부터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혼을 위하여 행하셨던 것을 배워라. 범죄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그분은 당신을 살리셨다. 그분은 당신의 혼에 빛과 평강을 주신다.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당신을 먹이신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영적 질병을 저주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다양한 적들과 유혹들을 모두 평정하신다. 그는 당신을 매일 매일 그분의 은혜로 강하게 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당신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기쁨의 뜻과 행사 모두를 당신 속에서 역사 하시기를 결코 그치지 않으실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41-42 절)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라. 선택받고 구속받은 죄인들을 은혜롭게  
주 예수께 회복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분을 믿게하려 하신다.

## 71 장. 베다니의 축복 받은 가족의 공과—요한복음 11:1-57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 11:1-57)

감람산의 동쪽 경사면은 예루살렘 동쪽 약 2 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그곳에 베다니라고 부르는 작은 마을이 한때 있었다. 이 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베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전능한 능력을 보이셨던 그 위대한 기적의 현장으로 데려간다. 나는 우리가 그 위대하고 고귀한 날의 사건으로부터 우리 혼의 영적 교훈과 교육을 위한 어떤 영적 공과를 주어 모으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듯, 우리 마음과 생각은 부활이고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나사로를 사망에서 살리셨던 분께 초점이 맞춰질 것을 믿는다.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분은 그분의 은혜에 속한 권능으로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기를 계속하신다.

### 질병

여기 이 장에서 가르친 첫 번째 공과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마음에 두어야 하며, 종종 그것에 우리 자신을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과이다. — 참 믿는 자들은 종종 이 세상에서

질병과 병으로 고통받는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라 하시더라.” (1-4 절).

질병은 하나님의 언짢음의 표시나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부족이 아니다. 사실은, 질병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의하여 우리에게 보내진 것이다. 우리 몸을 약화하는 그것은 종종 우리 혼을 위하여 좋다. 질병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향한 우리의 애착심을 가져가 버리는 경향이 있다. 질병은 우리가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성경으로 보내며, 우리를 우리 구원자께로 보낸다.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그 어떤 것도 선하다.

질병은 이 세상에서 삶이 기껏해야 곧 사라져 버릴 수증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질병은 우리가 무덤을 바라보게 하며, 무덤을 지나 심판을 보게 하며, 심판을 지나 영원을 보게 한다. 질병이 올 때마다, 암처럼 심각한 감기나 혹 어떤 것 이상의 것이 아니며, 주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하고, 질병이 죄의 열매라는 사실에 대하여 언제나 생각하게 한다. 질병은 사망의 앞선 주자이다. 질병과 건강, 삶과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것 같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결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 믿음

여기 두 번째 공과가 있다: — 참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나사로가 아프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 예수, 그들의 주이고 가장 온화하며, 배려 있고, 애정어린 친구인 분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3 절)고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그분께서 베다니로 오실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그분께서 치료하실 것을 분명히 바랐던 것이었지만, 그들의 형제를 치료하실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분의 손에 그 문제를 남겼으며, 그분이 가장 최선인 것을 하실 것을 확신하였다.

구약의 엘리처럼, 그들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상 3:18)라고 말했다. 그들의 본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우리의 가장 좋고, 가장 능력이 있으며,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동정심이 많은 조력자인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특히 필요한 때, 우리 최고의 친구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행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읊이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 헤즈기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펼쳐 놓자.

고난의 분방함과 흥분과 질병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마태복음 8:17) 분처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연약한 느낌에 감동하신 우리 구속자만큼 그토록 친절하고 은혜로우며 염

려하는 자는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죄인에게서 온전한 믿음이 발견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해서는 안 된다. 비록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우리 구원자의 선택된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많은 약함과 불신이 있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주께서 베다니에 오시는 것을 지체하신 것과 그들과 나사로를 향한 그분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그분이 나사로를 사망에서 살리시려 했을 때, 그의 무덤에서 돌을 치우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조차도 마르다는 그녀의 주와 논쟁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지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 절).

우리가 건강하고 힘 있고 은행에 돈을 갖고 있을 때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고 약하고 파산했을 때 믿음을 실행하기란 어렵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을 때, 확신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은 가장 강한 믿는 자의 믿음은 매우 부서지기 쉬워서 큰 시험이 닥쳤을 때 깨지기 쉽다.

여전히 믿음에 대하여 이 장에서 계시된 다른 것이 있다. 우리 주께서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40 절).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복음 안에 있고, 창조 가운데 있으며, 섭리 가운데 있으며,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음은 주 예

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있고, 그분의 온전한 의와 그분의 보배로운 죄속량의 피로 인한 죄인들의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 그리스도의 사랑

이 장에서 우리 앞에 있는 세 번째 공과가 있다. —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는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5 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것을 본다. 여기 세 사람의 선택된 죄인들이 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모두 택정하심의 사랑과 구속의 피와 구원의 은혜의 똑같은 대상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똑같지 않았다. 마르다는 약간 심하게 주제넘고 오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는 비록 약간은 세상의 책임들에 무지한듯 했지만, 매우 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 외에는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께서 세 사람 모두 사랑하셨음을 분명히 듣는다. 그분은 그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셨다. 그분은 같은 이유에서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똑같은 정도로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다.

우리 구원자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영원하며, 또 변함없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려다 실패한 것에 달려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저평가해서는 안된다. 정원의 꽃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정원에 그 꽃들이 기여하는 것이 불가결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차이점 때문이다. 당신의 자녀

들은 모두 서로 다르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들이 다르다고 해서 한 아이를 덜 보살피고 앓고 다른 아이를 더 보살피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믿음과 성숙도의 정도가 다른 것이 있다. 그러나 주의 제자들 중 가장 작고, 가장 약하고, 가장 부서지기 쉬운 자들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확고한 자보다 사랑의 대상으로 덜 하지 않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곱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0-36 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언제나 자신을 위한 큰 축복을 발견한다. 베다니에 있는 작은 집은 주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 곱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이들 조문객들은 아마도 이 여인과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거의 알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이웃의 고통을 느꼈

으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을 하려 그들의 사별의 시간에 왔다. 그들의 친절의 결과로, 그들은 혼치 않고 풍성하며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역 동안 주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의 증인될 것이 허락되었다. 그들은 나사사로가 사망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중 많은 수에게 나사로의 부활이 그들의 혼에 부활을 가져왔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출생의 날이었다. —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45 절).

이 사건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가 없는 자식과 과부를 방문하여, 흐느끼는 자들과 함께 흐느끼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려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일은 없다. 행복해 지는 가장 큰 비밀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영감으로 기록하는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라 말했다 (전도서 7:2, 4). 당신 자신을 가장 불쌍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여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다. 주의 제자들인 우리가 얼마나 더 필요한 때 있는 다른 사람을 관심해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어루만진 그것으로 만져지고, 그들을 감동시킨 것으로 감동되며, 그들을 슬프게 하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우리 구원자는 이제 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셨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음하셨다. 그들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그분이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이 두 여인을 어루만지고 감동하게 한 그것으로 만져지고 감동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와 같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 섭리

여기 이 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 앞에 제시된 네 번째 공과가 있다. —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은 때이다. —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 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11-17 절)

우리 주는 언제나 그가 개입할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그가 일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시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들었을 때, 그분은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분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던 것을 아셨다. 하지만, 그가 계신 바로 그곳에서 머무셨다.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친구의 선을 위하여,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나타나서 행할 시점이 언제인지 그분이 아실 때까지 계신 곳에서 머무셨다. — 우리 주는 언제나 옳은 시점에 개입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 오셨던 것은 시간의 충만 가운데에서 였다. 나사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망에서 살아나게 하려 오시기 나흘 전에 죽었다. 베드로에 따르면, 하루가 주께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다는 것을 안다. 그런 계산으로, 여기 우리 구속에 대한 그림이 있다.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우리 죄와 사망과 “시간의 충만이 왔을 때” 우리를 우리 죄들로부터 구원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심 사이에 단 나흘이 지났다 (4 천 년)!

우리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모든 것을 위하여 가장 좋은 때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J. C. Ryle 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안배됨으로 완전한 지혜에 속한 내주하는 유죄로 인하여 인생의 시험들을 인내심 있게 견디도록 우리를 도울 것은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옳은 방법과 옳은 때에 좋아지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험이 올 때 천연적으로 인내력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외쳤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처럼, 우리는 외친다 (민수기 12:13). 우리는 기다려

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며, 매우 선하시므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매우 강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 때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뜻하실 때 행하시도록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와 믿음이다. 우리가 아플 때,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신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신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은 도우실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

## 사망

여기 우리 다섯 번째 공과가 있다. —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생명이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11-14 절, 25-26 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1-14 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5-26 절)

물을 필요 없이,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에서 모두 사망하였다. 이

진흙으로 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당신은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마는 두번째 사망으로 죽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우리의 육체가 기능이 멈출 때, 땅에 속한 우리 성막이 무너질 때, 진흙으로 된 이 집들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생명 가운데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첫번째 부활을 체험하였던 자들, 즉 새로 태어남을 체험한 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을 맛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20:6).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잠시 동안 육체의 수면 그 이상은 아니다. 하지만, 육체가 잠든 동안,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될 동안, 우리는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25절과 26절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았으며, 우리의 대속자이며 구원자로서 그분의 부활 덕분에 그분 안에서 산다. 그분은 우리 부활이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대표한 사망에서 살아났다 (에베소서 2:5-6). 우리는 새로운 출생 가운데 영적으로 그분 안에서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였다 (계시록 20:6). 그리고 우리는 재림 때 그분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부활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42-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비록 우리가 모두 천연적으로 죄인들이고, 범죄와 죄들 가운데 사망하였지만,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사망에 면역되어 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졸업이고, 승진이고, 자유이며, 해방이고, 그가 바라고 기대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 대부분의 정직한 기도자들은 응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지극히 높고 귀한 야망이 실현될 것이며, 우리의 시험과 유혹과 슬픔은 끝날 것이다.

## 구원

이 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곱 번째 공과가 있다. —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주는 부활 능력에 의해 성취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39-44 절)

여기, 환한 대낮에 많은 적대적인 증인들 앞에서 죽은지 나흘이나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즉시 다시 살아서 일어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셨다는 공개적 증거가 있었다. 이미 부패하고 썩고 있던 시체가 즉시 살아나게 되었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공개적인 증거가 있었다. 이 진흙 성막을 떠났던 혼이 하늘에서 땅으로 와서 죽을 몸 안에 한 동안 더 살도록 불러 왔다.

하지만, 이 일들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이 일들이 그 성취된 구원과 방법에 대한 영적 공과들을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음을 확신한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것은 천연적으로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이다. 우리는 영적 사망의 상태 가운데 모두 태어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꿀 어떤 것을 행할 능력이 전적으로 없음을 의미한다. 만약 구원이 온다면, 우리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

나사로는 썩어가고 있었다. 죽은 시체가 땅 속에서 썩는 것처럼, 영적으로 사망한 마음과 혼과 생각은 “이 세상의 부패”라 부르는 멈추지 않는 부패 상태 속에 있다. 그 말을 누구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생각 했을 것을 한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일이, 이제 당신의 마음을 계속하여 사로잡을 것이다. 당신이 결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이제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실행한다. 만약 당신 마음의 생각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면, 두려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창피할 것이다.

나사로는 구출되었다. 나사로의 사망으로부터 부활과 무덤에서 구

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의 영적 구원의 생생한 그림이다. 첫째, 우리 구원자는 무덤에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39 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다. 왜? 만약 그분이 사망에서 살아났다면, 그분은 쉽게 돌을 굴러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죄인들의 구원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시며, 결코 방법 사용하시기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고 계신다. 우리는 사망에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나 돌을 굴러버릴 수 있다. 따라서 돌을 굴러버리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골짜기를 돋우며,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서 거치는 덩어리를 치워버린다.” (이사야 40:4; 57:14).

다음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1-42 절)

나는 택함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하신 우리 구원자의 중보의 그림으로 그것을 택하겠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3 절) 그분은 죄인들을 그분의 은혜로,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며, 권능에찬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과 똑같이 나사

로를 사망에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거라.”고 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오너라.”고 하실 때, 그리스도께 올 수 없었던 자들이 즉시 그리스도께로 나온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 우리 구원자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 절).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돌들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때, 사망의 수의로부터 그들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풀어준다. 종교는 규정과 의무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신다. 복음의 전파로, 죄인들은 종교적 율법주의, 자기 의, 자유의지 주의와 의식주의에 수의로부터 해방된다.

## 대속

만약 내가 이 장에서 제시된 가장 마지막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혼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대신한 죄속량과 대속의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그야말로 불가능하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

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49-52 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 장에서 주어진 일곱 번째 공과가 있다. —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대신 하나님이신 그 인자께서 대속의 희생이 되심에 의해서이다.

대제사장 가이바는 그가 하고 있던 말이 무엇인지 결코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했다. 그는 두 마디를 했으며,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도 말하지 못하였으며, 지금까지 알게 된 설교자가 거의 없는 두 가지를 말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항은 복음에 중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떠나서는 복음은 없다. —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택정된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멸망할 수 없다. —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0 절). 주 예수는 저주의 나무 위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충만히 만족하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충만하게 만족시

키심으로, 그가 대신하여 죽었던 모든 자는 결코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 모든 속량 받은 죄인은 영원한 구원 안에 함께 모아져야 한다.

## 72 장. 부활한 나사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요한복음 11:1-12:11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1-12:11)

당신은 우리 전능하신 구원자의 사랑스런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아는가?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들었다면, 그것들을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혼은, 비록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지라도, 목자의 음서의 달콤한 소리를 안다. 구원자께서 죄인에게 범죄와 죄들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다음과 함께 말씀하신다…

- 놓칠 수 없는 큰 음성 (요한복음 11:43).
-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음성 —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요한복음 11:44; 시편 29:3-11).
- 부름 받은 자 외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 (열왕기상 19:9-14).
- 부름 받은 자가 살아나서 주를 찾는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승리의 음성 (아가 5:2).

- 부름받은 자가 그분이 부르시는 것을 알게 하는 개인적인 음성 (누가복음 19:5).

## 책임

주께서 기회를 주셨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복음 전도자의 책임이다 (마가복음 16:15-16). 이제까지 사람에게 부여되었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특권임을 인정한다. 세상에서 지극히 높은 부름,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인 한편,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책임이기도 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불멸의 혼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이 책임을 성취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세 가지 사항이 사람에게 요구된다. 신실함, 단순함, 확고함이다. 전도자는 그의 동기 가운데 신실하여야 하고, 속임이 없어야 하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혼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단순함으로 전하는 것은 담대한 결단력과 명확함으로 그리스도의 죄속량의 희생으로 성취된 구속의 유일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단순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여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확고하여야 하며, 결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내용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임의의 길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 모두의 책

임이다 (고린도후서 6:1-2). —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 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30). 나는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선포하는데,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부르는 세상 모두의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13).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책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사도행전 16:31). 실로, 만일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다!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천연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거나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안다. 타락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위한 갈망도 없고 능력도 없다 (요한복음 5:40; 6:44). 그것은 사람의 능력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사람의 갈망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죄인이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

##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임을 안다 (에베소서 2:8; 요한복음 6:37-40). 이것이 우리 구원자의 가르치심이다. — 아무도 올 수 없다. — 누구나 올 수 있다. — 어떤 자는 올 것이다. —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는도다!” (시편

110:3) —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모든 자는 영원히 구원될 것이다!  
—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65:4).

만약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의 효험 있는 능력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께 나온다. 참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 구원의 믿음은 전능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대하고 주권적인 운행하심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창조된다. 믿는 우리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믿으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 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믿는다 (에베소서 1:19-20). 우리가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 안에서 수행된다 (골로새서 2:12).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마음 속의 믿음의 이 창조는 우리가 이르는 “효험 있는 부르심” 혹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이다. 성령의 효험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우며 거절할 수 없는 역사와 운행이며,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키며, 그가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한다.

효험 있는 부르심은 주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고 기꺼이 영접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운 감화이고 압도적인 사랑이며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며 저항할 수 없는 권능이다. 천연적으로 자신에게 남겨진다면,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자들은 효험있는 부르심 안에서 기꺼이 그분께 나오도록 되어야 한다.

성경 안에는 이런 효험있는 부르심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많고 많은 그림들이 있고, 선택받고 구속받은 죄인들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이 축복의 행위를 아름답게 설명하는 그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만으로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많은 그림들이 있다. 이 그림들 가운데 가장 교훈적인 한 가지는 나사로의 부활이다. 요한복음 11 장과 12 장에서 열영은 우리에게 나사로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묘사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그의 상황

첫째, 나사로의 상황은 요한복음 11:14 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나사로는 죽었다. —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것은 천연적으로 영적으로 사망하고, 범죄와 죄들 가운데 사망하였고, 그들의 상태를 알지도 바꿀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이다 (로마서 5:12).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죽은 자는 그리스도께 나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다. 죽은 자는 볼 수 없다. 죽은 자는 알 수 없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야 한다. 그 부활이 새로운 출생, 첫 번째 부활이다 (요한복음 5:25; 에베소서 2:1-10; 계시록 20:6). 나사로의 질병과 사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 (3 절) 이었기에, 우리 조상 아담 안

에서 우리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다.”

## 그의 부름

요한복음 11:43 을 보면 나사로의 부름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보기 원하는 둘째 사항이다. 나사로의 부름은 우리 부름, 모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효험있고 거절할 수 없는 부름의 그림이었다. —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 예수께서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실 때,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났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나가는 일반적인 부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부름이 아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특정적이며, 강력한 부름이고,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으며 특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를 부른다면, 죄인이라면 누구든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 부름을 받은 자는 모두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산다 (요한복음 5:25). 우리의 택정과 구속은 하나님의 전능한 공훈의 이 행위로 우리 혼 속에 나타나고 확실하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1:4-5).

## 그의 회심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 일단 부름을 받고, 나사로는 회심하였다. 그의 회심은 즉각적이기도 하고 점진적이기도 하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변화되

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수의”에서 점차적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은 새 창조 안으로 즉시 변화된다 (고린도 후서 5:17).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는 점진적으로, 죄와 불신, 율법주의와 자기 의, 그리고 종교적 관습과 전통과 의식의 “수의”에서 구원받고 있다 (고린도후서 7:1). 구원자의 명령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이다 (고린도후서 6:14-7:1). 그리고 복음의 전파로, 구원받은 죄인들은 풀려나며, 율법의 차꼬에 매이지 않고, 은혜로운 축복의 해방 가운데 풀려난다.

### 그의 교제

넷째, 12 장에서 나사로가 주 예수와함께 달콤한 교제 가운데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 12:1-2)

그가 부활한 직후, 나사로는 그의 구원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 — 그 집과 식탁은 나사로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였다. 나사로는 그의 주께 모든 것을 항복하였다 (누가복음 14:25-33). 믿고 항복한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달콤한 교제를 함께 베푸는 그 마음이다. 나는 나사로가 그곳에서 주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기에 그의 마음을 거의 들을 수 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 주여!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또 그것은 당신의 사랑을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품 안에 일어나기를 갈망하니,  
또 당신께 더욱 가까이 이끌리기를!

이제 저를 당신의 섬김에 헌신하니, 주여,  
은혜롭고 거룩한 능력으로;  
확고한 소망으로 나의 혼이 바라보게 하사,  
또 내 의지가 당신 속으로 빠지게 하소서!”

## 그의 다툼

다섯째, 요한복음 12:9-11 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과 끔찍한 다툼의 한 복판에 있는 나사로를 본다. 나사로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다. 왜? 그가 사망에서 부활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전부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축복으로 받았으나, 그들은 받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다. 이것이 나사로에 대하여 들은 마지막 사항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치지 않는 다툼의 삶이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있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태초에 있었던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게 될 길이다 (창세기 4:1-8; 요한복음 16:33).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예배가 악하다면, 죄가 너를 괴롭히며 너의 죄 있는 양심의 문턱에 있다. 너에 대한 아벨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너를 그의 형제로서 갈망한다. 그는 여전히 너를 너의 아버지의 맏아들이기에 그의 형으로서 존경하고 있다.” 여전히, 가인은 아벨을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였다. 아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 자신의 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다.

아벨은 선택 받았다. 따라서 아벨은 구속되었다. 선택 받고 구속 받았기 때문에, 아벨은 부름을 받았다. 그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은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아벨은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아벨은 받아들여 졌으며 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였다.

당신은 우리 전능하신 구원자의 러브콜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아는가? 내가 부름을 받게 된 그 주권적이고, 대가 없으며,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가 나를 부르셨을 때 대답으로 “아니요”를 받으시지 않을 것임에 그분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아 성령을 찬양하니, 택함 받은 죄인들을 불러 내라! 아 주 예수여, 죄인들의 친구를 찬양하니,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가 부름받았나? 그럴 수가 있던가?  
나의 구원자가 나를 택하셨나?  
나처럼 죄 있고, 사악한 자를,  
그분이 쓸모 없는 내 이름을 부르셨던가?”

타락한 자 중 가장 타락한 내가,  
감히 내 소망을 그토록 높게 올려도 되나?

내가 부름받았나? 감히 그대로 있을 수 없네,  
그럴 수 없네, 불순종해서는 안되네:  
여기 당신의 발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시은좌에 매달려 있네:  
나는 당신의 소유, 당신만의 소유;  
주여, 당신께서 나를 끝내실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았나?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  
나의 왕께 드릴 제물로?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내가,  
당신의 발등상 앞에서 떨며 누웠네;  
죄 밖에 없는 내가 나의 소유를 부르니,  
죄를 속량할 것은 죄 뿐 아무것도 없네.

내가 부름받았나? 하나님의 상속자!  
보혈로 씻음 받고 구속 받았네!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나를 이끄소서,  
그 더 나은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혼이 쉼 가운데 있을 곳,  
내 구원자의 가슴을 베고.”

## 73 장.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나?—요한복음 11:11-46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1:11-46)

요한복음 11 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것이다. 물을 필요도 없이, 구원자의 영원한 신격을 이렇게 강력히 보이심은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에 의해 의도되었다. 그것은, 내가 확언컨데,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새로 태어남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영적 부활의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에베소서 2:1-7; 계시록 20:6).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죽음과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전에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그가 죽고 우리 축복의 구원자에 의해 사망에서 살아났을 시간의 사이에 그는 어디에 있었나? 그의 몸이 땅 속에서 잠들어 있던 그 나흘 간, 그는 어디에 있었나?

이 기적이 행해졌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하신 일을 보고, 저를 믿었다.” 믿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자에게 적개심과 반대하며 더 냉혹해졌다. 시대를 거쳐오면서 똑같이 사실이 되었다.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은, 복음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달콤한 향기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사망에 이르게 하

는 사망의 향기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제발!

## 나사로

나사로에 대하여 단지 몇 가지 사항을 말하도록 하겠다. 첫째, 그의 몸이 무덤 속에 있는 동안 그의 혼의 상태에 대하여 그는 어떤 것도 말하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듣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요한복음 12 장에서 식탁에서 구원자와 함께 앉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그의 체험에 대한 성경의 침묵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전혀 그에 대하여 더이상 들은 것이 없다. 만약 바울이 그의 체험을 기술하는 말을 할수 없었다면 (그것은 분명 나사로와 같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보았던 것을 말할 수 없었다면, 나사로가 하늘에서 보았던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본다. 모든 것을, 특별히 초자연적, 설명 불가능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선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까지 사람의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분의 대부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장막을 치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자들은 그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성하여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같은 것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할 말이 거의 없다.

성경은 또 나사로가 사망에서 부활하고 난 후 마르다와 마리아의 느낌에 대하여 전혀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음이 놀랍다.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체험하였겠는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

여 얼마나 큰 창피를 느꼈겠는가!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 주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 가운데, 그들 위에 장막으로 가리시며,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그들의 비통함과 슬픔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주고 계신다. 사실인 즉, 공부하고 묵상하는데는 불행과 비통함이 기쁨보다 더 유익하다.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 구원자의 영원한 신격의 가장 틀림 없고 질문의 여지가 없는 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 만약 그분이 그를 나흘동안 죽어있다가 살아나게 할 수 있었다면,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인 하나님이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얼마나 부패하였든지 간에 사망한 죄인들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우리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렀던 그 음성은, 마지막 날에, 잠자는 그분의 성도들의 몸을 무덤에서 불러 내신다! 그렇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25).

## 나의 생각들

이제, 죽는 것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당신에게 조금 주도록 하겠다. 나는, “내 생각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어떤 가치가 있을만한 것이 아닌 내 생각일 뿐이었다. 오직 이것들은 하나님의 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들을 보여주셨고 내 마음에 그것들을 인치셨기 때문에 내 생각들이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동일한 것을 그분이 하실 것을 기도한다.

내가 용감한 사람으로 쓰거나, 거룩한 사람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

라, 단순히 구원 받은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쓰는 것이다. 홀로 나의 모든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나는 그분이 자신께로 나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실 때,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마리아 처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익숙한 음성에 속히 일어날 것이며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할 때 기뻐할 것이다.

이 공과에서 내가 말해야 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다. 모든 영적인 것들 가운데, 이것들이 가장 영적이다. 그리고 천연적인 사람은, 얼마나 뛰어나고 교육을 잘 받았든지간에, 그것들을 쉽사리 알 수 없다.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2:9-12).

## 몸

첫째, 혼이 사망에서 몸으로부터 분리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몸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망은 믿는 자가 우리 몸에서 우리 혼의 일시적인 분리이므로, 우리 구원자와 우리가 분리되는 것은 조금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연합은 부해 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연합이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과 영원 안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거와 보증이다. 성경은 우리 몸에서 혼이 떠나는 사망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분리는 구속자로부터 구속받은 자의 혼이나 몸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들이 생명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

망에 있는 자도 실로 그의 백성이다. 그분과 우리의 연합은 동일하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유익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무덤 속에서 우리 몸과 함께 썩지 않는다. 실로, 우리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위대한 체현과 부활 가운데 그분과 영원한 축복을 위한 때를 주시기 위하여 명령되었다.

### 잠시의 분리

사망 가운데 우리가 견디어야 하는 분리는, 우리 몸과 혼의 분리이며, 단지 잠시의 분리, 즉 부활 가운데 우리 주에 의해서 영원히 보상받게 될 잠시의 분리이다 (로마서 14:8; 고린도전서 3:22). 우리 주 예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출애굽기 3:6). 그리고, 수 백 년이 지난 후, 열조들이 오래 전에 육신 가운데 죽었으나, 그들은 결코 그분과 분리되지 않았음을 밝히 강조하시면서 정확히 동일한 것을 천명하셨다 (누가복음 20:37-38). 그리고 그분은 이것은 또한 부활의 사실을 강조하는 것임을 선포하신다.

### 잠들

사망 시에 몸과 혼의 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몸이나 혼의 어떤 분리도 가져오게 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성경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은 것에 대하여 말씀할 때, 어디든 혼이 잠든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잠들었음은 그들의 몸이 무덤에 있음을 가리키며, 그들이 땅 속에서 잠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잠든 몸은, “예수 안에서 잠든 몸들이며,” 그분이 잠에서 깨우실 것이다 (테살로니가전서 4:14; 로마서 8:11).

## 달콤한 잠

우리 몸이 구속자의 품 안에서 잠든 것에 대하여 언급되거나 기록된 것이 거의 없다. 그것은 달콤한 수면이다. 그 잠과 관련된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좋으며, 달콤하고, 말할 수 없이 축복된 수면이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라. 우리 몸과 혼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들이다. 그분은 우리 몸과 울혼을 모두 구속하셨다. 내 몸은 그분께 내 혼만큼이나 소중하다. 그것은 그분이 사신 소유이며, 그것은 부활 안에서 아직 구속받지 않았다 (죄의 결과로부터 구출되지 않았다) (에베소서 1:14; 4:30).

내 몸과 내 혼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들이며 피의 구속으로 그분이 사신 소유물이다. 하지만 그 둘 사이의 다툼은 그치지 않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새로 태어난 순간부터 주께서 사망으로 인하여 몸을 벗기시는 그 순간까지 그치지 않는다. —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17).

## 신음

이 몸 안에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신음한다. 나는 나의 온 존재에서 절실하게 죄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공포와 증오가 있는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 나를 보라. 내 육신의 몸에 있는 문둥병은 메스껍다 (욥기 42:6; 이사야 6:5; 로마서 7:18). 내가 사망에서 이 육신의 옷을 벗기 전에, 내 혼이 이 몸에서 분리되기 전에, 그 자유를 갈망하는 내 혼의 부패와 신음이 거하는 태어난 몸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4). 그때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죄의 바로 그 존재는 영원히 끝날 것이다! 너무도 내 본성 깊이 잠재하여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부패시킬 역겨운 그 것이 숨을 장소는 결코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사악함으로 몹시 더러운 곳, 모든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부패는 말라버릴 것이고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나는 내 혼 가운데 이에 대한 축복을 느낀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기쁘다. 내가 한가로운 말을 결코 하지 않고, 또다른 더러운 생각을 갖지 않고, 누구든 혹은 어떤 것이든 다시는 다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을 때, 내가 마침내 죄로부터 끊어질 때, 시간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사악의 모든 군대가 나를 쫓아 올 것임을 알지만, 바다 경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 갔던 이집트 군대처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그곳에 여셨던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이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열려 있을 것임을 또한 안다. 사망이 전쟁을 끝낸다. 기록되기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13)라 했다. 하나님의 자녀여,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은 혼과 몸이 일시적으로 분

리된 가운데 즉시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나 주시하기에 더욱 더 놀라운 어떤 것이 있다. 우리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승리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은 모두에게 관썸을 정점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성도들의 육신 가운데 있으며,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올리시는 가운데 그분의 전능한 팔의 특별한 정복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초를 놓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만유의 처음이자 궁극적인 마침이다. 삼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결심과 뜻과 기쁨은, 그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만유를 창조하셨고 만유를 유지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분의 은혜로운 영광”의 체현이다 (에베소서 1:5-7; 잠언 16:4; 이사야 43:21; 로마서 11:36; 계시록 4:11). 이것이 그 계획이었는데, —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세상 앞에서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실 수 있는 것 —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본성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그분 자신께서 그의 성도들을 모으려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14; 데살로니가후서 1:7-10).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홀로 소유하여야 하는 것보다 더 합당하고 의로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난 계획이 우리 구속과 우리 부활로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위대한 날까지 흙 속에서 잠자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사망

시 혼과 몸의 일시적인 분리는 이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다른 모든 생각보다 우선하고 위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개인적 영광을 위함이며, 종속적이고 부차적이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위함이다.

그 나흘 동안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나? — 그는 주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보다 더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있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고 경이로운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날에 우리 영광스러운 구원자에 의해 행해 질 것인가! 땅과 바다 속에서 잠들고 있는 열방들을 상상해 보라. 그분의 부름에 따라 그들의 죽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만을 구원자와 주로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날, 곧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기 위하여” (데살로니가후서 1:10) 오 실 그 때에 하나님 자신의 말씀의 확신을 갖고, “주 안에서 죽은” 축복된 자들 가운데 발견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으로 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나게 될 그 때에 거룩한 기쁨과 기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때를 기다리도록 하자. 이런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승리들이 그 날에 하나님의 결집된 창조 전에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더욱 더 크게 나타내기 위한 예비된 방법인가? 내 혼과 몸의 일시적인 이 분리가 내 하나님과 구원자께서 나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기 위한 경우인가? 만약 그렇다면, 사망은 우리에게 두

려워할 저주가 아니라 참여되어야 할 축복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시체에서 나를 살리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영광은 죽을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혼의 들림을 더 크게 하시고, 내게 약속된 떠날 시간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것은 나의 육신이 밤에 구원자의 품 안에서 잠들고 아침에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에 의해 깨어나게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만약 어떤 젊은 여자가 오늘 밤 잠이 든다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내일을 기쁘게 참여하고, 그녀가 오랫동안 계획하였던 그 날에 참여하며, 열렬히 갈망하는 것에 참여하면서, 거의 잠들기 힘든 그런 흥분을 갖고 잠자리에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 그녀의 꿈이 얼마나 달콤하게 될 것은, 아침이 그녀가 크게 갈망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왕국의 상속자들은 끝없는 영광 속으로 열려질 그 아침에 부활이 뒤따르는 잠 속에서 그렇게 눕게 될 것인가? — 사망과 부활 사이의 간격은 단지 짧은 밤의 달콤한 안식이 될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성취는 상상을 초월한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재림 때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21).

**떠나간 혼**

이제, 육신에서 분리된 혼의 상태에 대하여 보도록 하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구속 받은 자의 세상에 대하여 거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 현세에서 그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없는 죽을 상태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늘의 영광에 대한 어떤 합당한 이해도 할 수 없다. 한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께 선택되고 구속되고 구원받은 죄인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는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사랑의 징조를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신다.

사망 시에 우리 육신에서 일시적으로 우리 혼이 분리되는 즉각적인 효과에 대하여, 우리는 거의 들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모르면 모를 수록 황금산 보다 더 보배롭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약간 있다. 육신은 약속된 때 흠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고, 더 높고, 더 영적인 형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것을 안다. 성경의 증거와 은혜로 우리 마음에 인침된 말씀의 증거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 (전도서 12:6-7; 고린도후서 5:1-9).

### 즉각적인 영광

나의 혼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즉시, 나는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며, 육신 안에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듣지도 않았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축복된 상태 가운데 우리 혼에 합당한 육신이 될 것이다.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별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다.” (고린도후서 5:4).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스테반은 그가 죽는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계신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외쳤다.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55-58). 육신이 땅 속에서, 예수의 품 안에서 부활의 아침까지 달콤한 잠을 자는 동안, 혼은 주와 함께 있다. 이것에 대하여 인지하는 확신 가운데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2).

## 자아의 해방

그 순간, 우리는 즉시 자아가 제거되고 자아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육신 안에 우리 영이 갖혀 있게되는 그 모든 이기적 성품으로부터 해방 될 것이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억누를 수 없는 그 자기애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영적 본성에 속한 것이라 할 지라도, 자아를 띄고 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직접 계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상한다면, 만약 그분에게서 어떤 새롭게 된 계시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콤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다면, 만약 그분의 은혜나 은혜에 속한 어떤 특별한 체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다면, 자아와 자기애와 사리가 우리 모든 생각들을 부패하게 한다. 하늘에서, 그것은 존재가 끝날 것이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모든 존재와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모든 것에 관계 없이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그분의 어떠한 심 때문에, 모든 이기주의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없어진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5 장에서 말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화복하게 된 것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선포하고, 더욱 더 그분의 생명으로 화복하게 되고 구원 받음에 대하여 그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더한 후 었다 (로마서 5:10-11).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여기서 그분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축복이다. 그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며, 모든 기쁨의 원천이다. 그곳에서 자아는 그분 안에서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혼이 육신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즉각적인 효과다.

## 얼굴을 맞대고

내 혼이 내 육신에서 분리되자 마자, 나는 모든 영광의 구원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열린 분명한 시력으로, 나의 혼과 나의 구원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바라 볼 것이다. 그것이 내가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매듭짓는다. 이것이 우리 구원자께서 갈망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24). 그 생각은 황홀함이 넘친다!

무한하신 그분의 존재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이끌어 내는 모든 유익들 보다 무한하게 더 좋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과 함께 삼켜질 것이고 흡수될 것이다 (요한일서 3:1-2). 우리가 영원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동안, 모든 다른 것들은 더이상 우리 생각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우리 마음 속을 채우지 않을 것이다. 거기

에는 그분을 위한 공간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고 그분으로 더욱더 채워질 것이다!

주 하나님은 한 때 하늘에 별을 매다셨고 세상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빛나는 영광스러운 별이었다. 아무도 그 별에서 눈을 뗄수 없었다. 그러나 그 별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발견된 곳을 가리켰다. 그것이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라. 그의 별을 보지 말고,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것 같으며,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다!”(히브리서 1:3). 그것은 구원자의 품 안에서 잠들고 영이 “그의 주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자 마자,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의 즉각적이고 영원한 체험이다.

### 축복된 재회

몸과 혼의 이 분리는 아주 짧고, 일시적인 분리다. 육신은 예수 안에서 잠든다. 그리고 혼은 그리스도의 임재의 끊임 없는 기쁨 가운데 분리된 시간 동안 산다. 그러나, 곧,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실 것이다.”(데살로니가전서 4:16). 그러면 혼과 몸의 영광스러운 재회가 있을 것이며, 나만을 위함이 아니고, 당신만을 위함도 아니며, 모든 은혜에 속하여 택정한 자를 위함이다. 잠들어 있는 모든 성도의 육신들은 한번에, 순간적으로, 눈깜짝 할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자가 그리스도, 몸의 영광스러운 머리와 즉시 연합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 그리고 모두에게 영원히 분리될 가능성이 없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신부의 기쁨이 어떤 것이 될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기 위하

여”(데살로니가후서 1:10) 그분이 오실 그 때, 우리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승리가 어떤 것이 될지! 혼과 몸의 그 재결합 때의 느낌이 무엇인지 조금도 상상할 수 없다. 자아의 두 부분, 비탄과 사별과 사망의 순간에 분리된 그것들은 주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만나서 영원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사망이 떠나버린 육신에 있는 차갑고 습한 사망의 땀은 생명과 불멸의 모든 온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연합함 속에 가라앉은 몸은 권능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천연적인 육신에 심겨졌다.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 위에서 내려올 것이며, 상아 궁전에서 향기를 발한다. 그리고 몸이 혼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 더러운 몸에서 영광스럽게 된 몸으로 변화되고, 혼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충분히 예비되고 완전히 자격을 갖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그 얻으신 것의 구속”(에베소서 1:14)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혼을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유다서 1:24) 주실 것이다!

내 혼을 구속하신 그는 자신의 약속된 시간에 내 혼을 거둬나게 하셨다. 그리고 내 몸은 그분께는 내 혼보다 덜 소중하지 않다. 그의 얻으신 소유처럼 내 몸을 구속하신 분이 거룩하게 약속된 시간에 내 몸도 영원한 생명으로 거둬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해 동안 심각한 방해가 없이 내 마음의 생각과 목상이 되어 왔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하게 삶을 즐겨왔다! 내가 이런 생각들을 내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을

것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계속 구할 수 있기를 그의 옛신랑과 함께 주 예수께 외치며 나는 기도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가 2:17).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찐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7).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대가 없으며, 영원한 은혜의 복된 소망 안에서 살도록 오늘로부터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인치시기를!

## 74 장. 우리 친구들이 잠들었다—요한복음 11: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요한복음 11:11)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나사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주 안에서 복되게 죽은 모든 자들에게 실재가 된다. — 그들의 육신은 땅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잠들었다.

우리에게는 그 육신이 땅에 묻힌 많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랑하던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던 자에게 뺨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고했는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나사로에 대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친구들이 잠들었다.”고 말할 것이다.

### 배경

앞선 구절들에서 주 예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셨던 자인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전한 마르다와 그 누이 마리아로부터 온 가슴아픈 소식을 받았다. 나사로가 죽은지 이틀 후에 그분은 베다니로 향하셨다.

요한복음 11 장에서 계시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이다. 이 장에 있는 모든 것이 우

리에게 그 계시의 축복을 보여준다. 부활은 사망이 온 곳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사망이 가져오는 황량함이며, 그 존재 안에서 사람의 무기력함이다.

첫째, 나사로는 죽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하고 함께 있기 위하여 베다니로 향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도마는 함께 사망하였을 주와 함께 베다니로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대하여 말한다 (요한복음 11:16). 그리고 마르다는 우리 앞으로 온다. 비록 그리스도가 계셨지만, 그녀는 오라비의 사망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다 (요한복음 11:21).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요한복음 11:32). 마지막으로, 사별한 자매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유대인들이 “흐느끼는 것”이 보였다 (요한복음 11:33). 그리고, 주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계셨을 때조차도, 그들은 그분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어나게 할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다 (요한복음 11:37).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그분의 경이로운 영광을 보이려는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배경인가!

## 영적 사망

우리 앞에 육신의 사망, 몸의 사망에 대한 그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훨씬 더 엄연하고, 비극적이며, 무서운 것에 대한 그림이고 결과일 뿐이다. 천연적인 사람은 범죄와 죄들 가운데 사망하였다.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이다.” 첫 사람인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 무서운 대가를 받았다.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던 그 날에 그는 죽었으며, 영적을 사망하였다. 사망이 그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형법 판결로 임했다. 아담은

사사로운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인류의 공개적 머리와 전체 대표로서 죽었다. 만약 당신이 나무를 자른다면, 나무 둥치를 그 뿌리에서 분리한다면, 그 나무는 죽는다. 그 줄기와 가지들과 이파리들은 시든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타락은 인류의 모든 구성원을 그와 함께 죽음으로 끌고 간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에베소서 4:18), 길을 잃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세상 전체에 걸쳐서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불길에 부채질 할 수 있을 생명의 불꽃 조차도 아무에게 없다. 타락한 사람은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만약 살고자 한다면, 그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것이 그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생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당신에게 주어져야 한다. 생명은 당신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생명이신 분인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형상되어야 한다. 어떻게 사망한 죄인들이 생명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수 있는가? 주 예수께서 그분의 피의 공로와 그분의 영의 권능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려 오셔야 한다.

그것은 여기 요한복음 11 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름답게 제시된 것을 본 것이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망의 임재 가운데 얼마나 철저히 무기력 한가! 죽은 당신은 무기력하다. 당신의 친구들은 무기력하다. 전도자는 무기력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는 무기력하지 않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아나도록 할 수 있다.

만일 죄인의 문제가 단순히 죄인 안에 있는 무지의 문제였다면, 우리는 진리의 분명하게 숙고한 말로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만약 그것이 단지 죄인의 구원의 길에 서 있었던 완고한 뜻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설득력에 좌우될 수 있다. 만약 죄인이 단지 아팠다면, 우리는 그가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무력하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26)라고 우리 구원자께서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답하셨다. 여기 빛이 밝혀지고 빛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4 절). 사람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기력하지 않다. 나사로를 자신을 생명으로 살릴 수 없었다. 그의 사랑하는 누이들이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슬퍼하는 친구들은 흐느낄 수 있었지만, 그들의 흐느낌이 나사로에게 들리지도 않았고 의미도 없었다. 그는 죽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께서 그림과 모든 변화 안으로 받을 들이셨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그분이 하셨던 그것이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끔찍하게 이상하게 보였음이 분명하다. 그분은 큰 목소리로 죽은 자에게 소리쳤다.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터무니 없는가! 만약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위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나흘 전에 일어나왔을 것이다. 마리아나 마르다, 혹은 사도들 중 어떤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쳤다면, 그는 죽은 채로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음성도 무덤의 깊음을 돌파할 수 없지

만, 여기 하나님이신 인자가 계시다.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칠 때, 세상을 존재로 불러냈던 동일한 전능한 입술은 무덤이 그 희생자를 포기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죽었던 자가 나왔다!” 그것이 정확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전능한 공훈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선택받고, 구속받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그분은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의 권능의 날에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구별된 부르심으로 불러내신다. — “나사로야, 나오라!” 그분의 은혜로운 부르심은 전능하며,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는 생명주는 부르심이다. — “그리고 죽었던 자가 나왔다!”

### 잠든 것에 비유된 사망

그러나, 그가 죽었던 시간과 부활 생명으로 나온 시간 사이에, 우리 구원자께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그의 몸은 땅 속에서 그를 사랑하셨던 그의 구원의 품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언급하시며, 나사로가 더 이상 산 자의 땅에 있지 않다고 선언하셨다. 성경은 종종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사망과 부활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혼이 몸에서 떠나 있는 동안 “잠든 것”으로 말한다.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림은 오직 믿는 자들과 관련해서만 사용된다 (고린도전서 15:20, 51; 데살로니가전서 4:14; 5:10). 이렇게 잠든 것은 혼의 어떤 상상속의 수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몸이 잠든 것을 가리킨다. 이 “잠든 것”에 대하여 일곱 가지 사항을 보이도록 하겠다.

### 무해함

첫째, 잠든 것은 완전히 무해하다. 잠든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이 없으나,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 수면은 친구이지 적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에게 대하여 사망과 함께 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 23:4).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승리의 말이 되어야 한다. “쓰는 것”이 사망에서 취해졌다 (고린도전서 15:56, 57). 그것은 말벌이 그 침이 뽑혀진 후 보다 구속받은 자를 상처 입힐 더이상 능력이 없다.

## 구제

둘째, 그 날의 비통과 수고 후에 반가운 구제 가운데 잠이 든다. 현자가 선포하였다. “노동자는…잠을 달게 자거니와” (전도서 5:12). 믿는 자들의 사망은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세상 속으로 죄와 혼란의 이 장면에서 지나가는 단순한 문이다. 고린도전서 3:22 는 우리에게 “사망”은 우리 것이라고 말한다. 잠든 것은 그것을 찾을 수 없을 때 크게 평가되는 공훈의 풍성한 안배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동일한 공훈이다. 내가 곧 “예수와 함께 잠들”것이고, 내가 므두셀라처럼 오래 살지 않을 것임이 얼마나 감사한지! —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2). 놀라운 약속이다! —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 니이다.” (시편 4:8).

사망은 육신에서의 결별이다. 사망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사망은 반가운 결별이 될 것이다. 사망은 힘들고 증오스런 친구로부터의 결별이다. Richard Baxter 는, “사망은 내 발을 아프게 하는 신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사망은 반가운 구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

했다. 이 욕신을 제쳐두는 것은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낡아진 도구를 따로 두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종의 섬김이 끝났을 때 그것은 해제 될 것이다.

이 욕신은 나의 가장 큰 적이었다. 내가 욕신을 사랑해왔고 과분하게 사랑했던 만큼, 나는 무덤에 욕신의 이 몸을 보내야 한다. 그 속에 욕신은 무시당하고 끔찍한 존재로 어둠 속에 놓여 썩어야 한다. 이 눈들이 더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손들이 더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이 발은 더이상 걷지 못할 것이다. 이 혀는 더이상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흙에서 욕신이 왔고, 흙으로 욕신이 돌아가야 한다. 흙은 흙으로, 물은 물로, 공기는 공기로, 재는 재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죄의 열매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욕신은 오직 내 껍데기, 내 성막, 내 천막, 내 옷이나 나 자신이 아니다.

욕신이 내게 고통과 수고와 비통을 일으켰다. 욕신은 나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요구하였다. 나는 욕신을 포기하면 기쁠 것이다. 나는 오랜 체험으로 이 욕신의 몸이 내 혼을 위한 고통스러운 거처였음을 안다.

내가 이 몸에서 자유롭게 될 때, 부패의 속박과 죄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로마서 7:24). 죄의 이유로 인하여, 이 몸은 치명적이고, 잔인하고, 불결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욕신을 썩어가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건강에 대하여 신경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큰 악행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욕신을 애지중지하고, 편하게 하고, 만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관심과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아주 곧, 욕신은 무덤에서 썩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혼이다. —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육신의 안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36; 디모데전서 6:6-8 을 보라).

## 잠시

셋째, 잠든 것은 짧은 시간 동안일 뿐이다. 우리는 누웠다가 곧 다시 일어난다. 잠든 것은 잠시이고 지난해들로 더 잠시이다. 우리는 그날로부터 얻은 몇 시간 동안만 잠든다. 아침에 우리는 깨어나 일어나서 새 날을 맞는다. 그리고 사망은 단지 짧은 수면이다. 곧 새 날에 이르는 깨어남과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것이다. —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2).

영광스러운 부활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깨어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잠들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온전한 날 전체에 걸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 절)

## 안식

넷째, 잠든 것은 안식의 시간이다. 그날의 일이 밤의 달콤한 휴식으로 교환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다. —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계시록 14:13).

이것은 단지 중간 상태, 우리 몸이 땅속에서 잠든 동안인 사망과

부활 사이에만 적용된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우리 영광스럽게 된 몸을 받을 때, 우리가 참여할 새로운 사역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계시록 22:3).

## 차단함

다섯째, 잠은 삶의 고통을 차단한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루를 통하여 우리를 괴롭힌 것들과 우리에게 고통과 비통과 슬픔을 주었던 것들에 대해 은혜스럽게도 의식하지 못한다. 밤에 자는 잠은 낮에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환영의 안도를 준다. 따라서 그것은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흘린 눈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분명히 죄인들의 구원이 높이 선포될 때 기뻐하도록 되어 있다 (누가복음 15:7, 10).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모두 비통함도 두려움도 눈물도 없이 우리가 경주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다 (히브리서 12:1-2).

## 쉽게 깨어남

여섯째, 잠자는 자는 쉽게 깨어난다. 사망은 주께서 우리 몸을 깨우시게 된다는 것이 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잠자는 것과 비교된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회의론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을 잠에서 깨우는 것보다 그분께는 더 간단할 것이다. 잠들어 있는 자를 그렇게 빨리 깨울 음성은 다른 사람의 목

소리, 특히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28-29) 라는 말을 듣게 된다.

## 준비

일곱째, 잠자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 몸이 내일의 임무를 위하여 맞춰지는 시간이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날 때는 새롭게 되고 활력을 갖고 일어나며, 그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준비되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믿는 자는 새 능력으로 입게 될 것이다. 죽을 몸의 한계들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약함 가운데 심겨진 그것이 능력 가운데 솟아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40-49). 무엇이 “영적 몸”인가? — 내겐 실마리가 없다. 또 어느 누구든 실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의심스럽다. 그러나 내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꿈쩍못하게 된 한계들이 없는 몸이라는 것이다. Luther 는 부활 육신은 생각한 것처럼 활기차다고 제시하였다. Augustine 은 부활 육신 안에서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즉시 어떤 곳으로든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rome Zanchius 는, “새들이 알에서 깨어나오고, 하늘로 가볍게 날지만, 알이 있을 때, 무겁고 끈적한 것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활로 깨어나서, 순수하고 민첩하게 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썼다.

그리스도 만을 구원자와 주로서 신뢰하는 모든 자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려” 오실 때, 그들이 축복을 받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가운데 발견될 것이라는 하나님 자신

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 곧 사망으로 혼과 몸이 나뉘는 일이 발생 할 때를 거룩한 기쁨과 기대로 기다리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승리와 영광에 대하여 준비시키신다!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승리들이 하나님의 결집된 창조 전인 그 날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 하나님의 성도들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의 더욱 위대한 나타나심을 위한 예비 수단인가? — 내 혼과 육신의 이런 일시적인 분리가 나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구원자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한 경우를 제공하는가? — 만약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무섭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참여하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살 가치가 있고, 나를 시체에서 살리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개인적 영광은 죽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혼의 들림을 늘리사, 나의 약속된 떠남의 시간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것은 나의 몸이 밤 중에 우리 구원자의 품 안에서 잠들고 아침에 그분의 형상 안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 복된 소망

사도가 이것을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고 부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 성취는 상상을 넘어서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21).

몸과 혼의 분리가 단지 짧은 일시적인 분리임을 다시 상기키겠다. 몸은 땅 속에서 구원자의 품에서 잠든다. 그리고 혼은 그 분리된 시간 동안 그분의 임재의 끊임 없는 기쁨 안에서 산다. 그러나 곧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또 당신뿐만을 위해서도 아니라, 은혜로 택정된 자 전체를 위하여 혼과 몸의 영광스러운 재연합이 있을 것이다. 잠자는 모든 성도의 몸은 즉시, 순간적으로, 눈깜짝 할 사이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즉시 몸의 영광스러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께, 그리고 서로, 더이상 나뉘게 될 가능성이 없이 영원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신부의 기쁨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그분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실때,” 우리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승리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혼과 몸의 그 재 연합 가운데 그 느낌이 어떤 것일지에 대하여 조금도 생각할 수 없을만큼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비통하고 사별하며 사망하는 순간에 분리된 자아의 두 부분은 주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만날 것이고 영원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몸에 임한 차갑고 썩늘한 축축한 죽음으로 혼이 몸에서 떠났지만, 생명과 불멸의 온기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연합함 가운데 가라앉은 몸은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천연적인 몸에 심겨졌다. 그것은 영적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상아 궁전에서 향기를 풍기던 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며, 몸은 혼을 만나기 위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제 불결한 몸에서 영광스럽게 된 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

여 바뀌었고, 흔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예비되고 완전히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소유로 사신 자의 구속”이라 부른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혼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유다서 1:24) 주실 것이다!

나의 혼을 구속하신 그가, 그분 자신의 약속된 시간에, 나의 혼을 거둬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몸은 그분께 나의 혼보다 덜 귀하지 않다. 사신 소유로서 나의 몸을 구속하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내 몸을 다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거둬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10-11). 나는 결코 이 생각을 내 마음으로부터 멀리 두지 않을 것이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지속적으로 구할 것을 그의 옛 신부와 함께 주 예수께 울부짖으며 기도한다 —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가 2:17).

## 소망 없음

그러나 아 얼마나 엄청나게 다를지,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그 날이 되면. 당신의 죄들 가운데 죽으며,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다면, 당신의 몸의 사망 후, 지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뉠 것이며, 저주 받은 자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두 번째 사망” 외에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없다! — 달콤함도 없이, 단지 영원히 늘어나는 괴로움 뿐이다! — 아무런 안식도 없이, 단지 영원히 늘어나는 저주 받은 뿐이다! — 축복받음도 없이, 단지 영원히 늘어나는 절망적 상태 뿐이다!

그렇다, 당신도 역시 사망에서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것은 “저주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당신의 몸은 일어나서 오직 불못에서 저주 받은 자의 영원한 고통을 더 격심하게 받게 될 뿐이다.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고, 영원한 악몽의 지옥일 것인가! — 흑암 뿐이다! — 죽지 않는 벌레들이다! — 꺼지지 않는 불이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은혜롭게 주시기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당신에게 은혜롭게 주시기를, 또 당신이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기를! 주를 찾을 수 있는 동안 주를 찾아라. 무덤 넘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 하나님의 영이여, 아, 모든 은혜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 축복의 구원자여, 오셔서 당신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타오르는 불에서 꺼낸 인두처럼 택함받고 구속받은 죄인들을 끌어내소서!

## 75 장. 그리스도 우리 부활—요한복음 11:25-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사람이 그것은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가르침의 방면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산다. 바울처럼, 나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19)고 말하겠다. 그 선언을 하면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의 삶이 슬프고 우울한 삶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사도는 분명히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실로 더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 가운데 행함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용병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득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말할 때, 그는 단지 이것을 의미한다. — 만약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없고,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영원한 기쁨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그

러면 믿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실패한 사람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진실로 갈망하는 것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소망의 마지막을 결코 보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리스도를 품거나, 그분에게 안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 구속자를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견딜 수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보다 더 괴롭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오직 개처럼 죽는 것 외에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보내길 바라는 소망에 사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것은 있을 수 없다. —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상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지 않다.

## 부활의 소망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다. 그리고 우리 소망은 확실하고 견고하다. —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기 19:25-27). 질병 가운데 우리는 조용한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비통 가운데 우리는 평화로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시험과 환란 가운데 우리가 편안한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사별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

리고 우리가 확신과 기쁨 가운데 죽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신학적 정통의 관점에서 믿음보다 훨씬 더 많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개인적인 일이다. 사실상,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교리에 대하여 실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한 인격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영광스러운 증보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부활이다.

부활의 복된 소망은 어떤 어리석은 자의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시험들을 처리할 수 있는 단지 종교적 안정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는 마음의 조용하면서 자신감 있는 확신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결과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대표자의 부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데,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전형적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5-6). 그가 이 땅에 살았던 동안, 우리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는 그분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그분의 보좌를 취하시며 사망에서 사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에베소서 2:4-6).

만세! 신성한 연합이여, 확고하고 강하도다,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가, 얼마나 달콤한 노래인가!  
무덤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분이 부활할 때 한 사람,  
그의 적을 물리쳐 승리할 때 한 사람,  
하늘에서 그가 그의 보좌를 취했을 때 한 사람,  
스랍들이 모든 지옥의 패배를 노래하는 동안.

세상 모든 것 중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경이롭고, 더 심오하며,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로 구원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에 대한 중심이다. 그리스도와 우리 혼의 이 연합과 우리 혼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아무런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며, 복음에 의해 빛으로 나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비밀이고 알려져 있지 않다 (로마서 8:28-30; 에베소서 1:3-6; 디모데후서 1:9-11).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합법적이고 대표하는 연합이다 (로마서 5:12, 18-21).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살아 있고 생생한 연합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 낳 안에서 형체를 이룰 때 나타나게 되는 연합이다 (골로새서 1:27).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생명과 은혜에 속한 영원한 연합이다 (요한복음 17:22-2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과 그분이 체험하셨던 모든 것, 하나님의 택하신 자 모두가 그분 안에서 행했고 체험하였던 것은, 그분과 우리의 대표자적 연합 덕분이다. 그분의 율

법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었다 (로마서 5:12, 18-21). 죄에 대하여 형법상 희생으로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다 (로마서 6:6-7, 9-11; 7:4). —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속량이다!

우리 주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었다. — 이것이 우리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혼이 안식하는 계시와 역사의 명백한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5:1-8). 부활을 반박하면 당신은 복음을 반박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17).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 예수의 여섯 가지 뚜렷한 출현을 언급하도록 영감을 주셨다. 그 모두에서 성경은 살아나신 주께서 그분 자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열두 번이나 기록한다. 더 많은 출현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3). 그러나 이 열두 건이 기록되어 있다.

1.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11-18).
2.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9-10).
3. 글로바와 그 친구들 (누가복음 24:13-35).
4. 시몬에게 (누가복음 24:34; 고린도전서 15:5).
5. 제자들에게, 도마가 없을 때 (요한복음 20:19-23).
6.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을 때 (요한복음 20:24-29).
7. 갈릴리 바다에서 일곱 명에게 (요한복음 21:1-14).
8.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16-20).
9. 오백 명에게 (고린도전서 15:6).

10.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7).

11.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감람원에서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4-11; 누가복음 24:50-51).

12.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사도행전 9:3-7).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물질적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부활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우리를 위하여 신비스럽고 대표하여 행해진 그것이 우리에게 의해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 몸의 한 지체를 잃는다면, 몸은 불구가 되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12, 27). 만약 그 몸의 한 지체를 잃는다면, 그 머리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서 1:22-23). 우리의 이 몸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에 같은 모양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빌립보서 3:21; 요한복음 17:24). 주 예수는 잠자는 그들 가운데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20). 풍성한 수확이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의 머리의 형상을 품었던 것처럼, 두 번째의 형상을 품어야만 한다 (고린도전서 15:21-23, 47-49). 우리 구속자, 우리 구원의 대장은 그분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승리를 얻으셨다: 죄, 사망, 지옥, 무덤, 그리고 마귀 (골로새서 2:13-15; 히브리서 2:14-15).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정들은 우리 부활의 시간까지 완료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6:37-40).

## 영적 부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며, 첫째, 그분이 사망에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대표되게 부활한다. 둘째, 우리가 거듭남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다. 우리가 사망에서 일으켜졌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므로,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안다.

새로 태어남은 다름 아닌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첫째 부활이다 (계시록 20:6; 요한복음 5:25; 11:25-26; 에베소서 2:1-10; 골로새서 2:9-15; 3:1-3).

## 부활 소망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대표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이다. — 둘째,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며, 부활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 그리고, 셋째,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사는데, 우리가 부활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믿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28-29).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코 사망하지 않는다! 그 날에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살아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35-44, 51-59;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데살로니가후서 1:7-10; 빌립보서 3:21). 이것은 어떤 비밀스런 들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분에 의한

부활일 것이다.

곧 이 몸은 죽어야 하나니,  
이 숙명의 틀은 썩어가네;  
그리고, 그렇다, 나의 육신은 돌아올 것이라  
재로, 공기로, 또 진흙으로?

썩는 것도, 흙도, 벌레도  
다만 이 육신을 정화할 것이니,  
내 승리의 영이 오는 때까지  
그것을 새로운 시작에 두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구속자가 사시니! —  
하늘로부터 오신 나의 구원자  
내려다 보시고, 나의 모든 욕망을 지켜보시니,  
다시 살리실 때까지라.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꾸며진  
내 육신이 그 때 빛날 것이라,  
(몸과 영과 혼의 연합됨이라!),  
생명 안에서 권능의 신성으로.

내가 빛진 이 축복의 소망이  
예수의 죽음의 사랑으로라.  
나의 생명과 부활도 또한, —  
내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

친애하는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이 가련하고, 죽을 자의 노래를,  
고귀한 소리의 선율을 올려드릴 때까지  
불멸의 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 하도록 하자. 그리고 확고하고 움직이지 말고, 주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도록 하자. —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 저주 받은 자의 부활

저주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29). 사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심판 받고 저주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것이다. 믿는 자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판결받고 그것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가 연합한 덕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진노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사랑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처형을 위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혼인을 위하여 부활하게 될 것이다. —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곧 당신과 나는 심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10-11).

## 76 장. 놀라운 사랑—요한복음 11: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요한복음 11:36).

나사로의 무덤에서 흘린 주 예수의 눈물은 무덤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경이로움을 낳았고, 그들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라고 외쳤다. 그러나 하늘로 난 죄인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에 대하여 아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의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더욱 컸을 것이다. 아, 우리가 항상 늘어나는 놀라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았을 것이다!

우리 혼을 향한 구원자의 사랑의 영원함 속에서 읽어야 할 책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뚜렷하고 구별되는, 명백하고, 개인적이며, 세심한 사랑이여! 진실로, 나의 구원이여,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쪽으로 한 번의 눈길을 던지시는 것에 경이로와 하며, 이스라엘의 성자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로 택하심에 경이로와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하다: — 그것은 실로 경이롭다!

영원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므로, 우리 삶의 날과 주와 달과 해를 돌아보고, 시간의 세대와 섭리의 경이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역사가

그분의 창조물에 계시되므로, 모든 피조물이 경이로움으로 선택받고 구속받은 죄인 하나 하나를 바라볼 것이며, 우리가 경이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우주가 구원받은 죄인 각각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여정을 통하여 그분의 동정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대가 없이 흘리셨던 보혈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하고, 우리 위에 임하며, 우리 안에서 공홀과 은혜에 속한 그분의 다양한 역사들 가운데 그 사랑의 달콤한 징조와 증거들을 본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경이로움으로 울부짖어야 한다. “보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만약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올바른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자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도록 사랑하셨는지 종종 서로 일깨우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보다 나은 틀 안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과 하는 우리 대화는 종종 이 축복의 주제로 끝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우리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한다. 구원자의 사랑이 우리 생각을 차지하심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지속적인 주제가 되었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어떤 달콤하고, 복되고, 신선한 체험을 말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스포츠에 대하여 이야기를 덜하고 구원자에 대하여 더 말하고, 정치에 대하여 덜 말하고 섭리에 대하여 더 말하며, 사업에 대하여 덜 얘기하고 피에 대하여 더 말하고, 돈에 대하여 덜 말하며 공홀에 대하여 더 말하고, 계시하는 것에 대하여

덜 말하고 구속에 대하여 더 말하고, 불경기에 대하여 덜 말하고 구속자에 대하여 더 말하며, 대통령에 대하여 덜 말하고 왕에 대하여 더 말하도록 하자!

곧, 강 건너 그 땅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대화를 위한 다른 아무런 주제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구원자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우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우리 혼에 대한 구원자의 경이로운 사랑에 대하여 당신에게 간단히 상기시키기를 원한다. 사랑은 그 실행으로 가장 잘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 위대한 구원자의 큰 사랑의 행위, 우리 축복의 구속자에 의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한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상기하고자 한다.

## 보증계약

첫째,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사랑의 위대한 행위에 대해 약간의 생각을 해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언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 세상이 창조되기 오래전 이었다. —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 영원 전으로 되돌아가서 우리 구원자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보증으로서 우리 사건을 변호하고 맡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그분의 사랑의 첫 번째 증거를 주셨다. 그분은 강탈되었고 무너져 내린 성으로 인성을 바라보셨다. 그 성의 잔해 속에서, 그분은 모든 불결한 것들을 보셨다. 누가 그 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누가 빼앗긴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가? 누가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가? 그 파괴된 궁전을 회복

하는 위대한 일을 떠맡을 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고 오직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신 분 밖에 없다. —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천사들이 찬양하기 전, 혹은 해와 달과 별들이 고대 어둠을 가르고 그 첫 번째 광선을 던지기 전에, 그리스도 주께서 그분의 백성의 사건을 변로하시기 위하여 앞에 서계셨고, 자신이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 가운데 우리가 잃어 버렸을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소유였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로 그분 자신에게 서약하셨다. 그렇다, 영원 전부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으며, 영원까지 그분의 선택한 자와의 기쁨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먼 과거에, “교회에 대하여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와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만 존재 하였으며, 나의 그 혼은 기쁨의 들림 가운데 외친다.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비밀스럽고, 영원한 삼일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의 대표자가 되고 보증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보증 관계가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을 잘 아시므로 우리 혼을 위한 보증이 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요구를 만족하실 것을 취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상하할 것을 맹세

하였고, 또 (그분의 이름이 영원함을 찬양하라!)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시편 15:4).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 은혜의 언약 가운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를 그분의 의로운 종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다. 그분은 택하신 모든 양을 선한 목자의 손에 위탁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보증으로서 모든 것의 책임과 모든 것 위에 책임을 주셨다 (에베소서 1:3-14). 그렇다,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를 구속하고, 그분의 은혜로 그들 모두를 지키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이 없게” 그들을 드릴 것을 언약하셨다. 따라서, 야곱이 그의 책임에 위임된 전체 양떼에 대하여 라반에게 책임지게 되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 떼의 위대한 목자로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그의 보호에 맡겨진 전체 양떼를 구속하고 지킬 책임을 지셨고, 따라서 마지막 큰 점호 때 그들은 양떼를 세는 그분의 막대기 아래를 지나게 되며, 그들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그분만이 그분께 맡겨진 양 떼에 대하여 책임지게 되었으며, 그분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 큰날에 축복의 목자-아들-보증이신, 우리 친애하는 구원자께서 그분의 아버지께 말씀하실 것이다. “내게 주신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으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나이다.” (요한복음 17:1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표자와 보증이 되셨던 것과 우리 대신하여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충만케하려 약정하셨던 것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였다. 이 위대한 공훈의 비밀에 대하여 생

각할 때, 참으로 그분의 소유인 자는 모두 분명히 감사의 기도로 외치게 될 것이다.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 성육신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 시간의 충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셨고 그분 자신에 우리 본성을 취하셨다. 우리가 “하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셨던 엄청난 희생을 합당하게 감사할 수 없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의 주이고 우리의 주께서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자의 씨가 되시고, 여자에게서 나시도록 낮아지셨을 때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성육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알아챌 수 없었던 비밀들이 있었다. 그들이 구유에서 십자가로 또 무덤으로 가신 그분의 경이로운 길 위에 남기신 인자의 발자취를 따라갔으므로, 그들은 종종 엄청난 경이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8:9).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문제들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천사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갈망하던 것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잘 알았을 것이다! —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디모데전서 3:16).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나눌 수 없는 연합 속으로 피조물의 본성을 취하셨다. 경이로움 중의 경이로움이다! —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6).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 아 우리 마음의 영광스러운 신랑이여, 당신의 다른 어떤 사랑도 당신의 사랑 같은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아버지 편을 떠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 그렇게 낮아지셨고, 그것은 바울이 선포한바와 같이, “우리는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들이라.” 우리가 오직 반복하여,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선포할 수 밖에 없는 높은데서 임하는 은혜와 긍휼의 놀라운 경이로움이다.

## 구속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빌립보서 2:8), 그는 사망,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사망에 순종하시게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품으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품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공의의 하얗게 타오르는 뜨거운 화염 아래에서 품으셨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원한다면, 만일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기 원한다면, 겐세마네와 가바다와 골고다로 가라! 갈보리 산으로 가라.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24), 그분이 자신에게 그분의 택하신 모든 자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셨을 때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라.

주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고린도후서 5:21).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

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13-14).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완벽하였던 분이 그렇게 더러운 짐을 짊어지실 수 있었나? 죄를 모르셨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으며,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가 되셨나? 어떤 인간도 그런 것을 하나도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죄를 모르셨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로 죽으셨으며, 우리를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6).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 은혜에 속한 위대하고 영원한 언약의 충만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으로부터 흘러나왔을 모든 영광과 축복의 기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이사야 53:10).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의해 버림받았을 때, 그 상함과 그 질고가 어떤 것이 있어야 했는지에 대한 조금의 개념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주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직 그분의 고난의 꺾뎀기일 뿐이었다. 그분의 혼의 고통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라고 외치게 만든 것이었다. 그

리고 그것은 보배로운 “날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며, 죽고, 충만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늘과 영원에 속한 “풍성한 열매”를 산출하였다. —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 공동 상속자들

여전히, 더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심으로써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임을 선포한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남편이며, 그분의 교회는 그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이며, 지금이라도 그 신부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분이 소유하신 것이 없으며, 그 신부의 소유가 영원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영원히 우리 소유가 아닌 것을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은 없다! 파괴될 수 없는 혼인 증서로, “이 혼하는 것을 미워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택하신 신부를 의와 진리 가운데 그분 자신에게 배우자로 삼으셨으며, 그 신부는 영원토록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분은 그곳의 많은 저택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소유 삼으시려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셨다. 그분의 중보 기도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24) 이다. —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 보존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날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중

중 생각해 보라. 아,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지만, 우리는 그분께 나가지 않으려 한다.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스럽게 부르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호하게 우리 마음을 냉혹하게 하고 그분을 거절하였다. 우리 가운데 몇에게는, 이 거절은 수년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것에 놀란다. 하지만,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들에게 은혜롭게 기다리신다. —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사야 30:18).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인내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욕을 견디신다. 우리의 모든 반역의 날들동안, 우리가 열렬하게 우리 부정히 사랑하는 자를 좇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우리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셨고, 열정적으로 우리를 찾으셨다. 그것이 호세아 1-3 에서 그분의 선지자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묘사된 것이다.

## 거듭남

마침내,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정복하셨으며, 우리가 거듭남 가운데 그분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으며,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우리와 산 연합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다! 많은 날들이 그 때로부터 지나갔으며, 우리가 처음 그분을 신뢰하였을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이제 돌이키도록 당신에게 요구한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어 버렸을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경이로움과 제멋대로로 그 사랑을 시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채우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불은 여전히 처음처럼 맹렬하게 타오르기만 한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낮게 타락하여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감동의 능력이 없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슬을 마땅히 받지 못할 인조풀과 같으나, 하지만 그분의 사랑의 이슬이 부드럽게 우리 위로 내리며 우리 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우리의 냉담함을 인내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도발을 품으신다. 그분은 우리 모든 범죄를 용서하신다. 비록 우리 마음이 그분께 얼음같아도,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불탄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문을 닫아도, 그분은 문의 작은 구멍으로 손을 내미시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이끄신다. 아, —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에 모든 기념비이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 오는 여자가 누구이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여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찌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 8:5-7).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에 대한 어떤 묘사인가! 5 절에서 “그 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예레미야 31:3)고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이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라고 선포하신 분이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를 사막의 땅에서 찾으셨고,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으셨다 (신명기 32:10).

주 예수는 여기에서 그분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교회가 응답한다.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에 “저를 인 같이 품을”뿐만 아니라, 당신의 품에도 품으소서 — 당신의 사랑의 처소이고 당신의 힘의 처소 — 가장 부드러운 감동과 가장 깊은 열정의 처소이며 능력과 안전과 역사의 처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것인가? 그의 사랑은 죽음처럼 확고하고 거부할 수 없다. 그것은 무덤처럼 양보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질투의 사랑이다. 그것은 불, 불타는 석탄, 여호와 의 바로 그 불길에 비교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그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결코 측량할 수 없다. 우리 구원자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사랑이다. 다른 어떤 사랑도 실제로 마르지 않는 것은 없으나, 우리 구원자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영존하며, 변치 않고 바뀌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나 자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훨씬 넘어선다. 그리스도

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유일한 하나 뿐인 사랑이다. 하늘에도 땅에도 지옥에도 아무 것도 꺼버리거나 식혀버릴 수 없는 단 하나의 사랑이다. 그 차원이 모든 측량을 넘어서는 단 하나의 사랑이다 (에베소서 3:14-19).

우리 구속자의 사랑은 여기서 꺼질 수 없는 불에 비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아무리 많은 물도” 그 사랑을 꺼버릴 수 없다고 확인된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홍수로도 잠기게 할 수 없는 생명에 속한 것이다 (시편 69:15, 93:3).

치욕과 고난의 물은 사랑을 마르게 하고 잠기게 하려 하였다. 그 물은 사랑의 넘쳐 흐름을 방해 하였고, (베드로처럼) 구원자와 십자가 사이로 왔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갈보리로 가는 길에 말라 버리기를 거부하였다. 여기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은 그 가는 길에 모든 장벽을 뛰어 넘었다. 그 사랑은 꺼지거나 잠기기를 거부하였다.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의 생명은 물에 잠길 수 없을 것이다.

사망의 물은 그 사랑을 마르게 하려 하였다. 사망의 파도와 너울은 우리 혼의 위대한 사랑 위로 올라갔다. 무덤이 그분의 사랑을 차갑게 하거나 마르게 하려 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스스로 사망보다 더 강함을 입증하였다. 사망도 무덤도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변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 없었다. 그 사랑은 이전처럼 강하게 사망과 무덤에서 나왔다. 사랑은 사망을 무기력하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였다.

우리의 무가치함의 물은 우리 혼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르게 하거나 잠기게 할 수 없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스러운 그것에

이끌린다. 어떤 추하고, 혐오스럽고, 매력 없는 것이 올 때, 사랑은 (부르는 것처럼) 그 대상으로부터 빼앗긴다.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모든 부적합함과 사랑스럽지 않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르게하거나 잠기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에게 매달려 떨어져나가기를 거부한다.

우리의 오랜 거절의 물은 그것을 마르게 하려 하였다. 스스로에게 반복하지만, 그 반복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얼마나 속히 있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무가치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속박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계속하여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였다. 우리는 그분을 중요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멸하기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 대적 위로 올라섰고, 우리의 불신 위로 올랐으며, 우리의 완고함에 살아남았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은 마르지 않았다.

비록 그분이 견줄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 매일의 모순의 물결이 그분의 사랑을 마르게하려 한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흠모할만한 은혜를 체험한 후 조차도, 우리는 계속하여 그분의 멸시할 수 없는 사랑을 경멸하고 있다! 구원자의 사랑에 대항하여, 그 불을 끄려하고 그 생명을 잠기게 하려는 강력한 홍수처럼, 우리에게서 매일 쏟아지는 모순과 냉정함과 미지근함과 불신과 세상적임과 완고함과 철저한 사악함이 어떠한가! 하지만 그 사랑은 모든 것에도 살아난다. 그 사랑은 마르지 않고, 마를 수 없고, 변하지 않은채 남아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무한한 악은 죄의 격류, 악의 너울, 그리스

도의 사랑을 마르게 하고 잠기게 하려 계속하여 애쓰는 “홍수” 같은 “물들,” “많은 물들”과 같다! 그것들은 그분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 다른 어떤 덜한 사랑도 전멸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의 사랑은 변할 수 없으며 영원하다. — “보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유대인들이 우리 주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흐느끼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눈물은 특별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의 특별한 사랑의 위대한 징조는 그분이 흘리신 피다 (로마서 5:6-8; 요한일서 4:9-11). 그것은 피로 산 믿는 자 각자에게 그것은 아주 잘 들렸을 것이다. “보라, 그가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주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간이 결코 없었다. 그분의 소유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다. 그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소유를 각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택정하신 자를 위하여 소유하신 사랑은 특별하고 각별한 가족애이며, 그분의 소유 외에 누구를 위한 사랑도 아니다. 그분은 야곱을 사랑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다. 언제나 그랬었다. 언제나 그럴 것이다.

주는 그분의 백성을 인내력 있게 사랑하신다. 비록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고,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의도적인 선택으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파기되지 않았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후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그쳐지거나 차갑게 식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인내하

며, 오래 참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언제나 사랑하셨던 그런 자들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 없다. 우리 구원자는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3:16). 그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므로 그분은 자원하여 우리 대신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도 강하여, 우리 혼의 대가가 그분 자신의 보혈이었음을 아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의 피를 기꺼이 쏟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 모두를 구원하여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갈망의 감정 이상이다. 그분은 그 소유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갈망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시다. 그분의 사랑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다. 그분이 그 혼을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실 때, 옆에 헛되이 서서 그가 사랑하는 한 혼이라도 멸망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잔혹한 괴물에 어울리는 그런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만족하게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결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호세아의 사랑은 고메르의 마음을 마침내 정복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의 마음을 마침내 정복할 것이다. —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리라.” (시편 110:3). 이 특별하고, 대가 없으며, 주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모든 백성을 만족하

게 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영원동안 필요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소유로부터 선한 것을 주시기를 그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위대한 날에, 하나님의 창조는 경이와 놀라움 가운데 물러갈 것이며,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 “보라, 그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엎드려 절하라, 오 나의 혼아,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과 대가 없는 구원 가운데 사랑이 내게 가져다주실 부요하고 한 없는 공훈과 은혜를 생각하는 한편,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그분께만 드리라. 나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가 전적으로 모든 것의 이유이다. 그와 같은 특징 있고, 대가 없는 공훈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후, 나의 모든 반복되고 심해지는 범죄들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을 꺼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도록 경이로운 일이다. 오히려, 그는 나를 처음부터 그랬듯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 아 뛰어난 사랑이여, 예전에 찾은 사랑이여! 이것이 토대가 될 때, 이 부끄러운 내 마음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니 당신의 영광에 살 때가, 오 주 예수여, 언제입니까?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의 부도덕함이 얼마나 큰지요!

진실로, 그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됨이니, 그분은 사랑이라. 또 그분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성품, 그 충만, 그 축복은 더욱더 우리 마음이 인정하게 만든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 77 장. 주권과 조력—요한복음 11: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요한복음 11:39)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 구원은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역사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은혜로만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당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당신은 구원의 일에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 또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된 채로 지킬 수 없다. 어떤 전도자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어떤 교회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어떤 종교적 체계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어떤 제사장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어떤 의식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에 의해서 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기원한다. —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16). 구원은, 성경에서 계시된 것처럼, 택정과 예정과 모든 것 가운데 확신으로 명령된 은혜의 언약으로 시작한다. 구원은 죄인들의 대속자, 우리 언약의 보증이신 아들 하나님의 복종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얻어지고 산 것이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

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그는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려 오셨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선주자로서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구원은 선택받고 구속받은 죄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전능하신 공훈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효험있게 적용된다.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63). 하나님의 성령은 죄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시고, 그가 부르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창조하신다. 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축복을 인치시고, 은혜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인치시므로, 하나님으로 난 자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그것은 당신의 의지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아들이 당신을 구속하셨고, 하나님 영이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 우리의 책임

무덤 속에 나사로가 누워 있다. 그는 사망하였고, 무기력하게 죽어

있다. 나사로가 그의 상태를 바꾸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은 어떤 제정신 있는 사람에게라 하면 분명하다. 그는 죽었다! 그의 나매들은, 비록 그들이 그를 극진히 사랑했을지라도, 그를 돕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옆에 서 있는 모든 제자들은 그의 시신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그들의 친구 나사로의 떠난 영을 불러올 수 없었다. 흠인 이미 다시 흠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의 시신은 이미 썩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거기 계셨다. 그가 위대한 기적을 행할 즈음이었다. 곧 나사로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주는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는 행할 수 있었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하셨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요한복음 11:39). 이상하지 않은가? 아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다.

물을 필요 없이, 단지 그분의 말씀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그분이 아주 쉽게 무덤의 입구에서 돌을 치우셨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을 사용할 것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할 일을 주셨으며,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에 필수적인, 그분이 그것을 요구하셨기에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 돌의 제거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돌을 치울 때까지 나사로를 사망에서 살아나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은 망설였다. 인간적인 이유가 끼어들었다. 마르다는, “주여, 죽은지가 나홀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 절). 인간

적인 이유는 인간적인 조력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겠지만, 그러나 모두 다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를 가르친다. 우리 주는 부드럽게 마르다의 불신을 바로잡으셨다 (40 절). “돌을 옮겨 놓으니” (41 절). 그들이 돌을 굴러버렸을 때, 그 제자들은 세 가지 것을 보여주었다...

1. 그들의 주에 뜻과 말씀에 순종적인 복종.
2.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 (40 절).
3.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 부활의 참여.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과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생명의 수여자와 사람들의 구원자로서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냉담하게 팔장을 끼지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 우리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 안의 도구가 되기 위한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날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 돌을 굴러 버렸던 사람이 되었기를 원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치워버려야 할 어떤 돌들이 있다!

### 죽은 자를 위한 말씀

죽은 자를 위한 말씀이 여기 있다. 타락한 죄인들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있던 상태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영적 사망은 무지나, 냉담이나, 심지어 불신에

대한 변명이 아니다. 가련하게 길 잃은 죄인들은 영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사망하였다. 하지만, 모두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살아 있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사망한 죄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죄 안에서 사망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속할 수 없으며, 그들의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스스로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당신은 해야 한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죄 가운데 사망하였나? 그는 분명히 그랬다. 하지만, 그는 그의 혼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사도행전 8:26-39).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샀으며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당신도 역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아프리카인은 진실되게 주를 찾았다. 당신도 역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는 주께서 자신을 계시하기로 약속하셨던 장소로 올라갔다 (마태복음 18:20). 그것은 길고, 대가가 많이 들고, 위험한 여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곤란한 지경에 있었다. 그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다. 따라서, 그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였다. 비록 그가 처음에는 구원자를 찾지 못했으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는 여전히 주를 찾고 있었다. 그는 이사야 53 을 읽고 있었다. 그는 성경의 비밀, 혹은 성경의 깊은 가르침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한 분을 찾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많이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가 주를 찾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셨다! 어떤 공훈인가! — 그는 들었다! — 그는 믿었다! — 그는 침례를 받았다! — “그는 기뻐서 그의 길을 갔다!” (사도행전 8:39).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빛 가운데 걸었으며, 그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알았던 것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빛을 주셨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혼을 관심한다면,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동안 주를 구하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동안 그분을 불러라. —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예레미야애가 3:25). —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7; 누가복음 11:9). — 예외가 없다. 만약 당신이 주를 찾으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찾지 않으면, 당신은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며, 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라고 선포하신다 (이사야 65:1). 그렇다. 성령께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는 것은 사실이다. 선한 목자가 그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 그러나 그 탕자는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한다. 당신은 주를 찾아야 한다. —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14). — 물을 필요 없이, 만약 당신이 주를 찾으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지만, 당신이 그분을 찾아야 한다 (예레미야 29:12-13).

“내가 주를 찾았으니, 후에 내가 알았네  
 그분이 나를 찾으시니, 나의 혼이 그를 찾도록 움직이셨네;  
 찾은 쪽은 내가 아니라, 오 참으로 구원자였네,  
 아니다, 내가 당신께 발견되었네.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나의 손을 감싸셨네;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 나는 걷고 가라앉지 않았으니,—  
내가 당신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여, 당신이 나를 잡았음이라.

내가 찾고, 내가 걷고, 내가 사랑하나, 하니만 그 모든 것은  
사랑에 속한 것은 주여, 오직 당신께 대한 나의 대답이라;  
당신께서 나의 혼과 오래 전부터 함께 있었으니,  
언제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이라.”

### 전도자를 위한 말씀

둘째, 여기에 전도자를 위한 말씀이 있다. 복음 전도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도자 각자가 사람들의 혼을 위하여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실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죄인에게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를 보내신다. 우리는 복음 사역을 로마 가톨릭 사제단에게 공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멸시하지 않는다.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21; 로마서 10:13-17). Spurgeon 이 한번은, “우리가 마른 뼈를 생명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없지만, 그들에게 예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는 또 네 바람에게 예언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방법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모두가 전도자가 되도록 부르셨거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 역사를 위하여 어떤 자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다. 이 축복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사를 받은 자는 모두 자신을 모든 마음과 양심적으로 복은 전도의 일에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 (고린도전서 9:16). 그들은 공부와 준비에 근면하여야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면하게 구해야 하고, 이 세대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기회에 자신이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에 사람들의 혼에 대해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 있다. 나사로가 사망에서 부활하기 전에, 우리 주께서 옆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무덤의 돌을 치우도록 요구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은 죽은 죄인들을 살릴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무덤 위에 놓인 돌을 치울 책임이 있다. 피난 성에 인도하는 길에서 모든 잔해를 깨끗하게 치우도록 보내진 자들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한다.” (이사야 40:3).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돋우고, 돋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하신다 (이사야 57:14).

어떤 사람은 무지의 커다란 돌이 그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당신은 모르는 구원자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

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성취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분이 죄인들을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구원하시는지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진다. 다른 많은 사람은 그들이 종교적 오류의 무거운 돌 아래 깔린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 종교와 사람들의 교리로 눈이 가리워졌다. 따라서,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지속적으로 종교적 오류와 싸우고 그것들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단이 그들을 무겁고 킁킁한 절망의 돌 아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 — 어떤 죄인이 은혜를 절망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은혜는 대가 없고 무조건적이다. —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죄인들이 믿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행해져야 할 많은 것이 있고, 사람들이 믿은 후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행해져야 할 많은 것이 있다. — 그들이 회심하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일단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그분의 말씀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44 절) 이다. 그 종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예레미야 3:15; 베드로전서 5:1-3) 이다.

포도원의 어린 나무는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양분을 받아야 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말씀의 진정한 우유를 공급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리고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질긴 고기를 먹어야 한다. 새로 회심한 자들은 종교적 전통과 율법주의의 수의와 세상의 억

누르는 근심은 물론, 죄의 사슬에서도 풀려나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며 보살핌을 받아야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 백성과 함께 교통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풀림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신실하며, 사랑스럽고, 복음의 정통한 사역을 요구한다. 복음 전도자들은 그분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승천 은사이며,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졌으며, 믿음 안에서 성도를 가르치고, 가르침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며, 그들의 여정 가운데 순례자들을 인도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을 위로하며, 초장에서 하나님의 양 떼를 보호한다.

### 믿는 자를 위한 말씀

셋째, 여기에 믿는 자를 위한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당신이 사람들의 혼을 위하여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마가복음 2:1-5 를 보라).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도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그 일에 대하여 은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것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을 주셨으며,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능력으로 은사를 주셨다.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할 능력과 행할 기회를 당신에게 주신 그것을 당신은 해야 한다.

당신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들의 죽은 오라비를 위하여 했던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할 수 있다. — 당신은 그들 대신에 주를 부를 수 있다.

“형제들이여, 당신 주변의 가련한 죄인들을 보라,  
고난의 언저리에서 꿈쩍않고 있는.

사망이 닥아오고, 지옥이 움직이네,  
그들을 가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으므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요한복음 9:11).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과 친척과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말할 수 있다. — “하나님이 네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음 사역의 지원을 위하여 주신 것을 당신은 사용할 수 있다 (요한삼서 5-8). 당신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소책자, 테이프, CD, DVD, 공보, 책자, 그리고 기사들을 나누어 줄 정해진 노력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하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예가 될 수 있다.

###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

넷째, 여기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할 책임이 있다 (에스겔 33:7-9).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라.”

필요성이 내 위에 놓여졌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9:16).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속박 아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20:21).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람들의 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라.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본다. 얼마나 슬픈가! 시간이 짧다. 당신을 주의 일에 전념하게 하라. 오늘 그것에 당신 자신을 던져라!

## 78 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요한복음 11: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요한복음 11:40)

보기에 가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보이고 알게 되었을 때 혼을 충만케하고 기쁘게 할 것, 다른 모든 광경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비교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옛사람이 보기를 갈망하였지만, 오직 잠깐 그림자처럼 힐끗 보이기만 한 의로운 것, 그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였을 때 모세가 성막에서 기도하였던 그것, 믿는 자가 가장 진정으로 계속하여 기도하는 그것,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이 결코 만족하게 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내기를 의도하는 그것, 우리 눈으로 보았어야 하고 우리 마음이 감사하게 되었을 그것, 의에 의해서 쫓겨나려 세상에 죄가 오도록 허락되도록 했던 그것, 사상이 영생으로 이어지려 사상이 오게 하였던 그것,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사시고, 죽으시고, 계시하기 위하여 다시 사시게 하였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 무덤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무덤 앞에서 계셨다. 마르다는 구원자의 지혜와 그의 능력 모두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그분이 그녀의 오라비의 사망을 막기 위하여 더 일찍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섭리 안

에 있는 주의 지혜에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21 절). 그리고 그녀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분의 권능과 능력에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39 절). 물을필요 없이, 마르다는 믿는 자였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난 자였다. 그러나, 우리처럼, 그녀는 연약하고,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였다. 그녀는 불신으로 힘들어하였다. 그녀는 현재 그녀의 상황을 바라보았고, 상황이 그녀에게 나흘 동안이나 사망하였던 나사로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미래를 믿을 은혜를 받는다.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고 말했다 (24 절). 그러나 그녀는 현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 그녀는 계시가 아닌 논리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0 절).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것은 그녀의 불신이었다. 우리 주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를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말씀은 마르다만을 질책하고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배움과 훈계 모두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당신과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른 곳에서 우리 주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고 하신다 (마태복음 5:8). 그러나 여기서 구원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볼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의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Horatius Bonar 는, 우리 주께서 “그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뛰어난 것이 나타나는 어떤 것”을 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이심을 그분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다. —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4:6).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모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 있다. 그것은 손으로 하신 창조의 일 가운데 계시되었다.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1). 그것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신 성육신 하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의 영광의 복은 안에서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를 갈망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믿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였다. 사적이든 공개적이든, 기도 가운데 우리 머리를 숙일 때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외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거의 보지 못하는가? — 우리가 하

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의 불신이다. 여기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입는 지극히 높은 존귀함이 있다. 그분은,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하나님의 계획

첫째,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분 자신을 계시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63:14). 그분 자신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경이로운 역사로부터 받으실 그분께 의롭게 속하는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고 누리게 된다.

특별히, 요한복음 11:40 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가운데 보일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없애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는 사망인 죄의 징벌을 없애고, 사망이 했던 일을 되돌리며, 사망의 능력을 가진 자를 파멸하고,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켜버리기 위하여 오셨다. 이 구속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다. 그리고 그 성취는 그분의 영광의

경이로운 나타나심이다.

하나님의 이상한 역사, 그분의 심판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보여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로마서 9:17). 진노의 그릇, 곧 천히 쓸 그릇은 위대한 토기장이의 영광을 제시할 것이며 그분의 계획을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훈의 그릇처럼 충만히 이루실 것이다 (로마서 9:21-24).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일어나도록 계획되었고, 명령되었으며, 일어났고,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분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함이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다. 모든 일, 선한 일은 물론 악한 일도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통치 받는다. —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시편 76:10). —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썩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4).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36). —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11). — 만물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그 마지막에 그분은 만물에 명하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 중보자의 갈망

둘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분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속자, 하나님-사람 우리 구원자의 갈망임을 계시한다. (요한복음 1:18). 죄는 타락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 왔다.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계시하고, 아버지의 품성을 알게 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18).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사명이었다.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분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받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2:27-28; 17:1, 4; 에베소서 1:6, 12, 14, 2:7).

주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찾아짐을 알고 계시다. 이 영광이 없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존재는 의미없고, 공허하며, 텅비어 있다. 우리는 해가 없는 세상, 별집 없는 별, 물 없는 우물과도 같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이 세상에 오심과의 가운데 사심과 고통 가운데 죽으심과 승리 가운데 다시 사셨던

것이 이 계획을 위함이었다.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당신의 혼이 하늘 빛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돌이키고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과 그분의 택정한 자의 거룩함과 그분의 성도들의 위로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알게 하기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말한다. — 이것을 말함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이 보이자 마자, 생명과 기쁨과 거룩과 위로를 당신의 마음과 혼에 가져오게 될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볼 것을 갈망하고 기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즉시 안식하게 될 것을 보여줄 것이다.”는 것이다. 그분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목마른 사람에게 샘물이 기운나게 하는 것보다 당신의 혼을 더 기운나게 하는 것임을 보여 줄 것이다.”는 뜻이다.

## 우리의 불신

만물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누리기를 갈망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거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극히 조금이라도 보는 자들이 거의 없는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계

시된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하자. —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 오직 우리의 불신 뿐이다.

이것이 우리 본문 가운데 주어진 책망이다. — 우리 주 예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다. 우리 주께서 세상에 계신동안 가장 탄식하셨던 단 하나 사악함은 불신이였다.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세상의 보통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역시 사악한 불신을 발견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느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있는 가운데 행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것들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들이 눈이 닫았고 귀를 막았는가! 그들은 대가 없는 은혜와 구속의 사랑과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초기의 제자들에 대하여 심판하는데 있어서 너무 조급하거나 엄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치욕과 범죄였던 그것은 또한 우리 것이기도 하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딘가!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르다처럼, 성육신 하나님께서 세상 위를 행보하시기 전에 있던 그들처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이다. 죄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은 오직 불신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을 누리는데 막는 것은 불신 뿐이다. 구속받고 거듭난 죄인들을 충만한 확신을 누리는데 막는 것은 불신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이해

를 초월하는 그런 평강을 가로막는 것은 불신 뿐이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을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은 불신 뿐이다.

Matthew Henry 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는 기저에는 불신이 있다.”고 말했다. Robert Trail 은, “대단히 많은 수의 믿는 자들은 그들 밑에서 갈라져 그들을 심연 속으로 빠뜨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의 약속을 받고 연약한 얼음 위에서 자녀로서 하늘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고 기록했다. John Calvin 은, “우리 자신의 불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들로 우리를 대단히 풍성하게 만족시켜 주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이다.”고 말한다. 우리 생각이 천상의 성으로 솟아오르고 황금길을 가로질러 하나님과 믿음으로 행보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불신이다. 아, 사악하고, 죄로 충만하며, 부끄러운 불신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약함과 결점을 극복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불신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논리에 반대되는 놀라운 말이다. 그것이 한 가지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감히 그런 천명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주어졌다. 어린 아이의 손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가? 강력한 강에 떨어진 시들은 잎이 그 강의 흐름을 막거나 그 물을 마르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호흡이 하늘의 별들을 꺼버릴 수 있는가? 물론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불신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그분의 전능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막는다고

알려 준다. — 마태는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그분의 나라에 오셨을 때…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고 했다 (13:58). — 마가는 좀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한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5-6).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무가치함으로 인하여, 혹은 우리 죄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혹은 우리의 무능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불신으로 인함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단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택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실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에서 그분의 전능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막았던 것도 불신이었다. 불신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여기에서 일하지 마라!”고 한다. 불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멸하면서, “우리 지방에서 떠나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심지어 그 역사들이 바로 우리 눈 앞에서 일어나는데도,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불신이다. 그리스도의 손길은 사람의 불신에 의해 언제나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일하시기로 뜻하신 곳에서, 그분은 일하실 것이다. 사람의 의지는 그분의 뜻을 뒤엎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불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헛되게 하고, 무효화하고, 심지어 바꿀 수 없다. 아주 자주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계시되었던 것에서 일하셨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다. 많은

사람이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 문둥병자의 치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눈먼자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린을 보았으며, 절름발이를 걷게하는 것을 보았고, 야이로의 딸과 과부의 아들에게서 마귀들을 내쫓고 심지어 되살아나게 한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이런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서 보았던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다. 나사로가 사망에서 살아났던 후 조차도, 그 굉장한 기적을 보았던 자들은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다 (요한복음 11:43-46).

요한복음 6 장에 다섯 개의 보리 빵과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먹었던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오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는 그날 적어도 이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음이 추정된다. 놀라운 기적이 수행되었다. 그 사람들이 빵과 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모두 기적을 보았고 그 선행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손으로 먹었지만 그것을 몰랐다. 그들은 주를 한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그들에게 주셨던 빵과 물고기가 풍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 안에서나 혹은 그분의 역사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은 그들 앞에 서계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행한 그 기적들 안에서 하나

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요한복음 6:26).

하나님의 역사들로 둘러싸인 영광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아차릴 수 있다. 믿음은 장막을 걷어 버린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다. 믿음은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의 샘에서 마시며 그리스도의 기적의 모든 것을 묘사하였던 은혜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된다. 은사주의는 육체적 기적들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사탄은 그에게 그의 욕망을 준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기적들 가운데 본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는 기적들이었던 것인 은혜의 육체적 표적들을 찾지 않는다.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믿음, 그분의 은혜에 속한 모든 역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불신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정도를 보고 난 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는 것을 막는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거의 깨닫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간격을 두고, 언뜻 보이고 계속하여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한 쪽에서 망원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천연적인 시력의 범위를 넘어 멀리 보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때로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제자들은 때로는 큰 믿음을 실행하고 다른 때에는 실로 아무런 믿음도 실행하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의 역사 안에는 믿음보다 불신이 더 많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 주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이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감추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인정하였고 때로는 누렸던 영광 안으로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가 얼마나 그 제자들과 같은지! 마르다처럼,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내일 더 많은 것을 보는 소망을 가졌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 눈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 위에 멈춰있다. 그러나, 아 우리가 얼마나 희미하게 그분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논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이다. 우리가 거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의 보지 못한다. 불신이 우리 주를 비탄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불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다. 불신은 하나님을 굴욕적으로 만들며, 그 영의 역사를 꺼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혼을 위하여 쓸모 있게 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요한복음 11:40 에서 하신 귀하신 구원자의 말씀은 질책 그 이상이다. 주 예수는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신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분은, “하나님을 믿어라. 다만 믿어라. 믿음이 없이 되지 말고, 다만 믿어라.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장 시험이 심한 상황 가운데조차도, 말하라, ‘주를 위하여 너무 힘든 어떤 것이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은 믿음을 존귀하게 한다! 그분은 언제나 믿음이 있으시며 언제나 그리실 것이다. 옴에게 물

어보라 (욥기 1:20-23; 2:9-10; 42:10). 노아에게 물어보라 (창세기 7:23).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창세기 22:8, 13-14; 로마서 4:20-22). 한나에게 물어보라 (사무엘상 2:1). 나오미에게 물어보라 (룻 4:14-15). 다윗에게 물어보라 (사무엘상 17:45-51). 사르밧의 과부에게 물어보라 (열왕기상 17:14-16). 믿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은 믿음을 존귀하게 한다!

## 믿음과 보는 것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힘들게 시험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소망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좀더 일찍 도착하였더라면, 그들은 주께서 나사로를 치료하였을 것이라고 소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너무 늦게 도착하셨던 것으로 보였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들은 위대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그러나 현재 마르다는 절망으로 가득하였다. 그런데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으며,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주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던과 마찬가지로이다. — “마르다야, 마르다야, 만일 네가 나를 믿기만 했더라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생각하거나 요구할 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였을 것이다. 만약 네가 나를 신뢰하기만 했더라면, 내가 너를 위하여 하지 않았을 것이 없으며, 내가 가지 않았을 거리가 없으며, 네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네 대신에 내가 행했을 능력에 한계가 없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내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

너여, 당신은 지금 바로 어떤 큰 시험을 걸디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 받았던 때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 만약 그가 믿고 흔들거리지 않았다면, 그가 소망에 대항하여 소망했고 믿음 가운데 강하였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왜 우리는 동일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인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난 후, 우리가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의혹을 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금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다: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만약 믿었다면, 우리는 우리 대속자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출애굽기 33:18-23). 저주의 나무에서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바라볼 때, 희생의 산 위에서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다 (로마서 3:24-26).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공홀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편 85:10).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죄속량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보는데,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이 분명하게 계시되기 때문이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선, 그분의 부동의 공의와 그분의 용성하는 공홀, 그분의 누그러지지 않는 진노와 그분의 영원한 사랑 (출애굽기 33:19, 43:5-7).

만일 당신이 주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믿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볼 수 없다. 논리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직 믿음만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오직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당신이 만약 믿었다면, 당신은 그분의 지혜와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로마서 8:28; 11:36). 만약 마르다가 믿었다면, 그녀는 자신의 슬픔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병과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오직 믿음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얼마나 흠모할만한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러나 오직 믿음만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만약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 한 가운데에서 행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역사 가운데 보여진다. 그리고 믿음은 그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영광 모두를 인지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가운데, 그분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하실 것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이사야 43:26).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적 축복을 놓치고 있는지 놀라웁다. 여러 해 동안 쌓아 올린 많은 선한

것을 가지려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오듯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놓친다.

우리가 믿었더라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요한복음 5:25-29).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는 안다. 그분은 아무것에도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역사는 아무것에도 우리를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안다: —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백성의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에스겔 36:33-38). 나는 에스겔의 예언을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었더라면, 우리가 영적 부활 가운데 그분이 영광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을 취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게 할 때와 하는 곳에서 그분의 모든 택정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오직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까닭으로 회심이 부족함을 확신한다. 기록되기를, —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사야 66:8).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욥기 19:25-26).

## 하나님의 은사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위한 역사임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1:19; 2:8; 골로새서 2:10-12).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행사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속

한 은사로만 믿는다. 만약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주 예수를 사망에서 일으키셨던 바로 그 동일한 능력에 의함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과 전능의 능력에 의해서 이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선포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9:23-24).

믿음은 은혜로만의 은사이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가능한지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의 사랑 안에서 택하셨나이까,  
그 은사를 내게 주시기 위함인지요?

믿음이 태어남은 주권적인 은혜에 빛을 짐이로다,  
또 보좌 밑에 사니,  
은혜가 그 거할 곳을 지키는 곳이며  
그리고 최고의 통치만 행하는 곳이라!

죄인이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찬양을 금치 못하리라:  
만세, 주권적이고 대가 없으며 불변의 은혜여!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79 장. 대속: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함—요한복음  
11:47-5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1:47-57)

얼마나 굳고, 얼마나 절망적으로 사악하고, 얼마나 심하게 부패한 사람의 마음인지! 강력한 기적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인근에서 일어났다. 나흘 동안 죽어 있었던 사람이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살아났다. 그 사실은 명백하였고, 부인될 수 없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영향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닫고 귀를 막았다. 그들의 성직자로서의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엿드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 엿드리기보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 단락을 다시 읽고 자신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입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논리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짓을 보라. 이 의기양양한 바보들은 그들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복음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고 논리를 세웠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했던 길을 미친듯이 달려갔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바로 그것이 일어났다. 불과 몇 년안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였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나라 전체를 포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종교적 위선자들이 우리 앞에 붙잡는 것이 바로 이 단락 안에서 분명하게 사람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죄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종종 종교와 종교적 전통과 종교적 의식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실증하고 있다. 여기 많은 수의 사람들이 (55 절), 주 예수를 살해하려 계획하고 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줌스럽게 그들 자신을 정화하고 있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 그분은 정말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이 시간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유월절이 끝나기 전에, 우리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실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된 주제는 대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속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의 효험을 보여주시기 원한다.

## 하나의 주제

성경은 한 가지 주제로 된 책이며, 그 주제는 대속이다. 성경의 단일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이며, 그로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으며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가지 계획과 목적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의 수행과 성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대속의 복음 말씀을 놓쳤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계시의 지면 위에 기록된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복된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안다. 나는 성경 가르침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누가 나를 “교리 전도자”라고 가리키는 것에 당혹스럽거나 불편하지 않다. 내가 복음 교리의 전도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전도자가 되는 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책의 모든 축복의 가르침들이 한 가지 가르침으로 종합되고 제시될 수 있다 — 대속이다. 성경의 어떤 진리도, 성경의 어떤 부분도 대속의 가르침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교리인 창조의 교리는 모든 것이 우리 대속자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합당하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는 성경의 보배로운 진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나 섭리는 오직 모든 것이 우리 대속자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능으로 지켜지고 통치되는 것을 깨달을 때만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한 택정과 주권적인 예정하심의 영광스러운 교리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데 매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택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대속자 안에서 선택받았다. 예정은 우리 대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속량의 교리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속자가 없고, 중보자가 없었다면, 타락한 사람의 필요와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없었다면, 합당한 대속자가 없었다면, 속량은 없었을 것이다. 성도들의 부활과 성화의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이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우리가 닮아야 할 대속자가 없었다면 미래 영광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의 주제는 대속이다. 신성한 계시의 전체 계획은 대속자를 떼어놓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며,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그분이 언급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만 대속자를 통하

여 사람을 다루신다. 당신의 영원한 구원이나, 당신의 영원한 저주는 하나님의 약속된 대속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을 위한 한 분, 유일한 분,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대속자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사람을 제시한다 (누가복음 24:44-47).

## 죄인의 소망

대속은 죄인의 유일한 희망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전에 가졌던 유일한 소망이며, 죄인들이 앞으로 가질 유일한 소망이다. 구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오실 분, 약속되고, 예언되고,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었던 대속자를 믿고 신뢰하였으며, 그들의 대속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서 구속받고 의롭게 되었으며,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다 (창세기 3:15; 4:1-4; 22:8-14; 출애굽기 12:13; 시편 22; 이사야 53; 다니엘 9:24; 12:10; 말라기 4:1-2; 누가복음 2:25; 요한복음 1:29; 사도행전 10:43).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소망을 두도록 한 것에 있는 하나의 기초에만 두었던 것처럼, 이것 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소망이 없다. —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구약 시대와 이 복음 시대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하며, 우리가 구속받은 대속자는 그리스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세상의 기초부터 역사를 완성하셨던 분”이다 (계시록 13:8; 히브리서 4:3).

하나님의 책은 어떤 죄인이라도 가지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유일

한 소망은 대속임을 아주 분명하게 한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이다. 모든 의식과 제사장의 모든 의복, 모든 제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성막 그자체, 구약의 모든 율법들, 성전, 성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 모두가 한 가지 말씀만 갖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한다. 그들의 말의 내용은 대속이며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 각자의 전갈이다. 대속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라는 뜻이다.

## 대속자란

대속자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대속자는 다른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대속자는 다른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본성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죄들을 그분 자신 위에 두셨다. 두그분은 갈보리에서 죄인들의 위치에 계셨으며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그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 만의 공로 위에 나의 혼을 철저히 신탁하기 때문에, 나의 혼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 위에 안식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임을 믿기 위한 좋은 이유를 갖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나의 대속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그분이 어떻게 서계셨고, 서계시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에 서계실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나는 나의 영광스러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대

속자를 당신이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한다.

## 완전한 대속자

우리 대속자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1; 디모데전서 3:16; 6:14-16).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죄인들의 대속자는 실제 사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분이 단지 하나님이셨다면, 그분은 고난 받으실 수 없었다. 그분이 단지 사람이었다면, 그분은 만족하게 하실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사람은 고난 받으시고 만족하게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대속자는 반드시 완전해야 한다 (레위기 22:21). 레위기 21 장과 22 장에서,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그분에게 닮아오며 경배하는 가에 대하여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정보를 가르치셨다. 대제사장은 어떤 종류의 흠이나, 장애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레위기 21:16-21). 그리고 제물은 전혀 결점이 없어야 한다 (레위기 22:17-24). 만약 제사장이 흠이 없지만, 결점이 있는 제물을 가져왔다면, 그것이 “열납되기에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열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레위기 22:21). 마찬가지로, 만약 제물이 흠이 없지만,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어떤 결점을 갖고 있으면, “열납되기에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물은 절대 열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고대 레위 율법의 목적은 율법의 의식절차의 그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흠이나 결점이나 단점이나 흠이나 죄가 없는 온전하고 큰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14-15; 7:26; 8:1).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제물이다.

그는 결점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29; 베드로전서 1:18-20).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의롭게 될 수 있고 의롭게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희생을 통해서 뿐이다 (사도행전 13:38-39; 히브리서 9:12).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믿는 자는 결점이 없고 죄가 없는 제사장이다 (계시록 1:5-6; 5:9-10). 그리스도의 보혈 속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충만하고 영원하게 만족시킬 완전한 제물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24-26; 골로새서 1:19-22; 유다서 1:24-25),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히브리서 4:16; 10:19-22).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을 만족하는 것은 우리 대속자인 그리스도, 온전한 제사장이고 완벽한 희생제물 안에서 그에 의해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이다. — “그것은 열납되기에 온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1:6).

## 구원자의 사명

왜 우리 대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안으로 오셨는가? 그분의 오심 가운데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그분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본성에 덧씌우려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그분께 맡겨진 것을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그분 자신께로 구속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그분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15).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거룩 가운데 타락하고 죄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죄인들의 대속자로 오셔야 했다. 의는 성취되어야 한다. 죄는 별하여져야 한다. 공의는 유지되고 만족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시고 그분의 백성의 의롭게 하는 분이 되실 것이다.

## 성취된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신동안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분은 영원한 의를 가지고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 백성의 모든 죄들을 없애버리셨다. 그분은 사람을 그분 자신에게 구속하셨다 (갈라디아서 3:13; 히브리서 9:12; 10:10-14).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

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1-14).

## 열납된 대속자

이제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히브리서 1:1-3). 저 멀리, 하늘 저편에, 지극히 높은 곳에 왕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대속자이신 그분을 본다. 우리의 위대한 대속자는 구속의 역사를 마치셨다. 그리고 지금 그는 우주의 높은 군주로서 통치하시고, 그가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백성, 그분 자신의 보혈로 구속하셨던 죄인들의 마지막 구원을 행하시고 계신다. 이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는 고난 받

으셨고 피흘리셨으며 죄인들의 대속자로 죽으셨던 그 한 분이다!  
(이사야 53:10-12; 요한복음 17:2).

## 영원한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에 우리의 대속자로서 은혜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 보증으로서 서계셨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속자이다. 창세에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현명하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책이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우리 대속자 안에서 영원 전부터 성취되었던 역사임을 이해했어야 한다. 영원한 협의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맹서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22). 내가 죄인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로 서계셨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자로 서계셨다. 내가 범죄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 서계셨다. 내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 나의 대속자 안에서 열납되었다. 내가 노예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나의 속량으로 서계셨다. 내가 빛진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나의 보증으로 서계셨다.

영원 전부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7:27).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은 계획되었고, 목적하였으며, 예비되었으며, 확실하게 되었고, 완전히 성취되었다 (사무엘하 23:5; 에베소서 1:3-14; 디모데 후서 1:9). 언약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택정한 자 모두는 언약의 보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위탁되었다 (요한복음 6:39;

에베소서 1:13). 그분은 유다가 베냐민의 보증이 되었고 베냐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그분 자신에게 자원하여 지셨다 (창세기 43:8-9). 우리 대속자와 보증으로서 서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된 일로 영원 전부터 있었다. 아주 분명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다 (로마서 8:29-30; 에베소서 1:3-7; 디모데후서 1:9; 히브리서 4:3).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기초가놓이기 전에 우리 대속자로 죽임당하셨다 (계시록 13:8).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 대속자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열납되었다.” (에베소서 1:6). 하나님은 언제나 대속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바라보셨고, 언제나 그리실 것이다!

## 순종의 대속자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속자이다. 그분은 우리 대신에 서계셨으며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분 안에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순종의 대속자이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사신 동안 우리 대속자로 서계셨다. 33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의 연합된 머리와 대표자로서 사셨다. 기록되기를, —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19).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분의 땅에서의 삶의 과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버리지 않았던 것을 회복하셨다 — 의.

이것을 이해하라. —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은 우리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갈보리에서의 죽음만큼 필요하였다. 그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는 우리 대속자로서 완전한 의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성취하셨으며 (로마서 3:22),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열납될 수 없었다. 그분의 순종의 삶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 오셨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치드케누(Jehovah-tsidkenu), “여호와 우리의 의”이다 (예레미야 23:6). 우리 주는 자원하여 그분 자신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모든 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들에 순종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하셨던 모든 것은 그가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셨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졌다. 그분이 대표하는 모든 자, 그분이 대신하여 그들의 대속자로서 율법에 순종하였던 모든 자는 그분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였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것을 했던 것 같은 거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마치 그런 것 같은” 이상이 여기에 있다. — 하나님의 책은 진짜 대속자와 진짜 대속을 제시한다 (예레미야 23:6 과 33:16 을 비교해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의 안에서 율법을 충만케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우리 대속자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만케 하였다 (로마서 3:28-31; 8:3-4).

### 십자가에 못박힌 대속자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속자이다. 그는 우리대신 섰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 영원 전부터 있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순종적인 대속자이다. 그는 이 세상에 그가 사신 동안 우리의

대속자로 서계셨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대신 갈보리에서 우리의 대속자로 서계셨다. 그는 우리의 십자가에 못박힌, 죄속량의 대속자이다.

우리의 귀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 아래, 우리 죄와 치욕과 유죄와 우리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는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케 하심으로 죽으셨으며,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택정한 자,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들)는 결코 죽을 것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다. — 그것이 대속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교리이다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14; 베드로전서 2:24; 이사야 53:4-8; 시편 40:12; 69:3-6, 19-20).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생각할 때,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어떤 것도 당신을 그것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지 마라.

1.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신한 희생이었다 (고린도후서 5:21).
2. 그리스도의 죽음은 특정한 사람을 위함이었다. —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이사야 53:8). —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1).
3.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의 효험있는 만족이며, 효험 있는 속량이고, 효험 있는 구속이었다. —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12).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들을 없애 버리셨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구속하셨다. 우리 대속자는 우리

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심으로 잠잠케 하셨다. 우리 위대한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대속자로 죽으셨던 모든 백성들을 온전하고 완전히 의롭게 하셨다.

4.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최종적이었다. —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26).

### 현재의 대속자

하지만 더 있다. — 우리 주 예수는 영원한 대속자이다. 그는 순종의 대속자이다. 그는 십자가에 못박힌 죄속량의 대속자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귀한 구원자는 현재의 대속자이다! 영광 가운데 저편에 계신 그를 보라. — 예수 그리스도 의인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대속자로 또 변호자로 오늘 우리 대신 서계시다 (요한일서 2:1-2). 그분의 다섯 군데 보배로운 상처들과 그분의 의의 공로와 그분의 피의 공로가 그분의 백성의 현재와 영원한 행복을 효험 있게 보증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택정한 자의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며, 율법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어떤 심판도 요구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승천하신 주, 우리 대속자는 아버지와 우리 변호자로 서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죄를 범할 때, 절망하지 말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 변호자는 그분의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은, “아버지, 나의 구속 받은 자를 죄로 책망하지 마소서. 제가 그분의 사악함과 범죄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보소서 여기 그 상처가 있습니

다.”

하나님은 네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코 그분의 백성의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끝났는데, 그 이유는…

1.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 대속자를 열납하셨다 (히브리서 6:20; 10:12).
2. 우리 대속자는 온전하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다.
3. 우리 변호자는 우리 죄에 대하여 만족하게 하셨다. —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요한일서 2:2).
4.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없애 버리셨다! —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5).

## 심판 대속자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속자이다. 그는 우리 위치에 자리하셨고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분 안에 있다. —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순종의 대속자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사셨던 동안 우리 대속자로서 계셨다. —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갈보리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대신 자리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에 못박힌 죄속량의 대속자이다. 넷째,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대속자와 변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 위치에 계시다. 그는 우리의 현재 대속자이다. 그리고 다섯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심판의 날에 삼중으로 거룩한 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자리에 계실 것이다.

그 위대한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백성, 심지어 당신과 나에게 삼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대함 앞에서 흠이 없고, 질책할 것이 없으며, 온전하게 제시 될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다. “볼찌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로다.” (히브리서 2:13; 에베소서 5:27; 유다서 24-25). 하나님께서 그분의 엄격한 공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전지한 눈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분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속자로서 온전한 의와 순종을 행하셨고 그분의 피 안에서 우리 죄들을 철저히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흠이나 결점을 찾으시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50:20).

나의 대속자인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나의 대속자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완전히 기대하였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21, 34).

오라, 가련하고, 죄있고, 무기력한 죄인아! 오라, 더럽고, 부패하고, 파산한 죄인들인 너희는 그리스도께 오라. 당신의 혼을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맡기라. 그리고 나이든 세리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고 충만하며 온전한 칭의를 찾아라.

하나님의 자녀여, 얼마나 이 대속자의 복음의 말씀이 지금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으며, 영원히 우리 자리에 계실 분인 우리 하나님의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과 찬양과 숭배와 헌신으로

우리 마음에 영감을 주시는가!

## 80 장. “유월절 옛새 전에”—요한복음 12:1-11

“유월절 옛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찌,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흠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요한복음 12:1-11)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앞에 계신 분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은혜롭게 취하사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기를. 요한복음의 12 장의 성경을 열 때, 우리는 주님의 땅에서의 공사역의 마지막에 이른다. 그분이 겐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다른 모든 일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삶의 마지막 옛새 동안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  
던 우리 구원자의 개인적인 가르침에 대한 것을 말해 준다.

요한복음 12 장은 실로 극적인 장이다. 삼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주  
예수께서 그분의 다양한 온전하심 들을 선언하시고 입증하셨다.  
그분은 공개적이고 사적으로 그분의 복된 인격을 나타내셨다. 그  
리고 그분은 인자로서 그가 하셨던 모든 주장을 그분이 말씀으로,  
그분의 행동으로, 그분의 행실로 입증하셨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그 결과는 그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었다. 그들  
은 진실로 그분이 누구신지 보다 더 충만하게 보고 인식하기 시작  
했다. 그리고, 나사로의 사망으로부터 극적 부활 이후 그분의 선택  
하신 자, 그분의 우리의 양 떼는 이분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다 더 자신 있게 깨닫게 되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  
의 불신 가운데 더욱 완전하게 완고해졌다.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  
만의 마음을 녹였던 그 삼년 동안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일들이 주의  
대적들을 완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증오가 매일 매일 강화  
되었다 (고린도후서 2:14-16).

## 축복 받은 무리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묘사된 사건은 주님의 세상에서 삶에 대  
하여 복음서 기록 가운데 세 번 이하로 기록되었다. 분명 성령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기를 의도하  
신다. 첫째, 우리는 구속 받은 자로 이루어진 축복된 무리에 대한  
달콤한 그림을 본다 (1-3 절).

“유월절 옛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율법적이고 구약의 계명은 영원히 끝났다. 여기 언급된 유월절은 우리 주님의 세상 사역 동안 네 번째였다. 주 예수께서 특별한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분의 죽음 전에 그의 제자들과 그때 함께 먹기를 갈망하셨는데 (누가복음 22:15), 그가 아버지의 뜻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마치시기를 갈망하셨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그 사명을 마치실 갈망, —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길 갈망하셨다! 이 유월절을 축하하면서, 그 계명은 영원히 끝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우리 유월절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죽어 없어졌다 (고린도전서 5:7-8; 골로새서 2:16-17).

마지막 유월절 옛새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마을로 다시 오셨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였다. 언제나 분주하고 활동적인 여자인 마르다는 주님과 손님께 접대하였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던 나사로는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누가복음 10 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근을 취하여 그분

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내는 것을 3 절에서 읽는다. 그녀가 그것을 했을 때, 집안은 그 향유의 향기로 그야말로 가득하였다.

우리는 2 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라는 것을 읽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집에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려 가족과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우리 벽장으로 들어갈 때마다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오 성령이여, 그렇게 하소서. 공예배 (그리고 사적 예배)는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좋으며, 그분의 존귀를 위하여 모여야 하고, 그분께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 (아가 1:7, 13). 만약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다면, 그분께서 그 안에 오셔서 우리 혼과 저녁을 함께 하실 것이다 (계시록 3:20; 아가 5:2).

여기 세 가지 일, 세 가지 위대한 인물, 그것은 믿는 자 각각과 복음 교회 각각에게 특징을 짓는 것이다…

1. 그리스도와 교제, 구원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나사로 속에 그려진 것과 같은 것.
2. 예배, 그분의 발에 기름붓고 있는 마리아로 그려진 것과 같은 것.
3.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백성을 섬김, 식탁을 준비하는 마르다 속에 그려진 것과 같은 것.

그 일은 조화로웠다. 아무런 질투도 아무런 자기 칭찬도 없다. 각자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 일꾼들은 하나였다. —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성령께서 우리 구원자를 그렇게 섬기도록 은혜를 주

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복된가! 그렇게 할 은혜를 언제나 구하자 (빌립보서 2:1-5, 14-18).

## 식탁의 나사로

요한은 그 몸이 단 며칠 전에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주 예수와 그 가족과 친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많은 좋은 이웃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사실을 아주 편하게 언급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두 번째는 우리 구원자의 경이로운 역사들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 나사로가 거기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의 부활이 단순한 시각적 환상이었고, 구경꾼들의 눈이 영이나 환상으로 속은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거기 나사로가 육체를 갖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주 동일한 일들이 죽음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부활하신 일과 관련하여 사실이 되었다. 나사로가 베다니 사람들 가운데를 드나들면서 그들에 의해 목격되었는가? 주 예수도 그랬다. 나사로가 그 친구들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었는가? 주 예수께서도 그분의 승천 전에 먹고 마셨다.

우리는 이것을 표시해 두고 불신과 회의론이 넘치는 이 세대 가운데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의 부활은 우리가 그것에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이고 무게를 둘 것이다. 그분이 나사로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의혹을 품을 없도록 하였던 것처럼, 그분 자신이 무덤을 넘어 스스로 승리하신 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없도록 하셨

다. 만약 우리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주 예수께서도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살아나셨던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구원자의 경이로운 역사 모두가 부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의 성육신 — 그분의 죄 없으심, 완전한 순종 — 그분의 초자연적, 대속의 죽음 — 그분의 부활 — 그분의 승천).

### 마리아의 기름부음

다음으로, 요한은 구원자의 발에 기름 붓는 마리아의 매우 교훈적인 행동에 대한 짙막한 묘사를 제시한다. —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절).

여기 놀랍고도 교훈적인 것 몇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여인이 그분의 발에 기름을 붓고 씻도록 허락하는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겸손에 압도되고 말 것이다! 그분의 소유인 당신과 나는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겸손히 허락하시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6-29). 마리아가 누구였는지 깨달을 때 (누가복음 7:37),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겠는가! 이것은 엄청난 희생의 관용 가운데 표시되었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행위였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버렸다. 그것은 일년 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300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 (마태복음 20:2). 사랑은

결코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결과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손해, 그 손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발생했을 때의 손해를 염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커다란 겸손의 행위였다. 마리아는 복된 구원자의 발을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 전체 일은 감사로 인하여 감동되었고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주 예수께서 이제 막 그녀의 오라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비록 그것이 사랑의 따른 자연스러운 행위였으나, 이 희생과 기름부음은 사려 깊고 심사숙고의 준비가 요구되었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마리아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소중한 기름을 특별히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녀 자신을 주목할 것을 호소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다. C. H. Spurgeon 은, “조용한 사랑의 행위는 예수의 귀에 노래가 들리게 하였다. 당신 앞에서 나팔 소리를 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경고를 주시고 사라지실 것이다.”

마리아의 사랑과 감사가 그녀의 겸손과 관대함을 낳았다. 많이 받고 용서 받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고, 용서받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7:47).

마리아가 우리 주 예수께 행한 이 기름부음은 또한 복음전파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값비싼 감송유를 담은 관이며, 보물 상자이다. 복음 전도자는 그 관을 뜯어서 감송유를 붓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를 집 안에 가득 채운다.

## 마리아의 반대자

4-6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오히려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던 것을 본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지 않았다. 그는 돈과 물질에 관심이 있었다. 그의 머리 속에 정말 갖고 있던 것은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서 열두 사도의 재정담당자였던 그에게 그 돈을 주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그의 진짜 생각을 내놓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의 동정과 염려로 인상을 주려 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단락에서 보는 네 번째 사항은 누구든 그리스도의 존귀를 구하고 그분의 존귀의 유익을 섬기기를 구하는 자는 반대에 직면할 것이며, 종종 가장 의심치 않을 장소에서 만난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우리 주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 향유는 인색한 손길로 부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자유로이 그리고 풍부하게 하였기 때문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그녀는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마음의 감화로 그것을 행하였다. 그녀는 너무 위대하고 선하여 그와 같은 위대한 구원자에게 드릴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 날 동안 그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녀는 그녀의 양심에 평강과 그녀의 죄들에 대한 용서를 찾았다. 바로 이 순간에 그녀는 나사로가 살아서 건강하게 그녀의 주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 그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는 무덤에서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대단히 사랑했기에, 그녀는 대가로 그 이상의 사랑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대가 없이 받았기에, 그녀는 그냥 드렸다.

그렇지만 그녀의 행위에서 잘 못을 발견하였고 허비하는 낭비로 그녀를 비난하였던 어떤 존재가 있었다. 유다가 그 비난에 앞장섰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사도들이 마리아와 그녀의 헌신에 대한 그의 반대에 함께 하였다. 유다가 그들 가운데 그가 했던 것으로 아주 큰 존경과 권위에 속하였기에, 그들은 모두 해야 할 것을 들었다. 아주 교활하게 그가 음모를 꾸몄기에, 그들은 각각 “나인가?”라고 말하면서 유다보다 오히려 자신들을 의심하였다.

유다처럼 그리스도의 유익에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은 가식과 보여주는 것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참 헌신에 매번 반대한다. 슬프게도, 많은 수의 참되게 신실한 제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고 선을 행함”에서 벗어나도록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

## 마리아의 방어자

다섯 째, 7 절과 8 절에서 주 예수께서 마리아의 방어로 오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하 2:30)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처럼 선하시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8 절).

마리아는 종종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녀는 많이 들었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분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다. 그녀는 바리새인들이 일단 그분을 사로잡으면 그녀는 그분께 기름부을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날을 위하여 그분께 기름부을 이 기회를 잡았다.

마리아는 주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분의 가르침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날에, 마리아는 믿고, 믿고 있었고, 이해하였다.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믿는 것이다. 사람의 말 속에 세워진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세워진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고 다시 사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단순히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그분께 기름 부으려고 가련하고, 부서진 마음의 용서 받은 죄인으로 왔다. 당신은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당신의 느낌인가? 당신의 체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요한일서 5:7-12).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쓴 Martin Luther 과 전적으로 동의한다...

“느낌은 오고 느낌은 간다,  
또 느낌은 속인다.

나의 위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아무것도 믿을 가치가 없다!”

다윗과 함께, 나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19:81, 114, 49; 130:5). 우리의 느낌은 소망에 대한

근거가 아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던 그것에 있다. 만약 내가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원천과 근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본문이나 사실이나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하셨던 어떤 것으로부터 세워져야 하고, 우리 마음으로 받았고 믿었던 것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9). —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28:26). 선한 느낌은 우리 소망의 근거로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를 가리킬 수 없다면 속이는 것이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의 책에서 찾고, 하나님의 책에서 일어나고 기초한다.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하나님의 책은 믿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확고한 소망을 주도록 특별하게 기록되었다 (요한일서 5:1-3).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속자의 위격과 역사이다 (로마서 8:34-35; 고린도후서 5:17-21).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위에 건축되는 기초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 소망” (디모데전서 1:1). —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한다.” (테살로니가전서 1:3). —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애가 3:24). —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 우리 언약의 보증, 우리 복된 죄속량의 구속자, 우리 의, 하늘에 계신 우리 변호자이고 대제사장 안에 있다. —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 후서 1:12).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책에서 계시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선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우리 마음 속에서 내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백성으로 언급한다 (로마서 12:12). 로마서 5:5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라고 하였다.

주 예수께서 마리아의 동기를 떠맡으시고, 그녀를 방어하려 오셨으며, 그녀를 믿음과 헌신의 본보기로 높이셨다. 다윗이 말한다.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시편 31:2). —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시편 35:1), 그리고 선지자는, —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밟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사야 38:14). —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기 5:8). —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154).

8 절에서 구원자께서, “교회 안과 세상 가운데 너희가 관심하고 공급하여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육신 가운데 너희와 아주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내게 직접 보일 너희 사랑과 헌신의 이런 기회들이 없을 것이다.”고 말씀 하

신다. 그러나, 오늘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분께 행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25:34-40).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적이고 영원하며,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필요를 섬기는 기회를 언제나 찾아야 한다.

## 지독한 뻔뻔함

여섯째, 9-11 절에서 지독한 뻔뻔함과 불신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본다. —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9 절).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사람이 베다니로 향했으며,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3.2 킬로미터 정도 떨어졌다. 주 예수께서 그곳에 있다고 고발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서 사망에서 살리셨던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베다니에 왔다. 천연적인 사람의 이해가 얼마나 우둔하고 어두운지, 창조주보다 호기심에 더 관심이 있고, 생명을 주신 분보다 나사로에 더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닌가!

여기서 다시 기적이 그리스도의 신격과 권능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며, 그것들은 구원의 믿음을 낳지 않는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고 운행이며, 복음 전파로 죄인들의 마음 속에 부어지고 역사한다 (누가복음 16:29-31).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듣게 되는 한편, 그들은 요한복음 2:23-25 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았다 (요한복음 12:37-40).

대제사장들은 인상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께서 받으셨던 평판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분께 모여들었기 때문에 분노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역시 죽게 할 것을 합의하였다. —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10-11 절).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경직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를 원했으며,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를 원했다. 그들은 나사로의 존재가 구원자, 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을 과시적이고 종교적인 위선자들로 정체를 드러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뻔뻔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늘 왕국의 사도이고 전도자인 유다는 스스로 도둑은 물론 배신자임을 입증하였다. 세상이 지속하는 한, 방탕한 사람은 인간 부패의 깊이에 대한 지속되는 증거로서 지키고 있을 것이다. 삼 년 동안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누구든 따를 수 있고, 그분이 모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들으며, 손수 반복된 친절을 받으며, 사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마지막에 마음의 부패함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처음 보기에 믿어지지 않고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다의 경우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속이고 절대적으로 사악한”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어떤 사람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지독한 뻔뻔함과 불신의 양을 아는 자가 없다. 만일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이라도 알고, 우리의 약하고 결점에 대한 모든 느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전서 10:12).

주 예수께 행해진 이 행동은 단순한 존경과 존귀의 행위였다. 이 여인 편에서 그것은 큰 겸손을 보여주었다. 더 중요하게, 그것은 아가의 실질적인 성취였다 (1:12) —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이 여인이 행하였던 것, 모든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설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로운 나드 기름(역주: 감송유), 부요하고 향기로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나드 기름을 담은 옥합 같은 것이다. 이 사랑스런 여인이 나드 기름을 담은 그녀의 옥합을 열었던 것처럼, 달콤하고 달콤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의 집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여는 것은 복음 전도자의 특권이고 책임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쏟아 부은 기름과 같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달콤한 향은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집 안에 퍼진다.

모든 속량 받은 죄인이 영적이고, 그분 안의 믿음으로, 충분히 받으실 가치가 있는 그분께 존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자. 충성의 입맞춤으로 당신의 주권적인 왕인 그분께 기름 부어라. 회개의 입맞춤으로 당신의 영광스러운 구원자인 그분께 기름 부어라. 애정의 입맞춤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그분께 기름 부어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그녀의 기름은 낭비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수고는 헛되지 허비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으로 솔로몬이 말한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은” (전도서 7:1) 그 선택 이름을 가졌다. 당신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기실 것이다 (사무엘상

2:30).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 81 장.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요한복음 12:12-19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찌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12:12-19)

성경의 이 단락은, 처음 보았을 때 주님의 땅에서의 삶과 사역의 나머지와 동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신약에 기록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같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대중을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로 올렸던 유일한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신약에서 네 번 기록되어 있다. 분명히, 우리 앞의 장면은 주의 깊게 자주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배우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소서.

그 대화는 그의 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어떤 왕실 정복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 “대단히 많은 수”가 빠른 속도로 “군중”으로 불어났고 (어떤 사람은 군중이 적어도 300,000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개선 행진”처럼 묘사된 그분을 따르고 있다. 큰 소리의 찬양과 아첨하는 말이 공중에 울렸다. “성 전체가 움직였다.” 모두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하며 알기 원했다.

이 단락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땅에서의 삶과 사역의 전체 방향과 대치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전체가 외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며, 길거리에서 그 목소리를 높이는 그분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분은 언제나 군중으로부터 빠져 나왔고, 칭찬에서 숨었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치료 받았던 자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하였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다.

하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공개적인 개선 행진은 우리가 보기를 기대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의 때와 그분의 영광의 때, 그분의 체현의 때가 가까웠음을 잘 아셨다. 그분의 치욕과 땅에서의 사역의 때를 마칠 때가 오고 있었다. 그 때는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려 했던 그 일을 마치셔야 할 때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분의 마지막 극적인 일이 그분 앞에 있었다. 저주의 나무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속량이 되고 그들을 구속하는 것 외에 그분이 하실 일이 남아 있지 않았다. 우리의 천연적인 것을 입으셨고, 그

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된 다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으므로, 주 예수께서 이제 그분의 일을 마치셔야 한다. 그분은 그분의 죄 속량의 죽음으로 모든 의를 충만케 하셔야 한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희생으로 공의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셔야 한다.

## 그분의 때

구원자가 오래 동안 예견했던 때가 왔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했던 때가 왔다. 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 당하고, 속량의 참된 피가 흘러지며, 메시아가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잘려나가야 하고” (다니엘 9:26),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참된 대제사장에 의해 궁핍한 죄인들을 위하여 열려야 할 때가 왔다.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분 자신께 주목을 끌게 하셨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의도적으로 유대 나라 전체가 아는 곳으로 자신을 두셨다. 이 일이 “한편 구석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만이 옳았다 (사도행전 26:26). 공개적이었던 우리 주의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어떤 임무가 있었다면, 그것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그가 드린 희생이었다. 그분은 모든 종족이 유월절 축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집합하였던 해에 죽으셨다. 신성하고, 섭리의 안배로, 영원한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분의 뛰어나고 공개적인 개선행진을 하고 일주일 내에 죽으셨으며,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도록 하셨다. 군중의 이 공개적인 선포—“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

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친 후 일주일 이내에, 그 동일한 군중은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찌어다!”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지도록 오셨기 때문에 모든 자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에 의해서 그분의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죄 속량의 피가 뿌려질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행위는 “한 편 구석에서 행해지지” 말아야 했다 (사도행전 26:26). 따라서, 그분의 대부분의 삶을 의도적으로 비밀 가운데 보내셨던 그분은 대중의 시야에서 가리워졌고, 그의 흠모자들이 그분을 왕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였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공개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려 오신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을 것이다. 이 장엄한 행렬은 그분이 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며, 이제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가시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이다.

##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이며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축복의 삼위의 두 번째 위격이신 분은 영광의 왕이며 우주의 왕이시다<sup>viii</sup>.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속자로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순종의 덕으로 모든 것 위에 왕이시다 (시편 2:8; 요한복음 17:2; 로마서 14:9; 에베소서 1:21-22; 빌립보서 2:9-11). 그분을 우리의 위대한 왕으로서 언제나 경배하고 순종하자. 그분 앞에

자기 의의 우리 누더기 옷을 영원히 벗어 버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9)

“호산나”라는 말은 경배와 찬양의 외침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이다. 그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 왕이신 그분께 엎드릴 때에만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서 예배하고 경배 드린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구원자로 예배하고 신뢰할 때,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고, 마치 이 군중이 왕 앞에 “자기 겹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찢던” (마가복음 11:8) 것처럼, 우리 왕이신 그분께 엎드린다.

## 자원한 희생

이 단락에서 내게 충격을 준 첫번째 것은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주님의 자신의 희생은 자원하는 희생이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분의 고난은 자원한 것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자원한 것이었다. 여기 기록된 것은 한낮의 해처럼 분명하고 성경이 보편적으로 선포한 것처럼,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서 주권적이고 비밀스러운 영향을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의지 위에 미칠 것임을 보여 준다. 어떤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들어가신 것이 그분 주변에 있는 군중에게 미친 효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 비록 사람들은 그분을 몰랐지만, 주권적인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려 한 비밀스럽게 압박하는 능력으로 감동되었고 흥분되었다. 다른 어느 때 이스라엘에 있는 보통 사람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 무리에 대항하는 행동을 했던가? 그러나 여기서, 비록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가 죽음에 넘겨지게 될 것임을 알게 하였지만, 그

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저항하였다 (요한복음 11:57).

그분이 바람과 파도와 질병과 마귀를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그분의 뜻에 따라 돌이키셨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신다.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원자는 이 세상을 행보하실 때 하나님께만 속한 이 권능을 행사하셨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분이 “그들 가운데를 지나시고 그분의 길을 가실” 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누가복음 4:30). 예루살렘의 성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성난 손짓을 그분께 했었을 때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그들 한 가운데를 지나시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59). 무엇보다, 동산에서 그분을 체포하였던 바로 그 병사들은 그분이 자신을 여호와, “내니라”고 드러내셨을 때 먼저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다.” (요한복음 18:6).

이런 일 각각에서 한 가지 설명만 있을 수 있다.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4 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치셨던 것이다 (다니엘 4:31-32). — “하늘이 다스리느니라!” 그리고 땅 위에서 인간의 육신 안에서 행보하셨던 분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그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다! 우리 구원자의 땅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비밀스럽게 “숨겨진 그분의 능력”을 나타냈던 이 전능한 행위들을 본다 (하박국 3:4).

만약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여호와라면, 왜 그분께서 그 대적들에 저하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분을 체포하려 왔던 군대를 바람 앞에 겨처럼 흩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오직 한 가지

답만 있다. — 그분은 의도적인 대속자셨다! 그분의 희생은 의도한 것이며, 자원한 희생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았던 선택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기 원했던 한 분의 죽음이었다. 그분은 우리 자리에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대가 없이 내려놓으심으로 우리 죄들을 위한 속량이 되셨으며 우리를 모든 사악함으로부터 구속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속량으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실 것을 짊어지셨으며, 그분의 거룩한 마음의 모든 갈망으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J.C. Ryle 이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다…

“그분은 뛰어난 힘으로 정복당하셨기 때문에 피 흘리고 고난 받고 죽은 것이 아니며, 스스로 도우실 수 없었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분이 사망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혼을 죄에 대한 제물로 기꺼이 삼으셨기 때문이었다.”

아 나의 혼이여, 이 축복의 구원자와 구속자 위에 영원히 안식하라! 이 달콤한 은혜로운 계시 위에 우리 혼이 영원히 안식하도록 하자. — 우리 주 예수께서 자원한 구원자시며, 자발적인 구속자시다.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 가련하고, 길 잃고, 죄지은 죄인들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 오랜 영원 가운데 우리 보증으로 그분이 짊어지신 그 역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공홀 안에서 기뻐하시고 죄 사함 가운데 기뻐하신다.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기꺼이 구원하시고, 기꺼이 받으신다. 기

꺼이 저주 받은 죽음에 속한 모든 두렵고 굴욕스러운 고통을 받으셨던 그분,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죄가 되셨던 그분,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저주 받으셨던 그분은 그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기꺼이 구원하신다!

## 성취된 예언

첫째,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한 대속자이셨음을 본다. 둘째, 본문은 이 책, 성경이 진리 가운데 영감을 받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우리 앞에서 있다. 사실상, 마태의 이야기 (마태복음 21:4-5)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성취되도록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다. — “다 이루었도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실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탔다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때문이었다. 그리고 성령은 구약의 두 단락을 함께 두셨다 (이사야 62:11; 스가랴 9:9; 마태복음 21:4-5).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딸아 두려워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12:14-15).

그렇다, 이 책, 성경은 의문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충만하고 완전하게 영감을 받았고 오류가 없다 (디모데후서 3:16-17; 베드로후서 1:20-21). 스가랴의 예언은 이 일이 있기 550년 전에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성취되었다. 또 한번,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완벽한 조화의 분명한 예를 본다.

구원 받고, 의를 경배하는 아르메니아주의자에겐 그런 것이 없다. 그들이 그분께서 그분의 길을 가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그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거나, 그분이 끝내지 않고 남겨두신 어떤 것을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가 실패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지옥 가운데 궁극적으로 영원히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였던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소망이 없다. 당신이 신뢰하는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요한복음 17:3).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줄 생각났더라.” (16 절). — 이 제자들은 사도들을 포함하여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성경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것들을 이번에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분 앞에 종려나무 가지들과 그들의 옷을 뿌리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행해졌고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그들은 알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이 유대인 통치자로서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분의 말씀과 베드로가 오순절에 분명하게 범하였던 것처럼 왜 그것들이 성취되었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32-36).” (Henry Mahan).

요한은 제자들이 스가라의 예언과 우리 주의 가르침을 나중까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슬프게도, 주의 가르침을 아는 많은 사람이 있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주님을 모른다. 발람은 이 사실에 있어서 분명한 집사로서 있다. 그리고 어떤 참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매우 분명하지 않다. 아볼로는 성경에 대하여 강한 사람이었지만, 브리실라와 아길라가 그를 그들의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완전하게 주의 길 안에서 그를 가르칠 때까지, 그는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만을 알았다 (사도행전 18:24-28).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것임을 그에게 확신시키려 직접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조차 알지 않았다. 그는 단지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구약 성경만을 알았다 (사도행전 10 장). 그러나 분명히 그는 믿는 자였다. 구원하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다. 그리스도만 구원의 믿음의 대상이지, 교리나, 느낌이나, 체험이나, 지식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의 부활과 승천과 찬양 직후, 일단 그분이 시온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으므로, 사건들이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초기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억하는 일들은 좋은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것임에 틀림 없다. 소설을 읽으면서, 앞서의 장들에서 왜 이 장이 소개되었고, 그 언급이 무슨 뜻이며, 왜 그 사람이

이것 저것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은 놀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일이 드러나고 맞아떨어진다. 나는 그것이 부활 후 사도들을 위한 방법이었는지 추정한다. 빛이 도처에 갔다. 그들이 말했던 것에 대한 수백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것은 주께서 의도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분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19). —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태복음 21:42) —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6:16) —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22:45)”

우리 구원자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그분의 부활과 높여지심의 빛 가운데 새롭고 분명한 의미로 빛났다. 그 뿐만 아니라, 일단 주 예수께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들 위에 그분의 영을 부으셨으므로, 구약 성경이 활짝 열렸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새끼를 타고 가셨을 때, 요한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들의 머리 위로 갔다. 그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 그러나 후에 스가랴의 예언이 빛을 내고 타올랐던 것은, 그들이 구원자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았던 그 날에 그 실질적인 성취를 목격하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유일하게 우리 둔한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열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복된 은사가 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7:39; 14:26).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넷째,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 9:9)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 선포의 축복을 보자. —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스가랴 9:9 은 기뻐할 명령으로 시작한다. — “시온이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 찌어다!” 시온은 단지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스가랴는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한다. 그 문구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가리킨다.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기를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신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 스가랴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이 그분을 일컬은 것처럼 왕이신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다니엘 9:25). 이것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소식의 종합이다. —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이 복된 사실이 모든 슬픔을 삼켜 버리고, 기쁨의 노래가 우리 마음에서 터져 나오게 하자 (예레미야 31:12). —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모든 믿는 자가 그 예언을 확실하게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읽도록 하자. —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 우리 왕 같은 왕은 없다.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주이시고 당신의 왕이 당신께 오심은 당신의 영원한 유익을 위함이다.

교회, 하나님의 성은 여기서 기쁨과 즐거운 외침으로 불린다. 바벨

론은 신음할 것이다. 그러나 시온은 기뻐할 것이다. 애굽은 신음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외칠 것이다. 아 하나님의 자녀여,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 무거운 마음 속에 있지 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난 자는 모두 위대한 왕의 성인 기쁨의 성의 시민이다.

예루살렘은 왕을 가졌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다 — “왕 중의 왕 이시고 주 중의 주” — “이스라엘의 왕” — “열방의 왕” — “세상 왕 중의 왕.”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의 예의이다. —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사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왕”이시다. 시편 149:2 에 기록되길, “시온의 자민은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찌어다!”

여기서 그들의 왕이 그들을 위하여 하신 것 가운데 기뻐하는 시온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합당한 처소에 있는 그것들은 진실로 달콤한 찬양의 대상이다. 그러나 시온의 찬양의 주제는, 첫째와 가장 우선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이다. 이 분명하게 작지만, 가장 중요한 구별을 결코 잊지 말자. 주는 그분의 은사 가운데 은혜로우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은혜롭고, 그분의 구원 가운데 은혜롭다.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그분의 공훈로부터 나오며 찬양과 감사로 인정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의 대상은 그분의 은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내가 원하고 소유해야 하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풍성하다. 그분이 없이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

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4-8).

## 현재 시제

예언을 현재 시제로 기록된 대로 읽어라. —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사천 년 동안 그분은 “오시는 분”이셨다. 사천 년 동안 약속은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말했다. 이제 그분이 오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적용으로 읽고자 한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아가 2:8; 3:6).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집 안에서, 그분의 계명 안에서, 크신 신실함과 부드러운 긍휼과 사랑의 친절하심 안에서,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아 하나님의 자녀여,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분께서 당신이 그분께 나오게 하신다 (마태복음 11:28-30).

“그분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 그분은 공의로우므로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의 공의와 의롭게 하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은 그분이 우리의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불의한 자들

을 위한 의로운 구원을 베푸신다. 그분이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고 구원하시기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 안으로 오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며” 오셨다! 아, 그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 “구원을 베풀며.” 좋아하지 않는가? 그분은 우리 가련한 혼으로 그분의 손에 구원을 갖고 행하시려 오신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혼의 구원을 베푸셨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보증으로 그분 손에 맡겨졌다. 구원이 주요 내용인 은혜의 언약은 그분과 함께 만들어졌으며, 그 언약의 보증이신 그분이 그 일을 짊어지셨다. 시간의 충만 가운데,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아,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죄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그분 자신의 피로 하늘로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리고 이제, “네 왕에 네게 오시나니 — 구원을 베푸심이다!”

스가랴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려 오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 오셨는가를 말하면서, 우리 왕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한다. —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 우리 위대한 왕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심지어 그분이 예루살렘에 승리 가운데 오실 때에도 그러하셨다. 그는 그분의 오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온유함을 보였다. 군대도 없고, 호위병도 없으며, 행렬도 없고, 나부끼는 깃발도 없다! 전차도 없고, 군마도 없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시며, 나란히 숫망아지, 즉석에서 준비된 장식 없는 나귀새끼만 보인다. 그분은 한 때 사람의 아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낮게 계셨다. 아무도 절대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오지 않았으며, 그분처럼 그렇게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도 않았다 (고린도후서 8:9).

아 죄인아, 와서 이 겸손한 분에 대하여 배워라. 그분이 당신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모든 악과 어둠과 당신 속에 있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당신의 가장 충만한 확신을 드리라. 그분 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으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말씀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이 얼굴을 찡그리시는가? 그분이 등을 돌리시는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환영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필요로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환영 받는다.

## 비유

다섯째, 우리가 이 전체 그림을 비유적인 관점으로 보기 원한다. 이 예언에서 우리 주의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으로 인한 역사적인 성취보다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기 계시된 영적인 것들이다.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사래와 하갈의 이야기가 비유임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비유이다. 그것은 사실과 역사적 사건의 예언이지만, 그 이상이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에 의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묘사한다.

우리는 결코 성경을 영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기 원하는 어떤 것으로든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는 것은 끔찍한 무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영적 의미에 대하여 각각의 특정한 단락이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내 생각에, 우리 주의 삶과 사역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구원자의 땅에서의 사람에 있던 모든 사건들과 그분에 의해 수행된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그분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그림과 목적 있는 공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므로, 특별히 사실이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책을 읽을 때, 그것이 삶으로 온다. 나의 손자, Will은 이제 두 살이었고, 일요일 아침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사무실로 걸어 들어와서 기어서 내 무릎으로 올라왔다. 열려 있는 내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 아이가 물었다. “하부, 이게 예수님이 사는데야?” 나는 그 아이에게 좀더 긴 답을 해주었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 주 예수께서 바로 여기 이 복된 책 안에 살아 계신다.”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 한 마디가, 그분이 하셨던 때 순간마다, 그분이 내뱉던 때 발자국마다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정되었으며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택정하심, 구속하심, 구원하심, 공훈, 사랑 그리고 은혜에 속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으로 계획되었다. 작은 세말한 것 조차도, 정보로 기록된 것 이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보이신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주 예수께서 자신의 소유를 구원하러 오실 때 여전히 “나귀를 타고” 오신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예

루살렘의 거리를 거친 나귀새끼를 타고 통과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주권적이고, 택정하고, 사로잡고,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속한 그림으로 그것을 보아야 한다.

사도 요한은 선지자 스가라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의 개선 입성은 그분의 왕국의 특징과 우리 왕으로서 그분의 역사의 특징을 보여주도록 준비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은혜의 무한한 겸손 가운데 자신을 보이시려 그분은 “나귀, 나귀의 숫망아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분은 전쟁의 활을 부러뜨리고 “이교도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려” 오시며 “바다에서 바다로, 심지어 땅 끝까지” 우주적인 통치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려 오신다.

## 욥기 11:12

욥기 11:12 에서 우리는 그 위에 영광의 왕이 타고 승리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거리를 통하여 타고 오는 길들이지 않은 나귀새끼가 누구인지 본다. 그 길들이지 않은 나귀새끼는 아무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았던 나귀이고, 우리 구원자가 예루살렘을 통과하며 타고 오셨던 나귀는 성경 안에서 타락한 사람의 그림이다. 당신과 나는 모두 천연적으로 “길들이지 않은 나귀새끼 같고,” 어리석고, 무감각하며, 고집세고, 거칠며, 정욕과 방탕에 넘겨졌다. 야생 나귀처럼 재갈을 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타셨던 것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멍에에 얹드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천연적으로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하므로 혈떡거름 같다.” (예레미야 2:24; 욥기 39:5).

영화에서 우리는 나이든 사람들이 당나귀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당나귀들이 멋지고, 점잖으며, 달콤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만약 공간이 있다면, 애완동물로 삼고 싶은 종류다. 그러나 그것은 천연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 열등한 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만약 당신을 태우고, 짐을 싣고, 마차를 끌게 하려는 것을 한 마리 얻으려 한다면, 당나귀가 기가 꺾이고 길이 들여질 때까지 뛰어 오르고 발길질 하고 물 것이다. 모든 게 실패하지 않으면, 당나귀는 그대로 앓을 것이다.

그것은 타락한 사람에 대한 아주 좋은 그림이다. 하나님으로서 지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면, 모든 사람은 그분께 기뻐 감사를 드려야 하며, 그분의 법에 순종해야 하고, 그분께 예배 드려야 하며, 그분께 지불할 것을 드려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사람을 얻으려 할 때, 그가 발길질 하는 것을 지켜 봐야 한다. 종교적인 거친 망아지들에게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속과 은혜에 대하여 달콤하게 진리를 말해 줘라, 그러면 그들은 날뛰고 물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왕께서 그 거친 나귀를 타실 때, 그는 기가 꺾이고 즐거이 타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포유류들 중 하나가 아프리카 야생 당나귀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전세계에 수백 마리가 안 된다. 나는 실제로 그것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 하지만 나는 본문에서 그 길들이지 않은 나귀새끼로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

“이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웅대한 특징이 애해 되어야 한다:

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나,  
그들 스스로 그런 자는 거의 없다.  
이런 자들 같은 자에게 우리 주께서 보내지셨다;  
그들은 오직 회개하는 죄인들이다.

구원자께서 가져오실 수 있는 것이 어떤 위로인가?  
그들의 비통을 결코 느끼지 않았던 그들에게.  
한 죄인은 신성한 것이다;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분으로부터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하리니,  
죄로 인하여 당연히 비통해하기 전이라.

이 신실한 말을 갖도록 하자,  
믿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오셨으니,  
그분으로 죄인들이 구원 받음이라.  
죄인들은 그분 안에서 지극히 높으니,  
또 죄인들이 그분을 높이 여김이라.”

## 82 장.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2:20-33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

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의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자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복음 12:20-33)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0 절). — 유월절 명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가장 중요한 거룩한 날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던 명절이었으며,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일 때 절정에 이르렀다. 도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거룩한 명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많은 수의 유대인 개종자들도 있었으며, 유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그들의 야만적인 우상에 등을 돌렸던 그리스인들이었으며 한 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였다.

그들은 성전에 오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이방인의 뜰에만 오도록 허락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결코 유대인과 함께 완전히 열납되는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서 인종이나, 사회나, 경제나, 예식의 구별이 없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갈라디아서 6:15). — 은혜로운 새 창조 안에서,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

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11).

## 예수를 찾는 이방인

이들 그리스인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굉장한 기적을 행한 자, 선지자, 몇몇의 어부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경배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들었다. “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1 절). — 이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주 예수와의 알현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구원자의 많은 기적들에 대하여 들었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거듭난 모든 혼이 가장 위대한 예표였던 자 (요한복음 5:24; 에베소서 2:1-5), 나사로의 부활 (요한복음 12:9)에 대하여 들었다는 것이다. 이방인이므로, 이 사람들은 주께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요청을 빌립에게 하였고, 그는 벳새다에서 온 자였고, 아마도 이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빌립을 알았고 그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알았던 것처럼 보인다. — 22 절을 보라…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 빌립은 이 문제를 안드레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와 안드레아가 함께 그 문제를 주 예수 앞으로 가져갔다. 왜 그런 단순한 요구가 그런 문제를 보였다고 생각하는가? 애 이 문제가 빌립과 안드레를 크게 어지럽혔던 것처럼 보였는지 세 가지 이유

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큰 혼란 속에 있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일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 (10 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를 왕으로 만들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 (12-13 절).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하여 걱정하였고 화가 났다 (19 절).

둘째, 주의 제자들은 단지 그들의 대속자이고 하나님 왕국의 참되고 영적인 본성이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필요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 예수를 신뢰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거의 몰랐다. 그들은 그분께서 삼 년 반 이상이나 낮과 밤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에 대하여 거의 몰랐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음이 그들의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지 않다. —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16 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사시기를 원했다. 그들은 땅에 속한 유대 왕국을 원했다 (누가복음 24:21; 사도행전 1:6).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구원 받을 수 없었다 (로마서 3:24-26).

셋째, 빌립은 주께서 이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마지막 갈대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생각했을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죽이기를 바라던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주었을 것이다. 나는 거의 그분의 결심을 들을 수 있다. — “주여, 이 그리스인들이 당신의 말씀 듣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나는

그것에 대하여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지금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임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일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들까 두려워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 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왕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 것입니다.” 그리고, 23-33 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고무할 기회를 그치셨다.

###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 절). —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육신의 목적을 다시 보여주신다. 그분은, “때가 왔도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그 비극이 이르렀다 (요한복음 2:4; 7:30). 이 때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위에 영원히 찬양 받으시며,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때가 아니었다. 이 때가 사람이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로서 우리 친애하는 구원자를 소유하여야 할 때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때가 이르렀지만, 이 때는 그 때가 아니었다. 이 때는 인자, 곧 마지막 아담의 때였다 (디모데전서 2:5; 요한복음 17:1-5). 이 때는 구속의 때였다 (다니엘 9:24). 이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까닭의 때였다 (히브리서 10:5-10).

### **그분의 죽음의 의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라.” (24 절). — 여기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은 자신을 옥수수나, 밀 알로 묘사하신다. 그것은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 한 알의 낱알 속에 많은 낱알이 있으나, 오직 그것이 죽을 때라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죽을 때 뿐이다. 만약 그것이 죽지 않으면, 혼자만 남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 그분 안에 많은 백성을 소유하셨다 (에베소서 1:3-6). 그분은 죽어야 하셨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홀로 계셔야 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죽으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생명으로 나올 것이며, 모두가 그분처럼 될 것이다. 심겨진 낱알과 수확한 낱알은 동일하다. 그것은 우리 혼을 기쁨으로 채우는 축복의 소망이다 (유다서 24-25). 따라서 인자는 영광 받으실 것이다 (23 절; 이사야 53:10-12).

## 구원의 방법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 그분이 구속과 생명 주는 죽음의 이 얼마나 복된 예시인가!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 그분은 죽어야 할 죽음을 취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한 자들 모두 역시 죽어야 할 죽음을 취한다. 동일한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25-26 절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할 것이다. 여기 대답이 있다. 만약 당신의 목숨을 구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5-26 절)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농부가 밭, 좋은 밭 한 부대가 있다. 그것은 그의 소유이다. 그는 그것을 잠시 동안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그의 돼지들에게 먹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것을 갖고 있고, 그의 육적인 음식으로 만족하는데 사용하고, 지나가고, 일시적인 계획으로만 사용하고, 그것을 낭비한다면, 그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아주 곧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필요한 것만 남기고, 만약 미래를 보는 눈으로 그 낱알을 집어서 땅에 뿌린다면, 그는 곧 풍성한 곡식의 수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도 생명이 있고, 당신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지켜라? 사랑해라? 보호해라?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막아라? 소중히 해라? 요구를 채워라?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생명을 지킨다면, 나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당신에게도 사실이 된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우리는 생명의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함을,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과 올 세상에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도 그리스도와 세상을 모두 사랑할 수 없다. 아무도 두 갈래 방향으로 걸

어갈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과 이 삶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잃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당신의 생명을 드리  
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는다.  
당신은 두 가지 모두 할 수 없다 (사도행전 20:28; 디모데후서  
1:12).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  
는 것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  
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따르고 섬기  
고, 그분께 희생하는 옛날의 노예 상태로 드리는 것이다! — 그 어  
떤 도전인가! 나는 당신이 쟁기를 잡는 것에 대해 말하며, 결코 뒤  
로 돌아가지 않고, 결코 뒤돌아 보지 말자! 나는 입다의 위임에 대  
하여 말하고 있다 (사사기 11 장). 나는 룻의 해결책에 대하여 말  
하고 있다 (룻기 1:16-17).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인하여 그분이 어디 계신 지와 무엇을 하시  
는지, 누가 따르는 지를 찾는 것이다. 추측의 작업이 포함되지 않  
았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일에 대한 분이다. 그분은 그분의  
양 떼를 찾고 있다 (누가복음 19:10). 그분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역하시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 그분은 그  
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그분은 기도 가운데 계시다 (요한복  
음 7:53-8:1). —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구원자는 기  
도하러 산으로 나가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의해 멸시 받으시고 증

오를 받으셨다. 그들은 성 밖으로 데려가서 그분을 나무에 못박았다. —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13).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의 구원자와 함께 나를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을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자. 그분은 하늘에 오르고 보좌에 앉으셨다.

“세상을 가져가라, 하지만 예수를 내게 다오.  
그 모든 기쁨은 오직 이름뿐이다!  
하나 그의 사랑은 영원히 거하니,  
영원하도록 동일함이로다!

세상을 가져가라, 하지만 예수를 내게 다오,  
내 혼의 가장 달콤한 위로이니;  
그리고 나의 순례 여정을 통하여,  
파도가 칠 때 나는 노래할 수 있네.

아 긍휼의 높고 깊음이여!  
아 사랑의 길고 넓음이여!  
아 구속의 충만이여,  
위에 있는 끝없는 생명의 약속이여!”

그리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히 여기시리라.”고 하시고, 그분은 지금과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사무엘상 2:30).

**그분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27-28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것을 사례로 보여 주신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인생의 목적을 보여 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셨고 섬기셨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2:27).

아 하나님의 영이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기 위해서만 이 세상 가운데 살 것을 내게 은혜롭고 효험있게 가르치심으로, 내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소서!

## 그분의 사망의 성취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29-33 절에서 그분의 사망의 성취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결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

복음 12:29-33).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구원자의 죽음은 이 세상의 심판이며, 뱀의 머리를 으깬으로, 사탄에 대한 그분의 오랫동안 확신된 승리였다 (창세기 3:15; 31 절). 따라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은 효험 있게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그분께 그분의 권능의 이 날에 이끄신다 (32 절; 시편 110:3).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값진 진주이다. 당신은 이 진주를 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지나칠 것인가? 한 부자와 그 아들은 희귀한 예술품을 수집하기 좋아했다. 그들의 수집은 피카소에서 라파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앉아서 위대한 예술품을 넷을 놓고 바라보았을 것이다. 베트남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들은 전쟁에 갔다. 그는 매우 용감하였고 다른 병사를 구조하는 가운데 전투 중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통지를 받았고 그의 유일한 아들에 대하여 깊이 애통해 하였다. 한달 후쯤, 성탄절 바로 직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한 젊은 사람이 커다란 소포를 그의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선생님, 당신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제가 당신의 아들이 목숨을 바쳤던 그 병사입니다. 그는 그날 많은 생명을 구했고, 그가 가슴에 총알을 맞고 즉사할 때 나를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당신에 대하여 이야기 했고, 당신의 예술에 대한 사랑도 말했습니다.”고 말했다. 그 젊은이는 이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것이 큰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저는 사실 위대한 예술가는 아닙니다만, 당신의 아들이 이것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 상자를 열었다. 그것은 그 청년이 그린 그의 아들 초상화였다. 그는 그림으로 그의 아들의 분

위기를 그 병사가 잡았다는 그 방법에 놀라서 응시하였다. 그는 젊은이에게 감사했고 그림에 대한 값을 제시하였다. “아, 아닙니다 선생님. 나는 결코 당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 한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아버지는 그 초상화를 그의 망토 위에 걸었다. 그의 집에 방문객들이 올 때마다 그는 손님들을 그가 수집한 다른 위대한 작품들 중 어떤 것을 보여주기 전에 그의 아들의 초상화를 보여주려 데려갔다. 그 사람은 몇 달 후 사망하였다.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그림들에 대한 경매가 있었고, 위대한 그림들을 보고 그들의 수집을 위한 작품 하나를 살 기회를 갖게 된 것에 흥분하였다. 단상에 아들의 그림이 놓였다. 경매사가 그의 망치를 쳤다. “이제 이 아들의 그림에 대한 경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 이 그림 가격을 매기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경매장 뒤에서 한 목소리가 소리쳤다. “우리는 유명한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건너뛰시다.” 그러나 경매사는 거절했다. “누가 이 그림에 대한 가격을 매기겠습니까. 누가 가격을 시작하겠습니까? \$100, \$200?” 또 다른 목소리가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고호의 그림이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진짜 매물로 시작합시다!” 그러나 경매사는 여전히 계속하였다. “아들입니다! 아들!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마침내, 한 목소리가 방의 제일 뒤에서 나왔다. 그것은 오래 동안 그 사람과 아들의 정원사였던 사람이다. “내가 그 그림에 \$10 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으므로, 그것은 그가 제시할 수 있는 전부였다. “\$10 나왔습니다. \$20 매기실 분 있습니까?” “그걸 \$10에 그에게 주세요. 걸작들을 봅시다.” “\$10이 입찰가입니다, 누가 \$20 내

실 분 없습니까?” 군중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들의 그림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좀더 값어치 나가는 투자를 그들의 수집에 하기 원했다. 경매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갑니다. 한 번, 두 번, \$10에 팔렸습니다.” 둘째 열에 앉아 있던 사람이 소리쳤다. “자 이제 수집품을 시작합시다!” 경매사는 그의 망치를 내려 놓았다. “죄송합니다, 경매는 끝났습니다.” “그림들은 어떻게 하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 경매를 진행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저는 유언에 비밀 약정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까지 그 약정에 대하여 드러내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그림만 경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그 그림을 사는 사람은 그림들을 포함하여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가져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아들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을 받는다.

## 83 장. 세상의 위기—요한복음 12:31-33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 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복음 12:31-33)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8-9). — 우리 구원자의 입술에서 나온 이 선언으로 한 것보다 더 분명하고 비상하게 진리임을 보여준 것은 결코 없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선택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의 나무 위에서 죽으시도록 보내심으로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내게 있어서 엄청나게 놀랍다! 아, 비밀들 중의 비밀이다.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음이여! 아, 그분의 긍휼의 깊음이여! 아, 그분의 지혜의 넓음이여! 실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생각들은 우리를 넘어서는 것이며, 하늘만큼 높음이 땅 위에 있다.

요한복음의 이 12 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실제로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죄 속량을 자세히 보이셨다.

그분은 빌립에게 왔고 빌립과 안드레아가 그분께 데리고 왔던 그 그리스인들을 보셨으며, 그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 되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의 결과가 될 것임을 그분은 아셨고, 이방인들이 그분께 모일 것임을 아셨다. 그 생각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처형이 그분께 다가오고 있음을 확실히 했다. 오직 며칠이 남았다. 그리고 그 때 그분은 그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실 것이다.

### 우리의 고난 받으시는 구원자

갈보리의 기대로, 그분의 혼은 고난으로 충만하였다. 그분이 사망을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아주 기묘한 사망이 되어야 했다.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다. 사망은 아담의 아들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불의한 자로 인하여 의로운 자의 죽음이였다. 그분은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 안에 우리 죄들을 짊어지셔야 했다. 그분의 순수하고 거룩한 혼이 죄와 접촉하여 움츠러 들어야 하고, 죄가 되도록 하여야만 하는 것이 어떤 경이로움인가? 죄인의 자리에 서고, 범죄의 끔찍한 덩어리로 그분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당연한 죄 있는 자로서 아버지의 진노를 견디시는 것이 그분께 놀라게 하는 생각들이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매우 여린 마음이셨고, 울부짖으셨다. —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27-28).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고난 받으시고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것을 본다.

우리는 만지심으로 병을 낮게 하고, 한 마디로 마귀를 쫓아내시며, 파도가 그분께 복종하도록 명령하시며,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 내시는 분이 큰 고통과 다툼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본다. 그분을 짓누르고 있던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의 큰 짐을 느끼셨을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이 세상과 후에 겿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어떤 불평함도 없이, 그분은 그 뜻이 얼마나 끔찍하였을지 보셨으며, 그것이 내포하였을 것에 몸을 떠셨다. 여기서 하나님-사람께서 “다 이루었도다.”고 외치시고 영을 내어드리실 때까지 마셔야 했던 그 쓴 잔을 삼키고 계셨다.

우리 복된 구원자께서 이제 견디셔야 했던 그 끔찍한 고난들을 예상하신 가운데 생각에 있던 이 큰 고뇌 가운데 계셨을 때,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28).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친근한 관계와 연합이 구원자의 여정 전 과정 동안 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원한 아들을 인간의 메시아와 구속자와 구원자로서 완전하게 승인하셨다는 것을 곁에서 있던 자들에게 하는 증거였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고뇌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을 위한 격려의 말이 있다. 당신이 시험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실 것이다. 당신이 만약 그분의 자녀이며, 당신의 육체의 연합함이 당신의 영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또한 하늘로부터 안심시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

다.

구원자께서 그분 자신을 즉각적으로 회복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자신을 가다듬으시면서 즉시 다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죽음의 영광스러운 결과의 이상을 누리셨다. 여기 그분께서 그의 제자들을 확신케 하셨고 우리를 확신시키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과 마귀와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인치셨을 것이라는 점이다.

## 사망 안에서 성공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구속자께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루셔야 했을 죽음”에 대하여 말했던 것을 회상하게 될 것이다. 여기 31-32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그가 우리의 죄속량의 대속자로 그의 사망 가운데 성취하셨을 것 (그분이 성취하셨던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첫째, 주 예수께서 그분의 사망에 속한 확신과 분명한 성공을 선포하셨다 (31-32 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 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 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고난과 죽음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비록 그것들이 이미 성취되었던 것으로 말씀하셨기에, 이 세 가지 점들로 결론을 내리신다:

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2.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 세상의 심판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의 심판이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심판”이라고 번역된 말은 거기서 영어의 “위기”라는 말이 파생된 그리스 단어이다. — 따라서 우리 주의 말씀은 정확히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 — “이제 이 세상의 위기가 이르렀다.”

실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위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환점이었고, 세상 역사의 회전축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사망이었으며, 뱀 머리의 부서짐이었고, 사망에 대한 승리였다. 그리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복된 구원자는 세상의 거둢남을 보장하셨다 (계시록 21:5).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세상의 심판이었다. 세상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도행전 2:23; 요한복음 1:4-5, 10-11). 세상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를 싫어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세상은 만약 그들이 능력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을 그의 보좌로부터 끌어내렸으며 그분을 살해하였다. 세상은 선하지 않고, 단지 죄가 있다. — 우리가 감히 세상을 어떻게 품겠는가!

세상은 영광의 주를 죽음에 처하게 하였을 때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극악무도함을 가능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성한 공의를 가능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주 예수, 하나님의 귀한 아들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진노를 피하지 않으셨다면, 죄가 그분 위에서 발견될 때, 죄가 당신에게서 발견된

다면, 분명히 당신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이 분명하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당신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다면, 소망이 없다. 만약 당신이 예수의 피로 인한 속죄가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실 것이다.

십자가로 인하여 당신은 심판을 받았고, 십자가로 인하여 당신은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라: 그것은 종교이고, 그것은 선호이며, 그것은 불쾌한 기색이며, 그것은 평판이며, 그것은 우정이다 (요한일서 2:15-17; 갈라디아서 6:14).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갈라디아서 6:14). 그리스도 안의 믿음,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확신은 사도바울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바라보게 한 것이었다. 그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누군가를 두려워 할 이유가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기뻐하는 자는 이것을 배운 자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와 구속자로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 (세상의 왕)을 정복하셨고 그를 쫓아내셨고,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사망과 지옥과 무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복자들 이상이다 (로마서 8:32-39).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혹은 이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에 의해 죽임 당한 바로와 이집트 군사를 바라보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죽음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도 하지 말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죽은 것들로 바라보도록 하자. 혼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세상의 칭찬을 경멸하도록 가르친다. 죽은 자의 유익과 기쁨과 찬양이 똥처럼 무가치하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며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자에 의해 어떻게 여겨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모습이다 (빌립보서 3:7-15).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육적인 계명과 의식들을 “세상의 약하고 빈약한 초등 학문”으로 특별히 지칭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4:3-9).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므로” (로마서 10:4), 율법의 안식일, 제물, 섬김 등은 죽은 것들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 (로마서 6:15; 7:4; 갈라디아서 2:19-20). 우리 모든 영광의 구속자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 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골로새서 2:14).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 죽은 시체보다 더 끌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는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끌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의해 멸시 받았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율법이 그에 대하여 죽었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권세가 없듯이, 그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는 그 약하고 빈약한 속박의 초등

학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 쫓겨난 사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는 이것이다: — 이 세상 왕은 쫓겨난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사악한 손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냈던 것은 확실하다. 창조주를 그들은 쫓아냈다! 그러나, 여기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대적들이 상상 속에 성취한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성취하신 것들을 묘사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자의 씨이신 그분께서 뱀의 머리를 으깨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향한 사탄의 고소에 대답하셨다 (계시록 12:7-10).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우주적인 왕국의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 그분은 사탄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쫓아내신다. 그렇다. 사탄은 여전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지만, 그 권세는 손상 받았다. 우리는 더이상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발꿈치 아래 사탄을 곧 상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16:20). 우리 구원자께서 어느 날 곧, 철저히 우리 대적을 파괴하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으깨는 것이었으므로 사탄의 발꿈치가 상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 위대한 이끄심

세 번째 구원자의 죽음의 결과는 이것이다: — 십자가가 이끄심의 중심이 되었다. —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겠노라!” 죄인들이 구원자에게 이끌리는 그것은 십자가의 전도이다 (고린도전서 1:17-2:2). 십자가의 전도가 모든 참된 기독교의 중

심과제이고, 복음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이끄심  
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범위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에까지 명백하게 확장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한 사랑의 광대한 나타남  
이다 (요한복음 3:16; 로마서 5:8; 요한일서 3:16, 4:9).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속량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모두 은혜의 축복을 받는다. 사함과 칭의, 성화와 화목, 열납과 보  
존, 영생과 하늘 영광이 그것이다.

“사악함 가운데 오랫동안 환희를 취했으나,  
치욕과 두려움으로 놀라지 않았네;  
새로운 것이 내 시야를 때릴 때까지,  
또 내 거친 경력을 멈출 때까지.

내가 나무에 매달린 한 분을 보았네,  
고통과 피 가운데 있는;  
그의 힘 없는 눈을 내게 고정하신 분을,  
그분의 십자가에 가까이 섰네.

결코 내 마지막 호흡에까지,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네  
그분의 죽음으로 내게 명령하시는 것 같네,  
비록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으나.

죄의식으로 내 양심이 느끼고 가졌고,  
또 절망 가운데 나를 무너뜨렸네;

내 죄들을 보았으니, 그분의 피가 뿌려졌으니,  
또 그분을 거기에 못 박도록 도왔구나.

아! 내가 한 것을 알지 못하나,  
이제 내 눈물이 헛되구나;  
내 떨고 있는 혼이 어디에 숨겨질까?  
내가 주를 살육했음이라.

그가 두 번째 바라보셨으니, 말씀하시길,  
‘내가 대가 없이 모두를 용서하니,  
이 피가 너의 속량으로 지불되었도다,  
네가 살도록 내가 죽었노라.’

그러니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보이는 동안  
그 모든 어두 캄캄한 가운데;  
그런 은혜의 비밀이 있으니,  
나의 용서를 또한 인치네.

쾌감을 주는 비통과 음산한 기쁨으로,  
나의 영은 이제 충만케 되었네;  
그런 생명을 내가 파괴해야 하니  
아직 내가 죽었던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 하나님의 자석

둘째, 우리 구원자의 선포의 중요성을 간단히 생각하라 —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32-33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고 가셨다. 그분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충분히 아셨다.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가 찬양의 의미였음을 아시고 십자가로 가셨다 (빌립보서 2:8-11; 요한복음 17:2). 그리고 우리 복된 구원자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것임을 아셨다.

십자가로부터, 주 예수께서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죄인들을 끌어당기신다. 그분께 올 수 없는 죄인들을 끌어당기신다. 그분께 오지 않을 죄인들을 끌어당기신다. 그분은 죄인을 끌어당기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그분 자신께로 끌어당기신다. 십자가의 전도는 죄인들을 구원자에게 매력을 갖게 한다. 우리는 다른 매력이 필요 없다. 십자가의 전도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로마서 1:15-16; 10:17; 베드로전서 1:23-25).

주 예수는 그분이 주로서 그분의 통치를 행사하시려 다시 사실 것을 아셨다 (시편 16:9-10; 이사야 53:10-12). 그분이 어느 날 그분의 십자가로 극복될 어떤 강력한 집단으로 포위될 것을 아셨다. 당신의 눈을 들어 저편 영광으로 향하여 전해진 십자가의 능력을 보라 (계시록 7:9-17).

“하나님께서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을 금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심이라.” (갈라디아서 6:14).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사탄이 정복당했으며, 죄인들은 구원자에게 이끌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께

서 찬양 받으신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살도록 하자. 왜냐하면  
...

“십자가의 도가 가정을 인도하네!  
다른 도는 없고 오직 이것 뿐이라네.  
나는 결코 빛의 문을 보지 못할 것임은,  
만일 내가 십자가의 도를 잃을 때 뿐이라.”

## 84 장. 십자가의 매력—요한복음 12:32-33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32-33)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의 권능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간증이다. 죄인들을 믿음 안에서 그분께 이끄는 구원의 효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관한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 안에서 우리를 알게 하는 지식의 열쇠이다. Martin Luther 는, “십자가를 참조하지 않고 이해될 수 있는 말은 성경 안에 한 마디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그 기초와 구조물과 외벽을 위하여 십자가에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성경적인 교리의 정수와 모든 성경적 계율을 위한 동기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모든 죄의 용서를 위하여, 칭의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짐을 위하여 바라본다.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됨으로 성화를 위하여 바라본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생명의 법으로써 동기를 위하여 바라본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오게 될 생명과 관련한 소망의 문으로써 하늘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위하여 바라본다.

나는 십자가의 길로 집에 가야 하겠네,  
그분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네;

나는 빛의 문의 광경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네,  
만일 십자가의 길을 놓친다면!

믿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말한다. — “하나님께서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을 금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심이라.” (갈라디아서 6:14).

##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상기시킬 필요는 없다. 나는 우리 주가 십자가 형을 당한 로마 처형대나, 많은 사람에게 보석제품이 된 우상적인 십자가상이나,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는 십자가의 어떤 상상적인 주술적 징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죄 속량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 버린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 주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실 때,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경이로운 구원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징벌의 능력이 아니라, 용서의 능력이다. 그것은 충동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쾌하고 강압적이지 않고, 매력적이다. Horatius Bonar 는, “태양은 바다에서 증기를 끌어내고, 그 위에 빛나는 무지개를 걸어 놓는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 낮은 세상의 심연에서 사람들의 아들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썼다.

십자가의 매력은 태양의 매력과도 같다. 그것은 또 자석의 자력과도 같다. 머나먼 거리의 북극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나침반의 미동의 바늘을 붙잡아 스스로 돌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을 잡아서 그분의 전능한 공훈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그들을 그분 자신께로 돌려 놓는다. 십자가의 자력을 느껴보았는가?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가?

자석이신 그분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시다. 죄인들을 그분 자신께 이끄는 이 능력을 그분께 주었던 것은 우리 주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심과 죽음이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지만, 우리를 그분께 이끄는 것은 둘 다이다.

## 십자가의 능력

이제 십자가의 능력의 위대함을 주목하라.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그분께 이끈다. 분명히,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의 결과로 그리스도께 이끌릴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인도되지 않은 수백 만의 사람이 지옥에 있다. 그리고 결코 인도되지 않을 자들이 세상에 수백 만이 있다. 어떻게 절대로 듣지 않은 자들이 인도될 수 있는가? 하지만, 모든 세상으로 확장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로부터 어떤 자들을 그분께 이끄시게 하는 십자가 속의 경이로운 구원의 능력과 효험이 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

인,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매인 자와 자유자,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들을 이끄셨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보라. 마지막 날에 어린양의 보좌 주위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모든 열방과 혈족과 종족과 방언 중에서 얼마가 있을 것이며, 모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된 자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로부터 은혜에 속한 구원의 운행 가운데 신성한 전능하심이 제시되는 중심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죄인들을 잡아서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장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이 그런 자력과 이끄는 능력을 주는가? 십자가의 마력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질문이다. 그러나 그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분께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일곱 가지 사항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 죽으신 한 분

이것은 십자가의 첫 번째 매력이다. —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한 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의 십자가형에 의해 죽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두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분 뒤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그러하다 (마태복음 27:54).

혹자는, “십자가의 경이는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인가 이고, 무슨 목적이었는가 이다.”고 하였다. 만약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람이

모든 것 위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영원히 찬양 받으신다면, 그분이 가장 확실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항이 확실하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는 대속자로 그분 자신의 자발적 동의로 죽으셨다 (누가복음 9:51; 요한복음 10:17, 18).
2.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 가운데 성취하려 하셨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은 충만하게 성취하셨다 (이사야 42:4; 53:10-11).

그분은 그분의 자손을 보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손, 그분의 구속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 모든 자를 보실 것이다. 그분은 하늘의 영원한 낙원 가운데 그분 자신과 함께 있는 그들을 보실 것이다. 그분은 그의 날들을 길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이 부활 영광 가운데 다시 사실 것이다. 주의 기쁨은 그분의 손 안에서 커질 것이다. 그분은 은혜에 속한 삼일 여호와와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혼의 수고에 속한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실 것이다. 그분의 지식으로 그가 사악함을 짚어지신 자들 모두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십자가의 두 번째 매력이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다 (요한복음 3:16; 로마서 5:6-8; 요한복음 3:16; 요한일서 4:9-10).

바다를 잉크로 채울 수 있다면,  
하늘은 양피지로 만들어졌다면,

세상의 모든 가지가 깃털이라면,  
모든 사람이 사서 쓸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쓰니  
바다가 말라 버리겠네.  
모두 채울 두루마리가 없으리,  
하늘에서 하늘까지 펼지라도!

(The Love of God (4). Frederick M. Lehman)

Could we with ink the ocean fill,  
And were the skies of parchment made,  
Were every stalk on earth a quill,  
And every man a scribe by trade,  
To write the love of God above  
Would drain the ocean dry.  
Nor could the scroll contain the whole,  
Though stretched from sky to sky!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은 결코: —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본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멸망하는 죄인들의 세상을 에워싼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까지 걸쳐진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타락한 인간의 밑바닥까지 도달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영원한 영광에까지 우리를 들어 올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죄 가운데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멀리까지 가실지를 보여준다.

그분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아 아담 안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처럼 결코 몰랐을 수가 없다.

## 되찾은 의

십자가의 세 번째 매력은 이것이다: —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품성과 그분의 엄격한 공의에 대한 입증이다 (이사야 45:20-22; 로마서 3:24-26). 여기서,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공훈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춤하며,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언할 수 없는 격노가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만족되었고, 그의 무한한 구원의 공훈이 그분의 아들이 대신하여 죽임 당한 자들 모두 위에 부어진다.

## 하나님의 존재

십자가의 네 번째 매력은 이런 사실이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계시이다 (요한복음 1:18; 시편 85:9-13). —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잠언 16:6). 창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말해준다.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말해준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심을 말해준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를 계시한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훈이 풍성하시고, 공의롭고 은혜로우시며, 의롭고 선하시며, 변하지 않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며 친절하시고, 편재하시고 동정이 많으시며, 전지하시고 용서함이 있으신 분임을 본다.

## 비준된 언약

여기 다섯 째 매력이 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비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한 재고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와 그분의 아들의 메시야로서 주장을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던 이유이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 속에 가지셨던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의 중심 되는 초점이다 (사도행전 2:23; 베드로전서 1:18-25).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와 예언들의 중심 목적이었다. — “저에 대하여 선지자도 증거하되” (사도행전 10:43).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원한 언약을 입증했고, 확증했고, 충만케 하였다 (히브리서 9:14-17; 8:10-12).

## 성취된 구속

여기 여섯 번째 십자가의 매력이 있다: —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히 성취된 구속이 선포이다 (요한복음 19:30; 히브리서 9:12; 이사야 40:1-2).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처에 있는 죄인들에게 선포한다: 속량이 이루어졌고, 공의가 만족되었으며, 죄가 없어졌다. — 믿고 살아라!

완전한 속량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네,  
또 끝까지 속전을 지불하셨네

그의 모든 백성은 빛을 졌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보호받고  
또 그의 피로 뿌림 받네.

그리스도께서 나의 해방을 주셨으니  
또 내 대신 완전히 참으셨네  
하나님의 모든 진노 -  
대가를 하나님은 두 번 요구하실 수 없네  
첫째는 나의 피 흘리는 보증의 손에,  
그리고 난 후 다시 내 손에.

### 변화하게 하는 능력

아직 십자가에 일곱 번째 매력이 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다. 십자가에는 치유함이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치유 받고, 그의 존재의 각 부분이 치유 받고, 완전히 치유된다. 치유는 이제 혼 안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이제부터 부활한 몸 안에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한 분은 우리의 치유자이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파, — “너를 치유하시는 주”이다 (고린도 후서 5:17-21). J. I. Packer 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거기에 더해진 믿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구원하는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믿음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다.”고 썼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속죄, 하나님께 화목, 나의 모든 수고로부터 안식, 세상에서 나의 삶의 감동,

그리고 올 세상에 대한 소망을 찾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거절할 수 없게 인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하고 찬양하는 주제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영광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주제가 될 것이다!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 85 장.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2:27-30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뢰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2:27-30)

이 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진 선행에 대한 요한의 묘사와 함께 시작한다 (요한복음 12:1-7). 사실상, 이것은 선행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이제까지 칭찬하셨던 유일한 행위이다 (마태복음 26:10; 마가복음 14:6). 그것은 사랑으로 기인한 행위였으며, 믿음에 의해 영감을 받았고, 큰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주 예수를 위하여만 행해진 행위였다.

다음날 우리 구원자는 “나귀 새끼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였다. 마리아는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그분의 사망과 부활과 승천과 찬양 이전에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그분께 기름 부었다. 이제, 바로 다음날, 주 하나님은 곧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바로 그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3 절). 그리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들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20-26).

## 혼의 고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은 무겁고, 무거운 혼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기로 미리 아시므로, 우리 대신 분노하신 하나님의 격노한 진노를 들으며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이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요한 복음 12:27-30).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 나는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기도하셨던 것보다 더 모든 날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합당한 기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마음의 외침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외침이 있게 하소서. —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 상황

이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 구원자에 의해 아버지께 처음 하였고 드러진 기도인데, 우리는 그것에 앞서 언급되었던 것들을 보아야 한다. 우리 주 예수는 사망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아주 주목할만한 기적을 수행하셨다. 그 기적의 유명세는 산불처럼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분이 병자를 치유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만 죽은 자를 살렸던 분을 보기 위하여 모였다. 열광적인 군중이 그와 같은 큰 수로 모였기에 바리새인들은 서로에게 외쳐 말했다.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우리 주에 의해 수행되었던 이것과 다른 기적들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맞이했고 외쳤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13 절). 그러나 우리 구원자는 나귀새끼를 타고, 선지자 스가랴가 그렇게 하실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그 옛 성의 길을 통과하셨다. 이 공개적 출현, 잘 알려진 기적들, 나사로의 사망에서의 부활,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낫선자들이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사람에 대하여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어떤 그리스인들은 빌립에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21 절) 라고 말하며 주께 그들을 소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육신의 구원자를 보기를 갈망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빌립의 도움이 없이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이 그리스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다.

이 그리스인들의 시각은 구원자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왔을 것이다. 여기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 큰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찾는 이방인들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은 이 사람들 안에서 그분이 이루고자 오셨던 것-세상의 열방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보셨다. 그분은 기쁨으로 이 낫선자들을 바라보셨을 것이며, 그들을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땅 끝과 바다의 섬들로

부터 왔을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 중 대표자들로서 여기셨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웃고 계셨을까! 이것이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치욕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견디려 하시던 참이었다 (히브리서 12:2).

그리고, 그분께서 앞에 있는 군중에게 말씀을 시작하시자, 엄숙한 생각이 그분의 거룩한 마음을 그치게 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 “군중이 내게 모여야 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나로 인하여 구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혼의 수고가 없이는 나의 왕국 안으로 태어날 수 없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만족시켜 드리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어 나의 보혈로 그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사실이 구원자의 마음과 생각 앞에 생생하게 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마치 맹렬한 폭풍우처럼 그분의 거룩한 혼 위에 몰아쳤던 것처럼 보인다. 그분은 첫째로 그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는 큰 추수의 씨가 될 수 없었음을 보셨다. 그것이 그분께서 24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모든 자가 의존했던 하나의 밑알이셨고 그러하다. 그분은 죽임당해야 했고 땅에 장사지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혼자 남아야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음이 없이는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방법이 없다.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이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다.

우리 구원자는 그가 죄인의 대속자로서 견디셔야만 하는 대신하는 고난을 보셨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셔야만 하는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분의 혼이 몹시 고난 받으실 것을 아셨다. 그분은 27 절에서 말씀하셨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구원자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다는 것을 결코 상상해서는 안 된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의 용기와 힘은 기꺼이 죽기로 한 많은 자들인 그의 종 가운데 어느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었던 것보다 무한히 탁월하였다. 우리는 많은 경우의 순교자에 대하여 보았는데,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죽음을 두려움 없이 견뎠으며, 심지어 그들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 가운데 기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난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된 일로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한 것을 보았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보다 덜 용기가 있었다든지 더 약하지 않았다.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매우 특유한 죽음이 되어야 했다. 사망은 죄에 대한 징벌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몰랐다. 사망은 범해진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사망은 타락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다. 사망은 그분에게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 그분은 거룩하며, 해가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과 구별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으로서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증명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 제물과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죽으셨다. 그분은 죄가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의 거룩한 진노와 격노한 공의의 대상이 되심으로 죄인들 대신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 받고, 의롭게 된 믿는 자들로서 죽어야 하는 사망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자신감을 지속하면서, 그리스도의 속량 위에 안식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특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죄의 엄청난 짐을 지면서 죽으셨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책감의 어두운 색조는 그분의 거룩한 혼을 곧 어둡게 할 것이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야 한다! 그분의 죄 없고, 예민하고, 거룩한 혼은 그분의 아버지 앞에서 죄가 되셔야 한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죽음은 주의 시각에서 보배롭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고 명확하게 저주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3:13).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모든 축복들이 그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그분의 구속된 백성에게 흘러내릴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분이 우리 대신 갈보리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구속자께서 우리 대신 견디셨던 그 고통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분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차도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셨다. 그분은 그분 앞에 놓여진 것, 그가 하셔야 했던 것,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을 정확히 아셨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을 위함이다 (이사야 53:11).

## 내적 다툼

그가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육신 안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공포를 인지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분의 혼 안에 다툼이 있었다. 그 다툼은 그분 앞에 모인 군중에 의해 목격되었으며,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요한에 의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인들은 주 예수를 보기 원했고, 그들은 그분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아무도 전에 그분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 보았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며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5:7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으로 인하여 깜짝 놀랐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왕을 보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고귀한 혼을 바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비탄 가운데 그분을 바라 보았다. 그들은 그의 영의 위대함과 그의 생각의 권세를 보기 원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그러나 고통으로 성육신 하나님을 채운 것은 영의 위대함과 생각의 권세이었다.

## 겻세마네

이런 공개적인 때에 우리 구원자께서 후에 겻세마네에서 벌어질 것을 연습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그분의 혼이 혼란스러웠으며, 그분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분의 영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자는 깊고 깊은 고통과 큰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계셨다. 본문은 그분의 고통의 정점이고, 그분의 고뇌의 절정이며, 그분의 고통에 대한 그분의 혼의 정복이다. —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도안 그분의 계획에 대하여 스스로께 상기하시면서, 공포를 스스로 떨어버리려 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그분의 얼굴에 부싯돌 같은 번쩍임으로 승리에 차서 부상하셨고, 그가 쓰지만 영광스러운 마침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그의 기도이며, 그의 동기이고, 그의 생명의 통치이며, 모든 것 가운데 모든 때에 그분의 마음과 혼의 갈망이었다. —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 자신의 말씀과 예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끝임을 이해하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마음의 지속적인 동기가 되고 열망이 되며 갈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갈망한다. 이것이 그분의 혼이 민망하였을 때 하신 기도였다. 이것이 나의 기도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 속 매일의 외침이다. 나는 그것이 또한 당신의 것이기를 믿는다. —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 믿음의 기도

여기 믿음의 기도가 있다. —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

럽게 하옵소서.”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믿음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한 신실함 가운데 예가 되었다.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신실함 모두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겪은 우리 구원자의 큰 고난으로부터 나온 기도이다. 우리 구원자의 거룩한 혼의 내적 갈등에 대하여 말하려 할 때 나는 언제나 두렵다. 그분의 존경에 대한 질투가 나를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내키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과 이 기도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다.

우리 구원자의 위대한 혼은 고난으로 충만하였다. 그분의 마음은 무거웠다. 여기 하나님 아들, 세상의 구원자께서 비통함에 엎드려 계시다. 갈등 가운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혼과 그분의 마음은 그를 괴롭혔다. 손만 대는 것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한 마디 말씀으로 마귀를 내 쫓고, 성난 바다와 세찬 바람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는가?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찌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내 최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엮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음이여.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예레미야애가 1:12, 14)

그분은 겹세마네에서 그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하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셨다. 그분은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제자들이 모두 그분을 포기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곧 죄가 되셔야 함을 아셨다. 우리 죄들의 무게가 그분의 혼 위에서 누르기 시작하였다. 우리 구속자는 그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고난 받으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아셨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백성의 모든 죄들이 그분께 전해지고 그분이 죄가 되셔야 함을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 진노의 모든 격노가 그분 위에 완전히 부어지고 충분히 소진되어야 함을 아셨다. 그분은 그분의 순조의 바로 그 정점인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야 할 때에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버려져야 함을 아셨다.

나는 여기서 깊은 비밀과 위로하는 진리를 모두 발견한다. 비록 우리 구원자께서 고난과 두려움에 고통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를 모르셨다. 그분의 혼이 민망하였지만, 그분의 마음 안에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고, 아무런 초조함이나 비겁함이나 비통함도 없었고, 절망도 비탄도 없으셨고, 믿지 못함도 없으셨다.

우리 구원자는 우리의 인성으로 완전히 들어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 모든 시험, 모든 유혹, 그리고 모든 고뇌를 체험하셨다. 그분이 비록 죄를 모르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완전히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죄가 되시려 하였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공홀이 넘치고 신실하진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고, 유혹을 받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는 죄가 되셔야만 했다 (히브리서 2:9-10, 17-18). 그

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공홀이 넘치고 신실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 동정이 많으신 대제사장이다.

우리 구속자는 그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마음의 결단으로 그분의 혼의 큰 고난을 극복하셨다. —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7-28 상). 그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그에게 약속되었으며, 그분이 그것을 아셨다.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23). 그분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분은 특정하게 예루살렘에 오셨다. 아버지의 뜻에 의해 그분께 약속된 때,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합의된 때 (요한복음 10:16-18), 그분이 세상 안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때 (히브리서 10:5-10)가 이르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견딜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이사야 50:5-7).

마태복음 27:34 에서 우리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는 말씀을 본다. 이 혼합물은 아마도 그분을 괴롭히는 자들에 의해 그분을 중독하고 마비시키려고, 그분의 괴로움을 연장시키려고, 또 그분의 고통을 가중시키려 드러졌던 것 같다. John Gill 은 이렇게 말한다. “이 쓸개 탄 식초는 그분이 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때 그분께 주어짐으로써 우리 주의 고통 중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의 상징이었고, 그분은 이미 동산에서 맛을 보셨으며, 이제 마시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확실히 이해하라. 그분은 그분의 통제 밖의 환경 중에 무기력한 희생으로 죽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원하여, 대신한 승리의 구속자와 대속자로 죽으셨다 (요한복음 10:16-18). 우리 주의 거룩한 결단의 이유는 분명하다. 왜 그분은 죽기로 결심하셨는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나? 실로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다. 여기 그분의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백성을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기 원하는 것이다. 우리 구원자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은, 그분의 거룩한 혼을 분발케 하였고, 자극을 주었고, 격려하였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사셨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갈보리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보좌 위에서 통치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 하나님께서로부터의 약속

여기 하나님께서로부터의 약속이 있다. —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28 절). — 우리 구원자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찬양의 광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기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과거와 미래 모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우리 주의 세상 삶과 사역의 날 동안 세 번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세 번 모두 우리 대속자이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했음에 대한 문제였다. 그분의 침례에서

(마태복음 3 장), 그분의 변화에서 (마태복음 17 장),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2 장에서이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영광롭게 하셨음을 선포하신다. 의심할 필요 없이, 여기서 선포된 최우선적인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행한 모든 것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은 언제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의 영광은 언제나 아버지 안에 있다 (요한복음 13:31-32).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의해서 아들을 존귀하게 하는 모든 자가 아버지도 또한 존귀하게 함을 확신 받는다 (요한복음 5:20-24).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계획은 그분 자신의 영광이다 (시편 106:8; 잠언 16:4; 로마서 11:36; 계시록 4:11).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안에서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은 구약 역사의 모든 율법과 의식과 사건들 안에서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의 성육신과 출생 가운데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은 땅 위에서 그분의 아들의 삶 가운데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다.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께서 또한 언약의 말씀을 아들에게 하신다. “내가 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 이 약속은 기쁨과 격려로 우리 구원자를 충만케 하였다. 당신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게 하자. 당신의 혼이 풀이 죽었는가?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

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위로를 받아라. — “내가 그것을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분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되었다. 우리가 그 문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죄는 갈보리에서 심판 받았다. 사탄은 갈보리에서 매였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갈보리에서 구속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그분 자신께로 이끌어 내신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함께 만나며 십자가에서 존귀하게 되었다 (시편 85:9-13).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우리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복음 12:29-33)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구원자의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다 (시편 68:18-20). 하나님의 이름은 복음의 전파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고린도후서 2:15-16).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에 의한 죄인들의 구원 가운데 영광스럽게 된다 (에베소서 2:7-9).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으로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주이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에 고백할 것이다 (빌립보서 2:8-11).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심판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저주 받을 것이다. 의인은 구원 받을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위대한 구원자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능한 가장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취할 수 있으며, 우리 생활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앞으로 올 모든 것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 은혜의 원칙

여기 은혜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것에 의한 원칙이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살기를 애써야 하는 원칙이다. —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기도와 갈망과 열망과 통치 원칙이 되게 하자. —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잠언 3:5-6). 그분의 뜻을 구하라. 그분의 뜻에 행복하라. 그분의 뜻을 신뢰하라. 그분의 뜻 가운데 기뻐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

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기대 가운데 살자. —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신뢰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다. —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가? 네 가지 간단한 지침의 말을 제시하겠다. 이 네 가지 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1.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2. 그리스도를 따르라.
3.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살라.
4. 그리스도를 섬기라.

매일의 여명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것을 확신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혼의 열망과 갈망과 기도로 삼으실 것이다. —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 86 장. “이 인자는 누구냐?”—요한복음 12:31-34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 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2:31-34)

성경 안에서, 우리 주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오직 한 번만 언급된다 (마가복음 6:3). 실로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 여자의 씨, 땅의 아버지 없이 성령 하나님으로 처녀의 자궁에 잉태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기뻐한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유일한 때는 그분의 가르침에 기분이 상했던 믿지 않는 방탕한 자들에 의해서 였다. 그런 사실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 가리키면서, 마리아에 대한 경배를 조장하는 우상 숭배 종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 구속자는 열 여섯 번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그분이 인자로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린다. 다윗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 위에 앉는 것은 그분의 법적 권리였다. 실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

위에 앉히기 위하여 일으키시기로 약속하였던 다윗의 그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은 그분의 보좌 위에서 이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고, 영원한 영광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마흔 일곱 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신다. 그렇다.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의 아기,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이며, 성 삼위의 둘째 위격이다.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 위에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보다 그분이 어떤 것이든 더 못하다면, 그분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든 여덟 번 “인자”라고 불린다. 이것은 다른 어떤 호칭보다 더 그분 자신을 지칭함에 있어서 사용하셨던 이름이다. 사실상, 이 이름, “인자”는 대부분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그분의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의 승천 이후까지 그분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그들 중 단 두 사람만 그렇게 불렀다. 스테반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그는 —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56)고 말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록 1:13)라고 기록하였다. — 그리고, 14 장 14 절에서 우리는,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는 말씀을 본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그분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는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구원자께서 요한복음 12:34 에서 인자가 들리고 고난 받고 죽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세상 전체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다. —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다. “너는 어찌하여,” 저주의 나무 위에서 죽기 위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 정보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취하고, 성령 하나님께 성경이 누구의 말씀인가, 우리 교사가 되시기를 요청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인자”라는 표현은 결코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가리키지 않는다. 이 표현, “인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를 가리킨다.

### 구원자의 말을 들어라

“이 인자는 누구냐?” — 첫째, 인자께서 친히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도록 하라. “인자”라는 이 표현이 여든 여덟 번 신약에서 사용된 중에서, 여든 네 번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언급하셨다.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그분 이상으로 더 잘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19-27)

이 구절 안에서 우리 주께서 자신을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라고 부르신다. 이것 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라는 호칭 사이에 어떤 모순도 없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다. 두 이름 모두 동일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나는 그분의 신성을, 다른 하나는 그분의 인성을 가리킨다.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이고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셨으며, 하나님사람이셨다.

요한복음 6:62 —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요한복음 17:1-5 를 보라). 주 예수께서 여기서 그분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자로서 하늘에 존재하셨음을 선포하신다. 비록 그분의 인간의 몸과 혼은 시간 가운데 피조 되었으나, 그는 인자, 우리 중보자, 영원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언약의 보증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 계셨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자로 계셨다. 그분은 아버지께 말씀하신다. — “내가 은밀한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15-16).

요한복음 3:13 — 우리 구원자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땅 위에 인간의 육신 안에 계셨을 때 조차도, 인자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때에 도처에 계신다. 우리 중보자, 인자는 주이시고, 여호와시며,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편재하신다. 인자이신 이 한 분은 하나님, 안식일의 주시다 (마가복음 2:28). 그분은 인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용서하기 위한 세상에 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누가복음 5:17-26).

마태복음 25:31 —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인자는 많은 자를 위한 속량으로 그분의 생명을

사역하고 주시려 오셨다. 인자는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 인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인자는 부활하여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우리 대신 영광스러운 찬양 가운데 앉으셨다. 인자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고 계시다. 인자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통치하신다. 인자는 죄로 충만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닦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인자는 영광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인자는 우리 구원자이다.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 그분의 제자들의 말을 들어라

“이 인자는 누구냐?” — 구원자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제, 둘째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을 들어보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인자로 생각 할 때마다, 혹은 그 이름으로 그분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그분이 선한 사람,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자, 혹은 사회 개혁자였을 뿐임을 함축하는 뛰어난 호칭으로 그 이름을 결코 바라보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이 호칭, “인자”는 권위, 칭송, 영광, 권능, 통치, 그리고 온유를 의미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그 호칭,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처럼 고귀하고, 존경스럽고, 구별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주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분을 “인자”라고 불렀으며 구원자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에 의해 그분에게 한 존귀한 것으로 받으셨다 (마태복음 16:13-17).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영광을 돌리며, “인

자”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였다 (히브리서 1:1-3, 6-9; 2:6-9). 스테반, 첫 번째 순교자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인자”로 서 계신 주 예수를 보았다 (사도행전 7:54-59).

“이 인자는 누구냐?” — 그분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한다. 그분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의 찬양 받으시고 주권적인 구원자 이심과, 우리의 약점을 동정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형제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던 분임을 말한다. 그분의 제자, 스테반, 축복의 순교자는 우리에게 그분이 신실한 친구이시고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 그분의 대적들의 말을 들어보라

“이 인자는 누구냐?” — 이제 그분의 대적들을 참조하고 그들이 말해야 하는 것을 들어보자.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롭고 흠모할만한 섭리 가운데, 그분의 아들의 대적들조차도 그분의 아들에 대한 증인으로 만드신다. 이 단락에서 (요한복음 12:31-34)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인자” (시편 80:17; 다니엘 7:13-14를 보라)라고 불렸음을 알았다. “이 인자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를 동의어로서 바라보았다. 영광의 주께서 그분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뜻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마태복음 26:63-67). 그들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요한복음 10:33)고 말할 때, 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물

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요한복음 10:36).

“이 인자는 누구냐?” — 그분은 모든 것 위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찬양 받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뼈에 속한 뼈가 있고 우리의 육신에 속한 육신이 있으신 사람이다. 그분의 피 안의 효험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부족함이 없다. 그분은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마지막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당신을 위한 그분의 충분한 은혜를 찾게 될 것이다.

## 열 가지 이유

여전히 그 질문은 답변되어야 한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라고 부리는가?” 나의 매우 제한된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나는 인자께서 누구신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 “인자”라고 불리는지 열 가지 이유를 보여 주겠다.

1. 그리스도는 그분이 원래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린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창세에 사람이 만들어졌던 분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오셔야 했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아담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26-27; 골로새서 1:15; 히브리서 1:3). 아담은 우리 구속자의 육체적인 형상으로 피조 되었고, 그분의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형상 안에서 피조 되었으며, 그분의 권위적 형상 안에서 피조 되었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를 소유한다. 그리고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 우리 신성한 중보자의 중보적 형상으로 지어

졌다.

2. 주 예수는 그분이 대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리신다. — 그분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하늘로부터 온 주이시며, 그로써 땅에 속한 세상의 첫 사람, 첫 아담과 구별된다 (고린도전서 15:45, 47).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담이 동산 가운데에서 모든 우리의 육체적 족속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택정한 족속의 대표자, 중보자, 대속자이다 (로마서 5:12-19).

3. 우리 구원자는 그분이 예언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리신다. — 그분은 모든 선지자가 말했던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시편 89:19; 이사야 9:6; 32:2; 53:1-12; 스가랴 13:7).

4.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리신다. — 그분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였고, 인간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였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 계획은 세 가지였고 여전히 그렇다. 의 가운데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하나님의 창조 위에 통치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 (창세기 1:26-28).

5. 우리 구속자는 그분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라 불리신다. —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한 적이 없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범하여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자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에 고통 받았을 때 엄청난 사랑의 흐름으로, 저주를 마셔서 말려 버렸다 (이사야 53:9; 에베소서 5:2).

6. 그리스도 예수는 높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리신다 (빌립보서 2:9-11).

“한 때 가시관을 썼던 그 머리  
이제 영광의 관을 썼네.  
왕실의 왕관이 장식하네  
전능한 승리자의 이마를!”

7.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하나님-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리신다.

하나님은 고난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사람은 결코 만족케 할 수 없네.  
오직 고난 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사람뿐이네.  
또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네!

8. 주 예수는 구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리신다. 인자는 사람의 구원자이다. —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그리스도 예수는 올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리신다. — 그분 자신의 소유를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며, 그분의 중보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24-28) “인자가 오시리라” (마태복음 24:44; 25:13; 누가복음 12:40; 18:8).

9. 그리고 우리의 귀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라 불리신다 (히브리서 2:17-18; 4:15; 5:2; 7:25).

“그곳에 계신 한 사람, 진짜 사람,

여전히 크게 열린 상처를 가진 채,  
거기서 많은 피가 한 때 흘렸던,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것은 우리 머릿속 무모한 상상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비유도 아니라,  
그 동일한 하늘의 인자가 이제 통치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음이라.

내가 말하는 이 경이로운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 혼을 사망과 지옥에서 사셨으니;  
그 대가는, 그 자신의 심장의 피로다.

그 사람의 심장을 그가 아직 간직하시니,  
지극히 높고 빛나는 곳 보좌에 앉으셨으나;  
또 각 유혹 받는 지체의 고통을 느끼시니;  
우리 고통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오라, 회개하는 죄인들아, 오라,  
겸손한 믿음으로 다가오라;  
당신이 지은 모든 빛,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죽음으로 지워졌구나.

그분의 피가 검디 검은 혼을 씻을 수 있으니,

또 우리 죄의식과 죄를 씻어 버리시네;  
그가 우리를 온전하고 전부로 보일 것이니,  
그 놀라운 날이라네!”

—Joseph Hart

10. 왜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불리시는가? 그분이 인자라고 불리우시므로 타락한 사람들이 그분, 하나님-사람을 은혜와 생명을 위하여 바라볼 수 있고, 믿는 자들은 그분, 하나님-사람을 위로와 평강을 위하여 바라볼 수 있다.

## 87 장. 책무, 질책, 파멸—요한복음 12:35-43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희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35-43)

곧, 우리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 당신은 그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안다. 곧, 아주 곧, 우리는 심판 가운데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는 지옥에서 사악한 자의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이든지, 혹은 천국에서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하에 저주 받은 자와 함께든지,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형언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구원 받은 자와 함께든지, 우리는 어떤 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알고, 내가 안다 (고린도후서 5:10-11).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심판의 보좌에 오르실 때,  
그리고 모든 세상이 가까이 오게 될 때;  
인간의 마음은 녹을 것이니, 한숨과 신음과 함께 함이라;  
또 떠는 혼은 두려워하리라. —  
그리고 엄숙히 열린 책이  
굉장히 무서운 날을 보이리라;  
여호와와의 무섭게 노려보는 화난 표정이  
사악한 혼들을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전지하심이 진리로 드러내실 것이니  
그들의 숨겨진 생각들이 보이게 될 것이라;  
그들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낼 것이며,  
또 양심이 그들을 진실되게 소유하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범한 혼을 그칠 것이니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라,  
한편 모든 하나님의 책, 심판의 두루마리가,  
고소하고, 깨닫게 하며, 정죄하리라!

하지만, 예수의 은혜로운 손 안에,

생명의 책이 놓여 있구나.  
그분의 택정한 이름이 거기 있으니,  
그 이름은 지울 수 없네!  
그가 신성한 봉인을 하니,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 행해졌고,  
단호한 한 마디로, 그가 말씀하실 것이니  
그분의 속량된 자들을 집으로 환영하네!

만약 당신과 내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왕국으로 받으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광의 영원한 기쁨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삼일 하나님 만의 역사와 은혜로 인함일 것이다. —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과 계획으로, 하나님 아들의 의와 구속과 증보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과 부르심과 보존으로 죄인에게 온다 (에베소서 2:8-10).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 가운데 소멸된다면,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 소망이 없이 죽는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서 저주 받은 자의 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에 고통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 말고는 비난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 기록되기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은 우리가 벌은 것이다.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련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선물이다.

성경에서 보여주기 원하는데, 특별히 성경의 이 단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의 의도적이고 고집스런 불신이 당신의 영원한 저주의 이유가 될 뿐임을 보여주려 한다.

## 책무

첫째, 35-36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유일한 주로, 우리 유일한 구원자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책무임을 보여 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 신성한 주권, 절대적인 예정하심, 완전한 타락, 무조건적인 택정, 한정된 속량,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들의 보존이 식탁 위의 소금과 후추처럼 우리 경배의 집 안에 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없이는 결코 식사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목자의 연구의 비밀 안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과나 감튀가 없이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된다. 아르메니아주의는 더이상 심한 말로 비난 할 수 없는 악의 이단적인 형태이다. 의지 경배는 어떤 이름 아래서이든 어떤 형태 안에서든 인간의 혼을 저주하고 있으며, 절대

적 독단주의로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와 자유의지와 행위 종교의 이단을 비난 함에 있어서 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을 지키려 하는 많은 자들이 사람의 책무에 대하여 완전하게 부인한다. 그 이유는, 오래 전에 누군가 기록하였던 것처럼, — “죄인이 회개할 책임이 있다고 전한다면, 우리는 그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책임이 능력을 내포함을 그들은 추정한다. 이 이론에 있어서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체계의 틀에 넣으려 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감히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고안한 교리나 신학의 체계에 맞추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 위에만 우리의 교리를 건축해야 한다. 만약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 신학적 체계에 모순되거나, 심지어 파괴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모든 교리적 신조와 모든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참되게 되기 위하여 사람에게 의해 기록되었던 모든 교리문답을 버려야 한다면,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 회중 가운데 지체들이 믿음의 고백에 서명하거나 동의하게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우리 신조, 믿음의 고백은 기록하고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 그것이 다

른 사람들에게 너무 간단하거나 너무 비지성적이거나 너무 경건한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승인으로 살 수 있다. 사람의 논리와 철학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라고 할 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엮드리고 우리 교리를 건축한다.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20).

간단히 부정하고 반박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1.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이다. 그분은 공흠을 베푸실 자에게 공흠을 베푸신다. 그분은 은혜로우실 자에게 은혜로우시다. 그분은 그분이 뜻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흠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16).

2.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서 그분이 주신 빛 가운데 행할 책임이 있다. 주 하나님은 그것을 확정하셨으므로 자신들의 죄 가운데 멸망할 자들과 반역과 불신 가운데 죽은 자들은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무도 우연히 지옥에 가지 않는다. 불신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빛을 향하여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곳으로 가는 당신의 길을 막고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로마서 1:18-20). — “죄의 값은 사망이니.” 당신이 그것을 번다. —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것이 그분의 역사이

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빛이다. 그분의 신성한 위격과 역사의 계시는 빛이다. 그러나 그 빛, 그가 선포했던 그 빛은 없어졌다. 분명, 이것은 우선적으로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가리킨다. 그분은 아버지께 돌아가시려 하였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법적 실명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의미를 갖는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신 빛은 특정한 시간적 공간을 위하여 주어진 빛이다. 그분은 복음에서 계시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빛은 우리 앞에서 언제나 빛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라고 하셨다.

“빛이 있는 동안 다녀” — 우리 주께서, “빛이 있는 동안 다녀”라고 하실 때, 그분이 뜻하는 것은 36 절에서 천명하신 것처럼 “너희가 빛을 가진 동안 빛을 믿어라.”는 것이다. — “빛이 있는 동안 다녀.” 곧 우리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무덤 속은 은혜의 아무런 빛이 없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은혜와 구원의 날이 있다.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복음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종의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늙은 세대, 노년, 복음에 냉담, 거짓 종교, 거짓 피난처의 어둠은 빛이 없는 혼란

과 어둠 가운데 사람들을 단지 방황하게 버려둔다. —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2)<sup>ix</sup>. 빛이 없어졌을 때, 어둠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이 당신 위에 임할 때, 당신은 빛 가운데 다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실 때, 그분은 어둠을 보내신다. 그러면 당신은 볼 수 없다. — 아, 그 얼마나 위대한 어둠인가!

“따라서 그것은 거듭남의 의지가 없는 자에게 있고, 더욱 더 특별히 법적 무지 하에 있다. 그는 자신의 길에 있는 구덩이나 덫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가 방황하는 어두운 산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파멸과 불행이 그의 길에 있음에도, 그는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 —

John Gill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우리 주는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으며, 그들의 생각과 방법에 버려두고 자신을 숨기셨다. —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마태복음 11:15). 빛이 떠날 때, 어둠 외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히 저주 받은 자의 고통이 될 것이다. — 그들은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옥의 어둠을 상속받는다. 빛을 믿고, 그리스도의 빛과 그분의 계획의 빛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복음 가운데 행보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잃어버리고 잘못 허비한 기회에 대한 분노와 고통스런 기억은 바로 지옥의 본질이 될 것이다!

## 영벌

성경은 택정과 영벌 모두를 분명하게 가르친다. 영벌은 영원한 파멸로의 포기 행위, 혹은 포기된 상태이다. 그것은 불신 가운데 죽은 모든 자를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 가운데 다니기를 거절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버려두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에 적용되는 말이다.

성경은 타락한 마음으로 사람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로마서 1:28).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불신 가운데 그들을 가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이다 (잠언 1:23-33; 29:1; 로마서 10:21).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 문은 영원히 닫힌다.

성경은 또한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로서 영벌에 대하여 언급한다 (로마서 9:11-24; 베드로전서 2:7-8; 유다서 1:4).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된” 공훈의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파멸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 있다.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영원한 영벌과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법적 영벌에 대하여 37-41 절에서 언급하신다. 영벌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행위 모두이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고 바로는 그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로가 그 자신의 마음을 완고히 함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함이었다 (출애굽기 8:32-9:3). 따라서 그것은 모든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너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요한복음 12:37-41)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감의 말씀을 하신 것에서 그 명령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여기 주어진 명령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주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자들이 믿지 않을 것임을 듣는다 (37 절). 둘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이사야 53:1 을 인용하시며,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말씀한다 (38 절). 그들의 불신은 갑자기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분의 계획을 무효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 (로마서 3:3-4). 셋째,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고히 하셔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듣는다. — “너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39-40 절).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징벌, 단지 징벌과 심판 가운데 그들의 불신으

로 인하여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넷째 41 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고, 성취된 구속과 높여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열납된 희생으로 인한 대가 없는 용서와 주권적인 긍휼과 실행된 공의를 보았을 때 그에게 이것이 계시되었다 (이사야 6:1-13).

반역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이 천연적으로 얼마나 완고하며,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지독하게 사악한지! 비록 그들의 눈 앞에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이 행해졌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이 믿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사람들의 눈 앞에서 행해진 기적들,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은 결코 믿음을 산출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오지 표적이거나 기적으로 오지 않는다. 하지만, 복음의 가장 정통적이고, 온전하며, 순수한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뒤따르는 권능과 은혜가 없이 믿음은 산출되지 않을 것이다.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죽은 자에게 그들이 믿을 수 있기 전에 생명이 주어져야 한다. 그 때라 할 지라도, 산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갈라디아서 2:20)이다. 우리 믿음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은사이고 역사 하심이다 (에베소서 1:19-20; 2:8; 빌립보서 1:29; 골로새서 2:14).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비록 그것이 반역이며 불신이고 타락한 죄인들의 영원한 파멸일지라도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로마서 9:11-24; 베드로전서 2:7-8; 유다서 1:4; 로마서 3:3-4).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롭다. 그것은 언제나 믿지 않는 반역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이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역과 불신 때문에 사람들 위에 그것이 임한다. —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잘못이다.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저주에 “아멘”이라고 소리지르는 당신 자신의 양심으로 영원히 고통 받을 것이다.

아무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지 않는다. — “죄 지은 혼은 죽을 것이라” (에스겔 18:20). 개인적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니면 지옥에 가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의인을 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잠언 17:15).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본성과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된 모든 것을 범하면, 언제나 당신 자신의 양심과 차고 다투고 반대하며 싸우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걷어차며, 말하자면,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눈을 손가락으로 가리고, 모든 거룩하고 순수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항하여 당신의 마음을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하여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여전히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에서 탈출하거나, 바꾸려 하거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다만 그것을 충만케 할 뿐이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 6 장), 그는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로 선택 받고 속량 받은 죄인들의 구원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아담의 아들딸의 영원한

타락의 파멸 모두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 파멸

셋째, 42 절과 43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많은 사람의 파멸임을 본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전히 확신하였다. 그들은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없었다. 그들의 머리는 진리를 인정하도록 강요되었지만, 그들의 머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논리와 지성과 생각과 양심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과 나사렛의 전도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였음을 그들이 비밀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고백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들 자신을 취급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수반되었을 조롱과 박해에 그들이 직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비겁 자들이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평안을 붙잡고 그들 자신을 유죄 판결 하도록 하였다.

이 비겁함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영광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나? 죄인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교만한 반역자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죄인들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안다: —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결코 빛 가운데 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주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가 복종할 책임이 있는 복음의 명령에 결코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유일한 방법은, 어떤 어둠의 자녀도 빛 가운데 행보할 유일한 방법은 있다면, 구약의 이사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에 속한 구원의 계시를 주신다. 오 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 위에 임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에 관한 빛 가운데 우리가 행보하도록 달콤하게 강권하소서.

아멘.

## 88 장. “그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노라”—요한복음 12:44-50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찌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44-50)

하나님이신 분은 왕이시고, 당신의 왕이시며, 우주의 왕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제안이나, 제의나, 심지어 기회도 아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령이다. — “그리고,” 주 예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노라!”고 선포하신다. 성경의 이 부분에서 우리 구원자의 선포 안에 있는 일곱 가지 사항에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요청한다.

1.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 안의 믿음이다 (44 절). —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 안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제외하고 하나님 안의 믿음은 없다. 다른 어떤 하나님 안의 믿음인척 하는 것은 저주할 기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와 구원자로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의 믿음이 없다. 의와 속량과 구원과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진다.

이 단락에서 우리 주 예수는 가장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그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무엇을 행하려 이 세상에 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분은 자신을 성 삼위의 두 번째 위격인 하나님 아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사람, 임마누엘, 우리 중보자,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말한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유대 나라와 백성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종교 율법사들)이 떠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변명의 여지 없이 들었을 것이다. 그분은 담대한 진실함과 공개적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을 표출하시며 외쳐서 말씀하셨다. 그분은 듣고 알도록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여 그들이 잘못 들을 수 없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 분명히, 이 말씀은 내용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참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 앞에 복음 안에서 제시되는 분은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결정이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따라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그분을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낳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 대한 확신이다 (요한복음 6:45; 요한일서 2:22-23; 요한일서 4:2, 15; 5:1).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 만약 대사가 세상 통치자에 의해 외국에 보내진다면, 그에게 하는 어떤 것이든 그가 대표하는 자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왕의 대사에 대한 무례한 언행은 왕에 대한 무례한 언행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이신 주 예수, 하나님-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경멸하면, 하나님을 경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면, 삼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삼일 여호와를 믿는다.

**2.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45 절).** —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가! 우리는 결코 완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게 하셨다. —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린도후서 5:19) —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9-10).

그러나 우리 구원자는 천연적인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결코 못 보았고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이 육체로 계신 그분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아무런 신성을 보지 않았다. 우리 구원자께서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할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혼의 눈,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을 보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진실로 그리스도를 보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로서” 그분 안에 거하시는 신격의 충만을 가지신 그분의 영광을 본다. 따라서, 그분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고 선포하신다 (요한복음 14:1, 6-10).

그리스도를 믿음은 삼일 하나님을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봄은 하나님을 봄이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며, 볼 수 있는 하나님이고 사람에게 알 수 있는, 우리 본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 안의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참되고 구원의 믿음은 모든 것 위에 빛을 뿌리신다 (46 절).** —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빛이 요구되는 것과 관련한 모든 것 위에 빛을 뿌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믿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믿지 않는 자

들이 모든 것에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빛이 없다. 그들은 어둠 속에 걷는다. 나는 그들이 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다닌다. 그리고 우리가 행보하는 곳 안의 빛은 그리스도, 의의 태양, 믿음의 빛이다. 만약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모든 것 위에 빛을 뿌린다. —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잠언 28:5).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로 초조해 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알았다. 이것은 추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감의 가장 분명하게 가능한 선포이다. —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현자는 우리에게 말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그리고 그는 역설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잠언 28:5). 종교인들이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직접 강조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은혜에 속한 구원의 역사로 그분을 아는 모든 자, 하나님으로 난 자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고린도전서 2:12-16; 고린도후서 4:6).

## 빛에 대한 어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거듭남이 없고 불신의 상태에 있는 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위에 빛 비추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빛을 주입하실 때, 그들은 더이상 어둠 안에 있지 않다. 어둠은 과거이며 참 빛이 빛난다. 그 참 빛 가

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을 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올 세상의 보이지 않는 실재들을 본다. 그분의 은혜의 빛 가운데 다니므로, 우리는 더이상 죄와 무지와 불신의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남은 어둠의 그림자가 없어져 버릴 온전한 날이 올 때까지 진리와 믿음과 거룩의 빛 가운데 다녀라.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종말이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과 그분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임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 모든 것의 본질이 일시적임을 안다. 여기 이 죄로 저주 받은 세상에서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는 단지 일시적이다.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20).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모든 것이 그들의 혼의 구원에 불가결하고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다.

## 구원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빛을 그 위에 비추시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깨닫는다. 구원이 무조건적인 택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효험있게 성취된 구속에 의해서, 그리고 거듭남과 효험있는 부르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권능과 은혜로

있으며 오직 있을 수 있다.

## 모든 것에 대한 감사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책무이며 기쁨 모두임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20) 라고 우리는 배웠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 영 안에서 행보하는 것과 그 영으로 충만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생명을 충만케 하는 그 영은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믿는 자의 생명이다. —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위대한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형제들 사이에 기쁨과 평강을 낳는다.

## 모든 것의 회복

우리는 또한 “만유를 회복하실 때”(사도행전 3:21)라고 부르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 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사도행전 3:19-21).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 모든 것이 그 종말에 이르게 될 때, 시간이 더이상

없게 될 때,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으며, 이제부터 있을 모든 것, 모든 것들, 모든 일들,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들은 선하든 악하든 그분을 찬양할 것이며 선하였음을 증거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하거나, 바로처럼 우리의 영원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 모든 것을 상속받음

계시록 21:7 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모든 참 믿는 자들은 의에 충만하여 노래할 것이다. “우리는 어느 날 이기리라!”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모든 그 결과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종말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길 것이며, 그 모든 정욕을 이길 것이고, 그 모든 매력을 이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우리는 또한 사탄을 이길 것이다.

수 년 전, 나의 의사들이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들이 옳았다고 상당히 확신했고, 나의 영을 천국에 올리는 한 친구로부터의 카드를 받았다. 성경 인용을 제외하면, 그것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내면에서, 나의 친구는 단순히 로마서 16:20 을 인용하여 적었다. 내가 그것을 표고 읽었을 때, 나의 혼은 내 안에서 녹아 내렸고 그 본문 안에 포함된 약속의 깨달음 안에서 기쁨으로 뛰었다. 당신이 만약 믿는 자라면, 이것은 당신께 주시는 하

나님의 말씀이다. —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 모든 것의 종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전서 4:7). — “불찌어다, 그가 오시리라!”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죄가 없이 구원으로 나타나시면, 모든 것의 종말이 올 것이다. 우리 모든 고난의 종말, 우리 모든 다툼의 종말, 우리 모든 수고의 종말, 우리 모든 시험의 종말, 우리 모든 유혹의 종말, 우리 모든 고통의 종말, 우리 모든 죄들의 종말이다!

## 다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이것을 또한 깨달을 것이다. — 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이루셨다! 이 땅 위에서 나의 날들의 종말이 올 때, 내 인생의 끝난 이야기를 바라 볼 때, 나는 그 때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모든 것의 종말이 올 때, 더이상 시간이 없게 될 때, 이것은 모든 역사 (그분의 이야기: His-Story)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고,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 “그가 다 잘하였도다.” (마가복음 7:37). 이것이 지금 내가 선포한다. 그리고 이것을 그 큰 날에 선포할 것이며, 그 때는 시간이 더이상 없을 때가 될 것이다. 나와 나의 것에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그의 교회에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그의 세상에 “그가 다 잘하였도다.” 당신과 당신의 것에 “그가 다

잘하였도다.”

4. **이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다** (47 절). —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찌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찌라도” —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겠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복음을 글자 그대로 또 문법적으로만 알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부인할 것이다. — 비록 믿음이 들음에서 오지만, 듣는 모든 자가 믿음을 받지 않는다 (히브리서 2:1-3).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찌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 그분의 첫 번째 오심에서, 주 예수께서는 심판자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구원자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다른 날, 의의 심판이 일어날 날에 남겨두셨을 것이다.

이 현 체계는 심판의 시간이 아니다. 주님은 방탕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분은 아직 그들을 심판하려 오시지 않았다. 두 번째 오심인, 심판의 날은 그분을 거절했던 자들의 심판자와 증인과 선고자가 되실 때이다. 그러나 지금의 복음 시대는 은혜 시대이다 (에스겔 33:11; 미가 7:18). —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2)

5.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심판의 날이 있다 (48 절). —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복음 그 자체는 마지막 날에 사악한 자를 심판 할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 복음에 따라”라고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 하실 것임을 안다. —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은 가장 확고한 정죄 가운데 스스로를 포함시킨다. 가장 큰 죄는 그들의 몫이다. 그리고 가장 큰 심판은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복음이 없이 멸망하는 야인들은 창조와 본성의 증거들에 의해, 그들의 마음과 양심 위에 쓰여진 율법의 증거로 저주 받을 것이다. 모세 율법의 계시만 있던 자들은 창조와 양심과 돌판 위에 기록된 율법의 증거에 의해 심판 받고 저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소리 아래에서 멸망할 자들은 창조와 양심과 율법과 그들이 경멸하기로 선택한 복음의 증거로 저주 받음으로, 더 큰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복음의 계시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부정하였다. 그들이 경멸한 그 복음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 마가복음 16:16 에 있는 것처럼,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선포에 의해 행해질 것이다. —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들이 듣고 경멸하였던 복음은 그들에 대한 심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그것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들의 혼을 가혹하게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중립이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의와 은혜와 속량과 구원과 성화와 하나님께 열납과 영생

을 위하여 그분을 신뢰하므로 믿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한다. — 중간의 입장이 없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믿고 그분을 멸시하든지 이다. 우리는 문이신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길로 하나님께 가려고 여전히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오직 거룩한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구든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이 정죄 아래에 있는 이유가 아니다. —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17-18). 모든 죄인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정죄받았다. 믿지 않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도 전에 정죄 받지 않았다.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의도적 거절은 그 내적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임을 외적으로 보여준다 (요한복음 3:19-20).

모든 사람은 그들의 본성이 정하는대로 하며 그들은 행할 것이다. 천연적인 사람은 악한 본성으로 속는다. 따라서, 악행을 행한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행동과, 바로 그 존재가 악한 존재로 질책 받음으로 인하여,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오하며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을 것이다. 혼란과 치욕이 그가 죄인임을 받아들이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혼란과 치욕이 스스로 의롭게 하거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열납하고 받으실 것이라고 그를 확신시킨다. 하지만, 그가 아는 속 깊숙이, 심지어 그의 가장스러운 자기 의 안에서 조차, 그 피난처는 모두 무화과 잎이고 거짓의 피난처이다.

그의 침상은 너무 짧아서 안식할 수 없다. 그의 이불은 너무 좁아 자신을 덮을 수 없다. 그는 그의 혼 안에 휴식이 없고, 그의 마음에 위로가 없으며,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다.

여전히, 그는 자신을 더 낮게 만들려 일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저주다. — 그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증오한다. 그는 악을 사랑하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오한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 속에 있는가!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21). — 우리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확실히 하라. 하늘로서 난 혼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며, 썩지 않을 씨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났다. 새로 난 혼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실로, 당신 안에 피조된 새 사람은 “너희 안의 그리스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엡 4:24) 하나님께 난 자들은 빛이신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진리를 행한다.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받는다. 양심이 정화되었다. 죄수가 풀려 났다. 입양된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 용서 받은 혼은 무화과 잎 의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믿는 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또 그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한다 (고린도후서 5:19-21; 갈라디아서 2:20; 로마서 8:1-4).

**6. 그 크고 끔찍한 심판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증보자는 당신의 영원한 사형 집행자이든지 아니면 당신의 영원한 구**

원이 되실 것이다 (49 절). —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 복음의 신성한 권위가 있다. 하나님-사람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언약의 보증, 여호와 자신의 친구, 주의 종으로서 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만 하시고 말씀하시도록 명령을 받은 것만 말씀하셨다. 사람이자,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은혜의 우리 안으로 그 양 떼를 모으기 위하여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사명과 위임과 가르침과 명령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10:16-18). 그는 영원 전부터 그 일에 약속되었다. 그는 우리 보증으로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을 동의하였다. 그는 성령에 의해 그것을 위하여 기름부음 받았다. 그는 성육신 안에서 그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는 갈보리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 선주자로서 하늘로 들어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승천하셨을 때 그분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다.

**7. 이러한 것들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생명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촉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촉구한다 (50 절).** — “나의 명령이 영생인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3:23-24; 요한복음 6:28-29; 로마서 3:31; 에스겔 33:14-16, 19). 어떤 죄인이든 “율법적이고 의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분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것

—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서약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가져가 버렸던 것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 죄인이 하나님께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가져감으로써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다. 그것은 생명의 직무, 하나님께서 사망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 (베드로전서 1:23-25),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 (로마서 1:16; 고린도전서 1:18).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 안에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에게 가정으로 올 때, 그것은 생명을 준다.

“나의 마음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날의 공포들을  
그분의 얼굴 앞에 땅과 하늘이  
놀라서 움츠러들었을까?

그러나 머지않아 그 나팔이 진동하였다  
죽은 자의 집이,  
복음의 환호의 소리를 귀 기우리라  
놀라운 기쁨의 물결이 퍼지노라;

너희 죄인들아, 그분의 은혜를 찾아라  
그분의 진노를 너는 듣지 못하는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안식처로 날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찾아라.”

—Philipp Doddridge

## 89 장. 온전하게 사랑 받음—요한복음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1)

주 예수는 갈보리로 가고 계셨으며, 그곳에서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그곳에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며,” 그는 저주 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확실하게 받은 몸으로서 고통 받고 죽으셔야 한다. 불과 몇 시간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은 겻세마네의 어둠을 통과하셔야 한다. 거기서 그가 죄가 되실 것과 그 세 시간의 어둠 속에서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을 것을 예상하셨을 것이다. 겻세마네에서, 그는 쓴 잔을 마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그 마음이 그분 속에서 부서졌으며, 그가 땅에 떨어지는 많은 핏방울에 젖게 될 것이다. 스물네 시간이 되기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바로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를 따르는 얼마 안 되는 무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하셨던 그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지옥의 모든 공포와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서 대신하여 하나님의 격분된 진노의 모든 공포로 고통 당하면서 계실 것이다.

무엇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을까? 무엇이 그의 생각이었을까? 한 사람이 그 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있음을 알 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지배적인 애정은 죽음 가운데 강하다.”고 썼다. 사람 인생의 지배적인 애정은 죽음 가운데, 그 애정은 위선이거나 진실이며, 그것이 이기적이든 혹은 관대하든지 간에, “주된 애정은 죽음 가운데 강하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은 보통 그가 살아왔던 것으로 인하여 중심 되고 주된 애정이 어떤 것인지 드러낸다.

그것이 분명 우리 복된 구원자의 경우였다. 그분이 거의 땅에서의 생명의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분은 이제 마음과 혼의 큰 고난과 고통의 때에 왔다.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사고 얻으려는 십자가의 엄청난고 끔찍한 사망을 견디려 하는 때였다. 무엇이 그분의 마음 속에서 으뜸인가? 어떤 생각이 그분의 마음을 차지하였는가? 무엇이 그의 혼을 감동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놀랄 만한 방법으로 요한복음 13:1 에서 상상할 수 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구원자의 사랑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만찬에서 빛나게 타다. 그분이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라! 그분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는 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계시를 한 줄 한 줄, 한 마디 한 마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설명하기를 원한다. 생명으로 넘쳐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어떤 것도 놓치거나 가볍게 지

나치고 싶지 않다.

## 유월절 전에

첫째, 요한은 유월절과 그 자신을 위한 구원자의 사랑을 연결한다. — “유월절 전에…” — 유월절은 구속에 대한 연례 축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축하 행사다. 그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었다. 절기 중 가장 큰 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성일은 속량절이었으며, 어린 양이 도축되었고 그 피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에 의해 시은좌에 뿌려졌던 날이다.

그러나 그 기념 축하 행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이 하신 것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 전체 절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 지켜질 때, 믿음의 복된 축하, 그분이 하셨을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그리스도 우리 유월절에 대한 그림이었다.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네,  
우리 모든 죄들이 당신 위에 놓였네;  
전능하신 사랑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당신께서 완전한 속량을 이루셨네.  
당신의 모든 백성이 용서되었으니  
당신의 피 덕분이라;  
하늘 문이 열렸으니,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한 우리를 위해 지어졌네.

구원자, 만세!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네;  
 모든 하늘의 주들이 당신께 경배하네  
 당신의 아버지 옆에 앉으셨네;  
 경배와 존귀와 권능과 축복을,  
 당신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네;  
 가장 높은 소리로 찬양하라,  
 우리가 드리기에 합당하네.”

주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그분이 세상에 오셨던 그 계획에 고정하셨다. 그분은 많은 자를 위한 속량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 여기 오셨으며, 그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 예수께서 아셨다

둘째,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였음을 아셨다는 것을 듣게 된다. —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아, 우리 사랑하는 구속자 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오고 있었는지! 비록 여기서 가능한 가장 부드러운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을 아셨다고 말씀한다. 그분은 그분이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가 죽는 과정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아셨다. 하지만, 그분이 쓴 축과 쓸개즙을 예상하셨더라도,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 위에 있었음은 그분의 사랑의 충만이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실 때 그분의 얼굴 표정을 완고하게 지으셨으

나, 그분의 마음에는 아무런 완고함이 없었다.

주 예수는 그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서, 우리 구속의 역사를 담당하셨다. 그분은 그것을 통과하셔야 한다. 사망 그 자체는 그분의 사랑을 바꿀 수 없었다. 실로, 그분의 “사랑은 사망처럼 강하고” (아가 8:6) 사망보다 강하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사망 중의 사망보다 더 강하며,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려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것이 그분의 시험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시간에서 조차도 “그분의 소유”에게 참되었다. 그분은 죽을 때가 되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소유”를 사랑하셨다.

복된 구원자는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가 되었으며, 그분의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실 때가 되었다. 곧, 그들은 그분을 더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곧,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더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부재가 그 마음을 더 좋아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서로 분리가 될 때 그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잊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부끄럽지만, 그러나 완전히 보는 것에 좌우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았다. 땅과 하늘 사이의 모든 간격이 곧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어떤 간격도 그분과 “그분의 소유” 사이에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었다. 우리 중 아무도 그것이 내포하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생각도 없다. 나는 그분의 보좌의 하늘에 속한 광경과 그분의 구속된 환희가 그분의 발에 놓이는 영광들과

천사들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계속하여 부를 찬송들을 묘사하려 시도하지 않겠다. 이제 그분이 그분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분의 영광은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고, 어떤 인간이 생각으로도 품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에 차서 찬양할 것이다...

“이제 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니,  
그의 사랑이 여전히 크네;  
그가 갈보리를 기억하시니,  
그의 성도들도 잊지 않게 하시네.”

생명에서 사망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승천에서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의 영광으로 이른 우리 주 예수의 경이로운 체험을 묘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들은 그것들 중 아무것도 그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사랑하시되”

셋째,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시간 가운데 이 지점까지 그분의 소유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에 대한 완전한 묘사가 주어졌다: —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붓으로 한 번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표현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를 다루셨던 전체 이야기를 한다. —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과 그분께서 어떻게 시작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은 가난하고 하찮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부르심으로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다. 그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 효험 있게 역사하였고, 그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였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시작하셨다. 주 예수께서는 구덩이에서 나의 혼을 꺼내 사랑하셨다. 나는 변화와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 그 이상으로 더 좋은 방법을 모른다. 당신은 아는가? —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꺼내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꺼내서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향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그들 그분 자신께로 이끄심으로 증거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그분 자신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끈은 그들을 향한 그분 자신의 묶음이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시작하셨으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사랑이었고, 당신과 나처럼 그들은 매우 더디게 배우는 자들이었고,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게 더딘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는 계속하여 사랑하였다. 그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곧 우리를 던져버렸을 것이며, 더 값어치 있는 사람들을 찾았을 것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9) 얼마나 큰 사랑이 그 질문에 있는지! 그분이 도마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분의 온유함 가운데 그는 의심하는 제자의 시도에 질문하지 않고 따르셨다. 그분은 그에

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 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27)고 하셨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내려지는 그분의 모든 교훈, 그분이 모든 공과들이 사랑의 공과들이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비록 여전히 죄인들이었으며 온전한 제자들이 되기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을 사랑하기를 지속하셨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과 결점도, 모두 그들의 것이다! 사나운 비바람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두렵고 주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의심하였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의 분명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깨닫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 그분이 미래를 보시고 그들 모두가 곧 비겁자가 되고 믿음 없이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 그분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31) 고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기 때문에 (마가복음 14:50) 그 일이 일어났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그가 그분을 세 번 부인할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의 모든 약함과 죄들과 실패와 반역과 불일치와 무지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는 그들을 계속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을 사랑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후로 그들을 사랑하

기를 지속하셨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발을 씻어야 했으며,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각각 앞에 허리를 굽혀 그들의 발을 씻으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 안에서 보았던 그들 마음의 모든 결점과 단점과 세속적임과 어리석음과 불신과 냉담함이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식히거나 감소하게 하지 않았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모든 것을 집약한다. 증오에 대한 최소의 접촉도, 분노에 대한 최소의 암시도, 최소의 지친 표시도, 아주 조금의 미지근함도 구원자의 사랑에는 결코 없었다. 언제나 똑 같았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분 같은 애인을 나는 결코 알지 못했고,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그분이 내게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꿈을 결코 꾸지 않았다. 아, 얼마나 내가 그분의 은혜로운 마음을 두고 화를 냈고 슬퍼하였는지! 그러나, 결코, 결코, 결코 한 번도 그분에게서 사랑 외에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다! —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행동 전체를 집약한다. 그것이 그분의 모든 성품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모든 것이 있다. 현미경을 사용하여, 보고 싶을 때까지 보지만, 모든 것이 거기에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 “자기 사람들”

넷째, 요한은 구원자의 사랑의 대상을 “자기 사람들”로 규정한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설명이지만, 비길 데 없고 충만하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자기 사람들” —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이 되었는지 아는가?

그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들을 자기 사람들로 택하셨다. 성경이 있는 한, 택정의 교리는 결코 성경에서 빼버릴 수 없다. 셋별이 그 위치를 잡거나, 혹성들이 돌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택을 하셨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지키셨다.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으며, 그분의 선택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기에,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다. — “그들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고 하셨다. “나는 그들과 혼인할 것이며, 그들의 뼈와 그들의 살 중의 살이 될 것이다.”고 하셨다. 따라서, 시간의 충만 가운데, 그분은 이곳에 오셨고, 우리의 인성과 하나가 되셨으며, 그로써 그분은 “자기 사람들”의 진정한 신랑으로 보이셨을 것이다. — “자기 사람들”은 그분 자신의 선택으로, 영원 전부터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

그들은 역시 신성한 은사로 “자기 사람들”이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께 그들을 주셨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다. “그들은 당신 것이니, 당신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나이다.”고 구원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위임하셨다. 그러나 자기 사람들의 특별한 위탁을 택정한 사람들에게 두셨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분께 주셨고, 그들 대신 보증 계약을 그분과 하셨으며, 그들이 그분의 양 떼였으므로,

그분의 책임으로 맡기셨고, 그분은 그들을 하늘의 우리 안으로 옮기셨을 것이며, 그들 중 아무도 늑대에 의해 찢기거나 숲이나 더위로 죽지 않을 것이고, 모두 양 떼를 계수하시는 그분의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분은 맹세하셨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에스겔 20:37).

양의 위대한 목자는 그분의 보살핌에 맡겨진 무리 전체를 보살피실 것이다. 그분은 양 떼 가운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분은 말씀하실 것이다.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또 당신께서 내게 주셨던 자녀들도 있나이다.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 자신의 선택하심으로 “자기 사람들”이며, 혼인으로 “자기 사람들”이고, 그분의 아버지의 은사로 “자기 사람들”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는 모든 자는 경이롭게 사십과 자기 자신의 생명의 피로 사십으로 그분의 소유이다. 그분은 그들의 구속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심은 그분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나이다.” (요한복음 17:4). 실로, 세상의 기초로부터 그 일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단지 또 스물네 시간 후에, 우리 축복의 주 예수께서 외치실 것이다. “다 이루었노라!” 내 형제를 자주 생각하라, 내 자매를 자주 생각하라, 얼마나 귀하게 사들인 자들인가.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자주 생각하라, 그것으로 당신은 그분 자신의 피의 대가에 의한 “자기 사람들” 가운데 계수된다. —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아, 그분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그분은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셨던 것보다 더 사랑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삼일 여호와와의 율법과 공의로 요구되었던 대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될 수 있도록 요구된 대가를 지불하셨다. 우리를 구속할 만큼 충분한 대가가 그분께 치러질 때 우리를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정복으로 “자기 사람들”이 되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한 사람씩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뒤따랐다. 그것이 당신과 내게 있는, 그분의 소유인 모든 자에게 있는 바로 그 방법이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이끄셨던 때를 기억하지 않는가? 그 사랑의 무리, 사람의 그 끈의 능력에 마침내 맡긴 때를 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

“오 행복한 날, 내 선택이 확정되었네  
당신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께;  
이 타오르는 마음이 기뻐하리,  
그 들림을 어찌할 바 모르고 말하네!

‘다 이뤘네! 위대한 거래가 끝났네;  
나는 내 주의 소유, 그는 나의 소유:  
그가 나를 이끄셨으니, 나는 그를 따랐네,  
그 음성 신성함에 고백하기에 매혹되었네.’”

그분의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기 사람들”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였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

하였고, 우리가 “자기 사람들”임을 아는 것보다 더 우리 혼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은 무한한 기쁨과 축복의 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신다. — 그분 자신의 양떼, — 그분 자신의 제자들, — 그분 자신의 친구들, — 그분 자신의 형제들, — 그분 자신의 몸의 지체들. 우리가 입기에 얼마나 놀라운 호칭인가 — “자기 사람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다!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신다. 그 두 최고의 말로써, 그분은 우리를 나머지 인류와 구별하시고, 우리를 자신께로 따로 두신다. “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칭하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48:16)고 하신다. — “자기 사람들.” — 확실히, 마지막 큰 날에 조차 우리를 칭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명예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말라기 3:17).

아, 신성한 사랑의 경이로운 주권이여! 아, 그 경이로운 비밀이여! 아, 그 경이로운 장엄함이여! 사랑 받고 선택 받았네! 사랑 받고 구속 받았네! 사랑 받고 부르심 받았네! 사랑 받고 지켜졌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세상에 있는”

다섯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주 예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자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나게 한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선언에 대하여 경이로운 것이 있다, — “세상에 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관대함으로 나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나는 매우 계획된 삶을 산다. 당신이 매

일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과 거의 마주치지 않는다. 당신은 이교도들 한 가운데 산다. 우리가 그 끔찍한 진리를 믿자마자 더 좋아지는데, 정말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악한 곳 안에 사는 세상의 한 가운데 있는 여행용 천막에 불과하다. 우리는 “세상에” 있다. 룯이 소돔에 있었을 때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고, 매일 매일 당신의 의로운 혼 가운데 매 시간, 도처에서 당신 앞에서 행진하는 모든 것들로 고통을 받는다. “세상에” 있는 것은 억제되지 않는 우상 숭배, 넘쳐나는 사악함, 또 무자비한 모독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세상에 있으므로, 이 제자들은 곧 박해 받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돌을 맞았고, 투옥되었으며, 사자에게 뜯기도록 원형극장 안으로 끌려들어 갔다. 하지만,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짐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5-39).

세상에서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 세상에서 우리는 괴롭힘을 받는다.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 받는다. 세상에서 우리는 아픔 가운데 있다.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 세상에서 우리는 병든다. 세

상에서 우리는 사별을 당한다. 세상에서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손해와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은 땅 위의 나머지를 여전히 저주하신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창세기 3:18). —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당신이 세상과 함께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져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것들은 흙이 그 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처럼 분명하게 계속하여 솟아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갈보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며 일어나게 된다.

## “끝까지”

여기 우리 본문 안에 계시된 여섯 번째 것이 있다. — 우리 구원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실 것이다. —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을 필요 없이, 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그분의 순종의 마지막까지, 율법의 요구의 마지막까지, 저주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범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고 주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문은 특정하게 그분의 사랑이 지속적이고, 변치 않고,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 구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는, “그 인자하심이 끝까지 있으리이다.”로 할 수 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그 끝이 없는 마지막까지 있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에 결코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이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세상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그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즉시 사랑하시고, 시간이 없을 때까지도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최대한도로 사랑하시니라.”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의 최대한 시간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의 최대한 멀리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그 문장은 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 “그분은 그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사랑하셨나니.” 주 예수는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아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던져 버린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는 “자기 사람들” 모두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함이다. 그렇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에베소서 5:25-27; 유다서 1:24-25). —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21).

## 90 장. 때가 되어 분명해진 어두운 섭리들—요한복음

13:1-20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겔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 뿐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썼겼으니, 너희도 서로 말을 썼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1-20)

얼마나 많이 당신 자신에게 끄찍하고, 고통스럽고, 충격적이며, 거의 황폐하게 하는 일과 생각을 보았거나 알았는가? “무슨 선이 여기서 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이 선을 위하여 역사하게 될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존귀함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실 수 없고, 너무 강하시므로 실패하실 수 없으며, 너무 선하

시므로 그릇되이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비극이 가정에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지 모르나, 좌절 가운데, 아마도 분노와 적의 가운데 물을 것이다. —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요한복음 13 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화로 그런 대를 예비하기 위하여 도우시도록 우리 귀한 구원자로부터 한 마디를 보존하셨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의 행동에 혼란스러워 했고, 6 절에서 그분께, — “주여, 주께서 내발을 씻기시나이까?”라고 했다. 그리고, 7 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야곱이 그의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16). 삼손의 힘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6:20). 우리 구원자의 임재와 부재, 그분의 가고 오시는 것에 대하여 언급되는 것 역시, 그분의 행하심에 대하여 언급되는 것일 수 있다. — 그분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고 하신다.

특히 요한복음 13:7 에서 우리 구원자의 이 말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는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우리 주의 행동을 가리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분명히 적용 가능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한 계획이나 의도는 종종, 늘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지

만, 그러나 그것들은 정해진 때에 드러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운행하시니  
경이로운 행하심이네.  
그가 바다에 그의 발걸음을 심으시고  
또 폭풍을 올라 타시네.

깊이를 알 수 없는 광산 깊숙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기술로,  
그의 빛나는 모양의 보물을 캐시고,  
그의 주권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의 계획은 속히 수확될 것이니,  
매 시간 드러남이라.  
꽃 봉오리는 쓴 맛을 내지만,  
그러나 꽃은 달콤할 것이다.

너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새 용기를 취하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도  
공홀로 커지며 부서질 것이니,  
너희 머리 위의 축복 안에서라.

눈먼 불신자는 잘못을 범하고  
그분의 역사를 헛되이 지나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해석자니;  
그가 분명하게 만드실 것이다.”

## 변치 않는 사랑

첫째,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 없고 그침 없는 것을 본다. —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 절). 그분의 택하신 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이 세상 아래 그와 같은 것은 없다. 인간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제자들이 모두 곧 그분을 버릴 것임을 아셨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있다 (예레미야 31:3).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한다 (로마서 8:39). 견줄 것 없고 대가 없는 사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2). 너무도 위대하고, 전혀 대가 없으며, 전혀 변치 않는 것이 영원 전부터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품으셨던 우리 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37).

##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둘째, 이것을 알라: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다. 심지어 방탕한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혐오스럽고, 비열한 행동들은 우리 하나님과 하늘의 아버지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 (2-3 절). 심지어 사탄 자신의 행위도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의 통치와 통제 아래에 있다 (시편 76:10; 잠언 16:4). 그렇다. 그

분의 결정을 진행시킬 것을 행하시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줘야 했을 때처럼 (사무엘상 5:1-7:17),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혜롭고 주권적으로 그분의 대적들과 우리의 대적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용납 지 않으신다. Ralph Erskine 이 바로 보았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 자신을 그분의 역사를 수행하시려 채용하시며, 그들의 사악한 계획을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의 전진에 기여하도록 하신다. 그분이 유다의 반역, 빌라도의 판결,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기여하도록 만드셨던 것과 같다.”

### 유다의 파렴치한 위선

셋째, 모든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위선자의 마음보다 더 타락하고 냉담한 것은 없다.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구원자를 배반하려 유대인 제사장들과 거래를 해버렸다 (2 절). 얼마나 뻔뻔한 위선인가!

유다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깊은 타락이 발견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집사로서 서 있다. 그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종교 속에 빠질 수 있지만 마음 속이 부패할 수 있는 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는 얼마나 많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않는 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는 사람이 얼마나 높이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종교적 책무에서 높여 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유다는 지옥의 끝에 있을 때 조차도, 그가 구원 받았다고 얼마나 자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위선자들을 발견하게 될 때 놀라거나, 황당해 하거나, 지나치게 혼란스러워 하지 말아야 한다. 침례의 물로 씻겨진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것이 아니다 (10 절). —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6).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10).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5).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 하리라.” (고린도후서 1:10).

## 피로 씻겨짐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한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이다. 구원 받은 죄인만 피로 씻음 받은 죄인이다 (8-10 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

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무엇이 내 죄들을 씻어 버릴 수 있는가?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무엇이 나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아, 보배로운 흘러내림이니

나를 눈처럼 희게 만드네!

다른 원천을 나는 알지 못하니 —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3:1).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18-21).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만일 우리가 우리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지 않았다면 구원 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6:9-11). 우리는 법적으로 피로 씻음 받아야 한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속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을 때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일어났다 (히브리서 1:3). 그리고 우리는 체험적으로 구원자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한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우리 양심에 촉구하고, 복음으로 인한 빛으로 생명과 불멸함을 가져 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깨끗하게 하는 피를 적용하실 때, 거듭남과 효험 있는 부르심 가운데 일어난다 (디도서 3:5; 히브리서 9:14). 씻음 받고 용서 받은 자들 조차도 매일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매일 적용됨이 필요하다. —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 9).

## 예증된 겸손

다섯째, 성경의 이 단락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겸손과 사랑의 복된 예를 제시한다 (5-17 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

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 뿐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참 겸손과 사랑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다. 비록 우리 구원자께서 유다의 발도 역시 씻으셨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의도는 그분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것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셨고, 여전히 그렇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 발의 불결 (우리 죄)를 보실 때, 그리고 또

은혜롭게 우리가 그분의 피의 샘 안으로 우리 발을 담그게 하실 때 (스가랴 13:1),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고 입 맞추도록 허락하실 때 (누가복음 7:38; 에스겔 16:63), 우리 사랑의 구원자는 여전히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다 (요한일서 1:9; 2:1-2).

죽어가는 강도가 보고 기뻐하였으니  
그의 날에 있을 그 샘이라;  
또 그 곳에서 나는, 비록 것처럼 형편 없지만,  
내 모든 죄들을 씻어 버리네!

이 자아 부인과 사랑의 섬김은 이 세상 안에서 서로 간에 대한 우리 책임이다 (14-15).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분이 우리 생명의 통치이다 (요한일서 3:16-17). 그리고 우리 주의 본을 따르는 모든 자는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행복과 만족을 찾는다. —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 절).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 순종과 그 백성에게 쓰여짐의 특권과 은혜보다 더 큰 기쁨을 헌신된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 분명해진 섭리

여섯째,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어두운 비밀들과 고통스러운 체험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분명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7 절).

부족한 분별력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고,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그를 신뢰하라.

위압적 섭리 뒤에,  
그가 미소 띤 얼굴을 감추시네!

눈먼 불신은 확실히 잘못을 범하고  
또 그분의 역사를 헛되이 지나치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해석자라;  
그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실 것이라!

야곱은, “이는 다 나를 해로게 함이로다!” (창세기 42:36)라고 슬퍼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전에, 그 늙은 성도는 더 잘 알았으며,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주의 사자께서 건지셨도다.” (창세기 48:15-16)라고 말 하였다. 요셉은 그의 모든 비탄으로 끔찍하게 혼란스러웠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음을 알았다.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을 때, 애굽 사람들은 오직 그들의 고통이 늘어나게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바로에 대하여 승리하고 애굽 인들을 철저히 손상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위한 교수대를 세웠다. 그러나 거기에 달렸던 사람은 하만이었으며, 모르드개는 찬양을 받았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투옥되었던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던가. 그러나 그의 간수가 침례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었던가! 멜리테 섬에 상륙한 난파선, 끔찍한 추위, 그리고 독사에 물린 것들 모두 하나님의 냉담한 행동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위대한 공훈의 모든 행위들로서, 야만인들 두목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었다. 실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시편 77:13, 19). —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시편 36:6). — “여호와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시편 111:2).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약속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출애굽기 5:21-23). 때로는 섭리 가운데 공홀과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행사는 진노와 심판의 행사처럼 보이고 느껴진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악하고 냉담한 자, 기껏해야 의로운 자에게 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 (시편 73). 이 세상에서 많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거절하셨다. 성전을 건축할 때가 왔을 때, 다윗은 사망하였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 드시고 다른 손으로 내려 놓으신다. 한 손으로 치료하시고 다른 손으로 상처를 입히신다. 성령을 찬양하라. 언제나 우리 혼에 하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우리 혼을 안식하도록 하라. —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주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대항한다고 생

각할 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긍휼로 눌러지고 있다. 우리 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행하게 두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도록 요구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때가 찰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가끔은 놀라네 왜 내가 여행해야 하는지  
울통불통하고 가파른 길 위로.

왜 그 모든 흑암 속을? 왜 그 모든 고통을?  
왜 당신의 택하신 자가 그리도 자주 흐느껴야 합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그것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네.  
아버지를 따라서 왜인지 깨닫게 될 것이네;  
힘내라, 믿는 자여, 네 위대한 구원자를 신뢰하라. —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모두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 91 장. 발을 씻으심—요한복음 13:1-20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 뿐만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1-20)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장에서 기록된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기록하도록 감화하셨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다섯 장에 기록된 일들을 언급하는 곳이 없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움과 훈계 그리고 우리의 덕욕과 위로를 위하여 그 일들이 여기 기록되게 하셨음을 결코 충분히 감사할 수 없다. 여기 계시된 일들은 이천 년 이상 동안 갈급한 혼을 위한 음식과 음료가 되어 왔다. 그 일들이 성령의 은혜로운 영향으로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마음에 축복이 되므로, 모든 세

대와 땅 가운데 시온의 순례를 위하여 힘과 위로를 공급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아주 하찮은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단락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 축복된 떠나심

첫째,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이 곧 다가올 사망을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축복된 떠나심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육신의 사망을 예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 절).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는 그분의 제자들과 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함께 드실 큰 갈망을 표현하셨으며, 그것은 그가 우리의 유월절 희생으로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의 죄들을 위한 속량이 되어 그 예표 의미를 성취하려 하심이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 대속자로서 죽고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구속을 성취하시기를 갈망하셨다.

비록 그가 치욕적이고,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야 했지만, 또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서 죽어야 했지만, 그가 우리 대신 죄가 되셨을 때, 우리 구원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죄의 마지막이며 고통의 마지막이고, 치욕의 마지막이며 저주의 마지막이고, 진노의 마지막이며 비통의 마지막이고, 그분과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1). 따라서,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서 나와 아버지께로 향한 그분이 성취하신 출애굽일 것이다 (누가복음

9:31).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18), 그가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죽음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뿐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떠나기 위한 마음 편하고 달콤한 갈망이다. John Trapp 이 그것에 대하여 언급한 것과 같다. “성도들에게 그것은 영생으로 가는 입구로 아버지께 가는 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오래 전 한 나이든 신자가,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나를 구속하였으며,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망의 길로 던져질 수 있겠는가?”

어떤 특정한 때와 시간이 영원에서 이 세상 속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오실 것이 정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온 때와 시간이 영원 전부터 확정되었다. 우리 구속자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특정한 때와 시간이 영원 전부터 확정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는 때와 시간이 영원 전부터 확정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내 아버지께로 떠나게 될 것이다.

## 비할 데 없는 사랑

둘째, 성령은 여기에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우리 구원자의 큰 사랑을 불멸하고 참을성 있는 인내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말씀하신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나라.” (1 절).

그분의 사랑의 목적은 “자기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 말은, 창조로부터 모두가 그분의 소유이지만,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 “자기 사람들”이란 말은, 육신을 따라 그분 자신의 나라이고 동포들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그분이 택하신 열두 사도들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 두 마디의 달콤하고 달콤한 말 — “자기 사람들” — 은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모든 주체를 가리키며, 그들은 그분 자신의 선택으로, 아버지의 은사로 그분께 주어진 선물로, 그분의 피로 그가 사신 자들이며, 그분의 은혜로 효험 있게 부르신 자들이다.

우리 구원자의 사랑은 특별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언급된다. — 그 의미는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의 현재 상태와 조건 안에서, 어떤 상태나 조건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다는 것이다. 그분은 지금 현재,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비록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육신 안에 살고, 많은 덧과 유혹에 걸리기 쉽지만,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비틀거리고 실패하며, 죄로 충만하고 치욕으로 가득한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과 앞으로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들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행위는 지난 시간과 올 시간 안에서 모두 타나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만족하심과 기쁨의 사랑으로, 영원 전부터 그분 자신께 우리를 배우자로 삼으시고,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 보증으로 우리의 목적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속자와 대표자와 중보자로 영원 전

부터 성육신 안에서 우리 본성을 취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시므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책임을 그분 자신에게로 돌리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던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하시고, 모든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비할 데 없는 그 사랑을 보이기를 계속하신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우리를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옮기실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이것을 붙잡도록 하라: — 우리 혼을 위한 동일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종말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된다! 주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 그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셨다!

## 영원한 통치

셋째, 우리는 여기서 우리 중보자이신 구원자의 통치가 영원한 통치임을 배운다. 그가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가 축복을 받고 영원 전부터 열납 되었으며, 따라서 삼일 여호와께서 영원 전부터 그를 그분의 택하신 자의 중보자-구원자로 신뢰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주이신 그분의 손에 들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버렸다 (히브리서 4:3).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열납 된 희생제물이었다 (계시록

13:8).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열납되었다 (에베소서 1:6).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의 은혜의 모든 축복들과 함께 복 받았다 (에베소서 1:3-6). 하나님의 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구원 받았다고 말씀한다 (디모데후서 1:9).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우리 중보자로서 모든 것 위의 주가 되셨으며, 영원 전부터 그분의 사랑의 모든 대상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모든 육체 위에 주가 되셨다. 그리고 “세상의 기초로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빛으로 옮겨졌고, 나타나게 되었으며, 정해진 때에 공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분의 영광의 찬양에까지 있다.

그러나 3 절의 최우선의 목적은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 자신의 위대하고 설명할 수 없는 신격과 인자로서 뛰어나심을 깨달으셨고 완전히 인지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성령은 위대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겸손의 문제로 주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주, 지배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심을 아셨을 때인 바로 그 순간에, 주 예수는 사람 (노예들)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 가운데 종들 중 가장 낮은 자 외에는 하지 않을 것을 행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겸손의 의미를 우리 앞에 갖도록 한 성령의 분명한 의도이다.

그리고, 성령은 요한을 감화하여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께서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3 절) 을 아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 그는 여호와와의 종으로서의 사명 위에 삼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며,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려 오셨다. 그리고 구원자께서는 그의 일이 곧 행해질 것임을 알고 계셨다. 그가 성취하도록 한 모든 것을 마치셨을 때, 그는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삼일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 앞에 있는 이런 생각들과 함께, 우리 귀한 구원자는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몸을 굽히셨다. 오직 지금, 오직 이런 상황들 아래에서 그가 곧 대신하여 죽으시기로 되었던 바로 그 백성을 위한 그분의 죽지 않는 사랑의 생생한 그림을 주실 수 있었다. 그는 이제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려 하고 있었다. 한 동안, 그들은 그분을 더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6:10).

### 형언 할 수 없는 굴욕

넷째,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우리 구원자의 행위는 우리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그의 형언 할 수 없는 굴욕에 속한 그림을 그들과 우리에게 제시하려 의도 되었다. 나는 우리 앞에 이 장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쁘게 행해야 하는 매우 분명하고 생생한 자기 비하와 겸손한 섬김의 매우 분명하고 생생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기쁘게 해야 한다. 그가 우리를 섬기는가? 우리가 서로를 섬기도록 하자.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우리가 서로를 새롭게 하자. 그가 우리의 필요를 맞추기 위하여 몸을 굽히시는가?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맞추기 위하여 몸을 굽히자. 그가 우리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는가? 서로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자. 그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올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자.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려 놓자.

이 장에서 기술된 발 씻음은 우리가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행해야 하는 사랑의 섬김 들과 이 세상 안에서 서로를 기쁘게 섬겨야 한다는 생각의 겸손을 묘사한다 (빌립보서 2:1-11). 그리고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백성에 의해 존중 받아야 한다는 높은 평가의 선포가 되게 하려는 것이 잘 의도되어 있다. 20 절에 있는 우리 주의 선포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의도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함축한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제자들의 손이 아니라 발을 씻김은 아마도 그의 사도들로서, 복음의 전도자들로서 그들에 대한 의식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사야 52:7-8; 데살로니가전서 5:12-13).

이 굴욕의 경이로운 행위로 의도된 최우선의 일은, 그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몸을 굽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의 큰 형언 할 수 없는 겸손과 굴욕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저녁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 13:4-5).

이것은, 그가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피로 그들의 죄들로부터 씻으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모든 세상 앞에 아버지와 함께 갓고 계셨던 것인, 그분의 영광을 내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다 (빌립보서 2:5-8; 고린도후서 8:9; 5:21).

이것은 진실로 한 가지 필요한 것, 한 가지 절대적으로 우리 혼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 우리는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한다. 주 예수께서, 강조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 절). 비록 우리 구원자께서 아무도 침례주지 않으셨고, 그 사실을 강조점으로 만들었다면 (요한복음 4:2), 마치 침례는 구원의 공로가 없거나 어떤 종류의 효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내게 말씀하신다. —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며,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22). 우리는 법적으로 씻겨져야 한다 (로마서 3:24-26). 우리는 체험적으로 씻겨져야 한다 (디도서 3:4-7;; 스가랴 3:1-9).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씻겨져야 한다 (요한일서 1:7, 9).

### 내적이 아니면, 외적

다섯째, 주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으셨다는 사실은 매우 교훈적이다. 유다의 발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다른 사도들과 함께 공

통되게 씻겨졌다는 사실로 경악하지 않는가? 그것은 거의 충격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우리 주 예수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유다의 발을 씻기는 그분의 의도된 행위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참 구원의 은혜는 내적이지 외적이 아니다. 유다는 의례적으로, 외적으로 씻음 받았지, 영적인 것도 아니고, 내적인 것도 아니었다. 구원의 유익과 공로와 효험은 어떤 외적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규례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의해 행해졌을 때조차도 외적 유례에는 없다. 하나님의 백성, 참 믿는 자들은 우리 예배의 집회 안에 있는 마귀의 존재에 의해 결코 다치지 않거나 영적 유익으로부터 멀어진다. 유다의 모독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부패케 하지 않았다. Robert Hawker 는 바로 보았다…

“유다의 존재가 그 거룩한 절기에 그들이 주와 함께 있는 사도들을 상처주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마귀나 악인이, 그들에게 비밀스럽게 그들의 분깃을 다루시고 그들이 ‘감추인 만나’(계시록 2:17)를 먹게 할 때, 주께서 그 자신을 복되게 나타나게 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

유다 같은 마귀들이 그들의 추한 머리를 들어 올리고 우리 한 가운데 자신을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상기해야 한다. 유다와 다른 자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택정하고, 구별된 은혜였다. 그리고 동일한 것이 오늘날 사실이다 (18-19 절; 고린도전서 4:7).

적용

아 얼마나 은혜로운 그림이 우리 앞에 있는지! 얼마나 귀한 그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의 붓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가련한 어부의 발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본성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서처럼 어떤 동등한 사랑스러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 그림은 다른 모든 것 보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을” 때, 그 순간 그려졌다! 그것을 잘 숙고해 보라. 우리 마음의 교만을 억누르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놀라운 공과가 있다!

세상의 위대한 자들이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전하고, 가난한 자, 극빈자, 집 없는 자, 사악한 자들을 겸손히 바라보는 것이 거의 힘든 반면에, 하늘의 왕은 가장 낮은 겸손으로 몸을 굽혀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우리 주의 이 비할 데 없는 겸손한 모습을 결코 놓치지 말자. 당신이나, 내가, 혹은 어떤 가련한 죄인이 그런 너그러운 행위의 장면에서, 그것이 우리처럼 낮은 신분에서 있는 그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격 이하라고 혹시 상상할 것인가? 주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는데, 그가 내 혼을 씻으시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요구 받지도 않으신, 그렇다, 베드로가 거절했을 때조차도, 그런 은혜로운 행위를 하시기를 고집하시고, 소경의 눈을 우리의 필요에 돌리시거나 귀머거리 귀를 우리의 정직한 탄원에 돌리실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구원자이며 주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의 의도 안에서, 나는 그분의 보살핌을 받기에 너무 미천하고, 비참하며,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이 떠나시기에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동으로,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육신 가운데 여기에서 그

가 행하셨을 때처럼, 우리를 위하여 사셨을 때처럼, 그리고 갈보리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을 때처럼 과 지금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려 의도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시기 전에, 땅 위에서 그가 하신 그 마지막 행위는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위로 그들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헌신을 선포하셨다. 시간도, 장소도, 환경도 우리 혼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언제나 기억 속에 간직하도록 하시기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분이 우리를 영광 속에 집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분의 피로 씻으시며, 우리를 그분 앞에 열람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에베소서 5:25-27) 하실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유다서 24).

## 92 장.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요한복음 13: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5)

무엇이 믿는 자의 삶의 법칙인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통치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어떤 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계된 질문들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 아무도 무법적이고 반역적인 반율법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것을 하기 원한다. 혼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것을 가르친다 (디도서 2:12). 우리가 성령 안에서 권함을 받으므로, 구원 받은 죄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2:15).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 받고, 구속 받았으며,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 속에 피조 된 거룩과 의의 원칙을 갖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하게 할 태도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

스도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당신의 종교는 거짓 도피처이다. 당신이 믿는 척하는 것은 기만이다.

## 반율법주의 비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므로, 구원은 대가 없고, 은혜는 조건이 없으며,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죄를 묻지 않을 것임을, 성경 모든 곳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끊임 없이 도처에 선포하므로, 우리는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반율법주의자들로, 음란함의 선동자로 비방 받고 있다. 유대시대에 교회 안으로 이미 스며들어와 있는 자들인 행위 주창자들 율법과 은혜를 함께 섞으려 하며 대가 없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 음란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모독스럽게 주장한다 (유다 1:4).

물론,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떨어져 존재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은 거룩의 복음이다. 그것은 그것을 아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친다 (디모데전서 2:2). 그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디모데전서 6:3).

## 세 가지 선언

여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사항이 있다.

1.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믿는 자들이 노예 상태의 멍에 아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의식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민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식습관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경제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도덕법, 즉 십계명 아래에도 있지 않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 그 외에 누구도 유대 안식일과 의식과 성찬식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거나 허락되지도 않았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려 주어졌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가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우리 생명의 법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에 위임되지 않았고, 율법으로부터 저주도 받지 않았으며, 율법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 (로마서 6:14-15).

율법은 순종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위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용병들이 아니다. 우리는 득을 바라거나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그런 것들로 동기를 부여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믿음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는다. 하나님은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받아 들으신다. 그분은 단지 외적인 것, 위선적인 과시적 보임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 전능하신 분은 바리새인의 외모를 뚫어 보신다!

성경의 말씀을 들었는가? —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다!” 율법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율법은 속박을 낳으며, 속박은 불화를 산출한다. 율법 행위는 교만과 자기 의와 판단적인 태도를 촉진한다. 우리는 명백하고 반복적으로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경고하였다 (로마서 7:1-4; 갈라디아서 3:24-26; 로마서 10:1-4; 갈라디아서 5:1-4; 골로새서 2:14-16). 율법이 시내 산에서 주어졌던 이유는 죄인들을 갈보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율법은 홀로 그 요구에 순종하셨고 죄인의 대속자로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주어졌다.

2.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 강요되는 자기 의의 기준과 전통과 율법과 관습들에 의해 지배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모테전서 4:1-5; 로마서 14:5, 11-17).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성과 헌신과 전념에 대하여 심판으로서 자신을 죄는 것이 우리 시대의 습관이다. 그들은 그것을 “열매 검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때에서 다른 때로,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변한다. 그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 옳은 것은 어떤 것이든 언제나 옳다. 틀린 것은 어떤 것이든 틀린 것이다. 진실한 거룩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22-23).

3. 하지만, 우리는 율법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하는 율법이 있다 (요한일서 3:23; 고린도 후서 5:14-16).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전체는 두 가지 것을 가르친다. 믿음과 사랑인데,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형제 사랑이다. 이 두 가지 법칙으로 우리는 산다. 의인은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산다.

요한복음 13:15 에 사랑의 율법의 예가 있다. 우리 같이 흠으로 된 그런 연약한 피조물들은 따라 살아야 하는 어떤 본, 복사하기 위한 어떤 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하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예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어떤 법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그 법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바로 여기서 찾게 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 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

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3-15).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된 구원자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다.” (베드로전서 2:21).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자 한다면, 오직 사복음서를 읽고, 그리스도를 나의 본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따를 필요가 있다.

-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나의 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세금을 내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무엇이 겸손인가?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무엇이 죄인가?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믿는 자가 어떻게 고난 받아야 하는가?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얼마나 주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무엇이 인내인가?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내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얼마나 추구해야 하나?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 무엇이 사랑인가? —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이 세상에서 삶에 관련한 어떤 질문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그리고 만약 당신의 생명이 끝날 때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바라 보라.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율법이고,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인도자이고, 우리의 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 자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 표현된 변함없는 사랑

요한복음 13 장은 우리 주의 세상 삶과 사역 안에서 가장 가르침이 있고 가장 교훈적인 사건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그림은 우리를 향한 우리 구원자의 지속적인 사랑의 그림이다. 정말로 1 절은 우리 주께서 2-17 절에서 행하셨던 강론에 대한 본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은혜로운 주인으로서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분은 그들에게 먹을 빵을 주시고 마실 포도주를 주신다. 그분은 심지어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한 대야 떠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려 몸을 굽히신다!

이것은 옛 중동 국가들에 있어서 하나의 관습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집에 있는 손님에게 예의를 표하려 한다면, 그는 그들에게 음식과 포도주와 그들의 발을 씻을 찬물을 제공하였다.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온 천사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물을 가져갔다. 요셉은 그의 종들이 애굽으로 왔던 자신의 형제들의 발을 씻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직접 그분의 제자들에게 지극히 예의를 표하심으로 그가 그들의 발을 씻으셨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변함없고, 은혜롭고, 사랑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친절하게 관심하시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실이다 (로마서 8:28; 시편 57:2).

우리 구원자에 의해 행해진 이런 사랑의 행동은 내게 세 가지 것을 보여준다. —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큰 관심으로 우리의 사소한 걱정이나 염려를 보살핀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도 애정 어려서 심지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다. 그는 심지어 그들의 발꿈치에 있는 약간의 흙도 알아채신다.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사소한 일들을 관심하시네:

전능하신 주, 왕 중의 왕께서,

우리 걱정거리들을 그분께 던져버리게 하실 것이다.

둘째,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사랑의 자녀들을 위하여 원기 회복할 것을 애정 어리게 공급하신다. — 더운 날씨에, 오래 걷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난 후에 우리 발을 시원한 물에 담그는 것보다 더 상쾌하게 하는 것은 없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지친 혼이 기운 차리게 하는 시원한 물이 있는 많은 못이 있다 (그의 구원, 그의 약속들, 그의 임재, 그의 신의, 그의 말씀, 그의 성찬, 그의 복음, 그의 은혜의 보좌). 그리고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특별하고 특정한 철이 있다. 우리가 시험의 힘든 수고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견디어야 할 시험들을 위하여, 은혜에 속한 달콤한 음식들로 그분 자신을 은혜롭게 예비하신다. 우리 여정의 한 가운데,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도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여시고, 우리 마음이 속에서 불타게 하신다. 우리가 하늘의 집에 도착할 때, 그분은 우리 혼을 이전과 전혀 다르게 새롭게 하실 것이다 (누

가복음 12:37; 계시록 8:1).

셋째, 우리 축복의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 각자의 영정 전쟁에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신다. 그는 우리의 발을 씻으신다. 그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 근심의 흠을 우리에게서 씻으신다.

복음의 공개적 포고는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침례 가운데 그리고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우리 주 자신의 위대한 희생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우리 발을 다시 씻게 하신다. 피는 성령에 의해 신선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전파 가운데, 시온의 찬송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신선하게 씻겨진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 씻음 받을 필요가 있다. —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7).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구원자는 언제나 우리를 씻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

## 따르기 위한 본

둘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그림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본이다 (12-15 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

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  
노라.”

우리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육체적으로 발 씻음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은 우리 구원자의 제자들이 그런 의식을 실행했다든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으며, 초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신약 성경 안에서 그런 의식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도 없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교회를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서 발 씻음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서 살아야 할 본을 주셨다. 그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주셨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할지, 또 우리 형제들에 의해 섬김을 받도록 어떻게 우리 자신 허락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신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의 발을 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 발을 씻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이 부분에서 우리 구원자의 본으로 세 가지 공과를 분명히 배운다. 첫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주의 깊게 유지해야 한다 (요한복음 13:35; 요한일서 4:8; 고린도전서 13:1-13). 둘째, 사랑은 유용하다. 사랑은 말이 없다. 사랑은 행한다! 어떤 섬김도 사랑에 비하여 큰 것은 없다. 어떤 섬김도 사랑에 비하여 작은 것은 없다. 셋째,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끝이 없고 내주하는 법이다 (요한복음 13:34-35).

우리 친애하는 구원자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 주신다 (요한일서 3:16-17; 4:9-11). 사랑과 친절의 행위들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성취된 율법이고 모든 필요한 율법이다. —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1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1-8)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John 13:17)

## 93 장. 유다와 하나님의 영광—요한복음 13:18-31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앎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요한복음 13:18-31).

요한복음 13 장은 성령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하며, 그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하신 자를 위한 그의 영원한 사랑을 기술한다.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구원자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주권적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묘사되었다. — “사랑하시니라,” 특별하고 구별된 사랑 —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리고 지속적이고, 변치 않으며, 불변의 사랑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편 109 편에서 우리 마음을 매혹하고 우리 혼을 황홀하게 하는 그분의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가? —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3-4). 주 예수는 여기서 그와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람의 저항에 대한 이유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임을 선포한다. 그렇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도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오함을 선포하신다. 그것이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증오하였고 그를 살해하였던 이유이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셨으므로 이삭을 박해하였다. 그것이 왜 에서가 야곱을 멸시하였던 이유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

랑하셨고 에서를 증오하셨다. 도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증오한다.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구원하시는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죄인들 위에 부어졌다는 사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격노케 하는 것은 없다 (로마서 9:4-23).

아담의 타락한 아들들 가운데 오직 두 무리의 사람들만 있다. 택함 받은 자와 버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씨와 뱀의 씨,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부요를 알게 하시는 자로써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려 이전에 예비한 공홀의 그릇들과 하나님께서 그로써 그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심으로 멸망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 있다. 멸망에 합당한 진노의 그 그릇들의 가장 크고 가장 빛나는 예가 주 예수의 배반자, 가룟 유다이다.

## 택정과 예정

우리 앞의 성경의 부분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택정함과 주권적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계획의 확실성에 대하여 확신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택정하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절대적 예정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한다! 구원자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들 중 하나가 마귀이고 배신자이며 버림받은 진노의 그릇임을 말씀하시려 한다. 그러나 먼저 그분은 그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계획이 확실함을 확증하신다 (18-19 절). 그분은,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선포하신다 (시편 41:9 를 보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

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분명한 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드셨다. 그분은,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다.

## 배반자

주 하나님 우리 구원자는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며, 그리고 인자 그리스도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다!”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도록 하신다.

이제 그런 주어진 확신들을 갖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룟 유다, 배반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도록 하자. 혐오스럽고, 비열하고, 부도덕한 사람의 특징과 행위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공과들은 많은 경종을 울린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기록된 것들이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 제시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듣게 된다 (로마서 15:4).

첫째. 타락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죄의식이 심각해지게 하고 그들의 정죄가 늘어나게 하는 큰 이점을 즐긴다. 분명히 유다가 그런 경우였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많은 큰 이점이 주어졌다. 그는 거의 삼 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특권을 가졌다. 그는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하신 우리 구원자의 설교를 들었으며,

제자들에게만 주신 개인적인 가르침도 들었다. 유다는 매일 습관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이야기를,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던”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것들은 실로 큰 이점이었지만, 그러나 유다는 더 큰 특권과 이점을 누렸다. 만약 우리가 이 장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고려치 않는다면, 우리 구원자의 친절과 선하심과 긍휼과 은혜에 속한 얼마나 셀 수 없는 징조들을 유다가 보았는지. — 주 예수께서 그의 발을 씻으셨다!

배반자가 다시 식탁에 그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와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분을 배반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너무도 부드러워서, 구원자의 말씀이, 가룟 유다의 냉담하고 고집스런 마음과 타버린 양심은 제외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깨지게 하였을 것이며 조급한 자는 약간의 양심이 찢렸을 것이다. 유죄 판결의 어떤 화살이 그의 마음에 도달했다면, 분명 우리 구속자께서 이 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행동이 강철 같은 그의 혼을 꿰뚫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 그가 앉아 있었고, 가장 부드러운 말씀과 상상할 수 있는 행동으로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고, 결심한 범죄로 굳어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들 중 한 사람이 주를 배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황망한 생각에 무서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한편, 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반역자로 표시될 치명적인 젖은 빵을 주실 때까지, 유다는 마치 화산처럼 그 속에 타오르는 지옥같은 적개심의 불길로 꽂찬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직 그리고나서, 그는 빠져 나갔다.

여전히, 그의 마음의 뻘뻘함은, 주 예수에 대한 그의 중요심을 일으켰던 결심이 그가 식탁에서 나가자마자 그가 행한 행동에서 드러나게 된다. 비록 지금은 밤이었지만, (아, 어떤 밤일지, 어떤 어둠이 그의 혼을 에워쌌을지!), 유다는 베다니에서 삼 키로미터 정도 거리의 예루살렘으로 곧장 갔다. 거기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계약을 했다 (마태복음 26:14-16).

그가 밤에 그 비열한 행위를 하려고 그 먼 거리를 홀로 걷고 있을 때, 유다는 일말의 양심의 찢림도, 최소의 가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가 가진 기록으로만 판단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유다가 앞으로의 이틀의 낮과 밤 동안 최소한 정도의 망설임조차 느끼지도 알지도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이 없다. 그의 마음이 심지어 순간적으로 누그러졌을 가리키는 것이 없다.

반면에, 우리가 그가 행한 것을 본 바로 다음 일이 유월절에 주 예수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일어났고,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주의 만찬을 받았음에도, 그는 이미 배반하기로 합의했던 자였고, 마치 그는 충실한 제자인척 했다! 구원자께서 그의 발을 씻으셨다. 주 예수는 그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셨다. 유다는 마지막 찬양에 함께 하였다.

모든 부드러움이 그 냉정한 철면피 위에 잃어버렸기에, 심판의 경중은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유다가 대담하게 주 예수를 체포하려 왔던 사람들과 군사들 무리를 이끌고 겿세마네로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주께서 물으시고 자신이 여호와, “내로라.”고 선포하실 때 그들 모두 땅에 엎드렸으며, 그들이 모두 땅

에서 뒤로 물러나 엎드렸을 때, 유대도 그들 중에 있었다 (요한복음 18:2-9).

그러나 기적도, 친절한 행위도, 특권도, 심판의 행위도 유대의 냉정한 마음을 통과하거나 심지어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주님 그분 자신이 사탄에게 그를 소유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완전히 그 사람을 소유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못하였다 (누가복음 11:26).

### 구별된 은혜

아무리 큰 기회들도 한 죄인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높은 특권도 사망한 죄인에게 생명을 결코 줄 수 없다. 가장 선한 무리도 지옥으로부터 혹은 심지어 그 자신으로부터 한 혼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도도, 전능한 은혜로 효험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그 혼에 생명과 믿음을 창조할 수 없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죄의 자각은 그 영의 역사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운행이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혼을 그분 자신께로 돌리는 것이다. —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둘째. 유대와 당신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유대와 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가룟 유대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모든 주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구별된 은혜로 만드셨고 만드시는 차이이다. 주 예수께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뻔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21)고 말씀하신 자들 중 타락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소중한 자와 불결한 자 사이에,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말라기 3:18) 사이에 영원한 구별의 선이 그려져 있

다. 그리고 그 구별의 선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그려진 선은 섭리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계속 그려진다 (고린도전서 4:7; 데살로니가전서 5:9).

하나님의 택정한 자 모두가 우리 조상 아담의 죄 가운데 파멸되었고, 모두가 동일하게 부패한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택정한 자든 타락한 자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뱀의 씨와 그리스도의 씨로 구분한다 (유다서 4-11).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에 속한 영원한 연합 안에 있게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거룩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존되고, 부름 받는다. 그러나 유다는 버림받은 자가 이 정죄에 운명지워진 옛사람에 속했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렸고 달리고 있으며 고라의 패역 속에서 멸망할 것이다 (유다서 1:11).

주 예수께서 직접 아담의 배교 종족의 모든 유다 후손에 대하여 선포하신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44). 사도 요한은 이런 동일한 구별을 한다 (요한일서 3:5-12).

유다는 단순히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마귀였다. 그리고 사탄이 그의 속으로 들어갔고 그를 완전히 소유하였다 (요한복음 6:70). 하지만, 당신과 나는 유다와 아주 똑같다.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비열하고, 냉담하고, 사악함에 있어서 가차없으며 그가 그랬던 것처럼 악행을 결심하였다. 왜, 그러면, 유다가 영원한 흑암과 고통의 상속자이고, 반면에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의 믿

음을 주셨던 하나님께 대하여 빛과 영원한 축복의 상속자들인가? 오직 한 가지 대답만 찾을 수 있다. 구원자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아, 택정하심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9).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13-17)

##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택정하심과 미리 예정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확고하고 변하지 않음을 입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배반자 유다 안에서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모두의 그림을 받는다. 이제, 30-31 절을 보고, 유다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무서운 배반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정

해진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과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실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께서 그분의 사망 가운데 구속의 성취와 유다의 배반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속량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 혼의 구속은 삼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

## 94 장. 파멸에 준비하라: 백성 안에서 영광 얻으신 그리스도—요한복음 13:1-14:1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3:31-14:1)

이 단락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의 열한 명의 충성된 제자들하고만 계신 주 예수를 발견한다. 배신자 가롯 유다는 그 방을 떠났다. 그는 어둠에 속한 사악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나갔다. 배신자의 고통스러운 동석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 주는 이전에 자신을 열었던 것보다 더 충만하게 그의 작은 양 떼에게 그분의 마음을 여신다. 그가 체포되고, 조롱섞인 재판과,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복된 대속자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귀한 구원자는 성경의 어떤 부분으로 탁월한 강론을 시작하신다. 말씀은 요한복음 13:31 에서 시작하여 요한복음 16:33 까지 가며, 요한복음 17 장에 있는 주의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로 결론을 맺는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의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는 그가 인자로서 영광을 입으셨으며, 삼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입으시고, 삼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심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자신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 지를 보여 준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앞에 그 말씀을 가진 분은 우리의 교사이다.

## 단지 가족만

첫째, 우리는 그분의 가족과 함께 계신 주 예수만 본다. — “저가 나간 후에…” (31 절). — 유다가 나가자마자 곧,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 배신자가 마침내 떠났을 때, 구원자는 그의 사랑스런 가족, 그의 자녀, 그의 비밀한 몸, 그의 교회 하고만

남겨졌다. 이 열한 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의 선택 받은 교회 안에서, 주 예수는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기쁨이 되었고 그분 안에서 복 받았다. 삼일 하나님의 세 분 위격들은 우리의 중보자와 언약의 보증이신, 인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받으셨으며, 그리고 삼일 여호와와는 그분의 백성 안에서 영광 받으신다.

이 열한 사도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의 전체 몸인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그의 조상과 마귀와 모든 뱀의 씨를 대표함)는 밖으로 나갔고, 주 예수는 그분의 가족하고만 남겨졌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따라서, 죄와 사탄과 뱀의 모든 씨 (각 세대의 모든 유다들)가 영원히 나가게 될 때, 그 큰 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그분이 그분의 모든 창조로부터 뱀의 바로 그 점액을 제거하실 때, 영원한 날이 될 그 날이 하나님과 우리 혼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지 (이사야 60:14; 시편 125:3).

## 그리스도의 영광

둘째, 우리는 우리 구속자로서, 인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 삼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를 본다 (31-32).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 구원자의 말씀은 많은 것들에 적용 될 수 있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심에 대하여 그로써 영광을 받으셨고 받으시며 삼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으로 특정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게는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마치 그분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임박했다. 세상에서 내 일은 끝났다. 어떤 사건이 내 일 일어나려 하고, 그것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며, 나와 내 아버지 모두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실재이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 주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암울하고 비밀스러웠겠는지! 분명히, 그들 중 아무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만약 내가 거기 앉아 있었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잡지 못했을 것이다. — 당신은 어떤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저주 받은 죽음의 모든 고통 가운데,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치욕과 불명예와 굴욕 가운데, 다름날 그들이 보고 들었을 그 모든 것 가운데, 인자가 두 강도 사이에 여섯 시간 동안 벌거벗긴채로 달린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의 모습은 커녕,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시사하는 것조차 없었다. 반면에, 사건이 발생한 때에 구원자의 죽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본 모든 것은 치욕과 실망과 낙담이었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신다.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가져다 드렸다. 그것은 그분의 지혜와 신실함과 거룩과 사

량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것은 그분을 지혜롭게 보이게 하였던 것은, 그로써 그분이 의로우실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의 의롭게 하는 분이 되실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 안에서였다. 그것은 그분을 신실하게 보이게 하였던 것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야 한다는 그분의 약속을 지킴 안에서였다. 그것은 그분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였던 것은, 우리 위대한 대속자로 인하여 그분의 율법의 요구가 만족케 되게 하는 요구 안에서였다. 그것이 그분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였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듯이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 구속자, 친구를 공급하심 가운데에서였다 (로마서 5:6-8; 요한일서 3:16; 4:9-10).

우리 중보자이고 언약의 보증으로서,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아들에게 영광을 드렸다. 그것은 그분의 동정과 그분의 인내의 순종과 그분의 권능에 영광을 가져왔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 놓으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저주가 되심 가운데, 그 자신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 구속을 얻으심 가운데, 동정심이 많고 사랑스러우며 은혜로우심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분의 인내하는 순종을 보여 주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을 죽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런 공포에 기꺼이 순종하심과 어떤 생각도 품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통들에 기꺼이 순종하심 안에서 그분의 아버지의 천사들을 한 마디 말씀으로 그가 불러내셨을 때였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다!”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는 죽음에 순종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사망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구속의 성취를 이루심으로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

광을 드렸다. 우리 구원자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셨던 죽음은 그분을 능력이 넘치는 분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을 손상한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모든 범죄와 우리의 모든 죄의 모든 짐을 그분의 몸에 짊어지시기조차 하심으로 보이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가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취하며 그들을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자의 피를 그의 구속 받은 자에게 적용하고, 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을 새로 태어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 만들며,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인치시고 위로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지키고 보존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복된 구원자의 희생과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영원히 갖고 있도록 하자. 사람들의 우상화된 그림과 조각들은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것을 결코 묘사할 수 없다. 십자가 위에서 행해진 역사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율법과 대속자 안에 떠넘겨진 우리 죄들, — 전가된 죄와 전가된 유죄, — 대속자 안에서 심판된 죄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사람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흘러간 대가 없는 구원 — 이런 것들은 오직 신성한 계시로, 오직 은혜의 체험으로만 알게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믿고, 앙망하고, 찬양 받기만 할 수 있다.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14).

**이별의 시간**

셋째, 33 절에서 우리 주 예수는 우리와 그분 사이에 이별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 우리가 그 이별을 느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21-24)

우리 주께서,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33 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분은 36 절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발전시키신다. —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우리는 지금 그분을 따를 수 없다. 그러나 곧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여기서 정해진 시간 동안 떠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특정한 계획을 위하여 여기 남겨 두셨다. 이 이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축복의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충만 (고린도전서 10:13), 그분의 믿음의 선물의 축복, 그리고 그분 자신의 신실함 우리 안에서

입증하시므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심 가운데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므로 (고린도전서 1:26-31),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왕국의 유익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 이별의 시간 동안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일은 끝났으며,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떠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집으로 부르시기 불과 며칠 전, 마지막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을 때, Scott Richardson 목사가 Fairmont, WV 의 성도들에게 말했다...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으며 나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한다. 우리는 하늘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것일지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것과 그렇지 않을 것으로써 더 깨닫는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죄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어둠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고통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슬픔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감옥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울음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전쟁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질병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두통도 없을 것이며, 구덩이 속에서 더 이상 죽게되지도 않을 것임, 더 이상의 헛된 것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기다림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방황하며 가는 것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책망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고뇌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흑암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의 분쟁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저주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 이름을 더이상 야곱이라고 부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이상의 저주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하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앞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밤이 없을 것이며, 초가 필요 없으며, 태양 빛도 필요 없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숨을 쉬고 그 세상 속으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일지 알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은 매일 그것을 체험한다. 나는 내가 아주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임을 안다. 그리고 만일 내가 한 사람을 침대에서 몸을 뒤집게 하고 잠들게 한다면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은 하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아, 유다의 무리가 더이상 없게 될 날이, 그리고 내 자신의 사악한 마음의 유다가 영원히 가버리게 될 때가 어떤 날이 될지!

## 새 율법

넷째, 34-35 절에서 우리 주 예수는 그의 선택한 자들에게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삶이 통치받아야 하는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 주 예수는 우리 가운데 그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게함으로써, 그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르게 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과같은 그 사랑으로 움직이고 통치받게 하므로써,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당신이 성경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 아님을 안다. 짧은 율법사조차도 율법의 본질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이 구원자께서 말씀하신 이유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구원자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다.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다.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동기이다.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사랑의 감화이다.

이 새 율법은 이제 새로 태어남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마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지, 돌비 위에 새겨진 옛 율법이 아니다. 사랑의 이 새 율법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언제나 함께한다 (요한일서 3:23-24; 고린도후서 5:14-15).

## 파멸에 대한 준비

다섯째, 주 예수께서 아주 은혜롭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끔찍한 파멸에 대하여 준비시키신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36-38).

베드로는 자신에 대하여 너무도 심하게 자신하였다. 그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고 하였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의 교만이 깨질 것이고 깨지게 하여야 할 그 끔찍한 파멸에 대하여 그에게 경고하셨다.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와 비할데 없는 선하심의 행사 가운데 베드로에게 한 그의 다음 말 안에서 더이상 영화로우실 수 없었다.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의 회복하게 하는 공훈과 사랑과 은혜로 그분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되는지! 마가복음 16:7 과 요한복음 21:15-17 을 읽어보라.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그의 언약이 확신이 있다. 그는 그의 사랑의 대상들이 스스로 파멸하게 두지 않을 것이

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녕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38-41)

아멘.

## 95 장. 근심된 마음을 위한 안도—요한복음 14:1-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3)

우리 앞에 있는 이 세 구절은 보배로운 복음 진리 안에서 풍성하다. 2000 년도 더 되는 동안, 그 말씀은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특별하게 보배로운 것이었다. 많은 자가 빛 비춤을 하였던 병실이다. 많은 자가 격려하였던 죽어가는 마음들이다. 우리 귀하신 주 예수께서 전해주시려 말씀하셨던 이 보배로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 근심된 마음

첫째, 우리는 이 단락에서 아주 오래된 문제에 대한 매우 보배로운 안도를 갖는다. 문제는 근심된 마음이다. 안도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다.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1).

마음의 근심은 세상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다. 어떤 지위도, 계급도, 조건도 거기서 예외가 없다. 어떤 창살도, 빗장도, 자물쇠도 그것을 들지 않게 할 수 없다. 마음의 근심은 일부는 내적인 것들로

부터 오고 또 한편으로 외적인 것들로부터 오고, 일부는 육체에서 오며 일부는 정신에서 오고, 일부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오며 또 일부는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오고, 일부는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것으로부터 오고 일부는 경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인생의 여정은 근심으로 가득하다. 가장 신실하게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은혜와 영광 사이에서 마시게 될 많은 쓴 잔들이 있다. 구원자와 가장 가까이 교체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일지라도 이 세상이 눈물의 장막임을 발견한다. 시온의 순례자 모두가 고난의 물과 고통의 강과 역경의 불을 통과해야 한다. —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22). 지속적으로 우리 혼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자들이 없는 블레셋 인들과 그들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다. 조만간, 우리는 모두 거대한 절망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우리는 모두 흑암의 지하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조만간, 우리는 모두 밀알처럼 채로 쳐서 걸러져야 할 것이다.

## 중단 없음

요한복음 14 장을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의식적으로 13 장과 14 장 사이에 중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고 유다가 그를 떠나고 열한 명의 신실한 사도들이 주를 배반하도록 그의 계획하도록 만든 후 그분이 시작하셨던 강론을 계속하신다.

유다가 떠난 후 그가 사도들의 전체 몸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약간의 정적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치 유다가 이제 막 하려고 했던 것이 그분의 계획에 정반대가 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처럼, 전

혀 멈춤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와 시간과 청중은 모두 동일하다.

이 장과 다음에 연속된 두 장 전체를 통한 우리 주의 위대한 목적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의 의도는 풀이 죽고, 마음이 근심된 제자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일으키려는 것이다. 우리 복된 구원자는 그들의 마음이 많은 일들로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보셨다.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였던 그분, 그들의 주를 “심령이 민망하여” 바라 보았다 (13:21). 그들의 육적인, 속세의 메시야 아래 속세 왕국에 대한 유대인의 기대들이 이제 흩어져 버렸다. 주 예수는 그들 중 하나가 그를 배신할 것을 이제 막 그들에게 말하셨다. 그들은 모두 유다가 일어나서 방을 걸어 나가는 것을 바라 보았다. 주 예수께서 단지 조금 더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이제 막 공표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그들이 그분과 함께 갈 수 없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동트기 전까지 세 번 그분을 부인할 것임을 말씀하셨다. —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모든 이유로 인하여, 이 나약하게 믿는 자들의 작은 무리는 중요하였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으며, 기운을 잃었고, 염려스럽고 두려워 하였다. 주는 그런 것을 보았으며 이 달콤하고 복된 격려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하여 주셨다.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을 또한 기억하라. — 우리 복된 구속자는 단수의, “네 마음(your heart)”로 하셨지, 복수인, “너희 마음들(your hearts)”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특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셨

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분은 그들 모두에게 선택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나에게, 그분의 사람들 모두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고 계셨다.

## 오직 하나의 안도

주 예수 안의 믿음은 근심된 마음을 위하여 유일한 실제적인 안도이다. 더욱 철저히 믿고, 더 전적으로 신뢰하며, 더 무제한으로 인식하며, 더 확고하게 붙잡고, 그분께 더 완전하게 기대는 것이 우리 주께서 모든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처방전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지막 저녁 식사와 식탁 주변에 앉아 있던 그 작은 무리 지체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림으로 그들의 믿음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그분은 그들과 우리에게 예전의 많이 필요했던 공과, 그들이 처음 시작하였던 공과를 권하신다. — “믿어라! 더 믿어라! 나를 믿어라!”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6).

우리 구원자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그 혼란은 쓸데 없는 것이다. 주 예수는 하나님 안의 믿음과 하나님-사람 중보자이신 그분 안의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안의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은 구약 성경 안의 모든 믿는 자들처럼 우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를 믿는

다.

따라서 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은 갑절의 엄중함으로 읽혀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은 심지어 이중의 암시로 읽혀질 수 있다. —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니 너희 마음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의 강한 믿음 사이에 큰 만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믿음의 정도가 있다. 어떤 믿는 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약하며, 어떤 이들은 믿음에 있어서 강하다. 믿음에 강한 자들은 아주 종종 믿음에 있어서 아주 약하다. 그리고 믿음에 약한 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종종 강하다. 말뚝에서 불태워졌던 순교자들 중 어떤 이들은, 처음에 부인하였다. 그러나 후에 그들 자신이 강한 것을 증거하였고, 그들의 간증을 그들의 피로 인쳤다.

우리 모두는, 마귀가 씌운 아들을 구원자께 데려갔던 사람과 함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마가복음 9:24)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가장 약한 믿음이 믿음을 구원한다. 그것은 결코 멸시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약한 믿음은 종종 마음의 큰 근심의 원인이다. 인지력과 두려움과 조바심 속의 애매하고 명료하지 않은 것이 약한 믿음의 결함이다. 바다를 어지럽게 한 폭풍 속의 제자들은, 비록 그들이 참으로 강한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 때 믿음이 약하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하셨다 (마가복음 4:40).

우리가 믿음이 의심스럽고 약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또 왜 믿는지를 분명하게 보지 않는다. 그럴 때, 더 많은 믿음만이 필요한 한 가지다. 물 위의 베드로처럼, 우리는 더 꾸준하고 확고하게, 주 예수께 더 자신 있고 충만하게, 그리고 파도와 바람에 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3).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마음의 근심이 있는 곳에 유일한 실제의 안도이다 (베드로전서 5:6-7; 시편 121:1-8).

## 우리 하늘의 집

우리는 둘째로, 이 단락에서 무덤의 저쪽 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과 복된 거처에 대한 매우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묘사를 본다. 하늘에 우리 영원한 집이 그 어떤 집인지! 우리가 육신 안에서 여기 있는 동안에는 하늘에 대하여 거의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약간이 긍정적인 문장보다 부정적인 문장으로 계시되어 있다. 그곳에 있을 것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그곳에 없을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안다. 그러나 여기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늘 집에 대하여 네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확신시킨다. —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1. 하늘은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 집에!” — 하늘은 복된 구원자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다. 다른 말로, 하늘은 집이다.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집이다. 이것이 달콤하

고 감동적인 표현이다. 집은 우리 은사나 소유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사랑 받는 장소다. 집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 받고 끝까지 사랑 받는 곳이다. 집은 우리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언제나 환영 받는 곳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낮은 땅에 있다. 하늘에서 우리는 집에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올 생명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집에 있게 될 것이다.

2. 하늘은 “거처들”의 장소다. — 그곳은 부요하고, 넉넉하며, 영구하고, 영속되고, 영원한 거처들이다. 이곳의 육체 안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숙소, 장막, 성막에 있다. 이 진흙으로 된 임시 거처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체험하는데, 나쁜 것과 좋은 것, 고통스러운 것과 기쁜 것 모두를 체험한다. —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히브리서 13:14). 손으로 만들지 않은 우리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변화도 겪게 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4:17-5:9).

3. 하늘은 “많은 거처들”이 있는 곳이며, 단순한 거처들이 아니라, “많은 거처들”이다. — 믿는 자들 모두를 위한 방과 모든 종류, 위대한 자들뿐만 아니라 작은 성도들, 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가장 약한 믿는 자를 위한 방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자녀라도 그를 위한 거처가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뉘우치지 않은 죄인들과 완강한 불신자들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는 많은 거처들이 있는데, 큰 수의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5:11-14; 7:1-17; 14:1-4; 19:1-9).

4. 하늘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다. — 그리

고 그분은 우리가 없이 그곳에 거하실 의도가 없다! —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분의 약속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만 있다거나, 우리가 홀로 있거나 무시될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임재의 하나님이자 구원자이다.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7:24).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고린도후서 5:8). 우리 구원자, 우리 만형, 우리 구속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분이 우리의 한 가운데 영원히 계실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될 것과 우리가 하늘에서 보게 될 분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 아직 완전히 품을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2).

아, 복된 소망이여! 아, 달콤한 위로여! 세상적이고 부주의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종교적 미신으로 가득한 혼란스럽고 무지한 사람들의 공허한 꿈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시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은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충만하고, 기쁨에 찬 기대로 우리 혼은 가득한데, 이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바라기 때문이다.

### 앞으로 올 선한 것들

셋째로, 우리는 3 절에서 앞으로 올 선한 일들에 대한 기대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갖는다. —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 달콤하고도, 달콤한 약속이다! 하늘은 예비된 백성을 위하여 예

비된 처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처소이다. 그는 그분의 순종의 공로와 그분의 피의 공로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그 처소를 예비하셨다. 아무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곳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머리와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앞서 가심으로, 또 우리의 선주자로, 머리로, 대표자로, 그분의 비밀한 몸인 교회의 모든 지체의 선주자로서 처소에 대한 소유권을 취하심으로 예비하셨다. 우리의 선주자로서, 그는 사로 잡힌 자를 사로 잡아 인도하시며 행진하셨고, 영광의 땅에 그의 깃발을 꽂으셨다. 그는 지성소 안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과 함께 한 우리 이름을 가지고 가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심으로 그 처소를 예비하셨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알려지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께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우리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우리 하늘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요셉이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처럼, 주 예수도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함께 불러 우리를 하늘에 있는 우리 영원한 거주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재림은 잊혀지면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지속적인 기대를 갖고 믿음과 기대로 간신히 서 있는 것처럼 서서 늘 하듯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죄 속량의 대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려 죽으신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를 되돌아보는 축복

은 크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들을 따라오고, 따라 오게 될 영광을 결코 잊지 말자 (고린도전서 15:51-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데살로니가전서 1:7-10).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3).

## 96 장. 일곱 가지 약속들—요한복음 14:1-3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4:1-31)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다. 그들은 모두 “예와 아멘”이다. 여기 요한복음 14 에서 우리는 갈보리에서 우리 죄 속량의 대속자로서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입술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위대한 예와 아멘이 되는 일곱 가지 약속들을 본다. 그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언약의 보증으로 우뚝 섰을 때 그분의 입술에 은혜가 부여졌다 (시편 45:2).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직면하게 될 고난들에 대해 그분이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은혜가 쏟아졌다.

이 축복의 장 안의 모든 것이 비탄스러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혼을 강하게 하며, 우리 영을 안정케 하기 위하여 우리 귀한 구원자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1. 우리 축복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1-3 절).

우리 구속자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가 떠나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난 후,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약속이 “내가 다시 오리라!”였다는 것

이 기쁜 것임을 발견한다. 그는 우리 대신 죽으려,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려,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려,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중재를 하기 위하여 떠나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선택 받고 피로 산 백성을 그의 은혜의 권능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떠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구속자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가 떠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난 후, 약속하셨던 가장 첫 번째 것이 “내가 다시 오리라!” 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3 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하늘의 집에 우리를 데려가시려,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 오실 것이다. 요셉이 야곱을 만나러 왔듯이, 주 예수께서도 그의 백성을 함께 불러 우리 영원한 하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 오실 것이다. 아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자명한 기대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 “복된 소망”의 성취,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예감하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고린도전서 15:51-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데살로니가후서 1:7-10).

2.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늘에 이르는 길,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4-11 절).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 있으며, 그리고 그 길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구원이다 (4-11 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가 길이다. 그가 없이는 갈 곳이 없다. 그가 그 길이지, 어떤 길이 아니며, 구원의 길이다. 구원은 그분의 순종 만으로 있다. 구원은 그분의 죽으심 만으로 있다. 구원은 그분의 은혜만으로 있다. —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가 없이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만이 길이며, 모든 진리의 바로 그 형상이다. 그만이 진리를 계시한다. 그만이 하나님을 사람에게 알게 한다. 그리고 그만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스도는 생명, 천연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의 창시자이고 증여자이다. 그가 생명의 유일한 길, “살아 있는 길”이다. 그는 이전에도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 될 것이다. 그 길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진리를 알고, 생명을 가진다. 아무도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 진리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생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종교적 의무나 의식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다.

3.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이 결코 위협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보장된다 (12-14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신에게 복을 주되 우리 마음에 더 주시고 그의 모든 마음과 혼이 우리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킨 것처럼(예레미야 32:41), 우리 주 예수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우리 마음의 갈망과 기도를 하늘에 계신 그에게 보낼 것을 촉구하시고, 그로써 그가 그와 우리 아버지께 그것을 드리게 될 것이다(히브리서 4:16).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우리 대신 그것을 하실 것이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다. — 이 어떤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함으로 사로잡힌 자는 이 확신 속에서 성공적이고 효험 있는 기도에 대하여 그 앞에 경이로운 약속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구해온 자와 함께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기도는 언제나 효험 있는 기도다.

4.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5-17 절).

5. 이 눈물의 현세를 통한 우리가 머무르는 날들 내내,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그의 모든 충만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18-24 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약속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니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구원의 은혜의 권능 안에서 그의 택정한 자 각자에게 오시고, 믿는 죄인 각자에게, 그의 은혜로 그가 타락

할 때 회복하게 하는 공황 가운데, 그 혼이 쇠약해 질 때 살리는 은혜 가운데,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 각각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가 우리 안에 창조하신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본다. 그리고 그 때 우리 귀한 구원자께서 선포하신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 아 복되고, 경이롭고, 형언할 수 없는 연합이여!

6. 우리 구원자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5-26 절).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적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복음 안에 있는 은혜에 속한 달콤한 계시를 우리 기억 속에 가져와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사야 40:1-2).

7.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7-28 절).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우리 보증과 구원자로, 하나님-사람 중보자로,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으로 아버지께 가셨을 것이며, 모든 그의 언약의 약정을 성취하시므로, 그분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얻기 위하여 가셨을 것이다! — 계속 읽어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28-31 절).

주 예수, 전능하신 전도자를 찬양하니, 우리에게 당신의 발 아래 앉게 하시고 당신의 달콤하고 전능한 음성을 이 위대한 말씀 안에서 이 큰 약속들 각각 가운데 믿음으로 듣는 은혜를 주심이라. 그것들이 우리 마음 깊이 가라 앉도록 은혜롭게 하심이라. 당신은 실로 길이요, 진리요, 길이니 이다. 당신 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외에 아무도 소유하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당신 말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나이다. 우리가 당신 말고 아무에게도 탄원하지 않나이다.

당신의 영, 우리 보혜사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축복의 구원자 당신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우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이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를 그분께 지속적으로 돌이키심으로 인하여, 오 성령이여, 당신께 감사 드립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으로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 긍휼의 아버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아들을 주시고 당신의 성령의 모든 은혜를 주신 그 대가 없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 97 장. 경이로운 비밀—요한복음 14:1-20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3).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4-1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12-14)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5-17)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18-20)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밀인 복음 안에 계시된 두 가지 것들, 단 두 가지를 말씀한다. 복음 안에는 계시된 많은 비밀이 있다. 그러나 오직 두 가지가 “큰” 비밀들로써 하나님의 영에 의해 특별한 강조로 두 가지로만 단순화 되었다. 그 첫 번째가 성육신의 비

밀이다.

(디모데전서 3: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 가운데 기뻐한다. 우리는 그것에 우리 혼을 건다.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나 아무도 완전히 깨달을 수 없으니, 거룩의 큰 비밀을 스스로 설명하게 하라.

에베소서 5 장은 우리 앞에 복음의 두 번째 큰 비밀을 제시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25-32).

이것은 실로 큰 비밀이다. 성육신의 비밀처럼, 그것은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한다. 우리는 그것에 우리 혼을 건다. — “우리는 그 몸과, 그 육체와, 그 뼈의 지체들임이니,” 영적으로 그분의 뼈 중의 뼈이고 그분의 살 중의 살이다! 그러나 아무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연합의 큰 비밀을 스스로 설명하게 하라.

이 주제의 깊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영적인 생각도 이 큰 대양의 밑바닥을 결코 볼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이끄사 우리가 이 달콤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물을 지나가도록 인도하시기를. 바울은 골로새서 1:27 에서 이것이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비밀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이 견줄 데 없는 비밀 가운데 영광스럽게 부요한 세상이 있다!

### 세 가지 위대한 연합

우리 앞의 단락에서 (요한복음 14:1-20) 우리 주 예수는 이 큰 비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위로와 확신을 주심으로 계시하신 것임을 선포한다. 특별히 20 절을 보라. — “그 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진 그 날에, 당신 안에 그분이 믿음을 창조하신 그 날에, 생명의 영으로서 당신 속으로 그분이 오신 때에, 당신 속에 영원히 거하고 당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 “그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 가지 것들을 “너희가 알리라.”

1. “내가 아버지 안에.” — 성령 하나님께 배운 모든 자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우리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연합이 있음과 우리 구원자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인자가 한 분이라는 연합이 있다는 신성한 계시로 깨닫는다. 우리 혼에게 있는 것이 달콤한 위로이다! 그것은 우리 혼에 모든 위로의 기초이다.
2. “너희가 내 안에.” —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모든 죄인,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대변자이고 대속자임을 깨닫게 된다. 신성한 계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이 영원 전부터 우리 혼의 공개적인 사람과 대변자와 보증과 대속자가 되게 하셨음을 알고 기뻐한다 (잠언 8 장).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우리 자리에 대신하여서 계셨다는 것이다. 그가 영원 전부터 우리 자리에 서 계셨다.
3.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 구원자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로 그 날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영원한 연합

청교도 인인, Thomas Goodwin 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의 연합이 복음의 크고 현저한 비밀이며, 영광의 가장 큰 소망임”을 썼다. —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므로, 하나님으로 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것이 내가 이 공과에서 당신에게 교통하고 싶은 한 가지이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면, 당신과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그것을 상상해보라. — 당신과 그리스도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연합되었으니  
그분의 아들에 영원하게,  
나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으니  
내 언약의 보증으로부터라.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 영원 전부터니,  
그의 귀한 아들과 내가 하나 되었노라.  
복된 연합, 강하고 변함 없으니,  
내가 나의 구원자와 하나이라!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러므로 그의 약속이 영원히 서네.  
생명과 사망과 지옥이 함께  
나를 그분의 손에서 떼어 놓을 수 없네!  
종종 내가 타락하나, 변함 없는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게 계시네.  
그가 죄 지음으로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니  
아들이 대신하여 살육된 자들을.

예수와 하나, 예수와 하나,  
영원한 연합으로 하나!  
예수와 하나, 예수와 하나,  
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행해졌는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하나!  
나무 위에서 그분과 하나!  
높이 승천하심에 그분과 하나!  
영원히 그분과 하나!

신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의 본성이 도처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것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지 않고선 결코 놓칠 수 없다.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와 그의 연합과 그와 우리의 연합에 연결되어 있는 진리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제시되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할례 받았다 (골로새서 2:11).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20). 그가 죽었나?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다 (로마서 6:8). 그가 무덤에 장사되었나?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로마서 6:4). 사망에서 그가 사셨나? 우리는 그와 함께 모두 살아났다 (골로새서 2:12). 그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시고 영광 가운데 앉으셨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늘 처소에 함께 앉도록 하셨다 (에베소서 2:6). 그가 살아 계신가? 그는 내 안에 살아계시다 (갈라디아서 2:20).

하나님의 책 안에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의 이 연합은 우리 주께서 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순종의 모든 행위 가운데, 땅 위에 그의 일시적 거주 동안 그가 고난 받았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보증과 대속자로서 아버지께 그가 순종하심으로 그의 영광 가운데 받으셨던 모든 것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빛나는 빛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하

는 백성 사이의 영원한 연합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와 선택 받은 족속  
주권적 은혜의 매임이 내재하니,  
그 지옥, 그 지옥 같은 열차로,  
결코 해결되지도 헛되이 부서지지 않으리니

이 거룩한 매임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니,  
땅의 중심이 흔들릴지라도;  
안심하라, 의심 많은 성도여, 이를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맹세하셨음이라.

[그가 오직 그 일을 이루기로 맹세하셨으니;  
위대한 삼이일께서 진정시켰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기로 지명되었으니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사랑했던 모든 자라.]

만세! 거룩한 연합, 확고하고 강하네,  
얼마나 위대한 은혜이고, 얼마나 달콤한 노래인가,  
땅의 벌레들은 결코 이루지 못하니  
성육신의 신격과 하나됨이라!

무덤 속에서 하나, 그가 사실 때 하나,  
그의 대적들에 승리하셨을 때 하나,  
하늘에서 그의 보좌를 취하셨을 때 하나,  
천사들이 모든 지옥의 패배를 찬양하는구나.

이 신성한 매임이 그들의 두려움을 금하니,  
그의 모든 존재와 소유가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의 머리인 그와 함께 그들이 서거나 넘어지니,  
그들의 생명, 보증,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임이라.

죄인의 평강, 중재자인 그가,  
그의 피로 그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여야 하니;  
그들 위에 그의 애정 어린 애착이 흘렀으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지혜와 은혜를 찬양하라,  
영원한 사랑과 신실함이니,  
그것은 복음 가운데 계시된 체계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것이라.”

— John Kent

우리와 우리 구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다. 이것은 순수하고, 대가 없는 은혜의 연합이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세워졌으며, 주 예수께서 은혜에 속한 언약 가운데 우리 보증으로서 서 계시고 열납 되었을 때 세워졌다 (에베소서 1:3-6).

### 생명에 관한 연합

옛 저자들은 이 연합을 “생명에 관한 연합”으로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모두 생명에 관한 연합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것이며,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더이상 포도나무로부터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1-6). 하지만, 이 연합은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 또한 생명에 관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묘사한다 (에베소서 1:22-23). 하나님의 그 주목할만한 선포에서 시작하여, John Calvin 은 이렇게 썼다...

“이것은 교회의 최고의 명예이며, 그가 우리와 연합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어떤 정도의 불완전함 가운데 있다고 여겼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때가 되기 전에, 그가 그의 모든 부분을 소유하였거나, 완전한 것으로 여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한 것이 어떤 위로인가!”

John Trapp 은 동일한 것을 본질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될 것에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하였던 분은 그 지체들이 없이 자신이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명예를 가졌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 그분의 충만이다. 삼일 하나님은 그가 없이는 완전할 수 없었고, 그는 그의 백성이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

## 생명의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 혼의 이 연합은 생명, 그리스도 안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생명,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의 비밀하고 경이로운 이끌어냄에 의한 생명의 연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창세기 2:18-24).

아담이 그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는지 아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배우자의 근원을 완전히 잘 알고 있다. 그는 그의 교회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옆구리와 그의 손바닥과 발에 있는 상처에 대한 기억

을 갖고 있다. 어디로부터 이 새 하와, 모든 산 자의 이 새 어미가 왔는가? 둘째 아담의 이 배우자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녀는 둘째 아담께로 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바로 그의 마음에서 취해졌다!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는 말씀을 읽지 않았는가? 주 예수께서 절대 죽지 않으셨다면, 그는 영원히 혼자, 그를 돕는 배필이 없이, 그의 사랑을 부어줄 배우자가 없이 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 그는 많은 열매를 가져왔으며, 그의 옆구리에서 취해진 그의 교회가 그로부터,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생명을 받는다. 교회는 실로 그의 뼈 중의 뼈이고, 살 중의 살이다! 아브라함의 국부로부터 레위가 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그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

그의 뼈 중의 뼈이고 살 중의 살이기에, 우리는 우리 남편의 소유이고, 그의 필요 산 것이며, 그의 사랑의 재산이고, 그의 가혹한 헌신과 보살핌의 대상이다. 경이로운 생각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그의 고유의 소유이다! — 그의 마음의 재산이다! 나는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다. 그가 나를 그의 피로 샀다. 나는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이다!

“다 이루었다, 위대한 거래가 다 끝났다:  
 내가 나의 주의 것이고 그가 나의 것이다.  
 그가 나를 이끌었고, 또 나는 따랐다,  
 그 거룩한 음성에 매혹되어 고백한다.  
 높은 하늘, 확고한 맹세가 들리는 곳,

그 맹세가 매일 새롭게 들리니,  
내가 엎드릴 생의 마지막 때까지,  
사망 가운데 축복이 그 귀한 매임이라.”

## 명백한 연합

이 생명에 속한 연합이 영원한 생명의 연합이며, 생명이신 그로부터 나온 생명이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 받은 자에게 주어지고, 그의 전능한 은혜의 구원하는 운행 가운데 죄인을 구속될 때까지는 비밀한 연합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생명의 연합은 새로 남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연합이다. 아이의 출생은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나타남이다. 마찬가지로, 거듭남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에베소서 4:24) 새 사람의 출생은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으로 빛으로 옮겨진 생명과 불멸이다 (디모데후서 1:9-1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 절). Chris Cunningham 목사가 한번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본성에 대하여 그들이 소유하게 될 때까지 논쟁을 할 것이며, 그 때가 되면 그들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께 다만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요한복음 14:20 에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 죄인이 새 본성을 가질 때, 바로 그날 그는 하나님께로 나며, 그것을 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새 삶의 시작부터 그것이 새 생명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 속에 오셨음을 알았다.

## 전쟁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나눔, 곧 우리 안에서의 새 창조이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얼마나 잔인한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전의 John Newton 처럼 얼마나 자주 한숨을 쉬게 되는지...

“만일 내가 사랑한다면, 왜 내가 그런지?

왜 이 우둔하고 생명 없는 뼈인가?

그보다 더 나쁠 수 없음을 확신하기 어려우니,

그의 이름을 결코 듣지 못한 자라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구원의 관심과 관련하여 체험하는 많은 의혹과 두려움은 모든 하늘로 난 혼이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본성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일어난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본성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언급된다 (에베소서 4:22-24). “육체”와 “영” (갈라디아서 5:16-17)이다. 이 두 본성들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며,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슬리고 영은 육체를 대항하여 전쟁을 한다.

### 재형성이 아닌 거듭남

새로 태어남 안에서 사람 (본성, 육적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옛 사람이 정화되고, 한 때 죄를 사랑했던 자가 거룩을 사랑하게 된 것, 마음의 대적이 살육되고, 옛 사람이 은혜로 새롭게 되어 영광에 무르익고 주께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시기 까지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게 성장한다.

그 공상에 잠긴 꿈이 거듭난 후에 많은 사람이 갑자기 옛 정욕들이 여전히 거기 있음을 발견할 때까지 그들을 현혹한다. 그 발견은 때로는 충격적인데, 단지 그들이 더이상 그곳에 있지 않을 것임을 배웠기 때문이다. 결코 감히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본성에 내주하는 악을 알므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속적인 동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새로 태어남은 재형성이 아니라 거듭남이다. 새로 태어남은 타락한 사람의 옛 본성을 재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 안에 생명의 재창조이다. 새로 태어남은 죄로 충만한 것을 의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의로운 본성을 주는 것이다. 새로 태어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다 (골로새서 1:27; 고린도후서 5:17).

## 두 가지 본성들

믿는 자 각자에게는 두 가지 본성들 (죄와 의), 두 사람 (옛 사람 아담과 새 사람 그리스도), 두 가지 원칙들 (죄와 거룩)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서로에게 반대가 된다. 이 사실이 성경 안에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다 (로마서 7:14-24; 갈라디아서 5:16-22; 골로새서 3:9-10; 에베소서 4:22-24). 옛 사람 아담은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의와 참 거룩 안에서 피조된 새 사람은, “너희 안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요한일서 3:9).

아담은 출생으로 우리 안에 산다. 자연적인 출산으로 우리는 아담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새로 태어남으로 우리 안

에 산다. 거듭남으로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자들”이 되었다 (베드로후서 1:4).

## 창조와 새 창조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 안에서 그분 자신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창세기 1:26-2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위한 몸을 만드셨을 때, 그분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창세기 2:7). 창세기 5:1-2 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아담의 창조 안에서 한 번에 창조되었음을 말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모든 산 혼은 아담으로부터 천연적인 출생으로 그 본성에 참여하므로 유전된다. 모든 그의 아들딸은 그 조상의 형상 가운데 세대에 세대를 이어서 태어난다 (창세기 5:3; 시편 51:5; 58:3; 로마서 5:12).

모든 산 혼은 “첫 사람 아담” 안에서 그와 동시에 피조 되었다. 아담으로 났으므로, 우리는 그의 본성에 모두 참여하는 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인 “아담”이라 불린다 (창세기 5:1-2). 그것이 최초의 창조 가운데 있었으므로, 새 창조 안에도 있다.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역주: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45). 모든 산 영은 “마지막 아담”—그리스도 속에서 동시에 함께 피조 되었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 중보자이고 언약의 보증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그분께 난 모든 자는 “하나님께 난” 자는 그의 본성에 참여자들이며, 성령이 선포하신 바와 같다 (베드로후서 1:4). “첫 사람 아담”의 자녀들은 육체에 속하여 났으며 그들의 모든 감정과

애착 속에서 세속적이다. “마지막 아담”의 자녀들은 그 영에 따라 났으며 그들의 감정과 애착 가운데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다. 첫 아담의 자녀들은 세상을 위하여 났다. 마지막 아담의 자녀들은 하늘을 위하여 났다. 첫 사람에게 속한 자들은 썩어질 씨로 난 자들이다. 마지막 사람에게 속한 자들은 썩지 않을 씨로 난 자들이다.

최초의 창조 가운데 우리는 아담의 본성, 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은혜의 새 창조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아담의 본성,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속에 있는 전쟁의 원인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에게 반대가 된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이름을 입었다. 그가 대가 없는 칭의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본성을 가졌다. 그가 우리에게 대가 없는 성화와 거듭남 가운데 주신다. 그리스도는 칭의 안에서 주 우리의 이며 (예레미야 23:6; 33:16), 성화 안에서 주 우리 거룩이다 (히브리서 12:14).

### **꼭 필요한**

히브리서 12:14 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한다. 에베소서 4:24 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로 태어난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로 들어 갈 수 없는 거룩함은 거듭남 가운데 하늘로 난 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이고, 은혜로 참여자가 된 신성한 본성이다 (베드로후서 1:4). 이것이 새로 태어남의 체험이다. 그리고 칭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만큼이나 우리 혼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다.

물을 필요 없이, 새로 태어남은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 구원자의 성취에 따른 분명한 결과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살아 있는 연합이 없다면, 갈보리에서 그분의 중보자적 성취는 오게 될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효험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바란다. — 의로운 기록 (칭의 가운데 주어진 의)이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상으로, 의로운 본성 (성화 가운데 주어진 의)이 없이 하늘에 갈 수 없다. 나는 흑자가,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미치광이다.”고 말한 것을 안다. 만일 그렇다면, 나를, 사도 바울을 (에베소서 4:24; 히브리서 12:14), 사도 베드로를 (베드로후서 1:4), 사도 요한을 (요한일서 3:9; 계시록 21:27),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복음 14:20) 미치광이들이라고 불러라!

## 그 영으로 남

그리스도의 사망으로에의 순종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고 모든 선택 받은 자손을 위한 거룩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였지만, 그 순종이 구속 받은 자에게 하늘의 누림을 위한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야만 한다. —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5-6).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구별된 요소로부터, 필연적으로 두 가지 구별된 존재를 산출하는 두 가지 구별된 출생을 제시 받는다. 육체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를 산출한다. 육체는 영적인 것에 들어 갈 수도, 깨달을 수도, 누릴 수도 없으며, 하늘에 속한 것과 구별된다. 한 옛 저자가 그것을 쓴 것처럼, “만약 거듭나

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는 하늘에서 기쁨 수 없을 것이므로 하나님께 피난처로 지옥으로 내려 보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영적인 것에 들어가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존재, 그 영으로 난 모든 자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골로새서 1:12) 하는 존재를 산출한다. 새로 태어남으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그리스도와 공개적이고 명백한 연합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의 그 체험은 이 연합의 시작이 아니다.

믿는 자의 그리스도 증보자와 생명에 관한 연합은 은혜에 속한 영원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우리 혼 사이의 이 연합은, Spurgeon 이 말한 것처럼, “상상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하고, 가장 귀하며, 가장 가깝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지속되는 관계이다.”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이다.

## 비밀스런 연합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이 연합은 하나님의 책 안에서 계시된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이다. —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역주: 우리는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들이다-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그것은 은혜에 속한 비밀스런 연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그의 비밀스러운 몸을 이룬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관계이며, 아주 가까운 연합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가 없이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없이 불완전 할 것이다 (에베소서 1:23; 골로새서 2:9-10). 우리는 그분으로 구별되며, 그는 우리로 구분된다.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몸의 머리이다.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그것이 참된 생명의 관계의 연합이다. —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 니라.”

### 그리스도의 참여자들

하와가 그녀의 생명을 아담에게서 받았듯이 (창세기 2:18-25),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 하와가 아담의 본성에 참여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와의 생명이 오직 아담의 생명의 확장이었던 것처럼, 우리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확장이다. 그는 영생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을 받았다. 그 영생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골로새서 1:27). 우리는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지된다. 그것이 우리 현재 영적 생명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구원자의 역사의 한 관점을 다른 것을 더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려 절대 손상하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것이 중대하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역사가 없이 구원 받을 수 없다. 모두 중대하다.

## 놀랍지만 사실임

이 그리스도와 우리 혼의 연합은 실재이다. 그것은 비밀스럽고 영적인 연합이고, 우리의 우둔한 두뇌의 영역을 넘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연합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재 연합이다. 성경 안에 계시된 세 가지 큰 비밀스런 연합이 있다.

1. 하나님과 하나인, 신격의 세 위격들의 연합은 삼위일체의 교리이다 (요한일서 5:7).
2. 성경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계시한다. —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요한복음 1:14).
3. 그리고 하나님의 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이 생명의 연합을 계시한다. 어떤 것도 더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보다 더 실재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과 당신의 구원자와의 이 연합의 실재를 붙잡도록 노력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당신은 “침례 안에서 그분과 사망에 장사되었고,” 거기서 또 그와 함께 살아났다. 당신은 그와 함께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못 박혔다. 당신은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올리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처소에 함께 앉히셨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경탄하라, 아 나의 혼이여! 그분과 하나되므로, 주 예수 그분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시킨다. 그가 나를 동일한 정도로, 동일한 사랑으로, 그리고 나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사랑한다. 그는 나와 그의 아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7:23).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우리를 그 자신에게 점 없고, 주름 없고, 흠 없이 드릴 것이다. 우리는 그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다. 따라서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 믿음의 연합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달콤한 체험 가운데, 우리 소유인 연합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택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15-

20).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요한일서 3:23 에서 찾아진다.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달콤한 확신 가운데 기뻐하라. —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소유이며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소유이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를 그분에게서 갈라놓지 못한다!”

“내가 살았으니,” 나의 구원자가 말씀하신다,  
“너희도 또한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그의 말씀이 이 복된 기초를 주네—  
변치 않고, 영원한 확신을!

여기, 아 나의 혼아, 흔들림 없이 거하네,  
죄로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굳건하니—  
땅과 지옥의 어떤 세력들일지라도  
나를 구원자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라!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의 소유이고 그는 나의 소유라네!  
죄도, 지옥도, 내 모든 적들도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을 거절하게 할 수 없네!

아 당신을 결코 의심치 않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게 할 것이니—  
변치 않고, 영원한 말씀이네!  
땅과 하늘 모두에서 세워진 말씀이네!

내가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그의 피로 나를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라,  
또 다시 사신 어린 양과 함께 다시 살았으니,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분과 함께 숨었노라!

## 98 장. 경고인가 약속인가—요한복음 15:1-27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5:1-27)

그 엄숙한 밤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기 전에, 그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주심은 그들 앞에 있었던 고난을 예견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마지막 담론과 그분의 마지막 행위들이 요한복음 13-18 장에 신성한 감화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분 안의 우리 믿음을 격려하고, 그분 안에서 자신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들로 가득하다. 이 장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그의 땅에서의 사역 전체 기간 동안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대속자로 죄 속량의 죽으심 전날의 엄숙한 밤이었다. 시편 23 편처럼, 이 장은 대 환란의 시간 동안 우리 혼에 사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 엄숙한 밤에, 그가 알았던 그 믿음이 곧 크게 시험 받아야 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13:18; 15:16, 19)). 우리 아픈 마음을 위한 얼마나 달콤한 베개인가!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데려가게 될 한 배반자임

을 그들에게 말씀 하였다. 그는 그렇게 했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13:18). 그는 다시 그들에게 그의 곧 닥칠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가 그의 죽음 가운데 성취하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과 그가 아버지께 의해 영광을 받을 것임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셨다 (13:31-33). 그리고, 그들에게 사탄이 그들을 소유하기를 갈망하였으며, 그가 그들을 낚알처럼 체질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시키셨다 (누가복음 22:31-32).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돌이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밤이 끝나기 전에 그가 그분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 단언에 곧 이어 그의 믿음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끔찍한 타락에서 회복 (회심)가게 될 것과 그분을 여전히 믿도록 격려 받을 것임이라는 말씀이 이어졌다. —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자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3:38-14:1).

그 밤을 통하여, 그분은 이 제자들에게, 그들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며, 그들의 큰 타락을 예견하셨으므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고 하셨다. 그분은 내 안으로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나의 교리를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나를 믿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 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려 가실 것임과 그들의 어떠할지 와 행할 것과 다음 몇 시간 동안 경험하게 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그들을 데려갈 것임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14:1-3).

유다의 죄, 그를 죽게 한 죄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 의해 범해졌던 죄 (물론 당신과 나의 죄) 사이의 차이는 그들의 행위도 아니고, 그들의 유죄의 크기도 아니고, 그들의 범죄를 악화시키는 환경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이 더 큰 빛에 대하여 혹은 다른 것보다 더 지속적으로 짓는 죄도 아니다. — 유다의 타락과 베드로의 타락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주를 포기한 이 제자들과 주를 배신한 유다 사이의 차이는 이것이었다: — 주 예수께서는 베드로,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시들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셨지만,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

비록 우리가 우리 충만한 죄를 자각하도록 해야 했지만, 우리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답하실 것과 우리 마음의 갈망을 채워주실 것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14:13-14). 그 사랑스런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후에 보이게 될 연약함과 실패와 죄의 모든 것을 예견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보이게 될 모든 연약함과 실패와 죄들을 예견하셨기에, 주 예수는 그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과 우리에게 오실 것과 그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셨고 우리에게도 확신시키신다 (14:16-20). 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타락할 때 조차도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확신하도록 그분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의도가 있다고? 실로, 그분은 그렇다 (요한일서 2:1-2).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에게 그분의 내주하는 사랑을 확신시키고 우리에게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신다 (14:21). 반복해서,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그분의

축복의 성령을 주실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실 것을 확신시키며 약속하셨다. 다시 그분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믿도록,”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공훈과 은혜에 대한 너희 자신감과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신다.

### 포도나무와 가지들

그리고, 15 장에서, 주 예수는 그와 우리의 영원한 연합에 대한 놀라운 묘사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6 절).

이 단락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와 그 백성 사이에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축복된 연합이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

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영원한 연합의 예시로 충만하다. 이 그리스도와 그 택정한 자의 연합은 영원하고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없이는 그분이 온전하여 질 수 없으므로 우리 중보자이신 그분께 중대하다 (에베소서 1:23).

아가서에서, 신부가 혼인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그녀는 포도나무로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가리킨다. —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니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가 1:14). 우리 축복된 구원자는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송이이다 (에베소서 1:3-6; 고린도전서 1:30-31). 여기에 번역된 “송이”라는 말의 의미는 “만유인 사람,” 혹은 “속량하고 축복의 만유인 사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다. —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3:22-23).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그의 신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혼인 사랑의 노래를 부르셨을 때, 아주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신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책 안에서 포도나무로 언급된 우리 혼과 우리 구원자와의 이 연합은 매우 실재적이고 절대적이다 (시편 80:8-19; 아가 7:11-12; 8:11-13).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이므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은 하나이다.

그리스도와 믿는 자 사이의 연합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들의 연합처럼 가깝고 매우 실재적이다. 우리 자신 안에는 생명도, 힘도, 영적 능력도 없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부터 존재하고 왔다. 우리의 우리 됨과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과 우리가 행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도움의 지속적 공급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 안으로 접목되었고, 그분께 믿음으로 연결되었고, 그 영으로 그분과 비밀스런 연합 안으로 연합되었으므로, 우리는 살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고, 그분께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 은혜는 스스로 역할하는 법칙이 없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운행이다 (호세아 14:8). 그리스도의 충만에 관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은혜를 위하여 은혜를 받는다. 그분은 선포한다. —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호세아 14:8).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은 기쁘고 위로가 된다. 믿는 죄인들은 결코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의심할 이유가 없다. 우리 구원자께서 결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힘에, 우리 자신의 능력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의 선하신 기쁨을 위하여 뜻을 세우시고 행하신다. 우리 뿌리는 그리스도이며, 그 뿌리에 있는 모든 것은 가지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가 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살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약하므로, 우리 뿌리는 하늘에 있으며,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약할 그 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곧 강함이니라.”고 했다 (고린도후서 12:10). 그리고 그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것이 나타난다.

두 번째 절에서 우리는 유다 같이 단지 고백만으로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포도나무

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열매가 없는 가지들이다. 그들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는다. 그들은 포도나무에 접목되지 않았고, 단지 외형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열매를 맺지 않고 쓸모 없다. 마치 포도원에서 발견되는 쓸모 없는 쓰레기처럼 던져져서 태워질 것이다. 당신은 그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포도나무 속에 붙어 있지 않고, 의례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거둬남으로 포도나무 속에 붙어 있지 않으며, 당신의 머리 속에 있는 신조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마음의 할례로 포도나무 속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각자가 스스로에게 답하라. — 내가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믿는 자들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가지들이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만약 그를 신뢰한다면, 당신은 그분 안에 있다.

## 확신

성경의 이 엄청난게 교훈적인 단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확신들을 보라. —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3 절).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 절). —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11 절). —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 절). —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5 절).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

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6 절). —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27 절).

### 경고인가 약속인가

그 달콤한 확신들은 이 장에 있는 몇 가지들이 일반적으로 엄청난가게 두려운 경고들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과된다. —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매제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2 절).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 절).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5 절). —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 절).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 절). —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8 절). —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 절). —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 절).

우리가 맞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우리 구원자께서 하신 이 선언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이 조건을 못 맞춘다면 우리가 결국 멸망할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Rupert Rivenbark 목사는 그 단락에 대하여 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소견을 냈다. 그는, “만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만약’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믿는 자들은 그것들이 모두 약속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말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우리 구원자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다른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가 맞추어야 할 조건들로 해석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조건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축복의 약속들을 주시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우리 보혜사이신 그분의 축복의 영의 인치심으로 그분 안에 거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한복음 20:22)고 하실 때, 그분은 순종의 계명이 아니라, 은혜의 교통하심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계속하여 믿는 혼에게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일들을 증거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속하여 확증하실 그분의 영, 우리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교통하실 것임을 말씀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실 때,

주 예수는 그분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어떻게 다른 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소망을 할 수 있게 하겠는가? 만약 그분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보증이신 은혜의 영원한 언약에 완전히 일치한다 (예레미야 32:38-41). 이것은 복되고, 절대적이며, 불변의 보증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내가 앓을 것이면 그들도 하지 앓을 것이다.”고 하신다.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하지만 확신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지 않은가?” 반드시 응답을 받도록 하라. —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 혼의 닦은 모두 우리 자신의 외부에 있다 (히브리서 6:16-20; 11:1). 우리 소망은 포도나무 안에 있다! 오직 포도나무 안에 있다. 반드시 포도나무에 연합되도록 하라.

## 99 장. 죽임 당한 자부심—요한복음 15:1-8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1-8)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가?” — 그것은 모든 교리, 모든 전도, 모든 가르침이 받아야 하는 리트머스 시험이다. 교회사 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결정적인 경향을 가져왔다. 그들의 목표는 언제나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며, 사람의 상상 속의 “자유 의지”

를 칭송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부인하며,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기인한 영광의 하나님을 강탈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반역적이고 부패한 피조물의 머리 위에 가짜 광채를 얹으려 한다.

인간 종교는 사람을 확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피조물을 매우 낮게 가라앉히며 주 하나님, 삼일 여호와를 우리 앞에 보좌 위에 앉으신 한 분을 높이 올려 제시한다. 그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여 가장 교육받지 않은 믿는 자라 할 지라도, 그가 도처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이단을 반박할 수 없을지라도, 쉽게 마귀의 거짓을 지적할 수 있다. — 만약 그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시험으로 당신은 판단할 수 있고, 진리를 오류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법칙으로 당신은 어떤 교리가 진리인지 아니며 거짓인지, 정통인지 아니면 이단적인지를 결정지을 수 있다. —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참이다. “그것이 사람을 높이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모든 복음 교리는 사람을 티끌로 낮추고 사람을 죄로 충만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기력하며, 소망 없고, 미완성이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반역자로 강등된 느낌을 갖도록 의도된 표현으로 언급한다. 모든 복음 교리는 하나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지만, 사람의 자유 의지나 자유 대리 혹은 선행의 머리 위가 아니다. 내가 전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했던 모든 것이나 기록들을) 이 법칙에 따라 시험하라. —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가?”

요한복음 15:1-8 은 자부심의 모든 생각을 철저히 파괴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모든 생명과 은혜와 강함이 있는 참 포도나무이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속의 가지들일 뿐이며, 그분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후서 3:5).

## 참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요.” (1 절). — 주 예수는 자신을 많은 것들에 비유하는데, 그것으로 그는 자신을 낮춰서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하고 있는지, 그의 선택한 자를 위하여 이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려 하였다. 이런 비유들을 사용하므로 아주 친근하고 단순하게 구원자께서 은혜롭게 일반적이고 매일의 것들로 자신에 대하여 꾸준하게 우리에게 일깨우려 사용하신다. 그분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9:10). 다른 문은 없다. 그분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 떡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6:41). 그분만이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며, 우리 혼이 그것으로 산다. 우리 구원자는, “나는 생명의 물이니.”라고 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갖고 계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영적이고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한다 (요한복음 3:35; 골로새서 2:9; 고린도전서 1:30).

열납과 용서와 구원과 그리고 영생, 구속과 칭의와 그리고 성화, 속죄와 관용과 그리고 평강, 이 곳에서의 거룩과 이후에의 하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산 연합으로 우리 소유이다. 그는 참 포도나무이다. 모든 생명 포도나무 안에 있고 포도나무로부터 온다.

이 비유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의 겸손을 상상해보라.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포도나무에 자신을 비유한다. 이사야는 그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로서”(53:2) 그를 묘사하였다. 들판의 어떤 것도 겨울에 마른 포도나무보다 덜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없다. 진실로, 포도나무에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53:2). 하지만,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부른다. 그는 더 볼품없는 비유를 택할 수 없었다.

스가라는 구원자께서 구원과 함께 오실 때, 그가 온유하고 겸허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것도 땅을 따라 그 가지들을 뺏어가는 포도나무보다 더 초라한 것은 없다. 어떤 것도 포도나무보다 더 연약하고 더 가냘픈 것은 없다. 가지를 받칠 어떤 것이 있어야 하고, 그 가지를 떠받쳐야 할 막대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비유로 우리 구원자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라고 하실 때, 그는 또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무한 열매에 대하여 확신시키시며, 그분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신시키신다. 포도나무에서 자라나는 가지에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보다 더 쓸모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위대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22).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소생케 하고, 기운 나게 하며, 부요한 레바논의 포도주 같다 (호세아 14:7).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그 선

지자 에스겔에 의해 약속된 명성의 하나님의 그 나무이다 (에스겔 34:29).

## 농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달콤한 확신의 다른 말, 곧 그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남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말씀을 주신다 (11 절).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다. 우리는 가지들이다. 포도원은 주의 소유이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 속하였고 끊임없이 보살핌을 받는다. 그분은 농부, 포도나무 재배자이다. 포도나무를 계획하신 분께서 그분의 뜻의 계획과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심었고 키우셨다.

그분은 성육신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히브리서 10:5; 갈라디아서 4:4-5). 그분은 그분의 영광 함께 포도나무를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포도나무를 받치셨고 키우셨으며, 그분 자신을 위하여 포도나무를 튼튼하게 하셨다 (시편 80:15, 17).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포도나무로 만드셨으며,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 안에 두시므로,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로 만드셨다 (에베소서 1:11-12). 그분은 포도나무, 이 명성의 식물, “그분의 기뻐하시는 나무”에서 무한한 기쁨을 취하신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2 절). — 이것이 농부이신 아버지의 일이다. Robert Hawker 는 이 절의 시작하는 말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라고 번역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물을 필요 없이, 그것은 우리 주께서 뜻하시는 것이다. 누구도 그분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라디아서 5:22-23).

그러나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유다, 마술사 시몬, 데마, 디오드레베 등)이 있다. 그들은 단체와 외적 고백과 종교적 의무의 실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적 열매를 맺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5:22-23). 종교적 의무와 사람들이 선행이라 부르는 것 (종교적 금욕 행위)은 그리스도와의 그 어떤 참된 영적 연합이 없이 산출될 수 있다 (누가복음 16:15). — 단지 세속적 신앙 고백자들은 타락한 종교주의 자들이며, 그런 까닭에, 궁극적으로 드러나 버려지게 될 죽은 가지들이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단지 외적이고 형식적인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다. 각 지역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와 교회 회원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 가고 규칙적으로 출석한다. 많은 사람이 종교와 교리에 대하여 큰소리 친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부족하다. 그들 마음 속에 은혜가 없으며, 그리스도 안의 믿음도 없고, 성령의 내적 역사도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지 않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오직 외형적일 뿐이다. 그것은 실재가 아니다. 그들은 “살기 위한 이름”이 있지만, 그들은 죽어 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참 믿는 자들의 무리와 나뉠 것이며, 말라 버리고, 쓸모 없는 가지들로서 영원

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이 세상에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든지 간에, 결코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참 가지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뿌리를 두고, 연합되어 있고, 그와 하나인 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영의 권능과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 그 영의 열매는 혼 안에 있는 은혜이다 (갈라디아서 5:22-23). 그것은 사람이 산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 영의 열매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영의 열매는 사람이 분별할 역량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 당신과 나는 어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며 어떤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지 매달려 있는지 구별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만이 가짜와 진짜를 아시고 구별하실 수 있다.

단순한 고백으로 포도나무에 매달린 죽고, 시들어버리고, 열매가 없는 가지들은 포도나무 관리자가 가져다가 태운다. 포도나무에 구원되어 살아 있는 가지들은 그가 계속하여 가지 치기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시험과 고통과 교훈으로 정화하여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서 1:2-4; 베드로전서 1:7; 시편 119:71).

주 하나님은,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호세아 14:8)고 선포하신다. 그것을 결코 잃지 말자.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다. 생명과 충만한 열매의 모든 분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은혜는 이기적인 행위 원칙이 아니다. 은혜는 혁명적인 과정이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모든 우리 근원은 그분 안에 있다. — 그분의 충만에 속한 은혜를 위한 은혜를 우리는 받는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 매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시편 87:7).

### 말씀으로 정결케 함

“너희는 내가 일러준 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3 절). — 주 예수는 요한복음 13:10 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그 때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가 포도나무에서 이제 제거되었으므로, 구원자는 열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니라.”고 하신다. 그들은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으로서가 아니고, 침례로서가 아니고, 의식으로서가 아니고, 은혜로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여 믿은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고, 거듭났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다 (스가랴 13:1; 고린도전서 6:9-11; 디도서 3:4-7).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5:9).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피로 샀으며 피로 씻은바 된 자이다 (스가랴 13:1; 고린도전서 6:9-11; 디도서 3:4-7).

이 사람들은 모두 참 포도나무,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가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분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모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27-30; 전도서 3:14; 베드로전서 1:3-5).

### 그리스도 안에 거하므로

4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당신에게 일깨우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약속이지, 율법의 교훈이 아니다. 어떻게 그분 자신의 역사가 아니고서 당신이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더이상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열매 맺기를 그치고, 시들고,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태워질 것임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의 오해가 어떻게 그분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남게 하거나, 어떤 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른다 (11 절). 이 구절은 은혜의 약속으로서 그 천명된 의도의 빛 가운데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 주의 의도는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남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됨이다. 그렇게 될 때, 여기 우리 주의 말씀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것이 정확히 그가 그분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이다 (예레미야 32:38-41).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뤄야 할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사의 결과이다. —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10; 고린도후서 5:17).

### 죽임 당한 자부심

기억하라, 우리는 우화, 포도나무와 가지의 우화를 보고 있다. 그리고 우화는 영적 공과의 세상적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화는 많은 생각들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단 한 가

지를 보여주도록 의도되었다. 5 절을 읽어보면, 이 우화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의 의도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우화는 자부심의 모든 생각을 죽이기 위하여 의도 되었다. 주 예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것을 더 빨리 알면 알수록, 더 낫다. 더 충분히 그것을 깨달을수록, 더 낫다. 더 폭넓게 그것을 적용할수록, 더 낫다. —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나는 영원 이 지식 가운데 실패하고 있다. 나를 가르치소서, 아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소서. —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심판도 그분의 공훈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의 마음에 거의 효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부인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Robert Hawker 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축복의 완전한 강 안에서 씻고 있고, 건강한 자신, 번창하는 그의 상황, 그의 식탁에 모인 올리브 가지 같은 그의 자녀들, 모든 곳으로부터 그에게 부어지는 부 등, 운이 좋은 죄인을 보라. 그런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없이 산다. 또 사는 것처럼, 그의 생각의 공허함 가운데 그가 죽는다. 구별된 보존의 한 가운데에

서 그를 보라, 바닷가나 육지에서의 전투 가운데, 여전히 보존되며, 한편으로 떠다니는 시체들, 혹은 열린 무덤들이 그의 모든 주변에 있다.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가? 전혀 아니다. 그의 성격의 총 합계는 아마도 몇 마디로 구성될 수 있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시편 10:4).

그 표현의 반대편에서 그를 보라. 그런 자가 징벌을 받도록 하라, 그 자신의 개인적 질병 가운데, 그의 가족의 슬픔 가운데, 그의 물질적인 원함 가운데, 줄여서 말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 가운데, 비통과 염려와 근심과 실망과 파멸의 삶 가운데에서. 아마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육체는 지긋지긋한 질병의 오랜 거처이고, 그 아래서 신음하고, 마침내 사망하며, 그가 살아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깨어나지 않은 죄인으로 죽는다. 그리고, 이 누적된 악이 또한 좀더 특정한 병으로, 바다에서의 위험 가운데, 전쟁의 위험 가운데, 사람들 사이의 위험 가운데 처해진다고 가정해 보라. 아니, 파도가 연이어 닥쳐오는 것처럼, 그의 수족이 불구가 되게 하고, 감옥에서 썩어져 가게 하며, 악에 악을 더하여 비탄 속에 못쓰게 되게 한다. 하지만 아직 그는 모든 것 아래 모질어지고, 여전히 버티는 죄인으로 계속 있으며, 앞서 설명된 번창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축복에 속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나의 혼아, 너는 그것들을 보았는가? 그렇다, 수도 없는 경우 그렇다. 아 그러면, 예수가 없

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외적 환경들은, 내적 은혜와 함께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단지 그것들이 보이는 곳에 버려둔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은혜만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예수여, 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진리가 매일 매일 나의 혼을 당신께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만유 안에 만유,’ 나의 소망, 나의 길잡이, 나의 힘, 나의 분깃이 되소서. ‘당신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내적 은혜가 따르지 않은 외적 환경들은 사람을 단지 그것들이 보이는 곳에 버려둔다. 오직 그리스도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죄인을 회개하게 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우리 구원자의 이 말씀을 모든 영적인 것들에 가능한 폭넓게 적용할 것을 말한다. —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믿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기도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가 볼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떤 영적인 것도 배우거나, 알거나, 깨달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내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전도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예배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복음으로 하는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보존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마귀에 맞설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유혹을 거절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죄를 거절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서 있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타락했을 때 회복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

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16).

이 말씀이 모든 사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므로, 그 말씀은 특히 전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각각의 복음 전도자는 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실 때 깨닫도록 하자.

Henry Mahan 목사는 이렇게 썼다…

“믿는 자는 누구든 배워야 하는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추정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조이지 우리 체험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참 영광이 우리 체험이 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효험 있게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필요하다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만큼 자신에 차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자랑하기 시작하는 그릇을 던져버리신다. 육체 가운데 우리 강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될 것이 분명하다. — 그것이 우리 지적 능력, 우리 도덕성, 우리 섬김의 길이, 우리 교리, 우리 용기 등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 없다. 기드온은 자신의 군대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미디안 족을 두려워 했으나, 주님은, ‘너의 군대가 아직도 내게는 많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사용하실 만큼 충분히 약하고, 충분히 비어 있고, 충분히 모르게 될

것인지 나는 의심스럽다! 하나님의 논리는 천연적인 사고에는 생소하다.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10).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9). 주는 바닷가로 돌아가셔서 어부들 몇 명을 일으키려 가셔야 했다. — 우리는 모두 주인이 되었고 의사가 되었으며, 신학에 대해서 지혜자가 되었고 위대한 조언자들이 되었다. 내가 자격이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나 스스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격을 박탈하겠다. 나의 좋은 재능과 우뚝 선 자격들은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내가 큰 일을 위해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탁월한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광야의 큰 목소리였음을 알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계획하셨던 것은 재치의 갑옷과 사실과 교리와 학식의 보고를 가진 강력한 투사가 아니라 돌팔매를 맨 약하고 충동적인 목자였다. 너무 늦거나 너무 교만해서 어떤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소모품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 자신 위에 치욕을 쏟아 붓지 않는다면 —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 열매 없는 신앙 고백자들

6 절에서 우리 주는 우리에게 다시 종교에 속한 모든 열매 없는 신앙 고백자들이 지옥에서 멸망할 것임을 말한다. —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곧, 당신의 거짓말의 피난처는 쓸려 버릴 것이며 당신은 소망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28:14-20).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도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이사야 28:14-20)

## 효험 있는 기도

그리고, 7 절에서 우리 주는 우리가 그와 하나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며, 그로부터 떨어질 수 없으므로, 우리 기도가 하

나님 앞에 열납 되고 하나님께 효험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거나 사는 것이 여기에서 간단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부른다 (빌립보서 2:16; 히브리서 4:12; 요한복음 6:63). 그것은 생명의 씨이다 (베드로전서 1:23-25; 누가복음 8:11-15). 당신은 육신이 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분리할 수 없다. 그분의 말씀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다. 이것이 부와 명예와 물질적인 부와 세상의 호사 같은 일시적인 것들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보기 좋은 말로 탐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분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구하는 자는 그에 따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6:9-13; 7:7-11; 로마서 8:26; 빌립보서 4:19; 고린도전서 3:21-23).

###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심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 다른 것보다 무엇을 더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사탄에게 완전히 속지 않는 한,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것을 했던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만큼 그런 기

뽕의 충만을 내게 줄 수 없다. 아 경이로운 것들 중 경이로운 것이다! 아 비할데 없고, 경이롭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죄인이 확신하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영화롭게 되셨고 되실 포도나무 안의 모든 가지들에게 확신을 준다!

그분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열매가 남아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16 절).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첫 열매들이 되도록 우리를 구속하셨고, 거듭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셨다 (로마서 8:23; 야고보서 1:18; 계시록 14:4). 그분은 그분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5:22-23). 주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농부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보살피신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전도서 9:7-10).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모르는 경우를 위하여, 당신에게 말해주겠다. 그것은 “은혜이다!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전능하고, 효험 있고, 구원하는 은혜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가 당신 것이 되기를!

## 100 장.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요한복음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9)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심지어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고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예견하는 것이 내 혼의 기쁨이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라. —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2:20) 실로…

“그 임재 안에서 놀라 서 있으니  
나사렛 예수라,  
또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놀라워라,  
죄인이고, 저주 받았으며, 불결한 자를!”

---

“아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여,  
아 그 충만하고 대가 없는 은혜여!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아니  
그것이 내게 족하도다!

아 경이로운 구원이여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네  
달코한 확신을 내가 느끼니  
그것이 내게 족하도다!

아 너무도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갈보리에서 부어지네  
그 씻음의 능력을 느끼니  
그것이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9 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혼을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잠시 동안 묵상하라.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짙은 녹색의 초장이 있으며, 그 안에 위대한 목자가 그의 양 떼를 눕게하고, 그 안에서 우리 혼이 쉴 곳을 찾는다. 이곳에 잔잔한 물이 있어 그가 은혜롭게 우리 혼을 새롭게 하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여기 의의 통로가 있어, 그 가운데 우리 주께서 은혜롭게 우리가 걷게 하신다. 여기 우리 대적의 존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식탁이 있다.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의 이 축복된 확신 가운데 내가 찾은 안식이 얼마나 달콤한지.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가련한 죄인에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구속과 구원의 큰 이유이다. C.H. Spurgeon 이 말한 것처럼, “은혜의 하늘 한 복판에 해가 있듯이”

그것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깊은 물 속으로 빠지게 하심으로, 우리 혼이 실컷 먹고 넘쳐날 때까지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라.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하며, 또 당신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14-19).

간단히 이해될 수 없고, 훨씬 덜 설명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런 깊이와 비밀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을 맛 보고, 체험하고,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 아, 우리가 그것을 더 완전하게 체험하기를! 축복의 구원자여, 우리에게 당신의 연회장에 우리를 데려 가소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의 깃발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의 샘에서 마시게 하므로 기뻐하게 하소서. —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 1:2). 오소서, 아 성령이여, 오소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취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제 우리에게 보이소서, 우리 구원자의 사랑을!

나는 당신이 이 한 가지를 보고 그것에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 —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죄인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사랑을 받는다!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그것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당신에게 내가 말하려 하는 첫 번째 것은 이것이다: — “그것을 믿으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기 위한 은혜와 믿음을 주소서. 만약 우리가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것을 믿기 위한 모든 근거를 갖는다.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가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심의 일반적이고 의미없는 사랑으로 말하기 좋아한다.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분 자신의 택정한 자에 대한 그분의 기이하고, 확실하며, 구별된 사랑에 대하여 그분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16 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자의 기이한 사랑의 대상들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교회로, 그의 택한 신부로 말씀하며,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신다.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는가?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가? 그분이 우리 소망, 우리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분 자신의 입으로 여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가져가시고 우리 귀에 속삭이심은, 마치 남자가 몹시 좋아

하는 아내에게 하듯,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믿을 수 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보기 시작할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올바로 내릴 지라도, 우리 구원자는 그 문제를 결론짓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결코 아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그분의 말씀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은 그분의 고통의 엄숙한 밤에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책 안에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 대응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우리 마음에 그것으로 인치시기 위하듯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증하고 그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함에 대해 무언가 알게 되는 것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사랑에 상응하는 것을 이끌어 내신다. 그분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하신다.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감히 의심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임을 안다. 그분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의문을 결코 꿈꿀 수 없는 그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중 하나이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우리를 그분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 안에 두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다른 사람처럼 한 분에 대해서 단지 자신을 갖도록 하셨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분 자신처럼 사랑하신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 영원하고, 필연적이고, 파괴될 수 없는 연합 안에서 하나이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신다. 주 예수는 우리를 바로 그렇게, 그분 자신과 하나인 것처럼, 뼈 중의 뼈이고 살 중의 살처럼, 한 없고 측량할 수 없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에베소서 5:23-32에서 묘사하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당신의 구원자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라! — 당신을 사랑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자신의 몸을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그분의 종으로 택하셨다. —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 42:1). 그래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존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는 우리를 그분 자신의 소유가 되게 택하셨다. 신명기 칠 장에서 그가 그것을 어떻게 두셨는지 기억하는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명기 7:6-8)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당신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택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샘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미리 예정하셨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은 사랑 안에서 였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3-6).

아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라. —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에 당신을 사랑하셨음 은, 다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분의 사랑을 당신에게 나타내 보이시려 당신을 사랑하셨다. 그는 당신이 그분의 형상을 닮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셨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가 처음 난자가 되려고 사랑하셨으며, 당신이 그분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그분과 하나되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분 자신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려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는 그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3:1). 죽음에 이르는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가 가져온 의와 그가 이룬 만족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0:16-18; 빌립보서 2:5-11).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모든 것의 의로로운 상속자로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35). 그러므로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로마서 8:17-18).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요한복음 5:20). 그러므로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5:15).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므로 아들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7:4-5).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에베소서 2:7).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 그의 혼이 기뻐하는 자이므로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는 그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백성으로, 그의 사랑으로 가치가 있게 되는 백성으로, 그 안에서 그의 혼이 기뻐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랑한다 (골로새서 1:12; 로마서 8:29-30; 고린도전서 6:11).

###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우리 주의 사랑이 너무도 컸으므로 그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으며, 그로써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속한 그의 영원한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다. 기

록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마태복음 19:5; 에베소서 5:31)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서 그의 선택한 신부와 한 몸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우리의 본성을 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수 있으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지 않았으면 이루실 수 없었고 고난 받을 수 없었던 고난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우리 본성을 자신에게 입으심으로, 영광의 주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 있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와 더 가깝고 더 달콤한 연합을 이루셨다. 만약 그가 베들레헴의 아기와 나사렛의 사람이 결코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모든 점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처럼 될 수 있었을까? 지극히 높은 하늘로부터 영광의 주를 데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비통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 그 어떤 사랑인지!

우리를 위하여 인자가 되심으로, 주 예수는 우리 자리에 우리 대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무한한 공의의 격노하심 아래 우리 대속자로서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 —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그의 생명을 버림은 그의 사랑의 증거이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모든 고통과 치욕과 죄의 불명예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버림 받았고, 저주 받으셨던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 구원자를 찬양하니, 나에 대한 당신의 큰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분이 죽으심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베드로전서

3:18).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의 은혜로운 권능으로 생명을 주셨던 것은 그가 우리를 크게 사랑하심 때문이었다. 에스겔 16 장을 다시 읽어 보라. 거기서 당신은 그가 우리에게 “사랑의 때”에 오셨을 때 처해 있었던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버림 받았고, 버려졌으며, 불결했고, 죽었으며, 우리에게 동정하는 자 한 사람 없었다. 그 때 우리는 길을 잃었고, 무기력 했으며, 파멸되었고, 죽었으며,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다. — 아, 그러나 그가 관심하였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께 이끄셨다 (예레미야 31:3; 에스겔 16:1-14).

우리를 향한 그의 큰 사랑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스런 아들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행위를 가리셨다. 그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지키셨고 또 지키신다.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찬양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기도로 가득하다. 분명히, 선하심과 긍휼이 내 삶의 모든 날에 나를 따라왔다!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연속된 시간 동안 위협 받을 때, 그 어떤 긍휼의 팔찌를 만드는지! 내 사랑의 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그것을 산의 높이에 비유한다면, 알프스 산 위에 알프스를 얹어 놓은 것을 보게 된다. —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만약 내가 그것을 깊은 바다에 비교한다면, 나는 또다시 경이로움에 정신을 잃을 것이다. 나는 오직 외칠 뿐이다. — “아 그 깊음이여!” 그의 큰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그는 그것을 충분할 만큼 증명하셨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그분의 사랑

으로 황홀하게 되자!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구원자는 우리를 그분과 하나되게 하셨다. 누가 이 사랑과 은혜의 연합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과 혼인하였고, 그분께 연합되었으며, 그분께 접촉되었으며, 그분께 접촉되었고, 그분 위에 지어지고, 그분의 지체들이 되고, 살아있고, 사랑스럽고, 지속하는 연합 가운데 그분과 하나이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과 똑같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 “그가 우리를 자신과 똑같이 되게 만드셨다!” 라는 것을 볼 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멀리 가져갈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야 했다. 그것을 알맞게 했어야 했다.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멀리 가져갈 것이다!” — 나는 대답한다. 가서 해 봐라. 그것을 아주 멀리 가져가 봐라! — 그분이 우리가 그분 자신과 똑같이 되게 하셨다!

“예수와 택한 족속 사이에  
주권적인 은혜의 매임이 존재하네,  
그 지옥은, 그 지옥의 열차로,  
결코 소멸되지도 헛되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

만세! 거룩한 연합, 확고하고 강하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달콤한 노래인지,  
땅의 벌레들이 영원히  
성육신의 신성과 하나되리라!

무덤 속에 있던 한 분, 그가 사실 때 한 분,  
그의 대적에 승리하실 때 한 분,  
하늘에서 그이 보좌에 앉으실 때 한 분,  
천사가 모든 지옥의 패배를 노래하는 동안.

이 신성한 매임이 그들의 두려움을 금하니,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과 소유가 그들의 것임이라;  
그들의 머리이신 그분과 함께 그들은 세우든지 넘어지든지,  
그들의 생명, 그들의 확신, 또 그들의 모든 것이라.”

우리 보증인의 의는 우리의 의이다!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다!  
그의 사망이 우리의 사망이다!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이다! 그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정말로! 우리 구원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 “누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롬  
8:39). 이 영원한 하나됨은 우리 혼에 대한 은혜와 영광 모두의 보  
증이다. 보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충만이  
사랑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구원자의 사랑에 대하여 확  
신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강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는가? 그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는가?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  
니!” 친히! 대가 없이! 영원히! 친밀하게! 변치 않고!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변함 없이! 완전하게! 완전한 만족감과 만족과 기쁨으  
로! 신실하게! 측량할 수 없이! 놀랍게도!

## 안에 거하라

우리 구원자께서 당신과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그것이 이런 의미로 받는다. “내 사랑을 자신 있게 아는 가운데 언제나 거하고, 결코 그것을 의심하지 말며, 결코 그것에 질문하지 말아라.” 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아는데, 그분이 10-16 절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이다.

구원자의 사랑 안에서 계속 있어라,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모든 고뇌를 위한 향유가 되며, 당신의 모든 슬픔 가운데 위로가 되며, 당신의 여정을 위한 힘이 되고, 당신을 녹일 불이 되며, 당신을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을 감화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즐거움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완전한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구원자의 완전한 사랑의 확신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 버린다 (요한일서 4:15-19). 따라서, 우리 구원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에 대한 자신감 있는 확신 안에 거하고, 그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결코 그것에 의문을 품지 말라고 하신다. —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 (유다서 21). 하나님의 자녀, 구원자의 피로 씻음 받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은 당신의 삶의 모든 날이 빛 가운데 행한다.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101 장.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이 장에서 우리 구원자의 전체 계획은 믿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큰 사랑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매 단어마다, 매 단락마다, 매 예시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신시키려 의도되었으며, 그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자신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살도록 한다. 그분과 우리의 연합에 대하여 확신시키면서, 그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 장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포도밭을 보살피는 그 한 분이 하나님, 그의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9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이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의 다음 말씀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언제나 나를 신뢰하므로, 나의 사랑에 대한 자신 있는 확신 안에서 계속 살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귀한 구원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 절)라고 하신다.

진실로 우리를 향한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의 강

요 외에 어떤 강요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대가 없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 놓으셨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 오셨으며, 그의 영광과 왕권을 내려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사람에게 어떤 것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생명이 그의 모든 것이다. 생명을 준 것은 모든 것을 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의 생명은 보통 사람의 보통 생명이 아니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신 사람의 생명이었다. 저주의 나무 위에 우리 대신 못 박히고 죽임 당한 분은 영광의 주, 생명의 왕이셨다.

### 자발적 희생

그의 생명이 그에게서 취해졌다. 그는 그의 생명을 내려 놓았으며, 우리를 위하여 대가 없이 그의 생명을, 우리 자리에 대신하여, 우리를 위한 속량으로 주었던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영광의 주께서 그의 대적들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던 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의 친구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의 친구로 만들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생명을 내려 놓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죽기에 마땅한 사람, 그를 증오하였고 그가 죽기를 바랐던 사람, 그가 사랑을 창조한 것을 제외하고 그가 아무런 사랑을 되돌려 받지 않을 그 사람, 우리를 위한 그의 큰 사랑 때문이다.

우리 보증인이고 대속자이며, 우리 대신 서서, 그는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었다.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 지들을 품고, 우리 주 예수는 율법의 저주를 짊어졌고, 그의 아버지의 진노를 견뎠으며, 우리 죄로 인한

모든 심판을 짊어졌다. 그는 십자가에서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우며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고통 받으셨고, 불의한 자를 위한 의로운 자로 고통을 받으셨으며, 그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실 수 있었다.

우리가 죄인이고, 힘도 없고, 그의 무자비한 대적들이고, 그분께 대적 그 자체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하셨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그분께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가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우리 위에 그의 심장을 고정하셨고 우리를 그의 친구들로 만들려 결심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의 영의 거듭남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그가 우리를 영원히 그의 친구로 만드셨다.

## 더 큰 사랑

여기, 우리 축복의 구원자가 그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게 하였던 그의 사랑이 사람에게 알려진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든 영광과 영원한 은혜의 그리스도는 그의 대적들을 위하여, 어떤 이기적 동기가 없이, 대가 없이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았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오직 불가피한 경우나, 자신이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자신의 희생이 가치가 있을 때문이고, 위대하고 자기 희생의 영웅으로 다른 사람의 칭송과 칭찬을 바라기 때문이기 조차 하다. 그러나 우리 주의 죽음에 이르는 희생적 순종,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순종은 우리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보증인과 대속자의 대가 없고 자원한 희생이다 (로마서 5:6-8).

## 자원한 노예

출애굽기 21:1-6 에 우리 대속자로서 죽음에 이르는 우리 주의 순종에 대한 분명하고 교훈적인 그림이 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다.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것이 정확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자발적 종이 되었으며 그로써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나님께 대가 없이 순종함으로 그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스스로를 이사야 50:5-7 에서 묘사하신 것과 같고, 요한복음 10:16-18 에서 자신의 일을 설명하신 것이다.

(이사야 50:6-7)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증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뺨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10:16-18)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경이롭고, 놀랍게 하는 것이며, 숭고한 사건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그것에 견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진노에 고통 받고 있었고, 그 백성의 죄들을 져 으며, 우리 같은 죄 있고, 지옥이 마땅하고, 저돌적 죄인들을 대신 하여 자원한 대속자로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경이롭고 설명할 수 없는 애통의 생각을 표현하신 것을 듣는다 (예레미야애가 1:12-14).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같은 근심이 있는가, 불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

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멩에를 그 손으로 묶고 엮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였음이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그가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피 흘리는 어린 양이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에게 의미 없고 사소한가?

모든 우주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죽음보다 더 놀랍고 숭고한 것은 없다. 구원자께서 스스로 선포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 (요한복음 10:17). 하늘의 천사들은 놀라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의 비밀과 경이를 언제나 바라본다.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은 구속의 경이와 구속자의 영광으로 압도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구하고, 영광을 돌리고 전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는다 (이사야 6:1-7; 갈라디아서 6:14; 고린도전서 2:2). 세상에 있는 구속 받은 죄인들은 우리를 대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품지 말고, 아무 것에도 기뻐하지 않으며,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2:20; 요한일서 3:16; 4:10). 영광 가운데 속량 받은 자는 보좌의 한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죽음에 이르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계시록 5:9-12). 지옥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이롭고, 형

언할 수 없고, 신비한 것으로 바라본다. 나는 이것이 사탄 자신이 깨닫지 못한 한 가지라고 확신한다. —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실 것과 십자가 위에서 그의 죽음으로 그의 머리를 으깨버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결코 주를 배신한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경이로움과 함께 있었으므로, 우리 귀한 구원자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죽음이 의미 없고, 사소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있다. —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찌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애가 1:12).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죽음을 생각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주께서 여기서 자신을 지나치고, 자신의 희생을 지나치며,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그의 죽음을 지나치는 모든 자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

아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혼이여, 그대 당신이다! 아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심한 전도자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나치며 당신의 입술에 의미 없고, 사소한 것으로 취하는 자여, 그것이 당신이다! 모든 설교가, 마치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자가 영원한 낭떠러지에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처럼 준비되고 전해져야 한다. 그 시작과 그 중간과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설교도 그 관념에서 잘 못된 것이며 그 실행에서 범죄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오직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혼들에게만 별볼일 없고, 의미 없고, 사소할 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의 기도이다. 나는 당신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소모됨으로써, 우리 마음, 우리 삶, 우리 혼의 모든 곁이 우리의 죄 속량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지속적으로 장악되기를 기도한다.

갈보리에서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그분 자신이 순종하신 대가 없고, 자원한 행위였으며, 그로써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을 인자로서, 우리 중보자이고 보증인으로서 얻으셨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요한복음 10:17-18). 분명히, 그와 같은 사랑의 희생은 그분께 대한 우리 사랑을 받으셔야 한다!

## 아버지의 명령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 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의 선한 목자, 중보자, 보증인으로 말씀하신다. 그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하신다. 그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음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안배되었음을 선포하신다 (시편 40:7; 히브리서 10:7-10).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의 안배나, 지옥의 안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안배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2:23; 베드로전서 1:18-20).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언약의 안배, 주권적인 섭리의 안배,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안배로 성취되었다 (요한복음 3:16; 로마서 5:6-8; 요한일서 4:9-10).

## 그리스도의 순종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께 대가 없는 순종의 행위로서, 자원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 놓았다. 아무도 그를 죽게 강요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죽게 하거나,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아, 아니다! 우리 구원자는 자원하여, 자기 자신의 뜻으로 죽었다. 그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17-18).

우리 구속자의 죽음은 그분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사야 53:12). 진실로 “아버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사야 53:10). 아버지께서 외치셨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스가랴 13:7).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손에 진노의 잔을 쥐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공의의 칼 위에 기꺼이 스러졌다. 우리 구원자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죽었다! 우리 축복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의 만족을 위하여 선택 받은 죄인들을 대신한 대속자로서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았던 것은, 우리를 위한 그의 큰 사랑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음으로 그의 택정한 자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요한복음 17:1-2; 로마서 14:9; 빌립보서 2:5-11).

## 그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요한복음 10 장을 다시 돌아보라. 우리 구원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 (17 절). 자신의 귀한 죽어가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도 달

콧하며 형언할 수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안다.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라.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 아버지는 그분의 신격의 사랑스러움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셨다. 아버지는 그의 거룩한 인성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셨다. 아버지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음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셨다. 아버지는 그 백성의 영광스럽고, 효험 있고, 구원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그분 자신은 결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의 백성을 위하여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귀한 아들의 죽음만큼, 매우 사랑스럽고, 그의 사랑과 찬양과 존귀의 무한한 가치로 바라보지 않으신다. —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10).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거의 깨닫지 못하네!  
그의 고통에 대한 것을, 너무도 강렬한,  
천사들도 완전히 느끼지 않네!

누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것의 시작이나, 혹은 그 끝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만 있으니,  
그 무게를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라.

고난 당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라  
거치른 숨, 신음, 젖은 피! —

거룩한 사랑의 무한한 깊이네!  
예수여,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지요!

비록 당신이 이루신 그 경이로움이  
여전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기 우리가 확정하고, 위로를 취하니: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이라!”

—Joseph Hart

이 사랑의 위대한 행위로 인하여, 우리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대가 없는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이 큰 행위로 인하여,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사야 53:4-12; 요한복음 3:35; 17:2).

우리 주이고 구원자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크게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종종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리워진 아버지의 얼굴을 소유하면,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귀한 대상이 된다. — 아버지께서 그분의 진노의 격분을 그의 위에 쏟으셨을 때보다 더 그분의 아들을 충만하게 사랑하신 적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존귀히 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며, 아버지의 사랑과 열납을 받는 유일한 가치이다 (요한복음 17:22-26). 하지만, 하나님, 삼일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놓았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가 구속 받았음을 선포하신다 (고린도전서 6:19-20).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는지!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시편 116:1-19).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겠는가 (요한일서 3:16-17). —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 102 장. 택정하심의 사랑—요한복음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16)

성경이 “선택 받은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별하고 특징적인 집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이 선택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이며,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들은 선택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았다. 그들은 선택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고, 부름 받고, 구원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존하는 영광으로 보존될 것이다. 그들은 선택 받았기 때문에 멸망할 수 없다. 그들은 선택 받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 없다. 그들은 선택 받았기 때문에 정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선택 받았기 때문에 선택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독특하게 특별하다.

당신은 그 안에서 기뻐하는가? 당신은 택정함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가? 바울은 그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3-4). —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후서 2:13).

당신은 택정하심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가? 베드로가 그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 (베드로전서 2:9; 1:2).

당신은 택정함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가? 다윗이 그랬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하 23:5).

당신은 택정함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랬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즐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25-26). 그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정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가르치셨다. 그분은 그 가운데 기뻐하셨고 그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다.

그분의 십자가 형 전날 밤에, 그분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

고, 힘을 주기 위하여, 그분은 이런 말씀으로 경이로운 택정하심의 사랑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16).

당신은 택정하심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가? 분명히, 모든 참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사랑에 속한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실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므로, 택정하심의 사랑 가운데 기뻐한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의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택정.

택정은 은혜의 모든 축복의 원천이고 샘이다. 하나님의 공훈의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따라서,” 궁핍한 죄인들에게 흘러내린다.

당신은 택정하심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가? 나는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배웠기를 소망한다. 나는 당신의 마음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정에 대한 생각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한다. 그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택정하심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그는 찬양하였다. —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4).

내게 있어서, 나는 택정하심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가장 기쁘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인정한다.

내가 당신을 택하였던 것이 아니네,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  
이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거절했을 것이니,  
하지만 당신은 나를 택하셨네.  
당신께서, 나를 얼룩지게 했던 그 죄로부터,  
나를 씻기셨고 자유하게 하셨으며,  
또 이 종말에 나를 안수하셨으니,  
내가 당신께 살아야 함이라.

나를 부르셨던 것은 주권적 긍휼이었네,  
또 내 열린 마음을 가르치셨네;  
세상이 나를 다른 것으로 사로 잡았으니,  
하늘의 영광들에는 눈이 멀었네.  
내 마음은 당신 앞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으니,  
당신의 부요한 은혜로 내가 목말랐음이라,  
이렇게 아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  
당신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영원하며, 택정하심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 상황

요한복음 15:9 에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 대해 확신을 주신다. 그분은, “아버지께

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 나를 언제나 신뢰하면서 나의 사랑의 자신 있는 확신 가운데 살기를 계속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언제나 복된 구원자는 우리에게 11 절에서 우리에게 이 달콤한 은혜의 말씀을 하였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다. 그리고, 13-15 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하는, 분명히 충분하며, 어떤 것을 말씀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16 절에서, 우리 주 예수는 우리에게 그분의 놀랍고도 대가 없는 은혜의 이 모든 복된 일들의 원천이고 샘이며 원인임을 말씀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았다. 그는 우리를 그분의 친구들로 만드셨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하였고 우리 위에 모든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분의 대가 없고 택정하심의 사랑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본문과 성경 전체에서 당신이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 우리 구원자의 그분에 백서에 대한 선택과 택정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행했으며, 아니면 하려는 것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시고, 하셨으며, 앞으로 하실 모든 것의 원인이다.

### 시편 65:4

그것이 시편 65:4 에서 우리가 들은 바로 그것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서 택정이, 비록 그것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행해졌음에도, 이 은혜의 위대한 역사가 시간 가운데 알려지고 체험되기 때문에, 현재 시재로써 언급된다. 아무도 그의 택정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효험 있게 부름 받을 때까지 모른다.

성경의 이 구절을 통과하는 은혜의 진전을 주목하라. “주께서 택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 그것이 택정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구원하시려는 자들을 선택하셨으며, 영원 안에서 구원하시려 선택하셨던 자들을 그분은 시간 가운데, 열린 공간을 돌아다니는 많은 가축들로부터 그의 소 떼를 가려내는 목장주처럼 인류의 나머지로부터 은혜롭게 가려낸다. 그들은 전에는 그의 소 떼였다. 그가 단지 약속된 시간에 그들을 모은다.

“가까이 오게 하사.” —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을 가리킨다. 택정은 이 부르심에 앞서는 동시에 그 원천이고 이유이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 받은 죄인들은 거하게 되었으며,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배의 뜰에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에 선택받고 부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영광에 그 동일한 은혜로 지켜지고 보존된다. 우리는 그분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이 있다. 택정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고 이유이다. —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과 성전은 그리스도와 하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이고 표상이며, 우리가 그분께 영원한 가까움과 그분의 경배이다. 이것은 참된 축복이다. 이 축복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택정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택정에 의해 효험 있게 야기된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65:4). 하나님의 택정이 그의 마음에 너무도 많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뛰며 춤추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정에 대한 생각이었다 (사무엘하 6:21). 그리고 그가 죽음의 침상 위에 누웠을 때 그의 마음을 지탱하였고 그의 혼을 기쁘게 하였던 것은 그리스도 안의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에 의한 그의 태

정에 대한 사실이였다. 실로, 이것은 기쁨이 충만한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대한 위로이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정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르침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택정에 대하여 이 책에서 계시된 일곱 가지 사항을 보기 원한다.

### 영원한 택정

첫째,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의 구원과 영생으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당신에게, “성경은 택정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던가, 아니면 그들이 읽은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그들은 철저한 거짓말쟁이들이다. 택정은 하나님의 책 안의 도처에서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택한 천사들,” “택한 나라,” “택한 여인,” 그리고 “택한 교회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나님은 어떤 천사들을 선택하셨고, 다른 천사들은 지나치셨다. 세상에 태어난 처음 두 사람, 가인과 아벨 중에서 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은 지나치셨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셨고, 세상의 나머지는 멸망하게 버려두셨다. 그분은 아브람을 선택하셨으나,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다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분은 야곱을 선택하셨으나, 그의 형제,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분 자신을 계시할 나라가 되게 하셨다. 모든 다른 나라들은 완전한 흑암 속에 버려졌다. 그분은 요셉을 택하셨지만, 바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아무도,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택정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가르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 성경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는 택정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몇을 선택하셨지만, 아담의 모든 아들딸들이 그리스도 안의 은혜와 영광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가? 실로 그렇다 (마태복음 20:16; 22:14; 로마서 9:11-18; 11:5-7).

성경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택정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질문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다른 자들은 지나치셨다. 따라서, 실제로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 택정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따라서, 둘째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 하나님의 계획

둘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이다 (로마서 8:28-30).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주권적인 예정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인정한다. 택정 같이, 그것은 성경 안에서 매우 분명하게 계시된 진리이므로 정직한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부인할 수 없다. 그 문제에 있어서, 나는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기를 원하지 않을 이유를 상상할 수 없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시간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던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있었고,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이 영원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권적인 택정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그 이름이 쓰여진 많은 수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시간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아무도 사도 시대 이래로 Isaac Watts가 그의 찬송에서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그 교리를 선포한 자가 없다...

“모든 피조물들이 잠잠하라,  
그리고 너의 조물주의 꼬덕임을 기다려라;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내 혼이 떨어져 서 있네  
그녀의 하나님의 존귀를.

생명, 사망, 그리고 지옥, 그리고 세상은 모르니;  
그의 확고한 뜻에 매달려라;  
그는 불안한 보좌에 앉으신 것도 아니요,  
계실 허락을 청한 것도 아니라.

그의 보좌에 사슬로 묶인 덩어리가 놓이니  
사람들의 모든 운명들이 있네,  
모든 천사의 모습과 크기로  
영원한 빛으로 그려졌다네.

그의 섭리가 책을 펴니,  
그의 뜻이 빛나게 되네;  
여는 책장마다, 또 매 획마다  
빛나는 계획이 충만하다.

여기 그가 잊혀진 벌레들을 높이니  
왕위와 왕관을 씌우네;  
또 그가 다음 면을 펼치니,  
지배자를 짓밟네.

가브리엘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도 그 까닭을 주시지 않으며;  
감히 충실한 천사들도 들춰내지 않으니  
펼친 책장 사이를.

나의 하나님, 내가 보기를 갈망치 않을 것이니  
의심스런 눈으로 나의 운명을,  
나에 대한 어둡게 쓰여진 행들이나,  
일어날 밝은 장면들이나.

당신의 생명과 은혜의 공정한 책에서  
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니,  
그 어떤 낮은 곳에 기록되었으니  
나의 주 어린 양 아래로다!”

이것이 예정에 대한 성경의 교리이다. 나는 그것을 성경의 그 말씀으로 제시하겠다. —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느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4, 5, 6, 11, 12).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선택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모든 선택한 자들의 구원이다.

### 실행된 계획

셋째,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임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계획하거나, 그분이 계획하지 않은 것을 하시려 하거나, 그분이 결코 실제로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려는 것을 뜻하거나, 그분께 속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일어나는 어떤 것을 막으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도하지 않는다. 그분은 행하신다! 그분은 바라시지 않는다. 그분은 성취하신다! 그분은 하실 작정을 않으신다. 그분은 계획하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하는데, 사람들은 계획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은 어떤 상상적인 구원의 계획 훨씬 그 이상이다. 어떤 계획은 차단될 수 있고, 방해 받을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고, 혹은 완전히 거절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에 이

르도록 선택하신 자, 그분의 사랑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마음의 영원한 결정, 그분의 존재에 속한 거룩하고 영원한 결정이다.

그 계획은 좌절되거나, 변경되거나, 심지어 어떤 정도이든 방해 받을 수 없다. 루시퍼의 반역이나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방해하지 못했다. 아, 아니다! 그 사건들은 택정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주권적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필요했고 필요한 것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사야 14:24, 26-27; 46:9-11, 13; 로마서 9:11).

## 그리스도 안에

다섯째, 택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에베소서 1:1-14).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시고, 죄인들에게 주시고, 죄인들로부터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며,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며,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택정에 관련한 성경의 이 단락에서 세 가지 것을 보기 원한다.

첫째, 택정은 영원 가운데,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에 있다.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는 우리 이름을 세상의 기초로부터 생명책에 써 놓으셨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택정은 은혜에 속한 모든 다

른 유익과 축복의 원천이고 이유이다. 택정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은혜의 축복도 앞으로의 영광도 없지만, 택정한 자에게 있어서, 은혜와 영광에 속한 모든 축복하심과 축복받음은 확실하다. 3 절과 4 절을 다시 읽어보라.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4) 죄인들에게 흘러간다. 은혜의 택정에 따라, 양자, 하나님께 열납, 구속, 용서, 거듭남, 보존, 부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기업의 하늘 영광, 모두 우리 것이며, 모든 택정하신 자에게 확실하다! 모든 선택 받은 자는 택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보는가? 도처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가 누구이며 왜 오셨는지 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 실로 극소수만이 죄인들을 위하여 살고 죽기 위하여 그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택정의 사랑과 은혜에 속한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백성(영원한 공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선택받고 그에게 주어진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마태복음 1:21)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은 여호와와의 사랑을  
죄인에게 향하여 불꽃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네,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위에 있는 보좌로부터,  
고난 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가 견디셨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고,

그가 받은 모든 비통도 아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얻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랑이셨음 이라.

그가 그의 택정한 자의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생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라;  
그의 긍휼은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도 귀하게 산 혼들이라!”

John Kent

셋째 택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기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 선택하셨는지, 왜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분의 뛰어난 주권과 영광스러운 은혜 모두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세 번 선포한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7).

- 하나님은 몇몇을 구원하시려 선택하셨다.
- 모든 것 가운데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택정한 신 자의 구원이다.
- 택정에 따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세워질 것이다.
- 택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역사이고

유익이다.

## 구원에 이르는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택정은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친다 (데살로니가후서 2:13-14; 베드로전서 1:2). 물을 필요 없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영원한 구원을 가르친다. 시간 가운데 구원 받은 모든 자는 영원 전부터 구원 받았다는 관념이 있다. 로마서 8:28-30, 에베소서 1:4-6, 그리고 디모데후서 1:9-11 은 분명하고 강조하여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영원 전부터 구속 받았고, 열납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영화롭게 되었음을 선포한다. 택정은 그 자체로 구원이 아니다. 택정은 그 자체로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 택정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도록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13-14 를 베드로전서 1:2 와 함께 볼 때, 하나님의 택정에 대한 이 일곱 가지 사항을 보게 될 것이다.

첫째 택정은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근거이다.

둘째 택정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주권적인 미리 알리신 바에 따라 있다. — 베드로전서 1:2 에 있는 미리 아심 이라는 말은 20 절에서 미리 알리신 으로 번역된 말과 동일한 말이다.

셋째 택정은 은혜에 속한 개인적이고 구별된 역사이다. —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데살로니가후서 2:13).

넷째 택정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 어떤 사람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왕국 안의 특정한 섬김으로 택정 받았다는 관점이 있다. 모두가 다 선지자, 사도, 전도자, 목자, 교사, 그리고 집사가 아니다. 그런 자들은, 만약 그들이 신실함 가운데 그들의 책무를 감당한다면,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일에 선택 받았다. 그러나, 택정의 성경적 가르침은 섬김에의 택정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택정이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와 밀접하여 존귀하게 하는 방법 안에서 구원 받기 위하여 선택 받았다. — 베드로는 우리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선택 받았음을 말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아무도, 심지어 택정된 자들조차도 그로써 구속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부터 떨어져서 구원 받을 수 없다. 베드로전서 1:2에 있는 그의 피 뿌림은 두 배의 중요성이 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택정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그분의 피 뿌림을 가리키고, 우리 마음 위에 그분의 피 뿌림을 가리킨다.

여섯째 우리는 그 영의 성화를 통하여 구원에 선택 받았다. — 다른 말로, 택정과 예정에 의하지 않고서, 아무도 거듭나지 않은 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지 않은 자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다.

일곱째 우리는 진리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선택 받았다. — 하나님은 구원 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 받을 방법들도 정해 놓으셨다. 그분이 정해놓으신 방법들은 믿음을 듣는 것이다.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 받은 자들과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은 자들은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부름 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13-14).

## 조건 없는 택정

여섯째, 디모데후서 1:9 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은혜에 속한 조건 없는 택정이었음을 배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선택은 예견된 공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택을 예견한 것이나,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예견된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 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공로는 그리스도이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결과이다. 그분 안의 우리 믿음은 그분의 택정의 열매이고 결과이다.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었으니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택한 자를 품으셨네,  
그가 위에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이라,  
또 세상이 그 거대한 기둥을 놓기 전이라.

아 사랑아,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벽찬지,  
얼마나 위대하고, 불변하며, 대가 없는 것인지!  
만만의 죄들이, 지옥처럼 검구나,  
삼켜지네, 아 사랑아, 당신 안에!

비참한 자가 죄로 더럽혀 질때 사랑하였으니,  
하늘과의 전쟁에서, 지옥과의 동맹 가운데,  
모든 정욕의 음탕함에 노예구나,

살고, 살았던 자들이 그저 반역할 뿐이라.

믿는 자여, 여기 너의 위로가 섰으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자유라;  
또 영원한 사랑이 바라노니  
너희로부터 영원한 찬양이라.”

John Kent

나는 당신들 각자가 보고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관련된 것들을 깨닫기 소망한다.

- 하나님은 구원 받을 자를 택하셨다.
-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택정한 자의 구원이다.
- 택정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질 것이다.
- 택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영원한 역사이다.
- 택정은 구원으로 이르는 것이다.
- 택정은 조건이 없다.

### 효험 있는 택정

일곱째,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은혜는 언제나 효험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그 임무를 다한다는 것이다. 영원 전에 선택 받은 모든 자는 시간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부름 받고 구원 받게 될 것임은 이런 까닭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9-10).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정하심을 나타내실 때까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다. 그것은 아마도 그분이 은혜롭고 주권적으로 당신이 읽게 하셨던 것은 당신이 읽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혼 안에 생명과 불멸을 가져다 주시려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하고, 모든 충만의 주와 구원자로서 신뢰하는 자신을 발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권적이고 은혜롭게 부어주셨던 그분의 대가 없고, 택정하심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그분께 영원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주신 분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영광 안으로 지키실 것이다.

누가 끝없는 불에 저주 받을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선택 받은 백성,  
생명책 안의 우리 이름이

구원자의 피로 쓰여졌기 때문인가?

그분의 택정한 자의 죄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고 완전한 속량을 이루셨네;  
또 공의가 결코 예기치 못하니  
그 같은 빛이 두 번이나 지불되었음이라.

지옥의 교활함과 권세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따르니,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죄들도,  
우리를 우리 주로부터 나눌 수 없네.

생명 가운데 아무것도, 사망 가운데 아무것도,  
땅 위의 아무런 권세도, 위에 있는 아무런 권세도,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바꿀 수 없네.

그의 주권적 공효는 끝이 없음을 아니,  
그의 신실함은 아직도 기다리실 것이라;  
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이 영원히 확실함을 볼 것이네!

하나님의 대가 없는 택정하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  
는지! 내가 그분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니,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  
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고, 나의 구원자께서 내게 하시는 말  
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한 없이 달콤한지! 그리

스도께 사랑 받았네! —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네! — 그리스도께서 친구 삼으셨네! —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네! — 모든 것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네! — 이제, 그의 기쁨이 내 안에 남으니 그분 안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네!

(시편 115: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 103 장.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요한복음 15:22-25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22-25).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이 복음을 들으나 믿기를 거절하는 죄인들에 대하여 예비되어 있다!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의 신실한 전도 아래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만약 당신의 귀를 닫고, 눈을 감으며, 마음을 모질게 하고,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손흔들며 지옥으로 미친듯 달려간다면,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영원히 당신의 자리가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들은 복음이 지극히 높은 하늘로 당신을 올리지 않는다면, 당신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 가라 앉힐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것으로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당신을 영원히 저주하실 것이다. 만약 당신의 귀 안에 울

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볼 눈을 주시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믿을 마음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당신이 그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당신을 위하여 드리는 내 마음의 갈망이고 기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라고 선포하신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 언급하신 죄는 이스라엘의 죄이고, 하나님의 메시아, 그들에게 보냄 받은 한 분인 그분을 거절하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죄이다 (사도행전 3:25-26; 요한복음 1:11). 만약 그분이 성육신하여 오시지 않았고, 그들의 율법과 예언의 모든 것을 성취하려 오시지 않았으며, 그분의 위격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 개개의 죄에 대한 그런 강력한 심판 아래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오셨으며, 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셨다 (로마서 11:7-10).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우리 구원자는 여기서 더 밝은 빛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에게 엎드리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버리신다면, 당신은 그분이 당신도 버리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잠언 1:22-33; 29:1).

다음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

지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경멸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척 한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5:23; 10:30). 세상을 미워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삼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향하고 있다.

24 절에서 우리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는 것을 본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로써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 세대 앞에 극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멸시한다. 그들은 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당신에게 분명하게 만드셨는가? 그 사실들이 당신에게 다룰 여지도 없이 반박할 수 없게 분명한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불신은 변명할 수 없다.

우리는 도처에서 사람의 죄를 본다. 그것은 매일 신문과 텔레비전 속에 있다. 살인, 강간, 근친상간, 납색, 간통, 소아애, 테러행위들,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아주 구역질 나는 것들로 보고, 율법과 공의를 외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타락한 인성의 사악함을 가장 충분히 보기 원한다면, 요한복음 15:25 에서 당신 앞에 분명하게 제시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타락한 인류의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여기 죄의 본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창조에 대한 증오로 인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박았고 그가 죽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가증할 잔치를 벌였다! 그것은 광분한 인성의 주 범죄이고, 인간의 죄의 정점이다. 영광의 주, 타락한 사람 대신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분을 살해 했을때 그 자체로 죄가 나타났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미워하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저주 받은 나무에 못박는 것을 볼 때 죄가 것처럼 몹시 죄로 충만하게 보였던 적은 없다!

## 대부분 미워하였다

첫째, 이제까지 하나님-사람,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토록 미움을 받았던 사람은 없었음을 당신에게 일깨우고자 한다. 우리 주 예수는 여기서 시편에 있는 두 구절, 그 시편이 비록 자신의 체험으로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되었지만, 우리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로서 하나님의 감화로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입증하는 구절을 우리에게 인용하신다.

그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그 때로부터, 그가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렸던 그 시각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끔찍한 증오의 지속적이고 그치지 않는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란 말은 우리 구원자를 믿기를 거절하였던 모든 자를 가리킨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그들은 그분을 미워하였다.

어떤 인간도 우리 구원자만큼 사랑스러웠던 사람은 이전에 없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랑스럽고, 사랑하며, 사랑할만한 그 였기에, —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 그런 가혹한 증오를 견딘 어떤 피조물도 없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헤롯은 그를 죽이려 찾았고, 그것은 다만 시작이었다.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3).

구원자에 대한 사람의 증오는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나타났다. 때때로 그것은 공공연한 행위 가운데 있었으며, 마치 언덕 벼랑 끝에 그를 세웠을 때, 거꾸로 그를 던졌을 것이거나,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다시 돌을 주어 들었을 때, 그 증오가 증오의 말 속에서 저절로 보였다. —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누가복음 7:34; 마태복음 11:19). 때때로 그것은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을 때, 그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고 씻지 않은 손으로 앉아서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때는, 그 증오가 침묵하였고, 완전히 그들 생각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생각 한 것은, 왜냐하면 그가 간통으로 잡힌 여자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증오는 언제나 거기 있었다. 그들이 그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조차도, 그들이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또 그를 훌륭히 여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기억하라, 그를 그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바로 그 사람

들이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되 찼던 자였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복음 23:21).

그분을 미워하였던 “그들은” 모든 지위와 사회의 구석 구석에서, — 부자와 가난한 자 — 남자와 여자 — 늙은이와 젊은이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 통치자와 노예 — 배운 자와 무지한 자 — 권세자와 힘 없는 자 — 왕과 빈곤자!

사람들 가운데 행보하였고, 사람들을 사랑하였으며, 가난한 자와 부자에게 마치 그들이 그가 보시기에 동등하였던 것 같이 (실로 그들은 그랬다) 말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에 대하여 공모하여 하나가 되어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의 달변에 넋을 놓고 바라보았으며, 그가 행했던 놀라운 행위 때문에 자주 그 앞에서 경배 가운데 엎드려 넘어졌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함께 그를 나무에 못 박고, 그들의 머리를 흔들고, 그를 비웃고, 그에게 조서하며, 그를 조롱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를 때리고, 그를 비웃으며, 마치 그들이 한 광대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죽음에 처하도록 음모하였다.

## 연고 없이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역사를 읽는 것이 귀찮은 자도 주 예수께서 사람의 잔인한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왜 그분을 미워하였는가? 그들은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를 세 번 읽게 된다.

우리 구속자의 삶 속에서 있었으며, 표적이 되기까지 했으며 증오의 이유는 고사하고 심지어 배척될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의 성품이 완전하였다. 그분의 행위에서 흠이 없었다. 그분의 가르침은 순수하고 선하였다. — 그가 떠받들고, 순종하고, 예가 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건전한 사람들의 생각에 선하다. — 그가 가르쳤던 교훈은 순수한 교훈이다. 그분의 모든 역사는 긍휼의 역사였다. 그분의 친절과 동정과 온유는 분명 모두에게 향한 것이다. 하지만, 비록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영광의 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았으며, 지금도 그렇다.

### 하나님께 대한 증오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증오의 까닭은 모두 그분 자신 안에 있었고 그렇다.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증오의 까닭이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7-8). 사람들은 그분을 보내셨던 하나님을 미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까닭 없이 그를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가 전하였던 복음 때문에 미워하였다. 그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은 다음의 사실에 의한 것이었고 그것에서 나왔으며 나타나게 되었다…

-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하나이며,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선포하셨다 (요한복음 10:25-33).
- 그분은 그들 마음의 악과 종교적 위선을 드러내셨다 (마가복음 7:20-23; 누가복음 16:15; 요한복음 8:40).

- 그분은 그의 긍휼과 은혜의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누가복음 4:25-32).
- 그분은 은혜로 만에 의하고, 그분 안에만 있는 구속과 의와 구원을 전하였다 (요한복음 6:37-40, 44-45, 47-51, 53, 61-65).
- 의로운 행위들을 받아들이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거부하는 한편, 그분이 죄인들의 죄들을 대가 없이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미워하였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그분을 미워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을 믿었더라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였을 것이다 (마태복음 11:25-30).

### 하나님의 계획으로

넷째,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로운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성취되었을 것과 관련 있었다. —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25 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는 그가 우리 대속자로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못 박히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도행전 2:23, 36; 사도행전 4:27-28). 이런 방법으로, 우리 대속자로서 그의 죄 속량의 죽음으로 주 예수께서,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시편 69:4).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죄가 사람에게 안주한다. 그분 안에 아무것도 그들에게 이런 증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악이 그들 안에 함께 있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라. —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하려고 시도한 모든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힘을 갖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말자. — 기록되기를, “오직 나를 듣는 자는安然히 살며,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예루살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잠언 1:33; 예레미야 23:6).

## 대가 없이 구원 받음

다섯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는 까닭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그것이 그분을 — “까닭 없이” 미워한 죄로 충만한 자들을 — “대가 없이” 구원하신 바로 그 방법이다 (호세아 14:4; 로마서 3:19-24; 8:32).

## 한 가지 질문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다. — 당신은 그분을 미워하는가,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는가?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당신에게 말한다. — 만약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절한다면, 만약 당신이 그분께 옳드리고 믿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미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한일서 5:10). 만약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그분 안의 믿음이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원인이다. —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17).

“아 나의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나요?”

내 마음을 보소서 그리고 보소서;  
그리고 혐오스런 우상을 하나 하나 꺼내소서,  
감히 당신과 견주려는 것을.

아 나의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러면 나로 아무것도 사랑치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모든 쾌락에 사망케 하소서,  
예수께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당신의 이름이 여전히 감미롭지 않은지요  
나의 예민한 귓가에?  
기쁨으로 맥박이 뛰지 않는지  
나의 구원자의 음성을 들려오면?

당신이 소유한 모든 무리 가운데 한 어린 양을  
내가 먹이기를 부끄러워하는지?  
대적이 있는지요, 그 얼굴 앞에서  
당신이 탄원하게 할까 두려워 하는?

격렬한 영이 나의 것이 아닌지  
보좌 주변의 천사들과 겨루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하여,  
또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그 피를 나의 마음에 붓는 것은 아닌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함 가운데?  
또 죽음의 차가운 이 요구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을 끄기 위함이 아닌가?

가장 귀한 주여,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니,  
그러나 아, 날아 오르기를 갈망하니  
인간적 즐거움의 영역에서 멀리로,  
그리고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배우렵니다!”

Philip Doddridge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므로, 나는 그가 나를 그분의 아버지께 사랑받으신 것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자신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던져 버린다.

### 화목하게 돼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그분의 전능한 공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시므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이사야 1:18)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1)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3)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6-7)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5:10-1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17-19)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0-2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로다.” (고린도후서 6:1-2)

하나님과 다투기를 그쳐라. 그분의 귀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

## 104 장. 고난에 대하여 준비됨—요한복음 16:1-33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1-33)

공개 연설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아는 누구든지 공개 연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하는 것의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임을 안다. 이런 것에는 좋은 이유들이 있다. 만약 연설자가 말을 시작할 때 당신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면, 그는 전혀 그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연설자가 말하는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을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것이 전도에도 적용된다. 나는 대학에 있는 동안 정말 좋은 교수를 아주 극히 조금 만났다. 대부분의 단과대학과 대학들처럼 성경 대학과 신학교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 학과들을 가르치도록 고용된다. — 그러나 나는 몇 분의 아주 좋은 교수를 만났다. 그들 가운데 한 분은 설교학/목회 신학 교수 (Billy Martin 교수)였다. 그는 주의 깊은 연구와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설교 준비에 있어서 전도자들은 언제나 설교의 서론과 결론을 전하는 말의 중점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쳤다.

설교들을 읽는다면, 특별히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하려 했던 것들, 결코 출판하려 의도 되었던 좋은 설교들, 사람들이 진정으로 유익을 얻은 설교들은 대부분 언제나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1. 서론
2. 본문: (교훈적 요점과 해설)
3. 결론, 혹은 적용.

요한복음의 16 장에는 갈보리에서 우리 대속자로 고난 받고 죽기 직전에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있다.

1. 13 장에 있는 설교의 서론은 주의 만찬의 제정으로 구속의 그림이었다.
2. 14 장과 15 장에서 구원자의 가르침은 모두 은혜이다.
  -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내주하는 변함 없는 은혜를 약속하셨다 (14:1-3).
  -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신다 (14:4-14).
  - 우리의 내주하고 거하시는 보혜사와 교사가 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다 (14:15-31).
  - 주 예수는 그리고 우리에게 15 장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연합의 경이를 보여주신다.
3. 그리고, 16 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설교의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는 은혜롭게 우리 삶에 말씀하셨

던 모든 것을 은혜롭게 적용하신다.

## 시기 적절한 떠남

요한복음의 이 16 장에서 우리가 구원자 자신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것을 본다. 우리 사랑스러운 구속자는 여기서 우리에게 그분이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떠나심이 우리를 위하여 유익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16:7)고 하셨다. 이장을 읽으면, 주님의 의도가 모두 우리에게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분은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그분 앞에 있었던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그가 기쁘게 될 것에 대하여 한 마디도 없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그분의 종, 우리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고, 성도들이 구속자를 영접함에 대하여 아무것도, 천사들이 그들의 주를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언급이 없다! 우리는 주의 작별 설교 안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이 고난의 말씀 가운데 남기시려 했던 것은 구원자의 사랑스런 자녀들에 대한 것이 전부이다. 우리 대속자로서 그의 고난과 죽음의 모든 고통을 견디시려 하였을 때, 우리 중보자-왕, 우리 구원자의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고통스런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에 있었던 것처럼 그분은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 가시려 했다. 나는 그 사실이 경이롭게 놀라운 것임을 발견한다. —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그분의 가장 큰 슬픔의 시간과 그분의 가장 큰 영광에 대한 예견 가운데, 우리 구원자의 마음은 우리 위에 있었다 (시편 69:1-7).

이 장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설교를 그의 십자가 형 직전에 결론을 내시면서, 그분은 13 장에서부터 가르치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요점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신다.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6:1).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계셨던 모든 말씀, 가르치시고 계셨던 모든 것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을 그가 아셨던 고난에 대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말 것과 (1 절) 그분의 교훈을 기억할 것과 (4 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강을 가질 것을 (33 절) 말씀하신다.

여기서 우리 주의 의도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 현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분을 위하여 살기를 구하는 모든 자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감화의 33 절들 안에서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우리에게 일곱 가지 약속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여야 하는 고난의 시간을 대비하여 그가 예비하였고 우리를 무장하게 할 것들에 대한 약속들을 주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1 절) — 우리 구원자께서 얼마나 사려 깊으신지! 만약 그분이 행하셨던 것이나 고난 받았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고 그분이 의심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을 것이라 추정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 받는 것들이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할지도 모른다고 그분께서 의심하셨다면, 그분이 화가 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추정은 틀렸을 것이다. —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

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14). 우리 복된 주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비통한 약함에 우리를 동정하신다.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는 우리가 실족 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고, 타락할 고난에 대해 미리 우리를 예비하신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2-4 절). — 제자들이 구원자의 육체적 존재를 누리는 한, 그분은 그들 주변의 불의 벽과도 같았다. 그들 한 가운데 그분 자신을 보이고 있는 한, 그들의 위협을 그분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신 한, 그들은 위협으로부터 다른 어떤 보호의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우리 주께서는 약속된 때에 그분이 계시하고 행하실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시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 시간에 대하여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모든 조건 가운데, —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의 골짜기 가운데나, 혹 부유함이 풍성할 때나,  
집에서나, 떠나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  
너의 날이 요구하는 것처럼 너의 구원자가 계실 것이라!”

만일 당신이 주의 소유라면, 주는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를 당신에

게 공급하실 것이다. 내일이나 내일의 고난에 초조해하는 당신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34) 또 매일을 위한 그의 은혜가 족하다. 그분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약속하신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5-6 절). — 제자들은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분이 곧 그들을 떠나려 하셨기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왜?”라고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미리 그 때를 깨달았더라면, 그분이 그들이 말할 수 없이 기뻐던 때를 돌이켜 보도록 하셨다면, 그들이 기억 속에 행했던 것만큼 예상 속에서 기뻐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공과이다! — 어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믿음을 주신 성령을 찬양한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할 것이다.

“그러하나” (7 절) — 나는 “그러하나”라는 그 말을 사랑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의 책 안에서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시편 31:21-23; 73:22-23; 89:28-34; 106:43-45)..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는 우리에게 일곱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신다. 여기 이 비통한 세상 가운데 삶을 위하여 그분

의 택하신 자를 준비하게 하는 믿는 자 각자에게 하신 일곱 가지 약속들이 있다.

## 복된 보혜사

첫째, 주 예수는 그분의 구속 받은 자에게 복된, 보혜사 하나님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물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임을 안다. 성경을 무심코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조차 그것을 안다. 그러나 그로써 성령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로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 구원자는 그로써 그가 구속 받은 자를 위로하시는 보혜사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계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7-11 절).

그 영의 위로는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달콤한 역사이며,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창조하고, 그로써 언약의 모든 축복들로 우리를 인치신다 (갈라디아서 3:13-14; 4:4-6; 에베소서 1:12-14).

## 영적 통찰력

둘째, 주 예수는 모든 구원 받은 죄인에게 영적 지식과 통찰과 깨달음을 보장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2-15 절).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그 영이다 (고린도전서 2:9-10). 요한은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향유를 가지며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한다 (요한일서 2:20-27).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2:12-16). —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효험 있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

여기에서 구원자의 약속하고 기뻐한다. 종교적 혼돈과 혼란의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영이 믿는 죄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주 예수께서 실제로 갈보리에서 성취하셨던 것을 보여 준다. — “그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 절). 그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보여 준다 (14-15).

## 달콤한 연합

16-22 절에서 구원자는 그의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그가 떠난 직후에 그들이 그분과 달콤한 재 연합 할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약속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통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6-22 절).

우리 구원자와 그분과 우리의 복된 연합의 장면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성공적인 대속자, 우리의 타의 추종불허의 주권자와 오실 왕으로서 그분을 바라 본다. 이것은 그분이 사망에서 다시 사셨을 때 완전히 성취되었다. —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20:20). 그러나 이 훗날 가운데 그분의 고통스러워 하고 비탄에 잠긴 제자들을 기다린다는 이 약속의 폭넓고 완전한 성취가 있다. 그분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4:3).

## 효험 있는 기도

네 번째 약속은 23-24 절에서 발견된다.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견뎌야 할 시험과 고뇌, 유혹과 고난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기도들이 결코 하늘에서 귀머거리에게 내려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들이 효험 있는 기도됨을 약속함으로써 우리를 준비하도록 하신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23-24)

우리 주께서 이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세 번이나 이 약속을 하셨다 (요한복음 14:13; 15:16, 16:23). 나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마음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갈망을 주실 것과 우리 기쁨이 충만 될 것을 깨닫도록 의도하신다고 추정한다. —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10).

형제여, 자매여,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 그리스도와 방해 받지 않은 교제인가? — 그리스도께 완전한 헌신인가? — 그리스도께 완전한 복종인가? 그것이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 **복된 변호 (26-27 절)**

다섯째,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 중재자로서 우리 대신에 그분의 복된 변호를 확신시킨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6:26-27)

우리 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6 절)라고 하신 것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이미 이것을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16). 하나님의 자녀여, 결코 이것을 잊지 말라. —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요한일서 2:1-2). 이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감사와 자신을 가져오게 되는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우리를 탄원하고 계신다. 하늘이나 땅이나 지옥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평강

여섯째, 구원자께서는 평화롭고, 복되며, 달콤하고, 내주하는 평안을 약속하신다. —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33 절). 그분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평안을 만드셨다. 그분은 그의 영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을 말씀하셨다. 이 평안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에 의해 훈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실망이나 환란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은 평안을 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 평안이다.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갖는다.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속죄의 평안, 용서의 평안, 섭리의 평안,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평안이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처럼 실제이고, 내주하며, 영원하다. —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 분명한 승리

우리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통스런 세상 속에 남겨두고 떠나기 전에 주신 일곱 번째 약속, 이 세상과 영원 사이에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게 하신 그 일곱 번째 약속은 그분 안에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승리이다. —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33 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12). 그러나 박해나 조롱이나 심지어 사망이라 할 지라도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한다 (사도행전 14:22). 그러나 그들의 환란으로부터 나와서 어린양의 피로 씻어 하얗게 된 두루마기를 입고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계시록 7:14). 아무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는 정복자들 이상이다 (로마서 8:35-37).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성도 앞에서 무능력하다. 기록된바, —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

라.” (요한일서 4:4).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14; 계시록 19:1-9).

## 105 장. 보혜사—요한복음 16:7-16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6:7-16).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의 마지막 강론에서 네 번이나 우리 복된 구원자는 그분의 제자들과 그가 우리 보혜사가 되실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16, 26; 15:26; 16:7). 성령

하나님은 모든 하늘로 난 혼 안에 거주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영화로우신 우리 축복의 구원자,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의 위격과 역사에 대한 이 놀라운 말씀 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약속하셨던 일곱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찬양 받으신 주와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와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다. 우리 주 예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라고 언급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이 단락에서 보아야 하는 첫 번째 사항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보자와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의 책무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구원자로 불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보혜사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6-17).

성령 하나님께 붙여진 이 호칭, “보혜사”는 매우 광범한 의미로 충만한 호칭이다. 그 호칭은 위로하는 자, 탄원 드리는 자, 강권하는 자, 우리를 그분의 편에 부르는 자를 뜻하며, 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그의 자녀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 그분의 곁에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원히 거하시는 보혜사로 내주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였다. 얼마나 은혜로운 선물인지!

## 또 다른 보혜사

둘째, 우리 구원자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다.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이란 말은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동일한 종류의 또 다른, 나와 같은 또 다른, 나와 구별되는 한 분을 의미하나, 정확히 나 같은 분을 의미한다. 여기 우리의 혼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성 삼위의 세 분의 위격이 계시며 (요한일서 5:7),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하여 언약의 책임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된 삼일 여호와와의 세 분의 위격, 선택 받은 죄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다 (에베소서 1:3-14).

성령은 “이스라엘의 위로”라 불리는 분인 그리스도에 더하여, “또 다른 보혜사”이다 (누가복음 2:25). 주 예수는 우리에게 그가 내 대신 다른 분임을 말씀한다. 내가 올 것이나, 그러나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내 자리를 채우실 것이다. 교통과 권고와 위로와 사랑의 내 자리를 채우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었던 위로를 위하여 그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분이다. 그는 또 다른 분이지만, 다른 분은 아니다. 너희를 향하여 나와 함께한 생각과 동정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분을 소유함 안에서, 너희는 나를 소유하고, 그는 나에게 더하여 또 다른 분이 될 것이다. 나는 비록 멀리 가지만,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있는 것에

더하여, 너희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분, 내가 하나님인 것과 같은 하나님이신 또 다른 분의 임재를 갖게 될 것이다.

## 아버지의 선물

셋째, 우리 보혜사로서 성령의 이 은사는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사이다.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물 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요한복음 4:10)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주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그분이다. 그분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11). 성령 하나님, 우리 보혜사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의 선물이며 (갈라디아서 3:13-14), 그로써 주 하나님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에게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인치신다 (에베소서 1:13-14).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선한 기쁘심이다. 그분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영 안에 살며, 그 영 안에서 행하고, 그 영 안에서 기도한다 (로마서 8:1-17).

## 그리스도의 증보

넷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증보의 공로와 효험으로 모든 구속 받은 자 위에 부어진다. 그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셨다. 사랑의 약속된 때에,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에게 거듭남 안에서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영을 보내신다 (에스겔 16:6-8; 36:27; 37:14; 스가랴 12:10).

## 변함없는 보혜사

주 예수는 이 보혜사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 소유이며, 무조건 영원히 우리 소유이다! 시간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이 비통한 세상 가운데 있는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보혜사가 되실 것이다. 쉼이나 영광이 시은좌에 거하심으로 성전을 충만하게 하셨으므로,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는 늘 달콤한 “성령의 교통” 안에 산다 (고린도 후서 13:14). 비록 우리가 종종 그분을 비탄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분께 보이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약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릴 수 없다!

## 진리의 영

여섯째, 요한복음 14:17 에서 우리 구원자는 보혜사를 “진리의 영”으로 묘사한다. 그는 혼에 진리를 교통하는 영이다.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 교통하는 진리,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서 계시된 진리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가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는 진리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은 그가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는 진리이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는 강한 현혹을 보내신다 (데살로니가후서 2:11-12).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의 택정을 안다. 뱀의 씨는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 유다는 이런 세상의 꾀멸을 기술한다. 그는 그들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고 한다 (유다서 19). 타락한 자들에 대한 슬픈 그림이다! 그들은 그 영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생명이 없으며, 소망이 없다!

## 하나님의 교사

일곱째, 나는 요한복음 14:26 에서 우리 보혜사이신 성령에 대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간단히 보기를 원한다.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이다.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며 성령 하나님 뿐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고 행하셨던 것들, 그리스도의 일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 기억 속에 가져 오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신다. —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고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5:26; 요한일서 5:1-13).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인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에베소서 1:13-14),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임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을 가르치며, 그로써 선택 받은 자들이 선택 받았음을 알게 하며, 구속 받은 자들이 구속 받았음을 알게 하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게 하는가?

무엇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기억 속으로 가져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는 달콤한 위로를 주는가?

- 성취된 구속 — 그는 그 구속이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죄인에게 확신을 주신다 (요한복음 16:7-11).
- 올 것들 — 그는 우리에게 “올 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주심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죽으심에 순종하신 결과로 오게 될 것에 대함이다 (요한복음 16:12-13; 요한일서 3:1-9; 4:17). 그 대속자로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얻으셨고 죄인을 위하여 보증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가련한 죄인에게 확신을 주실 때 그 영은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 영원한 구속! — 절대적인 용서! — 완전한 칭의! — 온전한 의! — 충만한 성별! — 영원한 생명! — 우리 몸의 부활! — 확실한 영광!
-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심 — 또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심으로써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요한복음 16:14-16).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향하게 한다. 복음의 전도로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보여 주시고, 효험 있게 부름 받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쁜 소식이다 (고린도후서 4:6).

우리 구속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삼일 여호와에 의해 영화롭게 되셨음을 보여주신다 (요한복음 16:15; 빌립보서 2:9-11). 이분이 우리 위로이다: 구속은 성취되었다! 구원은 확실하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다!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신 분의 손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좌 위에 계시다. 모든 것이 좋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다: 모든 것이 좋다!

“아 주변에 소식을 퍼뜨려라, 사람이 보이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고통이 넘치는 곳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혀로 기쁜 소리를 선포하게 하자:  
보혜사가 오셨다!

긴긴 밤이 지났으니, 마침내 아침이 밝았네,  
또 폭발한 두려운 통곡과 격분이 잠잠해졌으니,  
황금 언덕 넘어서 낮이 빠르게 행진하네!  
보혜사가 오셨다!

주여, 왕 중의 위대한 왕이여, 그 날개 안의 치유와 함께,  
사로잡힌 혼 각각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네;  
또 텅빈 감옥을 통하여 승리의 노래가 울리네;  
보혜사가 오셨다!

아 한 없는 사랑의 하나님! 이 내 혀를 어찌하오리  
방황하는 인간에게 건줄 수 없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말하네

나, 지옥의 자녀가 그분의 형상 안에서 빛나라!  
보혜사가 오셨다!

보혜사가 오셨네, 보혜사가 오셨네!  
하늘로서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을 주시니;  
아 주변에 소식을 퍼뜨려라, 사람이 보이는 곳마다  
보혜사가 오셨다!”

## 106 장. 유익과 위로—요한복음 16:7-14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7-14)

여기서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우리 대속자로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유익의 문제이고, 우리 혼을 위하여 필요하고 이득이 되는 것임을 말씀한다. 그리고 왜 그것을 그런지를 말씀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죽음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타락한 사람이 삼일 여호와와 교제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한다. 갈라디아

서 3:13-14 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정확히 동일한 것을 말씀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 유익

첫째, 우리 구원자의 죽음의 유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위로에 대하여 조금 언급할 것이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7)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시는 게 필요하였다. 그는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들려져야 했다. 그는 고난 당하고 죽어야 했다. 그는 사망에서 살아나서 하늘로 다시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 은혜의 언약 모두가 무너졌고 거짓임이 증명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구원자께서, —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실 때 의미하는 것이다.

저주의 나무에 달리 주 예수를 보라,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라. 십자가 밭 아래 서서, 저주 받은 나무에 못 박히고, 그 자신의 피와 성난 군중의 침으로 덮인 채, 죄가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께 버림받고 저주 받은 거룩한 자를 내가 볼 때, 한편으로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하신 일임을 깨달으면서, 나는 경이로움 안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존경과 경이로 충만하다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저 멀리 (놀라운 광경!) 내가 바라보니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아들이라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숨을 거두며,  
또 그의 피로 범벅이로구나.

보라, 자줏빛 금류가 흐르니  
그의 손과 머리로부터 내려오네,  
진홍빛 밀물이 태양을 가리니;  
그의 신음소리가 사망을 깨우네.

떨고 있는 땅, 킁킁해진 하늘,  
진리를 큰 소리로 선포하네;  
또 놀란 백부장이 함께 외치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주를 향한 존경으로 내가 경외하며, 억누를 수 없는 의문, 이유와 합당한 심판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이 있다. 그 질문은 이렇다. 왜?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죽음에

고난 받아야 했는가?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그렇게 끔찍하게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하셨는가? 내가 살게 그가 죽으셨음을 안다. 그는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인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그가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게 하셨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나?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내게 보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행해졌는가? 실로 그렇다 (로마서 5:8; 요한일서 3:16; 4:9-10).

“예수, 높은 곳의 그의 보좌를 떠나셨으니,  
기쁨의 밝은 영역을 떠나셨고,  
그리고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  
이런 사랑이 이전에 있었는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게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실 수 있었다. 왜 그분은 그의 아들을 죽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고난 당하고 죽어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이 그분의 죽으심의 유익이었나?

오직 한 대답만이 그 질문에 대하여 찾을 수 있다. —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 구하실 필요가 없었다. 구원은 모두 그분의 은혜에 속한 대가 없는 은사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성의 파멸로부터 그분의 택한 자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뿐이었다. —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나니” (히브리서 9:22).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족되어야만 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의 피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 그리스도께서 떠나시지 않았다면 성령은 그의 백성의 보혜사, 세상의 책망자, 진리의 교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찬미자로서 그분의 책무의 수용 가운데 결코 오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지 않았다면, 뿌려야 할 피도, 계시할 의도, 베풀 구원도, 영화롭게 할 중보자도 없었을 것이다.

물을 필요 없이, 성령은 처음부터 세상 가운데 계셨다 (창세기 1:2; 시편 51:11). 그분이 없이는, 선지자들은 예언할 수 없었으며 구약 성도들은 구원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모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그는 모든 육체 (이방 세계) 위에 부어지지 않았다. 이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과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의 찬양과 영광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갈라디아서 3:13-14; 요한복음 7:39; 시편 68:18; 요엘 2:32; 사도행전 2:33).

## 한 가지 조건

은혜의 언약의 무한하게 지혜롭고 질서 있는 안배 안에서 언약의 모든 축복들은 한 가지 사항의 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사항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보증인인 그리스도의 순종, 그의 의와 피의 속량이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전달자이므로, 우리 보증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축복들을 얻어내고 사기 전까지 언약 가운데 약속된 은혜 축복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오실 수 없었다. 그 영의 보냄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열매였다. 따

라서, 성령 하나님은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사시고 우리를 위한 언약의 모든 축복들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능력 가운데 모든 구속 받은 죄인에게 오셔야 하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아들이 사들이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날까지 은혜 가운데 보존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기 위하여 오신다.

우리 주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가 고난 받아야 하고, 죽고, 사망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함과 거기서 그가 그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할 것과 약속된 때에 그가 다시 와서 그들을 그분 자신에게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하늘로 돌아가는 그분의 승천에 보혜사, 성령이 그들을 섬기도록 보내실 것을 확신시키셨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3, 14, 15 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함께 밀려왔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 위대하고, 비밀스럽고, 경이로운 일들에 대하여 의문이 가득했을 것이다. 대신, 비통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그리고 구원자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잠잠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그분이 떠나심,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하늘에 속한 찬양의 필요성을 보이시려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잠시 멈춰서 한 공과를 배워라: — 그들이 겪은 것 가운데 가장 통탄할 것으로 보이는 그 일들은 종종 그 일들의 마지막에 가장 시기적절하다. 우리 의지의 우둔함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신다.

유익은 필요성에 의해 강제되지만, 따라가기에 가장 좋은 과정이다. 이 곳에서 우리 주는 필연적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고난 받고, 죽고, 사망에서 부활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고 좋으니라.”

우리 구원자의 죽음의 유익은 누구에게나 분명할 것이다: — 만약 그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고난 받고 우리 대속자로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었다. 그가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하셨을 것이다 (히브리서 10:5-10). 하나님은 의롭게 되지 못했을 것이며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로마서 3:24-26; 이사야 45:21). 죄에 대한 속량이 없었을 것이다 (히브리서 9:22).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께 화목과 평강과 용서와 의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골로새서 1:20-22). 우리에게 선주자, 대제사장, 그리고 하늘의 대언자도 없었을 것이다 (요한일서 2:1-2). 죄로 충만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열납될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히브리서 10:19).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마태복음 1:21).

위로

이제, 성령의 위로하는 일에 대하여 약간 보여주도록 하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위로하시는가? 다음 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어보라 (요한 복음 16:8). —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보내진 사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보혜사인 성령의 일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된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가르치신다. 그 영의 계시를 떠나서는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는 책망의 영이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믿지 않음에 대하여 그들을 훈계하고, 질책하며, 책망하기 위하여 그 마음에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는 확신의 영이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그들의 죄와 그리스도의 죄와 그리스도로 인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효험 있게 깨닫게 하신다.

## 법적 용어

여기에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말과 행간의 “깨닫게 하다”는 법률 용어이다. 그것은 재판정에서 판사의 임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 증거를 판단하여, 만약 판사가 그 사람이 어떤 합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죄를 넘어선다고 본다면, 주어진 증거로 깨달아, 그 사람이 유죄임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 느낌이 그들의 감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느낌은 그들의 심판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느낌이 유죄 판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볼 것이다. 유죄 판결은 반박할 수 없는 주장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의 결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죄인 위에 임할 때, 반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분은 그를 깨닫게 하신다. 이 확신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권이다. 그분은 전능하고 압도적인 은혜로 성취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만이 마음을 효험 있게 열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죄인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실 때,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영의 역사의 대상이 될 것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일은 실패할 것인데, 모두가 다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의미는 성령께서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그분의 택정한 자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세대에서 몇 사람, 모든 열방 가운데 몇 사람을 효험 있고 구원하도록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는 모든 택정한 자를, 그분의 은혜의 거절할 수 없는 권능으로 구속 받은 죄인을 구원하도록 깨닫게 하실 것이다.

### 성령 확신

그 영의 위로는 성령 확신이다. 그리고 성령 확신은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믿음에 필연적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기 전에, 성령 확신이 만족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나, 어떤 조건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것은 많은 사고들 가운데 끔찍한 실수이다. 우리 주께서는 결코 죄인들이 그분에 대해 확신을 받고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 그분을 신뢰하면 당신은 구원 받으며, 모든 죄를 용서 받고, 영생을 받는다. 당

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전에 당신이 교리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만족시켜야 할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의 한 가지 팔목할만한 특징이 언제나 성령 확신과 함께 따라온다고 우리 주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확신이 없는 곳에, 회개가 없다. 확신이 없는 곳에, 믿음이 없다. 확신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확신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와 구원의 연합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 확신이 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 확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안의 참되고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 그 둘은 언제나 함께 한다.

대답하여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 무엇이 성령 확신인가? 그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한 많은 답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하지 않은 답변들을 들었고 또 읽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확신이 죄에 대한 깊은 양심의 가책의 느낌,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끔찍한 느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 그리고 혹은 구원 받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들은 아마도, 그리고 매우 종종 성령 확신과 함께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에도 그런 말로 묘사된 확신은 없다.

만약 성령 확신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사람들의 의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만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성령 확신에 대하여 묘사하신 방법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यो.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यो,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8-11)

## 죄

성령 확신은 이 세 가지 일들과 관련 있다. 죄, 의, 그리고 심판.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죄인의 마음 속에 오실 때, 이것은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것이다. 그분은 죄인을 그가 영원한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임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확신시키신다. 죄에 대하여 성령 확신이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믿음이 없다. 사람이 죄에 대한 실질적인 확신을 체험할 때, 자신의 정죄 가운데 하나님을 의롭게 하면서 자신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한 편을 취한다 (시편 51:4-5).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로 충만함을 너무도 철저하게 확신시키시므로 그는 기꺼이 세리와 함께 자리를 하고 외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13).

그분은 우리에게 죄의 사실에 대하여 확신시키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다.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을 저질렀으며, 우리는 반역과 죄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으며, 하나님께 거슬러 반역의 경로를 택하였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죄인들이며, 마음에서 죄인들이고, 선택에 의해 죄인들이며, 행위로써 죄인들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의 잘못에 대하여 확신시키신다. 우리 죄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악한 행위보다 훨씬 그 이상이다. 죄는 하나님께 모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공격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부인이다. 죄는 하나님을 꾀탈하려 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신성과 영광을 그분에게서 강도 짓 하는 괴물 같은 시도이다. —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 51:4).

확신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확신시키신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죄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감히 전능자를 대항하여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부패에 대하여 확신시키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추악하게 만든다. 그것은 나와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 열납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죄의 원천에 대하여 확신시키신다. 죄는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죄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 우리의 어떠함이다. 사람의 마음이 악의 원천이기 때문에, 부패와 부도덕과 죄 외에 아무것도 낳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죄의 열매에 대하여 확신 시키신다. —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로마서 6:23). 내 죄의 보상은 단지 영원한 저주이다.

특별히, 우리 구원자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죄인들에게 확신시키실 것임을 선포하신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사람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교회 복도를 걷는 것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만,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고, 효험 있는 역사로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무기력하고 죽을 죄인들에게 온다. 구원은 성령 확신의 결과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실 때 그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확신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의 죄를 확신시키실 때, 확신 받은 죄인은 성령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알고 은혜롭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시편 51:3-5). 그리고 철저하게 그의 본성을 바꿀 능력도 없는 것을 그는 본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유죄임을 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은 나를 은혜롭게 내가 유죄이고, 그분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며, 그분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셨다. 증거는 모두 안에 있다. 반박의 여지가 없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유죄다. 내 추악한 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외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13). 이 확신은 본성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확신의 특정한 문제는 불신이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강도, 간통, 살인과 같은 것들이 죄임을 안다. 그러나 불신이 죄임을 우리

에게 확신시키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역사이다. 실로, 불신은 모든 죄들 중 가장 크며, 가장 저주할 죄이다. 불신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요한일서 5:10). 모든 죄는 저주 받는다. 그러나 어떤 죄도 불신만큼 저주 받지 않는다. 야만인은 지식에 대한 원함을 잃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의 의도적이고 완고한 불신으로 믿음에 대한 원함을 일었다. 따라서 그들의 불신은 그들의 정죄가 될 것이다. 그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불신이다. 불신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누그러지지 않고 영원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고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죄에 대하여 확신을 받고 불신에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돌이키는 자들은 복되다!

## 의

하나님의 영께서 구원의 능력 가운데 죄인에게 오실 때, 그분은 의에 대하여 죄인에게 확신시키신다. —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요한복음 16:10). — 이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께로 다시 오르신다는 사실이다. 의에 대한 이 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시며, 나는 의를 산출할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하나님께 하신 그분의 순종으로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다는 확신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구원자의 이름은 여호와-치드키누 (Jehovah-Tsidkinu), — 주 우리의 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라, 죄의 형벌 아래 죽임 당했고,

장사되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다시 오르셨으며, 영원한 영광의 보좌로 올려지셨으며,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모든 충만의 의를 가져오셨던 것을 확신 받는다.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1, 3, 4, 34).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변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의에 대한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로마서 5:19). 인자로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그것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들에게 입히시고 부어주실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셨다.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롭고 공의로운 형벌을 만족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3:13).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도록 되었다. 우리 죄들은 그분께 전가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공의 완전한 만족에 이르도록 그분을 벌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공의롭게 용서하셨다 (로마서 3:24-26).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으므로, 그가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죄인 각자는 칭의 가운데 덧씌워진 의로 인하여, 성화 가운데 전가된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 심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8-11)

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패와 누더기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신 받는다. 나는 내가 그분의 무한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것을 안다.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가 되도록 한번 되셨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하늘에 계신 그 인자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의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변치 않고 열납되기에 무한히 가치 있고 충분함을 나는 철저히 확신한다. 그리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복을 바라봄으로, 심판에 대하여 철저히 확신하며, 심판이 갈보리에서 죽으셨던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께서 대신하신 모든 자를 위하여 성취되었음을 나는 철저하게 확신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그가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신시키신다. 이 심판에 대한 확신은 삼중이다.

1.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7:31). 죄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으시고, 지옥에 있는 영원한 파멸로 판결하시는 것으로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의 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서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4).
2.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죄는 어떤 행위 이상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대의 원칙이다. 그것은 하늘 왕께 대한 대역죄이며 우리 창조주에 대항한 적개심이다. 하나님의 선과 공의는 사악함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고 죄인들이 영원한 파멸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시편 11:4-7).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옥 가운데 벌하셔야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공의롭다. 그분이 당신을 영원히 지옥 가운데 벌하셔야 한다면, 그분은 공의롭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
3.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대하여, 심판은 끝났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들을 심판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아들이 죄가 되게 하였고, 우

리 죄에 대하여 벌하셨으며, 그분의 귀한 아들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공의에 대한 완전한 만족에 이르셨다.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끝났음에 대한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지심으로, 사탄을 사로잡으셨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2:15).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공의로부터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죄들은 영원히 용서 받았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의롭게 되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 그리고, 당신에 대하여 심판은 끝났다.

###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달콤하고 효험있게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Matthew Poole 은 여기서 “인도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진리를 계시하는 것과 우리 의지를 그분이 계시하는 진리에 고개 숙이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 주셨으며, 진리에 고개 숙이게 하신다.

비록 이 본문이 우선적으로 사도 감화의 선포이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대한 적용이다. 사람 속에서 그 영의 역사는 그 사람이 확신되었을 때 끝나지 않는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을 그들에게 필요하고 유용하고 유익이 되는 모든 진리 속으로 은혜롭게 인도한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함으로써,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신다 (에베소서 4:11-16). 기록되기를, “너희는 기록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20). 이것은 보편적이고 영적인 지식의 약속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영적 지식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6).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자는 그분의 진리에 머리를 숙이고, 영접하며, 사랑한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 이 “장래 일”은 대부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의 결과로 따라올 것들이다. — 모든 구속 받은 자의 확실한 구원 — 모든 나의 죄의 완전한 용서 — 구속 받은 자의 부활 영광 — 구속자의 영원한 찬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하고 가르치신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 전도자나,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이

로써 어떤 교리나 조례,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체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가 아닌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로서 우리 축복의 구속자께서 그분의 성취 가운데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 혼에 위로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30-31). — 유익을 찬양하라! — 위로를 찬양하라! — 구원자를 찬양하라! — 보혜사를 찬양하라!

## 107 장. 확신의 위로—요한복음 16:7-11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7-11).

당신은 성령 확신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 성령 확신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첫 번째 역사이다. 성령 확신은 피 속량으로서 우리 혼의 구원에 본질적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어떤 것이라도 아는 자는 거의 없다. 성령 확신에 대하여 설교자가 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는가? 그것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체험했는가?

1833년 8월 13일, Robert Murray M'Cheyne 라는 스코틀랜드의 20세 된 젊은 전도자가 그의 일기에서 이런 말을 기록하였다. — “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다른 사람의 의에 의존되고, 따라서 (말하기 이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평강과 격려의 유일하고 참 근원이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 성령은 죄에 대하여 우리를 확신케 함으로써 죄인들을 위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장엄한 차이를 알아야 한다:  
비록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지만,  
그들 자신이 아는 자는 거의 없다.  
우리 주께서 이런 자들에게 보내지셨으니;  
그들은 다만 회개하는 죄인들이다.

어떤 위로를 구원자께서 가져오실 수 있을까  
그들의 비탄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자들에게?  
죄인은 거룩한 것이니;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로부터 새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하니,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연히 슬퍼하기 전에.

이 신실한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자,  
믿을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으로 오셨음이라,  
죄인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 받을 것이라.  
죄인들이 그분의 존경 안에서 높으니,  
또 죄인들이 그분을 높은 가치를 두네.”

—Joseph Hart

## 무지의 죄들

레위기 4 장과 5 장에서 주 하나님께서 “무지의 죄들”에 관한 자세한 가르침을 주셨다. 주께서 여섯 번 모세에게 일단 어떤 무지의 죄라도 알게 될 때, 속량이 거룩하게 예비된 제물로 준비되어야 하며, 속량이 준비되면 위법 행위가 용서 받을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에 대한 우리 체험 가운데 있는 일들의 정확한 순서이다.

1. 죄는 반드시 알게 되어야 한다. 죄인은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하여 확신해야 한다.
2. 속량은 이루어져야 한다. 깨달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3. 그 죄에 대하여 확신한 죄인, 그를 위한 속량이 이루어진 죄인은 그의 죄를 용서 받는다.

그것이 우리 구원자께서 요한복음 16:7-11 에서 약속하신 확신의 위로이다.

실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죄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확신하게 하지 않으면 그의 죄를 고백할 수 있거나 할 사람은 없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포함된 다섯 가지 사항들이 있다.

## 그 영의 책무

주 예수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7 절).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16 절). 주 예수께서 우리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택하신 자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역시 성령 하나님도 위임을 받은 우리 거룩한 보혜사로서 죄인들을 택하시려 오신다. 그는 아버지께로 보냄 받았으며 구속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효험 있게 적용하고,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얻은 구속을 효험 있게 적용하며, 구속 받은 자 위에 피를 뿌리기 위하여 아들께 보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은 언약의 인침으로 오신다 (에베소서 1:13-14). 그분은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부르며,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한 언약의 책무를 갖고 오신다. 그분의 책무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17). 그의 책무는 구속자와 구속 받은 자를 연합하는 것이다. 그분의 책무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이다. 주 예수는 다윗이 메비보셋을 얻기 위하여 시바를 보낸 것처럼 그분의 영을 그분께 선택 받은 자에게 할 일과 함께 보내는 것이다. — “그를 잡아라!” 그리고 그분이 오면, 구속 받은 자를 구속자에게 데려 간다.

## 그 영의 오심

사랑의 약속된 때에 주 예수께서 그의 구속 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의 속량 받은 자를 “언약의 매임 안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의 영을 보내신다 (예레미야 29:11-13; 에스겔 16:6-8; 20:37; 37:1-14; 요한복음 3:3-8). —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성령 하

나눔께서 전능한 은혜 가운데 오실 때,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은 거듭 난다. 죄인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자에게 오게 하심으로, 죄인 안에서 그리스도는 계시되고 믿음은 창조된다. 이것이 그 영의 효험 있는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에베소서 1:3-14).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이 주 예수를 신뢰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수행된다 (에베소서 1:13). 그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6:7-11 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 그 영의 확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권능 안에서 오실 때, 그분은 죄인이 그의 죄를 알게 하며, 그의 죄 대를 대신하게 된 속량을 알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그의 죄가 용서 받는 것을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6:7-11). 우리가 우리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며, 씻음의 샘이 우리 앞에 열리고, 우리는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 안에서 깨끗하게 된다 (스가랴 12:10; 13:1; 요한일서 1:7-10).

### 그 영의 정복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13).

“인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Matthew Poole 이, “크게 강조하

는 말; 그 말은, 깨달음의 대상으로서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의지의 복종을 발견하는 길로의 안내임을 엄밀히 강조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때, 반역자를 정복함으로써, 우리를 모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게 하고, 그분 안에서 계시된 모든 진리: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 우리 구원자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분의 구원에 대한 진리에 머리 숙이도록 달콤하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 그 영의 위로

그러나 그 영의 확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위로를 어떻게 주는가? 첫째, 이 그 영의 확신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다 (요한일서 4:9-10). 둘째, 이 성령의 확신의 역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을 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넓게 뿌림으로 우리 혼에 위로를 준다 (로마서 5:5-11). 셋째, 성령 확신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 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한다 (요한일서 4:16-19).

모두 환호하라! 속량의 어린 양,  
모든 자를 위해 단번에 드러졌네,  
그 위대한 나는이다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타락에서 구속하셨네.

당신의 효험 있는 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적용되니,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온전케 하네, —  
대가 없는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네.

이제 정죄함 없네,  
선택 받은 민족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주께 머리 숙이네,  
또 당신의 은혜 안에 승리하네.

여기서 나의 혼이 안식할 것이니,  
예수의 피가 적용됨이라,  
구속 받고 온전하며, 언제나 축복 받으니,  
그분 안에서 내가 만족하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라: —  
하늘 주와 온전하게 되니,  
영화롭게 될 것이라네!

## 108 장. 의의 확신—요한복음 16:7-11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7-11)

하나님의 영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죄인에게 오실 때, 죄인에게 의에 대하여 확신시키신다. —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요한복음 16:10).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아는가? 의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아는가?

그분의 전능하고 구원하는 은혜로운 운행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의에 대하여 확신시킨다. 이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다. 이 의에 대한 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의를 산출할 수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하나님께 하신 그분의 순종으로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다는 확신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구원자의 이름

이 여호와-치드키누이다, — “주 우리 의” (예레미야 23:6; 33:16).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보라, 죄의 벌 아래 죽임 당했으며, 장사되고, 다신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다시 오르셨으며, 영원한 영광의 보좌로 높이 지셨고,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모든 충만한 의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확신시키신 그리스도를 보라 (로마서 8:1, 3, 4, 34).

산상 수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만약 마태복음 5 장의 마지막 구절을 본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선한 것을 행하려 신실하게 노력하는 것보다 더, 그리고 의롭게 되기를 진정 갈망하는 것 이상인 것을 볼 것 있다.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

사람이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더 잘 분명하게 주어질 수 있는 대답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48). 온전함의 이 요구, 온전한 거룩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 반복해서 주어진다 (레위기 19:1-2; 20:7; 베드로 전서 1:15-16; 히브리서 12:14; 계시록 21:27).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2). 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도 거룩할 것을 요구한다.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5:20 에서 우리 구원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고대 유대인들에 의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헌신되고, 가장 영적이며,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하여, “만약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둘이 천국에 간다면 그 하나는 서기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고 하면서 매우 높은 존경과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외적인 종교적 의에 있어서 그 두 집단의 사람들을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여겨졌다. 경건의 일에 있어서 그들은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장시간 기도하였으며, 따라서 모두가 그들의 경건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자비의 일에 있어서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자선을 베풀었기에 모두가 그들의 관대함에 인상받았을 것이다. 공평성의 일에 있어서 그들의 총 수입에서 십 퍼센트를 떼어내어 십일조를 냈다. 예절과 환대의 일에 있어서 그들은 종종 연회를 열었고, 심지어 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열었다 (누가복음 7 장).

## 세 가지 공과

하지만, 구원자께서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신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우리 구원자는 마태복음 5:20 에서 세 가지 점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1. 의가 없이는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을 수 없다.
2. 율법적인 바리새인의 의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 어떤 죄인이든 구원 받도록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거룩하게 약속되고 받은 바 된 대속자와 대표자의 의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그 대속자와 대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의이다 (예레미야 23:6; 고린도전서 1:30-31; 고린도후서 5:21; 로마서 9:31-10:4).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이며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히브리서 12:14).

죄를 범한 죄인이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치드키누—주 우리의 의 안의 믿음을 통해서이다. 의에 대한 무지와 혼란이 그다지 많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의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의에 무지하여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하고 있으며,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만 그들 자신을 복종하기를 거절하므로, 그것은 지대하게 중요한 주제이며 모든 영원히 매인 죄인에게 크게 관심이 있을 주제이다. 여기 이 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여섯 가지 사항이 있다.

### 하나님의 요구

첫째,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의 책은 거룩한 분이신 주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심을 광범위하게 밝힌다. 의는 그분에 의해 요구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온전하게 거룩하시므로, 그분은 온전한 거룩을 요구하신다. 온전하게 거룩하지 않은 어떤 것이든 누구든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거룩의 불로 소멸될 것이다 (창세기 17:1). — “열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찌니.” (레위기 22:21).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베드로전서

1:16). 히브리서 12:14 에 좇아야 할 기록이 있으며,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성품 기록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내면에서, 마음에서, 우리 존재의 모든 핵심에서 기록해질 것이 요구된다. —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그분은 행위 기록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외적으로, 행실에 있어서 기록해야 한다. — “너희도 모든 행실에 기록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15). 한 마디로, 하나님은 완전한 기록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가 없어야 한다. —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찌라.” (에스겔 18:20).

하나님은 기록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을 산출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의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기록되기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12). 순수는 우리 부패한 본성에서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를 구할 수 조차 없으며, 우리 과거 기록을 수정하는 것은 훨씬 더 못하며, 우리 현재 사악함을 바꿀 수도 없고 (시편 51:1-5), 우리 장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도 없다 (갈라디아서 3:10).

하나님의 율법의 전체 목적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대속자가 필요함을 확신시키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3:24). 그리고 죄인의 마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는 그에게 죄에 대하여, 대속자의 필요에 대하여 확신시키는 것이다.

의에 대한 사람의 정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에 관련된다. 지금의 종교적 세대에 있는 문제는 그들이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절대 보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6:1-7).

하늘에 이르기 위해 사람이 얼마나 선해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 만큼 선해야 한다. — “열납되기 위해서 온전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온전함이 부족한 어떤 것도 열납하실 수 없고 하시지 않을 것이다. —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단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3-4), 그리고 그 외에 아무도 없다. 하지만, 기록되기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8) —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10) 하였다.

## 의가 없음

둘째, 당신과 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없음을 일깨우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 가운데 모든 의를 잃어버렸다. —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10) 우리는 의를 산출할 능력이 없으며, 또 심지어 의를 향하여 어떤 기여도 할 능력이 없다. —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3) 아담의 모든 아들딸은 모두 죄인들이다. 우리는 동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우리는 모두 모태로부터 거짓을 말하며 방황하였다. 우리는 모두 물을 마시듯 악행을 마신다. 사람의 타락이 너무도 철저하고 완전하여 의로

운 우리 행동조차도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아무리 좋아보아야 모두 공허한 상태이다 (시편 14:2-3; 태시편 51:5; 예레미야 17:9; 마태복음 15:19; 로마서 5:12).

실상은, 천연적인 사람은 절대 의가 무엇인지, 어디서 찾을 곳이 어디인지, 혹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다. —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15).

이것이 확립되어야 할 첫 번째 사항이다. 우리는 의가 없으며, 의를 산출할 능력도 없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20). 그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주는 이 땅 위에 한 사람의 아담의 아들딸도 하늘 왕국을 기업으로 받고 거하리만큼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자가 결코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신다.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없고 결단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 뿐이니이다” (시편 39:5) —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6).

어떤 인간의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염려스러운 한, 우리 마음에서 “의”에 대한 생각을 꺼내야 하고, 우리 어휘에서 “의”라는 단어를 꺼내야 한다. 우리 의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다 (이사야 64:6; 이사야 1:16-20). 사람 마음의 생각 속의 모

든 상상은 오직 악한 것만 계속된다 (창세기 6:5). 하나님의 책을 읽으면 성경 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알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며, 그 자신의 철저한 사악함을 한탄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온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의를 산출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의가 산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사람은 의를 산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산출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의 의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으로서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영원한 의를 세우셨고 가져오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려 오셨다 (마태복음 3:15; 5:17). — 그가 율법을 확대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쁘시다.” (이사야 42:21). 그분은 다니엘 9:24 에서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그분은 범죄를 끝내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심으로 죄의 종말을 이루셨다. 그분은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부정에 대해 화해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와 연합된 머리로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다.

그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대표자로서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 대속자로

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고 선포한다 (예레미야 23:6; 33:16). 그것은 우리 앞에 있고 고린도후서 5:21 과 로마서 5:18-21 에서 달콤하게 선포된 말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의이며, 그가, —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30-31)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다.

## 전가된 의

넷째, 하나님의 책 안에서 계시된 의에 대한 네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대가 없는 칭의 가운데 의를 위해서 그분만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돌려진다는 사실이다.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드는 것에 의해서 이다. 칭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귀한 아들을 죄로 삼으심과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신다 (로마서 5:18-19; 고린도후서 5:21). 어떻게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되었나?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한다. 사람의 의견들은 완전히 상관 없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가? 아무것도 없다. — “대가없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20-26).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것은 한 번에, 과거에 행했던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한 번에, 그가 인격적으로 포함되었던 역사였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가 사용한 “되었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그것은 현재 시제로, 수동형이며, 우리 편에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적용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계속하여 되게 하다”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죄가 되신 자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자들이 어떤 것을 행함이 없이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고 하고 계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영원히 — 우리 위대하고, 모든 지혜로 영원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안에서 은혜에 속한 그분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로마서 8:28-30; 에베소서 1:3-6; 디모데후서 1:9-10; 유다서 1). 만약 우리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영적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열납되었다면, 그것은 불의한 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서이다.

합법적으로 —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적인 의미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 대속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신성한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다.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버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칭의 가운데 신성한 전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었다. (로마서 3:24; 로마서 4:25; 5:12, 17-21).

체험적으로 —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문제는, 우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닌 한편, 단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신 것은 단지 율법의 문제였던 것 그 이상이다. 그것은 우리 체험 밖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 체험의 밖이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적으로 새로 낳 가운데,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베드로후서 1:4). 하나님께 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 요한이 우리에게 말

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요한일서 3:9)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이다 (골로새서 1:27). 우리는 이 축복된 것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우리 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열납 됨과 우리 죄들의 용서 가운데 지속적 확신 가운데 체험한다 (요한일서 1:7-2:2).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자 안에 있다. 그 의미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7:5). 우리의 제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달콤한 향으로 하나님께 열납 된다 (베드로전서 2:5). 우리 죄들은 결코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나, 부단히 용서받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한 때 죄가 되셨던 그분과 하나이고, 그분 안에서 부단하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던 분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죄인은 절대적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된다 (고린도후서 5:17; 골로새서 1:12). 주의 몸을 분별함으로, 말하자면, 대속자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분 자신을 대속자로 알고, 그분의 성취하신 일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므로, 당신과 나와 같은 죄인들은 그분의 교회에 들어갈 가치가 있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가치가 있고, 주의 만찬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그분의 영광 안에서 들어가고 영원히 소유할 가치가 있다!

영원하게 —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될 것이다. 우리는 의 가운데 높여질 것이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하늘의 기록 책에 따라 의롭게 선포될 것이다 (계시록 20:11-15; 예레미야 50:20). 그 위대한 날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방황하는 세상을 의롭다고 선포할 것이다 (에베소서

2:7).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체험적 실재 가운데,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축복 가운데 영원히 기뻐하기 시작할 것이다 (계시록 21:2-5; 22:1-6).

나는 경이로움 속에 길을 잃었다! 이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 나의 중보자로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유한다.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된다.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곧 나도 그분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17-21).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32).

## 주어진 의

다섯째, 칭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성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인하여 주어진다. 거듭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 인하여 성별 된다 (갈라디아서 5:23-24; 베드로후서 1:4; 골로새서 1:27; 요한일서 3:5-9). 믿는 자들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진 자들이며 (로마서 7:14-24), 하나님으로 난 거룩한 씨이며 죄를 지을 수 없고 (요한일서 3:9), 죄 외에 아무것도 아닌 육체이다 (로마서 7:18). 이 두 가지 본성, 육체와 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서로 지속적으로 전쟁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옛 본성을 개선하거나, 고치거나,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분의 택한 자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신다. 우리 예전의 아담에 속한 타락한 죄로 충만한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육체는 영에 의해서 압도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영은 육체를 대항하여 전쟁을 한다. 그러나 결코 육체를 개선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는 죄로 충만하다. 육체는 저주 받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육체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육체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 믿는 자의 이중적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5 장, 로마서 7 장, 요한일서 3 장은, 모든 믿는 자 내에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죄 밖에 지을 수 없는 옛 아담의 본성과 하나님께로 나고, 죄를 지을 수 없고, 오직 의만을 행할 수 있는 새 의의 본성이 있음을 바울과 요한 모두 가르

치는 것의 결론이 없이는 정직하게 해석하기란 전혀 불가능하다.

성화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옛 본성의 개선이 아니라,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하므로 새로운 본성의 성숙이다.

모든 믿는 자는 고통스럽고, 쓰디 쓴 고통 속의 체험으로 그의 본성의 이중성을 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든 그가 모든 것 중에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은 가운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면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크게 갈망하는 그것은 이 세상 삶에서 철저히 불가능하다.

당신에게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가? 비록 당신 내적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기뻐 할지라도, 당신의 지체 안에 또 다른 악의 율법이 있고, 당신을 향하여 경고한다. 당신은 선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악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존재하여,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 선에 대한 당신의 최선이고, 고귀하며, 가장 진실한 행동들조차도, 정직하게 평가할 때, 동기나 실행에 있어서 죄로 손상되어서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의는 불결한 누더기이다!”

그것은 믿는 자를 이 세상에서 생명에 만족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보다 더한 것은 육체와 영 간의 이 전쟁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곧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내려 놓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그분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아갈 것이다! 하지만, 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앞에서 의롭게,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리고, 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간주하라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5:9-11; 6:11; 베드로전서 4:1).

## 보상 받은 의

여기 이 축복의 책 안에 계시된 의의 여섯 번째 방면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그것의 기쁜 전망 안에서 우리가 그 의를 붙잡고 살수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모든 죄인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그분의 완전한 의를 보상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는 하늘에 들어갈 것이며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상으로 받은 의가 될 것이다. 부활 후 즉시 우리는 모두 우리 행위의 기록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계시록 20:12-13). —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재판관은 하나님-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분이다 (요한복음 5:22; 사도행전 17:31; 고린도후서 5:10).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기록에 따라, 그 책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찌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찌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50:20).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자가 구원 받은 후에 저지른 범죄와 실패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날에 그것들을 드러내실까?” 그 질문이 이제까지 생긴 유일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연옥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의 잔재를 유지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율법의 채찍과 공포가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 죄들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으며 결코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4:8).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대한 우리의 빚을 지불하셨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범죄를 없애 버리셨던 그분은 결코 그것들을 다시 쓰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죄를 덮으셨던 그분은 결코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이다!

완전하게 의롭고, 하나님 자신의 기록에 따라 의로운 것으로 보이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오직 선 외에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선한 것, 죄의 어떤 점도 없고, 부정한 것의 주름이나, 범죄의 흔적이 없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11).

누가 이 온전하게 의로운 자들인가?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이다 (고린도 전서 6:9-11; 로마서 8:1, 32-34). 하늘은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해 얻어졌고 사들인 것이었다 (에베소서 1:11). 그리스도는 우리 선주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소유로 취하셨다 (히브리서 6:20).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다 (로마서 8:17).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에게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이 받은 모든 영광을 주셨다 (요한복음 17:5, 20).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하늘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다 (골로새서 1:12).

영화는 구원의 완결일 뿐이며, 구원은 은혜로만 존재한다. 그것의 의미하는 것은 하늘 기쁨과 영광의 어떤 부분도 우리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모든 보상이다. 모든 영적 축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소유이며 (에베소서 1:3),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다. 그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그런 의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소유이다. 그분의 의가 우리 소유이므로, 우리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을 그런 거룩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거룩은 우리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 복된 날이여!) 그분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영원히 닦아 내실 것이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1-5)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시록 22:3-6)

## 109 장. 심판의 확신—요한복음 16:7-11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7-11).

### 완료된 심판

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타락과 범죄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신한다. 내가 그분의 무한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신 분, 죄로 충만한 자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기로 한 때 되었던 분,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분인 하늘에 계신 인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의 의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가 거룩한 하나님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열납을 허락하기 위하여 무한하게 가치가 있고 충만하다는 것을 철저히 확신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은 나무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정복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철저하게 심판에 대하여 확신하며, 심판이 갈

보리에서 이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자께서 대신 죽으셔야 했던 모든 자들에 대하여 완료되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인에게 확신을 시키신다. 이 심판의 확신은 세 가지 이다.

1.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7:31). 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사탄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를 묶으시고, 지옥에서 영원한 파멸을 그에게 선고하심으로, 그분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찌라.” (에스겔 18:20; 요한복음 3:36; 로마서 6:23).
2. 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은 공의롭다. 죄는 행위 이상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이다 (로마서 8:7). 그것은 하늘의 왕께 대항한 반역이며 우리 창조주에 대항한 적의이다. 하나님의 선과 공의는 사악함이 세상에서 힘을 잃게 되며 죄인들이 영원한 파멸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요구한다 (시편 11:4-7).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옥 안에 벌하셔야 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만큼 온전하게 공의롭다. 그분께서 당신을 영원히 지옥 안에 벌하셔야 한다면, 그분은 공의롭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
3.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심판이 끝났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죄들을 심판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였고 죄에 대하여 우리를 벌하셨으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공의의 충만한 만족에 이르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18-21; 베드로전서 2:24; 3:18).

믿는 자에 대하여 심판이 끝났음에 대한 증거는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사로잡으셨다는 사실이다 (히브리서 2:15).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이나, 그분의 율법이나, 그분의 공의로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 당신의 죄들은 영원히 용서받았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의롭게 되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 그리고 당신에 대하여 심판은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4).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사시고 하늘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고, 심지어 그분의 택하신 모든 자를 위한 죄의 사함 조차도 얻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복된 용서가 우리 것임을 확신한다. 부활하신 구원자를 보라, 그리고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4:1-2).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속자로서 이 세상의 왕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심판은 끝났다 (계시록 20:1-6; 로마서 8:1-4, 33-39).

누가 우리를 죄로 책망할 것인가?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탄은 패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세상은 정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율법은 준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공의

안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 공의가 만족되었다. —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로마서 8:33). “의롭다 하다”라는 말은 현재, 선형 시제로서, 칭의가 계속하여 성취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효험이 있고 계속하여 계시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1:9).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여 온전하게 의롭다고 선포하신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죄로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로마서 8:34). 그리스도의 양 가운데 하나라도 영원히 멸망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분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하늘에 앉으셨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영광 가운데 중재하신다 (요한일서 2:1-2).

누가 우리를 갈라놓을 것인가?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권력도, 어떤 존재도, 어떤 인간이나 사탄이나 지옥의 마귀의 행위도 우리를 구원자의 사랑에서 갈라 놓을 수 없다. 로마서 8:35-39 를 읽고 기뻐하라!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 놓을 수 없다. 어떤 영적 고난도,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시간 가운데 있는 어떤 것도, 영원 가운데 있는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영의

인침은 파기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 질 수 없다. — 보증을 찬양하라!

## 장래 심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심판이 끝났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여전히 우리 모두가 거짓 종교의 관념에 지속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의 종교로 인하여 가족과 친구와 대적과 설교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의문들이 여전히 일어나며 때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힌다.

-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는 어떤가?
-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어떤가?
-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 죄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나는 장래 심판의 문제를 직접 말해야 하겠다.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두 가지 특정한 단락들이 있다 (고린도후서 5:10-11; 계시록 20:11-15).

(고린도후서 5:10-11)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

(계시록 20:11-15)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얼마 전에 나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염려와 문제를 표출하였던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심판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면 둘이 있을까요? 우리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먼저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로서 우리 행위에 대하여 두 번째 심판을 받을까요?”라고 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뱀의 머리를 영원히 밟아버리셨기 때문에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거룩한 심판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대하여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반면, 심판의 날은 믿는 자에게 공포나, 심지어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으로 결코 묘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 대하여, 심판의 날은 언제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잘못 판단되고 있다. 그분의 종들은 부도덕한 사람들로 욕설과 중상을 당한다. 그러나 그 마지막 큰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변론하실 것이며 그분의 종들을 변론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4:3-5). 나는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평강을 갖고 그렇게 한다. 만약,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피와 완전한 의를 통하여, 성경이 그 큰 날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보자.

## 복음 계시

첫째, 여기 복음의 계시가 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때의 표징에 대하여 스스로 염려하지 말며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표시들이다. 예언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책을 연구하여 얻어질 영적 가치는 만약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 그것들은 모두 예견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자마자 재 작성 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우리 주의 오심에 대한 표적들을 기다리도록 명령 받지 않았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도록 명령 받았다. 이 복된 사실을 당신의 마음 속에 고정하도록 해라 —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개인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9-11). 그 동일한 하나님-사람,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우리 대표자로

서 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속량의 대속자로서 죽으신 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분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3)고 하셨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16)고 기록하였다. 그는,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7).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기 19:25-27).

그분은 한 때 연약함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분은 한 때 굴욕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분은 한 때 멸시 받으려 오셨다. 그분은 칭송 받으려 다시 오신다. 그분은 한 때 고난 받으려 오셨다. 그분은 정복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 공표함 없이, 예상 밖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될 것이다. —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2). — 우리 주께서,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3). 주께서는 우리가 환란이나, 이스라엘의 다시 모임이나, 유대 성전의 재건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신다. 만약 당신이 표적과 때와 절기를 기다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책에서 주의 오심을 공표하게 될 것으로 언급된 유일한 것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16).<sup>x</sup>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떤 순간이든 나타나실 수 있다. — “불찌어다, 그가 오신다!” (계시록 1:7). 언제나 믿음과 기대의 발끝으로 서서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던 데살로니가 인들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10). 믿음은 언제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디도서 2:13).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곧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그분은 의와 불멸과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가지고 오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8; 야고보서 1:12).

## 일반적인 부활

둘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땅 위에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자의 크고,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계시록 20:13; 요한복음 5:28-29). 내가 천명하려는 것에 대한 어떤 논쟁이나 증명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그것들이 성경 안에서 계시된 것처럼 분명한 사실들을 당신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들에게 거슬러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은, 그것들을 조롱하려는 자들, 그것들을 경멸하는 자들, 그것들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심을 확신시키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첫째,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는 무덤에서 일으켜질 것이다. 모

두가 일으켜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부활 가운데 구별된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다. —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16). 하나님의 성도들의 몸 (모든 구약의 성도들, 모든 순교자들, 주의 재림 전에 죽었던 모든 자)은 그들의 무덤에서 일으켜질 것이며 그들의 혼과 재 연합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그리고, 잠든 성도들이 깨어난 후 즉시, 땅 위에 살아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변화될 것이며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1-58). 우리 주께서 그분의 재림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 내려오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돌아오기 위하여 나갈 것이며,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땅을 태우고, 사악한 자를 멸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려 오시기 때문이다. — 그 날이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모든 속량 받은 몸을 모으신 후에, 그분의 오심의 광채로 모든 사악한 자를 멸하신 후에, 모든 사악한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사악한 자에 대한 부활도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부활 가운데 아무런 노래가 없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호출을 발하실 것이다. 그분의 은혜를 그들이 경멸하였고, 그분을 대항하여 죄를 지었던 분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몸과 혼은 이제 죄 안에 연합되었고, 공포 가운데 연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요구에 머리 숙이지 않을 자에게 한 마디 위로의 말도 없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다면, 당신은 소망 없이,

평강 없이 죽는다. 당신의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 될 것이다!

## 중벌

셋째, 부활 후 즉시, 우리는 모두 우리 행위의 기록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심판 받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5:10-11; 히브리서 9:27; 계시록 20:12-13). 우리가 서서 맞는 그 판사는 하나님-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분이다 (요한복음 5:22; 사도행전 17:31; 고린도후서 5:10-11).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기록에 따른 책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책들이 열릴 때, 얼마나 큰 공포의 충격들이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고 속량을 받지 않은 자들의 마음과 혼을 엄습하게 될 것인지! 그 책을 열면, 당신이 이제까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행동 가운데 저질렀던 모든 범죄, 모든 위법 행위, 모든 죄가 당신의 완전히 깨어나고 철저히 공포에 떠는 양심에 노출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의 예언의 이상 속에서 보았던 것이다. —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 7:10).

이것은 비유적인 언어임을 실감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책이 필요치 않으시다. 그러나, John Gill 이 썼던 것과 같다. “책과 행위에 의한 이 심판은 정확하고 엄밀하고, 공의와 공명정대한 것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재판정 가운데 있는 법전에 따라서 시행될 것이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책을 기록하고 지키심으로 종종 대표된다. 그리고 이 책들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책들인가? — 하나님의 전지한 책 (말라기 3:5) — 하나님의 기

역의 책 (말라기 3:16) — 창조의 책 (로마서 1:18-20) — 하나님의 섭리의 책 (로마서 2:4-5) —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책 (로마서 2:12; 출애굽기 20:3-17) — 복음의 책 (로마서 2:16) — 양심의 책 (로마서 2:15)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군가에 대하여 범죄가 있고, 죄가 있고, 위법이 발견될 수 있는 어떤 자들이 있고, 하나님 자신의 전지한 눈에 조차도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찌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찌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50:20). 그들의 이름은 다른 책,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이 친히 시작되기 전에 쓰시고 인치셨던 책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다. 이 책 안에 거룩한 택정의 기록이 있으며, 거룩한 보증인의 이름이 있으며, 완전한 의의 기록이 있으며 (예레미야 23:6; 33:16), 피의 속량과 영생의 언약으로 완전한 만족의 기록이 있다.

이런 질문이 종종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그들이 구원 받은 후에 저지른 죄들과 실패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날에 그것들을 드러내실까?” — 그 질문이 언제나 생기는 유일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연옥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리의 위협과 공포를 지속시키려 하기 때문이며, 그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율법의 채찍과 공포로 붙잡아 두기를 희망하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자신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죄들은 그리스도께 돌려졌으며 결코 우리에게 다시 돌려지지 않을 것

이다 (로마서 4:8).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대한 우리 빛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범죄들을 없애셨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코 다시 기록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죄들을 덮으셨던 분은 결코 그것들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 의이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결코 어떤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마태복음 25:31-40).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신음과 슬픔의 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혼인 잔치가 될 것이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그 위대한 날에, 그 혼인 잔치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구원자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 영광스러운 보상

넷째, 온전하게 의로운, 하나님 자신의 기록에 따라 의로운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선을 행하고, 오직 선, 완전한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어떤 죄의 점도 없고, 위법의 주름도 없으며, 범죄의 흔적이 없는 자들은 영생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기록되기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 22:11).

이 온전하게 의로운 자들은 누구인가? 천연적으로는 아무도 그렇

지 않고,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된 자는 없다. 이 의로운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이고, 모든 구속 받은 자이며, 모든 부름 받은 자이며, 모든 의롭게 된 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이다 (로마서 8:1, 32-34).

사악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옥에서 사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정도가 다르게 있을지라도, 구속과 의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성도들 가운데 보상과 영광의 정도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졌으며 사들였다 (히브리서 9:12).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 기업을 받도록 예정되었다 (에베소서 1:1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주자로서 하늘 영광을 소유하셨다 (히브리서 6:20).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다 (로마서 8:17).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에게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이 얻으신 모든 영광을 주신다 (요한복음 17:5, 20).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하늘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다 (골로새서 1:12). 영화는 오직 구원의 완성이며, 구원은 은혜로만 존재한다!

그 의미는 하늘 기쁨과 영광의 어떤 부분도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모든 보상이다. 모든 영적 축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 소유이다 (에베소서 1:3). 그리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것을, 그분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가져가지 않으실 것이다 (로마서 11:29).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21, 23).

그것이 하나님의 책 안에서 우리 앞에서 제시된 심판의 확신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속한 전능과 공홀로 당신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 완전한 보상

다섯째, 나는 아직 그리스도 없는 자들을 경고해야 하는데,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저주 받을 것이다! 심판의 그 크고 끔찍한 날에 죄의 유죄가 발견된 모든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누그리지 않은 진노에 고통 받게 될 것이다!

한 사람씩 주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 앞에 부르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마태복음 25:41)고 하신 것과 같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그를 잡아라! 그 수족을 결박하라!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마태복음 22:13) 하실 것이다. 당신을 위한 어떤 공홀도 없을 것이다. 당신을 위한 어떤 동정도 없을 것이다. 당신을 위한 어떤 애통함도 없을 것이다. 당신을 위한 어떤 소망도 없을 것이다. 당신을 위한 끝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지옥에 가기에 합당하다! 당신은 지옥에 가야 한다!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큰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을 엄습할 것

이며 당신을 영원히 과멸할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간청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그분의 귀한 아들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라. —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고린도후서 5:11). 이제 그리스도께 오라. 영원이 당신 앞에 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라 (고린도후서 5:14-15). 그분의 완성된 속량을 보라 (고린도후서 5:21). 그분의 놀랍고, 전능하며, 구원의 은혜를 보라 (고린도후서 5:17-21).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

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14-21).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내 자신의 의가 없이, 그분의 의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당신을 위하여 그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 110 장. 주의 기도—요한복음 17:1-26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1-26).

성경의 이 26 절 안에서 이제 하늘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가시려 하였으며,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려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 제사장의 높은 제사장 기도를 본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전문을 남기셨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 가운데 이곳 세상에 계신 동안 자주 기도하셨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 전체가 기록된 우리 주 예수의 유일한 기도이다. 이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께서 우리 대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중재의 예로써 이 기도의 전문을 우리에게 남기셨으며, 아버지의 우편에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서 지금도 행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었으며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기도는 우리 대제사장, 우리 중보자의 기도이며,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

는 기도이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를 하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8:34).

히브리서 7:25 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는 것을 본다. 따라서, 이것은 대 제사장의 기도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분 중보자의 기도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은 한 분 오직 한 분이라고 한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그분의 효험 있는 중재의 기도이다.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분 자신이다. 그분이 기도하셨고, 종종 기도하셨으며, 정직하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게 격려한다 (히브리서 4:14-16). 기도는 하나님을 변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변케하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엮드리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를 변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게 한다. 만약 우리 주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분의 종들은 확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 세 가지 언명

요한복음 16:28 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삶과 사역, 그분의 위격과 역사를 세 가지 분명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하셨다. 그 말씀을 보라.

1.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 이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 아버

지계로부터 오셨다고 선포하는 분은 누구인가? 그 선포는 분명 그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적어도 이런 두 가지 것들을 가린다. 첫째, 만약 그분이 아버지께로 오셨으면, 그는 분명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 안에 계셨음이 분명하다 (요한복음 1:1, 18). 둘째, 만약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오셨으며, 그는 특정한 계획을 위하여, 특정한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마태복음 1:21; 히브리서 10:5-10).

2. “세상에 왔고” —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 어떻게 그분이 이 세상 속에 오셨는가? 그분은 처녀의 태를 통하여, 초 자연적이고, 거룩한 개입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처녀의 태 안에 잉태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으로 오시게 되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그분 자신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 오셨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셨다 (빌립보서 2:5-7).

왜 그분이 이 세상 속으로 오셨는가?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려 오셨으며, 우리 죄들을 없애고, 우리를 위한 죄 속량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부어졌던 그분 자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 오셨다 (갈라디아서 4:4-6).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오셔서 할 일을 하셨다.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으며 (로마서 5:19)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로마서 3:24-26). 주 예수 그리스도는 효험 있게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속하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

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다 (갈라디아서 3:13).

3.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할 것을 완료하셔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분을 보내셨던 아버지께 가셨다면, 그분이 이곳에 보내져서 하셔야 할 일과 아버지께서 그분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백성을 인정하시고 받으셨던 것은 분명하다 (히브리서 10:11-14).

히브리서는 이 동일한 세 가지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를 규정하는 사실들로 시작한다. —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3).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 속량의 제물이며 대속자이며, 그로써 우리 구속이 성취되었다.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며 아버지께 그가 구속한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신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전능한 구원자이시며, 그로써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며, 그로써 우리가 하늘 그 자체의 바로 그 영광 안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마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셨나, 왜 그것을 하셨는가, 지금 어디 계신가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설은, 여기 요한복음 17 장에서 그분의 대 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

에 하신 그 위대한 기도가 우리 구속을 성취하였다.

## 네 가지 요구

요한복음의 이 17 장에서 우리 큰 대제사장께서 네 가지 강력한 요구들, 아버지께서 거절하실 수 없는 요구들을 하신다. 이 요구들 가운데 하나도 거절될 수 없는데, 그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역사의 근거 위에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네 가지 요구들은 요구 이상의 것들이다. 그것들은 우리 주권적인 구속자인 그리스도의 주장이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도록 주신 일을 마치셨을 때 그분이 요구하신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친다.

##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분의 첫 번째 요구는 이것이다: —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 절).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중보자와 대속자로서 하신 요구이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칭찬을 위한 공명심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 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인자로서 권능과 통치를 위한 기도이다. 그리고 그 요구의 기초는 그분에 의해 1-4 절에서 특정된 것처럼 은혜에 속한 언약의 모든 조항에 대한 그분의 성취이다.

1 절 — “예수께서 이 말씀 (앞 장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분이 자주 말씀하셨던 시간,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한 시간, 그분이 세상 속으로 오시기 위한 시간), 아들을 영화롭게

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분은 그분께 주어져야 할 영광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서 우리 중보자로서, 인자로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여기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이루실 역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들어 올리고 받치실 것이며, 그로써 그가 따라서 그분의 모든 속성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계신다.

2 절 —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 아버지께서 우리 중보자이고 구원자이신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의 모든 권위와 통치와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35; 마태복음 28:18). 이 총체적이고, 주권적인 통치와 권세와 권위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구속자로서 거룩하고 영원한 명령으로 그분께 속한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왕국에 대한 지명되고 의로운 집행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행사하시므로 그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 (요한복음 6:37-39.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락이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여섯 번이나 이 기도 가운데 언급하신다 (2, 6, 9, 12, 24 절).

3 절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종교적 체험이 아니다. 영생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개선이 아니다. 영생은 영적 생명이다. 그

것은 주권적인 거둬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망한 죄인들에게 주신 생명이다. 영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영에 의해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개인적인 교제로써 깨닫는 것이다 (요한복음 14:6-9; 요한일서 5:20).

4 절 —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여기 그 생애의 모든 날을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존귀히 여겼던 사람이 있다. 그의 삶과 그의 죽음 가운데,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셨고 그분의 백성의 의롭게 하는 자가 되었다 (로마서 3:24-26).

우리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이 세 가지 것을 가리키시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1. 그분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분의 완전한 생명으로 가져왔고, 세우셨고, 이루셨던 의 (예레미야 23:6).
2. 그분이 갈보리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려 하셨던 구속 (요한복음 19:30).
3. 그분이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그에게 주셨던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마침내 이루실 왕국 (고린도전서 15:24-28;

히브리서 2:13).

우리 구원자께서,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 절)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완성된 일의 기초 위에서 이다.

## 내 백성을 보전하옵소서

둘째, 6-19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이 큰 요구를 하신다: —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 절). — 그분의 기도는 이것이다: 아버지, 나의 믿는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믿는 백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주목하라. 여기 열두 가지 사항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대한 사실이다.

1. 믿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람들이다.

6 절 —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속성이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신가 이다. 기록된바, —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13).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의 이름은...

- 여호와이레(Jehovah-jireh) (창세기 22:13-14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 여호와라파(Jehovah-rapha) (출애굽기 15:26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 여호와넛시(Jehovah-nissi) (출애굽기 17:8-15 “여호와 우리의 깃발”).
- 여호와므카데쉬(Jehovah-mkadesh) (출애굽기 31:13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 여호와샬롬(Jehovah-shalom) (사사기 6:24 “여호와 우리의 평강”).
- 여호와라야(Jehovah-ra-ah) (시편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 여호와치드케누(Jehovah-tsidkenu) (예레미야 23:6 “여호와 우리의 의”).
- 여호와삼마(Jehovah-shammah) (에스겔 48:35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

2. 믿는 자들은 인자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

7 절 —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줄 알았나이다.” —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인정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과, 그분이 아직 하지 않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음을 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다 (고린도후서 5:19-21; 사도행전 17:30-31).

3.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며,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구원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냄 받으신 분임을 안다.

8 절 —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4. 믿는 자들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선택 받은 죄인들이며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특별한 대상으로서 효험 있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 드러진 죄인들이다.

9 절 —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 하시는 모든 것, 앞으로 하실 모든 것이 그분의 백성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을 위한 우주적인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의미 없이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구속하셨다. 성령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위함이다 (로마서 8:28).

5.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자

들이다.

10 절 —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운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은혜에 속한 그분 자신의 운행과 그분 안의 믿음과 그분께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결된 구원과 그분에 의한 영원한 영광에 의해 영광 받으신다 (에베소서 1:6, 12, 14; 2:7; 계시록 5:9-13).

6.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믿음 안에서 지켜진다.

11-12 절 —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기서 세상에 있고, 적대적인 대적 영토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보전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에베소서 4:4-6).

7. 믿는 자들은 그들 안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소유할 자들이다.

13 절 —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

니다.” — 이 기쁨은 그분의 은혜의 기쁨이며 (요한일서 3-4) 그분의 구원의 기쁨이다 (요한복음 16:20; 히브리서 12:1-2). —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8.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다.

14 절 —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섬기는 구원자,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해 멸시 받는다.

9.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악의 한 가운데와 악한 자의 가혹한 공격 하에 남겨져 있다.

15 절 —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 아무것도 그리스도께 신실한 순종을 방해하지 않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악과 악한 자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10.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게 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된) 죄인들이다.

16-17 절 —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1. 모든 믿는자,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왕국의 유익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

18 절 —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2.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인 당신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죄인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려 오셨던 특별한 대상들이다.

19 절 —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죄의 제물이 되도록 자신을 따로 분별하였다. 우리의 성화는 세 가지이다. 우리는 택정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유다서 1),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3; 히브리서 10:10),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1:2; 데살로니가후서 2:13), 하나님의 말씀의 조력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었다.

### 나의 구속 받은 자를 구원하옵소서

셋째, 20-23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 아직 구원 받지 않은 그분의 백성에게 한정하여 주목하셨다. 그분의 기도는 이것이다: 아버지, 나의 구속 받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게 나의 보상을 주옵소서

그리고, 24-26 절에서 주 예수께서, 아버지여, 제게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줄 알았삽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우리 구원자의 기도는 충만이 응답 받을 것이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모든 그분의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취된 그분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위대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날,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

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러.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 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니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3-7).

## 111 장. “영생은 곧”—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접근했을 때, 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 하셨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5). 그것은 내가 읽을 때마다, 혹은 요한복음의 17 장으로 전하러 할 때 느끼는 그것이다. 이것은 주의 기도, 우리 큰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기도이다. 그분이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견하고,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나님께 그가 순종하신 것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예견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는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 구속의 때, 세상이 지어지기 위한 때이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 그분은 이것을 5 절에서 자세히 말씀하신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당신의 보좌로 올리소서.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제게 주옵소서. 모든 것에 대한 주로서 또 왕으로서 영원히 저를 확대하소서. 제게 탁월함을 주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 나의 백성의 중보자로서, 그들의 머리와 대표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제게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모든 백성, 모든 택정한 죄인들을 당신의 영원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것이 그분이 2 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 절의 의미임을 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이다.” — 이 권세는 죽음에 순종하는 그분의 맹세의 결과로서,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 주어졌다. 그분이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 삼일 여호와께서 그분, 하나님-사람, 우리 구속자께 우주의 통치권 —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 그리스도의 높여지심과 권세와 통치의 목적은 그가 전능한 은혜의 권세로 그분의 피로 구속 받은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다.

## 이 세상에서 시작

영생은, 그것에 대한 체험과 아는 가운데, 여기 이 땅에서 시작된다. 비록 그것이 영원하지만 (처음과 끝이 없이),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영원을 통하여 소유하게 될 동일한 생명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된다 — 그분의 생명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 나라!”

하나님의 새로 난 자녀의 생명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순간을 체험한 자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엘리야, 수천 년간 하늘에 있던 자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생명이다. 영생은 전

능한 강과도 같다. 그것은 흘러가는대로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 처음 당신의 혼 안에서 솟아났을 때 시작되었던 동일한 강이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자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성장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회미하나,”(고린도전서 13:12) 그러나 우리는 본다. 그리고 당신은 보아야 할 생명을 가져야 했다. 우리가 단지 “부분만 알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리고 알아야 할 생명을 가져야 했다.

믿는 자가 사망할 때, 그는 갑자기 새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망은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이 부담스러운 몸, 죄의 몸, 옛 본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내려 놓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영생, 새로 태어남 가운데 우리에게 덧씌워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다 (로마서 7:24-25).

영생은 여기에서, 새로 태어남 가운데 시작된다. 영생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은사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다! —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11). 우리는 영적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을 명령하고 약속하셨다.

이 영생은 하나님 아들이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그 자신의 피로, 주 예수께서 한번에 지성 소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10). —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18).

“살아계시며, 그가 나를 사랑하셨고,  
죽으심으로, 그가 나를 구원하셨네,  
장사되셨으니, 그가 내 죄들을 멀리 가져가셨고,  
다시 사심으로, 그가 대가 없이 영원히 의롭게 하셨네!”

이 영생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63). 영생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역사로 가련하고 죽은 죄인들 위에 부어졌다 (요한복음 1:11-13; 3:3-8).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주어짐**

아버지의 은사이고, 아들의 계획이며, 그 영의 역사인 이 영생은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분께 아버지께서 주셨던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 영생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에게 주신 은사이다.

우리 구원자는 당신의 마음 속으로 당신이 그분을 들어오게하기를 기다리는 걸인이 아니다. 그분은 전능하고 주권적인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손 안에 계시지 않다. 당신이 그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18). —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요한복음 17:2).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 드려진 많은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구원 받을 것이 분명하며 구원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6:37-40).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드린 모든 자들에게 그분은 시간 가운데 영생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0:24-28). 영원 가운데 한 개인의 택정에 대한 근거와 증거는 시간 가운데 영생의 은사이다 (테살로니가전서 1:4-5; 사도행전 13:48).

##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영생이니.” 무엇인가? 무엇이 영생인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서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다.

##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했으며, 사람이 자신의 가까운 친구와 말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말했다. 그러나 그가 타락했을 때, 아담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생명을 잃었다. 그는 의를 잃었다. 그는 하나님과 관련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관련한 모든 빛을 잃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잃었다. 그는 평강을 잃었다.

아무도 천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알 수 없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다. —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27). —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복음 8:19).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천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하지만, 사람은 신이 있어야 한다. 개가 주인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종류의 신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무지는 자신을 모든 가능한 형태의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인도하였다. 사람이 신으로서 경배하지 않았던 자연의 피조물이나, 권력이나, 요소는 거의 없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로마서 1:25). 그리고 더 교육을 받고 뛰어난 사람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더 어리석고 이기적이다 (사도행전 17:22-23).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무지는 그가 언제나 빛을 거절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헛된 철학과 이교의 미신

과 종교적 전통으로 돌아선다. 우리 구원자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5:43). —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사야 55:8).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어리석음이다. —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리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좇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12).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자에게 신이 있다. 우리 주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위대하고, 무한하며, 보이지 않고, 전능하고, 전지하며, 편재하며, 영원한 여호와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이사야 45:12). 그분은 하나님, 불가해한 삼위일체이시다 (요한일서 5:7).

C.H. Spurgeon 은,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을 경배하지 않았을 것이다…만약 내가 박하사탕 통처럼 내 종교를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었다면, 나는 곧 그것을 빨아 먹었을 것이다!”고 썼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무한히 깊은 비밀, 무한히 높은 경이, 무한히 넓은 충만이 있다. 그분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히브리서 1:3) 하나님이다! 그분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에베소서 1:11)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사도행전 17:28)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도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다니엘 4:35), 그 뜻과 권세를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분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다! 내가 지금 표현했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주권적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내것이다! 나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린다. 나는 그분의 임재를 안다. 나는 존경과 경이로 그분을 경배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율법을 사랑한다. 나는 그분의 아들을 신뢰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아버지로서 그분을 아는 것이다! —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15).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마태복음 6:9). 나의 아버지는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분이며, 내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평강, 그분의 의와 그분의 구속,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긍휼을 깨닫고 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모든 것이 좋으며, 언제나 좋다! 당신은 나를 발가벗길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분의 의로 옷입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자유하다. 당신이 내 눈을 뽑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다. 당신이 나의 혀를 잘라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당신이 나를 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 몸이 아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혼은 건강하다. 내가 수천 가지의 근심의 짐 아래 눌러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의 선을 위하여 협력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문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그분의 영원한 임재로 이끌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 가치가 있는 생명을 소유한 것이다.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나는 나의 출생한 날을 저주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살아갈 생명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한다.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래도 없이 그의 노를 잡은 배의 노예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분을 앎으로 나는 삶에 대한 이유가 있고 삶 가운데 모든 일에 대한 이유를 본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삶과 죽음, 하늘과 지옥, 공의와 공홀에 관련하여 철저히 혼란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그분의 지혜를 본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것을 예상하며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앎으로, 나는 평강을 갖고 이 실재들을 마주한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오늘에 대한 아무런 기쁨이 없었을 것이며, 어제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공백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회의론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좋다고 부른다. 회의론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로마서 11:36)로 그를 안다.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안에서 계시되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많은 비밀한 방법으로, 그들이 부르는 “비밀스럽고, 영적인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터무니 없다.

그리스도를 떼어 놓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존재이며, 그분의 율법을 내가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분의 율법을 범하였던 나를 그분은 축복하실 수 없었다. 내가 불결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와 함께 행하실 수 없었다. 나의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분은 미소를 지으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이고, 의이며, 거룩함이고, 구속이다. — 또 나는 그분께 열납되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열납되었다!” (에베소서 1:6)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 될 것임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주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를 용서” (출애굽기 34:7)하실 것이다! — “범 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4) 그러나 이사야 53:5-6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의 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씀한다. 히브리서 9:26은 그가 모든 죄를 없애버리셨다고 말씀한

다. 로마서 8:32-34 는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 아닐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의 몸이 무덤 속에서 썩을 것이고 결코 다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죽는다! —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과하는 것도 헛것이요…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14, 17). 그러나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1-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 질문

죄인이 이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복된 산 지식을 얻는가? 그것은 천연적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얻는다. 영생은 출생으로가 아니라, 새로 태어남으로 온다. 영생은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한다. 영생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존재한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 세 가지 본질들

여기 본질적인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떠나서 어떤 죄인도 결코 영생을 가질 수 없다.

1. 영생은 은혜로만 심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를 산 혼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야 한다 (요한복음 3:8; 에스겔 16:8).

2. 영생은 성령에 의해서만 계시되어야 한다. 성령 하나님만 당신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보여 주셔야 한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분만이 당신에게 당신의 죄, 사망의 원인을 계시하셔야 한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의 대가를 계시하셔야 한다!
  
3. 그리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만 영접되어야 한다. 나는 믿음이 어찌되었든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겠다. 믿음은 생명의 결과이다. 나는,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산다면 믿을 것이라고 말하겠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당신은 영생을 소유한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영생이 없다. 당신은 여전히 쓰디쓴 쓸개즙 가운데 있게 되고, 범죄와 죄 가운데 사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있다!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위격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19).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갈보리에서 죽었던 그 인자시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피의 효능을 신뢰하는 것이다. —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 베드로전서 1:18-20을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의의 공로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3:6).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중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히브리서 7:25).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주로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에 머리 숙이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 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를!

## 112 장. 그리스도의 “내가 하였사오니”—요한복음 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8)

우리 앞에 있는 장보다 더 교훈적이고, 더 위로하며, 더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된 것은 없다. 우리 주의 택정한 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한 요한의 감화를 받은 기록이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이 성경의 얼마나 축복된 단락인가!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온전하고 순수한 헌신을 보셨다. 여기서 그들의 필요를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구원자의 사랑의 가장 친근한 표현을 들었다. 여기서 당신과 나는 영광의 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분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며, 그분의 온전하고 무한하게 온전한 순종과 의를 핑계로 한 중재를 듣도록 허락되었다.

### 유일한 기도

요한복음의 이 열일곱 번째 장은 유일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귀 안에 들렸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위하여 그들이 듣는 가운데, 그들의 배움과

위로를 위하여 언급되었다. 실로, 그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혼의 교육을 위하여 우리 사랑스런 구원자를 아는 가운데 언급되었고 기록되었다.

여기에 기록된 그것은 기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기도와 같지 않은 기도이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인들이고, 긍휼과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우리 기도들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움과 회개와 고백과 원함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 우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의 기도들은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부합함에 기초하였다.

## 그분의 아버지

이 기도는 의로 풍부하며, 모든 행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과 은의와 영광으로 넘쳐있다. 삼일 하나님이 계시되고 알게 된 우리 중보자인 하나님 아들의 그분의 아버지께 온전하게 순종함을 제시한다. 요한의 복음 안에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온화하고, 사랑스러우며, 보배로운 관계의 특별한 나타남이 있다. 얼마나 자주 우리 구원자께서 이 신성한 지면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애정 어린 이름 “아버지”를 사용하시는가를 주목하라. 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채우셨고, 그분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다....

- 14 장에서 23 번
- 15 장에서 10 번
- 16 장에서 12 번

## •17 장에서 6 번

17 절에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분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른다.

25 절에서, 아버지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구속자는 아버지를 그분이 이제까지 그분의 아버지를 알았고 영원히 알고 있을 이름으로, 모든 성경이 “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분을 알도록 가르쳤던 그 이름으로 부르신다. 세상은 그분이 자신을 감추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운 성품 안에 계신 그분을 몰랐으며 알 수도 없다 (누가복음 10:21).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며, 우리의 의로우신 아버지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그분의 무한하고 주권적인 사랑 안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우신 아버지이신 첫 번째이고 가장 으뜸인 아버지이다.

## 그분의 백성

우리 주께서 이 기도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그 백성을 똑똑하게 확인하심을 주목하라. 그것은 단지 그분이 나에 대하여 그분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혼이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의 이 말씀을 듣도록 축복하였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택정한 자로 부르셨다...

- 하나님이 주신 백성 (2 절).
- 하나님이 지키신 백성 (11-12 절).
- 하나님이 가르치신 백성 (14 절).

-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백성 (17-19 절).
- 하나님이 연합하신 백성 (20-21 절).
-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 (22 절).
-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백성 (23 절).
-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 (23 절).

요한복음 17:8 을 주의 깊게 보라. —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주어진 순서대로 보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취하셔서 보여 주시기를,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에게 효험 있게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

## 아들을 알고

“때문에 (For)” — 8 절을 여는 말인, “때문에 (For)”는 우리를 7 절로 되돌아가게 한다. 7 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의 권능과 은혜와 아들의 증보로 그분의 백성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하고 확실한 결과가 이것임을 듣는다: —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 것을 가르치셨다. 모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분의 참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구원 받은 죄인은 없다. 그것이 7 절에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줄 알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단순한 사실이다. — 지식이 없는 믿음은 어둠 속에서 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

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다. 참되고,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포함한다.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 절). 당신은 알지 못하는 구원자를 신뢰할 수 없다 (로마서 10:13-17).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취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 우리는 그것들이 기인하는 분을 안다. 그것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확실하고 영원한 사랑의 영원한 계획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며, 사랑과 은혜의 언약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시편 25:14).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디도서 2:11)는 효험 있는 가르침의 은혜이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맞는 교육을 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흠모하도록 가르친다. —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가르치셨다. 이제, 요한복음 17:8 의 다음 두 단어를 보자.

### 아홉 가지의 내가 하였사오니

“내가 하였사오니” —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와 보증으로서 행하셨던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과 함께한 최종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은, “내가 원하였다,” “내가 시도했다,” 혹은 “내가 갈망하였다”가 아니라, “내가 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우리 혼들이 잠시 멈추어서 이 깊은 우물에서 마시도록 할만큼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 우리 구원자께서 이 장에서 언급한 아홉 가지 “내가 하였사오니”가 있다. 믿는 마음 속에 그것들이 어떤 믿음과 자신과 격려로 감화할 것인지.

나의 혼아 오라,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 안에서 참된 경배자로서 이 모든 영광의 구원자의 발 아래 엎드리고 그를 신뢰하라. 은혜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 입에 부여졌다. 여기에 은혜가 그분의 입술에서 팔팔 솟는 샘처럼 그가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하신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서 쏟아 부으신다.

### 1.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 절).

인자로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셨다. 그분이 소년이었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 하였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분이 겻세마네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분이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였다 (요한복음 12:28).

### 2.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4 절).

나는 내 생애 어떤 것도 결단코 다 끝내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마치셨다! 내가 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하도록 될 것이다. “저는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였으며 내가 언제나 해야 했던 것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 나의 구원자는 아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 무결한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도록 “내가 이루었습니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자로서 의를 세우시려는 그분의 일을 이루셨다. 그분은 우리 자리에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대속의 희생으로 속량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3.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6 절).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시, 하나님 만을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알게 되는 한 분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나타내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자됨을 확신시키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하늘이 우리 집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임을 확신시키심으로, 우리가 알도록 한다!

4.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2 절).

지옥의 아들은 성경이 성취될 것임을 잃어버렸다 (시편 109:6-8). 그는 지옥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결코 성취될 수 없었다 (요한복음 10:27-28). 하나님의 계획은 헛되게 될 수 없다. 아버지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아들의 피는 무효하게 될 수 없다. 그 영의 인치심은 파기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효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대상들인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하니,  
그분의 눈의 사과라네!

생명이 지속하는 한 우리와 모든 것이 좋으니,  
또 죽음에 부름 받았을 때도 좋네!

5.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14 절).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전체 계시, 하나님의 전체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분은 전체를 망라하는 많은 부분을 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체 진리가 계시되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서술하고 계신다. “말씀”은 전체를 의미한다. “말씀”은 전체를 이루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말씀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이다. 하지만, 그분의 지혜와 현명하심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계시된다. 우리 구속자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의 계시와 지식의 전체가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하신다. 그보다 더, 그분은 그분에 의해 구원을 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전체 진리를 알도록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믿는 자들이 그분의 존재의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유한한 피조물도 그분의 존재의 영원 안에서 무한하신 창조주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모두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계시된 모든 성품 가운데 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 의로우신 하나님
- 거룩하신 하나님

- 공의로우신 하나님
- 주권적이신 하나님
- 구원하시는 하나님

6.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8 절).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멀리도 아닌, 세상 속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과 그분 안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며,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 받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사자들이다. 그분이 아버지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대표자들이다.<sup>xi</sup>

7.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22 절).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생각한다. — “그것은 단지 내 보잘것없는 두뇌에 너무 많아서 담고 있기 어렵다.” 그러나, 아, 얼마나 내가 애쓰는 것을 즐기는지! 이만큼은 분명하다: —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중보자로서 소유하신 모든 것, 우리 대속자로서 죽음에까지 그분이 순종하신 결과로서 그분의 아버지께 의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그분의 백성 모두에게 그 모든 충만 가운데 영원히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구원자께서 어떤 구원자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존귀를 돌렸다. 그분은 자신

을 여호와와의 의로운 중, 그분의 아버지의 집의 청지기, 그분의 아버지의 뜻의 수탁자, 또 그분의 아버지의 양떼의 목자로서 모든 것 안에서 충성되고 진실됨을 입증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더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분의 백성을 계속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고 우리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될 영광의 땅에 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계속하여 공급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백성이 모든 그 충만 가운데 그분의 모든 영광을 갖게 될 때까지 그분의 백성을 계속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 8. “내가 아버지를 알았삽고” (25 절).

기록되기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누가복음 10:22). 하지만,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인자가 계신다. “내가 아버지를 알았삽고.”

- 그분의 본성, 온전함들, 그리고 영광.
- 그분의 비밀한 생각들, 목적들, 그리고 계획들
- 그분의 언약, 약속들, 그리고 축복들
- 그분의 전체적인 생각과 의지.

이것은 26 절에 특별한 능력과 의미를 준다.

9.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6 절).

홀로 하나님을 아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분께 대해 가졌던 바로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충만 가운데 명백하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것이 내가 은혜, 영광스럽고 대가 없는 은혜로 부르는 것이다!

8 절로 돌아가자.

### 하나님의 은사인 구원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 내 빈궁한 혼이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의 입을 채우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그 세 가지 묘사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에 의해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은사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와 그 모든 부분 위에 인치신다.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 구속
- 거듭남
- 믿음
- 칭의
- 성화
- 보존
- 하늘 영광

자신을 주셨던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구원의 제의나 은혜의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하나님의 은사를 제시한다!

8 절을 다시 보라.

## 하나님의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 세속적이고, 육체적이며, 인간적인 종교는 표적과 상징과 느낌과 감정과 관념을 주고 그 안에 안주한다. 참된 종교, 영적 종교는 신성한 계시의 진실과 사실과 실재 위에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체험과 허례와 의식과 환상과 꿈 속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찾는다. 믿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Thomas Bradbury 가 그것을 기록하였다. “그분의 택정함을 받고, 구속 받고, 거듭난 백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생명과 빛의 그 영에 의해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 안에서만 알려지며,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뿐이다.”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효험 있게 가르치고 우리를 그로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신명기 18:18-19). 주 예수께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요한복음 6:63). 그분이 효험 있는 구원의 권세 안에서, 사랑의 때에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에게 그분의 영의 권능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보내실 때,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며, 그들 안에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생명과 믿음을 창조하신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그분의 말씀은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 생명 주는 말씀이며, 생

명을 회복하는 말씀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말씀이다 (요한일서 1:1; 에베소서 1:13-14; 데살로니가전서 1:5;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과 정죄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8:26-28). 우리 주께서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을 볼 가치가 있다. 믿지 않고 방탕한 자에게 그분은 단지 그분의 말씀을 하신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당신의 귀에만 온다면, 그것은 저주와 사망의 말씀이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2:14-16; 3:5). 아, 그분이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시기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8 장에서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분은 말씀하셔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분의 책무의 한 부분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진리이신 그분은 그분의 말씀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아셨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던 자들의 유죄와 정죄에 더할 뿐인 것을 신실하게 선포하셨다.

우리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오직 그들의 영원한 슬픔으로 그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들이 트집을 잡았던 그 말씀이 그들이 영원히 저주 받고 고통 받을 바로 그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가?

충실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무엇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 (고린도후서 2:17).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롱하고,

떨시하며, 거절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결코 없애거나 심지어 침묵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은 당신을 심판대까지 따라갈 것이며, 지옥까지 영원히 따라갈 것이다 (요한복음 12:47-50).

## 구원 받은 자

이제, 8 절의 나머지를 읽어 보라. 모든 구원 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알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를 믿는다. 나는 구원하시는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공과 내에서 내 공간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는데, 그분에 의해 구원 받은 자들보다 그분이 더욱더 무한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여기서 그분은 무엇이 언제나 그분의 은혜에 속한 역사의 결과인지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능력과 은혜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오실 때마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세 가지 특징 하에 있는 구원 받은 죄인들을 묘사한다. 모든 구원 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다.”

##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아들, 그들의 보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받을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었다 (이사야 55:11; 59:21).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언약의 보증의 입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

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에 의해 영접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 은혜로 준비된 땅에 심겨진 씨처럼 새롭게 된 마음 속에 영접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하고 건조하여 말라버린 땅이 하늘의 이슬을 받는 것처럼 받아들여 진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성직자 기능이나, 신성한 효능이나, 창조된 수단들을 위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아무런 자리가 없다. 구원은 당신이 무엇을 하거나 준비한 것들의 결과가 아니다.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시편 3:8). 그것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역사에 의해서 존재한다!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트집잡는다. 믿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John Gill 이 말한 것처럼, “기꺼이 그리고 기뻐하며, 존경과 순종으로, 사랑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기 위하여, 그리고 애정어리고 가깝게 그 말씀에 결부되기 위하여” 받는다. 믿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체 계시) 받으며, 그분의 말씀들 (모든 부분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받는다.

### **그리스도를 앎**

그리고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에 관하여, “(저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라고 하신다. — 우리가 은혜로 그 말씀을 받도록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안다.” 그분은 성육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이고, 거룩하게 약속된 대속자와 구원자이며, 죄인들을 위하여 열납된 제물이다.

###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 기록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27).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고 온전한 은사가 주어지고 받아졌을 때, 그것이 주어진 자들과 받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요, 그 피로 구원을 사셨던 분이요, 그분은 은혜로 구원을 가져왔고, 그의 영으로 구원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잘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며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기쁘게 드리며,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 115:1).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 그가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며,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노래 할 것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10).



## 113 장.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니이다.” (요한복음 17:17)

그분의 기도의 이 부분에서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제자들, 그 때 세상에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들을 위한 중재를 특별하게 하고 계셨다. 그리고, 20 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구한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도 요구하셨음을 말씀한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구하였기에, 그분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 안의 믿음을 받은 모든 자를 위하여 구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구원자의 우리를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한 기도이고, 모든 구속 받은 죄인을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와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거듭 난 모든 자를 위한 기도이다. 이 기도는 그분이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선택 받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죄 속량의 피로 구속 받은 모든 죄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다. —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죄인들은 그분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진리이다. — 우리 구원자의 탄원을 한 행, 한 행 보도록 하자.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 모두가 누리는 세 가지 큰

특권이 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구원 받은 죄인 모두에게 사실이 된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 불의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고 거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11). 이 세 가지 사항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다.

1.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고, “씻음 받아야” 한다. 이 구속은, 우리 죄들을 위한 속량으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를 위하여 성취되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3).
2.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성화를 떼어 놓고 구원은 없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히브리서 12:14). 이 성화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거듭남과 새로 남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될 때, 그리고 신성한 본성의 참여자가 될 때 이루어진다. —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3-

4).

3.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칭의는 주 하나님에 의해 대가 없고 은혜롭게 성취되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셨다. 그분이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지만, 우리 죄들이 그리스도께 전가 되었기에, 우리가 결코 의를 행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전가되었다. —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3:24).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이 세 가지 이 큰 특권들은 은혜의 역사들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씻지 못하며,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며, 스스로 의롭게 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구별된 행위로,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은혜에 속한 이 세 가지 모든 역사들은 예외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한 이 역사들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부족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은 그의 죄들 안에서 길을 잃었고, 파멸하였고, 멸망한다. 만약 당신이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 받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고, 의롭게 됨이 없이 죽는다면,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계수되지 않을 것이다. 씻음 받지 않고, 의롭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과 그분의 의로 의롭게 됨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거의 어려움이 없다. 개별적이고 효험 있는 구속과 대가 없는 칭의는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기뻐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성화에 이르렀을 때, 우리 생각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두렵건대 여전히 혼돈하고 있으며 다소간 불편할 수 있다. 우리가 거짓 종교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성화가 그들이 도달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상상한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원한다. — 만약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대변자, 당신의 큰 대제사장은 당신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요구하신다. 그 의미는 성화는 당신의 소유라는 의미이다. 당신은 거룩하게 되었다. — 만약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11 에서 “너희는 거룩하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선포하신다. 그 의미는 당신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속하여 당신에게 성화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성화 이시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무엇이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인가?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성도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되다,” 그리고 “성화”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말들이 감화 받은 기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

는 사람은 극히 적다.

## 세 가지 오류들

우리가 구속과 칭의를 논함에 있어서 꽤 편하지만, 그러나 성화는 아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될 필요가 있다. 성화의 가르침과 관련한 오류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항목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

1. 오순절주의는 성화가 은혜에 속한 두 번째 역사임을 가르치며, 한편으로는 믿는 자가 죄로부터 철저히 자유롭게 되었고 죄의 옛 본성은 그의 존재로부터 지워졌다. —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대가 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일서 1:8). — 둘째, 모든 믿는 자의 체험에 반대이다. 정직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죄 충만을 고백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더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적인 죄와의 싸움을 한다. 죄는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섞여 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손상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다.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
2. 독선적인 율법주의자는 성화를 외적이고 율법적인 도덕성일 뿐인 것으로 치부한다. 그에게 성화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됨과,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순종하며,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그의 신념이다.

3. 정통적이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화가 “개인적인 거룩” 안에서 믿는 자의 점진적인 증가라고 가르친다. 적어도 그가 하늘에 대하여 여물 때까지, 또 그 성화가 궁극적으로 영화로 꽃피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화 가운데 자신의 행위들로 보다 높은 거룩의 정도를 얻는다고 듣는다. 이들 가운데 근본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리로 개혁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한 저자는 이런 말로 성화를 정의하였다 — “성화는 점진적인 의이며, 그것은 물로 불완전한 의임을 의미한다.” 다른 저자는, “성화는 믿는 자의 개인적인 거룩이다.”고 썼다. 대개는 이 점진적이고, 증가하는 의는 믿는 자의 이 세상에서의 기본이 되고 훗날 하늘에서의 보상이 된다. “점진적인 의”라는 말은 온전한 의의 가능성을 함축한다. 우리가 “하늘을 위한 열매가 될 때까지 의가 발전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함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성화에 대하여 그분이 쓰신 책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자. 당신이 성경 안에서 배우는 것처럼 성화가 신학 서적과 대부분의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쳤던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의 글에 감사하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들과 일치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지킬 어떤 교리도, 떠받칠 어떤 고해도, 대답해야 할 어떤 종파도, 가르쳐야 할 교리 문답도 없고, 다만 이것만 있다 — “여호와와의 말씀이.” (왕하 3:16).

이 공과에서 한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성화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그리스도 안의 은혜의 전체와 역사 안에 있고 있어야 한다. 만약 구원이 은혜로 있다면 (그리고 그렇다!), 그리고 구원에 본질인 모든 것은 은혜로만 있다. 성화인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로만 있다. 그것은 사실이며, 주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순종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한 분이라는 사실이다.

### 말씀의 의미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7:17 에서 사용하신 “거룩하게 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자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다”는 성경 용어이다. 따라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보도록 하자.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 세 가지 특징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1.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따로 놓아두다”이며, 특히,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거룩한 섬김을 위하여 따로 놓아두다”이다. 성화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며 따로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섬김에만 분별해 놓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된 그 말의 첫 번째 우선적인 의미이다.

일곱 번째 날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분별되었다 (창세기 2:3). 이것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다”가 사용된 것이다. —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

하셨음이더라.” 그 날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그 날은 단순히 분별 되었으며, 하나님의 섬김만을 위하여 주의 다른 날과 분별되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처음 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분별되었다. —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2).

성막과, 제단,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주께 성별 되었으며, 그분이 쓰시게 만 분별되었다. —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출애굽기 29:4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아버지께 의해 거룩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음은 이런 의미 안에서 이다 (요한복음 10:36; 17:19).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과 분별되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자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2. 둘째로, “거룩하게 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되었으므로, 그 의미는 “거룩하게 여겨지다,” “거룩하게 다루다,”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이 거룩함을 선포하다” 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 자신이 종종 그분의 백성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께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며, 거룩하신 분으로 대하며, 그분은 거룩하다고 선포한다. 그

것은 주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 속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여길 것을 명령하신다. —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사야 8:13).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상한 불을 드렸을 때 주에 의하여 죽임 당하였다 (레위기 10:3). 두 번째 반석을 칠 때 모세의 죄는, 그로 인하여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것이다. —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민수기 20:12). 우리에게 “주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 안에서 이것에 대한 보다 익숙한 예시가 있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9).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다”의 다른 말이다. 그 말은 당신의 이름이 전 세상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숭배 받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고 성스런 것으로 여기자.

“거룩하게 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취급하며, 선포하는 것이다. —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자로서 여겨진다. 거룩하게 된 자는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에 있다. 그들은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이다. 그들은 그분의 기쁨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 “나의 기쁨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역대상 16:22; 시편 105:15)

3. “거룩하게 하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다”이다. 이것은 공표 이상이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이다.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분별되고 거룩한 것으로 공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내려 오셔서 율법을 주시려 할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자신들을 성화의 의례적인 그림 안에서 성결하게 할 것이 요구되었다 (출애굽기 19:10-11).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을 건너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성결하게 될 것을 요구하셨다 (여호수아 3:5).

성경에서 사용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의 기본 의미를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거나 분별해 두는 것이며,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취급하며, 선포하는 것이며,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가? 앞서 천명했듯이, 우리 성화는 우리 구속과 칭의처럼 그분의 거룩하게 한 위격들의 삼위 일체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우리는 택정하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구속 안에서 하나님 아들에 의해서, 거듭남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성화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행한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되다,” “거룩하게 하시다,” 그리고 “성화”는 신약 성경 안에서 서른 차례 이상 사용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스도의 피

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듣는다. 그러나 결코 단 한 번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고 듣지 않는다. 성화는 하나님만의 역사이다!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한 택정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 따로 떼어놓고 그분께 분별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거룩하게 되었다 (유다서 1:1).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되는 은혜의 특징이다. 그 은혜는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로 구별하며 주께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택정하심의 비밀하고 영원한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비밀스럽게 따로 놓여졌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종족으로부터 갈보리에서, 그분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합법적으로 분별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가시적으로 따로 떼어졌고 분리되었다.

그 가르침은 모두에게 분명해야 한다. — 각각의 믿는 자는 이런 의미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해 분별되었다. 이 영화로운 가르침의 실질적인 중요함은 이것이다. — 하나님을 위하여 분별되었던 그것은 일반적인 목적을 위하여 결코 다시 사용되면 안 된다. —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여,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며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하자 (로마서 12:1-2).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 전능하

신 하나님께서 그분께 속한 모든 자를 그들에게 약속된 모든 방법 가운데,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언약권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보호하실 것이다 (시편 91:3-13).

하나님의 택정한 자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0:10-14). 그리스도는 우리 성화이다 (고린도전서 1:30).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2). 믿는 자들은 서신서 들을 통하여 “성도들”로서 언급되고 있으며,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온전하게 거룩하게 여겨지며, 만약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한 것처럼 취급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것으로 선포되었다!

“그분의 흠 없는 옷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거룩하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실제로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 복음 전파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효험 있게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새롭고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에 이식하면서 적용한다. 이것이 거듭남, 새로운 출생이다. 이것이 그 영에 의한 우리의 성화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13-14; 베드로후서 1:4; 요한일서 3:9; 요한일서 5:18).

우리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써, 하나는 거룩하고 의를 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부패하고 죄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 두 가

지 본성들은 권능에 있어서 대등하지 않다. 신성한 본성은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그러나 악한 본성은 머리 숙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옛 죄의 본성으로 계속하여 사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 안에서 우리 안에 피조 된 새로운 본성을 갖고 있으며,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이다. 그것은 죄를 짓고, 새로운 것이 아닌 옛 사람이다. — 기록된 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20).

영화 가운데 옛 사람은 완전히 우리로부터 전멸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아니다. 옛 사람의 전멸은 점차적이고, 점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극적이 변화로서 사망 가운데, 궁극적으로 부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가 체험하는 것이다.

### 점진적인 성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깨닫는 것처럼 점진적인 성화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라. 성경은 성화 안에서 우리 옛 사람의 본성이 덜 죄스럽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 “육체는 육체이다.” 그것은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옛 사람은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보내지지 않았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로 보내진다. 성경은 성화로 우리 믿는 자가 개인적인 거룩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납 되도록 개선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현재의 계속되는 은혜의 역사로서 믿는 자 안에서 성화의 역사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3-7; 5:23-24). 어린 그리스도 예

수는 온전하게 거룩하였다. 하지만, 그분은 거룩한 그 상태 안에서 성장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식된 온전하게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 우리의 거룩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의 그 상태 가운데 성장한다 (누가복음 2:52; 베드로후서 3:18).

성화는 점진적인 일로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다. 사람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 그 중간은 없다. 당신 더도 덜도 거룩할 수 없다. 그러나 성화는 현재 지속되고 진행 중인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모든 믿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한다. 모든 살아 있는 것은 자란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람으로써,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행하며,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사랑한다. 성화 안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마음 속에 영원히 증가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나는, 성화가 발견될 때마다, 마음의 성별이 증가하고, 마음과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증가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에 헌신함이 증가하며, 그리스도 안의 사랑과 헌신과 확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함이 늘어가며, 그리스도 안의 확신이 증가함을 확신한다.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은 성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계속된 운행 하심이다.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분별되는 것이고, 거룩

한 것으로 취급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 “아버지의 진리로”

주 예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요한복음 14:6). 그분은 진리의 체현이며 진리의 계시자이나, 그분은 그 이상이다. —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그분은 모든 율법과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의 참 성취 가운데 예시되고 예표 되신 진리이다. 여기서 우리 주의 기도는 이것이다. — 아버지께서 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와 그들의 연합을 통하여, 나의 피와 의의 공로를 통하여, 그들이 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 그리고 나에게 대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 그리스도는 진리이며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백성을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성취된 은혜의 역사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13-14; 시편 119:9-16).

### 성별 하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 좀더 많은 것이 있음에 분명하다. 기억하라, 우리 주께서는 하나님께 이미 다시 태어난 사람과 이미 믿는 자들과 이미 그분의 제자들인 자를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하고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

게 하실 것을 요구하신다. —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 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배운다. —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19).

어떻게 주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는가?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스스로를 가차 없이 헌신하셨으며,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냉혹하게 봉헌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에 바치셨고,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 하셨으며,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낮과 밤으로 섬기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와 그들의 오른쪽 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성유를 바름으로 의례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레위기 8 장과 14 장에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분별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분별되며, 철저하게 복음에 분별되지만, 서로가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 구원자의 기도의 대상은 21 절에서 보여진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17-21).

믿는 자들이 자신과 다른 믿는 자들을 분리하는 것에는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고린도 인들은 끔찍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의 성도를 다른 성도들과 스스로 분리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갈라디아 인들은 끔찍한 사악함을 갖고 있었지만, 결코 한 번도 그들이 성도들 사이에 분리될 것을 가르침 받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약한 자를 도와야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범죄한 자를 용서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6:1-2).

아, 하나님의 영이시여, 제게 이 은혜를 주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철저히 나의 구속자에게 성별 하게 하소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13-14).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기를 요구한 것을 그분께 당신을 위하여 하실 것을 요구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

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23-24).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 114 장.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요 한복음 17: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 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23)

요한복음 17 장은 우리를 위하여 큰 대 제사장인 우리 주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그분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갈망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갈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실 것이다!), 이 큰 중보의 기도는 복음의 진리로 충만한, 성경의 매우 교훈적인 분 것이다. 그리고 이 단락(요한복음 17:23)을 향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의 택정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이롭고, 비밀하며, 기쁜 것, 그야말로 놀라운 어떤 것을 가르친다. 우리 귀한 구속자에 의한 이 짧고 단순한 선언은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비밀들로 충만하다. 그것 자체로 심오한 신학 책이다.

###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저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개별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분명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으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안에 계시다. 모든 사람의 창조주로

서, 그분은 모든 자가 그들 자신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정죄 받을 양심의 모든 빛을 모든 사람 안에 주고 계시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자로서,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한 번 이 세상에 계셨다.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런 것들을 요한이 우리에게 1 장에서 말한다 (요한복음 1:5, 9-11, 14).

그러나 우리 주께서,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모든 믿는 죄인 안에 특별하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거듭남 가운데, 새로운 출생 가운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때 우리 안에 형성되신다. 그분은 선택 받고, 구속 받은 혼안으로, 전능하신 은혜로 그분의 속량된 자를 소유하시면서, 마음 속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분의 은혜를 교통하시고, 그분 자신과의 교통을 보장하시며, 마음 속에 내주하신다. 그분은 모든 하늘로 난 혼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분은 그렇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나 우리 본문은 더 많은 것을 말씀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계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분의 지체 가운데 머리로서, 그리고 그분의 집 안에 주인으로서 계신다.

얼마나 놀랍고도 겸허한 은혜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니! 따라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 안에 거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났으며 죄를 지을 수 없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빛을 가졌으며 결코 어둠 속에서 행할 수 없다. 생명이

신 분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삼위일체 가운데 그분과 하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사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교통하심으로 아들 안에 계신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영원한 신격의 모든 충만 가운데 그리스도 중보자 안에 계신다. —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은혜롭게 아들 안에 계시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만으로 영원히 자신을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원히 끝없는 세대를 통하여 아들 안에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보여주시실 것이다.

## 온전함을 이루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이 충만과 그분의 백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은 이 계획을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으므로, 그분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신 그 인자가 갈보리에서 우리 대속자로 죽으셨을 때 칭의 가운데 온전하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는 성화 가운데 온전하게 된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

게 만드시며,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골로새서 1:12)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며, 휘장 안에도 계시며, 그분 피가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서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곧 육체의 옷을 내려 놓을 것이며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식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은혜롭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그분 안에 계시므로, 영광 가운데 구원 받은 많은 자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23). 곧,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을 때 그분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행해질 것이고, 시간이 더 없으며, 모든 세상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다!

## 사랑하심 같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 함이로소이다.” 그것을 상상해보라!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분께서 하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아들인 그리

스도를 사랑하셨으며, 영원 전부터 우리 중보자이신 그분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인성을 입으셨을 때 그분을 사랑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순종의 아들이로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동안,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셨다. 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에도, 심지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되가 되셨을 때, 비록 공의가 그를 죽이고 그를 버길 것을 요구하셨을지라도, 아버지의 거룩한 진노와 격분을 그분 위에 부었음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실례와 실증은 보기에 경이로운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 중보자이신 아들을 사랑하시므로,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고, 그분의 모든 영광과 그분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을 그분께 맡기셨다 (에베소서 1:12). 아버지는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로 만드셨으며,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탁월함을 소유하실 것을 결정하셨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 없고, 멸하지 않는 만족과 기쁨의 사랑이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가장 높은 상상을 넘어서서 무한히 은혜롭고 영광스럽다. —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을, 자신을 사랑하신 것과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단지 그분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개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염려해서는 (사람이 그분의 가

장 냉혹하고 추악한 대적을 경멸하고 증오하는 것처럼)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는가?” 라고 묻는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라! —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실로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그렇다!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중보자로 택하셨는가 (이사야 42:1-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3-6). —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시편 89:28)?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예레미야 31:31-34; 32:38-40). —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면서 사망에서 살리셨는가 (베드로전서 4:1-2)?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면서 사망에서 살리셨다 (로마서 8:1-4). — 아버지께서 아들이 땅 위에서 행보하실 때 매일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으로 아들을 공급하셨는가?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신다! — 아버지께서 아들이 시험 받으셨을 때 아들을 보살피시려 그분의 영과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셨는가?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다! —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 아버지께서 아들을 받으시는가?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받으신다! — 아버지께서 최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으로 아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그분은 나

를 사랑하신다!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 함이로소이다!”

“가까이,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더 가까이 나는 있을 수 없네. 그분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나는 그분처럼 가까이 있기 때문이네! 사랑하는, 하나님께 너무도 사랑스럽게, 더 사랑스러울 수 나는 없네,

그분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나는 그분처럼 사랑스럽기 때문이네!”

나의 마음이 영원히 겸손하고, 황홀하게 되며, 감동을 받고, 나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충만토록 하자. 나의 혼이 영원히 환희롭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에 있도록 하자! 나의 생명이 영원히 또 그분의 것으로만 되게 하자!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진리를 갖고 있는지. 그것은 신성한 계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은 바로 그분과 같은 것이다. 얼마나 우리 혼에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도에까지, 우리 혼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위대하고 모든 영광의 구원자께서,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 함이로소이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하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자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너무도 놀랍고 경탄스러운 것이어서, 그것을 감히 생각할 수 없고, 하물며 그것을 선포할 수 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 그것이 서있다. 그리고, 아, 나의 혼이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온 세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자의 갈망이고 계획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A. W. Pink 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하나로 함께 모두 모이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1:52),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이 그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권세와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보이심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연합을 가능하게 하도록 죽으셨던 한 분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한 분임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받았을 것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4)는 것 때문이며, 그리고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10).”

그 짧은 말 “처럼(as)”가 의미하는 것은 “꼭…처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는 데 비례하여,” “동일한 정도처럼”의 의미이다. 우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셨나이다.”고 하실 때, 이 위대하고, 짧은 말인 “처럼”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일한 이유

첫째,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게 대한 사랑 사이의 동기에는 동일성이 있다.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

셨나이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귀한 아들을 사랑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우주적인 감정이다.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배우며 우주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상상할 근거가 없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사랑의 열매이고 결과이다. 그러나,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에게 드러나고 알려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여 있다. 그것을 이해하는가? —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취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있다 (요한복음 3:36; 에베소서 2: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Thomas Manton은 “택정한 자들은 사랑스럽게 되며, 하나님께 열납되기에 합당하게 되었으며,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납된다…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모든 사랑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 서이다.”고 올바르게 관찰하였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열납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배,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인격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때문에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중보자이신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취하도록 하라.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로써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 그분의 아들이 존재와 온전함과 찬양 가운데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만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하신 그분의 온전한 순종에 근거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요한복음 10:14-17).

당신은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대가가 없으며, 동시에 충분히 받을만 하다. 그분은, “내가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호세아 14:4). 하지만, 그분의 사랑, 긍휼, 은혜, 그리고 구원은 우리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땅 위로 우리에게 흘러내린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므로,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은

헤로우시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에베소서 4:32-5:2).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온전하고 순종하신 중보자로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아들을 바라보셨고,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다시, Thomas Manton 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만약 그분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에서 찾지 않았다면, 그분 자신께대한 존귀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으셨다…하나님은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실 것을 결심하셨지만, 죄에 대하여 무한한 증오를 여전히 나타내실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해의 근거로 만드시는 것으로보다 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그런 혐오스럽고 무가치한 우리 같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의 대답은 이것이다 —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신다.”

## 동일한 방법

둘째, “처럼(as)”이란 이 말은 사랑의 유사성을 암시한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다시,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의 택정한 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것처럼 그분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하신다는 사랑을 강조하겠다.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첫번째 대상이다. 그분의 비밀스러운 몸,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으며, 지체인 우

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사람을 “그 본체의 형상” (히브리서 1:3)으로서 사랑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골로새서 3:10; 베드로후서 1:4) 새롭게 된 (또 되어야 할)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로써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된 아들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일서 3:1). 구원자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대가 없이 사랑하심을 확신한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분의 중보적인 순종으로 인자로서 받았다. 하지만, 우리 구원자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주 하나님은 그 자녀를 대가 없이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전에도 그분 안에서 기뻐하셨다 (이사야 42:1). 그분은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이라고 말씀하신 자들 가운데 그 한 분이다. 그렇다 할 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하신다 (신명기 7:7-8; 호세아 14:4).

하나님은 우리를 온화하고 애정 어리게 사랑하신다. 그분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온화하고, 형언할 수 없이 애정 어린 사랑이므로,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이사야 62:5; 스가랴 2:8).

그분의 택정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아무런 변화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라기 3:6, 야

고보서 1:17),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빼앗길 수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지옥 그 자체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도 없다 (로마서 8:35-39).

유명한 아르메니아 설교자이고, 기독교 선교 동맹(Christian Missionary Alliance) 교파의 설립자인 A. W. Tozer 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런 성명을 하였다. 그것은 충격적이지만, 전체 종교 세상이 믿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하나님은 지옥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남은 형상의 마지막 흔적을 지울 때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사람은 지금 타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타락한 사람을 사랑하심을 믿는다…(그러나) 타락한 사람이 더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더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때가 올 것임을 믿는다.”<sup>xii</sup>

변덕스럽고, 쓸모 없는 그런 사랑은 변덕스럽고, 쓸모 없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겠지만,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에게는 쓸데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고 내일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 동일한 결과들

셋째, 우리 주는 결과의 유사성이 있음과, 그분과 그분의 택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효험과 열매인 결과들은 동일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는 의도시다. 효험이 없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랑

은 단지 입으로 만의 사랑이다. 입으로 만의 사랑은 쓸모 없는 사랑이다. 사랑 받은 자에 의하여 결코 알 수 없는 사랑은 그 자신의 평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실패한 열정이다. 그 대상에 대한 유익과 축복을 결코 보지 않는 사랑은, 단지 비참함과 비애뿐이며, 괴로움을 주는 사랑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지 않는다. 아, 아니다, 천 번이고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 중보자이신 그분의 아들을 향한 사랑처럼, 효험 있고, 열매가 있으며, 유익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와 효험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 의해 상호적으로 누리는 다섯 가지 사항이 있다.

1. 비밀의 계시 —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개적이고, 공통적인 지식이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게 의해서 우리 중보자이신 아들에게 나타나고 알게 된 것처럼 (요한복음 1:18; 5:20), 모든 것들이 아들에 의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나타나고 알게 된다 (요한복음 14:21; 15:15).

2. 영적 은사의 부여 —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3:34-35; 17:2; 에베소서 4:8). 그리고 그분은 모든 그분이 백성에게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 하늘의 은사를 주셨다 (에베소서 1:3).

3. 생명 안의 강함과 보호 — 주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분의 순종의 날들을 통하여 높여지셨고, 강하게 되셨으며, 보호 받으셨으므로 (이사야 42:1), 주 하나님은 우리, 그분의 사랑의 대상들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날들을 통하여 높이시고, 강하게 하시며, 보호하신다 (고린도후서 12:9).

4.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열납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납 되었고 만족함이 되었다 (에베소서 5:2).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 열납 되고 만족함이 된다 (베드로전서 2:5).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하찮은 수고들을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그분은 우리의 가련하고, 죄로 얼룩진 순종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공로 위에서 받으신다. 그리고 (2.)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함에 있어서 우리 수고들을 받으신다.

5. 존귀와 찬양 — 주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존귀함을 받았고 높이 찬양 받으셨다.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탁월함을 받으셨고, 모든 것의 소유를 받으셨으며, 권세를 받으셨다 (시편 2:7-8; 히브리서 1:8). 주 하나님,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것을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2:26; 계시록 3:21).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라!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셨나이다!” — 우리의 머리를 쉴 놀라운 베개이다! 우리 가련하고 아픈 가슴을 위한 놀라운 위로이다! 매일의 목상을 위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제인가! 동경과 찬양과 경배를 위한 놀라운 근거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멸 당하고, 오해 받고, 학대 받고, 증오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

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귀한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 115 장.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대한 영원한 사랑—요한복음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24)

그분의 택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모든 은혜와 구원의 샘이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까닭이다. 23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선포하신다 —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셨나이다!” 우리의 머리를 쉴 놀라운 베개이다! 우리가련하고 아픈 가슴을 위한 놀라운 위로이다! 매일의 목상을 위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제인가! 동경과 찬양과 경배를 위한 놀라운 근거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멸 당하고, 오해 받고, 학대 받고, 증오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귀한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24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선포하신다! —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선포하신다. 그리고 John Gill 은 말하였다…

“하나님의 그분의 택정한 자에 대한 영원하고, 불변하며, 바뀔 수 없는 사랑은 그들이 맞이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 신성한 기록 가운데 햇살로써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양 안으로 뛰어들 때, 우리가 그 깊이를 측량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할 때, 중보와 공부를 위한 풍성한 공간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무한히 깊은 광산에서 약간의 금 덩어리를 갖고 올라오는 것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 그것의 영원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분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으로부터 솟아나며, 신성한 예정의 근거이고,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택정과 구속의 근거이며, 성령 하나님에 의한 우리의 부르심의 근거이다 (예레미야 31:3; 에베소서 1:4-6; 에스겔 16:8).

“아버지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네;  
땅이나 지옥의 권세가 하지 못 것이니  
그의 사랑을 시온에서 읊기는 것을.

그분이 명하시도록 움직였던 것이 사랑이니  
공의와 선한 보증인을;  
또 그의 마음에 이름을 새기니  
그가 용납하는 모든 자의 것이라.

보증인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네;  
그분은 도를 넘어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네!

그리고 아 그 어떤 사랑을 그 영이 보여주시는지!  
예수를 그분이 드러내실 때  
죄와 비통함으로 억눌린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모든 슬픔을 치료하시네.

세 분이 한 분 안에, 한 분이 세 분 안에 계신 분,  
사랑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니;  
선택 받은 자들이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네  
늘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사랑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 우리를 위하여 은혜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행위와 역사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서 기인하고 그것을 보여준다. 택정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행위였다 (에베소서 1:4). 은혜의 언약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에 기인하여 영원 가운데 삼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사무엘하 23:5; 로마서 8:28-29; 디모데후서 1:9; 히브리서 13:20).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 혼을 신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역사였다 (요한복음 6:39; 에베소서 1:12).

### 그것의 불변성

우리 하나님 안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말라기 3:6; 야고보서 1:17).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지옥 그 자체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다 (로마서 8:35-39). 앞서의 공과에서 천명하였던 것처럼, 유명한 아르메니아주의 설교자, 기독교 선교 동맹 (Christian Missionary Alliance) 교파의 설립자인 A. W. Tozer 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끔찍한 언급을 하였다.

“하나님은 지옥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남은 형상의 마지막 흔적을 지울 때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사람은 지금 타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타락한 사람을 사랑하심을 믿는다…(그러나) 타락한 사람이 더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더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때가 올 것임을 믿는다.”<sup>xiii</sup>

변덕스럽고, 쓸모 없는 그런 사랑은 변덕스럽고, 쓸모 없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겠지만,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에게는 쓸데 없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고 내일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어떤 것도 실패보다 하나님께 더 치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민수기 14:11-16). 그러나 “그는 쇠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4).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위에 부여된 그분의 모든 은사들처럼, 후회가 없다. 그분은 결코 그분 자신의 소유를 돌보시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방면에서 영원하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대상에서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에게 선한 것을 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임은 그분이 변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2:40; 말라기 3:6; 야고보서 1:17).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은 시간의 미덥지 않은 기초 위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변함 없는 기초 위에서 있다. 우리는 자주 변한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 가운데 변함은 없다. 우리 사랑은 뜨거운 것이고 차가운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변함 없이 동일하다.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그분의 얼굴을 감추고 우리를 단련하시면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섭리의 분배를 바꾸신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사야 54:10; 히브리서 12:5-11). 그분의 징벌은 그분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가 그분에 대항하여 죄를 범할 때라도, 우리가 종종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

고 기뻐하라. —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향한 사랑은 영원부터 존재 하며, 어떤 정도이든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시편 89:19-37; 요한복음 13:1).

## 그것의 은사들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가 없고 영원한 사랑의 은사는 우리가 세기에는 너무 많다.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은사들로 분명하게 계시된 세 가지 만을 보여주겠다. 이 세 가지 것들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크지만, 훨씬, 훨씬 더 작게 여겨져야 한다.

1. 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스겔 37:27). 그분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 우리 대속자로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큰 위임이었고, 위임이다 (요한복음 3:16; 로마서 5:6-10; 요한일서 3:16; 4:10) —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후서 9:15).

3. “사랑의 때”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신 그분의 영의 은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은사이다 (에스겔 16:8; 디도서 3:3-6).

“실로,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하신 모든 것이나, 모든 영원에 하실 것은 얼마나 그분이 그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는가 만을 오직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John Gill).

“여호와와 사랑을 그리 만들지 않았으니  
죄인들을 향한 불로  
예수께서, 위에 있는 그의 보좌로부터  
고난 당하는 인자가 되셨네.

그가 견디셨던 것은 사망이 아니었고,  
또 그가 받았던 모든 고통도 아니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가져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랑이셨음이라.

그분이 택정하신 자의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생각을 초월한 사랑으로라;  
그분의 긍휼은 결코 무시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도 귀하게 산 혼들이네.”

— John Kent

## 그것의 변별성

하나님의 사랑은 뚜렷하고 구별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 없다. 나는 때때로 설교자들이 자기만족과 기쁨의 사랑으로가 아니지만 자비심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확신시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드럽게 팔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듣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분

의 피조물로서, 나무와 두꺼비들을 사랑하심과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에서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추측하건대 그런 생각을 당신에게서 없애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별해서 사랑하신다. —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는 그 사실을 강조하지 않겠지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세 가지 끔찍한 범죄에 대한 죄가 있다.

1.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2.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
3. 그들은 거룩함과 헌신을 위하여 있는 위대한 동기를 파멸한다. 당신이 모든 여자와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당신의 아내에게 말해보라. 그것이 당신에게 그녀가 헌신하도록 감동시키는지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능한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고, 주권적이며, 뚜렷하고, 구별된 사랑임을 말씀하신다 (이사야 43:1-5; 로마서 8:29; 로마서 9:11-24).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기쁨으로 충만하여 사랑하신다. —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취하며, 만족해하심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눈살을 찌푸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 조차도, 우리에게 끊임 없이 미소를 띠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종류와 단계와 정도로 나누려는 모든 시도들이 포기되어야 할 때이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불분명하게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안에서 기뻐하신다. 만약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라요. 당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당신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구려. 당신은 나에게 화가나게 하는구려. 나는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지 않소. 사실상, 정말 당신을 바라 보기를 원치 않소.”라고 하려 해보라. 만약 내일도 아내가 당신 곁에 있다면, 내게 알려주기 바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와 아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17:5).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이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음을 말씀하신다 (잠언 8:31). 그분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실 수 없었다. “기쁨”이라는 그 말은 가장 친근하고, 달콤하며, 황홀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당신은 이것을 아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너무 기뻐하시므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가

4:9)고 하신다.

## 그것의 효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이나 갈망 이상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효험 있는 사랑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이다 (로마서 9:16-18).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요한일서 3:16).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는 것이다 (에스겔 37:27).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다 (요한복음 13:1). 그 안에서 기뻐하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 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23-24)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얼마나 놀랍고, 경탄할 만한 계시인가! 사람들은 이것이 음란함과 반 율법주의를 고무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거룩함과 선행을 단념케 하고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교훈 안에서 우리가 목상해 왔던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싫어했을 때 나를 사랑하셨고, 세상이 시작

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의 구원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하며,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하며, 나 자신을 그분의 영광과 뜻에 헌신하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의 유익을 섬기게 한다 (요한일서 4:19; 고린도후서 5:14; 디도서 3:5-8). 당신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 116 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요한복음 17: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26).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8) —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다. —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분의 귀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천거하신다 (로마서 5:8). 삼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 가운데 은혜와 섭리에 속한 그분의 모든 역사 안에서 행하신다. 시간의 세대를 통하여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신부를 태우는 결혼 마차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혀졌다.” (아가 3:10). “사랑 안에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의 은사 가운데 넓게 뿌리신다 (로마서 5:5).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요한일서 4:9-19).

### 주의 기도

요한복음 17 장에서 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려 한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한 동안 세상에 머물러야 하며, 그치지 않는 시험과 무거운 고

난과, 큰 환란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분의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다만 신뢰할 것을 촉구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마음이 무겁고, 염려스럽고, 혼란스러우며,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음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의문과 질문들로 가득하였음을 아셨다. 따라서, 그분이 그들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의 자리에 대신하여 죽으려 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에게 직접, 그전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로 가서 기도하자.”

우리 앞에 있는 요한복음 17 장에 있는 것은 이 큰 대제사장 기도이다. 26 절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 혼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보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11, 15 절),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13 절),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17 절), 그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24 절). 26 절에서, 주 예수께서 이 경이로운 선포를 하신다 —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신다.

## 위대한 주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경이로운 비밀이나, 더 감동을 주는 동기의 주제를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깊은

대양이며, 무한한 보물이 있는 광산이고, 무한한 경이를 가진 비밀이다. 그것은 무한히 광대하며, 무한하게 충만하고, 무한한 부요이며, 무한하게 경이롭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현재 상태에서 이해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주제이다. 그것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자는 거의 모른다. 여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허용하는 것만큼 깊이 파고 또 파 들어가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황금 덩어리를 모두 발견하지 못하는 주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 혼을 위하여 설명할 수 없이 기쁘고, 위로가 되며, 교훈적인 주제이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희생 가운데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위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하였는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선한 일깨움보다 더 효험 있게 우리를 우리 방법의 오류로부터 올바르게 고친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그렇게 효험 있게 우리의 죄와 불신과 세속적인 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책망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우리 마음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처럼 하나님을 향하게 감동시킨 것은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계시된 경이로운 비밀에 속한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를. —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이 하셨던 것과, 하실 것과,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그분은 육신 안에 그분의 존재의 전적인 계획을 그분의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선포하시며, 그분의 역사의 전체를 끝맺으시

며, 그 모든 계획이 이것임을 강조하신다: —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 우리 안에

우리 주의 기도에서 그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그분이 드리는 마지막 탄원이다. —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분이 의미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이 여기에 있다. 그분은 그분을 사랑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랑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있을 것임을 기도하신다! 그분은 이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실 수 없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요구하신다. 그 큰 요구에서, 우리 사랑의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죄인들에게 오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두신다 (로마서 5:1-5). Charles Wesley 와 함께 노래하자...

“오직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졌기에,  
주여, 우리가 다른 어떤 하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로, 그분의 온전한 사랑의 충만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하늘이

여기 아래나 저 위에는 없다. 이것이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끝나는 부분이다. —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의 안에 있고.”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14-19).

##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첫째, 주 예수는 그분의 전 생애와 사역을 뒤돌아 보면서 결론을 지으신다. —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는 구원은 없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 놓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다. 지식이 구원은 아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육신 안에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따라서 약한 육신일 뿐인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가해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라고 하신다. 사실에 대한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가! 여기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심판에 호소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자신감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에 대

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알게 했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상한 것은 당신과 내가 이 사실에 깜짝 놀란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은 그들이 유아기 때부터 들었으며, 지속적으로 들어서 더이상 놀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놀라게 되라, 나의 혼아!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였던 사람, 하나님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그의 전 생애와 사역에 대한 우리 구원자 자신의 이야기이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것과 그분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 그분은 사람의 육신 안에 여기 섰으며 말씀하신다. “나를 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나는 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 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7-10).

아버지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계시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뿐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게 될 유일한

길은 특별하고 신성한 계시에 의해서 뿐이다 (마태복음 11:25-27). 여기서 언급된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식이다. —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줄 알았삽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요한복음 17:25-26). — 그것은 우리가 책으로 배워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다. 그것은 설교자가 교통신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25-27)

이 지식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표시이다. 이 장의 6 절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다: —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은 죄의 어둠과 사망 안에 거하므로, 아버지를 알지 않고, 그분을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이 확실한 시험으로 당신 자신을 심판하고, 은혜로운 지식으로 자라난 사랑이 당신에게 선한 것을 위한 징표가 되게 하라.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

둘째, 우리 구원자께서 이제 해야 했던 것을 고대하신다. —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분의 생을 통하여 그분은 아버지의 이름과 성품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계시를 끝내지 않았다.

계시가 여기서 끝났다면, 아담의 아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고 하신다. 그분과 함께 겻세마네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분을 들어라. 그러나 겻세마네에서 멈추지 말라. 갈보리로 계속 가라. 나의 혼아, 멈추고, 흠모하며 경탄하라! 여기, 나의 대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끔찍한 진노에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내가 보니, 계시되신 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본다. 이제 나의 혼이 선지자와 함께 외친다. “주여,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지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나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 25:9)

오직 지금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과 나의 의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가능하다. 오직 지금만,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땅의 심판자, 의로운 것을 행하여야 하는 분께서 가련하고, 버림받은 탕자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들로서 품으실 수 있다!

“주여! 사람을 구하셨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영광의 형체가 빛나소서!  
여기, 십자가 위에, 가장 순수한 흐름이  
보혈과 붉은 줄기 안에 있네.

여기서 나는 그분의 가장 깊은 마음을 바라보네,  
은혜와 복수가 이상하게 연합한 곳에서,  
그분의 아들을 가장 날카로운 아픔으로 찌르니,  
값 치른 보물 광산으로 만들려 함이라.

아, 그 십자가의 달콤한 경이로움이여,  
구원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죽으신 곳!  
그 고귀한 생명을 내 영이 이끌어내니  
그의 귀한 상처와 피 흘리는 옆구리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긍휼 안에서 죄인들에게 오실 때, 그분은 아버지의 은혜에 속한 구원의 운행 가운데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계속하여 선포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진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인이 알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 안에서 아들에 의해 죄인의 마음 속에 선포되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죄인은 그가 한 때 경멸하였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끝이 있을 것이라고 절대 상상하지 말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배움에 있어 얼마나 느린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을 때,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지만 아주 조금이다. 영원의 영광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 이유

셋째,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계시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신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의 기도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엄습하거나,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오래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울은 “불법과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큰 사랑” (에베소서 2:4-5)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 받은 자에게 덮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아, 아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곳에 오셨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와의 사랑을 불붙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께서 위의 보좌로부터 오심은, 고난 받는 인자가 되었음이니네.

그가 견디셨던 것은 사망도 아니고, 그가 받았던 모든 비통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음은, 하나님께서 전부터 사랑 이셨음이니네.

그가 그의 택정한 자의 세상을 사랑하셨고, 생각을 초월한 사랑이니;  
그분의 공훈은 결코 너무도 귀하게 산 혼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네!”

—John Kent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 이 선포에 담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이야기 할 것을 시작할 수 없다 (사람은 그가 알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없으며, 시도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네 가지 사항을 깨닫게 하려 했음은 분명하다.

1.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시키면서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을 것이다 (로마서 5:5).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사랑의 깊고, 계속적이고, 방해 받지 않는 확신을 누리게 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근원과 열매 모두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계시이다.

2.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가진 사랑이 그분이 누린 것과 동일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신다! —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아, 경이 중의 경이로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 가련한 죄인들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이다! —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나의 형제며, 나의 자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대상이다! 나는 Spurgeon 이 이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전할 때 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경이롭게 이것을 천명할 수 없다. 여기 C. H. Spurgeon 이 150 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그의

회중에게 말했던 것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 중 가장 큰 문제로 그 점이 확정될 수 없다. 둘 다 죽어야 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선택이 있었을 때,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도록 그분 자신의 아들을 대가 없이 구원하셨다. 아, 그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영광스러운 봄날 같이 밀려올 때, 또 그분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 동일한 날 밀려올 때, 그 어떤 사랑의 바다의 만남이 있었는지. 만약 그들이 만나서 충돌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한 강력한 격류 안에서 함께 굴렀을 때, 어떤 사랑의 흐름이 있었을 것인가! 주 예수께서 가라앉으시므로 우리가 헤엄쳤을 것이며, 그분이 가라앉으시므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 이제 우리는 혀나 입술로 결코 완전히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 안으로 무한한 사랑의 전능한 승리로 영원히 태어나게 된다. 아, 이것으로 매우 기뻐하게 하라. 그것을 갖고 가게 하라.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거룩한 사랑에 황홀해 하라.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 동일한 방법과 종류를 따라 그분의 모든 구속 받은 자를 사랑하신다.”

3.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의 반영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선택했던 얼마나 가련한 말인가

— “반영!” 그러나 그것 말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구원자를 위한 우리의 그 사랑은 그분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안에 피조 되었으며,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 우리 안에 태어난 것이다. 그 사랑은 나의 것이다.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것이다. 그가 내게 그분을 사랑할 마음을 주셨으며, 그 안에 사랑을 넣어 두셨다. 따라서, 나는 신실하게 노래할 수 있다…

“나의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것임을 압니다;  
당신을 위하여 죄의 모든 어리석은 것을 그만둡니다.”

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발하고 퍼져나가는 그 사랑이다 (요한일서 4:8-14).

###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넷째, 이 위대하고, 위대한 기도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구원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 여기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여기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알게 하려 오셨다! —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심으로,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20).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앞으로 올 우리의 영광의 소망을 확신시킴을 알기에 충분하다 (골로새서 1:27; 에베소서 3:14-21).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다 (요한일서 4:9-19).

당신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겠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심판의 날에 당신에게 담대함을 줄 그 온전한 사랑을 당신 안에 소유할 것인가? 와서 나의 구원자를 신뢰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36)

## 117 장. 겐세마네의 주권자—요한복음 18:1-1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화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8:1-11)

요한복음 17 장에서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아버지와 우

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위대한 대제자장으로서 그분의 위대한 중보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분은 일어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고 겿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아담이 처음 타락하여,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과 끔찍한 파멸로 빠지게 하였고 모든 것을 잃게 하였던 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였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마지막 아담)께서 그가 가져가지 않았던 그것을 회복하려 동산 안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한 죄가 되시려 예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께서 땅에 떨어지는 엄청난 핏방울로 젖었던 곳은 동산 가운데서였다.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 저주 받은 나무에서 못 박히셨던 곳은 동산 가운데서였다. 그가 장사되었던 곳이 동산 가운데서였다. 그리고 부활 능력 안에서 나타나셨고, 사망과 지옥과 무덤에 승리하셨던 곳은 동산 가운데서였다!

Augustine 은, “치유자의 피가 그곳에 뿌려져야 했으며, 거기서 병든 자의 질병이 먼저 시작된 곳이었다.”

그러나 네 권의 감동 받은 복음서들 중에서 요한복음만 겿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구원자의 고통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을 인식한 적이 있는가?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아주 자세하게 겿세마네에서 우리 구원자의 마음의 큰 짐과 고통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모두 감동 받았다.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생략하도록 감동되었다. 왜?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 될지 다만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편으로, 그 대답은 분명하다. — 요한의 복음서를 통틀어서 그의 특정한 목적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자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

함이다. 따라서, 그가 겻세마네에 대하여 기술했을 때, 그는 약함과 슬픔에 대하여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전능함, 주권적 통제,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권적 구원자에 의한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확증된 구원에 대하여 말했을 뿐이다.

## 상징적 시내

첫째, 우리 구원자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이 높은 상징성이 있음을 배워라 (1 절). 이 기드론(Cedron) 시내는 구약 성경 내에서 자주 언급된 기드론(Kidron) 시내와 동일하다. 우리 구원자의 현저한 예표였던 다윗 왕이 압살롬에서 도피하고 있을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사무엘하 15:23). 아사 왕이 그의 어머니의 우상을 태우고 그 재를 뿌렸던 것이 그 기드론 시내였다 (역대하 15:16). 여기서 요시야 왕은 성전의 더럽혀진 그릇들을 태워야 했던 것이었다 (왕하 23:4). 그리고 헤즈기야 통치 가운데 주의 집에서 발견된 모든 불결한 것이 기드론 시내에서 버려졌다 (역대하 29:16).

해마다, 속죄일에 속죄양은 합당한 사람에 의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끌려간다. “Kidron” (Cedron)이란 말의 의미는 “탁한” 혹은 “암흑”이란 뜻이다. 그 오염과 불결과 검은색을 상상할 수 있다. 모든 성전의 제물들의 모든 피가 기드론 시내로 흘러내렸다! 거기에는 기드론 시내 가까이에 제물의 모든 쓰레기가 태워졌다. 얼마나 역겹고 메스꺼운 시내였을지 분명하다!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편 110:1-7 을 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겻세마네 동산 안으로 가셨다는 요한의 선포의 중요성을 보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흠을 내어 보내 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궤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궤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0:1-7).

분명히, 우리 구원자는 그 썩은 기드론 시내의 물을 직접 마시지 않았지만, 그것을 건너가셨고, 영적 의미에서 그분이 가시는 길에 시냇물을 마셨다. 그분은 그 비유적 시내보다 훨씬 더 더러운 그것을 마셨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부정과 범죄와 죄들의 잔을 드셨다. 그분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우리 죄들의 불결하고 검은 모든 것을 마셨다. 그분은 우리 신성한 보증으로서 전율의 잔을 마셨다. 그렇다, 그분은 구원의 잔을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바로 그 잔의 남은 것을 마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원하여 그것을 하셨다 (요한복음 18:11; 이사야 51:22; 갈라디아서 3:13-14; 시편 116:13).

##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둘째, 그리스도 없는 종교로써 사람의 마음 위에 그와 같은 모진

효과를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2-3 절). 유다는 열 두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유다는 병사들을 구원자께 안내하였다. 요한은 우리에게 유다가 병사들을 그분께 데리고 오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종종 기도를 위하여 겿세마네 동산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아는 것을 이용하였다고 특정하여 말한다. 거기서 그는 종종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분을 배반하였다. — 얼마나 충격적인가! 사람들과 병사들의 무리가 구원자께 접근하였을 때,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삼 년 동안 성육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동행자였던 사람이었다. 그는 주의 기적들을 보아왔다. 그는 그분의 설교들을 들어왔다. 유다는 구원자의 개인적인 가르침의 유익을 누려왔다. 그는 스스로 믿는 자임을 고백해왔다. 그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 하였고 전도하였다! J. C. Ryle 이 언급하였다...

“특권의 가장 높은 정도로부터 죄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연속적인 단계들만 있다. 오용된 특권은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초를 녹이는 그 불이, 진흙을 단단하게 할 것이다.”

당신의 구원의 소망들을 얼마나 크든지 간에 종교적 지식, 혹은 얼마나 많은지 간에 종교적 이점들에 안주하는 것을 조심하라. 두렵지만, 모든 교리적인 진리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교사들이고, 열심히 참 교리를 전하면서도, 아직도 타락한 것을 증명하고 유다와 함께 구덩이로 떨어지는 자들이 많다! 당신은 영적 특권들의 충만한 햇살을 쬐고 있고 큰 지식을 갖고 있을 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피로할 줄 모르는 일꾼으로 알려져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2). —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처럼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모질게 하는 것은 없다!

## 알고 있는 고난들

셋째, 우리는 여기서 우리 축복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이신 그분께 일어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셨음을 알게 되었다. —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4 절).

우리 구원자의 고난들을 그토록 끔찍하게 만들어야 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처음부터 우리 대속자로서 견디셔야 했던 모든 고통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다. 그분이 잔의 쓰디쓴 남은 것을 그분의 은혜로운 거룩한 손에 드시기 전에 모든 것을 충분히 잘 아셨다. 그분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채찍과 가시관과 십자가와 죄와 저주와 괴로운 죽음을 아셨다. 의심할 바 없이, 풀밭에 있는 어린 양을 볼 때마다, 성전에서 제물을 볼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신성한 공의의 제단 위에 곧 제물로 드러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되셨을 것이다.

## 자원한 대속자

넷째,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한 우리 대속자였음을 다시 여기서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 대신하여 그가 받으셨던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분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셨기 때문에 죽

으셨다 (4-11 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4-11).

우리 주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조차도 주권자셨다. 주목하라. 주도권을 취한 분이 그분이었지, 병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다가 아니었다. 그를 체포하려 왔던 자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이 그 상황의 완전한 통제 가운데 계셨음을 거룩한 힘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 주께서, “내로라.” 하셨고,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것은 아마도 감화의 책에 기록된 가장 큰 기적이다. 그것은 구원자의 존재에 대한 그분의 간단한 선포로 성취되었다. 여기 무기로 무장한 병사

들의 부대가 물러나 땅에 엎드리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 “내로라!”에 의해서 주 예수 앞에 부복하였다. 하나님 말고 누가 그런 기적을 역사하셨겠는가?

이것은 역시 거룩한 예언의 성취였다. —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편 27:2). 이사야도 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 말했다 (이사야 11:1-4).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 11:1-4).

얼마나 쉽게 그 동일한 호흡과 그 동일한 말씀이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 있는지. 이것을 간과하지 말라. 주 예수께서 생명과 위로와 힘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바로 그 말씀과 바로 그 호흡이 그분이 대적들에게 사망과 심판과 파멸을 가져온다 (이사야 51:12; 58:9; 고린도후서 2:14-16).

우리 귀한 축복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다. 그분은 그것을 받도록 강요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로 결정되었다 (11 절). 그렇다, 그분은 세 번 기도하였다. “아, 아버

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실 것과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죽으실 것을 예상하고 얼마나 떠셨을 지. — 보라, 피땀을!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었드렸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셔서 유다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병사들을 만나러 나가셨고, 상처 난 병사를 치료하셨으며, 베드로에게 그의 검을 거두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원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자원한 구원자이다. 그분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난 받지 않으셨다. 빌라도 군대의 모든 병사들은 그분이 기꺼이 잡히기로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을 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머리 털 하나라도 다치게 할 수 없었으며, 그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원자는 자원하여 고난 받는 자, 자원한 대속물, 자원한 희생제물이셨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우리 구속을 성취하는 데 그분의 마음을 두셨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속량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기분 좋게, 기꺼이, 기쁘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것이 그분께서 “십자가와 그 치욕의 경멸을 견디셨던” 것으로서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우리가 구원 받으려는 것보다 훨씬 더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다. 그분은 기꺼이 자원한 대

속자로서 죽으셨다. 선한 목자께서 그분의 양 떼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려 놓으셨다.

따라야 할 놀라운 본을 그분이 우리 앞에 두셨다. 그분의 아버지께 대한 순종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의 뜻으로 고통스럽게 죽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이기도 하시다. 이 세상에서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속하여 우리 아버지의 뜻에 엮드리는 것이다. 그분은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배웠던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다. “아버지여, 당신이 뜻하시는 것을 제게 주시고, 당신이 뜻하신 곳에 나를 두시며, 당신께서 뜻하시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소서!

## 공의의 요구

다섯째,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의 구원을 요구한다 (8 절). 우리 구원자는 여기서 이 병사들과 율법의 대표자들과 공의의 집행자들에게, “만약 너희가 나를 잡으면, 이들을 가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목자와 양 떼를 모두 취할 수 없다. 너희는 대속자와 대속자가 대신하여 벌을 받는 자들을 모두 벌할 수 없다. — 이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선포하셨다. —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고, 명령, 공의가 동의해야 하고 할 명령이었다! Augustus Toplady 는 이렇게 적었다 ...

“어디로부터 이 두려움과 불신이 왔나?”

나를 위하여 그분의 흠 없는 아들을  
비통하게 두신 분이 아버지께서가 아닌가?  
또 사람에게 대한 의로운 심판관께서  
주여, 당신께 전가되었으니  
죄의 빛에 대하여 나를 정죄하실까?

완전한 속량을 당신께서 이루셨으니  
또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지불하셨으니  
당신의 백성이 무엇을 빚졌든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없네  
당신의 의 가운데 피난처를 삼는다면,  
또 당신의 피로 뿌림 받는다면?

만약 당신이 나의 해방을 얻으셨다면,  
또 내 자리에서 대가 없이 견디셔야 했다면  
거룩하신 진노 전체가,  
하나님께서 두 번 요구하실 수 없는 값이니,  
처음에는 나의 피 흘리는 보증자의 손에서,  
그리고 다신 나의 손에서라.

그리고, 나의 혼을 당신의 안식으로 돌리니;  
당신의 위대한 대제사장의 공로가  
평강과 자유를 말씀하네;  
그분의 효험 있는 피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당신이 추방될 것을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음이라.”

## 애정 어린 주의 깊음

8 절을 다시 보고, 이 여섯 번째 공과를 보라. —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예민한 눈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또 전능한 은혜로 지키신다.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 우리 혼을 다루는 우리 구원자의 모든 다루심의 교훈적인 그림이 있다. 그분을 신뢰하는 당신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0:13). 그분은 그분 자신의 소유가, 체로 처지고 시달리겠지만, 철저히 파멸될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 각각을 부드럽게 바라보신다. 지혜로운 의사처럼, 그분은 무한한 기술과 무한한 관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잔을 계량하시고 혼합하신다. 이 보배로운 진리를 우리 혼이 배우도록 하자. 가장 어두운 때 주 예수의 눈은 우리 위에 있고, 우리의 안전은 보장된다.

## 확실한 구원

일곱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은 절대적 확신의 문제임을 상기시키신다. —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9 절).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요구한다. 그 영의 인치심이 그것을 요구한다.

이 구원을 소유하려는가? 이 위대한 구원자를 소유하려는가? 그분

께 오라, 그러면 이 구원이 당신의 소유이다. 그분께 오라,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소유이다!

“보잘것 없는 죄인은 오라, 그 가슴 안에  
수천의 생각들이 맴돈다;  
당신의 죄와 억눌린 두려움을 갖고 오라,  
그리고 이것을 마침내 해결하게 하라.

‘내가 주께 나아갈 것이라, 내 죄들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들이 나를 가까이 둘러싸듯이;  
내가 그의 궁정을 아니, 그 안으로 들어가리,  
어떤 방해가 있어도.

‘엎드리라 내가 그의 보좌 앞에 엎드릴 것이니,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리;  
그분께 아뢰는 것이니 나는 실패한 비참한 자라  
그분의 주권적 은혜가 없음이라.’

나는 은혜로운 왕께 다가갈 것이니,  
그의 홀이 용서를 주네;  
아마도 그가 나의 지각에 명하리니,  
그러면 애원하는 자가 살리라!

아마도 그가 나의 탄원을 받을 것이며,  
아마도 나의 기도를 들을 것이나;  
그러나 만약 내가 멸망한다면, 나는 기도 할 것이니,

그러면 오직 그곳에서 멸할 것이다.

내가 간다면 오직 멸망할 수 밖에 없고,  
애써보려 시도함이라;  
만약 멀리 떨어진다면, 내가 알기에,  
나는 영원히 죽어야 할 것이다.

허나 만일 내가 구하는 공홀로 죽는다면,  
내가 왕을 시험하려 했을 때,  
이는 죽는 것 뿐이었으니 (기쁜 생각이라!) —  
죄인은 결코 죽지 않았음이라!”

## 118 장. 사로 잡히고, 결박되고, 멀리 끌려가신 예수—요 한복음 18:12-27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 씬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 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8:12-27)

여기 군중이 많은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서, 그들이 추웠기 때문에 따듯하게 하려 불을 피웠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계시인가. 겨우 몇 시간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겟세마네의 공개된 곳에서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으셨다.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시며, 피땀을 흘리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기로 예상하셨기에,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디셨으며, 얼마나 무거운 짐이 그분을 짓눌렀는지!

큰 중요성과 영적 가르침의 문제들로 제시된 요한복음의 이 부분 안에 다섯 가지 사항들이 있다. 우리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로 우리 구원자를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 흠모할 만한 섭리

성경의 이 부분에서 나를 치는 첫 번째 사항은 하나님의 흠모할 만

한 섭리의 나타남이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세심함으로 넘치게 하시며,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그분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언제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1:8-11). 아무것도 그것 보다 숙고할 만큼 놀랍거나 기억할 만큼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시고, 흠모할 만한 섭리의 이 나타남을 결코 놓치지 말고, 간과하지 말며, 가볍게 평가하지 말라.

첫째, 요한은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임을 상기시킨다 (14 절). 비록 가야바가 하나님을 몰랐고 우리 구원자를 몰랐으며, 그가 이기적인 종교 지도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경멸하였던 복음의 말씀, —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대속의 구속을 이제까지 어떤 사람보다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셨다 (요한복음 11:50-52).

다음으로, 성령께서 요한이 베드로의 주 예수에 대한 부인을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유혹의 장소에 두셨던 것을 보는 것을 놓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묘사하게 감화하셨음을 내게 보이는 것 같다. 아무도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오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떻게 그가 바로 그 밤에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할 것인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알려졌던 제자를 그곳에 두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갈 수 없었다 (15-16 절). 그 제자가 먼저 들어갔고, 베드로가 들어오도록 허락

을 받았으며, 그리고 다시 문으로 돌아갔고 문지기에게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올 허락을 받았음을 말하였다.

거기서 베드로는,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악이 없고, 우리에게 남겨졌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없을 악은 없고, 유혹을 거절하고, 마귀를 거절하고, 우리 타락한 마음의 혐오스러운 열정을 거절할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보이면서, 주 예수를 부인하였을 것이다. 그곳에서 주 예수께서 변치 않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온화한 눈으로 그의 타락한 제자를 바라보셨을 것이다. 거기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을 보다 친근하게 베드로, 그분의 사랑의 대상에게 알게 하시려 그분이 길을 예비하러 하녀와 병사와 마귀를 사용하셨다 (요한복음 21:15-17). 거기에서 주 예수께서 베드로가 밀처럼 채로 쳐지도록 하셨으며, 그로써 그분이 그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유용한 전도자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실 수 있었다.

셋째, 우리는 다시 희생적 예표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흠모할 만한 섭리의 표현을 본다. 레위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7:1-9),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대제사장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 우리 희생제물은 그분이 희생되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 데려와 졌다. 비록 가야바가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양으로서 그분의 결백에 대하여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가야바가 그를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 빌라도는 그분을 잘 못이 없음을 선포하였다 (베드로전서 1:17-20).

우리 본문에서 두드러진 첫 번째 사항은 하나님의 흠모할 만한 섭리이다.

세속적 논리가 요구하려 했을 때  
왜 나의 하나님은 이런 것 저런 것을 명하셨으며,  
믿음 안의 내 마음은, 주여, 겸허히 굴복하니  
나의 하나님과 왕이신 당신의 보좌 앞에서라.

의혹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힐 때,  
어둠이 나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  
아 이에 안식할 은혜를 내게 주소서, —  
그로써 당신께 선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 나의 그리스도는 주시라  
또 모든 것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시네.  
당신의 섭리를 내가 흠모할 것이네,  
그리고 평온하고, 달콤하게 당신을 여전히 신뢰하네.

### 놀라운 냉혹함

둘째,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우리에게 타락한 마음의 놀라운 냉혹한 모습을 제시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체포되게 되었던 사람들의 행위 가운데 본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 동일하다.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을 때” 보여진 우리 구원자의 신성한 권세를 모두 보았다. 그분이 말고의 귀를 만지고 그를 치료하셨을 때 우리 주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모두 보았다. 하지만, 모두 움직이지 않고, 냉담하고, 무관심하

고, 무감각하고, 무정하게 남아 있었다.

당신은 그것이 놀랍게 보이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마치 평범치 않은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스가랴 7:12). 그들은 이런 것들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은 바로처럼 냉혹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무감각한 임무를 냉정하게 계속하였다. — “그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가니!”

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냉혹한가! 아무것도 그것을 깰 수 없다! 아무것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다! — 전능한 은혜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냉혹한 마음을 위한 소망이 있다!

John Trapp 은 고대 저자의 글을 하나 인용하면서, “금강석은 화석보다 더 단단하고 (에스겔 3:9), 맷돌 아래쪽 보다 더 단단하여 (욥기 41:24), 모든 돌들 중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되는 전설적인 돌이다. 불이 그것을 태울수도 없고, 심지어 전부 뜨거워지게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망치로 깨뜨릴 수 없다. 하지만, 모든 돌 중 이 가장 단단한 돌은, 염소의 피로 씻었을 때, 녹아내리고, 용해되고, 부서진다. 따라서 가장 고집스런 죄인의 가장 모진 마음도, 죄인의 속죄의 염소인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질 때, 녹고, 용해되고, 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피를 적용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찌르고 애도하였던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기적들은 결코 타락한 사람의 모진 마음을 꿰뚫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들은 결코 돌

같은 마음을 깨뜨지 못할 것이다. 고뇌가 결코 그것을 깨뜨지 못할 것이다. 율법이 그것을 결코 부수지 못할 것이다. 지옥 그 자체가 사람의 반역적인 마음을 부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할 수 있다!

## 놀랄 만한 겸손

셋째, 우리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랄 만한 겸손의 경이로운 제시가 있다. 죄수를 잡아서 데려가고, 보통 범죄자처럼 결박당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창조주, 우주의 주권자가 있다. 그분은 사악하고 불의한 판사들 앞에서 심문을 받으신다. 그분은 경멸스럽게 모욕 당하고 취급 받으신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구원만을 뜻하셔야 했고, 단번에 자유롭게 되셨을 것이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대적들의 혼란을 명령하셔야 했으며, 그들은 즉시 형편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 인자,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 앞에 그의 재판관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모든 그들의 하속들이 미리 서 있었고, 그분으로부터 그들이 영원한 저주의 판결을 받게 될 심판자이다. 하지만, 그분은 저항 없이 범죄자로 취급 받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다. — “그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끌고 갔다.” (12-13 절). 그것을 상상해보라! 그분이 살육되려 끌려가셨을 때, 그분의 백성의 죄들로 결박되었을 때,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시려, 진영 밖으로 끌려 갔다 (히브리서 13:12). 이사야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을” 때, 그분이 “곤욕과 심문을 당하셨도다” 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사야 53:6-8). — 절대자가 잡히셨으므로 유죄의 죄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 구약의 제물들처럼, 그리스도 우리 제물은 제단에 줄로 묶였으며, 일반적인 범죄자처럼, 아마도 일반 범죄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지만, 신성한 공의의 줄에 포박되고 수갑이 채워졌다! — 주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묶였으며, 우리의 불법으로 인하여 상처 받았으며, 그로써 우리가 어둠의 사슬로부터 그분의 묶임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실로 가련한 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애정을 받을 어떤 의미의 가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다. 불의한 대우에 조용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은혜롭고 지혜로운 순종이다. 그러나 자원하여 고난 받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막을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당신의 피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 받는 것은 요구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으며, 감사하지도 않은 것이며, 그것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다!

우리 주 예수는 잡혀서 끌려갔으며 대제사장의 법정 앞에 끌려갔지만, 그분이 자신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영원 전부터 우리 위에 그분의 모든 마음을 두셨기 때문이었다.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 죄들을 품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 대신에 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혼을 속량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분은 기꺼이 죄수가 되었고, 그로써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었다. 그분은 기꺼이 심문을 받고 징죄 받았으며, 그로써 우리가 면책 받았고 결백함이 선포되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

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18).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대속은 복음의 가장 중심이다. 우리 사랑의 구원자는 기꺼이, 그리고 저항 없이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대속의 속량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사기 위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주 예수는 우리 대속자이고 우리 예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베드로전서 2:21-25; 빌립보서 2:5-8).

우리 사랑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의 분이 되셨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우리 분이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구원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온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따르기 위한 분으로 자신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는 모든 전도자들이 따르기 위한 분으로, 또 표준이셨다.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가야바에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라 (19-21 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8:19-21).

신실한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깨닫도록 정하였다. 만약 당신 신실한 전도자가 믿는 것을 알기 원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그들의 말을 듣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 내주하는 사악함

넷째,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참된 믿는 자들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내주하는 죄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 아직 남아 있는 부패와 이 육신의 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 안에 남아 있을 것임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행위 안에서 충격적으로 실증되었다는 이 사실을 본다. 대단히 강하고, 충성되며, 믿는 사람이고, 그의 주를 버리고, 버림 받은 타락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베드로가 있다! 거기서 그는 그의 주의 편에 서야 했을 때 도망갈 것이다. 그가 그의 주께 고백했어야 했을 때 그의 주를 소유하기에 부끄러워하는 그를 당신은 보는가? 여기서 그가 알았던 그의 구원자를 세 번 부인하는 그의 말을 듣는다. 이 모든 일은 주의 만찬을 받은 직후에, 주의 마지막 강론을 듣고 난 후에, 가장 분명하게 가능성 있는 경고를 듣고 난 후에, 앞선 장에 기록된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는 하신 그의 구원자의 그 위대한 기도를 듣고 난 직후에, 그의 부인으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일이 벌어졌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2) — 베드로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책 안에 반복하여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배움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구원 받은 죄인들은 여전히 죄인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 그분의 순종이다! — 그분의 피다! — 그분의 탄원이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있다!

### 풍성한 은혜

이 사건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다섯 번째 사항은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실패하지 않고, 변치 않으며, 풍성한 은혜이다. —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20-21). 베드로가 비록 종종 달리 행동했지만, 그는 진실로 주 예수를 사랑하였다. 마찬가지로 당신과 내게도 같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하였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분 자신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행위로 회복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는 결코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 베드로는 그가 뿌렸던 것을 수확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그의 대속자께서 베드로가 심은 것을 수확하셨다. 그분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다! — 우리는 큰 죄인들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 119 장.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요한복음 18:28-40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

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요한복음 18:28-40)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체포되고, 안나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로 가는 어두운 길을 따라 강도처럼 끌려 갔고, 거기서 그분은 조롱 당하고, 뺨을 맞고, 그분의 대적들에 의해서 거짓되게 고소당했으며,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의해 부인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배치된 로마 행정관 빌라도에 의해 심판 받기 위해서 관정으로 끌려 가셨다.

당신은 몇 시간 안에 두 가지 다른 재판소 앞에서 심문을 받은 사형 범죄로 혐의를 받은 사람의 다른 경우를 찾으려 역사를 헛되이 뒤질 것이다. 우리 주의 재판의 이런 방면은 두 국적의 재판정에서 심문을 받았다는 사실로 더욱더 평범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는 유대인이었고 다른 쪽은 로마였다. 그리고 재판정은 질서가 달랐다. 하나는 성직자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었다. 그분은 먼저 “그 해 대제사장”(요한복음 11:49)이었던 가야바가 주재했던 유대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

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그분의 죽으심의 방법을 미리 말하였던 것을 성취하게 되었던 순서대로 있어야 했다.

우리 주의 삶의 마지막 사건들은 선지자들에 의해 분명하게 예언되었다. 따라서 시편 2 편에서 우리가 본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시편 2:2-3).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자들을 위하여, 시편의 이 구절들을 암송한 후에, 말씀하였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 4:24-28).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큰 동맹, 세상 사람과 치리자들의 왕들이 여호와와 그분의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스스로 도전하면서, 삼일 여호와께서 갖고 계셨던 그분의 영원한 뜻 가운데 행해지기 전에 명령을 성취하는 것을 계속할 뿐이었다.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때부터, 율법의 모든 예표와 그림자에 의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사도들의 모든 전도와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의 모든 것 안에서, 주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로 충만하며, 지옥을 향하고, 지옥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계시하셨던 타락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고,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망과 구원의 방법이다.

나는 집으로 가야 하네 십자가의 길로,

다른 길은 없고 이길 뿐이네;  
빛의 문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임은,  
만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놓친다면.

나는 곧고 좁은 길의 믿음으로 걸어야 하네, —  
그분의 속량의 피 안의 믿음이라네!  
내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설수 없으나,  
허나 그분의 피의 공로로 서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된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그가 고난 받아야 할 모든 것을 고난 받아야 했다 (누가복음 24:25-27).

피에 굶주린 공회가 밤을 지냈지만 그들의 재판에서 흠을 찾을 수 없었고 주 예수를 빌라도의 공관으로 가능한 빨리 넘겼다. 그들이 얼마나 그분의 피에 굶주렸는지! 그러나 그분의 갈증은 그들보다 훨씬 더하였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실 만큼 목말라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극도로 쓴 그 남은 것을 마실 만큼 목말라 하셨고, 그러셨을 것이며, 한번의 엄청난 잔의 사랑의 음료를 마시므로 저주를 말리셨다!

### 아연실색하게 하는 위선

첫째, 28-31 절에서 우리는 위선의 아연 실색하게 하는 모습을 본다. 여기 종교적으로 열광적인 한 무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공회와 대제사장, 영광의 주, 어떤 범죄에도 완전히 결백함을 그들이 알았던 분을 죽이려 모두 함께 공모한 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관정

으로 들어가면서 의례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8:28-30).

이 냉혹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행했던 것 중 가장 지독하게 사악한 것을 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들은 메시아를 살해하는 일을 진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법도에 대하여 매우 까다로웠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들을 위선자들과 독사들로 정확히 구별하셨다.

인간의 양심은 우리 나머지 본성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악하다. 때로는 단단해지고, 시들고, 죽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다른 때에는 종교 의식과 전통의 문제에 대하여 병적으로 세심하다. 가증스럽게 부도덕하면서도, 하찮은 형식이나 외적 의식에 대하여 지나치게 세심한 사람을 발견하기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강도들과 살인자들은 신앙 고백과 죄사함과 기도들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 사순절에 금식과 자진한 금욕은 종종 사순절이 끝날 때 혐오스러운 사악함이 뒤따르곤 한다. 사순절에서 사육제로 가는 단계만 있을 뿐이다. 자신들이 한 쪽 방향에서 틀렸음을 아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방향에서 과도한 열심으로 일들을

의롭게 보이려고 애쓴다. — 바로 그 열심이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정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외적 형식과 의식절차와 성례와 종교의식에 초점을 두게 하는 종교의 어떤 형식도, 적어도 말하자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지대한 열심과 성실함을 보이는 것이 따라가게 될 것이지만, 건강하지 않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분의 일을 지불하였고, 그들이 “심판과 공홀과 믿음”을 무시하는 한편, 개종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바다와 땅을 획득하였다 (마태복음 23:23).

위선은 비록 그것이 언제나 관대함과 온유함과 형제 사랑을 보이기를 찾지만, 언제나 비열한 영이고 부정직하다. 이 유대인들은 주 예수께서 아무것도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팔 불고 왜곡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그분이 완전히 결백함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0 절).

시기와 탐심과 질투와 탐욕은 언제나 위선자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동기가 된다. 그리스도의 피에 목말라했던 유대인들은 로마 관정의 모독을 두려워하였고, 유월절 지키는 것에 대한 많은 소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시기와 탐심과 질투와 탐욕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행동이 세상이 서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표가 되게 하라. 그 종교는 우리가 다윗과 함께,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128)라고 말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 기독교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마음의 경배와 마음의 믿음과 마음의 헌

신을 초월한 무가치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위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심과 진리로 서로를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다 (빌립보서 3:3). 참 믿음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6). —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무엘상 16:7) —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 성취된 예언

둘째, 하나님의 압도하는 섭리는 유대인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기 위하여 책략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분께 증거가 되게 하셨다 (31-32 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한복음 18:31-32).

31 절에서,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하여 로마 율법으로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함으로써, 유대 공회는 시민 정부의 왕권이 유다로부터 벗어났던 것과 구속자의 계시의 때가 왔을 때를 인정하였다 (창세기 49:10).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10).

“실로”는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 불렀던 이름들 가운데 하나이

다. 그것은 “조용한,” “온전한,” 또 “번창한”의 의미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강을 만들려 오셨던 구원자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그분과 그분만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얻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평강이시다!

32 절에서, 유대인들인 우리 구원자의 십자가형에 관련하여 행했을 모든 것을 다 했음을 본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우리 주 예수께서 반복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며, 막대 위의 뱀처럼 땅에서 들리지셔야 함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0:19; 요한복음 12:32, 33, 3:14-16). 주 하나님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주께서 그들이 했어야 할 것을 명령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더도 덜도 아니게 정확히 하였다.

## 영적 왕국

셋째, 33-36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왕국이 모두 영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 복음 18:33-36).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셔야 했던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승의,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왕국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권세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왕국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왕국은 모두 영적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완전히 거짓이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한 모든 유명한 책들은 미래 일들에 대하여 세상적인 개념 외에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관주 성경의 주해와 예언적인 것들에 대한 연구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거짓이다. 명백히, 나는 그것들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몇 권은 읽었으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 하나도 읽은 것이 없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종교적인 바보 같은 것을 무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만일 내가 여기서 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이야기는 종교적인 바보 같은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이상 더 멀리 나가지 않을 것이다. — 만일 내가 이 글에서 당신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하시는 것과 정확히 같다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말한 것을 종교적인 바보 같은 것 이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기지 말라.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왕국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하게 대답하셨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좃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찌니라.” (누가복음 17:20-25).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께 물었던 모든 것은 사악한 동기로 질문되었다. 그들은 결코 배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비꼬아서 어떤 사악함으로 주 예수를 고소하거나, 우리 구원자의 가르침을 비웃으려 어떤 것이든 묻는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더 나아갔다. 그들은 그분을 “요구하였다!” 얼마나 오만한가! 어떤 추정인가!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 감히 영광의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드러난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은가! 하지만, 이런 요구를 하였던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 들인 양 하였다!

“요구하였다”고 번역된 말은 “넉살 좋게 뻥히 대하다” 혹은 “따져 묻다”의 의미이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의 왕국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약속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요구는 그 안에 조롱의 음색이 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며, 왕국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불쌍한 보통 사람,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든 믿을 것을 정말 기대하는가? 당신의 이 왕국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다릴 것을 당신은 얼마나 오래 기대하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모든 미래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의 복음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의 조롱으로 그분께 주어진 경우를 붙잡았다.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20)라고 하신다. 나는 그 무지한 바리새인들의 얼굴에서 철저히 무지한 곤혹스런 모습을 거의 그려볼 수 있다. 우리 주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대하여 이 바보들에게 오직 그들이 더 무지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기 위해 대답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그날 군중 속에 있는 그분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미래의 모든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귀를 매우 기울이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확신하건 데 죽은 듯 조용하게 되었다. —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땅의 어떤 왕국하고는 전혀 같지 않다는 뜻이다. 그 왕국이 오는 것은 눈으로나, 볼 수

있는 표적이거나, 정해진 날짜나, 예측 할 수 있는 때나 성취된 예언을 확인하면서 볼 수 있지 않다.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볼 것을 기대하는 자들은 분명히 실망하게 된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결코 오지 않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왕국을 헛되이 기다리고 지켜본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신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적어도 우리 구속자의 말씀으로 의미를 갖는다.

1. 하나님의 왕국은 화려한 장관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외적 모습을 갖고 오지 않는다. 사실, 성경의 범위에서 주어진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이다.
2.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난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 난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들어 갈 수 없는 왕이다 (요한복음 3:3, 5).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이 왕국에 대하여 어떤 것이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3:1-8; 고린도전서 2:12-16).
3. 누가복음 17:20 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은 또한, 아마도 우선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왕국은 종교적 율법, 의식, 전통, 성찬을 지키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일을 지키고 거룩한 것을 행함으로 오지 않는다. 상상 속의 성례를 받고 상상 속의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국은 종교적 행위와 금기들의 문

제가 아니다 (로마서 14:17; 골로새서 2:20-23). 실상은 만약 당신과 내가 우리 눈과 우리 천연적인 감각에 매우 인상적인 어떤 것을 본다면, 또 혹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리 느낌을 본다면, 우리는 틀렸고, 매우 틀렸다.

## 그리스도의 사명

넷째, 요한복음 18 절의 37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사명을 선포하신다. —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분은 갈보리 산에서 그분의 백성 대신 죽기 위하여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진리, 완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어떻게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가를 보여 주려 오셨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을 그분이 백성의 구원 가운데 영광을 드리키 위하여 여기 오셨다 (마태복음 1:21).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디모테전서 1:15) 오셨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하여 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 빌라도의 선포

다섯째, 빌라도는 우리 축복의 구속자께서 잘 못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8 절).

첫째, 빌라도는 조롱하고 비웃는 질문을 하였다. — “진리가 무엇 이냐?” 그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 같은 그런 것은 없다. 당신에게 한 가지가 있고 내게 다른 것이 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25:10).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모든 진리가 한 가지 것에 종결되어 있는듯이, “당신의 진리”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한다. —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57:10).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다. 그분은 그분의 성육신 안에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승천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솟아오른 진리이다 (시편 85:10-11). 그리스도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되는 진리이다.

따라서, 비록 그분이 조롱하는 이교도인인, 빌라도가 율법 앞에서 우리 구원자의 완전한 무죄를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 우리 유월절 제물이신 그분은 율법 앞에서 전혀 죄가 없으셨고 없으셔야 한다. 오직 거룩하고, 해가 없고, 순결하며 죄인과 구별된 분이셨던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될 수 있었고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만드실 수 있다.

## 묘사된 대속

여섯째, 이 장은 분명하고 교훈적인 그림의 대속으로 마친다 (39-

40 절). 여기 진리의 그림이 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요한복음 18:39-40).

바라바는 강도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당신과 나는 그분의 영광의 하나님과 생명과 기쁨의 우리 혼을 강도질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라바 대신 죽었으며, 사악한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 당하셨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 대신에 죽으셨다! 바라바는 주 예수께서 그 대신 죽으셨던 유월절에 풀려났다. 우리도 그렇다.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이 진리이다: —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랑스런 아들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분은 너무도 공의롭고 의롭게, 진리에 엄격하게 따라서 행하신다 (갈라디아서 3:13; 베드로전서 2:24; 3:18; 고린도후서 5:21). 그리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통치한다 (로마서 5:20-21).

“악한 오랜 동안 내가 기쁨을 취했으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에도 태연하네,  
새로운 대상이 내 시야를 칠 때까지,  
또 내 거친 삶을 멈췄네.

나무 위에 달린 한 분을 내가 보았으니,

고통과 피 가운데 있으니,  
그 힘 없는 눈을 내게 멈추신 분이니,  
그분의 십자가 가까이 내가 서 있었네.

내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결코 확신 못하니  
그 모습을 잊을 수 있으랴;  
그의 죽음으로 내게 씌우는 것 같았으나,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네.

내 양심이 죄책감을 느꼈으며 또 가졌고,  
또 나를 절망 속에 빠지게 하였네;  
그의 흐르는 피 내 죄들을 보았고,  
또 그를 거기 못 박는 것을 도왔네.

그가 두 번째 보시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가 없이 모두 용서하였으니;  
이 피는 너의 속량으로 지불한 것이라;  
내가 죽으니 네가 살 것이라.’

그러니 그의 죽으심을 내 죄가 보이니  
그 모든 흑암의 색조 가운데,  
그것이 그분의 은혜의 비밀이니, —  
또 내 용서를 인치네!”

—John Newton



## 120 장.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요한복음 19:1-12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체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

니라 하시니,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9:1-12).

요한복음 19:12 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빌라도가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한다. 빌라도는 사형 명령에 서명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말씀한다. 빌라도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빌라도의 명령이 없이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빌라도는 명령하였다. 여전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그 말을 읽을 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면, 빌라도는 사형 명령을 했는가? 왜 빌라도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아야 했는가?” 오직 하나의 대답만 주어질 수 있다. —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명령하셨고 섭리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은 이 장면을 통하여, 실로, 역사의 모든 장면을 통하여, 지배하고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나 고안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 하나님의 주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무수한 예시들이 있다. 하나님의 책 도처에서, “하늘이 다스린다!” (다니엘 4:26). 그

러나 갈보리에서 죄인들 대신 하나님의 사랑스런 아들의 희생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주 불가사의하고 경이롭게 제시하는 것은 없다.

삼일 하나님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육에 의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계획하셨다. 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섭리에 속한 일들을 정확하게 그분이 영원한 계획에 따랐으며, 빌라도의 손에 의해 일어나게 명령하셨다 (사도행전 4:27-28). 우리 주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 가운데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제시하실 때인 정해진 때가 왔을 때, 빌라도는 명령을 내렸고 지옥 같은 행위가 행해졌다. — 하나님의 아들은 사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죽음 당했다! 따라서,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뿌리심으로 얻은 그 구원을 소유할 것이라면,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구원은 당신의 소유이다. 믿음은 구속과 적용된 구속의 증거이다.

반복하건대,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을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놀라운 성취처럼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징을 보여준 우리 주의 십자가형의 한 방면은 빌라도, 유대아의 로마 총독이 십자가형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이 감동의 단락 안에 주어진 기록을 보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관정에 계신 것을 본다. 이 단락은 우리에게 매우 이상한 사건을 제시한다. — 여기서 모든 세상의 심판자가 사악한 자들의 심판을 받으려 서 있

다! — 의 가운데 세상을 곧 심판하실 그분이 가장 불의하게 심판을 받고 있다! — 어느 날 만민의 그분의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심판의 보좌 위에 계실 분이, 사람들의 법정 앞에 죄인으로 서 계시다!

## 빛나간 정의

역사의 어떤 기록에서도 결코 공의가 그렇게 광포하고 의도적으로 악용된 경우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일반적인 도둑이나 살인자에게 주어진 정의의 권리가 부인되었다. 어떤 증거도 검증되기 전에 한 증인이 그에게 반대가 되게 증언하도록 꾸며졌으며, 영광의 주께서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증오로 맞고, 조롱 당하고, 벌거벗겨지고, 폭행을 당하였다.

하나님-사람이 견디셨던 치욕의 깊이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6-8)

유다는 우리 주를 배반하는 그의 거래에서 이득을 얻었다. 그가 구원자에게 입맞춤을 하자마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손을 묶고 그분을 데려갔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굶주린 밤의 이 늑대들은 그들이 그분의 보배롭고, 결백한 피를 갖기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가능한 속히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살해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것을 재판을 통하여 형식을 갖췄다. 당신은 그 이야기에

대하여 훤히 알고 있다.

## 사건의 순서

그 날 밤의 사건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하겠다. — 우리 구속자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으며 기드론 시내를 가로 지르는 길을 따라 서둘러 끌려가셨다. 가면서 눈물을 흘린 그 시내를 건너갔던 다윗처럼, 우리 위대한 다윗은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시내를 건너가셨다. 기드론 시내는 성전 제물의 모든 쓰레기가 버려졌던 곳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그 시커먼 개천을 그분이 냄새 나고 더러운 것들처럼 지나가셨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언제나 끌려갔던 문인 양문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끌려가셨다. 그 자들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예표들을 글자 하나까지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이 사악한 사람들은 죽이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끌고 갔다.

우리가 그분의 재판과 잔혹한 조롱을 겪으신 우리 구원자를 따름으로 우리 마음을 주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시기를. 첫째, 그들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임마누엘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 희생물을 보고 있는 피에 굶주린 철면피를 만족시키려 잠시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야바의 집으로 급히 데려갔다. 그곳에서 공회원들이 주에 대항하여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모였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는 길로 끌고 갔다. 거기서 그들은 영광의 주께 선고될 합법적인 사형 선고문을 기대하였다. 넷째, 빌라도는 피에 굶주린 군중을 헤롯, 갈릴리 총독에

게 보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주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여기서 그분은 재판을 받고, 맞고, 조롱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9:1-12에서 우리가 그분을 보는 내용이다.

## 결정의 뒤 얽은 빌라도

빌라도가 주 예수를 다루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생생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실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빌라도는 일곱 번 이상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고 인정하면서, 그분의 무죄를 확신하였다. 둘째,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 주기를 바랬다 (누가복음 23:20, 22; 요한복음 19:12; 사도행전 3:13). — 셋째,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주 예수께 판결을 내리지 말고 그분을 놓아 줄 것을 촉구하였다 (마태복음 27:19). 넷째,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직접 그분을 재판할 것을 말하면서, 그분을 석방하려고 하였다 (요한복음 18:31). 그는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누가복음 23:7). 그는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그가 처형하도록 하였다 (요한복음 18:39-40). 하지만,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하였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 전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갈 때, 사람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구원자를 놓아주려 결정하였던 유대인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 받았다. 모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빌라도가 그분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명하셨다. 그리고 모든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다. 만약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준바 되었다” (사도행전 2:23).

하나님의 종으로서, 베드로는 대담하게 선포하였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쁨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 4:27-28). 이것은 단순히 “칼빈주의”가 아니고, 성경의 명백한 선포이다. 그리고 그것을 감히 부인할 자에게는 고통이다. Arthur Pink 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미리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 의해 선고 받으셔야 했다.” 주 예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직접 받게 되도록 결정하셨다.

많은 사람이 이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그런 교리는 빌라도를 단순한 로봇으로 축소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사람보다 더 못한 것으로 전능자를 축소하는 것보다 사람을 로봇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훨씬, 훨씬 더 낫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논쟁하거나 바꾸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머리를 숙여야 한다.

## 빌라도의 책임

그렇다. 하나님은 도처에서, 모든 것 가운데 언제나 주권적이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복음서 기록은 빌라도를 하나님께 대한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한다. 주 예수께서 직접 빌라도의 양심에 말씀하셨다. —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8:37). 하나님은 구원자께서 바로 인자였고 그를 대항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충실하게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27:19). 마침내, 구원자 자신이 빌라도에게 그가 그분을 붙잡는 가운데 죄를 짓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9:11). 이것과 관련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는가를 보라. —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적이시다. 그리고 사람은 철저하게 책임이 있다. 성경의 이 단락 안에서 다섯 가지 사항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 조롱 당한 그리스도

첫째, 1-3 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구원자의 채찍을 맞고 조롱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일깨운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주 예수와 바라바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분을 풀어주려 하는 그의 시도를 실패하여, 빌라도는 주님이 매질 당하고, 발가벗겨지고, 막대에 묶이고, 끔찍하게 채찍으로 맞도록 명

령하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그 괴로운 과정에 만족해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12 절부터 나타난다. —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심지어 여기, 빌라도의 관정에서도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우리 대속자로, 우리 대신에 견디셔야 했던 모든 것을 견디셨다 (시편 89:30-34; 이사야 53:5).

이런 매질은 군병들의 관정 안에서 거짓 재판식 이후에 있었다 (마태복음 27:26-31). 군병들은 그분을 고문하고 조롱하기 원했으며, 특히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졌다는 사실을 조롱하였다. 끔찍하게 가시가 돋힌 왕관이 두 가지 목적으로 씌워졌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가시관은 타락의 결과로 아담의 아들들에게 약속되었던 가시와 엉겅퀴로 연결된 창세기 3:18 에 되돌아 간다. 우리 축복의 주는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 안에 우리 죄들을 품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우리 죄들에 대한 저주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3).

그리고 군병들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자주색 겹옷을 던졌고, 왕의 홀을 표시하는 갈대를 그분의 손에 쥐어 주었고 (창세기 49:10), 그분 주위를 장난치듯 행진하였으며, 주먹으로 그분을 치고, 침을 뱉으며,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라고 말했다.

우리 구원자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는 혐의로 빌라도에게 넘겨졌다. 그분은 왕으로 군병들에게 조롱 당하였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그분의 머리 위에 써서 붙인 이런 혐의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은 실로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주의 주이시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자에 의해서 그와 같이 소유되고, 영접 받고, 인정되었다 (로마서 10:9-10). 그리고 어느 날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엎드릴 것이며 그분을 왕 중의 왕이며 주 중의 주로 인정할 것이다 (빌립보서 2:9-11).

### 공표된 결백

둘째, 우리 구원자의 완전한 결백이 공개적으로 공표되었다. —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4 절). 빌라도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려워하였다 (마태복음 27:19). 그는 그분을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소동의 이야기가 가이사의 귀에 들어가 그의 위치가 위태롭게 될 것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그가 주 예수에게서 아무런 잘 못을 찾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악한 동기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마태복음 27:18), 그는 한 가지 계획을 더 시도하였다.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했다. 나는 빌라도가 공개적으로 우리 구원자의 결백함을 일곱 번도 더 공표하였음을 당신에게 상기시킨다 (요한복음 18:38;

19:4; 19:6 — 출애굽기 12:5; 신명기 17:1; 베드로전서 1:18-20  
과 비교하여 보라).

### “보라 이 사람으로다”

셋째, 5 절에 우리 주목을 끄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다. — “보라 이 사람으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빌라도가 주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맞아 자신의 피와 사람들이 내 뺨은 침으로 뒤 덮여서, 자주색 누더기를 입고 서 있었던 그분을 가리키며, “보라 이 사람으로다!” 고 말하면서, 이 군중 가운데 어떤 동감과 동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였다. 나는 빌라도가, “그를 보라. 그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분명히, 그는 어떤 동정을 받을 만 하다.”고 말하고 있었음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빌라도의 의도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사람 중보자, 우리 대속자이고 보증인이 가시관을 쓰고, 가짜 망토를 입고, 피투성이로 맞고, 그의 얼굴과 몸이 다른 사람처럼 엉망이 되어 서 계셨다 (이사야 52:14). 당신에게 말한다. “보라 이 사람으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책 전체에서 언급되었던 인자이다 (창세기 3:15; 계시록 12). 그는 침묵의 인자, 고난의 인자, 대속의 인자이고 (디모테전서 2:5), 동정의 인자이고, 주권적인 인자이며, 구원의 인자이다!

5 절에서 “빌라도”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라. 그의 이름은 우리 번역자들에 의해 여기에 첨가되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5 절을 빌라도의 이름을 생략한 채 읽는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으로다!”

만약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한 사람이 주 예수 자신이었다면, 그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볼 것을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꽤 자주 보게 된다. —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사야 65:1) —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22).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의로운 종이시며 우리 신뢰 있는 구원자이신 이 사람을 보라고 말씀 하신다 (이사야 42:1-4; 마태복음 12:18).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동일하고 달콤함 부르심을 주신다 (요한복음 1:29, 36).

주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치리자들 앞에 나섰을 때, 선지자들이 그가 그랬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때리는 자들에게 그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의 뺨을 맡기며,” 우리 언제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고 하기 위하여 그분 위에 더러운 잔혹함을 쌓아 올렸던 바로 그 죄인들을 부르신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로다” (스가랴 12:10; 13:1). 축복의 성령께서 내가 은혜롭게 강요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분을 보게 되므로 나의 온 마음이 언제나 증가하는 믿음이 솟아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 빌라도의 두려움

넷째, 우리는 그가 정죄하는 분 앞에서 떨고 있는 재판관과 처형자를 보게 된다 (6-9 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9:6-9 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자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하속들이었다. 이들은 경건과 종교에 큰 권위를 만들어 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 특히 종교 의복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사악한가!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다시, 빌라도는 우리 주의 무죄를 공표하였다. 이 사악하고, 무가치하고, 우유부단한 정치인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와 거룩을 공표하였다 (베드로전서 2:21-22; 이사야 53:9-10). 우리 구원자는 완전한 사람이며, 우리 뼈 중의 뼈이고 살 중의 살이며,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시험 받았으나, 하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표자이고 우리 의이다 (로마서 5:19; 베드로전서 3:18). 그분의 거룩한 삶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로마서 4:25).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영원한 신격에 대하여 주장하셨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진보주의, 물론 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분별할 능력이 없을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있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였다 (요한복음 10:30-33).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공표하셨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만약 그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죽음에 처해야 했다.

그의 모든 다른 의혹과 두려움의 정점에서, 이 새로운 계시가 빌라도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정말 신과 관련 있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는 그의 아내의 꿈과 그녀의 경고를 기억했다. 그는 주 예수께서 결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분의 삶과 기적들을 들었다. 그는 이 일 전체를 통하여 주의 행위에 감명을 받았음에 분명하다. 따라서 빌라도는 구원자를 재판에 다시 되돌리고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는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을 완전히 무시하였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정의와 타협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그 자신의 안녕만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동기도 없었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답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 속량의 대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죽으려 하셨다 (이사야 53:7).

## 역설된 주권

다섯째, 우리 주 예수는, 일반적인 범인으로 빌라도 앞에서 계셨

지만, 잘못 기소되었고 불의하게 정죄 받았으며, 그분의 판사와 집행관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역설하셨다 (10-12 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의 답변은 천연적이다. 그는 두렵고 무서워 한다.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다. 그의 모든 영토가 이 한 사람에게 분개하고 있다. 그리고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처하면서도 자신을 방어하기를 거절한 이 예수의 평온과 고요로 인하여 완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기에, 그는 외쳤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든지 풀어주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알면서 침묵하고 서서 내게 대답하기를 거절하는가? 감히 그럴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이며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제외하고, 너는 내게 대하여 아무런 권세나 권위를 전혀 가질 수 없다.”라고 응답하셨다 (요한복음 3:27; 사도행전 4:26-28).

우리 주께서 바로처럼, 빌라도는 하나님이 계획과 영광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로마서 9:17). Robert Hawker 가 올바르게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약속 안에 있는 여호와와 손을 보시려 그분의 모든 적들의 머리를 보셨다.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소한 생각들 가운데, 동일한 것을 행하는 것은 당신과 나와 모든 주의 백성을 위하여 언제나 좋을 것이다.”

빌라도의 죄는 컸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였던 성경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빛에 대하여 너무도 무심하게 죄를 지었던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한 더 큰 죄이다 (누가복음 12:47-48).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이 메시아에 관한 것을 알았다. 빌라도는 몰랐다. 그리고 “더 큰 죄”는 그들 손 안에 있는 성경으로 더 큰 빛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졌다.

경계하라! —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아 아래 짓밟음으로, 당신의 의도적인 불신으로 새롭게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더 큰 정죄를 당신 자신 위에 쌓아 올리지 말라!

빌라도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다. 빌라도의 권세는 “위로 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유대아의 총독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독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권세는 없다. —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1). 모든 세상 권력의 원천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부터 나온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시간의 충만한 때가 왔을 때 그의 자리에 빌라도를 앉히셨고, 그래서 그분의 귀한 아들이 구약

성경과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되셔야 한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히게 되셨다 (사도행전 2:23; 4:27-28; 13:26-30, 38-41).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의로운 종, 여호와의 자원하여 매인 종, 그의 주에 대한 그의 사랑, 그의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자녀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에서 놓을 것을 찾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 121 장. “보라 이 사람이로다!”—요한복음 19:5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요한복음 19:5)

비겁하고 이기적인 유대아 총독인 빌라도는 주 예수를 그의 병사들로 하여금 심하게 괴롭히고, 채찍으로 심하게 때리게 하였다. 그 병사들은 그를 발가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그것을 그분의 거룩한 머리 위에 씌워 넣었고, 그분의 순결한 어깨 위에 자색 옷을 입혔으며, 그분의 상처 없는 손에 가짜 홀로 갈대를 쥐게 하였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였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으며, 그분의 온몸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빌라도는 주 예수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데려왔다. 그 때 빌라도가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4 절). —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의 이름이 번역자에 의해 이탤릭 체로 그 이름이 더해졌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첨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원한다. 따라서 첨가된 빌라도의 이름이 없이 본문을 읽어보라, 그러면 본문의 전체 의미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고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은 빌라도가 아니라 주 예수 자신이다. 빌라도는 4 절에서 말하였다. —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나 그 때, 말씀하신 분은 우리 축복의 구원자이다. 그분이 빌라도 앞에 침묵하여 서 계셨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병사들과 또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던 그분은, 그분 자신의 보혈이 떨어지던 손으로 죄인들의 군중 앞에 나섰을 때, 말씀하셨다 —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기서, 당신 앞에 서 계신 분은 당신이 언급했고 당신이 찾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인자, 성경 전체가 언급한 인자이다. —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하나님 증오와 사탄 같은 마음을 품은 피로 굶주린 종교인 군중, 역사적으로 가장 극렬하고, 불법적 행위를 행하려 하였던 사람들 앞에 서 계신 인자는 세상이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던 분이다. 삼 년 동안 병자를 치료하셨고 공훈과 친절의 행위를 했던 분, 셀 수 없이 많은 공훈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초자연적 능력을 계시하셨던 인자가 그들 앞에 섰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살인자 바라바를 주소서!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다. 그리고 여기 그분이 섰다. — 그분의 피 흘리는 어깨는 자색 옷으로 덮였다. — 그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다. — 그의 외양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맞았다. —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것이 이 책의 내용

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게 선포하도록 그분의 종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나의 말이다. — “보라 이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이 말하는 인자, 삼일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인자이다.

### 성경의 교훈

“보라 이 사람이다!” — 그것이 성경의 위대한 교훈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시는 계시는 한 분 인자, 중보자 인자, 하나님-사람, 인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보라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우리 구원자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기 위한 그분의 선택을 반복하여 “보라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호소하신다 (사사기 13:10-11; 에스겔 9:11; 스가랴 6:12-13).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 안에서처럼, 삼일 여호와와는 우리가 이 사람,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신 분을 볼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라 이 사람이다”고 하신다 (이사야 42:1-4; 마태복음 12:18). 하나님 아들은, “보라 이 사람이다”고 하신다 (이사야 65:1; 45:20-22).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다”고 하신다 (요한복음 1:29, 36).

주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치리자들 앞에 나오셨을 때, 매질에 그의 등을 내주었고 수염을 뽑히도록 그들에게 뽑을 내 주었으며, 마치 선지자들이 그가 그렇게 될 것을 말한 것처럼, 인자 그

리스도 예수는 그분 앞에 서 있는 많은 군중에게 “보라 이 사람이 로다”고 호소하신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또한 예언하였던 것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다” (이사야 53:3).

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은혜와 탄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들을 위하여 살육되었던 “이 사람을 보며”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달콤한 인식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 (스가랴 12:10; 13:1).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것이 이 책의 교훈이다.

## 언약의 사람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람이로다. 그가 영원 전부터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 첫 사람 아담이 지어진 그 형상 안에 서 계셨다. 그렇다, 나는 우리 주의 인간 본성은 시간 가운데 피조 되었음을 안다. 그분의 인간의 육신과 혼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언약의 머리와 보증으로 앞에 섰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열납과 축복을 받았다 (에베소서 1:3-7).

## 약속된 사람

보라 주 예수, 우리 거룩한 구원자를, 그가 우리 앞에 구약 성경의 약속된 사람으로 제시되어 있다. 창세기를 읽어보라,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 창세기의 첫 장에서, 땅이 흑암과 혼돈과 사망과 심판의 깊은 물에서 나왔다 (창세기 1:1-3).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이 식물과 동물의 창조를 내었다. 모든 것이 미와 영광으로 장식되었다. 마침내, 창조의 옛새째에,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조상 아담이라는 사람 안에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 가운데 그

를 두셨다. 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그분의 영의 호흡으로, 직접적인 창조로, 그분의 후손인 피조물을 내 놓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였고, 그렇게 하셨다.

영원한 신격 안에 있는 모든 세 위격은 이 창조의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셋 가운데 한 분인 하나님 아들은 약속된 날, “정해진 때,” “시간의 충만이 이르렀을 때”를 아셨고, 그분은 그가 창조하였던 그 사람의 본성을 그분 자신 위에 입으셨다. 그분은 아담이 창조된 그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담은 동굴 인이 아니었다. 그는 포악한 반원반인이 아니었다. 아담은 무지력 짐승이 아니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식을 소유하였다. 그는 들과 숲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 이름을 지었다. 오늘날 천 명의 사람이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그는 뛰어났고 육체적으로도 완전하였으며, 아담은 삼일 하나님과 달콤한 교통 가운데 매일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즐겼으며, 전 세상을 왕처럼 통치하였다.

그러나 곧 장면이 바뀌었다.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는 성난 반역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동산에서 내쫓겼으며, 사망 선고를 받았다. 세대를 이어, 타락의 저주 아래, 죄 가운데, 이마의 땀 가운데, 가시덤불, 가시와 바위와 고통과 질병과 사망으로 저주 받은 땅 위에 살도록 멸망되었다! 사람이 있다. 타락하고, 벗겨지고, 길을 잃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숨는 사람! 더욱더 깊이 그는 침몰한다. 죄가 그를 아래로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 어두움이 밤이 되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기에 버려 두실까?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 쫓기 직전에, 그분은 인자, 동정녀에게서 낳 인자, 여자의 씨, 그로 인하여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할 분을 약속하셨다. —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15). 그리고 주 하나님은 그 타락한 두 사람에게 그분이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세상에 보내실 분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보여 주셨다.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21).

그 날로부터, 선택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부름 받고, 오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구속이 성취될 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 구약 시대 역사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주 하나님은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마침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셨다) — 말씀하셨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언의 약속과 구속의 예언들 안에서, 주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사람, 여자의 씨를 향하게 하셨고, 사천 년 동안 타락하고 죄책감의 죄인들에게 외치셨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 “보라 나의 종이로다!” — “보라 그 가지로다!” — “보라 왕이로다!” — “보라 임마누엘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 받

고, 죽으시고, 자신 위에 죄를 지시고, 죄수와 속죄제가 되기 위하여 인자로 사람에게 내려 오신다! “보라 그가 오신다,” 타락한 사람에게 전염되는 죄와 비통, 저주와 울음, 죄의식과 치욕, 과멸과 죽음을 가져가시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사람 아담이 했던 모든 것을 되돌리고, 그가 없애지 않았던 것을 회복시키려 그 인자가 오신다! —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것이 하나님의 책의 내용이다. 인자가 오시고, 위로부터 오신 한 분, 불사의 한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한 분이 오신다, — 죽기까지 고난 받고, 사망과 지옥과 무덤을 자신의 희생으로 정복하고, 죄가 되심으로 죄를 없애며, 저주가 되심으로 저주를 없애시려 오시는 “이 사람을 보라!” — “보라 이 사람이로다!”

## 하나님-사람

요한의 복음서의 첫 번째 장을 읽고, 인자를 다시 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사람으로서 그분을 바라본다.

(요한복음 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만약 성경 내의 어떤 구절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강조가

된 구절이 있다면, 분명 그것은 요한복음 1:14 이다. 모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에 속한다. 이 장의 13 절에 앞서서 매우 높이 언급된 영광스러운 분이 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선포된다. 하나님 아들은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매우 강하다. 동일한 말이 로마서 3:20 절에서 사용되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육신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듣게 된다. 로마서 8:3 에서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언급 된다. 여기서 “육신”으로 번역된 그 말은 창세기 6:12 에서 “부패한” 육체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된 히브리 말로서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요한은 우리 본성을 입으심 안에 우리 구원자의 큰 겸손과 굴욕에 대하여 언급하기 위하여 더 강하고, 더 강조의 말을 사용할 수 없었다. 요한이 단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면, 그 의미는 매우 강경한 하락의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빌립보서 2:5-8).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어떠함이 되셨고, 우리의 완전한 본성과 몸과 혼이 되기 위하여 되셨으며,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연합하셨으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사람이시며,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Augustine 이 4 세기에 기록한 것처럼, “그분의 어떠하심이 변화됨으로써가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이 아닌 것을 취하심으로”이다. 한 인격 안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이

연합은 용해할 수 없고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우리 하나님-사람 중보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8).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30 에서의 말씀과 연결 짓지 않을 수 없다. —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또 “우리가 그의 몸, 그의 육체, 그리고 그의 뼈의 지체들이다!” 지금도 그렇고,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랬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 대표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그분이 대표자임을 보게 되고 그분을 그렇게 신뢰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표자, 우리 구원자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서들 안에서 말씀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를 보라. 그분의 권세가 나타남 안에 계신 그를 보라. 그의 영생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의 죄 없음과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사랑스러움 안에 계신 그를 보라.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고 그분의 인격 안에

서 보이지 않는 한 분을 보이게 하려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위하여 오셨다. 침례자 요한은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가운데 그 위대한 진리를 천명한다.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는 우리 대표자로서 그분의 순종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통과 고난과 사망 가운데 계신 “이 사람을 보라.” — 우리 대속자이고 보증인, “보라 이 사람이로다.” (로마서 5:12, 18-19; 5:20-21; 고린도전서 15:21-22).

겻세마네에 있는 “이 사람을 보라.” — 첫 사람은 기쁨의 동산에 있었고, 마지막 사람도 또한 동산, 비탄의 동산으로 가셔야 했다. 그것은 겻세마네, 슬픔과 피땀의 동산이다. 우리는 흐느낌과 통곡, 큰 외침과 눈물을 듣는다 (히브리서 5 장). — 고통과 피로 젖은 “이 사람을 보라!” 이제 그가 시편 22 편에서 말씀하신 그 분이다. —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사람이 가까이 잔혹한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가바다에 있는 “이 사람을 보라.” — 그리고 결국 불명예스런 것이 그분께 행해졌고, 잔혹한 매질이 행해졌으며, 그들이 악마 같은 증오로 가득찬 마음으로 그분을 내려다 보았다. 여기 요한복음 19 장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여전히 심한 치욕으로 고난 받으시는 것을 본다. 여기, 가바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거짓되고 사악한 사람들의 의도와 손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셨다. 여기 가바다에서, 빌라도의 관점에서, 주 예수, 겻세마네에서 그분 자신의 가까운 친구에 의해 배신 당하신 분은 매

를 고통을 받았다 (마태복음 27:26). — “받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시편 129:3). 그분은 병사들에 의해 조롱당하셨고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다 (마태복음 27:27-29). 그분의 수염이 얼굴에서 잡아 뜯겼다 (이사야 50:6). 그리고 여기서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요한복음 19:13-16). 그러나 우리 주의 치욕, 우리의 치욕, 우리 죄책감과 죄의 치욕, 그분의 마음을 부수었던 치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골고다에 있는 “이 사랑을 보라.” — 인자는 저주 받은 나무에 못 박혔다. 그것이 어디서 행해졌는가? “저 멀리 푸른 언덕이 성벽이 없이 있네”라고 찬송이 노래한 것 같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요한복음 19:41)라 성경이 말씀하신다. 가시 면류관은 여전히 그분의 축복의 머리, 모든 영원 가운데 아버지의 가슴 위에서 안식하는 머리 위에 있다. 그분은 저주를 받으신다. 자신의 몸에 우리 죄를 품으심으로, 그분은 치욕을 받으신다. 그가 속량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다. —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5:21). 그분은 머리 숙여 그분의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고, 그의 입술은 큰 승리의 외침을 하신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우리의 주권적이고, 성공적이며, 만족스런 대속자인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 그분은 그의 일을 이루셨다. 평강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분은 한 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다. 그분은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이루셨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을 보고, 그분을 신뢰할 은혜를 주시기를!

## 부활하신 사람

부활하신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인 “이 사람을 보라.”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3:9-12)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우이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4:25-5:11).

“보라 이 사람이로다!” — 무덤은 비어 있다. 죽었던 그 인자, 사망과 지옥과 무덤에 대한 승리자인 그분이 서 계신다. 그분은 그것들을 영원히 정복하셨다. 그분은 영혼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다. 새 창조의 머리,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만아들이신 “이 사람을 보라!”

## 승천한 사람

승천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사람을 보라.” 우리

는 올려다 본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승천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지나셨다. 하나님의 권능이 인자를 올리셨고 그를 삼층천으로, 모든 하늘 중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셨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바라 본다 (히브리서 2:9).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모든 권력과 권세들 훨씬 위에, 모든 이름이 명명된다. 저 멀리 그가 앉아 계시니, 인자, 사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었으며, 다시 사신 인자이다. 아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아, 그 지극히 높은 영광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으로 구속 받고, 그분과 하나된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졌으므로, 위에 있는 영광을 그분과 함께 소유하게 될 것이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당신의 위대한 대체사장, 아버지께 대한 당신의 사랑스런 대변자이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몸의 머리이시며, 오실 신랑이시다.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무기력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실 모든 권세를 소유한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 “그가 왕노릇 하시리다!” (고전 15:25). 높은 곳에서 당신의 대변자로 중재하시는 “이 사람을 보라!”

## 오실 인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오실 인자이시다. — “불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7; 데살로니가후서 1:7-10; 고린도전서 15:49-58).

곧 모든 것이 훨씬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인자, 나의 구속자를

본다. 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신 그분을 본다. 그분은 그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일어서신다. 그분은 중재의 위치를 떠나신다. 그분은 한 번 더 내려 오신다. 그가 공중으로 와서, 큰 소리로, 그분 자신의 무덤을 열었던 큰 소리, 그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직접 그분을 만나도록 모았을 그 외침으로 그의 혼의 고통을 받도록 명령하신다. —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고,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2). 그것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는 가바다와 골고다의 폭도들이 그를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모든 영광의 모든 충만 가운데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들로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세상에 대한 왕권은 그분의 소유이다. 마지막 사람은 파괴된 창조를 회복하실 것이다. 위대한 거둢남이 있을 것이다. 그의 전능한 권세가 저주를 추방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가 뱀의 머리를 으깨버릴 것이다. 그리고 즉시 우리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다! —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는 의 안에서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보좌 위에 계신다. — “보라 이 사람이로다!” — 언약의 인자 — 약속된 인자 — 하나님-사람 — 대표자 — 부활한 인자 — 승천한 인자 — 오실 인자!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영원히 살라! — “보라 이 사람이로다!” 관정에 서서, 깊이 패이고, 상처가 나서, 피 흘리는 팔을 펼치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주 예수를 본다. 그 말은 믿음에로의 부름이며, 절대적 현신에로의 부름이며,

거룩한 교제로의 부름으로 말해지고 있다.

## 122 장. 우리 주의 십자가형—요한복음 19:13-37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

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  
 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  
 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후에 예수께  
 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염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  
 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  
 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  
 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  
 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  
 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가 참이라. 저  
 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  
 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  
 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  
 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13-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지! 그는 당신과 나처럼 가련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갈보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로 사망의 모든 고통을 자원하여 견디셨다!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악한 것인지! 하나님 자신조차도 우리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없이, 그것은 속죄 받을 수 없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없어지고 씻겨질 수 없다.

요한 복음의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계시되지 않은 갈보리에서 우리 구원자의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에 대하여 소식을 준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 중 하나가 다른 복음서들이 생략하도록 감화되었던 확실한 것들을 포함하도록 감동 받았는지에 대하여 듣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생략하고 있는 것도, 복음서 저자들 네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하나님의 감화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만족한다.

이 구절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대하여 묘사한다. 우리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요한의 짧은 기록은 무관심하게 읽혀질 것이 아니라, 큰 사려 깊음과 동경으로 읽혀져야 할 것이다. 이 기록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에 대한 감화 받은 기록이다. 이런 것들로 고난 받았던 분을 기억할 때 우리 눈에 놀랍고도

경이롭게 보인다. 이 세상에 성육신 하나님으로 우리 구원자로 이제까지 살았던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하신 참된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았던 분을 기억할 때, 또 그 이유는 역시 우리 눈에 놀랍고 경이롭다 (로마서 5:6-8). 그분의 몸과 혼과 영의 큰 비통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진 자로서 죄로 이하여 고난 받았다는 사실이였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3).

### 겻세마네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세 번 기도하실 때, 겻세마네에서 그분의 비통함을 보았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그런 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피땀을 흘리심으로 죄가 되셨다는 생각과 예상에 그분의 거룩한 혼의 충격이였다. 누가는 그 장면을 이런 말로 묘사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44).

### 가바다

우리는 또 가바다의 채찍질을 보았다. 우리 주께서 가바다라 부르는 빌라도의 관정에서 조소 섞인 정죄로 정죄를 받았다. 거기서 그분은 잔혹하고, 야만적인 로마 병사들의 손에 채찍질을 당하도록 넘겨졌다. 그들은 우리 구원자를 채찍질 하려고 오백에서 천이백명 사이의 병사들 전체 부대가 모였던 곳인 일반 법정으로 그분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분을 벗겼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로마

채찍으로 그분을 채찍질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분의 어깨 위에 자색 옷을 걸치게 하고, 그분의 손에 갈대를 쥐게 하며 그분을 조롱하였고, 그분의 온 몸에 침을 뱉었으며 주먹으로 그분을 쳤다!

## 골고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 일반 범죄인으로 예루살렘의 거리를 통하여 가게 되신 후, 우리는 골고다에서 살육을 본다. —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7 절). 골고다 언덕에서 저주의 나무 위에 달리시므로, 영광의 주께서 가련하고 파멸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고 죽으심으로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살게 되었다.

“골고다”는 “해골이 있는 곳”이란 뜻이다. 이것은 갈보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곳은 이 살육의 장소에서 돌에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단지 한 줌의 흙으로 덮여졌던 곳이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불렸다. 결과적으로, 해골과 뼈들이 시간이 가면서 도처에 있었다. 그러나 처형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하게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 누가 이 고통을 받는가? — 왜 그가 이 끔찍하고 저주 받은 죽음을 당하도록 되었는가? — 누구를 위하여 그가 고난 받고 죽었는가? — 그의 죽음으로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실제 지점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실제 십자가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거룩한 장소”와 종교적 유적에서 죄에

대한 구속과 구원과 용서를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열왕기하 18:1-4).

## 그의 십자가를 짊어짐

당신이 주목할 것을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은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관정에서 골고다로 향하셨다는 사실이다 (16-17 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지독한 범법자들에게 부가되는 형벌의 한 부분은 그들이 처형되려 갈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께서 관정에서부터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갔는데,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죄인들에 포함되었고, 죄인으로 평가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모세 율법의 속죄 제물의 위대한 예표의 성취였다. 기록되기를, —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레위기 16:27).

눈 먼 유대인들은 거의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은, 주 예수께서 문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이 미친 듯이 로마인들을 찾아다녔을 때,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제까지 보아왔던 가장 강력한 속죄 제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브리서 13:12).

우리 주처럼, 그가 치욕을 받으며 “관정 밖으로” 나가는 것에 만족해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옷핀이나 넥타이 핀을 하거나 귀걸이들을 하고 십자가를 그들의 목에 건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십자가를 두고,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스티커를 붙인다. 도처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의 건물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안에 십자가를 세웠다. 그 모든 것이 쉽고 싸구려고 의미가 없다! —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짊어진다. 우리 주처럼, 우리는 기꺼이 매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리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그대로 두라. 만약 우리가 우리 경배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조소를 받는다면, 그대로 두라. 만약 우리가 우리 주의 계명으로 인하여 조롱 당한다면, 그대로 두라.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독단적인 태도와 분별로 인하여 세상의 쓰레기와 폐물로 여겨진다면, 그대로 두라 (고린도후서 6:14-7:1).

### 십자가에 못 박힌 왕

둘째,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한다 (13-14, 19-22). 골고다 언덕 위의 세 개의 십자가 중 가운데 달린 그분은 그분의 머리 위에 왕의 직함이 있었다. —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것을 새겼으며 그 옆에 썼다. 그 새긴 글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으로써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읽을 수 있었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구원자이며 모든 자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9-11).

우리 구원자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모친께,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선포하셨다 (누가복음 1:32-33). 그분이 거의 태어나자마자 곧,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말하며, 현자들이 동방에서 왔다 (마태복음 2:2).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단 일주일 전에,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함께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였다.” (요한복음 12:13). 그분은 왕으로 나셨다. 그분은 왕으로 사셨다. 그분은 왕으로 죽으셨다. 그분은 왕으로 승천하셨다. 그분은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시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당신의 주와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시다 (누가복음 14:26-33).

## 하나님의 주권

셋째, 우리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수 없는 나타남을 본다. 성경 안에서 주어진 우리 주의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모든 묘사는 전체 일 안에서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의 이런 나타남으로 풍성하다. 사복음서 화자들(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런 것들로 충만하다. 골고다의 이 살육의 장면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항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 주신

다.

1. 우리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들은 우리에게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징적인 은혜를 보여 준다. —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8 절).

이 강도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지옥의 바로 그 아가리에서 불타오르는 데서 뿔볼로 뽑힌 반면, 한편 다른 하나는 그 죄의 바로 그 결과로 고난 받도록 버려졌다. 만약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았음을 우리로 인하여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하자. 당신과 나와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 사이의 유일한 구별은 은혜가 만든 구별이다 (고린도전서 4:7; 15:10; 로마서 9:16).

2. 성경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로 인한 성경의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의 또다른 위대한 모습이다 (23-24 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예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예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군병들은 돼지가 금강석을 가진 것보다 더 성경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것을 명하셨던 것

과 그들이 하도록 말씀되었던 것을 그대로 하였다 (사도행전 4:27-28; 13:27-29). 따라서 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살해자들이 그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28-30 절).

쓸개즙과 섞은 식초의 이 혼합물 (시고 쓰게 된 일반 포도주)은 사람의 생명을 늘이게 하는 혼합물이라고 생각되었다. 군병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편 69:21의 예언을 성취해야 했기 때문에 군병들에 의해 주어졌다. —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John Gill 이 우리에게 말한다 — “쓸개즙이 섞인 이 식초 음료는 그분께 극심한 갈증이 있을 때 그분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 주의 고난을 악화시키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의 상징이었으며, 그분은 이미 동산에서 맛 보셨으며 거의 맛 보셨다.”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고 말한다. 우리 주께서 어떤 마음의 산란함과 술 취함이 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 받기로 정해지셨기 때문에 이 혼합물을 마시시기를 거절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연장

시키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분의 때, 시간의 충만함이 왔을 때인 지금 기꺼이 죽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다시, 우리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야만적인 군병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그들이 하도록 하셨던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이 오명의 날에 있던 일들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 가운데 계셨음을 생각나게 된다. 우리 주의 옷을 나눔은 시편 22:18의 성취였다. —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부도덕한 자들이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복음의 그 본질을 선포하게 하였던 사실에서, 그들이 비록 진리를 스스로 결코 믿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 준 또 다른 위대한 모습이 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약한 빌라도의 증거, 사악하고, 악담을 퍼부으며 조소를 하는 유대인들의 증거, 또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그 택한 강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그를 데려가게 하였던 도구들이 되었다. 그분이 그날 들었던 그 증거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빌라도는 선포하였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 예수이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은 취하여 춤을 추었고, 임마누엘의 십자가 둘레에서 지옥의 잔치를 벌였으며, 그들의 모독의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감화를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구별되게 말하였다.

-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마태복음 27:40) — 비록 그것을 몰랐지만, 그 종교 전통주의자들은 주의 죽으심과 부

활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였다. — 그분은 사망 가운데 육신의 성전을 허무셨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사망에서 살아 나셨다.

-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27:42) —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대속자로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셔야 했다!
-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마태복음 27:43)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셨으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셨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고, 사는지를 가르치셨다.
-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 우리 현대 불신자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을 택하였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들었다.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는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누구신가 이다! 그분은 한 분 영광스러운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고 사람이시다. — 하나님-사람: 마리아의 모태 안에 있는 하나님-사람, 우리를 위하여 순종 가운데 계신 하나님-사람, 나무 위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높여지신 하나님-사람!

## 실제

넷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의 고난과 죽으심

은 실제였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자 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 자신의 육신에 우리 죄들을 지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고통을 견디셨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 고난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의 몸 안에, 그분의 혼 안에, 그분의 영 안에 있어 마땅하였다. 그분의 고통을 열거하면 읽기에 고통스럽다. —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는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야만인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 위에 쌓아 올린 그 고문들과 같을 수 없었을 것이다.

J.C. Ryle 이 적절하게 말하였다. — “그 분이 실재 인간의 육신, 똑같이 예민하고, 똑같이 상하기 쉬우며, 똑같이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다.”

십자가 형은 인류에게 이제까지 가해졌던 어떤 사형의 형태 중 가장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한 형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나무 기둥 위에 펼쳐 눕혀진다. 그 손은 십자가 끝으로 펼쳐졌으며, 커다란 대못으로 손목을 통하여 나무에 못 박혔다. 그 발은 위아래로 함께 포개져서 큰 나무망치로 대못을 두 발을 통하여 나무에 단단히 붙여지도록 못 박혔다. 주 예수는 십자가 위에 있는 채 들어 올려졌으며, 약 일 미터 정도의 구덩이에 그의 몸이 달려 있는 채 떨구어졌다! 거기에 매달렸지만, 여섯 시간 동안 괴로운 고통 가운데 곧 사망하지 않는다 (어떤 치명적인 장기도 견드리지 않았다!) 그 위에서 그는 달려서, 별거벗겨졌고, 치욕을 당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역겨운 목구멍에서 나온 배설물과 그 자신의 거룩한 피로 뒤 덮였다. 그의 머리와 손과 발은 피가 배어 나

왔고, 고통 속에 육신거리는 영광의 주는 여섯 시간의 형언할 수 없는 지옥의 시간 동안 거기에 달려있었다.

하지만, 그분의 혼의 고통은 그분의 몸의 고통보다 더 무한하게 그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버림 받았다. 영광의 주께서 그분 자신의 거룩한 공의의 겹으로 살육 당하셨다.

### 이루어진 구속

다섯째, 우리 사랑의 구원자는, 갈보리에서 그분의 죄속량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0 절).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와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공의가 만족되었다. 의가 들어왔다. 죄가 없어졌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죄인들을 위하여 열렸다. 구원이 얻어졌다! —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12) 보라, 죄와 부정함을 위하여 샘이 열렸다 —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이다!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 123 장. 십자가에서의 일곱 가지 말씀—요한복음 19:25-30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 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25-30)

내 구원자의 구속의 역사와 영광이 계속하여 나의 마음 위에 있을 장면과 함께, 또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구속이 언제나 나의 속량 된 혼을 넘치게 하심으로, 내가 언제나 나의 마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살게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기쁘게 주실 것을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마음 위에 새길

것을 요청하며, 갈보리 산으로 다시 가자. — 우리 앞에 얼마나 극악한 장면을 보게 되는가! —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가! —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의 계시의 장면인가!

## 우리 주의 치욕

주 예수께서는 급히 빌라도 앞으로 데려가게 되었으며, 거기서 유대인들이 모략하여 그분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이 질투심이 강한 종교주의자들의 고함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에 대한 그들의 고발을 보았다. 일단 그는 주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는 그 문제에서 자신을 제외하고자 해서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다.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서 춤추게 할 수 없었을 때, 그는 그분을 치욕적으로 조롱하였고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그날, 두 정치적 들개들이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기꺼이 즐겁게 하며,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들, 유대인 폭도, 그리고 군병들은 단지 비열한 작은 악동들이었고, 더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었다. 우리 구원자의 체포와 거짓 재판과 십자가형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화로 써 내려갔던 한 가지가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 주의 치욕의 위대함이다.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또 빌라도와 헤롯의 궁전에서 견디셨던 것이 얼마나 잔혹한 모욕과 조롱이었던가! 실로, “그는 스스로를 낮추셨다!” (역대하 12:12; 빌립보서

2:8; 역대하 33:12; 마태복음 23:12). 그분은 자신에게 정당하게 속한 존엄과 존귀의 모든 것을 스스로 비우셨으며, 그로써 그가 지옥 불에서 영원히 조롱 당하고, 그로 인하여 모욕 당하기에 합당한 죄인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려 하였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 타락과 대속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류의 철저한 타락의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과 인간의 마음의 혐오스러운 증오를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시하셨다!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자들이 종종 얼마나 비열하고 이기적인 의지 박약한 사람들인가! — 빌라도는 자신 외에 아무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비록 자신의 왕국 안에서 거의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는 그가 통치하였던 백성들 앞에서 겁쟁이었으며, 단지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동기만 얻으려 하였다. 그 전체 군중, 종교적이고 타락하고, 유대인과 이교도인 그들은 성육신 하나님을 죽이기 위하여 책략 하였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였다.” (누가복음 23:25) — 얼마나 이것이 사람의 의지에 거스르는 기소인가!

하지만, 여기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안배로, 우리 주께서 오셔서 성취하셔야 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를 주었던 자들이 우리 앞에 있는 장면에 있다. 바라바가 풀려났고 주 예수께서 그 대신에 죽으셨을 때, 그것은 구원자께서, “이것을 보라! 이것이 내가 이 때에 와서, 죄인들이 자유하게 되도록 그들

의 대속자로서 유죄의 죄인들 대신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인이 죽으려 한 이유이다!”

## 세 범죄자들

그들이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8 절)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분명한 예시는 우리 축복의 구속자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없었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지셨다.” (이사야 53:12). — “그리고 성경이 그 말한 대로 성취되었으며,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마가복음 15:28 \* 주: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없음). 우리의 보증과 대표자가 되므로, 그는 범해진 율법 앞에 섰으며 모든 죄인들의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

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17-21).

## 일곱 가지 천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셨던 것, 그가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공포를 받으시면서, 그가 죄가 되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그 일곱 가지 사항을 다시 보도록 하자. 우리 구속자께서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시편 22, 40, 69). 그러나 성령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말씀된 일곱 가지 특정한 천명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은, 그가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모든 분노를 지시하며 우리 죄 속량의 제물로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기 때문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이 마지막 일곱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감동으로 우리가 배우고, 깨우치며,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하려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로마서 15:4 에서 천명하신 것이다. —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감동의 책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곱 가지 말씀을 기록하는데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기 위하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죄를 지시

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끔찍한 격노로 인하여 고난 받으시면서 그가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으므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좋은 기억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하는 일곱 가지 특정한 천명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곱 가지 말씀을 두고 산 같은 말이 있었고 수 천의 설교가 있어 왔다. 나는 이미 신실한 사람들에게 의해 언급되었고 기록되었던 것에 어떤 것도 첨부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 언뜻 본 것을 당신에게 주도록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을 소망한다. 이 말씀들은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자 구원자께서 그분의 치욕 가운데 말씀 하셨고, 그분이 지옥의 힘을 연관 지으시며 말씀하셨고, 죄인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진노를 견뎠던 바로 그 말씀들이다.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곱 가지 말씀 가운데, 나는 아름답게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위격과 역사와 책무들을 본다.

## 용서의 말씀

그 일곱 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34 에서 발견된다. —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여기서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 우리 대제사장이고 변호자께서 죄 있는 죄인들의 용서를 탄원하고 계심을 본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사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고난을 받고,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사악한 사람들처럼 고난을 받으면서 그분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5).

우리는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5:1). 중보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어야 한다 (히브리서 5:4-5). 중보자는 기도하여야 하고 들어야 한다 (히브리서 5:7). 그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물은 그분 자신, 자기 자신의 생명이고, 그의 피이며, 그의 육신이고 그의 혼이다! 제물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려져야 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자신을 희생한 제단은 그분 자신의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리고 중보자는 나누어주기 위한 축복이 있어야 한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민수기 6:24-26).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될 자격을 가진 자는 없다 (요한복음 14:6; 로마서 8:34; 히브리서 7:25; 요한일서 2:1-2).

### 확신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43 에서 발견된다. 죽어가는 강도가 소리쳤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와 왕께서 믿는 죄인에게 하신 구원과 확신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말하지 못할 고통으로 고난을 받으시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음에도,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주와 왕으로서 통치하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셨을 때 어찌 되었든 상황에 의한 무기력한 희생이라고 절대 상상하지 말라. 그분의 죽으심에서조차도, 그분은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들의 하나

님이셨다. 여기 주권적인 왕,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께서 그분이 뜻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로마서 9:15).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열고 계시는 은혜의 왕이 계시다. 사람은 아무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고 계시는 평강의 왕이 계시다. 아무의 공으로도 줄 수 없는 공훈과 영생을 약속하고 계신 영광의 왕이 계시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 은혜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 보좌에 앉아계신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베드로전서 3:22; 요한복음 5:20-21; 17:2).

### 애정 어린 관심의 말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26-27 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우리 대표자이고 예이신 분이 애정 어린 관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는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망의 고통에서 조차, 죄의 형벌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의 책임들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우리 구원자, 우리 대표자이고 예이신 분은 그분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때 조차도, 의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그분의 책임들에 주목하셨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변자로서 또 우

리의 본으로서 모든 의를 성취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행하여 의로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분은 할례를 받았다. 그분은 그의 부모께 순종하였다. 그분은 침례를 받았다. 그분은 공회에 출석하였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시간에, 우리 구속자께서는 애정 어리게 그의 어머니를 염려하였다.

그분은 우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모든 의를 충만케 하셨다 (로마서 5:19). 또 그분은 의의 우리 예로서 모든 의를 충만케 하셨다 (요한복음 13:13-15; 베드로전서 2:21-24).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방법을 배우려 한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세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를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갈보리로 가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 배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떤 순종이 포함되는지 배운다. 갈보리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를 보며,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배우며, 우리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 배우고 (에베소서 5:25-27), 또 어떻게 주는지를 배운다 (고린도후서 8:9).

하지만, 우리 주의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염려보다 더 많은 것이 여기 있다. 우리 구원자께서 마리아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이제 나를 보소서, 그리고 내가 소년에 지나지 않았을 때 당신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고 말씀 드린 것을 기억하소서. 이제 나를 보시고, 내가 여

전히 당신의 모태에 있을 때 당신께서 불러주셨던 노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복음 1:46-55).

## 고통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46 에서 발견된다. — “제 구 시 즘에 (오후 세 시, 흑암의 세 시간 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우리 대속자께서 혼의 고통 가운데 외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말씀하셨던 성경 안에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다. 여기서 그분은 인성의 가장 낮은 위치를 취하시고 그분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께, 그분의 창조주에 의해 동정을 받는 피조물로서 외치신다. 그분의 큰 고통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사람은, 그의 조상들의 히브리어나 성장하면서 습득한 그리스어가 아니라, 그분의 모국어인 수리아어로 말씀하시면서, 그의 어린 시절을 회고한다.

아버지께 그분이 순종하는 절정에서, 영광의 주는 그분의 아버지께 의해서 버림 받았는데, 우리가 포기한 우리 생명을 허비하였던 그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기에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 받았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이었다. 이제 비난이 그분의 마음을 파괴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무한한 고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부짖

음이다. 이 외침은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이 비밀은 어떤 피조물도 추측할 수 없다. Martin Luther 는 이 본문을 몇 시간 동안이고 공부하고 묵상한 후에, 그의 성경을 덮고, 그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는 외쳤다. “하나님께 버림 받은 하나님 이여! 나의 하나님, 아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 그러나, 기쁘게 상한 마음으로, 나는 우리 대속자의 이런 가장 큰 비통함에 대한 사실을 기뻐한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것은 그분이 대신 죽으셨던 그 죄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사야 53:9-11; 요한복음 3:14-16; 로마서 5:6-8; 8:1-4; 고린도후서 5:20-21; 베드로전서 2:24-25; 베드로전서 3:18; 요한일서 4:9-10).

죄가 얼마나 무한하고, 끔찍하게 악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의롭고, 선하신가! 아 나의 혼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히 큰가!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가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뜻하시고, 준비하셨는가! — “그는 인애를 기뻐하신다!” (미가 7:8).

## 큰 필요의 말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28 에서 발견된다. —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큰 필요와 갈망을 표현하고 계신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실질적인 인성을 본다. 이것

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 중 가장 짧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여섯 가지처럼 한 마디 한 마디가 교훈적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에 대하여 적어도 이 세 가지 사항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한다.

1. 그분의 육신의 갈증 —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열로 타 오르므로, 그분의 혀는 휘말렸고 그분의 턱에 엉겨 붙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뜨겁고 거룩한 진노의 불을 견디셨으므로, 지옥에 있던 부자처럼 그분은 물을 마시고 싶어하셨다.
2. 그분의 혼의 갈증 — 하나님께 버려지심으로, 그분의 혼이 갈급하였다. —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42:1), 그분의 혼은 하나님을 찾아 혈떡였다 (시편 22:1-21; 40:11-13; 69:1-20).
3. 그분의 마음의 갈증 — 영광의 주께서 죄가 되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누그러지지 않는 진노의 모든 두려움을 견디셔야 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사람의 혼에 갈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갈급해 하셨다. 그분은 후에 갈급하게 되려 갈급해 하셨다. 주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그분의 마음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24).

## 성취의 말씀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28-30).

“다 이루었다!” — 얼마나 복되고 승리의 말씀인가!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고통의 한 숨을 외치고 계시지 않았다. 그분은, “마침내,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루지 않은 것들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난다. 너무나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도 많은 소망이 성취되지 않았다! 너무도 많은 갈망이 만족되지 않았다! 너무도 많은 일이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고, 보고, 체험하기를 원했던 너무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위대한 보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분은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하셔야 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무엇을 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는가? —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는가 (히브리서 10 장)? “다 이루었다!” —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1:21)? “다 이루었다!” — 성경의 모든 예표와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 죄의 종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려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 영원한 의를 가져오시려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려 이 세상에 오셨는가 (히브리서 9:12)? “다 이루었다!” —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 율법의 마침을 성취하고 이루시려 이 세상에 오  
셨는가? 율법을 확대하고 율법을 존귀하게 하려 이 세상에 오셨는  
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아버지께 이루신 보증계약에 대한 보증인의 외침이다. —  
“다 이루었다!” —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었사오니!” (요한복음 17:4). 여기서 우리 언약의 보증인께서 그분  
의 아버지께 말씀하신다. 나의 손에 위탁하신 모든 일을 마쳤습니  
다. 내게 맡기신 모든 혼을 구속하였습니다. 모든 양 떼를 속량하  
였습니다. 내가 와서 찾고자 한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잘 이루어졌으며, 완벽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서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하신  
외침이다! — “다 이루었다!” — 진노가 끝났다! — 심판이 끝났다!  
— 죄가 끝났다! — 의가 이루어졌다! — 구속이 이루어졌다! — 칭  
의가 이루어졌다! — 성화가 이루어졌다! — 구원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죄인들아, 들어라:  
죽어가는 구원자의 외침을 들어라;  
“다 이루었다!” 천사가 노래한다,  
높은 곳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다 이루었다!” — “다 이루었다!”  
땅과 하늘에 그것을 말하라!

공의가 이제 구원을 요구하니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그 혼들에게라;  
그리고 찬양으로 미소지으니  
속량 받은 자에게 언제나!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  
무한한 창고로부터 대가 없이 흐르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것을 들어라,  
그가 오셔서 해야 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궁핍한 죄인들아, 듣고 그것을 믿어라. —  
당신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가? —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아, 그렇다, 사실이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께서 저주를 마셔 말려버리셨다!  
속량 받은 죄인은 결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부인됨이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보증께서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외치시네!

우리를 정죄할 자 그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이제 죄로 책망할 것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름으로 외치시네, —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 안식의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구원자의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46 에서 찾아진다 —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운명하셨다 (시편 31:1-5). 여기서 나는 우리 안식일이신 그리스도께서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본다. 일단 우리 위대한 구속자께서 그분의 일을 다 이루셨으며, 그분은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안식안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히브리서 4:9-11).

여기서 주목하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던 우리 구원자께서 이제 그 애정 어린 이름, “아버지”라 그분의 아버지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폭풍이 그분의 거룩한 혼 위에 격렬하게 내리쳤다. 그러나 이제 그 폭풍은 거의 끝났다. 오직 한 가지만 이뤄야 할 것이 남아 있다. 그분은 아직 죽지 않으셨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분은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려는 것 같다. “여기를 보라. 나를 보라. 보라,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다. 분노가 없어졌다. 심판은 없어졌다!” (이사야 12:1-6 을 읽어보라).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영을 사탄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사흘 동안 마귀에

게 고통을 받게 되려 지옥으로 그때 옮겨지셨다고 헛된 상상을 한다. 그렇지 않다 (히브리서 9:12). 그분은 사탄에게 아무런 빛을 지지 않으셨다. 이 세상에서 그분은 지옥의 마귀를 영원히 정복하셨다. 그분은 그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하나의 본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베드로전서 2:22-24).

마침내, 주권적인 위엄 가운데, “그가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분은 그의 영을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신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아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신 분은 할 수 있었다. “그가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이 그분의 영을 떠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께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태복음 11:28-30).

## 125 장.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30)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인간 육체를 입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과 연합 안으로 우리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언약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완전한 의의 삶을 사셨다. 그분은 전 생애 동안 사람에게 경멸 당하고 거절당했으며, 비통의 사람이셨고, 비탄과 가까이 지내셨다. 그분의 대적들은 많았다. 그분의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또 신실하지 않은 자는 없었다.

마침내 그분은 자신을 증오하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셨다. 그분은 동산에서 거칠게 체포되었고, 법정 앞에 심문을 받았다. 그들은 그분에게 가짜 옷을 입혔으며, 굴욕스럽게 그분을 벗겼으며, 조롱과 경멸스러운 구경거리로 그분을 들어 올렸다.

그분은 완전히 결백하다고 선포되었다. 하지만, 비겁한 재판관은 그분을 그를 고소한 자들의 손에 넘긴다. 기록되기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역주: 빌라도가 예수를 저희 뜻대로 넘겨 주었다.)” 그분은 예루살렘 길을 통하여 끌려가셨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이 이제 그들 자신에게 선지자의 주의 피를 부으려 할 것이다.

하나님-사람이 갈보리라 불리는 언덕으로 이끌려 오고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태양이 그분 위에서 타고 있다. 그분의 상처가 그분의 몸에 지독한 열을 일으킨다.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그분이 와서 행하려 하였던 그분의 뜻, 그가 이제 성취하신 그분의 계획, 그가 오셔서 구속하려 하신 그분의 백성, 그가 오셔서 높이려 한 그분의 영광, 그분의 하나님이자 아버지께서 그분을 버리신다! 지옥의 모든 집중된 고통에 고난 받으시면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다.

그분이 거기 나무 위에 달려계실 때, 죄와 사탄과의 죽음의 충돌 가운데, 그분의 마음은 깨어지고, 그분의 갈비뼈는 탈골 되고,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버리신다. 하늘이 그분을 버리셨다. 땅이 그분을 버리셨다. 그분의 제자들 모두가 그분을 버리고 그분으로부터 도망간다. 그분은 여기 저기를 보시지만, 그러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눈은 주변 모두를 바라보시지만, 그분의 수고를 나눌 자가 아무도 없다. 그분 혼자만 하나님의 진노로 격렬한 포도즙 짜는 틀을 밟고 계신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그분과 함께 있지 않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하여 가신다. 만약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분의 입에서 지나칠 수 없는 그 잔의 마지막 쓰디 쓴 한 방울까지 마시기로 계속하여 결정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줄 아노라.” (이사야 50:5-7)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준귀를 위하여, 그분의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그가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완료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까지, 그분의 고통을 인내하신다. 그리고 영혼이 돌아가신다.

당신은 이 승리의 강력한 외침을 듣는가? 그것은 정복자 왕의 말씀이다. 그것은 이천 년 전도 더 되는 때 갈보리로부터 울려 퍼졌던 새로움과 힘을 모두 갖고 오늘날에 울려 퍼진다! — “다 이루었도다!” 신성한 말씀에서 나오는 그 외침을 들어보라. 구원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외침을 들어보라.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바로 그 혼 안에서 울리는 죄인들의 구원자의 이 말씀을 들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 “다 이루었도다!” 아, 이 글을 읽는 모든 자가 이 축복된 정복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를 올려다 볼 때, 돌아다니는 빛의 천사들을 둘러볼 때, 사탄과 지옥의 마귀들을 내려다 볼 때,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 너머를 바라볼 때 나는 그분을 거의 볼 수 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과 지옥에 대하여 구속의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계신다! 나는 이 공과에서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일에 대하여 네 가지 사항

을 보여주기 원한다.

## 그것의 사실

첫 번째로, 당신이 구원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이루었다!” — 나는 그것의 사실을 깨닫기 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 위에서 죽으셨을 때, 구속의 역사가 그 때, 그곳에서 완성되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더이상 행해져야 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것도 더이상 행해질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그분 자신께 구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백성은 구속 받았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9:24)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그것,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희생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구원자께서 무엇을 의미하셨는가?

그분이 의미하셨던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와 약속과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오직 한 사람에게 맞을 옷을 지었으며,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창세기 3:15; 49:10; 시편 40:6-8; 이사야 52:13-53:12; 미가 5:2; 말라기 4:2). 그리스도 안에 그 온전하고 완전한 성취를 찾을 수 없는 구약의 한 가지 약속, 혹은 예표, 혹은 예언은 없다. 그 옷

이 그분께 완전하게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분에게만 맞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약에서 예언된 그 한 분의 특징에 합당하다. 그분은 모세처럼 선지자이고 여호수아처럼 구원자이다. 그분은 아론과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그분은 다니엘과 솔로몬 같은 왕이다. 그분은 살육되었던 어린 양이며 살육되지 않은 희생 양이었다. 그분은 피에 젖은 멧비둘기였으며 그 새를 죽인 제사장이다. 그분은 제단이고 성막이다. 그분은 시은좌이고 진설병이다. 그분은 제물이고 제물을 바치는 분이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의식 율법의 모든 예표적 제물들이 완전히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영원히 폐지되었음을 의미하셨다 (히브리서 10:1-14). 유대교는 오늘날 로마 가톨릭교처럼 우상숭배와 같다. 하나님은 구약의 세상적인 계명들을 영원히 없애셨다.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역주:영)과 진정(\*역주:진리)으로 예배할찌니라.” (요한복음 4:24).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하나님의 도덕법의 계명들 모두가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며 율법의 통치는 따라서 끝났으며 영원히 폐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셨다. —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4). 아들의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이상 율법의 후견과 징계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그분의 권세의 시대에 기꺼이 종이 되었다. 기꺼운 마음으로 관대히 준 그들은 법정 세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그칠 율법이 필요치 않다.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

하여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삶이 영원한 안식일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옳은 것을 그들이 하도록 할 율법의 구속이 필요 없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우리 축복의 주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셨다. 성전의 장막이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며, 죄로 충만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0:19-2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구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셨다 (갈라디아서 3:13; 히브리서 9:12).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행하라고 주셨던 일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보증으로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분이 동의하셨던 모든 것을 그분이 지금 성취하셨다 (요한복음 17:4). 그분은 영원한 의를 이제 가져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빛은 지불되었다. 채무자들은 해방되었다.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죄에 대하여 제물로 드러진 그분의 한 사람으로, 속량이 성취되었으며,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의 백성 사이의 화목이 완성되었다. 그분은 거룩하게 된 그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율법의 저주가 그분 앞에 넘어졌다. 시내 산의 천둥 소리가 침묵되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혼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공의의 검을 삼켜버리셨다. 그분은 이제 그의 백성의 죄들을 전멸시켰다. 그분은 이제 사탄을 정복하셨다. 그분은 이제 사망을 패배시키셨다.

“다 이루었다!” 아, 하나님의 자녀여, 나는 당신이 이 복된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가운데 ...

-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
- 의식법의 예표적 희생은 영원히 폐지되었다.
- 도덕법의 계명들이 모두 완전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해졌고 우리를 위하여 성취되었다.
-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
- 우리 혼의 구속이 성취되었다.

### 그것의 결과

둘째로, 우리 전능한 구원자에 의해 외쳐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것의 결과로 기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가? 나의 친구들이여, 그것을 믿어라. 그것은 진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대표자적 생명과 대리적 속량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분이 하시도록 주셨던 그 일을 마치시므로, 뒤이은 분명하게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효험 있는 속량이었다. 우리 주의 희생의 결과 가운데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겠다.

우리 구원자께서 끝내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언약이 비준되었으며 실행되었다 (히브리서 9:15-17). 언약이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서명되고 인침 되었다. 그것은 모든 것 안에 명령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에 의해 확증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언약은 피로써 시행되었다. 언약의 어느 하나의 규정도 결코 깨어질 수 없다. 하나의 약속도 결코 어길 수 없다. 언약의 모든 축복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택정한 모두에게 확증되었다. — 비록 그분이 그분의 뜻을 실행하시려 죽으셨지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께서 그분의 뜻이 실행되는 것을 보시려 하늘에서 사신다 (이사야 53:10-1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거룩 안에서 유죄의 죄인들의 공의와 의롭게 하는 분이시다 (로마서 3:24-26). 하나님-사람이 죽으신 이후, 죄인들을 위한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의 화목의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 있고 여전히 무신론자를 의롭게 만드신다. 실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역사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모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갈라디아서 3:13-14; 요한복음 16:7-14). 성령께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고 난 후, 복음이 모든 세상으로 보내졌다.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구원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세계적인 말씀이다 (요엘 2:32). —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이 확증된다 (요한복음 6:39). 그분 자신의 피로 하늘에 들어가셨던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모두가 그들을 위하여 그분이 얻으셨던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죄인이 피로 샀으니  
마침내 하나님께로 데려가질 것이다.  
진리와 공의가 그것을 분명하게 만드니 —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시지 않았네!

구원자께서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자는 아무도  
그분의 머리로부터 나뉠 수 없다.  
은혜로 부름 받았네! 영원히 지키리라!  
예수께서 전능한 구원자시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던 혼은 아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택정한 자는 모두 구원 받을 것이다. 공의가 그것을 요구한다! —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우리 죄들이 없어졌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장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패하실 수 없다 (이사야 45:23-25).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혼을 산 모든 피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 안에서 계시된다 (고린도후서 4:6; 디모데후서 1:9-10).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신격의 경이로운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신격 —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공휼 —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은혜 — 그분의 불변성과 그분의 지혜 —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사랑.

우리 구속자로서 그분의 이루신 역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육체를 통치하기 위하여 우주적인 왕국의 보좌에 높이 지셨다 (빌립보서 2:9-11; 시편 2:8).

## 그것의 체험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의 구원을 확증하였던 구속의 역사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 만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그 결과는 즉시 효과를 가졌다. 그분이 내 대신에 죽으셨을 때, 나는 그분 안에서 죽었으며, 나의 혼은 오늘날처럼 그분의 피 아래에서 안전하고 확고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오셔서 나를 그 체험 안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나는 그것을 모른다.

따라서, 세 번째, 구원자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한 체험을 알기 원한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한 구속의 기쁜 소식, 완전한 속량의 기쁜 파도, 완전한 용서의 위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우리는 구속이, 부분적인 구속이라든지, 혹은 조건부 구속의 가능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우리는 성취된 구속을 선포한다. 우리는 도처에 있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사야 40:1-2).

어떻게 가련하고, 길을 잃고,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다 이룬 역사의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 — 만약 영원한 구원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를 체험하려 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분의 역사의 결과이고 그분의 역사만의 결과가 될 것이다.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보내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구

원받지 못할 것이다 (시편 107:20; 에베소서 1:13). 주께서 그분의 영을 당신의 마음 속에 보내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살 수 없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당신에게 또 당신 속에 계시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믿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1:15-16; 빌립보서 3:3).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신뢰할 믿음을 주시며, 당신이 혼 안에 평강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죄의 죄사슬을 끊어버릴 것이며, 그분 안에서 당신의 혼란스러운 혼이 안식을 찾게 하신다 (시편 107:1-31). 오직 그분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

## 그것의 원인

네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원인을 보고 감사하기를 원한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스럽고, 치욕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견디셔야 했는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보증인으로 서고 나의 혼의 구원의 일을 마치시기를 동의 하셨는가? 어떤 동기로 우리 주께서 이 축복의 일을 하게 되셨는가? 하나님의 책이 우리에게 말해주신다. 그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었다 (시편 40:7-8). 우리를 구원할 다른 가능한 방법이 없었다 (갈라디아서 2:21).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소유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말라기 3:17).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결정하셨다 (시편 106:8; 에베소서 2:7).

“다 이루었다!” —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손으로 한 행위를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아들의 손으로 행한 일은 받으셨

다. 그리스도의 이루인 일에만 당신의 혼을 안식할 것인가?

“아무것도, 크든지 혹 작지 않다;  
아무것도, 죄인아, 아무것도 없다;  
예수께서 하셨네, 그 모든 것을 하셨네,  
오래, 오래 전에!

그가, 그의 높은 보좌에서,  
행하고 죽으시려 몸을 굽히셨네,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라 —

‘다 이루었다!’ 그렇다 실로,  
모든 계획을 마쳤다.  
죄인들아, 이것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게 말하라, 그렇지 않은가?

지쳐서, 수고하고, 터벅 터벅 걷는 자여,  
왜 그리 수고하는가?  
너의 하는 것을 멈춰라, 모든 것이 끝났다,  
오래, 오래 전에!

예수의 역사에 네가 매달릴 때까지  
단순한 믿음으로,  
행위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네.  
행위는 사망으로 끝나네!

너의 사망에 이르는 ‘행위’를 던져버려라,  
예수의 발 아래 내려 놓아라.  
그분 안에, 그분 안에만 서서,  
영광스럽게 끝내라!”

James Procter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  
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 115:1)

아멘.

## 126 장. 부활로부터의 공과들—요한복음 20:1-18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판 곳에 개켜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1-18)

나는 한번은 한 나이든 여인이고, 믿는 자이며, 그의 나이가 평균 이상에 접어들었고, 특별히 그녀의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 한꺼번에, 그녀가 마음으로 성경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았다. 결국 오직 하나의 귀하고 아주 작은 부분이 그녀에게 남았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12). 곧, 그 부분이 또한 그녀의 생각에서 빠져나갔다. 그녀가 본문 중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종종 조용히 되뇌는 것이 발견되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것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녀가 이 세상에서 영광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그녀의 자녀들이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녀는 한 마디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분…그분…그분.” 그녀는 한 마디를 제외하

고, 전체 성경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성경 전체를 가졌고 그 한 마디 —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 축복의 책은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분”을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원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을 “그분”께 두시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20 장은 우리를 우리 죄 속량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으로부터 그분의 부활로 데려간다. 그 자신의 것이 되었던 우리 죄들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옮겨졌던 그분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성취된 우리의 칭의 때문에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 부활의 교리가 진실이라고 단순히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내가 알기 원하고, 당신도 알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마태, 마가, 누가처럼, 요한은 특정한 충만과 특이성과 함께 이 두 가지 큰 사건에 머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에 놀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전체, 우리 구원의 믿음의 전부, 우리 혼의 구원의 전부가 이 사실들에 달려 있다: —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3-4).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부분에서 배우기를 의도한 공과가 무엇인가?

## 용서와 사랑

첫째, 가장 용서 받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 (누가복음 7:36-50). 구원자의 무덤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요한이 이름을 거론한 첫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이다. 이 신실한 여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세히 제공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그 여인이 주께서 그에게서 “일곱 마귀들”을 내쫓은 사람이었다는 것만 안다 (마가복음 16:9; 누가복음 8:2). 마리아는 마귀에게 소유당했고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녀를 구원하셨을 때까지 그녀의 삶은 마귀를 섬기는데 허비되었다. 그날로부터, 마리아는 언제나 그분 곁에 있었으며,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매달렸으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보아왔다.

만약 내가 실수가 아니라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주 예수께 기쁨을 부었던 자가 이 여인이었다. 주께서 그가 시몬에게, “누구를 가장 사랑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를 언급하고 계셨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녀를 가리키고 계셨다. —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47).

지옥의 마수에서 그녀의 혼을 구원하고 그녀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하여 우리 주께 마리아가 감사한 것은 매임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감사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용서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많이 사랑하였다. 그녀는 구원자에게 아주 많이 빛을 지고 있었다고 느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것이 너무 커서 할 수 없는 없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는 것도 없음을 강하게 느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가장 늦게까지 있었다. 마리아

아는 무덤에 가장 처음 있었다. 마리아는 일찍 일어났고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왔다. 많은 것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많이 사랑하였다.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많이 사랑하였다. 그리고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이 하였고, 사랑의 마음으로만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녀의 구원자에게 감사 하였다.

우리의 타락과 죄에 대하여 더욱 완전히 또 더욱 깊이 깨달으며, 우리 구원자를 더 소중히하고 그분의 피로 인한 우리 죄의 사함을 더욱 소중히 하게 될 것은 사실이다. 죄가 깊이 또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함은 거의 없다. 자신의 죄와 타락을 깊이 느끼고,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과 은혜와 중재가 없는 사람은, 가장 낮은 지옥으로 영원히 가라앉게 될 것이며, 구원자를 위하여 허비하지도 않을 것이고 허비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나는 내 구속자를 위하여 절대 충분하게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 하나님의 영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다! 내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사랑에 대한 마리아의 느낌을 주소서! 나 자신을 더욱더 보여주소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더 보여주소서! 그분 안에서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더 많이 보여주소서!

우리가 우리 죄의 크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할 때, 오직 그 때만, 우리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의미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14-15).

“나의 생명을 취하사,  
당신께 성별케 하소서, 주여!”

## 다른 성품

둘째,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품과 기질에 있어서 모두 같지 않다고 다시 우리에게 일깨운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2 절)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이르렀으며, 세 사람 모두 달리 행동하였다.

그들은 모두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요한, 예수를 사랑하였던 제자는 베드로보다 먼저 갔으며 빈 무덤에 처음 도착하였다. 요한은 몸을 굽혀 안을 보았지만, 더 들어가지 않았다. 베드로는 좀더 열성적이고 충동적이어서, 무덤 속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의 눈으로 보려고 하였다. 마리아는 분명히 좀더 늦게 무덤에 돌아왔과 베드로와 요한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들은 모두 주 예수를 사랑하였고 그분을 신뢰하였다. 이 세 사람의 믿는 자들의 마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기대로 가득하였고, 모두 함께 얽혀 있었다. 하지만 각각은 그들 자신의 성격의 모양대로 행동하였다. 질문의 여지 없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 성격과 기질이 크게 다른 것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모두가 구속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 모두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한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같지 않다. 우리는 아주 똑같이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일들에 반응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이 단순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할 것이며 많은 불친절하고 무정한 생각이나 말을 막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서로를 엄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하듯이 똑같이 보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고,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한 영으로 모두 심겨지고 그분의 동산에 모두 있지만, 주의 동산에 있는 꽃들은 모두 한 가지 색깔과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동일한 구원자를 사랑하고 동일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의 왕국에 복종하는 자들은 똑같이 보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베드로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있고, 요한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있으며, 마리아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있다. 어떤 자는 아버지이고, 어떤 자는 연장자이며, 어떤 자는 젊은이이고, 어떤 자는 어머니이며, 어떤 자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 주 예수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선택 받았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아들에 의해 사랑을 받고 구속 받았다. 거듭난 모든 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1-5).

## 많은 무지

우리는 결코 진실한 믿는 자들에게 많은 무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9 절). 그 사실은 아주 믿을 수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삼 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은 사망에서 그분의 부활이 그분이 메시아심에 대한 증거가 될 것과 그로써 다윗의 아들로써 하늘 보좌 위에 그분의 자리를 취하실 것임을 반복하여 선포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마리아를 제외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것과 관련한 그분의 말씀에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 이들이 진실된 믿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중요한 복음 진리의 일부에 대하여 매우 무지하였다.

만약 주의 제자들이 이 단순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삼 년 동안 그분의 사역 아래 있던 후에도 그렇게 무지하게 있었다면, 진실한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것을 들은 자들이 몇 가지에 대하여 무지한 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지식으

로 가득한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다! —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27)

우리가 만약 구원 받고자 한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충만함과 범죄를 알아야 한다. — 그리스도와 우리 구원자와 구속자로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 —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통해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은 참된 은혜를 많은 무지와 함께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고 은혜는 없는 것에 이르는 정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 가운데 하나이다. 심판의 날만 풀려질 것은 하나의 비밀이다. 따라서 지식을 구하고, 무지를 수치스럽게 여기자.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소유임을 확신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유일한 주이고 구원자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부름과 택정을 확신하도록 하자!

## 근거 없는 두려움

넷째, 성경의 이 부분에서 우리의 셀수 없는 두려움과 비통함이,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무지와 불신에 기인한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자. 우리는 마리아가 흐느끼며 무덤 앞에서 있고, 아무 것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는 것처럼 흐느끼고 있음을 듣는다.

오직 요한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막달라 마리아와 주 예수 사이의 대화가 있음을 11-18 절에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생각에 우리 주의 부활 후에 여러 번 나타나신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집으로 갔을 때, 마리아는 무덤에 머물렀다. 그녀의 주에 대한 사랑이 그가 눕혀진 그 장소를 그녀가 떠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가 계신 곳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분께 일어난 것을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녀의 주를 눕힌 곳인 그 빈 무덤에서 자신을 끌어낼 수 없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대한 그녀의 사랑의 애정은 풍성하게 존경을 받았다. —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결코 보지 못했던 천사들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이 그녀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 예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그분을 본 사람이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었으며,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구원자를 찾기 원하는 자들은 복되다! 마리아가 주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마지막 보였던 곳에서 있었다. 그곳에 그녀가 조용히 서서, 큰 슬픔으로 흐느끼고 있었으며, 거룩한 곳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떠날지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복음의 전도 앞에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의 만찬에서 마리아처럼 기다리자. 노인의 아내처럼,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져보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아가 3:3) —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명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가 5:8).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가 그곳에서 “울면서” 서 있던 것을 듣는다 (11 절).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그녀를 위로 할 수 없던 것처럼, 큰

슬픔과 두려움으로 울었다. 그녀는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할 때 그녀는 울었다. 그녀는 주 예수께서 직접 그녀에게 말씀하실 때 울었다. 그러나 그녀의 슬픔과 두려움은 완전히 근거가 없었다. 만약 그녀가 오직 일어났던 것과 일어나고 있던 것과 곧 일어날 일을 알았다면, 그녀는 춤추고 기뻐하였을 것이다.

아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어떻게 쉽사리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우리를 구별해야 할지! 우리는 종종 정말 기쁠 때 울곤한다. 우리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창세기 42:36)고 한,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실 때, 야곱처럼 대단히 울부짖는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알았다면,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러나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운행하시네  
그분의 행하심의 경이로다;  
그분은 바다에 그 발걸음을 놓으시고  
폭풍 위로 가신다.

헤아릴 수 없는 광산 깊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기술로  
그분은 빛나는 계획을 캐내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역사하시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새로운 용기를 취하라;  
구름을 너는 너무도 두려워하니  
공홀로 크고 또 깨어질 것이니  
너의 머리 위에서 축복으로라.

그분의 계획이 속히 익을 것이니,  
매 시간 드러날 것이라;  
꽃봉오리가 쓴 맛을 낼 것이지만,  
꽃은 달콤하게 될 것이라.

앞 못보는 불신자는 잘못을 확신하고  
그분의 역사를 헛되이 살피는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해석자라.  
또 그분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실 것이라.”

###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

다섯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시며, 심지어 (특별히 그 때에)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임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때 임을 우리에게 일깨우신다. 마리아가 푸념을 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3

절). 하지만, 계속하여 그녀의 부활하신 주께서 그녀 바로 곁에, 몸과 살과 뼈를 갖고 계셨다. 그녀의 눈물은 불필요하였다. 그녀의 염려는 필요 없었다. 광야의 하갈처럼, 그녀 옆에 우물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볼 눈이 없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마음이 공허할 때, 그분이 그 빈 마음을 채우시려 가까이 계신다. 우리 마음이 차가울 때, 그분은 그것을 덥히시려 가까이 계신다. 당신의 혼이 쇠약해지고 있을 때, 그분은 되살리기 위하여 가까이 계신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려 가까이 계신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그분은 당신을 일으키려 가까이 계신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7).

## 그리스도의 발견

여섯째,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그분 자신을 발견한 결과이다. 비록 주 예수께서 그녀 앞에서 계셨지만,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하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자신을 그녀에게 알게 하시기 전까지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15-16 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

기 전과 회개한 후) 그분을 알 수 없다 (이사야 65:24; 고린도후서 4:6; 요한일서 4:19-20).

## 그리스도와 연합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유임을 알도록 배우고 기뻐하자.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7 절). 마리아가 그분을 만지는 것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 그분은 후에 도마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주께서 마리아에게, “내 육신에 매달리고 있을 필요가 너에게 없다. 나는 너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 내가 사망에서 부활하였다고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다 —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8 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영적 임재이다. 주 예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이 자신의 희생으로 구속을 성취하셨고, 사망에서 부활하셨으며, 궁핍한 죄인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위에 앉으신다는 것을 말하도록 우리를 여기에 남기셨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도록 하라. 달콤한 묵상과 기쁨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이것을 되새겨라. 낮과 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한 당신의 순례를

갈 때, 그 말씀을 지니고 다녀라. —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소유인 자 모두 그분 안에서 당신의 것이고 나의 것이다! — 그분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다. 그분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다. 그분의 보상은 우리의 보상이다. 그분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다. 그분의 안전은 우리의 안전이다.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그분과 하나이다!

“예수와 선택 받은 인류 사이에  
주권적인 은혜의 매임이 존재하니,  
황천행 열차가 있는 그 지옥이,  
결코 풀지도 헛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네.

이 신성한 매임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니,  
비록 땅이 그 중심까지 흔들지라도;  
안식하라, 의심 많은 성도여,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맹세하셨음이라.

그가 맹세하였으나 한 번에 행해졌으니;  
삼이일에 의해 정하여진 바라;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기로 약속되었으니  
그분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던 모든 자들이라.

만세! 신성한 연합, 확고하고 상하네,  
은혜가 얼마나 큰가, 찬송이 얼마나 달콤한가,  
땅의 그 벌레들은 결코

성육신 신성과 함께 한 자 되었네!

무덤 속에 있는 한 분, 그가 부활하였을 때 한 분,  
그의 적에 대하여 승리할 때 계신 한 분,  
하늘에서 그분의 보좌를 취했을 때 한 분,  
스랍들이 모든 지옥의 패배를 노래하고 있네.

이 신성한 매임이 그들의 두려움을 묶네,  
모두에게 있어서 그는 상속자이고, 상속자였네;  
그들의 머리에신 그와 함께, 그들은 서거나 넘어지니,  
그들의 생명, 그들의 보증, 또 그들의 모든 것이네.”

죄인의 평강, 중재자이신 그 분,  
그 피가 그분의 백성을 자유케 하는 분;  
그들에게 그분의 다정한 애정이 달렸으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네

지혜로운 자와 은혜로운 자를 축복하라,  
영원한 사랑과 충성심,  
복음의 체계 안에 계시되었으니,  
또 하나님의 영이 인치신 바라.”

## 127 장. 무덤은 비어 있지 않았다—요한복음 20:1-18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판 곳에 개켜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

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1-18)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우편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구속자 안에서 안식하는데,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거룩하게 분별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맹세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 앞에 어떤 안식의 생각들을 둘 수 있게 하실 것이 나의 소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리마대의 요셉의 새 무덤으로 향한 순례의 여정을 하고 있고, 주께서 누워계신 곳을 보기 때문이다.

### 단번에 죽으심

기억되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항은 이것이다: —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 —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

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로마서 6:10). 따라서, 주 예수께서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어” (이사야 53:9) 잠드셨던 곳 주변에 모이고, 무덤의 입구에서 굴러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음을 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때 그곳에 확실하게 계셨다. —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분은 길 아래 공동묘지에 시체가 묻힌 죽은 자처럼 죽으셨다. 비록 그분은 아무런 부패도 보실 수 없었고,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 사망의 묶임으로 매일 수는 없었을지라도, 하지만 그분은 단번에 죽으셨다. 그분의 눈에 빛이 없고, 그분의 귀에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분의 마음에 아무런 생각도 없었으며, 그분의 입에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은, 그분의 심장에 생명의 맥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단순히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따라서, 무덤에 매장되셨다. 사망한 사람은 조용한 무덤의 합당한 점유자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지금 거기 계시지 않다! 그분이 사망에서 다시 사셨다. 우리는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 유일한 구원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로마서 4:25-5:11). 성경의 이 부분을 달리 볼 때,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한 때 무덤 속에 계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 그가 무덤 속에 우리를 위하여 남겨졌다는 기억에 주목할 것을 원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

니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1-4).

### 달콤한 향신료

이 사실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무덤 안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 첫째, 주 예수께서 무덤 안에 달콤한 향신료를 남기셨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을 감싸고 있던 그 값비싼 향신료들을 가져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것들을 남기셨다. 요셉은 몰약(myrrh)과 침향(aloes) 백 근 가량을 가져왔으며, 무덤 안에 그 향신료의 달콤한 향기를 남겼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 향수 가게처럼 냄새가 났을 것이 분명하다.

영적 느낌 가운데 빠질 때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생각인가! 우리 주 예수께서 달콤한 향기로 무덤을 채우셨다. 더이상 썩은 냄새와 역겨운 썩는 냄새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이전하기를 떨어야 하는지  
이 시신들을 무덤으로?  
그곳에 예수의 귀한 육신이 놓여있으니,  
또 오래 향기가 남았구나.

모든 성도들의 무덤을 그가 축복하셨으니  
또 모든 침상을 부드럽게 하였네.

죽은 지체들이 안식하여야 할 곳  
그러나 그들의 죽은 머리와 함께 있는가?

거기서 그가 부활하셨고, 높이 오르셨으니,  
그리고 우리 발이 갈 길을 보였나니.  
주께로 우리도 또한 날아갈 것이니  
그 큰 휴거의 날에.”

땅 아래 우리 육신을 기다리는 그 침상은 이제 값비싼 향료로 향기로우며 향기로운 꽃들로 장식되었다. 거기에 한 때 우리의 가장 참된 친구가 거룩한 머리를 두고 있다. 무덤에 왔던 여인들에게 한 천사의 첫 번째 말은, “너희는 무서워 말라” (마태복음 28:5)였다. 우리는 무덤에서 결코 두려워 움츠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께서 한 때 그곳에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런 공포심 없이 가셨던 곳에 있을 수 있다.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4).

## 수의

다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수의를 무덤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본다. 요한이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보았을 때, 그는 한 편에 놓여진 잘 개어진 수의를 보았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곱팡이 투성이의 수의를 남기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요한이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마포 옷”을 남겨두셨다.

그분이 수의를 남기심은 우리가 우리의 낮은 상태에서 그분과 교통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하셨음이며, 사망의 옷을 치우셨음을 기

억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럴 것이다. 그분이 그 관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이부자리를 남기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에 이육신을 우리가 내려 놓을 때,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우리는 이 사망의 옷을 뒤에 남길 것이다 (시편 17:5; 27:13; 이사야 57:1-2; 고린도후서 4:16-5:9).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자. 승리의 기억으로, 패배한 적들에 대한 기억과 승리한 전쟁에 대한 기억의 장소에 걸려 있는 낡고 누더기가 된 것발을 보았다. 구원자께서 정복하였던 사망의 장소인 무덤 속에, 그분의 수의가 사망을 이긴 그분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걸려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보자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한다. —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향기로운 무덤 안에 놓여진 그 세마포 수의를 다시 한번 보라. 그것들이 그분의 의의 상징으로서, 우리의 보증으로서 그분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의, 그분이 우리의 것으로 만드셨던 그 의, 그로써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으로 당신의 믿음의 눈 앞에 놓여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바로 그 의라는 축복의 확신보다 더 편한 무덤으로 만들 것은 벅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구원의 옷은 완전한 의의 축복의 세마포 옷이다 (시편 132:7-9; 계시록 14:4-5; 19:6-9).

## 수건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가 “머리를 씻던 수건”이 잘 개어져서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 “시몬 베드로도 따라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나는 나의 구원자의 무덤 안에서 여전히 그 수건을 본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낸 손수건이다. 과부와 고아, 홀아비와 비탄에 빠진 아버지, 신음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이 이 수건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낸다. —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16). —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사야 26:19).

그리고 이 동일한 손수건으로,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다른 눈물을 닦아내신다. 회개의 눈물, 고난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사별의 눈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은혜의 손수건으로 기분 좋게 말리신다 (계시록 7:17; 21:4).

## 천사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무덤에 또 다른 것을 남기셨다. 그분은 천사를 남기셨고 무덤을 이렇게 만드셨다...

“천사들이 쓴 방은  
하늘의 소식을 갖고 오고 가기 위함이니네.”

천사들은 전에는 무덤 속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부활 때에, 그들이 내려왔다. 한 천사가 돌을 굴렀다. 그리고 다른 천사들이 구원자의 몸이 한 때 누워있던 곳에 앉았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무덤에서 천사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을 결코 읽지 못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혼을 그들의 주의 가슴으로 가져간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부활 때까지 지켰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들의 몸도 역시 지키는 영들에 의해 지켜질 것이다.

## 출구

출구에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무덤 안에 남기셨던 또 다른 것이 있었다. 그분은 무덤에서 공개적인 말씀을 남기셨다. 돌은 굴러졌다. 왜? 그분이 이로써 사망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에게 있어서 창살이나 문이 없는 감옥임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시지 않은가? 열린 무덤은 네게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있음을 내게 말해준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망의 출구이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영적 사망에서 나오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다!

      깜깜한 밤에서 빛나는 빛으로,  
      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이 나를 일으키셨다!

또 생명의 길, 영적 사망의 출구이신 그분은 역시 그분의 속량 받은 자들을 위한 육체적 사망의 출구이고 둘째 사망의 출구이다 (계시록 20:1-6). 우리의 강력한 삼손은 기둥을 뽑았으며 창살로 가득한 무덤의 문을 없애 버렸다. 열쇠는 죽은 자의 허리 띠에서 가져왔고 생명의 왕의 손에 쥐어져 있다. 베드로처럼, 그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의 사슬이 풀려진 것을 발견하였고, 철문은 하나같이 그에게 열려 있는 한편, 부활의 아침에 성도들은 탈출할 준비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한동안 잠들 것이며, 각자는 그의 안식의 장소에 있겠지만, 우리는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인데, 돌이 굴러져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천사가 그 돌을 굴렸던 것은, 그것이 매우 컸기 때문이며, 그분이 하실 일을 모두 마치셨을 때, 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번개와도 같았고, 그분이 돌 위에 앉아 계실 때, 그분은 사망과 지옥에게, “네가 할 수 있다면 그 돌을 다시 굴려 보아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 우리를 대신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냈던 그 강한 천사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 빛

우리 부활하신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무덤에 한 가지 더 남기셨다. 무덤은 철저히 어두운 장소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무덤에 생명과 불멸의 빛나는 빛을 남기셨다. —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9-11).

우리 주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분의 임재로 그것을 빛 비추셨으며, “그분의 사랑의 등이 어둠을 통과하는 우리 인도이다.”

그분은 복음으로 빛 비추는 생명과 불멸을 가져 오셨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무덤 속에서 날이 새고 그림자가 없어질 때까지 땅의 밤을 지키러 타오를 빛이 있으며, 부활의 새벽이 밝아 올 것이다.

나의 마지막 호흡을 하고  
사망 가운데 육신의 이 옷을 내려 놓았을 때,  
나의 약속된 일이 이루어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갈 때,  
나의 무덤 주변에 서서 울지 마라.  
나는 그 곳에 없으리라. 나는 죽지 않았다.

나의 구원자께서 나를 집으로 부르시려 오셨으니,  
나는 그분과 함께 하늘로 갔네!  
이제 나는 죄와 고통에서 자유하네;  
영화롭게 된 자와 함께 나는 통치하네!  
나의 무덤 주변에 서서 울지 마라.  
나는 영화롭게 되었네! 나는 죽지 않았네!

그분의 보좌에 계신 예수와 함께 자리했으니,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 영화롭게 되니,  
나는 그분의 은혜의 승리의 기념이라.  
기뻐하며,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네:  
나의 무덤 주변에 서서 울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네! 나는 죽지 않았네!

내 육신이 진흙 아래 누워 있네

부활의 그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날에,  
몸과 혼은 다시 연합하네!  
나의 무덤 주변에 서서 울지 마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죽지 않았다!

## 128 장. “제자들이 기뻐하더라.”—요한복음 20:18-31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

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18-31)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 이것은 그분의 죽음에서의 부활 이후 우리 주의 첫 번째 나타나심이었다 (마가복음 16:9). 마태는 여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갔을 때 그 여자들의 다른 모습에 대하여 말한다 (마태복음 28:9-10). 누가와 마가는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한다 (누가복음 24:13-34; 마가복음 16:12-13). 이런 나타나심은 그분이 부활하신 그 날 모두 일어났다. 그 사건들은 모두 일요일, 주의 첫 번째 날에 일어났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시간 동안 몇 가지 다른 나타나심에 대하여 보고한다 (고린도전서 15:3-7).

우리 주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언제나 일요일, 주의 첫 날(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예배와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날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도 이 날이었다. 결코 다시는 제자들은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복음의

안식일은 일요일 아침 부활과 함께 시작하였다.

일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일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안식한다. 일요일은 “주의 날”이라고 불린다 (계시록 1:10).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이 아니다. 우리 주의 부활 후, 제자들은 일요일, 주의 첫 날에 경배와 설교와 교통과 떡을 떼고 찬양하기 위하여 모였다. 우리는 유대 안식일에 모이거나 어떤 형태의 안식일이든 지키기는 어떤 그리스도인 회중에 대하여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읽지 못한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모일 것을 전하였지만, 경배를 위하여 토요일에 그들이 모였다는 기록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든, 어떤 정도든지 간에 율법적 안식일을 다시 지켰다는 기록은 결코 없다. 우리 안식일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히브리서 4:3-10).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영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구원자 안에서 안식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식이며, 어떤 날이 아니라 구원자 그분 자신이다! 모든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골로새서 2:16-23).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체현의 임재처럼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부활하신 구원자에 대하여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곱 가지 사항이 여기 있다.

## 그분이 주시는 평강

첫째,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마음에 기쁨을 주심을 우리는 상기한다. 두 번 주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씀 주셨다. “사람이 결코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은 의미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의 현재 상태 때문에 특별한 강조와, 마지막 수 일의 사건을 특별히 가리키면서, 또 그들의 앞날을 특별히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평강”과 책망이 없음 — “평강”과 잘못을 찾지 않음 — “평강”과 비난이 없음 — 은 이 작은 무리의 믿는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그들의 주의 입에서 들은 첫 번째 말씀이었다.

주 예수께서 마리아를 이 제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 가장 은혜로운 방문을 준비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방문이 얼마나 새롭게 하고 혼을 만족하게 하는 방문이었겠는가! 우리는 그들의 최근의 도망에 대하여 아무런 꾸지람을 듣지 않으며, 그들의 불신에 대한 비난이 없고, 그들의 실패에 대하여 질책이 없고, 다만 모두가 긍휼과 사랑과 은혜였다!

“세상에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주의 찬송이었다. 평강과 혼의 안식은 삼 년 동안 그분이 계속하여 전하셨던 일반적인 주제였다. 평강은 부요가 아니며 그분의 십자가 형 전날 밤 열한 제자들에게 그분이 남기셨던 큰 유산이다. 그것은 우리 주의 모든 행위에 대한 주제를 완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그분의 부활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잠

잠하게 했을 말씀이었다.

평강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그 복음은 그분이 우리가 전하도록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과 평강,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평강,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 하나님께 속한 평강,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속량의 보혈로 인한 평강, 그분의 은혜에 속한 은사로 인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강을 전하고, 평강을 확산하게 하며, 평강을 실행하도록 보내셨다.

마호멧 교와 같은 어떤 종교든, 칼로써 개종하게 만든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왔다. 그 자체의 성공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을 말뚝에서 태우는 로마 가톨릭과 같은 어떤 종교도 지옥과 적그리스도의 인을 가지고 다닌다. 평강의 왕의 종교인 그런 종교는 평강 — 참되고 진실된 평강을 전하고, 확산하며, 실행하고, 진작하게 한다.

### 확신을 갖는 계시들

둘째, 우리 마음이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그 축복되고, 달콤한 우리 주 예수의 계시들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있는가. 주의 죽으심 이후 교회의 첫 번째 집회가 어떤 것 같았을지 상상할 수 있는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마가복음 16:12-13; 누가복음 24:11).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며, 매우 두렵고, 부끄러울 정도로 믿지 않았을 것이나, 아직은 약간의 소망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들 한 가운데 나타나셨으며 그들에게 그분

의 상처를 보여주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매우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주목할만한 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부활과 그들의 구속의 증거를 주셨다. —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물을 필요 없이, 구원자는 이런 행동 가운데 자신을 그분에게 밝히고 계셨고 그분이 실제 육신으로 사망에서 정말로 부활하였음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고 계셨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고, 영이나 혹은 유령이 아니었음을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만져보라”가 그분의 말씀이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24:39). 그분의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에 그렇게 내려오시는 우리 축복의 주의 겸손은 실로 위대하였다!

여전히, 우리 주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단순한 증거 그 이상이 여기 있다. 그들에게 그분의 손과 옆구리와 발을 보이시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로써 그들에게 그분이 우리 대표자로서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부활의 상징들과, 그들을 위하여 영광 가운데 영원히 탄원하실 구속의 상징을 확신시키심을 보이셨다.

주께서는 마리아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도록 하라 하셨다 (요한복음 20:17). 그분의 상처를 보여 주심으로 그분은, “나의 승천 가운데, 이 상처들이 너희를 위하여 보이리라. 그리고 나에 의해 너희가 하늘로 보내는 모든 간청들, 내가 이 못 박혔던 손에 쥐고 너희와 너희 기도들을 우리 아버지이며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고 하셨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상처를 보여주는 주요한 이유는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여자들과 두 제자들에 의해 주어진 그 소식(그들은 믿지 않았다 - 마가복음 16:12-13; 누가복음 24:11)이 사실이었음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상처와 흉터는 그분이 구속하셨던 자들을 위한 그분의 큰 사랑의 증거이며, 그분 안에 있고 그분에 의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증거였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사야 53:4-6).

제자들은 기뻐했으며 그들 한 가운데 서계신 그들의 주였으며,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이 자신의 희생으로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마침내 밝아왔을 때 기뻐하였다. 이 제자들은 그리고 그들이 주를 보았을 때 기뻐하게 되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나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공개된 집회 가운데 그분을 경배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여지신 구원자의 모든 영적 체현으로 오늘 기뻐하게 되었다.

## 우리의 책무

셋째, 나는, 마치 그분이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으로 보내졌음을 보기 원한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

복음 20:21-23).

주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분의 증인들로 남겨두셨으며,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마태복음 28:18-20; 요한복음 17:18-20; 디모데후서 2:1-2; 디모데전서 4:13-16).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영원히 매는 죄들이 경감되거나 혹은 유지된다 (고린도후서 2:14-16).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기쁘는가!

### 경시된 경배

넷째, 만약 24 절과 25 절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없을 때, 경배를 위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를 무시할 때, 우리가 큰 축복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24-25).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에게 그분이 사망에서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게 하셨다. 그분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줄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도마는 주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

다.

우리는 그가 어디 있었으며, 왜 그곳에 있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부재로부터 배우는 공과가 있다. 그는 부활하신 주를 보는 기쁨을 놓쳤다. 그는 우리 주의 평강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쳤다. 그리고 그는 다음 절에서,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하는 그의 말로 증거하는 것처럼 평강을 놓쳤고 그 확신 그 자체를 놓쳤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한다 (히브리서 10:25). 그런 경시함은 영적 침체와 함정과 유혹과 놓친 축복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집, 경배를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고 그분 자신을 알게 하는 장소이다 (마태복음 18:20). 이곳은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내보내는 장소이다. 공중 예배는 모든 믿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면이다 (히브리서 10:23-29).

## 회복된 은혜

다섯째, 26-29 절에서 우리는 우리 사랑스런 구원자께서 그분의 가련하고, 약하며, 죄로 충만한 백성에게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를 실행하심 가운데 얼마나 은혜롭고 공훈한 가를 본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26-29)

제자들은 도마를 찾았고 큰 기쁨과 믿음의 확신으로 그에게 그들이 “주를 보았노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여자들과 천사들에 대한 간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았다. 여전히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말하였다.

도마는 나사로의 부활 때 있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분이 사망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으며, 이제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그의 친구들의 증언을 들었다. 여전히 그는 믿지 않았다.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가! 이 타락한 마음들이 얼마나 빼뚫어졌는가! 그렇다, 우리 가운데 모두 우리 하나님으로 떠난 “믿음 없는 사악한 마음”이 있다 (히브리서 3:12).

“방황하기 쉬우니, 주여, 내가 느끼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나이다!  
여기 나의 마음이 있으니, 아 취하고 인치소서,  
당신의 위에 있는 궁정을 위하여 인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우리의 불신을 없으시며 우리가 그분께 신실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디모데후서 2:13). 죄가 충만한 곳에, 그분의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다!

## 그리스도의 신성

여섯째, 우리 마음은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 도마가 그분께 그리하심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생각날 때마다 기쁘게 된다. 주 예수의 무한한 긍휼 가운데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한 번에 주셨다고 도마가 한 고백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속하고, 의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하늘에 이르게 하실 분은 없다.

## 행해진 기적들

일곱째, 우리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게 되는 경향이 있다 (30-31 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0-31).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신 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기적이다. —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시편 77:14).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선택 받은 죄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기사를 행하신다 (로마서 8:28).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그분의 축복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받으며, 그 보좌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열납된다 (사도행전 2:36; 4:11-12; 로

마서 3:19-24; 4:22-25; 요한일서 5:10-13). — 놀라운 은혜로  
다!

129 장.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요한복음 21:1-

14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

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1-14)

주 예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가? 언제 그가 그분의 소유에게로 오시는가? 언제 그분은 자신을 알게 하시는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축복의 구원자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한다. —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가 2:9). 우리는 여기 그분의 말씀에 오며,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공예배 가운데 그분의 집에 오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의 창을 바라보며 그분의 계명의 창상을 통하여 그분을 보기를 기뻐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 안에 모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1). 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렇게 묻기

를 강요당하는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한복음 14:22).

어떻게 주 예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에서 찾을 수 있다. “나타나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우리 주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마리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으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 중 일곱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마태복음 28:10, 16). 이런 나타나심은 그들이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단지 육체적으로 나타나심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분의 부활 단순한 증거 이상이었다. 이 부활 후 나타나심 가운데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그분의 부활 영광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사랑과 열정과 그분의 이루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구원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제시하시므로 자신 나타내셨다.

## 기록된 나타나심

신약 성경 안에서 그분의 부활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번의 기록된 나타나심이 있다. 더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는 모른다 (사도행전 13 장). 이 열두 번은 하나님의 책 안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1.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11-18).
2.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9-10).
3. 글로바와 그분의 동행자에게 (누가복음 24:13-35).
4. 시몬에게 (누가복음 24:34; 고린도전서 15:5).

5.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19-23).
6. 도마가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24-29).
7. 갈릴리 바다에서 일곱 명에게 (요한복음 21:1-14).
8.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16-20).
9. 오백 명에게 (고린도전서 15:6).
10.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7).
11.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서 열 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4-11; 누가복음 24:50-51).
12.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9:3-7).

## 특별한 계시

그러나 그분의 부활 후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자신을 결코 보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만 그분을 보았다. 그분이 그들 앞에 서 계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육체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었고 특별한 계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누구셨는지 아는 자는 없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것으로 우리는 부활이 결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도되지 않았음을 본다. 이 사실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익한 시각, 우리 혼에 유익한 그분에 대한 시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과 시각과

지식은 영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 세상적이지 않다 — 학문적이지 않다 — 이상적이지 않다 — 다만 영적이다!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기꺼이 알게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 예수를 어떤 경우에도 볼 수 없거나, 그분의 임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여전히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ی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는 모두 주 예수의 은혜의 전능한 역사로써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알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금의 그대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4:6; 창세기 1:1-3).

주의 소유인 우리에게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이다. 비록 우리가 거듭났지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살지만, 비록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영 안에서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하늘로 난 모든 흔들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든, 어떤 환경에서든, 혹은 어떤 조건에서든)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 놀랍고 전능한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대신하여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보거나 알 수 없다. 비록 주 예수께서 마리아 앞에서 계셨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그분을 보지 못했고 그분이 그녀에게 자신을 알게 하실 때까지 그분을 몰랐다. 비록 부활하신 구원자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걸었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실 때까지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비록 축복의 구원자께서 기적적으로 그 첫 날, 그분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일요일 저녁에 그들 한 가운데 걸어 들어가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실 때까지 그분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이다! 아 축복의 구원자여, 매일 매

일, 시간 시간마다 우리 혼에 당신 자신을 은혜롭게 알게 하시므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기쁘게 행보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방법, 우리가 위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귀한 아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서 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며 그것은 은혜에 속한 그분 자신의 은사이다. — “나타 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라 바다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 일은 구원자께서 그분 자신의 소유에게 오실 때가 특별한 때임을 가리킨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로 우리에게 그분은 항상 오시며, 우리가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 일곱 가지 특별한 때가 있는데, 그분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려는 우리 구원자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때이다.

## 가치가 없음

첫째, 주 예수께서 우리가 가장 무가치할 때 그분의 선택 하신 자에게 자신을 보여 주신다. 그분은 이 가련한 제자들에게 크게 잘못하고 슬프게도 실패한 밤 이후에 오셨다 (2-3 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일곱 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멀지 않은 어떤 장소(디베라)

에 함께 모여 있었다. 베드로가, “여보게들, 나는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려네.”라고 말했다. 고기 잡이는 그가 주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일이 있고 직업이었다. 구원자를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그에 대한 그의 주의 계획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했고, 심사숙고하고 기다리기 보단 행동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배와 그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것에서 등을 돌렸고, 그의 이전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음이 내게는 분명해 보인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이끌었던 곳으로 따라갈 준비가 되었으며, 그들은, “기다리라, 우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고 했다. 분명히,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배와 그물을 갖고 있었다. 왜 그것들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들은 바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랬다. 그 배와 그물은 그들이 혼에 덮이 되었다. — 전도자 각자는 경계하도록 하자. 모든 것을 팔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세상에 대한 염려에서 자신을 풀려나게 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 되게 하라.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도록” 엄격한 결정이 되게 하라 (로마서 1:1).

그 가련하고, 타락한 전도자들(모두 구원자를 포기하였다. 베드로는 그분을 부인하였다.)은 그들의 어부 일로 돌아갔고, 그들의 배 가운데 하나에 올랐는데, 그들이 그들은 목숨을 다하였으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러나 이 밤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에 대하여 주권적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날 밤 어떤 수확도 갖지 못하도록 그분의 타락한 제자들

을 막았다. “그들은 이런 류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Henry Mahan 목사는 기록했다. 실패와 실망은 종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대한 어떤 축복되고, 달콤한 체험을 위하여 예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만약 주께서 그분의 소유가 타락하도록 허용하신다면, 그분이 들어 올리실 것이며, 그 들림 안에서, 그분 자신을 보다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계시하실 것이다.

## 새벽

둘째,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자신을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날이 새어갈 때 보이신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4 절). Revised Version 에서 그 말씀은 이렇게 번역된다. — “날이 이제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마다, 그것은 우리 혼에 생기에 찬 새 날이 시작되는 때이다 (이사야 12:1-6; 25:9)!

그리스도께서 회개 가운데 있는 그분의 택정한 자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은혜의 새벽이 하늘로 태어난 혼 안에서 시작된다! 셋별 (베드로후서 1:19)이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를 때, 의의 해 (말라기 4:2)가 우리 혼 안에서 떠오를 때, 그 날개 안에서 치유를 받으며, 새 날이 시작된다! 그리고 구원자께서 어둠의 시절 후에 자신을 보이실 때, 그것은 우리 혼에 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슬픔이 밤 동안 견뎌올 것이다. 그러나 기쁨이 그분이 나타나실 아침에 온다!

## 고백

셋째,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그분에 대한 우리 필요를 고백하게 우리를 달콤하게 강요하시면서,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보이신다 (4-5 절). 아침이 밝아왔고 주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불과 백 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그분을 볼 수도 있었고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주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분은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지를 물으셨고, 그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분은 알고자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고, 대답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철저한 실패라는 사실에 그들이 주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완전한 실패와 무능을 달콤하고 은혜롭게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행하시려 하였던 기적에 그들이 주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선에 대한 큰 계시를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다. Robert Hawker 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도록 한다...

“그 어부들에게 있던 성공에 대한 원함은, 그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서 계시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위격과 은혜의 나타나심을 위한 축복된 일을 만들었으며, 그것이 일어나야 했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려 하실 때, 그분의 사랑을 더 크게 보이시려 그분이 때로는 방법을 예비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구속 받은 자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입증하지 않았는가 (빌립보서 4:19)?

## 그분의 위대함

넷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의 위대함을 보이시려 자신을 보이신다. —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6 절).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설명할지 모르겠다. 경험 있는 어부들은 바닷가에 서 있는 낚선 사람의 가르침에 복종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 예수의 명령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복종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밤새 수고하였고, 이제 날이 새고 있었으며, 그들은 모든 소망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바닷가에 있는 그 낚선 자의 권위 있는 음성은 약속으로 너무도 충만하게 들렸으며 즉시 복종하였다.

이것은 우리 주의 절대적인 주권의 분명한 표시이다. 그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절대 명령하시지 않는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전능자의 음성에 복종하였던 것처럼 쉽사리 즉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였다.

우리 주께서 때로는 우리가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의 신성한 위대함을 보다 충분히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남겨두실 것이다.

## 성공

다섯째, 우리 은혜로운 주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함이다. 6 절을 다시 보라. —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분의 능력의 이 위대한 나타남으로, 주 예수께서 자신을 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너무도 귀하게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셨다 (7-8 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이것과 비슷한 다른 일을 기억했다 (누가복음 5:4-11). 그들이 주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그 우화를 역시 기억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태복음 13:47-51). 복음 전도는 고기 잡이와 비유되지만, 그러나 갈고리 줄은 절대 없는 그물로 한다. 만약 갈고리로 고기를 잡으면, 갈고리를 가리고 물고기를 속여야 한다. 만약 갈고리와 미끼로 고기를 잡으면, 잡는 것은 어부의 기술에 다소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 하나님께서 그물에 고기를 넣도록 기다려야 한다!

제자들과 물고기 모두 주 예수께 순종해야 한다. 그분의 명령으로, 제자들은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다. 그리고 153 마리의 물고기가 배의 오른쪽 그물에 헤엄쳐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의 백성이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귀하게 그분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지!” 그

분은 이제 그분이 그 때 하셨던 것만큼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우리가 그분에게서 우리 영적 생계수단 찾기를 실패한다면, 그분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 그분이 발견될 것이다. 아, 얼마나 자주 주 예수께서 자신을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운 행위로 알게 하시는지! 그분은 자신의 섭리와 자신의 은혜로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셀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을 알게 하신다.

분명히, 이 복음 전도자들은 이 경험으로 배웠으며, 우리도 그래야 하고, 그로써 복음 가운데 우리 수고의 성공은 주께서 하시는 것뿐이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좌우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

## 예비

여섯째, 우리의 언제나 은혜로운 구원자, 여호와-예수, 여호와-이레는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선택한 자에게 자신을 보이신다 (9-11 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분의 부활 육신 가운데에서 조차,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냉정하고 굽주린 제자들의 육신에 대하여 모르시지 않았다. 이것이 그분의 소유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의 또 다른 나타남이다. 예비된

음식은 호사스러운 잔치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양 떼의 목자로서 그분의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비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적으로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우리 혼을 위한 그분의 예비하시는 안배 가운데 우리를 앞서신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 그분의 주권적인 예비, 그분의 특별한 선견의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해진 모든 것의 각각의 징조를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지!

## 교제

일곱째,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과 달콤한 교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자신을 보이신다 (12-14 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 사랑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시는 주는 방법을 갖고 계시다. —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 인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

가복음 24:30-31). 여기 이 가련하고, 죄로 충만하며, 타락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와 함께 앉아 있다. 그들이 주와 함께 아침을 먹으려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그분이 지금 그분이 물고기 몇 마리와 떡 한 덩어리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과 동일한 음식으로 한 때 군중을 먹이셨던 것을 회상했어야 한다 (요한복음 6:1-14). 그들은 그분의 임재에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느꼈을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지만, 얼마나 환영하는지!

우리는 흔히 주 예수께서 자신을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가장 풍성하고 대가 없는 행위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 할 때 우리 자신의 가장 자각하여 겸손한 느낌을 갖는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그리스도와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이 만날 때,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알려진 가장 달콤한 교제가 시작된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들이 그분이 주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한 자가 없었다. 그분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의심과 불신과 질문은 모두 그분의 임재로 해결되었다!

제자들은 타는 불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떡과 물고기의 식사를 발견하고 바다에서 그들의 패배와 낙심과 실패로부터 왔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것 안에 있는 공과가 놀랍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공급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실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다! 구원자의 공급은 너무도 완전하여 우리 필요의 아무 것도 더해질 필요 없다. 그분이 공급하실 때, 명령은 단순하다. “와서 먹으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구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11). 우리가 그분께 가져가는 모든 것은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죄다. 이 지치고 굶주린 제자들이 그 음식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영적 축복 앞에 서 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서 모두 예비하셨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주신다 (고린도전서 1:30-31; 골로새서 2:9-10; 에베소서 1:3-6).

“예수께서 식탁을 펼치셨네  
거기서 가련하고 궁핍한 혼이 먹게 되니,  
그가 그의 선택 백성을 초대하여,  
와서 먹으라;  
그분의 만나로 먹이시네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네.  
아 예수와 함께 먹는 것이 달콤하니 —  
와서 먹으라!

제자들이 땅에 올랐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니,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음이라,  
와서 먹으라;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의 갈망을 찾았으니,  
떡과 불 위에 있는 물고기라;  
그로써 그가 배고픈 모든 때를 만족하게 하시네! —  
와서 먹으라!

곧 어린 양이 그 신부를 취하리니  
그의 옆에 영원히 두기 위함이네,  
하늘의 모든 자가 함께 모일 것이니;

와서 먹으라;

아 영광스러운 광경이 되리니,  
모든 성도들이 흠 없이 희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잔치하리라. —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주께서 부르시네, 와서 먹으라;  
주의 상에서 잔치할 것이니, 와서 먹으라!  
다수를 먹이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가,  
끓주린 자에게 지금 부르시네, 와서 먹으라!

먹어라, 아 친구들아! 와서 먹어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이다!”

## 130 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15-17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은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5-17).

이것은 세 번째이며, 아마도 네 번째라 할 지라도 주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셨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 마디도 그들 간에 오가지 않았다. 베드로는 구원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의 문제가 주 예수에 의해서도, 베드로에 의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의 주께 개인적으로 말하고, 그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를 얼마나 고대하였겠는가. 하지만 주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만 함께 계시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대화를 연 분은 주 예수였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이 타락한 자를 질책하실까? 어떻게 그분이 베드로의 죄를 다루실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더이상 중요한 질문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께서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신지 이천 년도 더 지났다. 그러나 그 때처럼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로 구하고 유용한 것이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심으신 느낌이고 감정이고 열정이다. 누구나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우리 마음의 모든 사랑의 가치이신 분을 위하여 자리를 만드시기를. 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그분을 사랑하는 은혜를 위하여!

이것은 광신이나, 신들림이나, 주정주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기를 주장하는 모든 자의 합리적인 숙고를 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요한일서 4:19),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는 자가 아니며, 구원 받지 않았다.

## 그리스도의 계획

첫째, 베드로에게서 이 사랑의 고백을 짜내는 우리 주의 계획이 모두 은혜로웠음을 보여주기 원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시험은, 그것으로 그분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입증하였던 사

랑이었다. 주 예수는, “나를 존경했느냐, 아니면 내게 복종하였느냐, 아니면 내게 대한 너의 의무를 행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고 묻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지 한 가지만 물으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사람이 우리 구원자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세 번 한 것이 그에게 그가 그분을 세 번 부인하였던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없다. 사실상, 여기서 우리 주의 의도가 베드로의 죄의식과 치욕감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 있는 그의 유익을 그 사랑스런 제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택정한 자에게 대한 잘 알려지고 오랜 동안 입증된 사랑과 은혜가 구원자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을 세 번 하셨던 것은 그의 타락한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랑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세 번 공개적으로 반복하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확신을 갖고 “주여, 내가 주를 진실로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베드로가 그의 세 번의 부인이 하나님께 자녀로서 그의 실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려는 주님의 방법이였다. 그것은 실재의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는 죄였다 (로마서 7:15-20).

우리 주의 언짢음을 보여주는 대신에, 그의 출연과 베드로와의 대화는 내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침을 그분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이려 그분의 백성을 향한 우리 사랑의 구원자의 온화함에 대한 기록에서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분의 택하신 자가 크게 약함을 보일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보이신다. 우리가 타락할 때,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은혜의 달콤한 실행 가운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더 큰 사랑을 보일 수 있게 하신다. 베드로에게서 이 공개적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함에 있어서 우리 주의 은혜로운 의도가 위선자들을 떨게 하는 바로 그것이 참 믿는 자를 위로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타난다. 그것이 우리 주의 전지하심이다. —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분은 내가 천연적으로 어떠한지, 무엇을 했는지, 나를 위하여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은혜로 나를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그분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아신다. 기록되기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사야 53:11) 그리고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17)

우리 구원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대단히 부끄러운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은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오셨으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그 때 그분의 구원자에 대한 사랑의 이 확고한 고백을 그에게서 끌어냈다. 그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더 나아가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 양과 그분의 양 떼를 보살필 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확신시키셨다. 그것은 마치 구원자께서,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내게 향한 너의 큰 사랑을 알고 있고, 그만큼 나는 네가 나의 사랑의 백성을 관심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셨던 것과 같다.

## 목자들의 일

둘째, 주의 양 떼를 먹이는 것은 모든 목자 하에서의 일이고, 모든 복음 전도자의 일이며, 모든 목사의 일이다. 그리스도는 양 떼의 위대한 목자이다. 그분은 그분의 무리의 위대한 목사이다. 그리스도의 양 떼를 먹이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분은 모든 양 떼의 생명이고 양식이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다. 그분의 육신은 참으로 음식이며, 그분의 피는 참으로 음료이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구원자는 그분 자신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백성에게 지식과 깨달음을 먹이시려, 자신을 낮추어 그의 양 떼를 목자들 아래로, 목사들 아래로 주신다 (베드로전서 5:1-4). 주의 충성스런 목자 아래에서 그분의 양 떼, 그분의 어린 자들을 부드럽게 먹이신다. 이들 목사들은 우리의 양을 먹이고 그들을 인도한다. 목사의 첫 번째 우선적인 자격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다. — 말하는 자와 인도 자로서 사람의 능력은, 그가 가능한 가장 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의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 믿는 자들의 사랑

셋째, 나는 모든 참된 믿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기 원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철저히 혼돈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국가,” 혹은 “그리스도인 가정,” 혹은 그리스도교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인이라고 어리석게도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

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모든 것에서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이상이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만약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 (요한복음 8:42; 고린도전서 16:22).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구원의 믿음을 나눌 수 없이 함께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13; 갈라디아서 5:6). 사랑은 강탈할 수도 없고 믿음의 자리를 취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혼이 연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다.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의 물을 퍼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다. 양심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 있는 곳마다, 사랑이 살아 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역사의 동기이고 원동력이다 (고린도후서 8:7). 아주 드물게, 만약 있다면, 의무감에서 혹은 단지 옳고 그름의 지식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진다. 손이 먼저 가기 전에 마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위대한 것들을 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신경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위격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의무 십일조. 사랑 주기. 의무가 교회에 간다. 사랑이 경배하러 온다. 의무가 말씀 읽는다. 사랑은 그것을 이해하려 한다. 의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됨의 공통 지점이다. 다른 교회와 교파들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이다. 모든 참 그리스

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공통의 만남의 지점을 제시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은 하나됨을 준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차이점들을 용해한다 (골로새서 3:11).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하늘 가운데 모든 구속 받은 자의 구별된 표시가 될 것이다.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다수는 한 생각에 있을 것이다. 예전의 차이점들은 잊혀질 것이다. 낡은 세속적인 논쟁은 내려놓게 될 것이다. 은혜의 보좌 주변에 하늘 가운데, 모두는 한 생각과 한 마음에 속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이다 (계시록 1:5-6).

## 동기 원인

이 사랑의 비밀을 알겠는가? 구원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4:19 를 읽고, 그 비밀을 배워라.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담의 아들딸 중 아무도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5). 그러나 하나님께 난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다.”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영원히 우리의 그분에 대한 사랑에 앞선다 (예레미야 31:3).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히 그분에 대한 우리 사랑을 초월한다 (로마서 5:8; 요한일서 3:16; 4:9-10).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 사랑의 동기이다.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분의 어떠한 사랑 때문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 때문이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부르신 약속된 때에 우리 반역과 불신의 날들을 통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셨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생명과 믿음을 효험 있게 창조하시며 우리를 전능하신 공홀로 부르셨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셀 수 없는 시험과 유혹과 타락의 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실 분은 우리 사랑의 구원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가 하신 모든 것, 우리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심 (로마서 8:28),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모든 확실한 중재 때문이며, 그분의 날마다, 모든 충만의 은혜와 확실한 공홀 때문이다. 어떤 믿는 자든 “왜 당신은 주를 사랑하는가?”라고 질문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 자신만의 주기 위함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누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 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자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 부르며.” (시편 116:1-13).

## 사랑은 알 수 있다

여전히,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혹은 그것의 부족이 알 수 있고 알려져야 하는 것임을 마지막으로 당신이 보기 원한다. 사랑은 모호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추측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사람이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것이다.

J.C. Ryle 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그 자체를 보여주겠는가? 남편과 아내 사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는? 형제와 자매 사이는? 친구지간 에는? 상식과 관찰로 이 질문에 답하도록 하자…그러면 우리 앞의 문제가 풀린다.”라고 썼다. 그리고 그는 사랑을 알게 하는 여덟 가지 간단한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여덟 가지 사항으로,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할 수 있다면, 이 글

을 읽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1. 나는 그에 대하여 생각하길 좋아 한다. 그가 내 마음 속에 거한다 (에베소서 3:17).
2. 나는 그에 대하여 듣기를 좋아한다.
3. 나는 그에 대하여 읽기를 좋아한다.
4. 나는 그를 기쁘게 하기를 좋아한다.
5. 나는 그의 친구를 좋아한다.
6. 나는 그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고 보호하려 애쓴다.
7.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8. 나는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이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고하라. 그 질문을 조심스럽게 살펴 보라. 그리고 정직하게 그에 대답하라.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외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애가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또 내가 곧 그렇게 할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나요, 아 나의 주여?

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보소서;  
그리고 모든 혐오스런 우상을 없애소서  
감히 당신께 대적하려 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니, 사랑스런 주여;  
그러나, 아, 높이 오르길 갈망하니  
인간적 기쁨의 영역에서 멀리로,  
또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를 배우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혼은 큰 위협에 있다! 당신은 길 잃었고,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있다. 사랑의 부족에 대한 유일한 치유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말씀의 사역에 참석하는 것이 당신의 일로 삼으라. 복음을 들어라,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만약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는 것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 하지 말라. 그분을 위하여 증거하라. 그분을 위하여 살라. 그분을 위하여 일하라. 그분께 자신을 헌신하라 (로마서 12:1-2).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을 위하여 너무도 철저히 살수 없으며, 그분을 너무도 담대히 고백할 수 없으며, 혹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진실로 헌신할 수 없다. —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47)

## 131 장. “네게 무슨 상관이나?”—요한복음 21:18-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떠 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 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니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줄 아노라.” (요한복음 21:18-25).

신약 성경에서, 누구든 우리 주께 와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이

나,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불평할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날카롭게 질책하셨다 (누가복음 9:49-50; 10:38-50; 요한복음 21:18-25).

## 배경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 구원자의 교회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13-16 장에서 볼 수 있다. 17 장에서, 그분은 우리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대제사장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18 장에서, 유다의 인도로 한 무리의 군병이 그분을 잡으려 왔을 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기도하시며, 우리 대속자로서 그가 고난 받으셔야 할 모든 것을 예견하시는 그분을 동산에서 본다.

이 군병들이 그분을 체포하려 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의 주를 지키기 위하여 즉시 일어났다 (10 절). 우리 구원자는 자원하여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려 자신을 내어 드렸으나, 오직 그분 자신의 택정한 자들을 살리는 조건하에서만 이었다 (8-12 절). 구원자는 관정으로 끌려가셨으며, 베드로는 그분을 세 번 부인하였다 (18:27).

그리고, 우리 축복의 대속자는 자신을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 구속을 성취하셨다 (19:28-30). 제 삼일[1], 이른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시며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20:1-17).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은 도마가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인 일주일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21 장에서 그분은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베드로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분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베드로 자신의 마음에)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다.

그 이야기를 당신은 안다.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은 그에게 명령하셨다 —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의 주를 세 번 부인하였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의 진정 어린 사랑을 세 번 고백하고, 주님에 의해 세 번 그분의 백성을 먹일 것을 명령 받는다. 이제 22 절을 읽어 보라.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 질문

“네게 무슨 상관이나?” 그것이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요한은 그의 복음 이야기를 결론지으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베드로와 우리에게 우리가 배우기 매우 힘든 공과를 가르치면서 결론을 지으신다. —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보살핌에 남겨두어야 한다. —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쫓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4).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소유도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은 그분의 소유이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확실히 원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의해 판단 받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의해 통제 받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의해서 내몰려서는 안 된다. 종교는 사람들을 눈멀게 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어지는 당신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절대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는 당신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지 않는지는 당신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아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에 대하여 완전하게 보살필 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는 전시간 직업을 갖고 있으며, 많은 시간외 초과 근무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살핀다! 따라서 우리가 명령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자.” (테살로니가전서 4:11). —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어지는 당신의 일도 아니고 나의 일도 절대적으로 아니다. — “그 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매.” (로마서 14:4).

## 확실한 은혜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당하고 죽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충동적이고 때로는 그의 젊음으로 변덕스러우나, 베드로는 종국에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되게 될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랬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충성심 때문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확신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18-19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떠 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 뜨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 악한 질문

그리고, 그들이 바닷가를 따라서 걸을 때, 베드로는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을 보았을 때, 그는, “주여, 당신께서 제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요한은 어떤지요,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 (20-21 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순진한 질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끔찍하게 악하다. 그것은 베드로의 교만한 마음에서 생긴 질문이었다. 그것은 결코 질문하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만약 생각해 본다면, 주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악함을 가져다 주기에 확실했을 질문이다. 그 지점에서 주님은 중단을 시켜야 했으며, 베드로를 돌아보며,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준엄한 충고와 책망을 하셨다 —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 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22 절).

여기 당신과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이 있다. 그분은,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언제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그러나 다른 제자가 무엇을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나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염려하는 것조차 결코 우리 책무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참 믿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다툼과 분열은 이 한 가지, 교만의 악으로 귀결될 수 있다. —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시는 가에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스스로 문제 삼는다.

### **우리 최우선 책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최우선 책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의 결과와 영향과 함축된 의미를 안다. 만약 우리가 감히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려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있을지 안다. 그러나, 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얼마나 기도하는지.

당신과 나의 삶의 주된 일, 당신과 나의 삶의 최우선적이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되이 사는 것이다! 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고 죽기보다는 차라리 당신과 내가 결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당신과 내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복음의 명령이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구원과 제자직분을 분리하려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마태복음 4:18-22; 16:24-26; 19:20-22).

만약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의 불멸의 혼의 구원을 당신 삶의 최우선 관심사로 만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당신의 혼을 당신의 첫 번째 관심사로 만들라, 필요하다면,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게 하라. 만일 당신이 전 세상을 얻고도 당신 자신의 혼을 잃으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당신의 죄 때문에 저주 받고 징죄 받았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영원히 고통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영원히 구원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의지를 따르고 영원히 저주 받을 것인가? (신명기 30:15, 19).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분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당신의 주로서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분에 의해 구원 받는 것이다.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이것이 당신께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 —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또한 믿음의 특징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형제 자매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그분의 온전한 의를 옷 입었고,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났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의 말씀은 이것이다 — “너는 나를 따르라!”

주되고, 최우선적이며, 모든 것을 망라하는 우리 삶의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 보장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베드로는 믿는 자였고, 전도자였고, 그리고 사도였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하신 우리 주의 명령이었다: — “나를 따르라…너는 나를 따르라!” C. H. Spurgeon 은, “우리가 목표하는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것이고, 그분이 죽으셨던 것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떠라 할 수 있는 한, 그분이 하신 것을 하며, 그분이 사람들의 아들딸 한 가운데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일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를 가르치는 것이다 (디도서 2:11-14).

제자는 그의 스승이 산 그 삶을 살려 배우는 자이다. 제자직분은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 그 이상이다. 그것은 스승의 어떠한 것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것 그 이상이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삶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Calvin 이나 Gill 이나 Spurgeon 이나 사람에 불과한 다른 어떤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

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나는 나의 교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성품과 나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형성하고자 한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내 삶의 법이고 모범이다 (요한복음 13:15; 베드로전서 2:21).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들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그분의 포도원에 심겨졌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피조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특징이며, 일이다 (빌립보서 3:7-21).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분을 섬길 수 있고, 다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장소와 위치와 은사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 받은 소명이다. 당신의 세상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 없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첫째로 그리고 가장 먼저 그분의 종이다. 그것이 당신의 직업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직업과 함께 두셨으며, 다른 사람 누구도 이르지 못하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두셨다. 모든 구원 받은 죄인들은 선교사들이다. 모든 구원 받은 죄인들은 그분의 증인이다. 그것이 무엇이 선교인가이다 — 그분의 증인이다! 모든 구원 받은 조인들은 순교자들이며, 그분의 명령에 그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원하여 내려 놓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 누구든 사업을 운영하고, 기록 문서를 보관하고, 집을 짓고, 수도관을 연결하고, 보험을 팔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하도록 피조 되었다고 믿지 않는다. 당신과 내가 해야 할 보다 큰 일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장소에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피조되었다 (고린도전서 7:20-24).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현재 있는 곳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구하게 하려는 은사와 재능과 수단들 지니게 하셨다 (요한복음 20:21; 히브리서 12:1-2). 이것이 당신의 삶의 일이고, 직업이며, 소명이다: — “너는 나를 따르라!”

## 자원한 복종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해야 한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받고 인내하여야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요한을 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하신 주님의 대답은,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였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임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이유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수고한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양 떼를 먹이며, 그분의 영광을 높인다. 그러나 각각의 개개의 믿는 자는 주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주 앞에서 있거나 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책임, 우리 자신의 사역, 우리 자신의 부르심, 우리 자신의 충성심으로 점유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기꺼이 도와야 한다 (선교사, 교

회, 목사, 등등.).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배제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것을 하도록 부르셨는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무엇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련 있는 것이 그의 일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고 그분의 일이지만, 나의 일이 아니다 (로마서 14: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참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치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테살로니가전서 4:11; 베드로전서 4:14-16).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2:22-24).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필요나 관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려 한다면 우리 삶을 버려야 한다. 나는 나의 가족이 그분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나는 개인적인 기호에 무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나는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8-10).

## 가장 합리적인

우리가 이 한 가지 평생의 직업에 우리 자신을 한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너는 나를 따르라!” — 내가 대가를 치르는 책무, 육신에 반하는 많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부정

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책무를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당신과 나에게 우리 자신을 무조건적이고, 자원하고, 전심을 다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속한 복음에 속한 책무에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 주께서 당신과 내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은 가장 합리적이다.

-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 (고린도전서 6:19-20). —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취하여 헛된 것에 그것을 허비하겠는가?
- 우리 능력은 너무도 제한적이다. — 나는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능력과 짧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을 구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 우리 시간은 너무도 제한적이다! — “시간은 짧다” (고린도전서 7:29).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시간을 구속하고 (에베소서 5:16)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하자!

내 형제여, 내 자매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첩경에서 누구도 당신의 진로를 바꾸게 허락하지 말라. 그것에, 다른 어떤 것 위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도록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그분 자신의 뚫린 손으로, 그리스도의 활에서 쏘아진 화살처럼 각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순종의 길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말자.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의 지체들로서 이 시대에 개인적이고 선택적

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이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지 기이하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도록 그분이 만드셨을까? 그분의 왕국을 섬김에 있어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당신은 모두 자유한 사람이며, 자유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당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예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순히 성령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요청한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다면,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따라서 죄인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하라. 당신의 시간과 돈과 능력을 복음을 확대하는데 사용하라. 주변의 멸망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위하여 당신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말해줘라. 당신의 일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역하고 섬기는 일로 삼아라.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나 서로를 심판하려 하지 말고, 서로를 잘 다루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당신이나 나의 일과 무관하다. 모든 그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 그리스도를 따르라. — 이것은 복음의 명령이다.
- 그리스도를 따르라. — 이것은 믿음의 삶이다.
- 만약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곧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36).

## 132 장. “이 외에도”—요한복음 21:25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21:25)

이것은 요한의 감동 받은 그의 복음 이야기에 결론을 맺는 문장이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의 이야기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감동하셨던 바로 그 마지막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행보하셨던 동안 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이 “이 외에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듣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 “이 외에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하여 들었는가?

분명히 이런 “이 외에도”가 우리 구원자의 가르침, 성경 안에서 충만이 계시되었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안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구원자에 의해 행해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분의 어린 시절, 그분의 가족, 그분의 인간다움에 대하여 많은 것이 단순히 그리고 지혜롭게 가리워져 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받은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도록 선택하셨던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에서 생략하였던 것들인 우리 주에 의해 행해진 분명히 많은 “이 외에도”가 있었다. 설교와 기도들, 그

분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간에 다른 경우에 했던 대화들, 그리고 다른 표적과 기적들, 그분에 의해 행해졌던 기적 같은 역사들이다.

###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우리 구원자께서 행하셨던 것을 그 모든 관련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종이에 기록한다면, 요한은 말한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것은 놀라운 문장이다. —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마도 요한은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구속자의 성육신, 삶, 사역,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기록을 그분의 말씀 안에 지혜롭게 주셨으며, 그것은 아마도 쉽게 또 기쁘게 읽혀 질 수 있다. 여기 우리에게 그리스도교 전체에 관련한 모든 것이 주어져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하여 알게 될 필요가 있다.

-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격
- 그리스도의 성육신
- 그분의 기적들
- 그분의 가르침
- 그분의 의로운 순종
- 그분의 위임된 고난
-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

- 그분의 승리의 부활
- 그분의 하늘로의 승천
- 그분의 영화로운 찬양
-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 그분의 하늘의 중재
-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이런 것들은 세상이 깨달을 수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천연적인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수 없고,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세상은 그것들을 거절하고 경멸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게는 어리석음이다.

이 단락에서 요한의 말은 과장법이 아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공훈과 사랑과 은혜의 이 경이로움에 더하여, 요한은 그의 복음을 우리에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라고 말함으로써 시작한다. 만약 누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모든 일들을 종합하려 시도하였다면, 세상은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한 책들을 담을 수 없다.

## 이 외에도

그 “이 외에도”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20:30-31 로 돌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에서 너무도 많고도 많은 “이 외에도”에 대하여 생략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하신 것을 보라. 이 책에 쉽사리 포함할 수 있을 많은 것들을 그가 왜 이 책에서 생략했는가? 왜 너무도 많은 “이 외에도”가 생략되었고 오직 아주

특정하고 경이로운 것들만 보여졌는가? 요한복음 20:30-31 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믿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20:31).

## 성경의 계획

첫째, 요한은 우리에게 성경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성경은 의혹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에 관련된 사실과 진리의 확실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글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0-31). — 분명히, 요한은 자신의 기록과 다른 복음 저자들의 기록대로 우리 구원자의 인격과 역사에 대한 특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진리이

다.

## 누가복음 24 장

누가복음 24:13-35 를 읽어보라. 여기 계시된 것은 매우 보배롭고, 매우 달콤하며, 매우 하늘에 속하여서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다. 실로, 직접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함께 걸었듯이,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의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셨다. —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27). Robert Hawker 는 그 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평이한 말로, 성경의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한 계시의 이 들판에 있는 아주 비싼 진주이다. 노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책을 우리가 열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기 바란다. 그분이 성경을 그들에게 여셨을 때처럼,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여시길 바란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속에서부터 뜨겁게 하였던 것처럼, 아, 우리가 신성한 책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 혼에 유익이 없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이 없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나는 Martin Luther 에 완전히 동의한다. 그는, “상호 참조함이 없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성경 안에 없다…우리가 아기를 찾기 위하여 요람으로만 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성경으로만 간다.”

Robert Murray M'Cheyne 은 전깃불에 대하여 꿈을 꾸는 누구보다도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Scotland 의 Dundee 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그의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두운 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보기도 어려울 때, 그것을 좀더 빛을 얻기 위하여 창으로 가져간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리스도는 성경의 관찰 기구며, 하나님의 계시의 집약이고 본질이다. 그리스도를 이 책에서 없애면 남는 것은 모두 가죽 표지에 쌓여서 금박을 입힌 테두리의 가공된 나무이다.

## 한 가지 말씀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전도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게 할 수 있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하나님의 책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지식의 열쇠”이다. 열쇠가 없으면, 보석함을 결코 열 수 없으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 — 그들은 단지 더듬기만 한다. 성경은 과학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것은 도덕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것은 역사나, 정치나, 철학이나, 법에 관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심지어 예언이나, 교회 신조나, 신학에 관한 책은 더욱이 아니다. 이것은 그분의 책이다. 그것은 모두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책을 전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

는 그 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았으며, 이 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다. 이 책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지면은, 한 쪽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성경의 말씀이고 주제이며, 그분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분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39). —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27, 44-47).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는 것과 동의어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사도행전 20:26-27 에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2:2 에서 그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썼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

였음이라.” 두 곳 모두에서, 그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계획하셨고, 명령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을 가진 책이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의와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만 전해진다 (베드로전서 1:23-25). 모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를 부른다 (창세기 3:15; 22:13-14; 49:10; 신명기 18:15-18; 욥기 19; 시편 2:7-8; 24; 45:6-7; 110:3; 잠언 8:22-23; 아가; 이사야 53; 미가 5:2; 스가랴 12:10; 말라기 3:1).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에 더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오심을 예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표와 그림들을 주셨다 (예표적 백성 — 예표적 사건 — 예표적 사건 — 예표적 장소 — 예표적 율법, 의식과 안식일 등이다 (골로새서 2:16-17)). 전체 신약의 가르침과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신약 안에서 규정된 경배의 조례들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일이다. 미국 청교도인 Cotton Mather는 그의 학생들에게 뜻에 속한 이 지혜와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쳤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제들 가운데, 내가 당신에게 강하게 바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 잊혀지지 않

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광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전람하라. 그렇다. 당신의 사역 전체 위에 주제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주장하고, 복음 전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각자가, 그 말씀에 유의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강단을 채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로 결심되었다면 얼마나 축복되었는가!

그것이 바울의 결심이였다 (고린도전서 2:2). 그것이 모든 전도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모든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17-25).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다 (사도행전 20:27).

그분은 성경의 단일 주제이다. 그분은 모든 참된 가르침의 총체이고 본질이다. 그분은 복음 포고의 생명이다. 그분은 모든 참된 경배의 비밀스런 성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시는 시은 좌이다. 그분은 모든 거룩과 순종과 섬김과 헌신의 동기이다. 그분은 하늘 영광의 보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그분은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이다. 그분은 진리의 계시자이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이다. 그분은 생명을 주는 분이이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져왔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가 들어 있는 옥합에 비유될 수 있다 (마가복음 14:1-9). 그 옥합이 깨졌을 때 기름이 쏟아졌으며, 달콤한 향기가 방안 가득하였다. 복음 전도자들은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열었던 여자와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집에 오며, 그것을 깨뜨리고, 성경을 해설하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그 집을 채운다. 하나님의 책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신성한 주권에 대하여 언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선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택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분의 선택이며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전적인 부패는 완전히 성경적 가르침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제한적 속량은 그리스도에 의한 효험 있는 구속과 은혜에 대한 성경적 확신이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임에 대한 선포이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혹은 효험 있는 부르심은 혼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계시이며, 그것은 선택 받은 자가 그분께 오게 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것이며, 거듭남 가운데 시작되고 영화롭게 됨 가운데 완성된다.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을 붙잡는 것이고 생명과 믿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침례는 믿는 자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공개적 고백이다. 물 속 무덤 속에 상징적으로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완성된 구속의 역

사 안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한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축복된 기억이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전도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어떤 다른 것도 전도가 아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전도가 아니다!

그분의 모든 구원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높여지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누가복음 24 장에서 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말하며 떠나게 될 것이다. —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32)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은 66 권의 놀라운 도서관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책, 하나의 말씀을 가진 것이라는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책은 오직 하나의 계획만 있다. 하나님의 책 전체, 그리고 그것의 각 부분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말하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놀라운 공과이다! 이 한 가지 사항,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불멸의 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수고하도록 하자. —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전하고 글 쓰는 은혜를 주시고, 교리를 조장하지 않고, 교파를 세우지 않으며, 역사를 유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지 않으며, 오직 “너희로 예수

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만을 높이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도록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록되었고,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기록되었다!

### 구원의 믿음의 목적

성경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것임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요한복음 안의 이 마지막 공과의 대부분을 나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제, 둘째로, 구원의 믿음의 유일한 목적을 당신에게 간단히 보여주도록 하겠다. —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구원의 믿음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이다. — 그것이 무슨 뜻인가? 슬프게도, 그 대답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대답한다. —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요한일서 2:22; 5:1).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포함하며, 인자, 나사렛 예수께서 실질적이고 효험 있게 성취하였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임을 말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믿는 것이다 (이사야 53; 다니엘 9:24).

C. H. Spurgeon 이 한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인되었고, 조롱 받았지만, 결코 전도하지 않았던 한 알려진 교회 건물을 지나갔다. 이런 간판이 그 주의 말씀의 제목으로 앞에 게시되어 있었다 — “Crucifiction.”

비록 “crucifixion” 과 “crucifiction”이 발음 할 때 같은 소리를 내

지만,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시대의 종교적 세상은 갈보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한편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우리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은 그분이 성취하셨던 것을 부인 한다. 오늘날 진행되는 전도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과 의의 순종으로 성취된 효험 있는 구속과 구원을 부인한다 (빌립보서 2:7-9; 히브리서 2:17; 9:12). 그분의 피가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뿌려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누구에게든 구원을 보장하고 성취하지 않았다고 전할 때, 당신은 “crucifiction”을 전하는 것이다. (\*역주: crucifiction 은 crucifixion 의 일반적인 철자 오류. 속어의 의미로 어떤 사람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여 비난하는 거짓의 말을 뜻함.)

성경이 “crucifiction”을 가르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던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친다 (마태복음 1:21; 히브리서 9:12).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죄가 속량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요한일서 4:10), 공의가 만족되었고 (갈라디아서 3:13), 하나님의 율법이 존귀하게 되었으며 (로마서 5:19-21; 빌립보서 3:9), 구원이 성취되었고 (요한복음 17:4; 19:30),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속량 받았다 (사도행전 20:28). 그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알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며, 전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고린도전서 2:2).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를 제외한 영광을 거절한 이유이기도 하다 (갈라디아서 6:14).

당신은 “crucifixion”을 믿는가 “crucifiction”을 믿는가? 그 차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거나, 아담 안에 있는 공의의 정죄이다 (로마서 5:19).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를 효험 있게 없애지 않고 (히브리서 9:26) 구원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17:4; 19:30), 구속에 대한 당신의 소망은 단순한 소설이고 철저한 거짓이며, 실제도 진리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2:20-21; 요한일서 5:21).

### 믿음과 함께 생명의 연결

셋째, 요한은 믿음과 함께 생명의 연결을 보여준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당신의 마음에 이 책의 말씀을 인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당신에게 영생을 주지 않는다. 영생의 은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역사하는 분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게 하시면서, 은혜의 모든 충만을 그 안에 가져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영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영생은 당신의 소유이고, 당신은 영생을 가졌다.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아멘.

---

<sup>i</sup>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성령에 대한 그들의 모독이었다 (마태복음 12): — 비록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였지만, 그들은 그에게 옳드리는 대신 마귀의 역사라고 하였다.

<sup>ii</sup> 23 절에서 “믿다”라고 번역된 말은 24 절에서 “의탁하다”로 번역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단어이다.

<sup>iii</sup> “우리 구원자는 구호품으로 사시지 않았다.” - *John Trapp*

<sup>iv</sup>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그분의 피를 아직 흘리지 않으셨다고 이해한다. 나는 또 그분이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안다 (계시록 13:8; 17:8).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들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속 받았으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정말로 미리 예정된 분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았다!

<sup>v</sup> 자기 의가 인간 육체 가운데 번성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처럼 간통남과 간통녀 사이에 충만한 것과 추기경들의 마음 속에서 처럼 범죄자들의 마음 속에서 잘 번성하는 것과 같다. - 니고테모가 자신과 그의 종교를 변론하면서 주와 신학을 논쟁하였던 것처럼, 이 간부도 그랬다!

<sup>vi</sup> 우리 주께서는 그분 앞에 간음한 여자를 데려온 바리새인들에 의해 방해 받았다. 일단 그분이 그 가련한 죄인에게 대가 없는 용서의 긍휼과 은혜를 주셨으며, 그분은 성전 보고 앞으로 걸어 가셨으며 (제사장들이 성전 연보 궤를 두었던 매우 중요한 장소임),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셨다.

<sup>vii</sup> John Gill 은, “이 절기는 봉헌절로서, Judas Maccabaeus 와 그 형제들에 의해 지정되었고, 성전을 정화하고, 제단을 새로하는 것으로써 Antiochus 에 의해 그들이 더럽혀진 후였다. 그 절기는 팔 일 동안 지속되었고, 지금의

---

12 월에 해당하는 Cisleu 월의 25 일에 시작되었다.

<sup>viii</su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덕에 언제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의 왕이 되실 것이다.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처의 왕이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길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증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는데, 그것은 우리 증보자로서 죽음에 이르는 그분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삼일 여호와에 의해서 하나님-사람이신 그분께 주어진 왕권과 통치권이다.

<sup>ix</sup> 아, 복음의 빛을 받고, 복음을 들을 곳이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가 있음이 어떤 특권인가! — 하나님은 순간 빛을 가져가실 수 있다!

<sup>x</sup> 아무도 우리 주께서 오실 날이나 시를 아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다 (마태복음 24:36; 마가복음 13:32; 사도행전 1:7). 만약 우리가 그 날이나 시를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의 의무와 관련해서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 그분의 약속에 만족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sup>xi</sup> 거룩함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현재의 악한 세상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sup>xii</sup> *The Tozer Pulpit*, Volume 8, pp 23-25

<sup>xiii</sup> *The Tozer Pulpit*, Volume 8, pp 23-25